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2년 기준)

2023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일러두기

- 서울서베이는 도시 정책지표를 개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하였음
- 서울서베이는 2003년 처음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당해 서울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도시정책지표를 리뷰·보완하고, 2022년 기준의 지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및 설문조사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시계열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02-2133-4365)으로 문의
- 참여 연구진

연구 총괄	
• 변미리 (포용도시연구본부장)	
• 김해란 (포용도시연구본부 연구원)	
• 최지원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분야별 연구	
인구와 가구	변미리 (포용도시연구본부장)
경제와 노동	우영진 (미래융합전략실 부연구위원)
도시생활과 주거	김호기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상일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건강과 보건	김성아 (미래융합전략실 부연구위원)
안전과 재난	원종석 (지속가능연구본부 안전인프라연구실 연구위원)
환경	최유진 (지속가능연구본부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교통	이신해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화와 여가	백선헤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육과 돌봄	변금선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가치와 의식	김상현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자문위원
 -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 최바울(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 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목차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2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2
1. 추진 배경과 목적	2
2. 추진 연혁	4
제2절 추진 방법	5
1.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축	5
2. 행정자료 조사	9
3. 가구조사	10
4. 시민조사	15
5. 서울 거주 외국인조사	18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21
1. 연구 추진 일정	21
2. 조사표 기획 및 조사표 문항 검토	21
3. 서울시 수요조사	25
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31
5.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 Seoul at a Glance(영문판)	32
6. 심층분석 보고서	38

제2장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42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42

1. 도시정책지표체계의 진화 42
2. 도시정책지표의 역할과 지위 검토 42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43

1. 도시정책지표 검토 과정 43
2. 도시정책지표체계 변경 내역 45
3. 도시정책지표 개선 방향 51
4. 도시정책지표 업데이트 현황 52

제3장 2023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58

제1절 인구와 가구 58

1. 서울인구 58
2. 서울가구 66
3. 서울 거주 외국인 73

제2절 경제와 노동 80

1. 경제활력 80
2. 소득과 고용 87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100

1. 주거 100
2. 스마트도시 역량 111
3. 스마트도시 격차 116

제4절 건강과 보건	120
1. 건강한 삶	120
2. 지역보건	133
제5절 안전과 재난	143
1. 자연재난	143
2. 사회재난	150
3. 사회안전	158
제6절 환경	167
1. 대기와 녹지	167
2. 물 순환과 자원순환	173
3. 에너지	179
제7절 교통	187
1. 교통인프라	187
2. 교통서비스	197
제8절 문화와 여가	207
1. 문화활동과 향유	207
2. 문화기반	217
3. 여가활동과 향유	224
제9절 교육과 돌봄	227
1. 교육 및 보육환경	227
2. 사회적 약자 보호	237
3. 성평등성	247

제10절 가치와 의식	254
1. 시민성	254
2. 포용성	260
3. 통합성	268
[부록1] 2023 도시정책지표 정의서	277
[부록2] 2023 도시정책지표 통계표	299
[부록3] 2022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465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제2절 추진 방법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1. 추진 배경과 목적

1)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도시민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정책지표체계인 서울서베이

호모 어바너스(Homo Urbanus)의 시대. 도시에 사는 인류라는 의미이다. 인류의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가 이제 국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도시인구의 성장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인구는 1960년에 33.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 50%를 넘었고, 2019년 기준 인구의 55.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UN의 인구예측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68%가 도시 지역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미 북미와 유럽의 도시인구 비율은 75%를 넘었다. 이처럼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곧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창의적 기회를 위해 계속해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세기에 행위 주체로서의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의 수도로서, 더욱이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에서 점차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위상 변화에 조응하는 지역단위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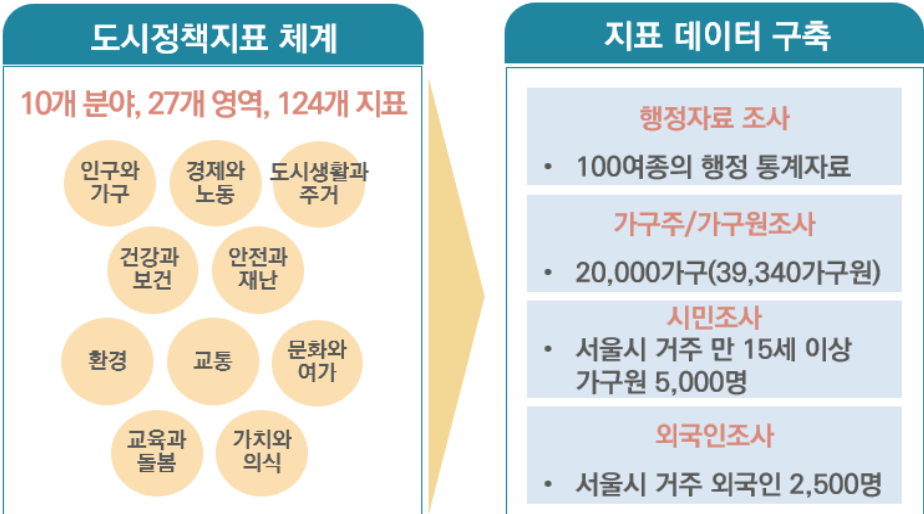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적, 정책적 환경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분석하는 지속적 도시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단위의 통계와 데이터 생산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시의 도시정책지표체계인 서울서베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사회 모니터링 체계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은 도시정책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통계 생산, 시계열적인 도시모니터링 체제의 유지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사업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의 주요 영역은 1) 도시정책지표체계 구축, 2) 지표의 자료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조사, 3) 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4)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의 사회변화 모습 제시, 5) 서울시 행정영역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연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2) 서울서베이 목표

2023 서울서베이는 도시와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상, 가치관 변화 등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된 정책지표를 시정지표로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관련 행정자료 및 현장 방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성과 조사 모듈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는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가구주 대상 조사(20,000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조사(39,340명) 이외에 시의성 있는 이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조사(5,000명)와 외국인조사(2,500명)를 병행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데이터 생산 및 자료 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1-1〉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2. 추진 연혁

〈표 1-1〉 도시정책지표 추진 연혁

내용	시기
서울서베이 기본 계획 수립	2003년 1월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설계	2003년 4~11월
제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및 사업체조사 실시	2003년 11월
제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4년 10월
제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5년 10월
제4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6년 10월
제5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외국인 1,000명 대상 조사	2007년 10월
제6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8년 10월
제7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외국인조사 표본 확대 (1,000명 → 2,500명)	2009년 10월
제8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0년 10월
제9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순환조사 (매년 조사 → 2년 주기 분야별 조사)	2011년 10월
제10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2년 10월
제1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3년 10월
제1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한눈에 보는 서울 (국문) 신규 발간	2014년 10월 2015년 12월
제1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사업체조사 분리 (전국 사업체조사에 통합) · 한눈에 보는 서울 (영문) 신규 발간	2015년 10월 2016년 12월
제14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6년 10월
제15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조사 시기 조정 (10월 → 9월)	2017년 9월
제16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8년 9월
제17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순환조사에서 가구 매년 조사로 변경 · 시민조사 신규 실시 · 도시정책지표조사 지표체계 개편 (10개 분야, 100개 지표로 조정)	2019년 9월 2020년 12월
제18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병행	2020년 9월
제19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병행 · 서울서베이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발간 · 서울서베이 분석편과 통계편을 통합하여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	2021년 9월 2022년 12월
제20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종합보고서, 심층분석 보고서, 한눈에 보는 서울(국·영문) 발간	2022년 9월 2022년 12월

제2절 추진 방법

1.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축

1)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2023 도시정책지표는 총 10개 분야(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2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와 영역에는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포함되어 총 124개의 지표가 서울 도시정책지표체계를 구성한다. 총 124개 지표 중 35개 지표가 서울서베이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가구조사 32개, 시민조사 2개, 외국인조사 1개), 나머지 89개 지표는 행정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A. 인구와 가구 (10)	서울인구 (4)	A1. 총인구	
		A2. 합계출산율	
		A3. 고령화지수	
		A4. 순이동률	개념과 산출방법 변경
	서울가구 (3)	A5. 1인가구 비율	
		A6. 가족다양성 분포	
		A11. 가족 친밀성*	영역 이동
	서울 거주 외국인 (3)	A7. 외국인 총인구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B. 경제와 노동 (15)	경제활력 (6)	B1. 지역내총생산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B3. 외국인 투자유치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신규 지표]
		B15. 서비스업생산지수	[신규 지표]
	소득과 고용 (9)	B6. 가구 소득 증가율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B8. 고용률	
		B9. 실업률	
		B10. 고용형태*	
		B11. 사회보험 가입률	
		B12. 소비자물가지수	
		B13. 구직단념자	출처 변경
		B16. 청년 니트 비율	[신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C. 도시생활과 주거 (15)	주거 ¹⁾ (10)	C3. 주택구입부담지수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출처 변경
		C18.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신규 지표]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C12. 1인당 주거면적	
		C1. 주거환경 만족도*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C16.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C17. 평균 거주기간*	지표명 변경
	스마트도시 역량 (2)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스마트도시 격차 (3)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C9. 접근성 격차	
		C10. 활용성 격차	
D. 건강과 보건 (12)	건강한 삶 (7)	C19. SNS 이용 현황*	[신규 지표]
		D1. 기대수명	
		D2. 주관적 건강수준	
		D3. 우울감 경험률	
		D11. 자살률	
		D5. 비만율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신규 지표]
	지역보건 (5)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신규 지표]
		D6. 감염병 환자 수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D9. 보건기관 이용률	
E. 안전과 재난 (10)	자연재난 (2)	D10. 치매유병률	
		E1. 풍수해·폭설 피해	
	사회재난 (5)	E2. 폭염·한파 피해	출처 변경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사회안전 (3)	E11. 야간보행 안전도*	[신규 지표]
		E8. 강력범죄 발생률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변경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E12. 보이스피싱 피해	[신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F2. 녹지환경 만족도*	
		F3. 오존 농도	
		F4. 환경소음도	
	물 순환과 자원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지표명 변경
		F6. 불투수면적 비율	출처 변경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개념, 산출방법 수정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개념, 산출방법 수정
	에너지 (3)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지표명 변경
		F10. 온실가스 배출량	
		F11.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G. 교통 (13)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G3. 도시철도 연장	
		G8. 자전거 도로율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G11. 보도 면적	
	교통 서비스 (7)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산출방법 변경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G12.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신규 지표]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신규 지표]
H. 문화와 여가 (12)	문화활동과 향유 (5)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H3. 문화환경 만족도*	
		H4. 종합 독서량	
		H11.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산출방법 변경
	문화기반 ²⁾ (4)	H5. 도서관 수	
		H12. 지역문화시설 수	[신규 지표]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여가활동과 향유 ³⁾ (3)	H13. 여가생활 만족도*	[신규 지표]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신규 지표]
		H15. 여행 건수*	[신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I. 교육과 돌봄 (13)	교육 및 보육환경 (4)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I2. 평생교육 참여율	
		I3. 공공보육시설 비율	
		I1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신규 지표]
	사회적 약자 보호 (5)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출방법 추가
		I1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I12. 빈곤율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산출방법 변경
	성평등성 (4)	I7. 성별 임금 격차	
		I9. 성평등지수	
		I10. 가사노동 부담 정도*	
		I8.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지표, 개념, 산출방법 변경
J. 가치와 의식 (13)	시민성 (4)	J11. 지역사회 참여율*	
		J2. 자원봉사 참여율*	
		J3. 시민자부심*	
		J13. 시민 준법의식*	[신규 지표]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개념 및 산출방법 변경
		J5. 사회적 신뢰*	
		J6. 다양성 수용도*	
		J12. 공정성*	
	통합성 ⁴⁾ (5)	J7. 지역사회 소속감*	
		J8. 사회적 고립도*	개념 및 산출방법 변경
		J10. 행복지수*	
		J14. 계층이동 가능성*	[신규 지표]
		J15. 미래 불안 요인*	[신규 지표]

주: 1) 'C.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의 '주거와 생활' 영역을 '주거'로 영역 명 수정

2) 'H. 문화와 여가' 분야의 '문화시장' 영역을 삭제하고, 하위 항목을 '문화기반'으로 이동

3) 'H. 문화와 여가' 분야에 '여가활동과 향유' 영역 추가

4) 'J. 가치와 의식' 분야의 '가족과 공동체' 영역을 '통합성'으로 영역 명 변경

2) 도시정책지표 자료 구축 방법

2023 도시정책지표 자료들은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실·국별 행정 및 통계자료와 외부기관 통계자료, 서울서베이 조사(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로 구분하여 수집된다.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단위는 시 또는 구 단위 기준이며, 자료출처 및 유형은 서울시 행정자료의 경우 자료 생성부서를, 시스템인 경우 데이터

입력부서를 기록하였다. 외부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발행기관 및 부서(시스템 이름 등)를 표시하였으며, 서울서베이 조사의 경우 가구조사,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외국인 조사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일부 지표의 경우 여러 개의 자료원이 존재(중복자료)하여 자료수집 후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거나 필요한 모든 자료원을 모두 표기하였다.

2023년 도시정책지표는 서울서베이 조사 분석 자료(39개)와 서울시 내·외부기관 행정자료(116개)가 활용되었다. 서울서베이 조사 분석 자료는 가구조사 33개, 시민조사 5개, 외국인조사 1개 자료이다. 행정자료 중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는 34개 부서에서 수집된 47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외부기관 자료는 24개 기관에서 수집된 69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지표체계 분야별 활용 자료원의 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표체계 분야별 출처 및 자료원 수

분류	활용한 자료원 수					
	서울서베이			행정자료		합계
	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	서울시 내부기관	외부기관	
A. 인구와 가구	1	-	1	1	9	12
B. 경제와 노동	1	-	-	1	14	16
C. 도시생활과 주거	2	1	-	5	8	16
D. 건강과 보건	1	-	-	2	11	14
E. 안전과 재난	1	-	-	4	13	18
F. 환경	2	-	-	10	2	14
G. 교통	4	-	-	15	1	20
H. 문화와 여가	6	-	-	2	5	13
I. 교육과 돌봄	2	-	-	7	6	15
J. 가치와 의식	13	4	-	-	-	17
합계	33	5	1	47	69	155

주) 일부 지표의 경우 여러 개의 자료원(가구조사, 시민조사, 행정자료)이 존재(중복자료)하며, 행정자료 내에서도 동일한 기관 또는 시스템에서 여러 지표 데이터를 활용

2. 행정자료 조사

행정자료 조사는 서울시 실·국·별 행정자료 및 외부기관 통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매해 연도의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023 도시정책지표 행정자료는 2024년 1월 12일까지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는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와 외부기관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되는데,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는 서울시 내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집(각 담당자들이 작성 후 통계조사팀 담당자가 최종 취합 점검)하거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외부기관 자료는 통계청 및 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 공사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수집되었다.

〈표 1-4〉 행정자료 외부기관 참고 현황

기관명(가나다순)		
KB부동산 데이터허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육개발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통계청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3. 가구조사

1) 조사 개요

서울서베이 조사는 서울시 거주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조사 기본 문항과 그 외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총 10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이다. 조사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체 20,000가구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 39,340명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pm 0.69\%$ p와 $\pm 0.49\%$ p이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조사대상 가구의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 구축은 서울시 주민등록DB와 건축물대장DB를 연계한 구별, 주택유형별 세대주 주소 파악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구조사의 모집단은 세대주가 만 15세 이상이며, 서울시 25개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 세대원으로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모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시 모집단 전체 가구 수는 4,046,799가구이며, 전체 가구원 수(인구수)는 9,125,047명이고, 그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수는 8,210,920명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분과 주택유형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서, 표본 설계의 제1층은 25개 자치구, 제2층은 4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기타)으로 설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구별 통계의 생산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400가구의 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표본배분을 하였으며, 제공된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25개 각 구 내에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기타), 입주유형(자가, 전세, 월세/기타),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주 학력(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구분에 따른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RIM 가중치(Raking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주택유형별, 입주유형별, 가구원수별, 가구주 학력별 모집단 크기의 주변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주변 비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구의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가구원 통계를 계산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성별×연령별 모집단 크기의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비율이 같아지도록 하였다. 위의 절차를 거쳐서 얻은 가구(가구원) 가중치에 대하여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 크기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여 최종 가구(가구원)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표 1-5〉 구별, 주택유형별 표본 배분: 가구조사

(단위: 가구)

구분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전체	20,000	5,110	8,600	3,755	2,535
종로구	510	185	120	90	115
중구	480	115	210	60	95
용산구	630	210	230	110	80
성동구	705	200	380	55	70
광진구	790	335	165	190	100
동대문구	790	260	335	80	115
종량구	825	315	275	165	70
성북구	860	265	375	135	85
강북구	730	260	190	215	65
도봉구	725	150	360	155	60
노원구	910	95	710	65	40
은평구	885	195	290	310	90
서대문구	740	210	295	145	90
마포구	815	180	355	165	115
양천구	825	130	440	190	65
강서구	1,010	140	450	255	165
구로구	820	155	395	135	135
금천구	660	185	200	145	130
영등포구	830	200	370	75	185
동작구	830	280	315	160	75
관악구	1,015	435	220	170	190
서초구	795	120	455	130	90
강남구	925	155	535	120	115
송파구	1,025	140	505	265	115
강동구	870	195	425	170	80

〈표 1-6〉 기준치 보정 후 가구 표본 현황: 가구주

(단위: 가구,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00	100.0
성별	남성	14,351	71.8
	여성	5,649	28.2
연령별	20대 이하	849	4.2
	30대	3,981	19.9
	40대	3,936	19.7
	50대	3,782	18.9
	60세 이상	7,452	37.3
학력별	중학교 이하	2,636	13.2
	고등학교	5,607	28.0
	전문대학/대학교	11,460	57.3
	대학원 이상	298	1.5
주택형태별	단독주택	5,032	25.2
	아파트	8,689	43.4
	다세대주택	3,781	18.9
	연립/기타	2,499	12.5
입주형태별	자기집	8,690	43.4
	전세	5,137	25.7
	월세/기타	6,173	30.9
가구원수별	1인	7,364	36.8
	2인	5,218	26.1
	3인	3,852	19.3
	4인	3,302	16.5
	5인 이상	265	1.3
소득별	200만원 미만	2,593	13.0
	200~400만원 미만	7,444	37.2
	400~600만원 미만	5,431	27.2
	600~800만원 미만	3,290	16.5
	800만원 이상	1,243	6.2
권역별	도심권	1,073	5.4
	동북권	6,139	30.7
	서북권	2,433	12.2
	서남권	6,343	31.7
	동남권	4,013	20.1
직업별	관리 전문직	2,486	12.4
	화이트칼라	8,486	42.4
	블루칼라	5,577	27.9
	기타	3,451	17.3

〈표 1-7〉 기준치 보정 후 가구 표본 현황: 가구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9,340	100.0
성별	남성	18,935	48.1
	여성	20,405	51.9
연령별	10대	1,798	4.6
	20대	6,684	17.0
	30대	6,579	16.7
	40대	6,705	17.0
	50대	6,865	17.5
	60세 이상	10,710	27.2
학력별	중학교 이하	4,068	10.3
	고등학교	11,594	29.5
	전문대학/대학교	23,159	58.9
	대학원 이상	519	1.3
지역별	종로구	607	1.5
	중구	509	1.3
	용산구	897	2.3
	성동구	1,194	3.0
	광진구	1,437	3.7
	동대문구	1,436	3.6
	중랑구	1,633	4.1
	성북구	1,816	4.6
	강북구	1,267	3.2
	도봉구	1,334	3.4
	노원구	2,134	5.4
	은평구	1,953	5.0
	서대문구	1,301	3.3
	마포구	1,519	3.9
	양천구	1,799	4.6
	강서구	2,373	6.0
	구로구	1,649	4.2
	금천구	980	2.5
	영등포구	1,556	4.0
	동작구	1,626	4.1
	관악구	2,118	5.4
	서초구	1,601	4.1
	강남구	2,082	5.3
	송파구	2,641	6.7
	강동구	1,878	4.8
직업별	관리 전문직	3,236	8.2
	화이트칼라	13,947	35.5
	블루칼라	8,538	21.7
	기타	13,618	34.6

3) 현장조사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가구(가구원 346명)를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조사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였다. 조사면접원은 3차례에 걸쳐 실사 원칙 교육과 조사표 작성요령을 교육받았다.

서울시민의 본 조사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조사 시작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울서베이 조사에 대한 홍보 안내 광고를 하고, 서울시 공문을 면접원이 지참하였으며, 조사대상 가구에서 조사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산콜센터(120) 및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 본사 콜센터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 방법은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가구원 부재 시 등의 경우에는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회수된 조사표 중 무작위 30%를 추출하여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차 코딩을 통해 코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에디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항별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서베이 조사의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하였다.

4. 시민조사

1) 조사 개요

시민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으로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민조사 기본 문항과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총 10개 분야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서울시 정책 평가 관련 문항이다. 조사는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39\%$ 이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시민조사의 모집단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구별·주택유형별 모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서, 표본 설계의 제1층은 25개 자치구, 제2

층은 4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기타)으로 설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구별 통계의 생산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100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각 구의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가구원 통계를 계산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성별×연령별 모집단 크기의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비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의 절차를 거쳐서 얻은 가구원(시민) 가중치에 대하여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크기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여 최종 가구원(시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표 1-8〉 구별, 주택유형별 표본 배분: 시민조사

(단위: 개)

구분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전체	5,000	1,270	2,135	945	650
종로구	130	45	30	25	30
중구	120	30	50	15	25
용산구	155	50	55	25	25
성동구	175	50	95	15	15
광진구	200	85	40	50	25
동대문구	200	65	85	20	30
종랑구	205	75	70	40	20
성북구	215	65	95	35	20
강북구	180	65	45	55	15
도봉구	180	35	90	40	15
노원구	230	25	180	15	10
은평구	220	50	70	75	25
서대문구	185	55	75	35	20
마포구	205	45	90	40	30
양천구	205	30	110	50	15
강서구	250	35	110	65	40
구로구	205	40	95	35	35
금천구	165	45	50	35	35
영등포구	205	50	90	20	45
동작구	210	70	80	40	20
관악구	255	105	55	45	50
서초구	200	30	115	30	25
강남구	230	40	130	30	30
송파구	255	35	125	65	30
강동구	220	50	105	45	20

〈표 1-9〉 기준치 보정 후 시민조사 표본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000	100.0
성별	남성	2,407	48.1
	여성	2,593	51.9
연령별	20대 이하	1,079	21.6
	30대	841	16.8
	40대	846	16.9
	50대	873	17.5
	60세 이상	1,361	27.2
학력별	중학교 이하	360	7.2
	고등학교	1,937	38.7
	전문대학/대학교	2,679	53.6
	대학원 이상	24	0.5
주택형태별	단독주택	1,135	22.7
	아파트	2,388	47.8
	다세대주택	870	17.4
	연립/기타	608	12.2
가구원수별	1인	1,450	29.0
	2인	1,318	26.4
	3인	1,114	22.3
	4인 이상	1,118	22.4
혼인상태별	기혼	2,804	56.1
	미혼	1,661	33.2
	이혼/사별/기타	535	10.7
권역별	도심권	256	5.1
	동북권	1,557	31.1
	서북권	607	12.1
	서남권	1,538	30.8
	동남권	1,042	20.8
직업별	관리 전문직	190	3.8
	화이트칼라	2,042	40.8
	블루칼라	1,374	27.5
	기타	1,394	27.9

3) 현장조사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조사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여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조사 방법은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회수된 조사표 중 무작위 30%를 추출하여 전화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 코딩을 통해 코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에디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항별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민조사의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5. 서울 거주 외국인조사

1) 조사 개요

외국인조사는 조사 기간에 서울시에 상주(90일 초과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자)하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서울에서의 삶의 질, 교통 및 환경, 서울의 물가 수준, 문화시설, 건강,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정보수준, 주거 및 직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총 6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표본오차, 조사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2,500명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96\%$ p이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외국인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서울시에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만 20세 미만 제외) 중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주신고 외국인 동포 명부’를 기반으로 체류자격, 국적별로 분류하였다.

외국인조사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외국인의 생활실태 파악이 주된 목적이므로,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른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이 가능한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모집단 분석 결과 주요 관심 변수인 체류자격 및 국적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 조사의 신뢰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류자격 및 국적별로 적정표본수가 추출될 수 있도록 2

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부재 및 거주지 이탈(거주지 불명 포함), 면접 불가(시간, 언어소통 등)에 따른 무응답률이 높아, 조사 불능일 경우에는 추출 표본과 특성 그룹(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및 행정구역이 동일한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를 2% 이하로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2,50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표본 추출을 위해 1단계 체류자격별 표본배분과 2단계 국적별, 체류기간별, 성별 표본배분을 고려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반복비례가중법을 통하여 사후가중값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별(8개)×성별, 국적별(10개)×성별, 체류기간별(2개)×성별, 연령그룹별(5개)×성별’ 등의 주요 변수들로 구성된 4개의 2차원 결합분포(모집단 등록외국인 총 수 및 표본조사 단위의 가중값 합)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1-10〉 외국인 체류자격별, 국적별 모집단 및 제곱근 배분 현황

(단위: 명)

구분	모집단 현황	제곱근 배분 현황								계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E7)	유학 (D2, D4)	방문동거/ 거주/동반 (F1~F3)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6)	기타 (G-1)	
한국계 중국인	175,784	265	1	12	35	296	126	37	10	782
중국	42,705	0	27	92	46	0	57	36	32	290
일본	8,296	0	12	32	15	15	29	24	19	146
타이완	7,079	0	8	18	19	5	48	11	7	116
베트남	18,783	0	12	70	26	0	11	29	18	166
아시아 기타	28,524	28	30	63	36	33	23	33	46	292
미국	25,188	0	33	23	16	121	17	21	14	245
영미권 기타	14,102	0	25	13	11	92	15	17	9	182
유럽권	11,072	8	22	43	15	37	16	20	19	180
기타	4,350	0	15	23	13	10	7	12	21	101
합계	335,883	301	185	389	232	609	349	240	195	2,500

〈표 1-11〉 가중치 보정 후 외국인조사 표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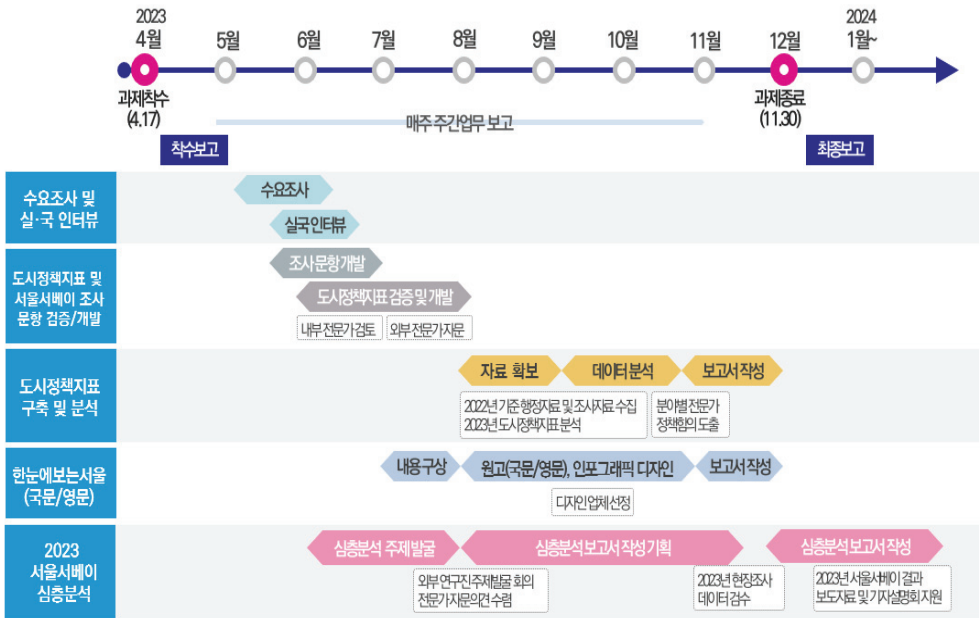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500	100.0
국적별	한국계 중국인	570	22.8
	중국	374	14.9
	일본	144	5.8
	타이완	155	6.2
	베트남	287	11.5
	아시아 기타	248	9.9
	미국	261	10.4
	영미권 기타	197	7.9
	유럽권	156	6.2
	기타	109	4.4
성별	남성	1,151	46.1
	여성	1,349	53.9
연령별	20대 이하	531	21.2
	30대	496	19.8
	40대	358	14.3
	50대 이상	1,115	44.6
체류기간별	12개월 미만	493	19.7
	24개월 미만	536	21.4
	36개월 미만	218	8.7
	48개월 미만	234	9.3
	48개월 이상	1,020	40.8
주거형태별	단독주택	331	13.2
	아파트	488	19.5
	다세대주택	533	21.3
	연립/빌라	553	22.1
	기타	596	23.8
주거점유형태별	자가	317	12.7
	전세	203	8.1
	보증부 월세	1,149	45.9
	월세	332	13.3
	무상 및 기타	500	20.0
체류자격별	방문취업	300	12.0
	전문인력	186	7.4
	유학	389	15.6
	방문동거/거주/동반	232	9.3
	재외동포	608	24.3
	영주자	349	14.0
	결혼이민자	239	9.6
	기타	196	7.8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1. 연구 추진 일정

2023년 도시정책지표 설계 및 분석 영역은 2023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시정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책지표 검토, 실·국·본부 업무 담당자 및 실·국장 인터뷰를 통한 수요조사, 도시정책지표 체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보고서’, ‘심층보고서’, ‘한눈에 보는 서울’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과업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연구 추진 일정

2. 조사표 기획 및 조사표 문항 검토

1) 가구주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2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문항 대비 1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1개 문항이 삭제되고, 1개 문항이 보완되었다. 데이터의 활용 및 정책적 시사점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유 현황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돌봄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서울시 양육가구 특성에

따른 시간사용실태와 다양화된 육아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표 1-12〉 2021-2022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가구조사

구분	2021년 조사	2022년 조사
신규 (1)	-	문3-2. 서울시 돌봄과 양육환경 만족도
삭제 (1)	문10. 개인형 이동장치 보유 여부 및 대수	-
보완 (1)	문3-1. 미취학 아동 (보기1) 보육 방법 (보기2) 보육시설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1) 보육방법 : 문구 수정 ▶ '보육 방법' → '주된 보육 방법' ▶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문항 신규 추가 (보기2) 보육시설 유형 : 보기 수정 및 추가 ▶ ④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 '가정어린이집'으로 수정 ▶ ⑥ '공동육아' → '품앗이 육아(품앗이 공동체, 공동육아방 등)'으로 수정 ▶ ⑦ '시간제돌봄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시간제 서비스, 키즈카페 등)' 신규 추가

2) 가구원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2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는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문항에 비해 5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7개 문항은 문구와 척도가 보완되었으며, 7개 문항이 시민조사 문항에서 이동(추가)하였다. 기상변화와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심리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서울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실태 및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노력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 취약계층의 돌봄 위기와 안전 보장 심각성 정도, 돌봄 지원망 여부 등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에 시민조사에 있던 문항 중에서 자치구 단위로 비교 분석이 필요한 문항을 가구조사로 이동하여 배치하였다.

〈표 1-13〉 2021-2022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가구원조사

구분	2021년 조사	2022년 조사
신규 (5)	-	문3. 기후변화 체감도
		문8-1.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
		문11. 자전거 이용 여부 및 이유
		문11-1. 이용하는 자전거 종류
		문11-2. 자전거 이용 빈도 및 시간
삭제 (1)	문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향	-
보완 (7)	문1. 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문1-4) 하위 문항 변경 ▶ 4) 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 텀블러 휴대하기
	문2.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	문2-5) 하위 문항 수정 ▶ 5) '친환경 에너지 전환' → 5) '화석연료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으로 수정
	문6. 물품 구매 경로	문6. 용어 변경 ▶ '통신구매' → '온라인 구매'
	문7. 도시위험 심각성	문7. 하위 문항 신규 추가 ▶ 11)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및 학대
	문16-1. 스트레스 요인	문17-1. 보기 수정 ▶ ⑦ '가정관리(가사업무, 가족 돌보기 등)' →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으로 수정
	문26-1. 사회적 지원망	문26-1. 하위 문항 신규 추가 ▶ 4) 어린 자녀(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를 맡아야 할 때 돌봐줄 사람
	문2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문36. 하위 문항 신규 추가 ▶ 5)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동 (7)	-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21. 사회참여 경험률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22. 단체활동 참여 경험 및 유형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23. 개인 정치 성향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28. 서울시민 자부심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29. 향후 10년 후 서울시 거주 의향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32. 우리사회 공정성
		[시민조사] → [가구원조사] 문33. 우리사회에 대한 생각

주) 조사 문항 설계 순서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조사 문항 번호에 차이가 있음

3) 시민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2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조사 문항에 비해 16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8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3개 문항이 수정·보완되었으며, 가구원조사로 7개 문항이 이동(삭제)되었다. 시민조

사에서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기준을 파악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민들의 수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문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이 낮은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표 1-14〉 2021-2022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시민조사

구분	2021년 조사	2022년 조사
신규 (16)	-	문13. 약자구분의 적절성
		문13-1. 약자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문14-1. 적절한 생계 약자 기준
		문14-2. 적절한 의료 약자 기준
		문14-3. 적절한 주거 약자 기준
		문14-4. 적절한 교육 약자 기준
		문15.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성
		문16 하천 방문 빈도
		문16-1. 하천 만족도
		문16-2. 하천 방문 목적
		문16-3. 하천에서 하는 활동
		문17. 물 재생 이용 인지도
		문18. 중장년 1인가구 정책 시급 분야
		문19. 돌봄수당정책 지지도
		DQ3-2. 월 평균 근로(사업) 소득
		DQ4. 청년세대 지원 여부
삭제 (8)	문2. 공공자전거 이용 여부 및 목적	-
	문3. 식생활 상태(먹거리 보장 정도)	
	문3-1. 질적 먹거리 미보장 이유	
	문3-2. 양적 먹거리 미보장 이유	
	문22.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문22-1.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이유	
	문23.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보완 (3)	문11.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률	문11~문12. 문항 문구 수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 ‘최근 1년 동안’
	문11-1.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업무 대체성	
	문1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적응도	
이동 (7)	문6. 사회참여 경험률	[가구원조사]로 이동
	문7. 단체활동 참여 경험 및 유형	
	문8. 개인 정치 성향	
	문15. 서울시민 자부심	
	문16. 향후 10년 후 서울시 거주 의향	
	문17. 우리사회 공정성	
	문18. 우리사회에 대한 생각	

4) 외국인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2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문항은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 문항과 비교하여 6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5개 문항이 삭제되고, 3개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서울시 정책의 공정성, 서울 거주 소속감, 서울 거주 안전 체감도 등에 대한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문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표 1-15〉 2021-2022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외국인조사

구분	2021년 조사	2022년 조사
신규 (6)	-	문14. 서울시 정책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정성 정도
		문15. 지역사회 소속감
		문16. 국가 및 거주지 소속감
		문19-1. 외국인 지원 기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문22. 향후 서울 계속 거주 의향
		문23. 도시위험 심각성
삭제 (5)	문8. 지난 2주간 스트레스 정도	-
	문8-1. 스트레스 이유	
	문14.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문15.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이유	
	문21-2. 통근/통학 시간	
보완 (3)	문5. 서울 거주 어려움	문5. 하위 문항 신규 추가 ▶ 12)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문16.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태 변화	문13. 보기 수정 및 확대 ▶ ② 휴직이나 임금 감소 → ② 임금 감소, ③ 휴직
	문19. 차별 경험 정도	문20. 척도 수정 ▶ 4점 척도 → 5점 척도

주) 조사 문항 설계 순서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조사 문항 번호에 차이가 있음

3. 서울시 수요조사

1) 실·국장 인터뷰 및 수요조사

도시정책지표 이용 실태와 2023년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신규 수요(Needs)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20개 실·국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국·본부 및 산하 유관기관과 25개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실·국장들과의 면담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 정책과 연계한 신규지표 제안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

며, 실·국·본부 및 산하 유관기관, 25개 자치구 대상으로는 도시정책지표 및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통계분석 주제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20개 실·국 중 여섯가축정책실장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이 대면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11개 실·국이 서면으로 참여하였다. 수요조사 내용으로는 도시정책지표 활용성 정도, 주요 정책 추진 시 통계의 활용 정도,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표 및 데이터 수요,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요 파악, 서울시정 현안(서울비전 2030) 관련 수요 파악 및 심층분석 주제 제안 등을 조사하였다.

〈표 1-16〉 실·국장 인터뷰 및 수요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도시정책지표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	1) 귀 실·국(부서)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있으시다면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②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귀 실·국(부서)에서 서울서베이 자료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추가·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8기 주요정책과 연계한 지표 및 데이터 수요 파악	1) 민선8기 시정과 관련된 귀 실·국(부서)의 정책지표 중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시민참여 시정을 위해 서울시가 파악해야 할 시민들의 가치, 태도, 의식 등에 관한 항목 중 귀 실·국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귀 실·국에서 생산되는 지표나 데이터를 서울서베이와 연동해서 분석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지요? 제안해 주십시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데이터 수요 파악	1)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생활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현 실·국에서 추가 생산해야 할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1) 2023년 시정 운영 방향 및 정책 활용과 연계하여 특별히 분석되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민선8기 서울시정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발표하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실·국장 인터뷰 및 수요조사 결과

(1)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 및 개선점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시정 이슈 관련 항목과 글로벌도시 경쟁력 관련 지표들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매해 서울시 실·국별 성과지표(BSC) 수립 시 서울서베이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민의 행정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데이터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대상별·영역별 세부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각 부서에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성별 등의 데이터 제공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7〉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

실국	서울서베이 보완 요청	반영 결과
기획조정실	-글로벌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표 보완 검토	-커니/모리 글로벌도시 경쟁력 지표 리뷰
기후환경본부	-기존 조사에서 부족한 쓰레기 저감 노력, 친환경자동차 구매,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피 시설 설치 인식 등에 대한 조사 필요	-조사표 반영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인식)
물순환안전국	-민선8기 핵심 공약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약과 연계하거나 서울시 정책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분야 필요	-시정 이슈 관련 항목들 조사표 반영
미래청년기획단	-대부분의 통계가 전체 연령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움. 일자리·고용·실업 분야, 우울감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연령대별 통계 제공 필요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 활용 홍보
시민건강국	-매년 실·국별 성과지표(BSC) 수립 시 서울서베이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여, 서울서베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행정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여성가족정책실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녀 데이터 동시 제공하는 게 바람직. 서울 여성의 모습,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 필요	-성별 분석 결과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활용 홍보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약자동행지표 중 행정자료 구축이 아닌, 별도 조사가 필요한 문항들에 대해 서울서베이에서 추가 가능한지 검토 요청	-검토 후 일부 조사표 반영

(2) 민선8기 시정 관련 도시정책지표 개선 및 추가 제안

민선8기 시정과 관련한 수요 조사 결과 돌봄과 양육,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관한 지표와 조사 문항 개발 수요가 높았다. 돌봄친화/양육친화 정책과 관련하여 돌봄가족 부양 여부, 부양의 어려운 점, 가족 형성 가치관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조사 문항 개발이 제안되었으며,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청년 일자리, 청년 니트 비율 등에 대한 데이터가 요청되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활용 역량, 식품안전성 보장, 보행안전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기후 위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조사 문항 개발 및 보완이 제안되었다. 각 실
국에서 제안된 의견들의 최종 검토 및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8〉 민선8기 시정 관련 도시정책지표 개선 및 조사 문항 추가 제안

영역	지표 개선 제안	조사 문항 개발 제안	반영 결과
A. 인구와 가구	-청년 인구의 시계열적 접근 을 통한 5년, 10년 뒤 서울 전망	-인구변화에 대한 전망, 가구 구 조 변화 기대치 등 시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성별/연령별 인 구구조 추이 데이터 제공 -조사표 반영
B. 경제와 노동	-일자리·고용·실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제 관련 데이터 필요 -청년의 금융생활, 부채수준, 재테크 관심 분야 보완 필요 -청년창업 관련 데이터(창업 시작 평균 나이, 폐업률, 유지 기간, 지원 등)	-고졸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다 양한 취약 청년의 취업상태 현 황 파악 -(미래청년일자리) 청년이 선호 하는 산업 분야, 청년과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인턴 기간, 서울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급여, 전공 및 적성, 워라밸 등), 청년의 공공일자리 인지도 등 -(대학 비진학청년) 비진학 청년 의 대학 비진학 사유, 필요한 공 공지원, 정보 수집 경로 등 -청년의 주택 임차 및 이사비용, 교통수단 및 교통비 등	-지표 추가 (청년 니트 비율)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서 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 터 참조 -특정 대상 세부 문항은 서 울서베이 조사에 부적합
C. 도시 생활과 주거	-	-디지털 취약 계층(장애인, 노인) 의 스마트폰, 키오스크,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관련 항목 추가	-조사표 반영
D. 건강과 보건	-	-소아·어린이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 -치매 가정 여부 확인 및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 이용 관련 설문 항목 -서울 시내 판매 식품 안전도, 식 품안전 관련 경험, 최근 1년간 이 용한 서울 시내 외식업소 및 배달 음식 위생상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했으 면 하는 서울시 4대 식품안전 관 리 분야, 서울시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식품안전 관련 정보 -서울시 분야별 예산구성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특히 사회복지, 보 건 등 약자를 위해 쓰인다고 여겨 지는 분야의 구성비에 대한 생각)	-조사표 반영 (돌봄가족 부 양 여부 문항 추가) -식품안전 관련 지표 추가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 율),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 사 데이터 활용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체육 참여 현황	-생활체육 참여 종류, 프로그램, 참여 빈도, 시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현황(공공, 민간, 학교 등), 생활체육 이용 지출액 등 조사	-지표 추가 및 조사표 반영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영역	지표 개선 제안	조사 문항 개발 제안	반영 결과
F. 환경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 재활용 관련 지표 추가 제안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량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표 신설 필요)	-쓰레기 저감 노력, 친환경자동차 구매, 환경기초시설 등 기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사 항목 추가(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파악 필요)	-조사표 반영 (1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조사표 반영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 열병합 발전 등) 확충계획에 대한 인식)
	-	-수변감성도시 정책수립에 필요한 서울 시민들의 수변공간 이용실태 및 만족도, 필요 시설(한강 외 지천 대상), 하천과 수변공간이 도시에서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환경적, 활용적 등) 조사 필요 -풍수해에 안전한 서울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시설, 풍수해에 안전한 서울을 위한 시민들의 풍수해(수방 분야, 하천) 분야 안전에 대한 인식, 도시물자원(하수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빗물) 활용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 수방정책에 대한 인식(방재시설, 물순환, 저영향개발) 조사 필요	-하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있음 -도시물자원 활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 있음 -기후위기 체감도 하위 문항 중 '2) 폭우 및 폭설'을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로 분리하여 설문
G. 교통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친환경 교통에 대한 지표 추가 제안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대수, 전기차 충전소 구축 현황 지표 필요	-교통약자(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가 느끼는 서울시 보도의 보행환경 만족도 문항 추가(보도의 안전성, 편리성 등)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지표 존재 -기존의 보행환경 만족도 외에 '보도의 안전성' 문항 추가
H. 문화와 여가	-문화 도시공간 및 공공시설물 관련 데이터 수요	-야간경관 활성화, 공공 공간 유형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 등 -공원/산림 여가 활동 현황	-야간경관 활성화 관련 조사 문항 추후 개발 -조사표 반영 (공원/산림 여가 활동 문항 추가)
I. 교육과 돌봄	-	-다양한 돌봄가족 유형 파악할 수 있는 문항 개발 (돌봄가족 부양 여부, 가장 힘든 점) -청년 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분야 (일자리, 생활지원, 공간 등),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 정책 참여 경험 등	-조사표 반영 (돌봄가족 부양 여부, 부양 대상, 부양의 어려운 점 문항 추가) -특정 대상 세부 문항은 서울서베이 조사에 부적합

영역	지표 개선 제안	조사 문항 개발 제안	반영 결과
J. 가치와 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 파악을 위한 문항 추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가치관 문항 보완 필요 -다문화사회 구성원(다문화가족, 외국인 등)의 지역사회(서울시) 소속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반영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인식, 가족 형성 가치관 인식 조사 문항 추가) -내국인 대상으로는 '서울시민 자부심' 문항을 활용 가능하며,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소속감 조사 유지

(3) 포스트 코로나19의 사회 영향 관련 현황 파악 수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생활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생겨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실·국에서 추가 생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수요를 조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배달 문화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1회용 포장 용기, 배달 용기 등 폐기물 발생량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량 감축, 환경오염 예방, 온실가스 감축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와 폐기물 발생량과의 연관성을 총량, 종류별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약자들이 더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약자들의 현재 활동 상태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4)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민선8기 서울시정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동행'과 관련한 심층분석 주제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약자와 디지털 격차 및 불평등 실태 분석,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영케어러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가족 유형과 실태 파악 필요, 우리 사회 외국인 인력 유입 등에 대한 인식 파악, 서울 청년의 가족 형성(결혼, 출산, 자녀 양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집단별(계층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 인식 차이 분석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매력' 측면에서는 서울의 문화경쟁력 향상, 서울시 공원·산림의 여가 환경과 시민들의 여가 활동 실태, 서울의 수변공간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안전도시 서울, 자원순환 확산 문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주제가 제안되었다.

〈표 1-19〉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실·국	서울시정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기획조정실	-관광활성화, 서울의 문화경쟁력 등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매뉴얼 안전도시 서울,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 공간 조성
기후환경본부	-하반기 핵심 현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으로 기피시설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 의견, 행정적 지원사항 수요 관련 데이터가 필요함 -미래감성도시 정책과제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확산으로, 서울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확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도시교통실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미래형, 다차원 교통수단 개발 등에 따른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 증진 방안 및 유연한 요금체계 구축 방안 등 -GTX 신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단위 생활권이 확장됨에 따라, 혼잡도 가중 등 부작용이 증가함. 이에 광역교통 측면에서 자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대중교통망 구축계획 논의가 필요
디자인담당관	-야간경관 활성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선호도 관련 주제
디지털정책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약자와 디지털 격차 및 불평등 실태 분석
물순환안전국	-서울의 수변공간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홍수 대응 → 일상의 여가 공간) -스마트 에코도시,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 공간 조성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영계어려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가족 유형과 실태 파악 필요 -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케어 시스템의 중요성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 사회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우리 사회 외국인 인력 유입 등에 대한 인식 파악 -서울 청년의 가족 형성(결혼, 출산, 자녀 양육, 공동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집단별(계층별, 성별, 연령, 결혼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 인식 차이 분석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시 공원·산림의 여가 환경과 시민들의 여가 활동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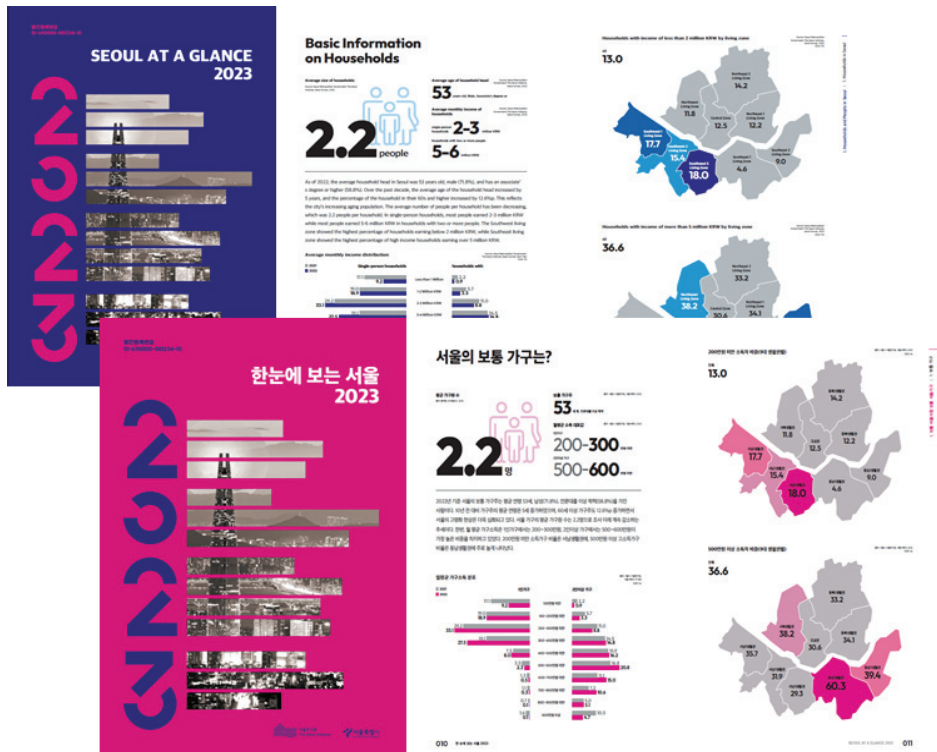
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2023 도시정책지표는 총 10개 분야(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2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와 영역에는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포함되어 총 124개의 지표가 서울 도시정책지표체계를 구성한다. 2023 도시정책지표는 민선8기 시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 10개 분야 110개 도시정책지표를 검증 및 보완하고, 시책 방향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 시정운영방향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를 검토 및 개선하고, 신규 지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산출 기준

및 대표성을 검증하여 보완하였다.

5.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 Seoul at a Glance(영문판)

2022년 9~10월에 실시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 및 행정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분야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를 발간하였다. ‘한눈에 보는 서울’ 한글판과 영문판은 시민들이 서울의 현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소통의 채널로 활용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더욱이 ‘한눈에 보는 서울’의 영문판인 ‘Seoul at a Glance’의 발간은 서울의 자매도시, 서울시 방문 외국 도시 관계자들에게 서울시의 정책 현황과 사회현황을 알리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현황에 관한 영문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의 여러 도시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눈에 보는 서울’은 주제별 지도와 차트 등을 사용한 시각화와 주제에 따른 현황 및 사회경제적 요인 설명 등을 함께 포함하는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구성하여 가독성과 대중성을 높였다.



〈그림 1-4〉 2023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는 다음과 같이 총 4장으로 구성되며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1-20〉 2023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 목차

CONTENTS	
006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008	1. 보통 가구
010	서울의 보통 가구는?
012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014	서울의 1인가구는?
016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018	서울의 고령자(65세 이상) 1인가구는?
020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022	2. 보통 사람
024	서울의 보통사람은?
026	서울 청년은 어떻게 사는가?
028	서울 청년의 일은?
030	서울 청년의 니트 비율은?
032	서울의 중장년 가구주의 거주 및 학력과 직업은?
034	서울의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와 노후는?
036	서울 고령사회의 모습은?
038	서울의 고령자는 행복한가?
040	서울 여성의 일은?
042	서울의 여성은 안전한가?
044	서울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은?
046	서울의 외국인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048	서울의 외국인은 행복한가?
050	II.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052	1. 주거/경제
054	서울시민의 주거는?
056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은?

CONTENTS	
058	서울시민의 경제환경 만족도는?
060	서울시민의 소비환경은?
062	2. 교육/문화/복지
064	서울의 보육환경은?
066	서울시민의 교육환경은?
068	서울의 문화관광환경은?
070	서울의 복지환경은?
072	3. 교통/환경
074	서울의 교통환경은?
076	서울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는?
078	서울의 에너지 환경은?
080	서울의 공기와 물은?
082	서울의 생태환경과 쓰레기는?
084	서울의 기후변화 체감도는?
086	4. 디지털
088	서울의 디지털 환경은?
090	서울시민의 디지털기기 이용역량은?
092	5. 재난/안전
094	서울의 화재안전은?
096	서울의 교통안전은?
098	III. 서울시민의 삶의 질
100	서울시민의 건강환경은?
102	서울시민의 건강상태는?
104	서울시민은 건강에 대해 만족할까?
106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108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
110	서울시민은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할까?
112	서울시민이 느끼는 외로움은?

CONTENTS

114 IV. 서울시민의 가치

116 1. 평등과 차별

118 서울시민의 우리사회 평등성 인식은?

120 서울시민의 사회적 차별 인식은?

122 2. 공동체

124 서울시민의 사회적 포용성은?

126 서울시민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어울리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128 서울시민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은?

130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32 3. 사회자본과 가치

134 서울시민의 신뢰는?

136 서울시민은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을까?

138 서울시민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140 서울시민의 사회참여는?

142 서울시민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144 서울시민의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은?

146 서울서베이란?

〈표 1-21〉 ‘Seoul at a Glance’(영문판) 목차

CONTENTS	
006	I. Households and people in Seoul
008	1. Households in Seoul
010	Basic Information on Households
012	Changes in Household Size
014	Single-person Households
016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018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020	Companion Animal Ownership
022	2. People in Seoul
024	People in Seoul: Basic Information
026	Young Adults: Living Arrangements
028	Young Adults: Occupation
030	Young Adults: NEET Proportion
032	Middle-aged Adults: Living Arrangements, Education and Occupation
034	Middle-aged Adults: Household Debt and Retirement Preparation
036	The Elderly: The Aging Society in Seoul
038	The Elderly: Happiness Score
040	The Women: Economic Participation
042	The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044	People with Disabilities: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046	The Foreigners: Living Arrangements
048	The Foreigners: Quality of Life
050	II. Everyday Life in Seoul
052	1. House & Economy
054	Residential Conditions
056	Dilapidated Dwellings of 30 Years and Older
058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060	Consumer Environment

CONTENTS

062	2. Education & Culture & Welfare
064	Childcare
066	Education
068	Culture and Tourism
070	Welfare and Social Security
072	3. Traffic & Environment
074	Transportation
076	Transportation Inclusivity for the Minorities
078	Energy Consumption
080	Air and Water Quality
082	Ecosystem and Waste Management
084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086	4. Digital
088	Digital Communications
090	Digital Capability
092	5. Exposure to Risks and Hazards
094	Fire Accidents
096	Traffic Accidents
098	III. Quality of Life in Seoul
100	Overall Health Conditions I
102	Overall Health Conditions II
104	Satisfaction with Health
106	Exercise Frequency
108	Overall Happiness Score
110	Daily Time Usage
112	Loneliness Score

CONTENTS	
114	IV. Seoul Citizens' Civic Consciousness and Values
116	1. Fairness and Equality
118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120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122	2. Community Values
124	Social Inclusion
126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128	Generational Gaps
130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132	3. Social Values
134	Trust in Family, Neighbors, and Public Institutions
136	Commitment to Caring for the Elderly
138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140	Social Participation
142	Attitude Towards Marriage
144	Work and Leisure Values
146	Seoul Survey

6. 심층분석 보고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정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 심층분석 주제는 ‘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준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X세대 재조명, 2) 서울 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3) 매력도시 서울의 공원·하천과 삶의 질’ 등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준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X세대 재조명’에서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서울의 세대 문제를 다룬다. 고령화의 속도만큼이나 고령사회의 주체도 변화하고 있다. 향후 고령사회의 중심 세대가 될 X세대는 지금의 고령세대와는 다른 경제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세대의 형상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도시사회가 어떤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

의하였다.

두 번째, ‘서울 청년의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도시,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의 문제를 다룬다. 서울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생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결혼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청년세대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비혼과 1인가구화,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매력도시 서울의 공원·하천과 삶의 질’에서는 서울이 가진 인프라로서의 자연환경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공원이나 하천이 조성된 의도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연환경은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인지 등을 파악하여 정책에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2장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제2장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1. 도시정책지표체계의 진화

도시정책지표체계는 서울시정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200여 개의 지표로 출발하여 지난 20년(2003~2022년) 동안 서울의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변화와 서울시민의 가치 및 의식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준의 역할을 담당했다. 연간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특정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분야가 새로 생겨났는데,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서울시민 온라인 의견조사〉, 〈서울시 청년패널조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 주택 또는 특정 세대와 집단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조사 역시 여러 자치구에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등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확장되고 있다.

2. 도시정책지표의 역할과 지위 검토

도시정책지표체계는 서울의 사회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사회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정 영역의 조사들이 세분화되면서 서울 도시정책지표의 역할은 서울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환경과 시민 전체 삶의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변화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 도시모니터링 체계는 사회변화와 민선 시정의 변화 등 서울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체계와 역할 재정립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오늘날 세계 대도시의 도시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세계도시정책 지표들은 개략적으로 10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시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변화와 정책성고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뉴욕시 도시정책지표체계, 도쿄 도시지표체계 등).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정책지표체계로서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담당 부서인 빅데이터담당관 통계조사팀에서 지속성을 갖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표 전체를 재검토하여 2022년에 110개 지표체계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124개 지표체계로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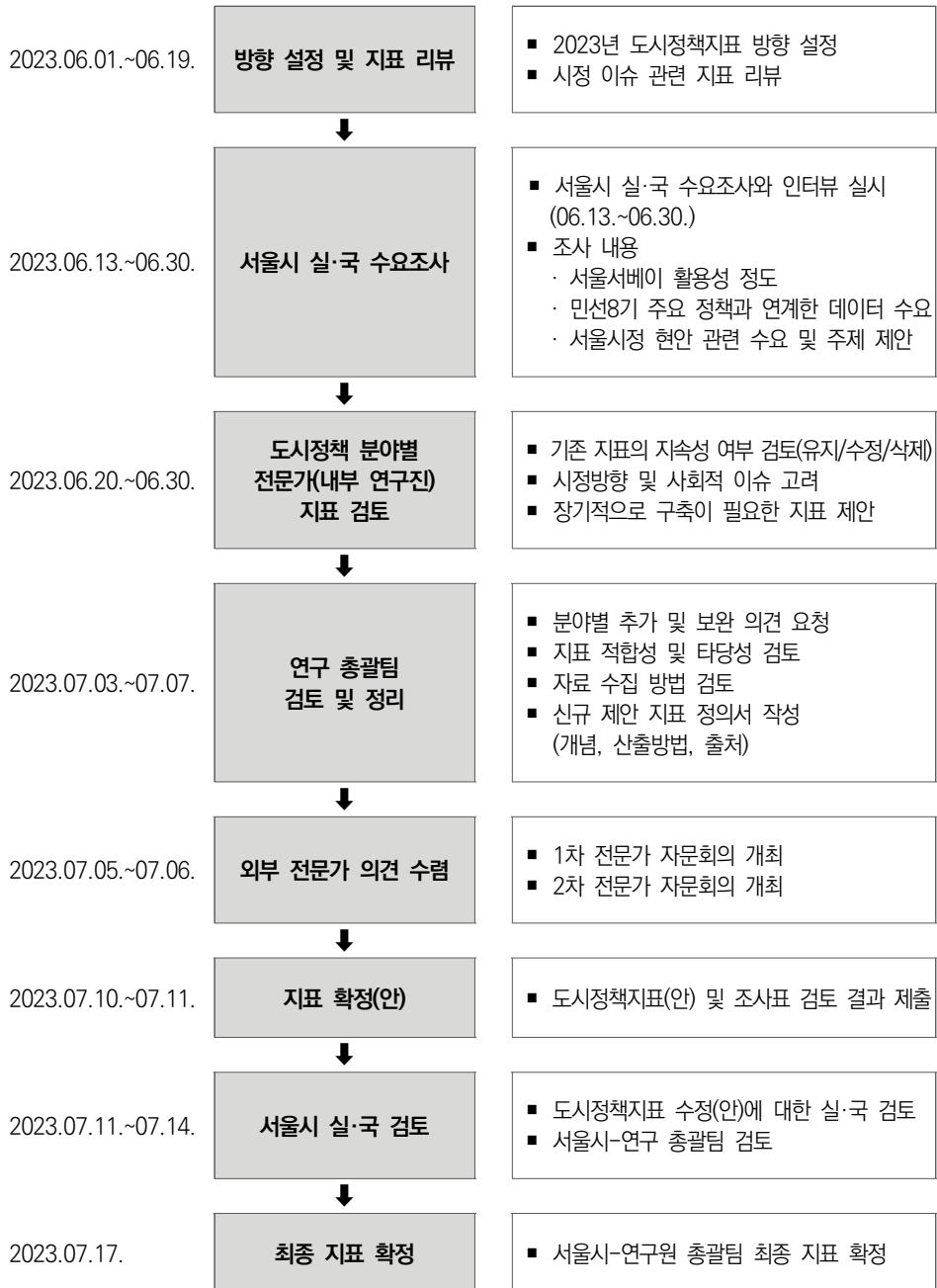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1. 도시정책지표 검토 과정

민선8기 시정방향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도시정책지표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정의 시민체감도를 강화하고 시정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지표를 보완·개발함으로써 도시정책지표의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도시정책지표 연구진은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를 위해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 내부 분야별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그리고 서울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3 도시정책지표 체계가 민선8기 시정운영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지표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내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를 검토 및 보완하고, 신규 지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산출기준 및 대표성을 검증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 의견에 대한 지표 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야별 주요 이슈와 시정의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와 내부 연구진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아 최종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0개 분야, 27개 영역, 124개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향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도시정책지표 검토를 위해 서울시와의 검토 회의 및 서울연구원 연구 총괄팀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내부 연구진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검토 과정을 거쳤다. 지표체계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도시정책지표 검토 추진 과정

2. 도시정책지표체계 변경 내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의 10개 분야 27개 영역 110개 지표에서 2023년에는 10개 분야 27개 영역은 유지하되, 124개 지표로 확대되었다. 영역별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의 '주거와 생활' 영역이 '주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문화와 여가> 분야에서는 '문화시장' 영역이 삭제되고 '문화기반' 영역으로 통합되고, '여가활동과 향유'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치와 의식> 분야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영역이 '통합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표별 변경 사항으로는 19개 지표가 신규로 제안되었으며, 5개 지표가 삭제, 1개 지표가 영역을 이동하였고, 19개 지표가 수정(지표명, 산출방법, 출처 등)되었다. 2023년 주요 이슈와 민선8기 시정 요구에 따라 고용, 안전, 환경, 문화, 여가, 돌봄 등과 관련하여 총 19개 지표(청년 니트 비율, 야간보행 안전도, 보이스피싱 피해,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지역문화시설 수, 여가생활 만족도,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여행 건수,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등)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 반영 및 지표 이해의 수월함을 위해 19개 지표에 대한 지표명, 지표 정의, 산출방법, 출처 등이 수정·보완되었으며, 지표로서의 가치 및 타 지표와의 유사성 검토를 통해 5개 지표가 삭제되고, 1개 지표가 영역 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 10개 분야, 27개 영역, 124개 지표

2021년 : 27개 영역, 100개 지표			2022년 : 27개 영역, 110개 지표			2023년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9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9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10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9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2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5
도시생활과 주거	• 주거와 생활 • 스마트 도시역량 • 스마트 도시격차	11	도시생활과 주거	• 주거와 생활 • 스마트 도시역량 • 스마트 도시격차	13	도시생활과 주거	• 주거 • 스마트 도시역량 • 스마트 도시격차	15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0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1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2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9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환경	• 대기·수질·토양 • 물 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환경	• 대기·수질·토양 • 물 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환경	• 대기·수질·토양 • 물 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1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1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3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0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1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여가활동과 향유	12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평등성	9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평등성	12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평등성	13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가족과 공동체	10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가족과 공동체	11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통합성	13

〈그림 2-2〉 2023년 도시정책지표 변화

〈표 2-1〉 2022-2023 도시정책지표 변경 내역

2022 도시정책지표		지표 변경					2023 도시정책지표
분야	총 지표수	유지	수정	이동	신규	삭제	
A. 인구와 가구	9	8	1	1	-	-	10
B. 경제와 노동	12	11	1	-	3	-	15
C. 도시생활과 주거	13	11	2	-	2	-	15
D. 건강과 보건	11	9	1	-	2	(-1)	12
E. 안전과 재난	9	6	2	-	2	(-1)	10
F. 환경	11	6	5	-	-	-	11
G. 교통	11	10	1	-	2	-	13
H. 문화와 여가	11	7	1	-	4	(-3)	12
I. 교육과 돌봄	12	9	3	-	1	-	13
J. 가치와 의식	11	8	2	(-1)	3	-	13
전체	110	85	19	1	19	(-5)	124

2023 도시정책지표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지표의 제안 이유와 기존 지표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2-2〉 2022-2023년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A. 인구와 가구 (9)	서울 인구 (4)	A1. 총인구		
		A2. 합계출산율		
		A3. 고령화지수		
		A4. 순이동률	수정	개념과 산출방법에 연령별 순이동률 추가
	서울 가구 (2)	A5. 1인가구 비율		
		A6. 가족다양성 분포		
	서울 거주 외국인 (3)	A7. 외국인 총인구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B. 경제와 노동 (12)	경제 활력 (4)	B1. 지역내총생산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B3. 외국인 투자유치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대형소매점 판매액	신규	민간소비 지표 필요
		서비스업생산지수	신규	서비스업생산지수 활용 제안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C. 도시 생활과 주거 (13)	소득과 고용 (8)	B6. 가구 소득 증가율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B8. 고용률		
		B9. 실업률		
		B10. 고용형태*		
		B11. 사회보험 가입률		
		B12. 소비자물가지수		
		B13. 구직단념자	수정	출처 변경
		청년 니트 비율	신규	청년 니트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비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거와 생활 (9)	C3. 주택구입부담지수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수정	출처 변경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신규	주택 재고와 관련된 지표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를 제안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C12. 1인당 주거면적		
		C1. 주거환경 만족도*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C16.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C17. 주거안정률*	수정	'평균 거주기간'으로 지표명 수정
D. 건강과 보건 (11)	스마트 도시 역량 (2)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스마트 도시 격차 (2)	C9. 접근성 격차		
		C10. 활용성 격차		
		SNS 이용 현황*	신규	SNS 이용 형태 및 인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규 지표로 제안 (시민조사)
	건강한 삶 (6)	D1. 기대수명		
		D2. 주관적 건강수준		
		D3. 우울감 경험률		
		D11. 자살률		
		D4. 신체활동 실천율	삭제	비만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삭제 제안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E. 안전과 재난 (9)		D5. 비만을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신규	'걷기 실천율'보다 정책적 시사점 큼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신규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 추정
	지역 보건 (5)	D6. 감염병 환자 수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수정	출처 변경
		D9. 보건기관 이용률		
		D10. 치매유병률		
	자연 재난 (2)	E1. 풍수해·폭설 피해		
		E2. 폭염·한파 피해	수정	출처 변경
	사회 재난 (5)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E6. 붕괴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삭제	지표로서의 가치 하락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야간보행 안전도*	신규	서울시민의 주관적 안전 경험에 관한 지표 필요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사회 안전 (2)	E8. 범죄 발생 건수	수정	'강력범죄 발생률'로 지표명 수정, 개념 및 산출방법 수정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보이스피싱 피해	신규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 현황 파악 필요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F2. 녹지환경 만족도*		
		F3. 오존 농도		
		F4. 환경소음도		
	물 순환과 자원 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좋은물 달성률	수정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로 지표 명 수정, 개념 및 산출방법 수정
		F6. 불투수면적 비율	수정	서울시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출처 변경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수정	개념, 산출방법 수정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수정	개념, 산출방법 수정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G. 교통 (11)	에너지 (3)	F9. 재생에너지 비율	수정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지표명 수정
		F10. 온실가스 배출량		
		F11.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G3. 도시철도 연장		
		G8. 자전거 도로율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G11. 보도 면적		
	교통 서비스 (5)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G6. 지하철 최고 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수정	산출방법 수정: '야간보행 안전도' 지표를 새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 가구원조사의 '3) 밤 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보행 만족 정도' 문항 삭제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신규	탄소 저감 등 자전거 이용 및 만족도 조사 필요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통근/통학 소요 시간*	신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은 시민 삶의 질에 중요
H. 문화와 여가 (11)	문화 활동과 향유 (5)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H3. 문화환경 만족도*		
		H4. 종합 독서량		
		H11.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수정	산출방법 수정: 전국에서 서울 데이터로 변경
	문화 기반 (4)	H5. 도서관 수		
		H6. 전시시설 수	삭제	문화기반 시설 수의 지표로서의 가치 하락
		H7. 공연시설 수	삭제	문화기반 시설 수의 지표로서의 가치 하락
		H8. 영화관람시설 수	삭제	문화기반 시설 수의 지표로서의 가치 하락
		지역문화시설 수	신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현황 파악
	문화 시장 (2)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I. 교육과 돌봄 (12)	여가 활동과 향유	여가생활 만족도*	신규	개인이 느끼는 여가시간 충분성과 주관적 여가생활 만족도 파악 (※ '여가시간 충분성'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신규	서울시민들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 파악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여행 건수*	신규	여가활동 형태 중 서울시민들의 국내외여행 실태 조사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교육 및 보육 환경 (3)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I2. 평생교육 참여율		
		I3. 공공보육시설 비율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신규	0~5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사회적 약자 보호 (5)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정	'최근 1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경험 가구 비율'을 산출방법에 추가
		I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I12. 빈곤율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수정	산출방법 수정
	성평등 성 (4)	I7. 성별 임금 격차		
		I9. 성평등지수		
		I10. 가사노동 부담 정도*		
		I8.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수정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로 지표명 수정. '출생아 부모 중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로 산출방법 변경
J. 가치와 의식 (11)	시민성 (3)	J11. 지역사회 참여율*		
		J2. 자원봉사 참여율*		
		J3. 시민자부심*		
		시민 준법의식*	신규	서울 시민들의 준법의식 인식 파악 (※ 2023년 가구원 신규 문항)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수정	개념 및 산출방법 변경: '아동 인권'에 관한 주관적 인식 조사 추가
		J5. 사회적 신뢰*		
		J6. 다양성 수용도*		
		J12. 공정성*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2 도시정책지표			2023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변경 내용 및 이유
	가족과 공동체 (4)	J7. 지역사회소속감*		
		J8. 사회적 고립도*	수정	개념 및 산출방법 변경: 객관적 지표(물리적 고립감) 외 주관적 지표(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파악 필요 (※ '1인가구의 고립감'(주관적 지표): 2023년 가구주 신규 문항)
		J9. 가족 친밀성*	이동	'A. 인구와 가구_서울가구' 영역으로 이동
		J10. 행복지수*		
		계층이동 가능성*	신규	서울시민의 미래에 대한 전망 지표 필요
		미래 불안 요인*	신규	서울시민의 미래에 대한 전망 지표 필요 (※ '미래 불안 요인': 2023년 가구주 신규 문항)

- 주: 1) 'C.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 '주거와 생활' 영역을 '주거'로 영역 명 수정
 2) 'H. 문화와 여가' 분야: '문화시장' 영역을 삭제하고, 하위 항목을 '문화기반'으로 이동,
 3) 'H. 문화와 여가' 분야: '여가활동과 향유' 영역 추가
 4) 'J. 가치와 의식' 분야: '가족과 공동체' 영역을 '통합성'으로 영역 명 수정

3. 도시정책지표 개선 방향

1) 민선8기 시정 방향을 반영한 도시정책지표

2023년 도시정책지표에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고용, 안전, 환경, 돌봄, 여가 등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었다. 고용과 관련한 지표로는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일자리아고용·실업·우울 등)와 관련된 분야의 지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년 니트 비율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구직단념자의 경우 데이터 출처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역별고용조사로 수정함으로써, 서울 단위의 고용시장 안정성 측정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야간 보행 안전도 지표를 추가하여 서울시민의 주관적 안전 경험에 관한 지표를 보완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를 추가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건수 및 피해액)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 및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탄소 저감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를 새롭게 배치하였으며, 돌봄 관련으로는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추가하였다. 문화와 여가 분야에서는 지표로서의 가치가 감소한 문화기반 시설 지표들을 삭제(전시시설 수, 공연시설 수, 영화관람시설 수)하고,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 수 지표를 추가하여 서울시 문화공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가 활동과 향유 영역을 새롭게 배치하여 서울시민이 느끼는 여가 시간의 충분성, 주관적 여가 생활의 만족도,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여가생활 만족도,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여행 건수 지표를 추가하였다.

2)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보완

한편 사회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보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민간소비 지표로 ‘대형소매 점판매액’ 지표와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추가로 제안되었다. 소득과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자 수도 함께 제공해 줄 것도 제안되었다.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재고와 관련된 지표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인구 천 명당 주택 수’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는 비만율과 유사한 개념인 ‘신체활동 실천율’을 삭제하고, 대신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생활 체육활동 참여 현황’ 지표를 포함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지표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측정하여 보건 및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안전과 재난 분야에서는 지표로서의 가치가 낮은 ‘붕괴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지표를 삭제하고 서울시민의 주관적 안전 경험 및 사회 안전 지표를 보완하였다. 문화와 여가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에 영화관람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이 이미 정체 상태 또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의 수가 더 이상 지표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화기반 영역과 문화시장 영역을 통합·축소하여 지표 수를 조정하였으며, 여가활동과 향유 영역을 추가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여가’ 부분을 강화하였다. 한편 가치와 의식 분야에서는 서울시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층이동 가능성’과 ‘미래 불안 요인’ 지표를 추가하였다.

4. 도시정책지표 업데이트 현황

2023 도시정책지표에 포함된 총 124개 지표 가운데 113개 지표는 2022년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였다(일부 2021년 데이터 등 반영). 그러나 나머지 2개 지표는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2022년 데이터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에 해당하는 9개 지표는 2024년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가 반영될 예정이다.

〈표 2-3〉 2023 도시정책지표 업데이트 현황(2024년 1월 12일 기준)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A. 인구와 가구	서울인구	A1. 총인구	1975-2022	
		A2. 합계출산율	2013-2022	
		A3. 고령화지수	2013-2022	
		A4. 순이동률	2013-2022	
	서울가구	A5. 1인가구 비율	2015-2022	
		A6. 가족다양성 분포	2016-2022	
		A11. 가족친밀성*	2019-2022	가구원조사
	서울 거주 외국인	A7. 외국인 총인구	2013-2022 (서울시) 2013-2022 (법무부)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2013-2022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2013-2022	외국인조사
B. 경제와 노동	경제활력	B1. 지역내총생산	2012-2021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2012-2021 (통계청) 2016-2022 (중소벤처기업부)	
		B3. 외국인 투자유치	2013-2022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2012-2021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2020-2022	
		B15. 서비스업생산지수	2013-2022	
	소득과 고용	B6. 가구 소득 증가율	2013-2022 (전국)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2013-2022 (전국)	
		B8. 고용률	2013-2022	
		B9. 실업률	2013-2022	
		B10. 고용형태*	2013-2022	가구원조사
		B11. 사회보험 가입률	2013-2022 (전국)	
		B12. 소비자물가지수	2013-2022	
		B13. 구직단념자	2015-2022	
		B16. 청년 니트 비율	2015-2022	
		C3. 주택구입부담지수	2013-2022	
C. 도시 생활과 주거	주거와 생활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019, 2020, 2021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12-2021	
		C18.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00-2021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2015-2022	
		C12. 1인당 주거면적	2015-2022	
		C1. 주거환경 만족도*	2013-2022	가구주조사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2013-2022	
		C16.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2013-2022	
		C17. 평균 거주기간*	2013-2022	가구원조사
	스마트 도시역량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2023년 9월 기준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2023년 9월 기준	
	스마트 도시격차	C9. 접근성 격차	2018-2022	
		C10. 활용성 격차	2018-2022	
		C19. SNS 이용 현황*	2020-2022	시민조사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D. 건강과 보건	건강한 삶	D1. 기대수명	2012-2022 (전국) 2012-2021 (서울)	
		D2. 주관적 건강수준	2013-2022	
		D3. 우울감 경험률	2013-2022	
		D11. 자살률	2013-2022	
		D5. 비만율	2013-2022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2020-2022	
	지역보건	D6. 감염병 환자 수	2020-2022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2013-2022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2013-2022	
		D9. 보건기관 이용률	2013-2022	
		D10. 치매유병률	2015-2022	
E. 안전과 재난	자연재난	E1. 풍수해·폭설 피해	2013-2022 (자연재난) 2013-2022 (강수/눈일수)	
		E2. 폭염·한파 피해	2013-2022	
	사회재난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3-2022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3-2022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2013-2022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2-2021 (전국) 2019-2021 (서울)	
		E11. 야간보행 안전도*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사회안전	E8. 강력범죄 발생률	2013-2022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2012-2021 (가정폭력) 2013-2022 (여성폭력상담) 2013-2022 (노인학대) 2013-2022 (아동학대)	
		E12. 보이스피싱 피해	2016-2022 (전국) 2016-2020 (서울)	
F. 환경	대기와 녹지	F1. (초)미세먼지 농도	2013-2022 (대기오염 농도) 2015-2022 (주의보)	
		F2. 녹지환경 만족도*	2013-2022	가구원조사
		F3. 오존 농도	2013-2022 (오존 농도) 2013-2022 (주의보)	
		F4. 환경소음도	2013-2022	
	물순환과 자원순환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2013-2022	
		F6. 불투수면적 비율	2000-2020 (5년 주기)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2012-2021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2012-2021	
	에너지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2012-2021	
		F10. 온실가스 배출량	2005-2020	
		F11.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22	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G. 교통	교통 인프라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2013-2022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2013-2022	
		G3. 도시철도 연장	2013-2022	
		G8. 자전거 도로율	2013-2022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2013-2022	
		G11. 보도 면적	2013-2022	
	교통 서비스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2013-2022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2013-2022	가구원조사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2011-2021 (격년 조사)	
		G7. 보행환경 만족도*	2013-2022	가구원조사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2015-2022	
		G12.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2012-2019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2013-2022	가구원조사
H. 문화와 여가	문화 활동과 향유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13-2022	가구원조사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2013-2022	가구원조사
		H3. 문화환경 만족도*	2013-2022	가구원조사
		H4. 종합 독서량	2015-2021 (격년조사)	
		H11.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2021-2022	
	문화기반	H5. 도서관 수	2013-2022	
		H12. 지역문화시설 수	2012-2021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2012-2021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2020-2022	
	여가활동과 향유	H13.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2 (여가생활 만족도) (2023년 신규 문항 (여가시간 충분성))	가구원조사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H15. 여행 건수*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I. 교육과 돌봄	교육 및 보육환경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2013-2022	가구주조사
		I2. 평생교육 참여율	2013-2022 (서울 및 광역시)	
		I3. 공공보육시설 비율	2013-2022	
		I1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2015-2022	
	사회적 약자 보호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2013-2022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3-2022 (국민 기초) 2020-2022 (서울형 기초)	
		I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2013-2022	
		I12. 빈곤율	2013-2022 (전국)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2012-2021	
	성평등성	I7. 성별 임금 격차	2013-2022 (전국)	
		I9. 성평등지수	2016-2021	
		I10. 가사노동 분담 정도*	2013-2022	가구주조사
		I8.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2012-2021p (전국)	
J. 가치와 의식	시민성	J11. 지역사회 참여율*	2015-2018 (가구원), 2019-2021 (시민), 2022 (가구원)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J2. 자원봉사 참여율*	2013-2022	가구원조사
		J3. 시민자부심*	2015-2018 (가구원), 2019-2021 (시민), 2022 (가구원)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J13. 시민 준법의식*	(2023년 신규 문항)	가구원조사
	포용성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2013-2022	가구원조사
		J5. 사회적 신뢰*	2013-2022	가구원조사
		J6. 다양성 수용도*	2020-2022	가구원조사
		J12. 공정성*	2021 (시민), 2022 (가구원)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통합성	J7. 지역사회 소속감*	2021-2022	가구원조사
		J8. 사회적 고립도*	2015-2022 (사회적 고립도) (2023년 신규 문항) (1인 가구 고립감)	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J10. 행복지수*	2013-2022	가구원조사
		J14. 계층이동 가능성*	2015-2022	가구원조사
		J15. 미래 불안 요인*	2020-2022 (5년 후 위험 정도) (2023년 신규 문항) (미래 불안 요인)	시민조사 가구원조사

제3장

2023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제1절	인구와 가구
제2절	경제와 노동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제4절	건강과 보건
제5절	안전과 재난
제6절	환경
제7절	교통
제8절	문화와 여가
제9절	교육과 돌봄
제10절	가치와 의식

제3장 2023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제1절 인구와 가구

1. 서울인구

1) 요약 및 정책 제언

저출생과 고령화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초저출생 시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재설계 필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초저출생 사회(1.2명 이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2.32명으로 1970년(4.83명)에 비해 2.51명(51.9%) 감소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으로 홍콩(2021년 0.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70년(4.53명)에 비해 3.72명(82.2%)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22년에 17.5%로 6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50년 뒤 전 세계인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것에 반해, 한국은 2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된다.

서울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 시민 중 29세 이하 청년은 1990년에 56.9%에서 2050년에 18.9%로 감소(38.0%p)할 것으로 전망되며,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의 5.5%에서 2050년에 43.3%로 증가(37.8%p)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111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0.5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한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추세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2015년(101.7)에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179.5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152.0)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천(129.5)과 경기도(113.1)가 전국 대비 고령화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의 고령화지수 격차는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2012년 2.4p→2022년 27.5p).

전국 최저수준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거주 욕구가 높은 만큼 서울의 주택가격은 여타 시도에 비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젊은 부부들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울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감의 증대는 출산 결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20~30대의 비혼율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급속한 저출생 경향에 따른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서울시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중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중장기적 정책을 세밀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인구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정책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인구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가족형성, 가족돌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확장 중이며, 이민 관련 다문화 다인종 정책 등 인구정책과 연관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책들이 증거기반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현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활인구의 규모와 변화를 고려한 경계가 없는 도시(edgeless city) 전략 필요

2022년 서울시민의 총인구는 9,417,469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38만 명 감소하였다. 인구성장률 또한 2022년에 -0.58%로, 2015년(1.12%)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88년에 천만 명에 달했던 서울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800만 명 미만의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도 간 인구이동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서울의 총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민의 순이동률은 -1.4%에서 -0.4% 수준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으며, 특히 15-29세 청년의 서울 전입률이 높다. 20-24세 청년의 서울 전입률이 평균 3.5%로 가장 높고, 25-29세 청년의 전입률이 평균 1.4%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에 전출률은 0-4세 아동이 평균 -3.7%로 가장 높고, 부모세대인 30-39세 인구의 전출률이 평균 -2.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의 상당수는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은 채 주변 사·도, 특히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순이동률은 0.3%에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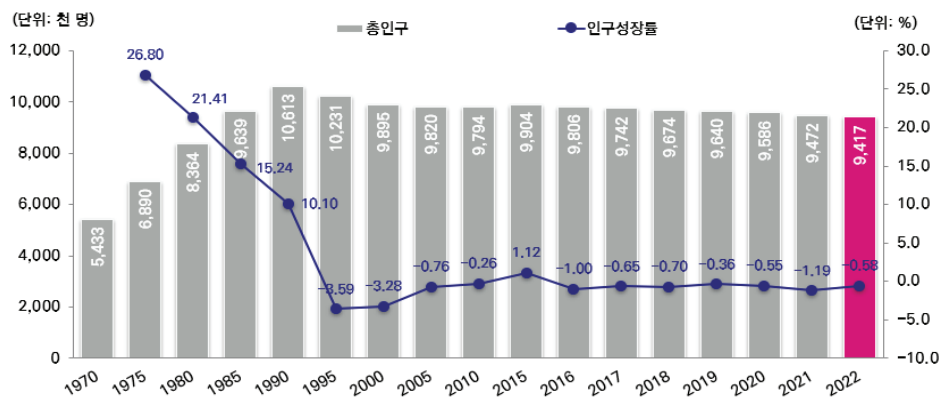
수준으로 전입률이 높으며, 서울의 순이동률과 대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유출되는 대부분의 인구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인구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청년 시절에 서울로 유입된 사람들은 내집마련과 취업을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주간 혹은 야간에 업무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상주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에서 생활하는 생활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는 생활인구 현황을 다양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상주인구뿐 아니라 주야간의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분야는 수도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거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그리고 수도권 인구를 고려한 정책 방향이 함께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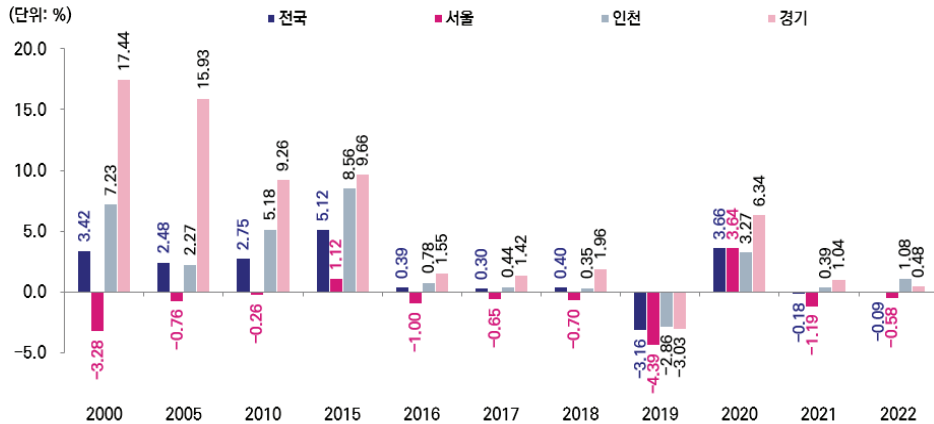
• 총인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민의 총인구는 9,417,469명으로 지난 30년간 감소추세이며, 2010년에 비해 376,835명(3.8%) 감소하였다. 서울의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0.58%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는 각각 0.48%, 1.08% 증가하였다.



주) 외국인 인구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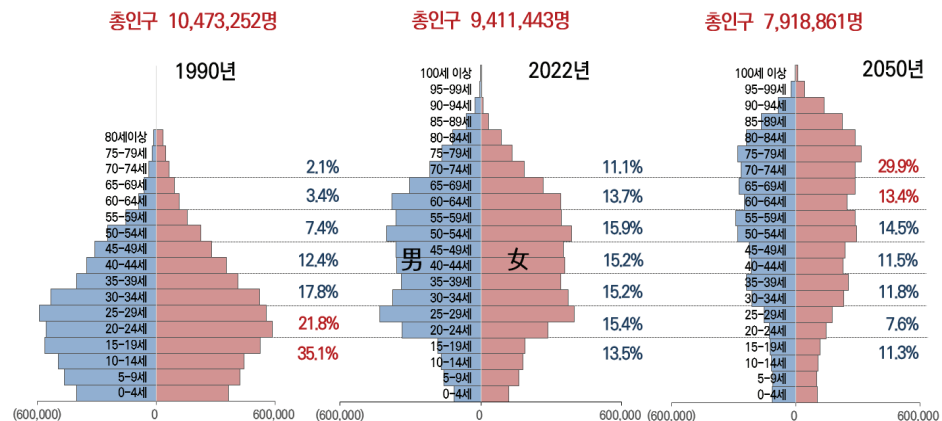
〈그림 3-1〉 총인구



주) 외국인 인구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2〉 인구성장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988년에 최초로 천만 명 이상으로 진입한 서울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25년이 지난 2013년에 99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50년경에는 서울의 인구가 8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인구성장률 -0.92%),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세 이하 청년인구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50년에 18.9%로 감소(38.0%p)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에 5.5%에서 2050년에는 43.3%로 증가(37.8%p)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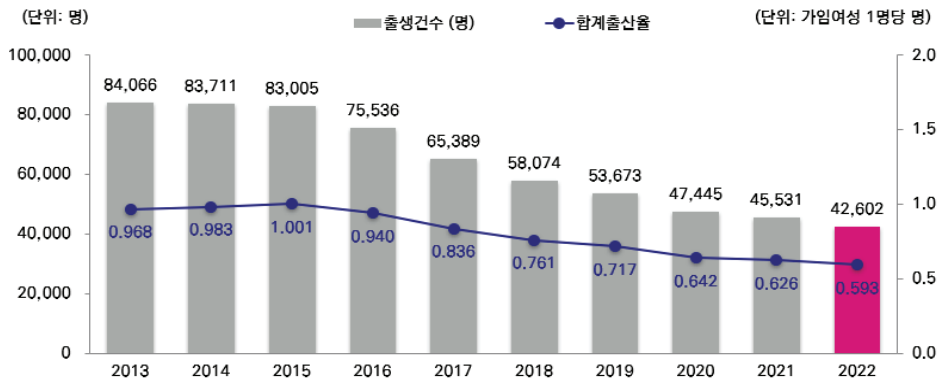


주)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매년 7월 1일 시점 기준)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포함됨. 1970~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3〉 성별/연령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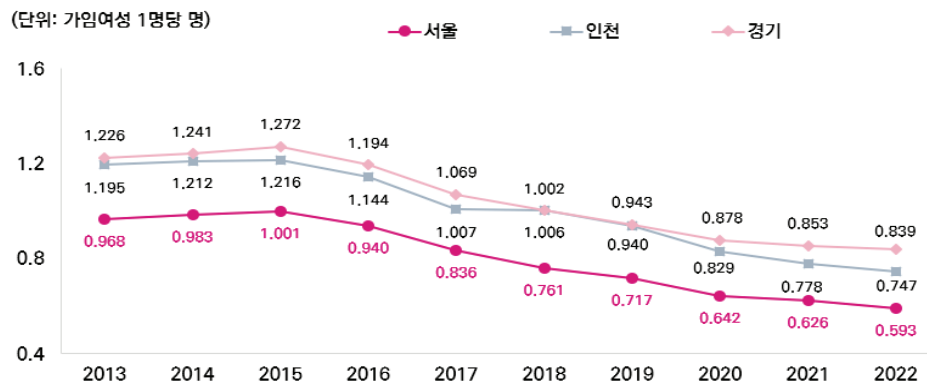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초저출생 사회의 모습(합계출산율 1.2명 이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111명으로 떨어진 후 좀처럼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도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 각각 0.747명, 0.839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전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16년 이후 1.2명 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면서 2022년에는 0.778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4〉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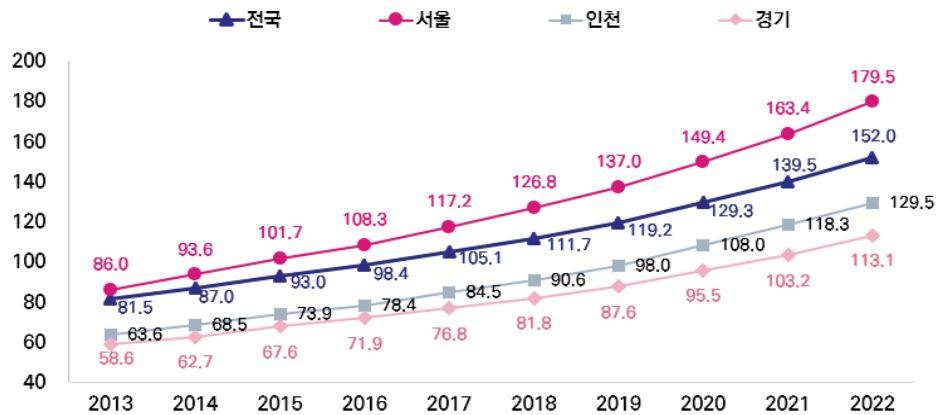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5〉 합계출산율(수도권)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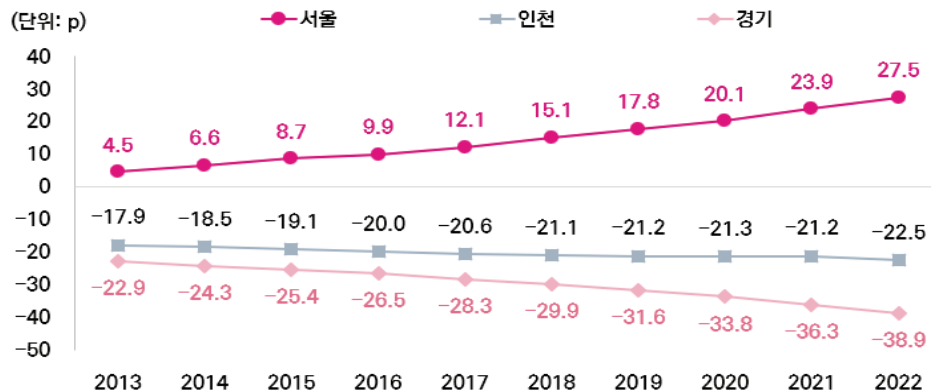
• 고령화지수

고령화지수는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통계청이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에 따르면, 2022년에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17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고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전국 152.0).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에 처음으로 100 이상(101.7)을 기록하였다. 이는 곧, 2015년에 서울의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를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경기도의 고령화지수는 113.1(17개 시도 중 15위), 인천의 고령화지수는 129.5로 나타났다(17개 시도 중 12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6〉 고령화지수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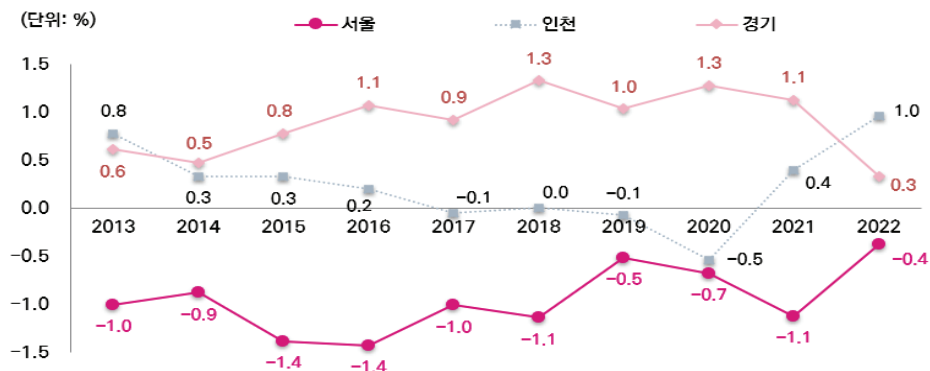
〈그림 3-7〉 전국 대비 고령화지수 격차

전국 대비 고령화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의 고령화지수 격차가 점점 우상향하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서울의 고령화지수 격차는 2013년에 4.5%p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27.5%p로 증가하였다.

• **고령화지수**: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순이동률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2022년 순이동률은 -0.4%로 전입률보다 전출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지만(각각 2.2%p, 2.9%p), 여전히 서울로의 전입보다는 주변 시·도로의 전출이 더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의 순이동률은 각각 0.3%, 1.0%로 조사되었는데, 전년 대비 경기도는 전출률이 증가한 데 반해(순이동률 0.8%p 감소), 인천은 전입률이 증가한 것(순이동률 0.6%p 증가)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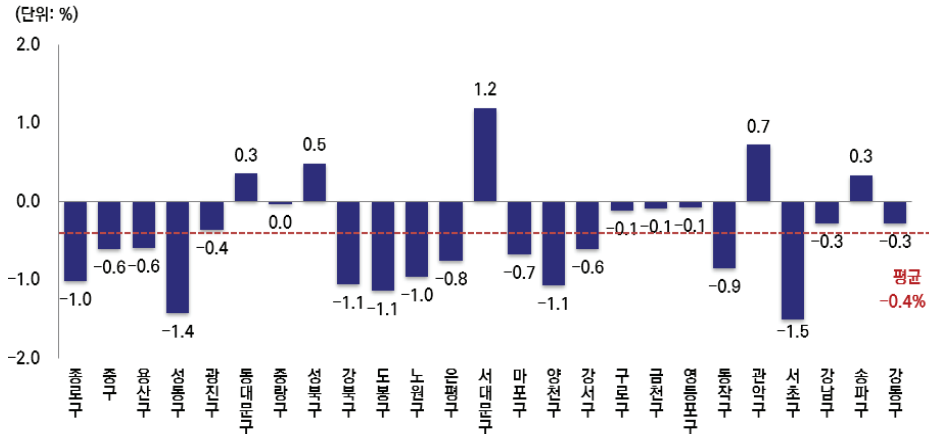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8〉 순이동률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1.2%), 관악구(0.7%), 성북구(0.5%), 동대문구-송파구(0.3%)에서 총전입률이 총전출률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20개 자치구에서는 총전출률이 더 높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초구(-1.5%)와 성동구(-1.4%)가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전출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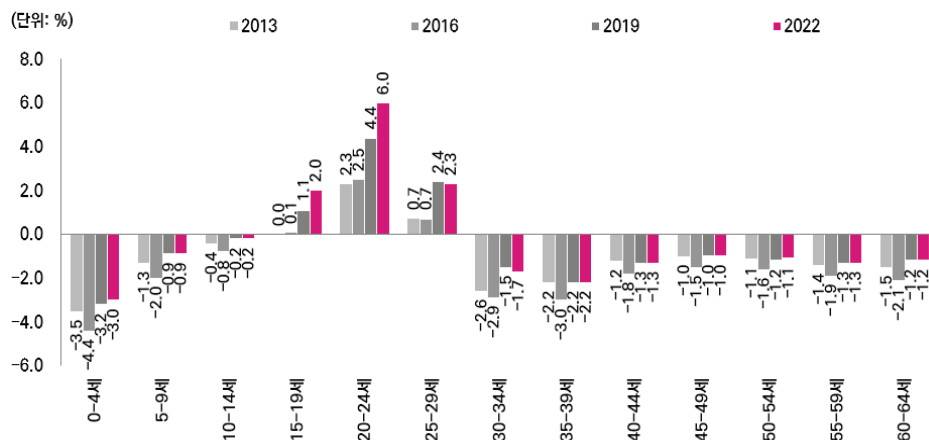
- **이동률**: 주민등록연앙인구 대비 이동자 수
- **전입률**: 전입자 수/연앙인구×100, **전출률**: 전출자 수/연앙인구×100
- **순이동률**: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전입률-전출률)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2

〈그림 3-9〉 순이동률(구별)

서울의 순이동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20~24세 청년의 전입률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청년 2.3%, 15~19세 아동 2.0%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0~4세 아동의 전출률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세대인 35~39세 인구의 전출률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15~29세 인구는 서울로의 전입률이 높았던 반면, 14세 이하 아동과 30세 이상 인구는 서울 밖으로의 전출률이 높았다. 20~24세 청년의 서울로의 전입률(2.1~6.0%)이 가장 높았고, 25~29세 청년의 전입률(0.4~2.4%)이 두 번째로 높았다. 전출률은 0~4세 아동(-3.0~-4.7%)이 가장 높고, 35~39세(-2.1~-3.2%), 30~34세(-1.5~-2.9%) 순으로 높았다.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10〉 순이동률(연령별)

2. 서울가구

1) 요약 및 정책 제언

1·2인가구, 편부모가족 등 소규모 가구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적 시정 운영 적극 펼칠 필요

서울의 1인가구 증가 현상은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 기준 매년 인구추계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의 1인 가구 증가는 인구가구의 변화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의 ‘축소 가구’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1980년에 불과 4.5%에 지나지 않았던 1인가구는 1990년에 9%를 넘었고, 2000년 16.3%, 2010년 24.4%, 2022년 38.2%로 증가하였다. 2022년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0년 전인 1990년(9.1%)에 비해 29%p 증가하였으며, 전국 1인가구 비율(34.5%)보다 3.7%p 높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대전(38.5%)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인천(31.0%)과 경기도(30.2%)의 1인가구 비율이 각각 15위, 16위로 위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1인가구의 대부분은 20~30대로, 2022년 기준 20대 이하의 82.8%, 30대의 51.3%가 1인가구이다. 또한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자치구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관악구(53.9%), 중구(43.7%), 금천구(43.6%), 광진구(43.0%) 등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았고, 양천구(25.5%), 서초구(29.5%), 도봉구(29.5%) 등에서는 낮았다.

서울의 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서울의 가족 구성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서울가구의 38.2%는 1인가구, 26.0%가 부부와 미혼자녀, 14.4%가 부부, 9.0%가 편부모와 미혼자녀(편모와 미혼자녀 7.0%, 편부와 미혼자녀 2.0%)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보통가족’인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보다 1인가구나 2인가구(부부), 편부모가구 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가구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22년에 서울의 1인가구는 20.4%p, 2인가구는 9.5%p 증가하였다. 과거 가장 일반적인 가구였던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2.5%p와 18.2%p 감소하고, 5인 이상 가구 또한 9.2%p 감소하였다.

향후 서울의 가구 정책은 가구 구성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1인가구 포털(lin.seoul.go.kr), 한부모가족지원센터(www.seoulhanbumo.or.kr) 등을 통해 다양한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

으로 새로운 유형의 가구들(1인, 편부모, 다문화, 부부, 청소년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전통적 가구 유형에서는 필요 없었던 지원(사회적 고립)이나, 새로운 유형의 수요(외로움, 반려동물 돌봄 등)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가족 유형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다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

가구 규모의 축소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경향 속 인구와 가구 특성, 소득수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친밀성 제고 정책 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가족중심의 친밀한 문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하고, 가족생활이 존중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혼, 비혼,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족 내 관계 회복,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로 개별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민의 가족 친밀성은 10점 만점에 5.67점으로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가족과 식사’가 6.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부모와의 대화’ 5.94점, ‘부부, 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5.28점,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대화’ 5.11점, ‘가족과의 여가 생활’ 5.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폭 증가하였는데, 서울시민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과 방법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친밀성은 가구특성과 소득수준, 그리고 연령과 거주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구원 수가 많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고, 30~40대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은 반면, 혼자 살고, 가구 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고, 70대 이상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북권에서 가족 친밀성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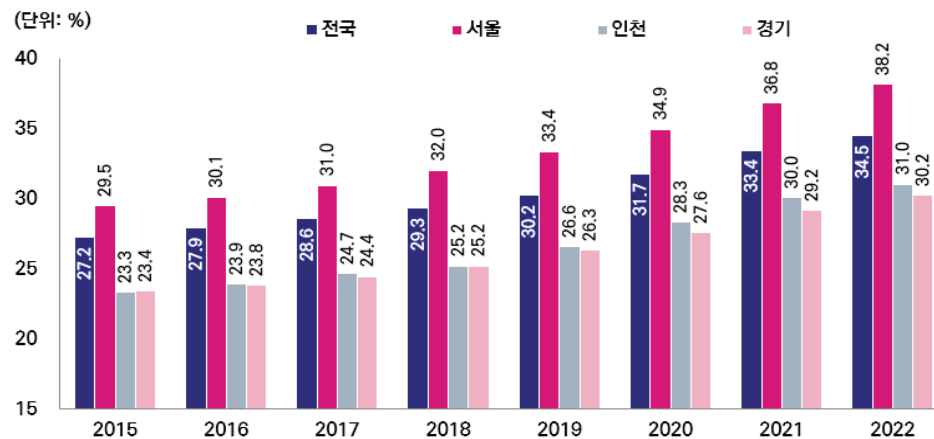
장 낮았다.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 부부와 비혼자녀 가구, 부부 가구, 편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등 가족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 간 친밀한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와 가구 특성, 그리고 소득수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 가치관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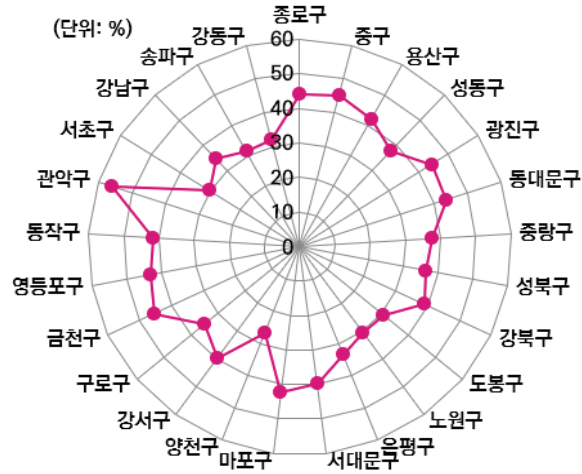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8.2%로 30여 년 전 (1990년 9.1%)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으며(대전 38.5%), 전국 1인가구 비율(34.5%)보다 3.7%p 높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31.0%(15위)이며, 경기도는 30.2%(16위)로 서울보다 낮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1〉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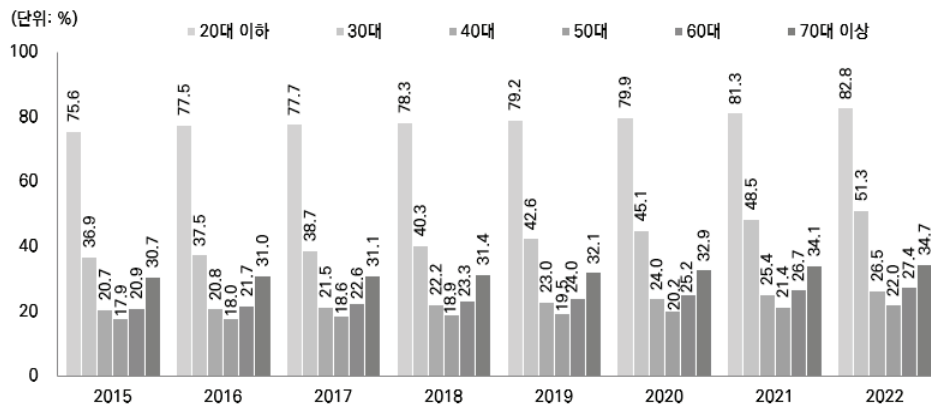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관악구(55.9%)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천구(45.6%), 중구(44.9%), 광진구(44.3%), 종로구(44.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양천구(26.9%), 서초구(30.3%), 노원구(30.7%), 도봉구(30.8%)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그림 3-12〉 1인가구 비율(구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20대 이하의 82.8%, 30대의 51.3%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70대 이상 34.7%, 60대 27.4%, 40대 26.5%, 50대 22.0%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모든 연령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30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4.4%p)하였다. 다음으로 20대 7.3%p, 60대 6.5%p, 40대 5.8%p, 50대와 70대 이상 4.1%p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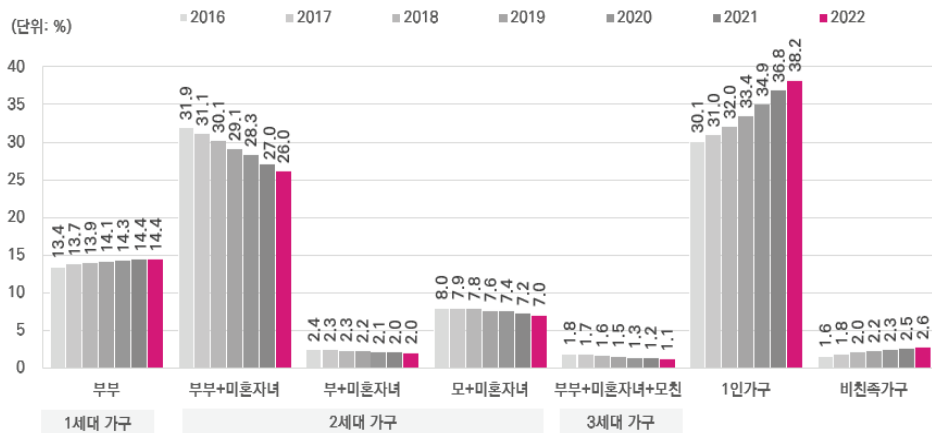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3〉 1인가구 비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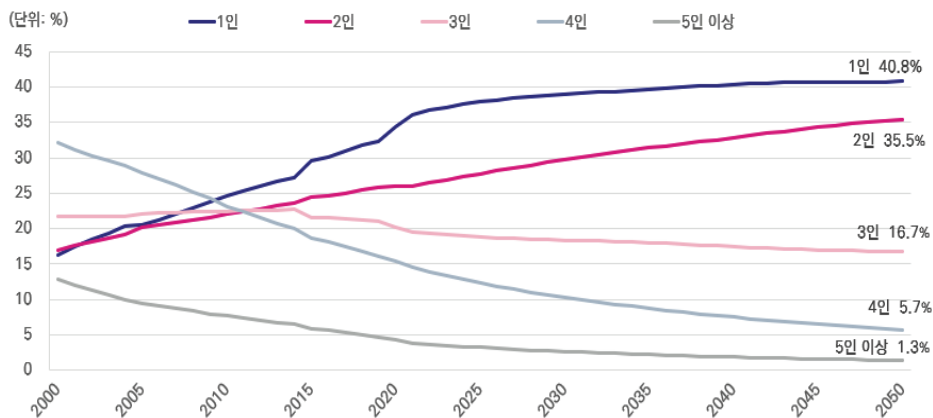
• 가족다양성 분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가구의 38.2%가 1인가구, 26.0%가 부부와 미혼자녀, 14.4%가 부부, 9.0%가 편부모와 미혼자녀(편모와 미혼자녀 7.0%, 편부와 미혼자녀 2.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1인가구(8.1%p)와 부부로 구성된 가구(1.0%p), 비친족가구(1.0%p)는 증가한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5.9%p), 편모·편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각각 1.0%p와 0.4%p)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구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구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4〉 가족다양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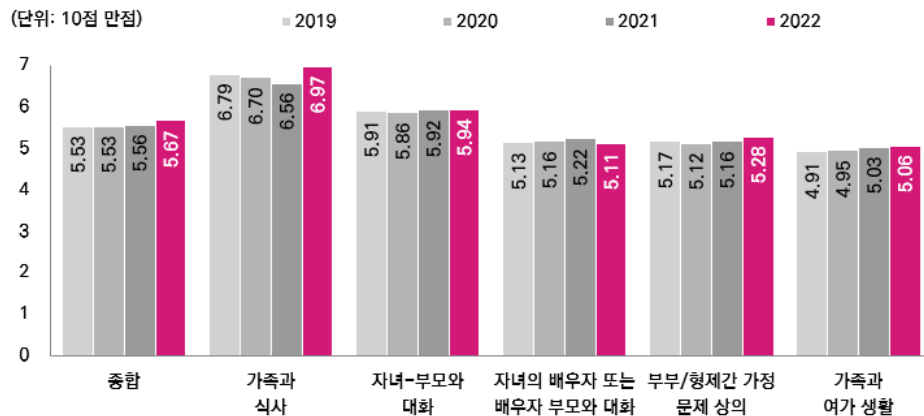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그림 3-15〉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2년 서울의 1인가구는 20.4%p, 2인가구는 9.5%p 증가하였다. 과거 가장 일반적인 가구였던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2.5%p, 18.2%p 감소하였고, 5인 이상 가구 또한 9.2%p 감소하였다. 향후 2050년에는 1~2인 가구가 76.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새로운 가구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가족 친밀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10점 만점)는 2022년에 5.67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11점)하였다. 항목별로는 ‘가족과 식사’가 6.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부모와의 대화’ 5.94점, ‘부부, 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5.28점,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대화’ 5.11점, ‘가족과의 여가 생활’ 5.0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족친밀성은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대화’(0.11점 감소)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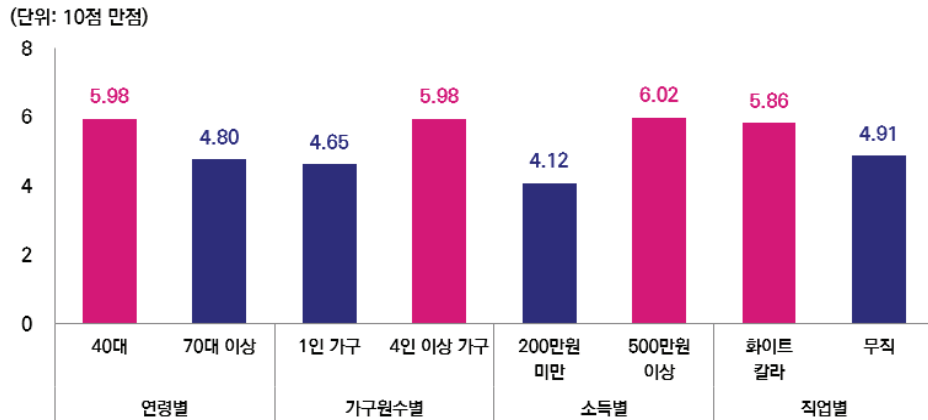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6〉 가족 친밀성

가구와 인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많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고, 30~40대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은 반면, 혼자 살고, 가구 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고, 70대 이상에서는 가족과의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6.02점)를 제외하고 30~40대에서 가족 친밀성이 5.91~5.98점으로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4.80점으로 낮았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의 가족 친밀성은 4.6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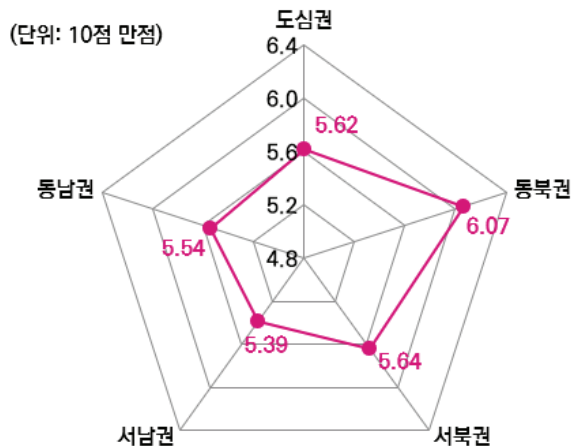
인데 반해, 3인 이상 가구는 6점 수준으로 높았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밀성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가 4.12점으로 가장 낮고, 500만 원 이상 가구가 6.02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 가족 친밀성이 4.91점으로 가장 낮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7〉 가족 친밀성(인구특성별)

지역별로는 동북권(6.07점)에서 가족 친밀성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5.39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8〉 가족 친밀성(권역별)

3. 서울 거주 외국인

1) 요약 및 정책 제안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경제사회 환경 파악을 위한 포괄적인 외국인 실태조사 수립해야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약 23만 9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인구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았으며, 도봉구, 양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은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은 여성 외국인이 남성 외국인보다 11.8%p 많다(여성 외국인 133,785명, 남성 외국인은 105,512명). 연령별로는 20대(32.1%)와 30대(18.9%)의 비중이 높았고, 10대와 60세 이상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다. 최근 10년 동안 20대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6.7%p), 40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8.5%p).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53.2%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한국계중국인(조선족) 29.7%, 중국인 23.5%), 2017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유학 자격이 21.3%로 가장 많고, 영주(19.9%)와 방문취업(12.3%)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 비율은 2019년까지 방문취업 목적이 1위였으나, 2020~2021년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주 목적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유학 목적이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이다.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2022년에 6.9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7.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환경(7.06점), 교육환경(6.96점), 경제환경(6.82점), 주거환경(6.72점), 사회환경(6.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1년에 비해 복지환경과 경제환경 대한 만족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주거환경과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 교육환경과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2019년에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23-2024년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기본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이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 공공시설은 모두 17개소로(2021년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외국인 주민의 상당수가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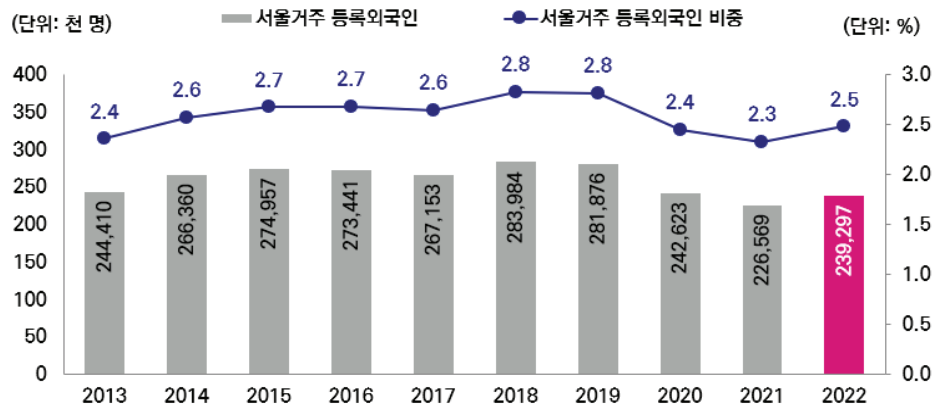
따라서 도시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서울시민으로서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인력유치를 위한 서울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 실태를 조사하여 서울의 포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노력과 함께 서울거주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인 실태조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의 사회경제 현황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인 삶의 질 지표체계를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서울시에 함께 살아가기 좋은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외국인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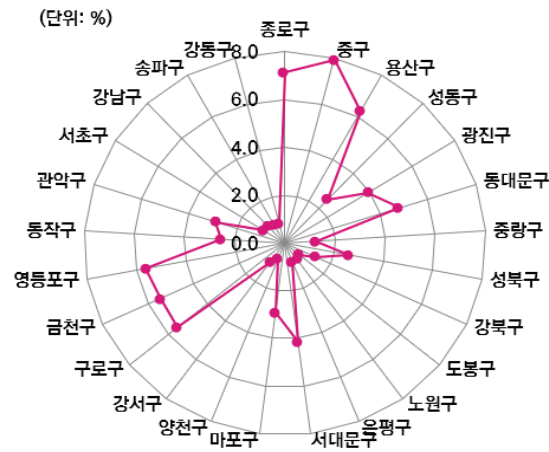
서울시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39,297명으로 전년 대비 12,728명(5.6%)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9〉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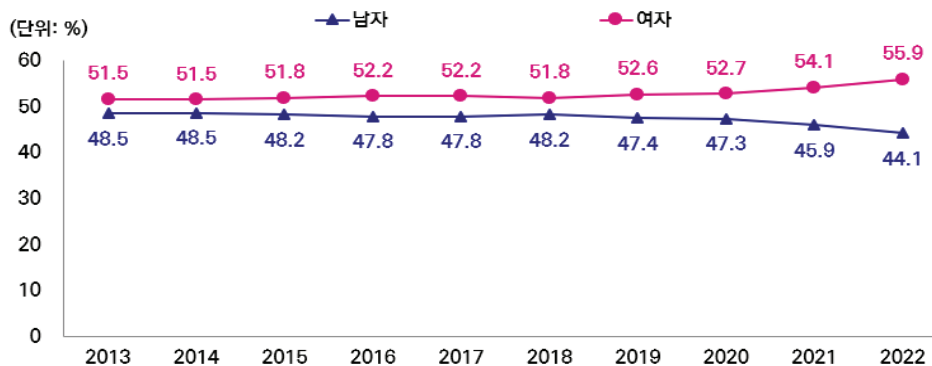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은 1992년에 0.3%(3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8~2019년에 2.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020~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중구(7.9%), 종로구(7.1%), 용산구(6.3%), 영등포구(5.6%), 구로구(5.5%), 금천구(5.4%) 순으로 등록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양천구(0.7%), 노원구·은평구(0.8%), 강남구·강동구·송파구(0.9%)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2022

〈그림 3-20〉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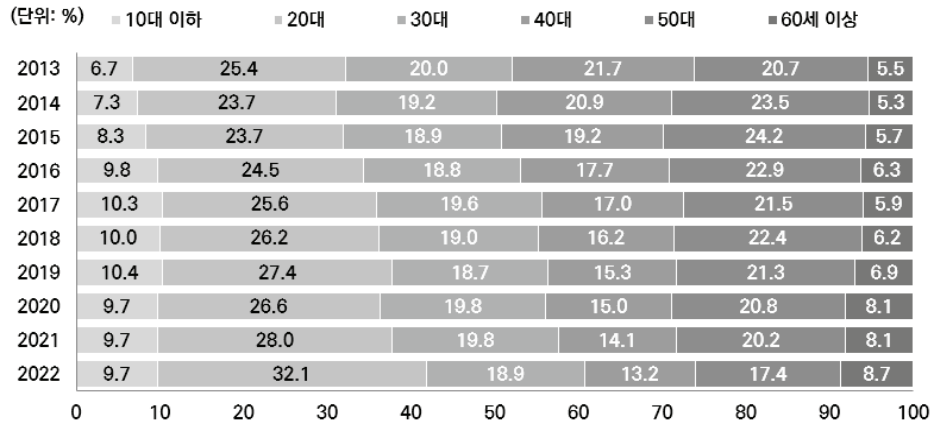
또한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 중 여성 외국인은 133,785명(55.9%), 남성 외국인은 105,512명(44.1%)으로 나타났다. 여성 외국인 비율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인데, 2022년에는 여성 외국인과 남성 외국인 격차가 11.8%p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21〉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성별)

연령별로는 2022년에 20대가 32.1%로 가장 많고, 30대(18.9%), 50대(17.4%), 40대(13.2%), 10대(9.7%), 60세 이상(8.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20대의 서울 거주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40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 대비 20대는 6.7%p 증가하였으며, 40대는 8.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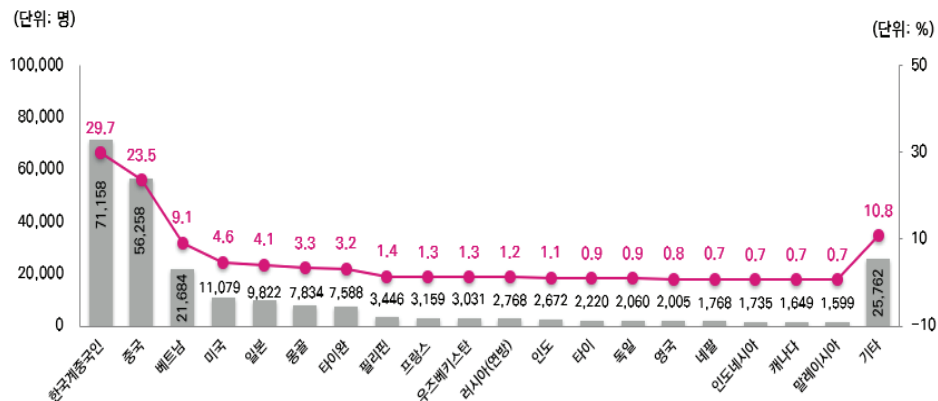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그림 3-22〉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연령별)

•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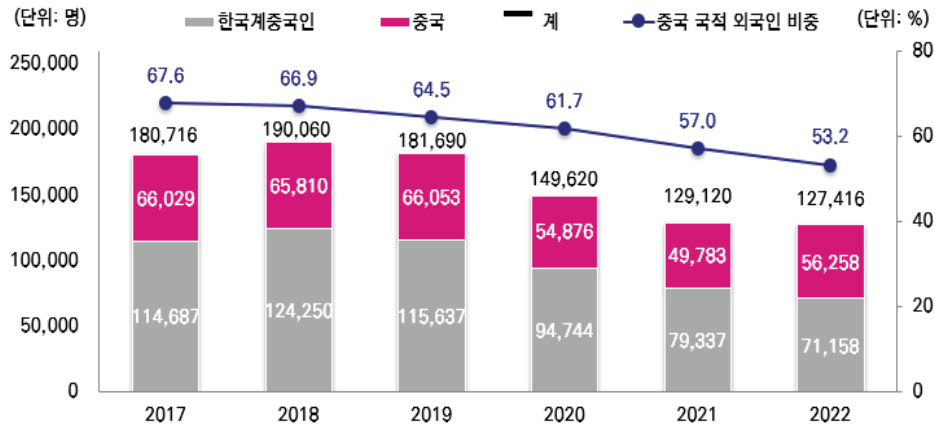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나타난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이 53.2%(한국계중국인 29.7%, 중국 23.5%)로 나타났다, 베트남 9.1%, 미국 4.6%, 일본 4.1%, 몽골 3.3%, 타이완 3.2%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2022

〈그림 3-23〉 서울 거주 외국인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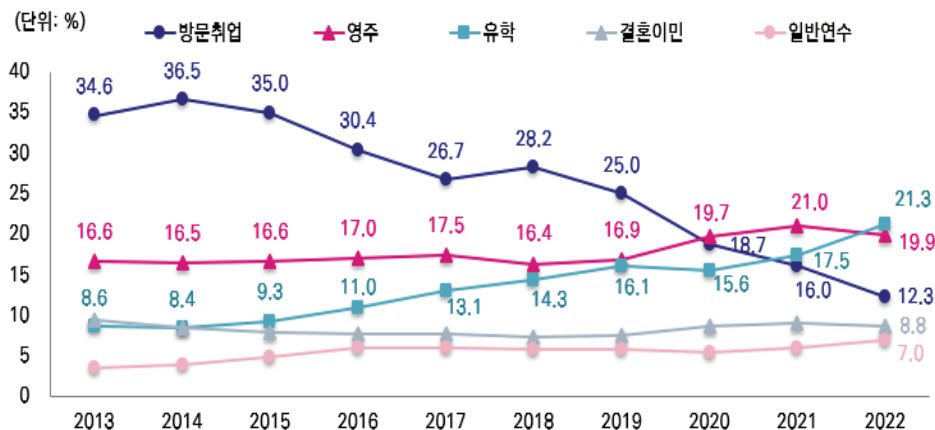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한국계중국인은 2017년에 대비 13.2%p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1.2%p 감소하였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그림 3-24〉 서울 거주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유학 자격이 21.3%로 가장 많고, 영주(19.9%), 방문취업(12.3%), 결혼이민(8.8%), 일반연수(7.0%), 방문동거(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유학(3.8%p)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연수(1.0%p), 관광취업(0.6%p), 구직(0.2%p)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방문취업(3.7%p)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영주(1.1%p), 방문동거·거주(0.6%p), 결혼이민(0.3%p)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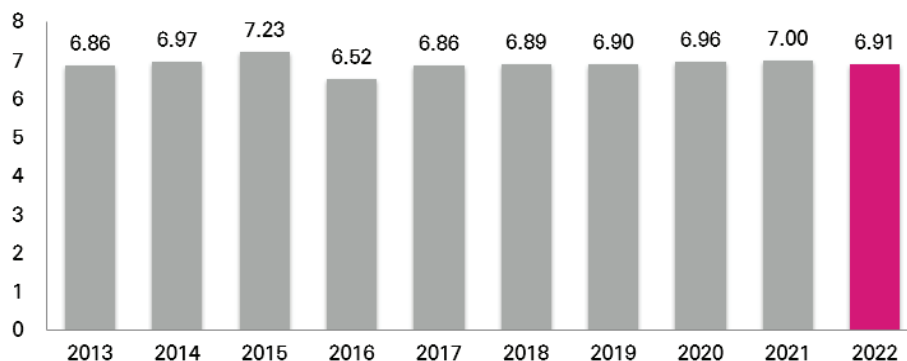
〈그림 3-25〉 서울 거주 외국인 체류자격 비율

2013년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13년 대비 22.3%p 감소), 유학으로 인한 체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3년 대비 12.7%p 증가). 영주 체류는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증가하다가 202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19년까지 방문취업 목적이 1위를 위치하였으나, 2022년에는 3위로 하락하였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주 목적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유학으로 인한 체류자격 비율이 1위를 차지하였다.

•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2022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거주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질 만족도는 6.9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09점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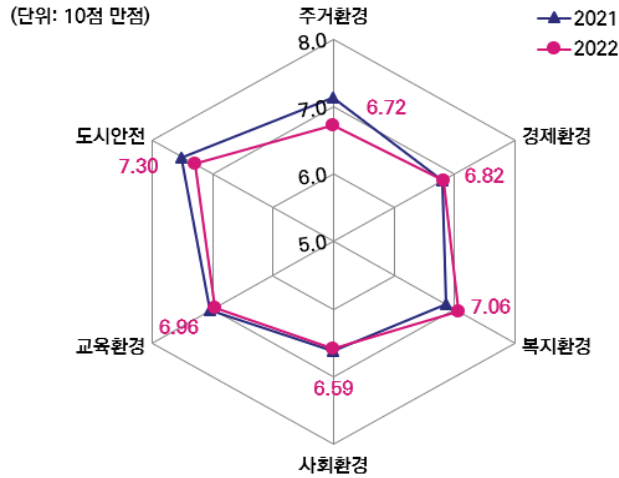


주) 2018년 이전 조사: 세부 문항 차이로 연도별 종합점수 비교 시 주의 필요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26〉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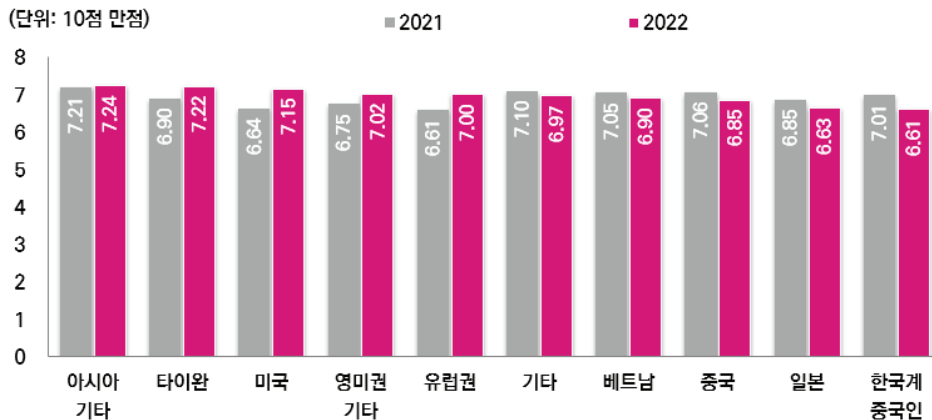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7.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환경(7.06점), 교육환경(6.96점), 경제환경(6.82점), 주거환경(6.72점), 사회환경(6.59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복지환경(0.20점)과 경제환경(0.02점)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주거환경(0.42점)과 도시안전(0.21점)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 교육환경(0.09점)과 사회환경(0.03점)에 대한 만족도도 소폭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27〉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영역별)

국적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기타(7.24점), 타이완(7.22점), 미국(7.15점), 영미권 기타(7.02점), 유럽권(7.00점)에서 삶의 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국계 중국인(6.61점), 일본(6.63점), 중국(6.85점)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미국과 유럽권, 그리고 타이완에서 삶의 질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각각 0.5점, 0.39점, 0.32점),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0.4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28〉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국적별)

제2절 경제와 노동

1. 경제활력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둔화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전략 지원 필요

2021년 서울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은 472조 402억 원으로 전년(444조 5,449억 원)보다 6.19% 성장한 수치로 한국 GDP의 22.7%를 차지하였다. 전국 대비 비중은 전년보다 0.21%p 감소하였으나 큰 등락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서울의 1인당 GRDP는 4,968만 원으로 전년(4,622만 원)보다 증가하였다. 서울의 주요 업종인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운수 및 창고업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제활력을 이끌었다. 소비 부문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22년에 23조 1,99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7.8% 성장하였으나,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15.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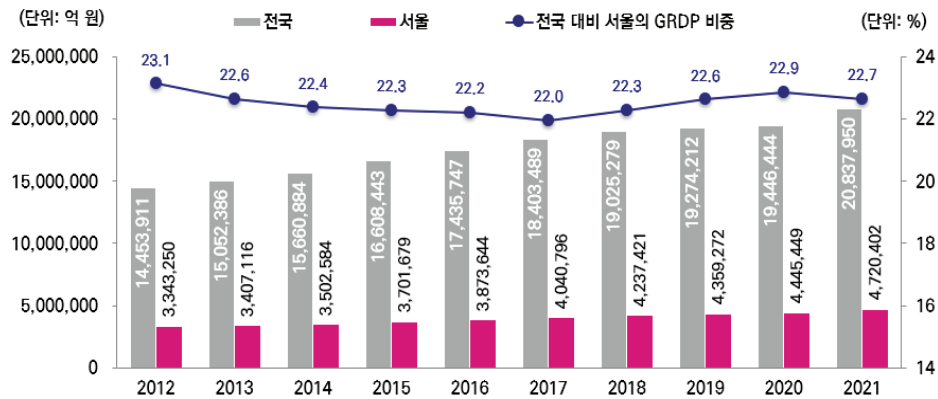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창업 활동은 그동안 상승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둔화한 모습이다. 서울의 창업률은 2016년~2020년 사이에 14.2~14.8%를 지속하였으나, 2021년에 전년(14.8%)보다 낮은 13.5%로 하락하였다. 서울의 폐업률은 2014년(14.6%)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 이후부터 11% 내외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2021년에 5.2%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서울의 창업 특징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기술 기반 창업의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기술기반의 창업 비중은 21.4%로 2020년 이후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은 하락하였다. 지난 10년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21년에 180억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107억 2천 5백만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서울의 전국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5.9%이다. 10년 전에 비해 서울의 연구개발비는 2.0%p, 인천은 0.6%p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5.5%p 증가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혁신 창업과 스케일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 인공지능 등 성장산업에 대한 맞춤형 연구개발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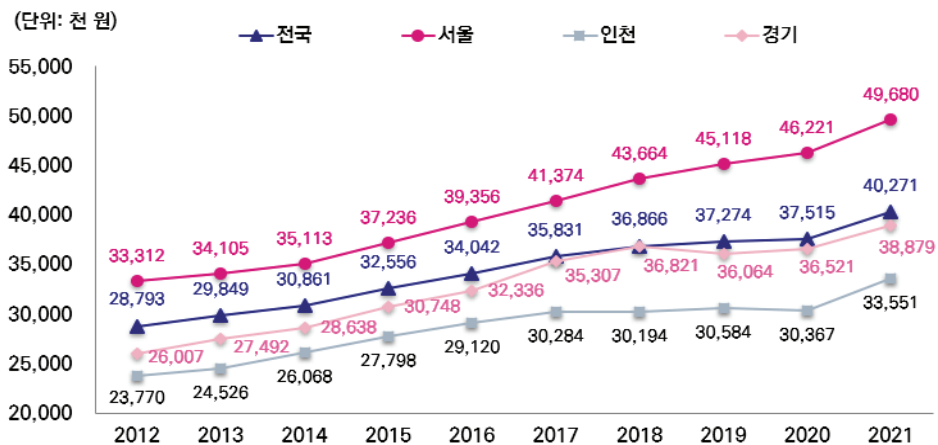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성장을 총량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1년에 472조 402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대비 22.7%로 나타났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서울의 1인당 GRDP는 4,968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29〉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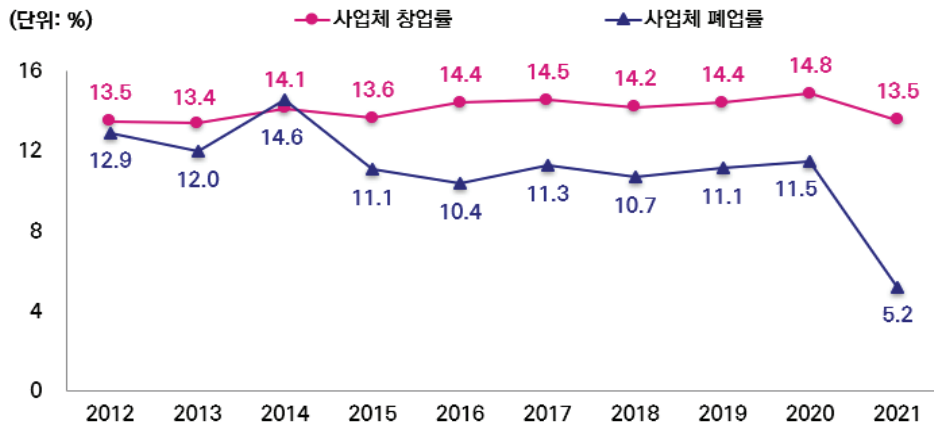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30〉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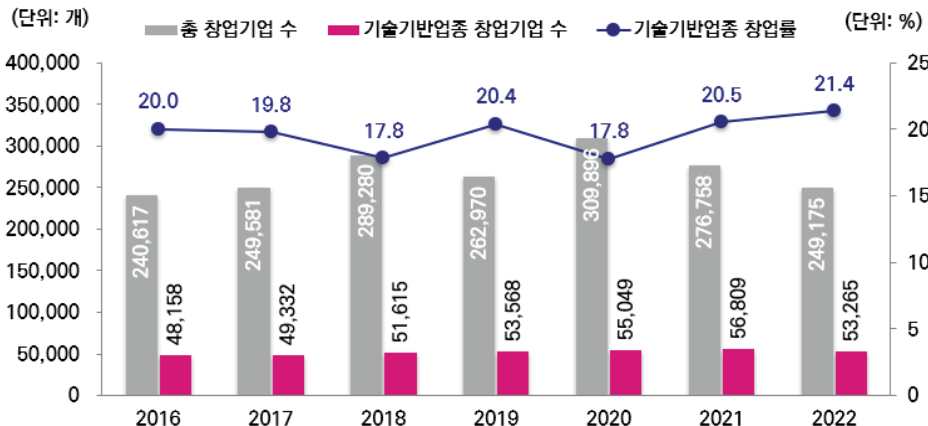
• 사업체 창업·폐업률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사업체 창업률은 13.5%(신생 기업 수 200,029개)로 2012년 이후 13~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체 폐업률은 2021년 기준 5.2%(소멸기업 수 76,666개)로 전년 대비 6.3%p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 사이 폐업률이 가장 낮았다.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림 3-31〉 사업체 창업률과 폐업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그림 3-32〉 창업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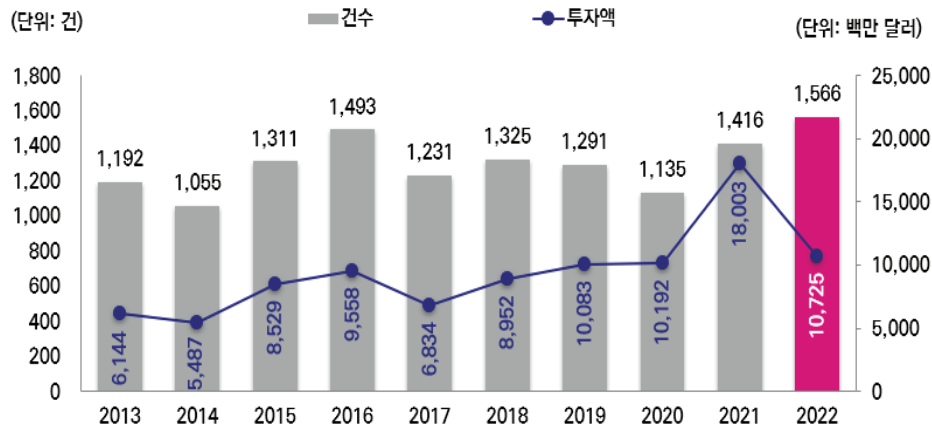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22년에 서울에서 창업된 기업 수(사업자 등록 자료 기준)는 총 249,175개로, 전년 대비 27,583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53,265개로, 전체 창업 수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지만(3,544개), 기술기반 창업률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하였다.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 외국인 투자유치

서울시 금융투자과의 외국인 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13년 이후 1,000~1,600건으로 변화가 유동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22년에 1,566건으로 전년 대비 150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대비 374건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1년에 180억 3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22년에 107억 2천 5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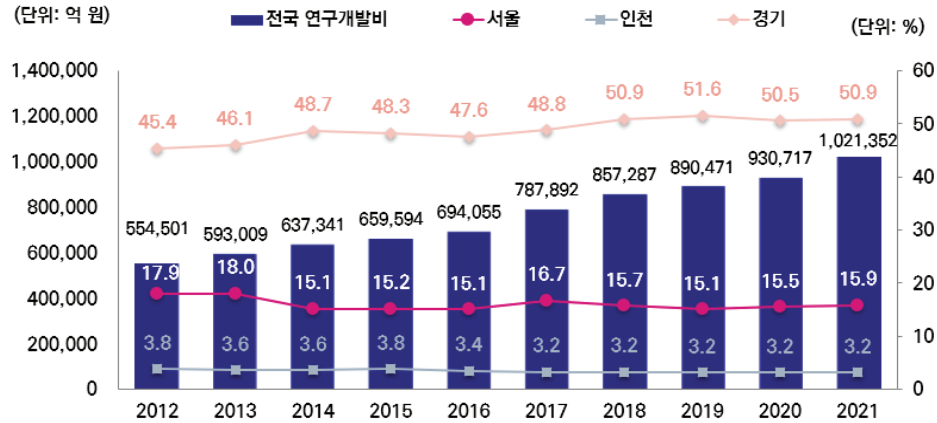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 투자 현황

〈그림 3-33〉 외국인 투자유치

•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연구개발비는 16조 2,043억 원으로 전국 대비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연구개발비는 51조 9,571억 원(50.9%)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으며, 인천의 연구개발비는 3조 2,270억 원(3.2%)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서울과 인천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2.0%p, 0.6%p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연구개발비는 5.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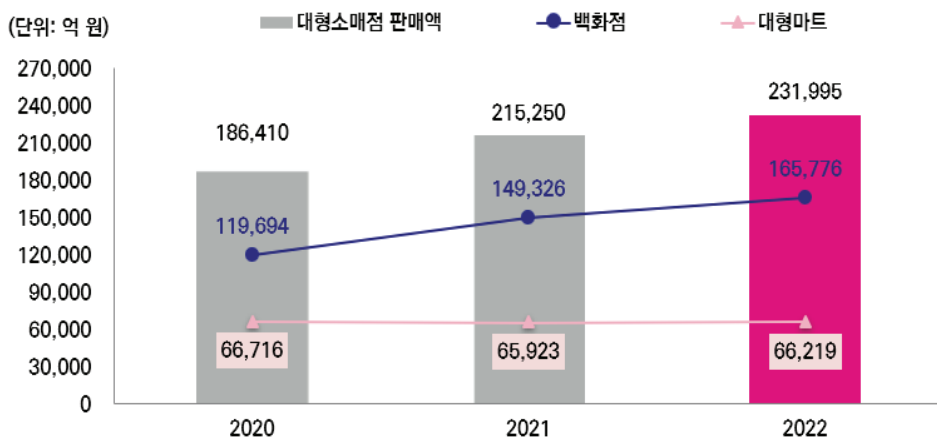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3-3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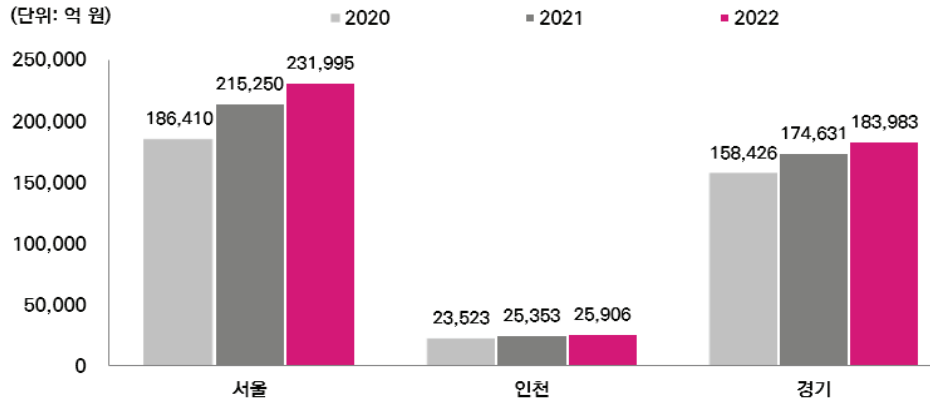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총 23조 1,995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이 중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71.5%(16조 5,776억 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5%(6조 6,219억 원)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35〉 대형소매점 판매액

최근 3년간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경기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8조 3,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2조 5,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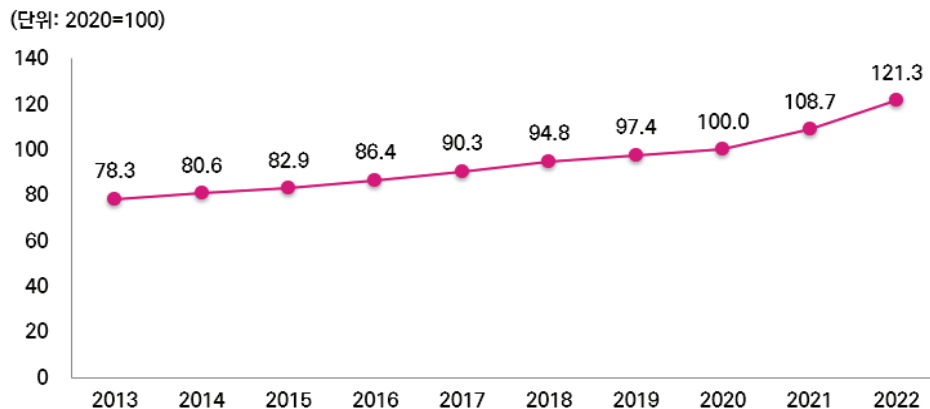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36〉 대형소매점 판매액(수도권)

• 서비스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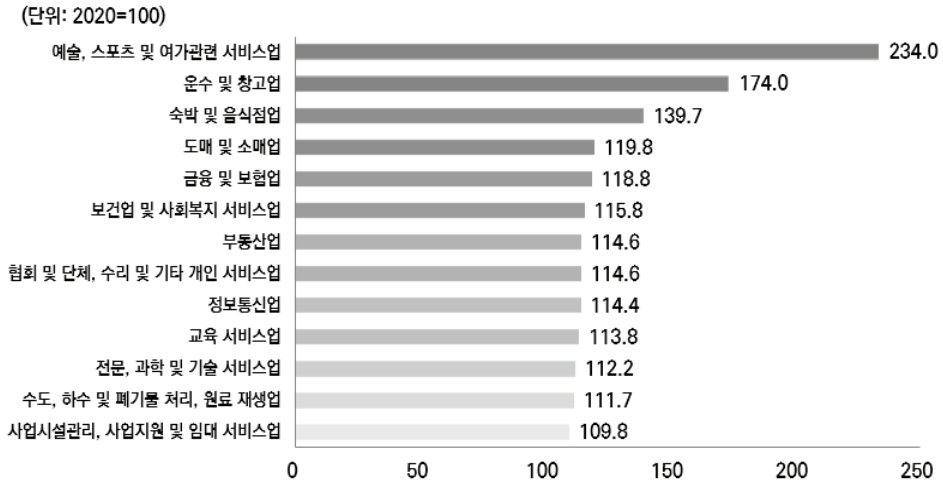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21.3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증가추세로 2013년 대비 43.0p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37〉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지수)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 및 창고업’(174.0)과 ‘숙박 및 음식점업’(139.7)의 생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2

〈그림 3-38〉 13개 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지수)

2. 소득과 고용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의 가구 실질소득 감소, 고용안정성 하락 등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한 소득 지지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노력 필요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424만 원이었으나 2022년 4분기 548만 원이었다.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3년 2.9%에서 2017년 -1.6%로 하락했다가 이후 증가로 전환되어 2022년에는 3.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년 증가율(6.8%)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한편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 2020년에서 2021년 성장률(2.1%)보다 높았다.

서울의 1인 이상 근로자가구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소득 격차는 전년과 달리 감소하였다. 가구 소득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2018년(6.8배)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5.89배) 전환되어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5.72배로 소득 격차가 하락하였다.

서울의 고용률은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고 실업률은 높은 편이다. 2022년 서울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고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62.7%, 63.9%로 전년 대비 1.4%p, 2.8%p 증가하였다. 동기간 서울의 실업률은 3.4%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고 인천과 경기도의 실업률은 각각 3.3%, 2.7%로 전년 대비 각각 0.7%p, 1.0%p 감소하였다.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고용 형태는 서울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67.9%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16.1%),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14.1%), 무급가족종사자(1.0%), 특수고용종사자(0.8%) 순이었다. 이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68.3%)보다 0.4%p 감소해 지역 차원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소폭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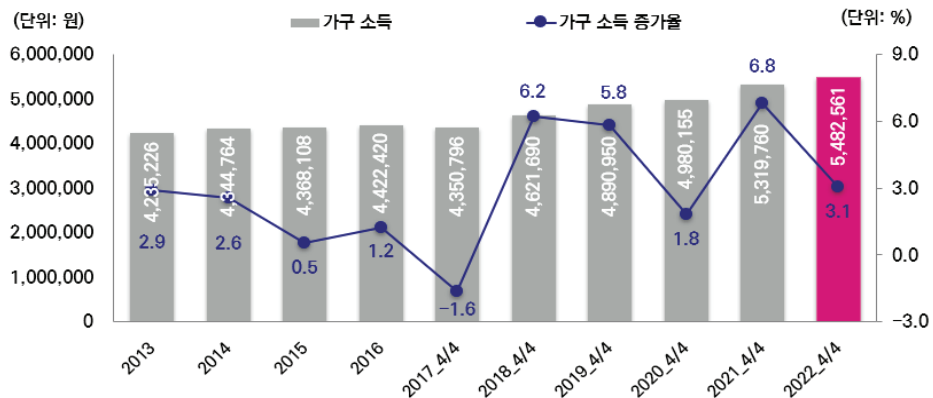
2022년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8만 명이고 이 중 구직단념자는 52,599명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비율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한 3.1%였으나 이후 2021년 2.2%, 2022년에는 1.7%까지 감소하였다. 2022년 서울 거주 15~29세 청년 니트 인구는 214,356명으로, 구직단념자의 추세와 유사하게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차츰 감소하는 모습이다.

2022년 서울의 가구 소득은 증가추세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구매력은 하락하였다. 반면 고용 안정성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직단념자와 청년 니트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한 소득 지지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지표 설명

• 가구 소득 증가율

통계청은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에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 이상 결과표는 20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22년 4/4분기 기준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4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분기 대비 3.1%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3년 424만 원에서 지난 10년간 125만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1)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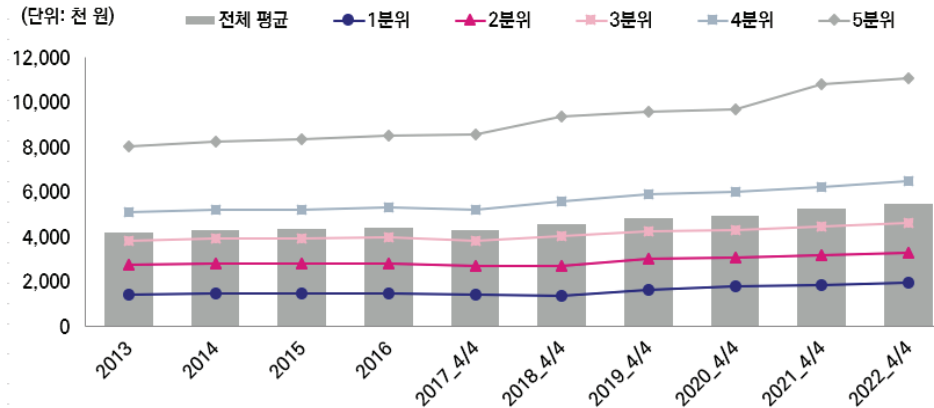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39〉 가구 소득 증가율(전국)

• 분위별 소득 분포(소득 5분위배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4/4분기 기준 전국의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의 5분위별 평균소득은 1분위 193만 원, 2분위 327만 원, 3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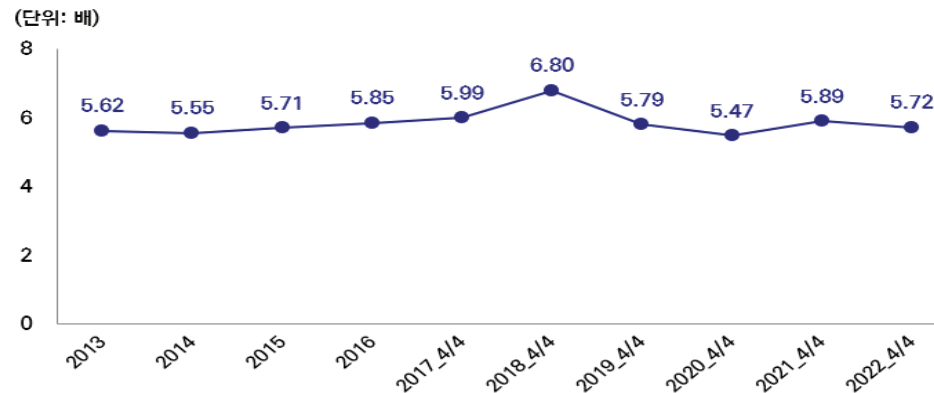
464만 원, 4분위 651만 원, 5분위 1천 106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1분위의 평균소득이 50만 원(35.1%) 증가한 데 비해, 5분위는 3백만 원(37.7%)이나 증가해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주: 1)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40〉분위별 가구 소득 분포(전국)



- 주: 1) 2011~2018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비농림어가)
 2) 2019~2020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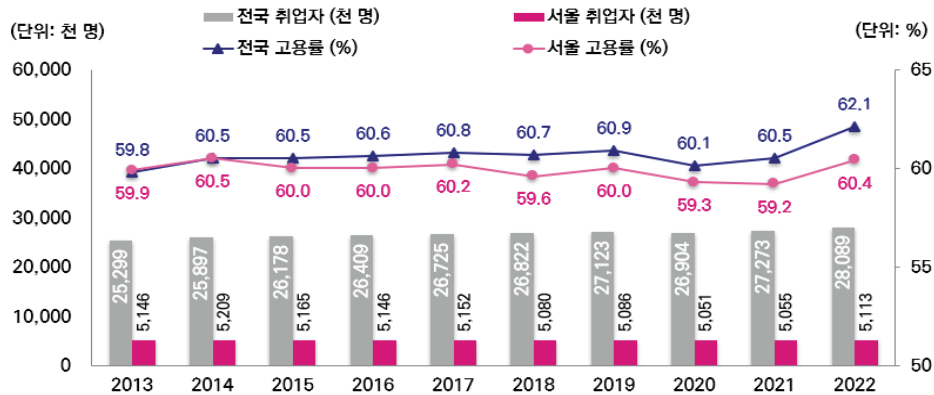
〈그림 3-41〉소득 5분위배율(전국)

전국의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을 살펴보면, 2022년 4/4분기 기

준 5.72배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배율은 2018년 4/4분기에 6.80배까지 증가하였
다가, 2020년 4/4분기에 5.47배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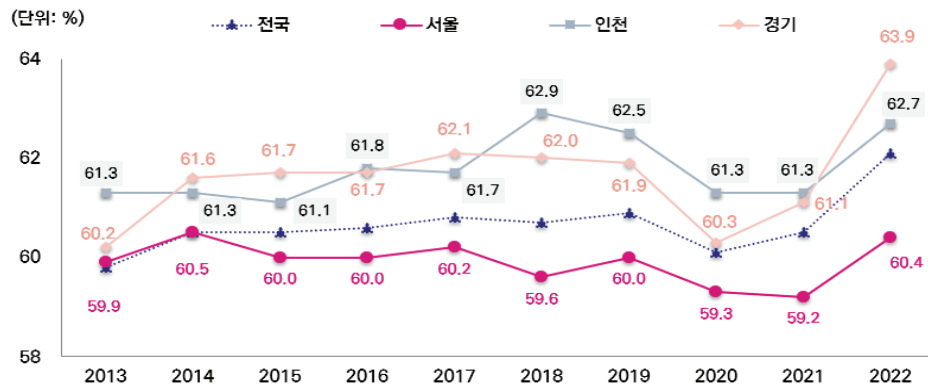
• 고용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인 서울시 고용률은 2022년에 60.4%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
다. 서울시 고용률은 2013년 이후 59~60% 사이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전국 고용률
과의 격차는 2013년 0.1%p에서 2022년에 1.7%p로 점점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2년에 인천과 경기도의 고용률은 각각 62.7%, 63.9%로
서울보다 높으며, 전년 대비 각각 1.4%p, 2.8%p 상승하였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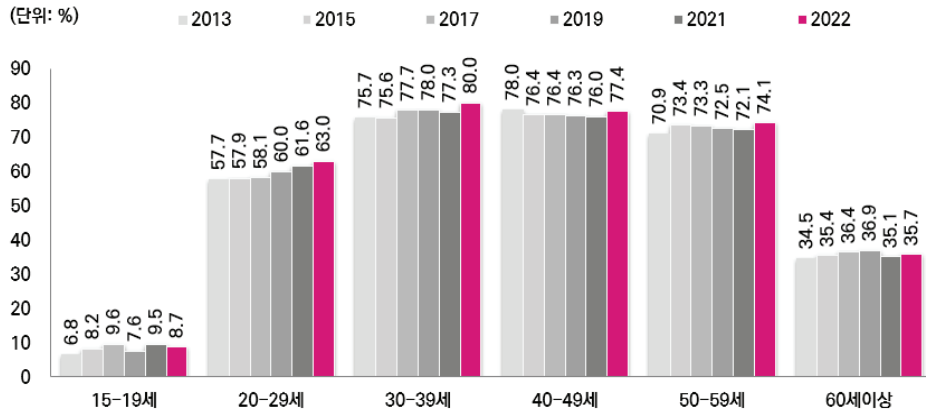
〈그림 3-42〉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3〉 수도권 광역시도별 고용률

연령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30-39세의 고용률이 80%로 가장 높고, 40-49세 77.4%, 50-59세 74.1%, 20-29세 63.0%, 60세 이상 35.7%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20-29세와 30-39세의 고용률은 증가하였지만(각각 5.3%p, 4.3%p), 40-49세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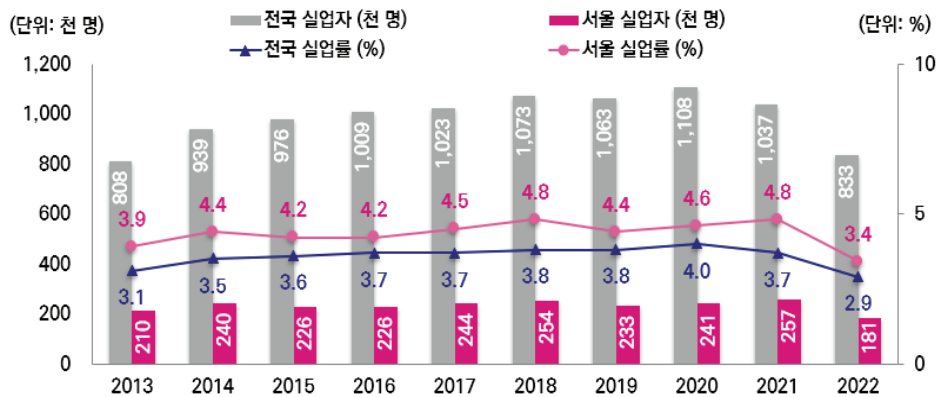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4〉 연령별 고용률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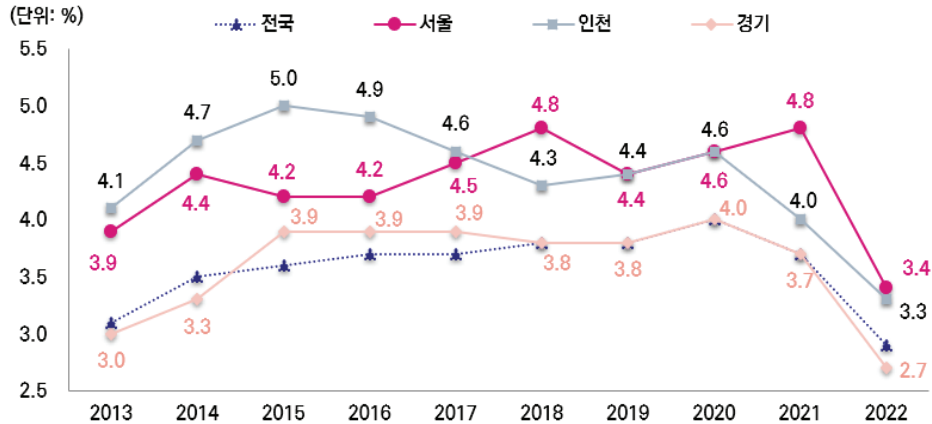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실업률은 3.4%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전국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5〉 전국과 서울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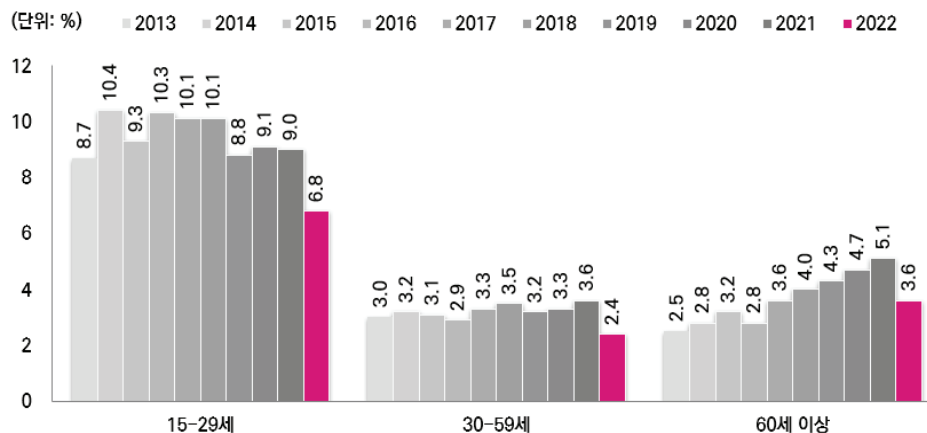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인천의 실업률은 3.3%, 경기도의 실업률은 2.7%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수도권의 실업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의 실업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1.4%p).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6〉 수도권 광역시도별 실업률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의 실업률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3.6%, 30-59세 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 연령에서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최근 10년간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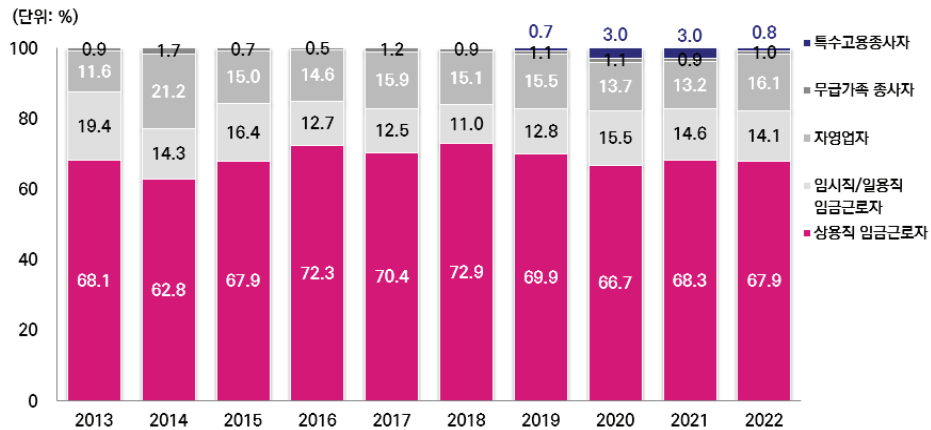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7〉 실업률(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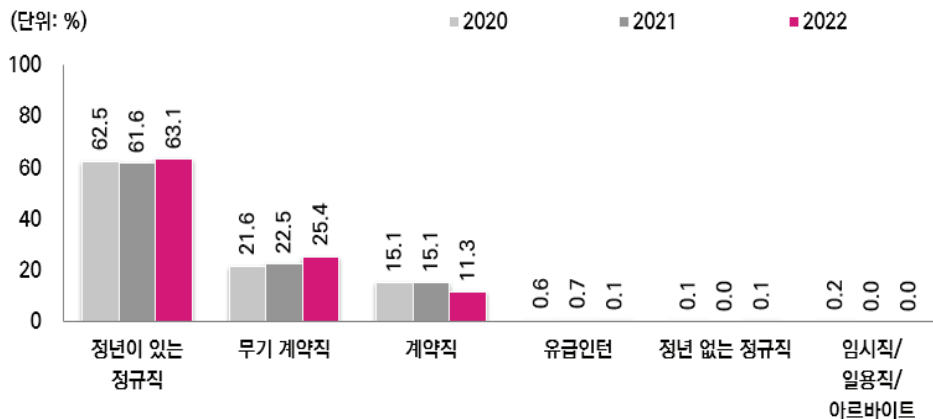
• 고용형태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직업이 있는 응답자 기준), 2022년 서울시민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7.9%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16.1%),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14.1%), 무급가족종사자(1.0%), 특수고용종사자(0.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2.9%p), 특수고용종사자(2.2%p), 상용직 임금근로자(0.4%p),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0.5%p) 비율은 감소하였다.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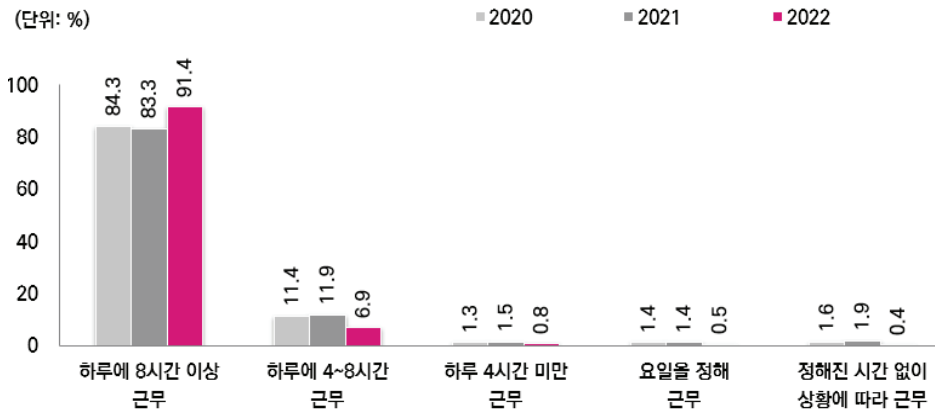
〈그림 3-48〉 고용형태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49〉 고용계약 형태

직업이 있는 서울시민 중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계약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년이 있는 정규직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계약직 25.4%, 계약직 11.3%, 유급인턴 0.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정년이 있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비율은 증가(각각 1.5%p, 2.9%p)하였으며, 일반 계약직과 유급인턴 비율은 감소하였다(각각 3.8%p, 0.6%p). 이들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91.4%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4~8시간 근무하는 비율은 6.9%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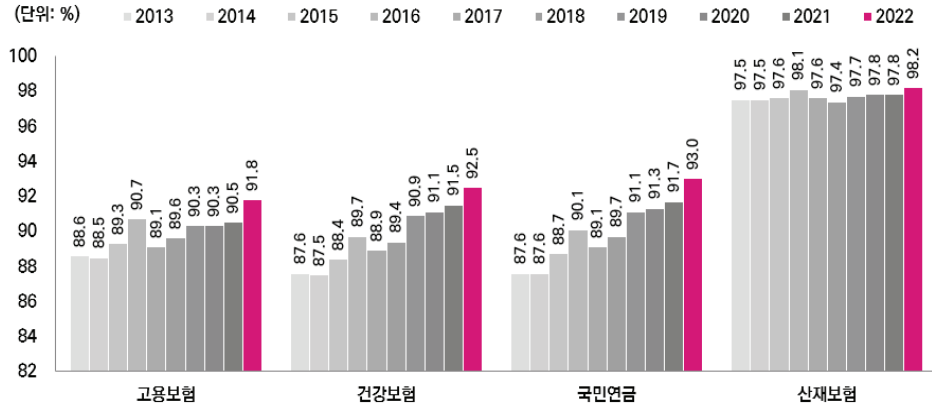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50〉 근무형태

•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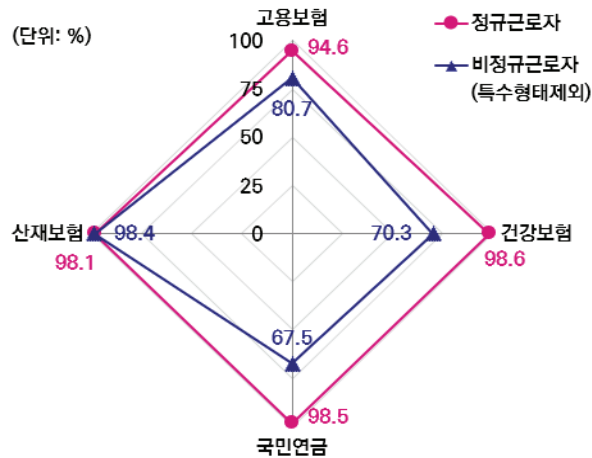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22년 전국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비율은 평균 93.9%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률이 98.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93.0%), 건강보험(92.5%), 고용보험(91.8%)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10년 전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5.4%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4.9%p), 고용보험(3.2%p), 산재보험(0.7%p)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94~99%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가입률(98.4%)을 제외하면 67~80%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67.5%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보험 가입률은 70.3%, 고용보험 가입률은 80.7% 수준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3-51〉 전국의 사회보험 가입률(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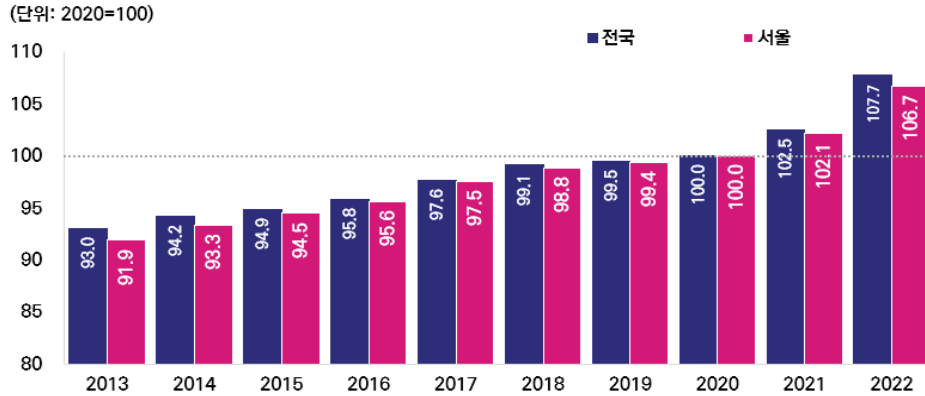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2

〈그림 3-52〉 사회보험 가입률(전국)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는 106.7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91.9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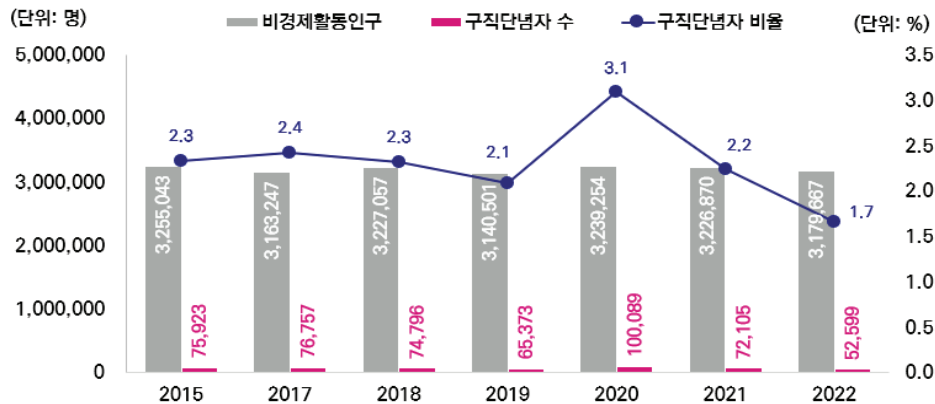


주) 2020년=100 기준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시도)

〈그림 3-53〉 소비자물가지수

• 구직단념자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8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구직단념자 수는 52,599명(1.7%)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구직단념자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3.1%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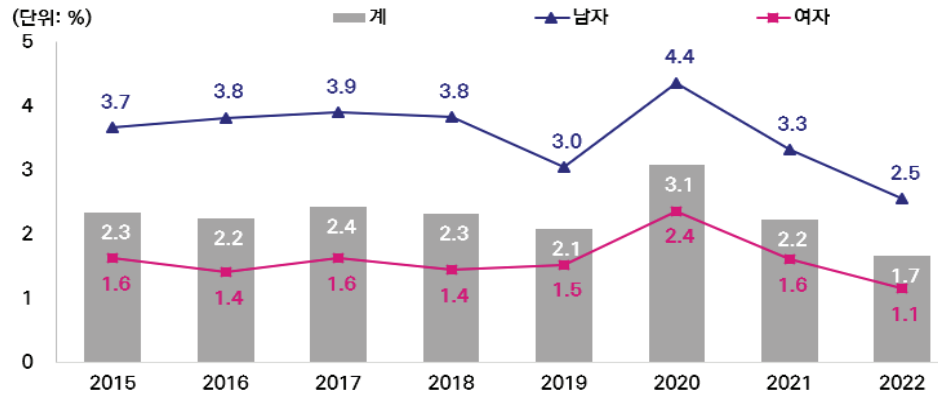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54〉 구직단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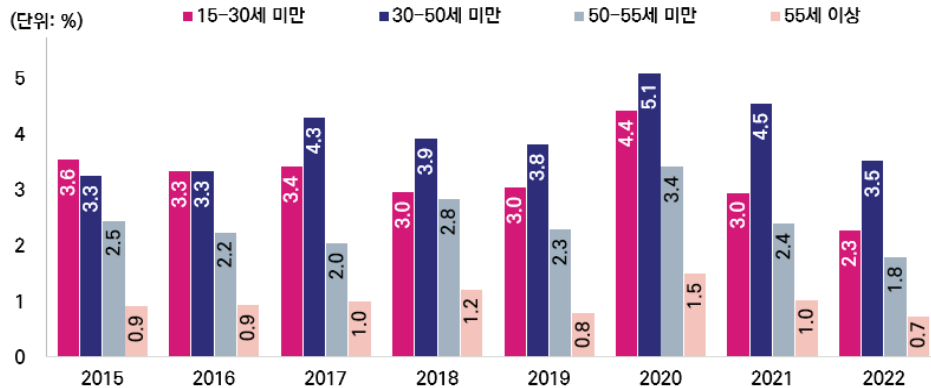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남성의 구직단념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30-5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서울 남성 중 구직단념자 비율은 2.5%, 서울 여성 중 구직단념자 비율은

1.1%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구직단념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15-30세 미만(2.3%), 50-55세 미만(1.8%), 55세 이상(0.7%)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15-3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이후 30-5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55〉 구직단념자(성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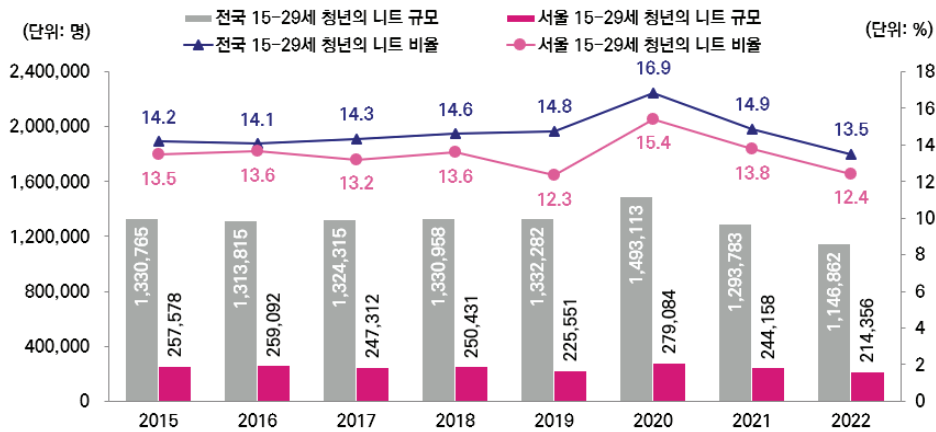
〈그림 3-56〉 구직단념자(연령별)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 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청년 니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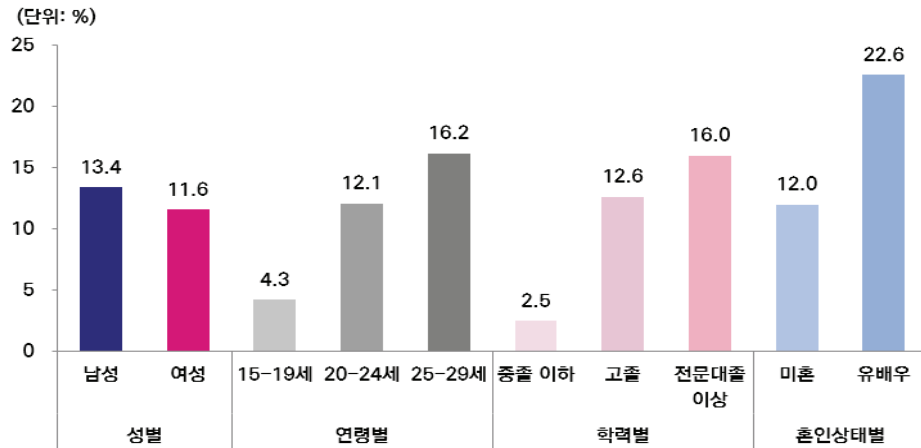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 거주 15-29세 청년의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인구는 214,35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15-2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15.4%까지 증가하였지만,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57〉 청년 니트 규모 및 비율

2022년 서울 거주 15-2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25-29세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 유배우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에서는 청년 남성의 13.4%, 청년 여성의 11.6%가 니트 인구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29세 미만의 니트 비율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 12.1%, 15-19세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16.0%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학력에서는 12.6%,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2.5%가 니트 인구로 분석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청년 니트 비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유배우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22.6%로 가장 많았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58〉 인구특성별 청년 니트 비율

• 청년 니트 비율

-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
- 니트 규모 : 실업자+비경제활동(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쉬었음+기타)
- 청년 니트 비율: 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통학자'를 제외한 청년 비율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1. 주거

1) 요약 및 정책 제언

주택구입부담 급증, 주거환경 만족도는 상승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시민의 내집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초과하여 2022년 198.6에 이를 정도로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또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2021년과 2022년 13.4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3%에 불과한 수준으로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비 과부담가구(RIR, HCIR)의 비율 역시 상승 반전하면서, 31만 가구 이상이 소득에 비해 주거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 기준 전체 주택의 약 1/4 수준이며, 1인당 주거면적의 개선 속도 역시 더딘 편이다. 전반적으로 물리적·경제적 주거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지 지원 확대, 주택 및 주거환경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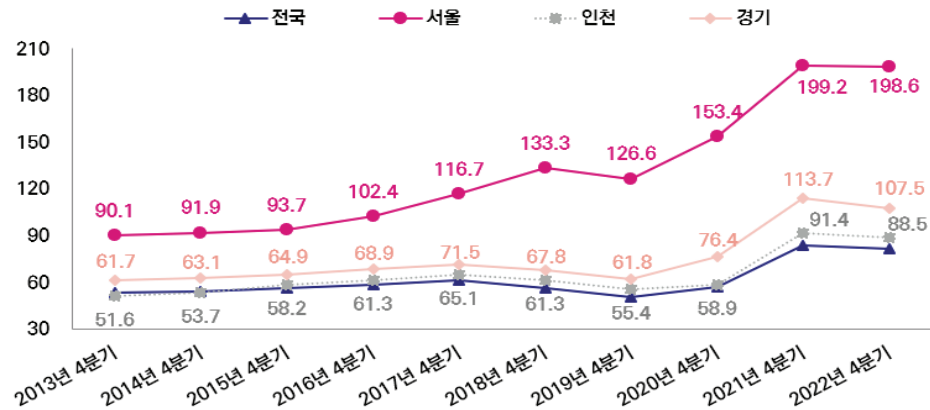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으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주거비 지원 등의 다른 정책 수단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주택시장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택구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이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정비사업과 더불어 집수리사업 등을 확대하여 노후주택의 성능을 높이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주택구입부담지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했을 때 소득에 대한 상환의 부담비율을 의미하는 지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할 시 100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4분기)에는 100을 넘었고, 2022년(4분기)에는 198.6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이 가구 소득의 상승을 크게 앞지르면서 서울시민의 내집마련 가능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그림 3-59〉 주택구입부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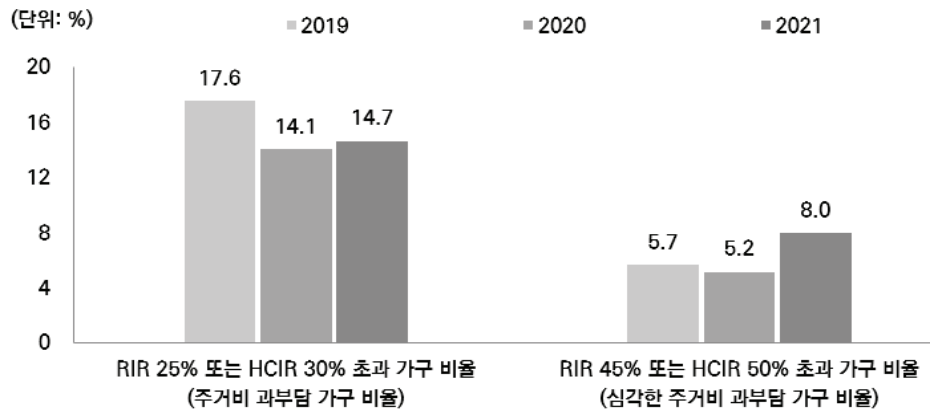
•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

- 지수의 정의: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
- 산출방식: $(\text{대출상환가능소득} / \text{중간가구소득(월)}) \times 100 = (\text{원리금 상환액} / \text{DTI}) / \text{중간가구소득(월)} \times 100$
- 지수 수치의 의미: 예를 들어 서울 K-HAI 90.1인 경우, 이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지역의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의 90.1%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됨)

•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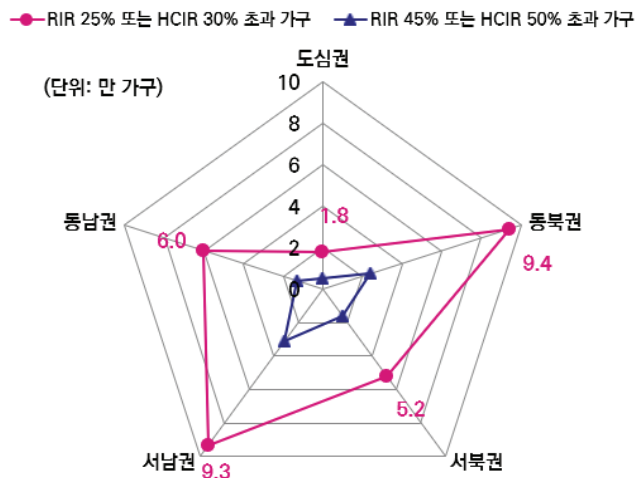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과 월 소득 대비 월 주거

비 비율(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은 주거비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임차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25% 또는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 30% 초과 가구는 임차 거주 가구의 14.7%(31.7만 가구)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45% 또는 50%를 초과하는 '심각한 과부담' 가구는 임차 거주 가구의 8.0%(9만 가구)로 전년 대비 2만 가구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2.8%p 증가함으로써 한동안 감소하던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2021년에 상승 반전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그림 3-60〉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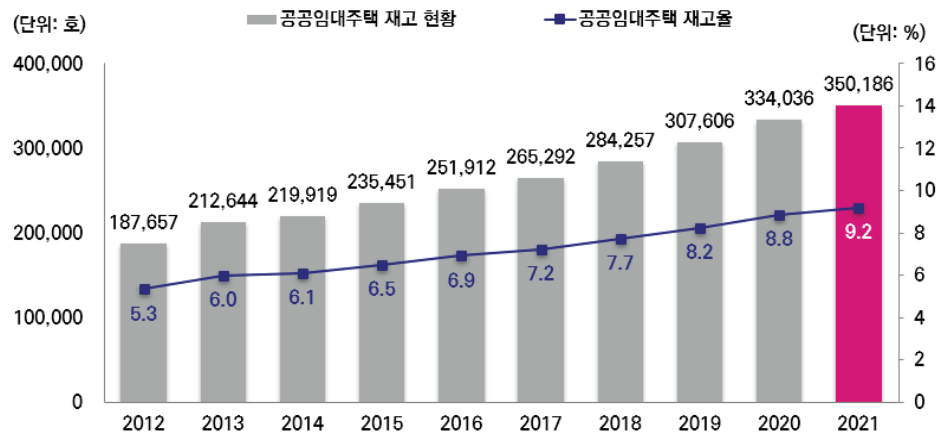
〈그림 3-61〉 주거비 과부담 가구 수(권역별)

5대 권역별로는 동북권(9.4만 가구), 서남권(9.3만 가구), 동남권(6.0만 가구), 서북권(5.2만 가구), 도심권(1.8만 가구) 순으로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 = (월 임대료/월 소득)×100
-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 = {(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월 소득}×1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급한다. 국토부의 임대주택통계와 주택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50,186호로, 전년 대비 약 1만 6천여 호가 늘어났으며, 10년 전 대비 16만여 호가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21년에 9.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대비 3.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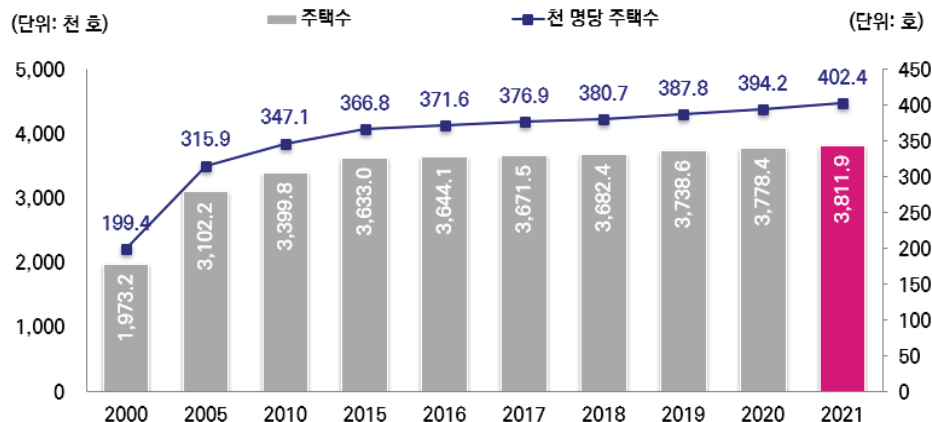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주택보급률

〈그림 3-62〉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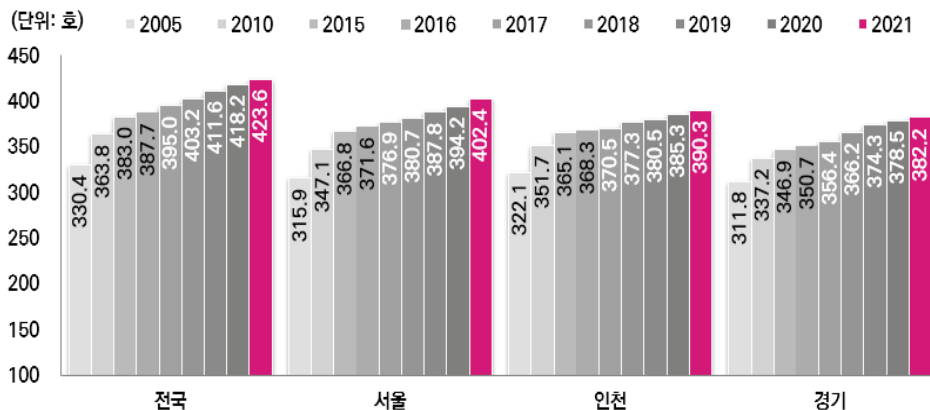
국토부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402.4호로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전년 대비

8.2호 늘어났으며, 2000년에 비해서는 203호 증가하였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인천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390.3호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는 382.2호로 집계되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그림 3-63〉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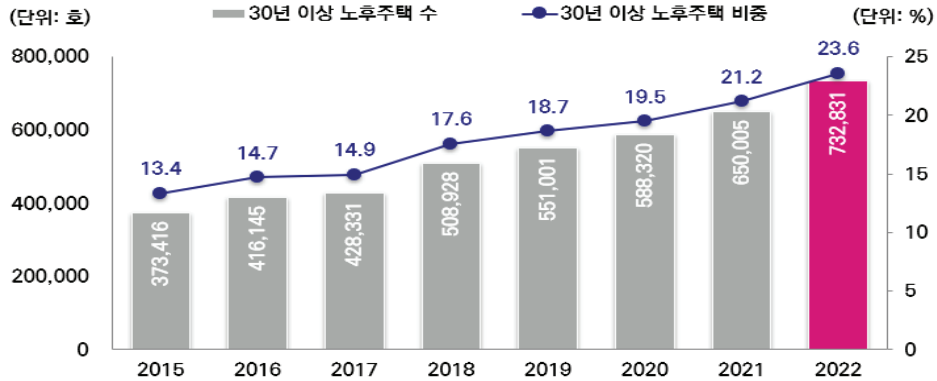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그림 3-64〉 인구 천 명당 주택 수(수도권별)

•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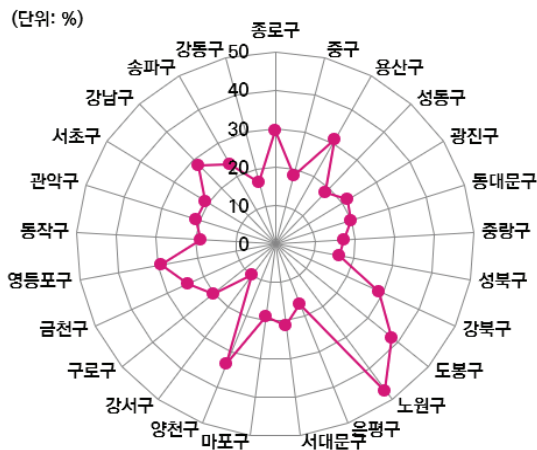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23.6%(732,831호)로, 2015년의 13.4%(373,416호)에 비해 10.2%p(약 359,415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그림 3-65〉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47.0%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도봉구(38.1%), 양천구(33.4%), 용산구(31.0%)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강서구(9.8%)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16.3%), 강동구-은평구(16.7%)에서도 노후주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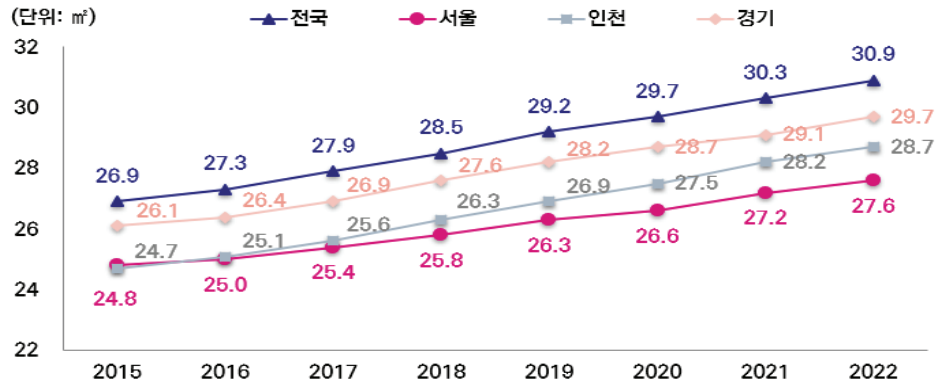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2022

〈그림 3-66〉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구별)

•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주거면적은 2022년 기준 27.6㎡로 조사되었으며, 전국(30.9㎡) 대비 3.3㎡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도에 비해 규모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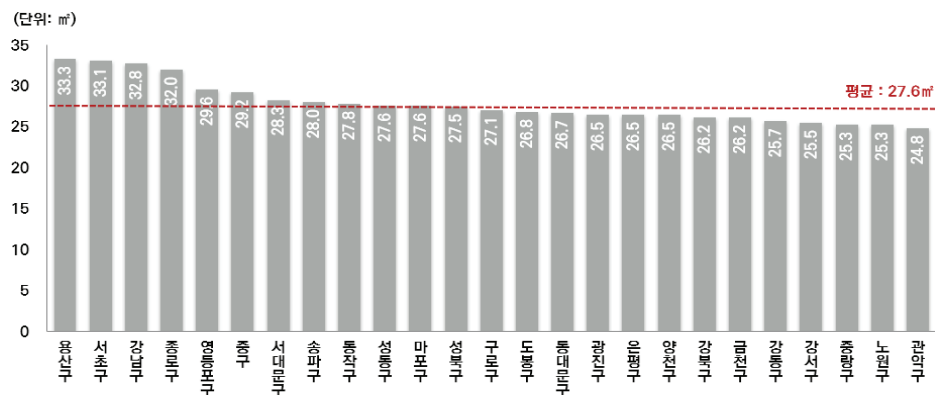
으며, 전국 대비 주거면적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67〉 1인당 주거면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용산구(33.3㎡)로 조사되었으며, 서초구(33.1㎡), 강남구(32.8㎡), 종로구(32.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관악구(24.8㎡), 노원구·중랑구(25.3㎡), 강서구(25.5㎡)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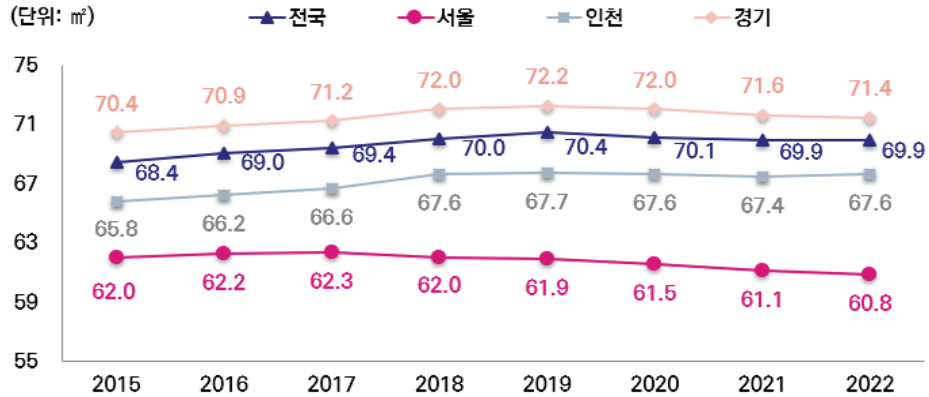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그림 3-68〉 1인당 주거면적(구별)

한편 서울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2022년 기준 60.8㎡로 조사되었으며, 전국(69.9㎡) 대비 9.1㎡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전국과 경기, 인천의 가구당 주거면적이 증가한 것에 반해 서울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1.2㎡).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 추세와 달리 가구당 주거면적의 감소 또는 정체는 1~2인 가구의 증

가, 가구 분화의 확대, 소형주택 증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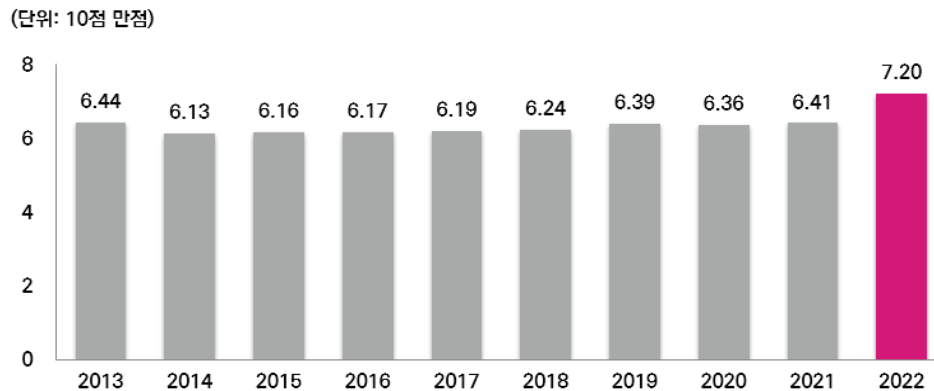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69〉 가구당 주거면적

•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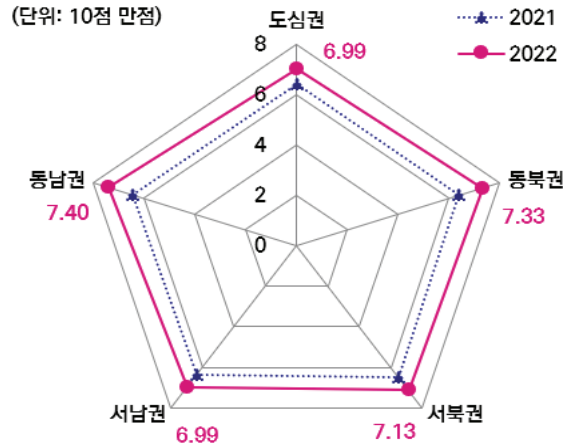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의 상하수도, 주택, 전기, 녹지 등에 대한 주거 환경 만족도는 2022년에 7.20점으로 전년 대비 0.79점 상승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그림 3-70〉 주거환경 만족도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0.93점 상승하면서 7.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7.33점), 서북권(7.13점), 도심권·서남권(6.9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과 동북권의 주거만족도는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으며, 서남권과 서북권은 0.64점, 도심권은 0.58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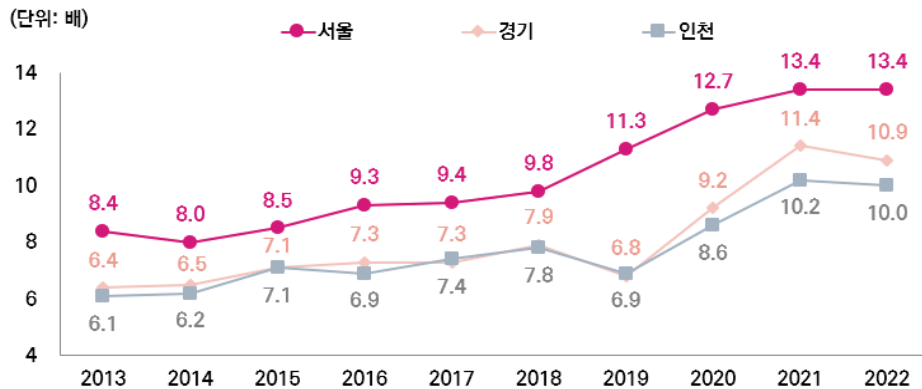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71〉 주거환경 만족도(권역별)

•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그림 3-72〉 소득 대비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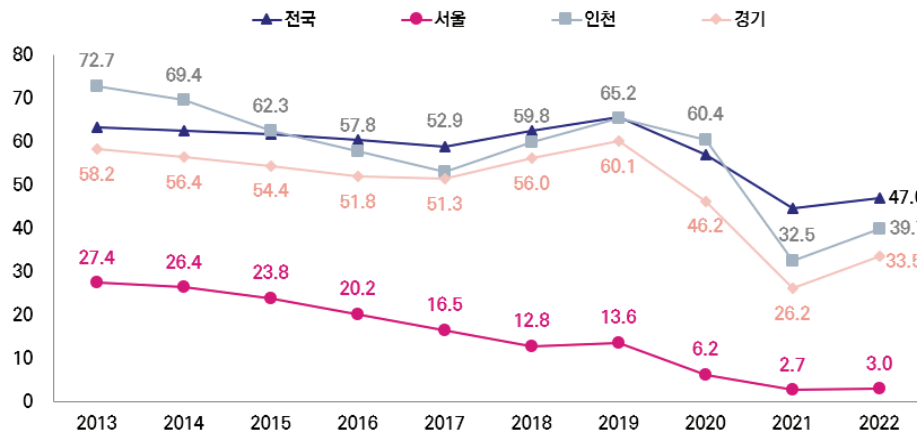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PIR 지수는 2013년(4분기) 8.4배에서 2022년(4분기)에 13.4배로 상승하였으며, 인천은 6.1배에서 10.0배로, 경기도는 6.4배에서 10.9배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가구 소득은 2013년(4분기) 4,280만 원에서 2022년(4분기)에 4,289만 원으로 0.2% 상승한 반면, 평균 주택가격은 3억 6,300만 원에서 5억 7,500만 원으로 59.5% 상승하였다.

• 소득대비주택가격 (PIR) = 주택가격/가구 소득

- 가구 소득: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
- 주택가격: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실행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

•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는 전체 주택에서 중위 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보여 주는 지수로, 중위소득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보여 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22년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63.3%에서 47.0%로 16.3%p 하락한데 비해, 서울은 24.4%p(27.4% → 3.0%), 경기도는 24.7%p(58.2% → 33.5%), 인천은 33.0%p(72.7% → 39.7%) 하락하였다. 이는 전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2022년에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로 2021년(2.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인천(39.7%)과 경기도(33.5%)에 비해서는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그림 3-73〉 주택구입물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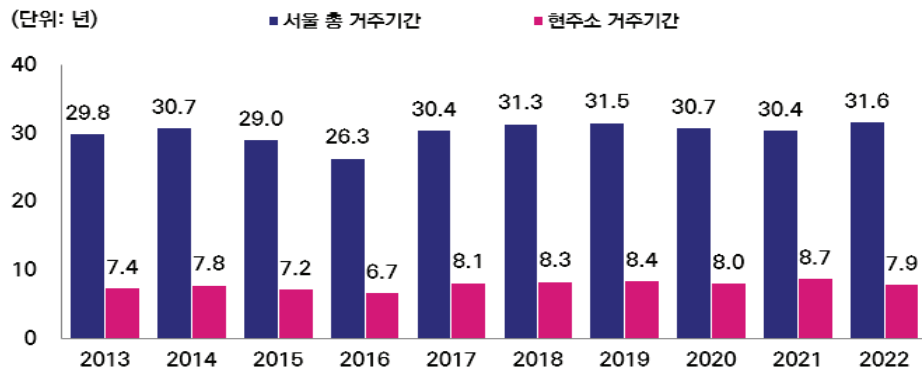
•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

- 지수의 정의: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0~100)로, 지역별 주택구입가능물량을 나타내는 지수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아파트)물량을 전체 주택(아파트)물량으로 나눈 값)
- 산출방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전체주택물량) X 100

- 지수 수치의 의미: 예를 들어, 서울 K-HOI의 27.4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27.4%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반대로 코이가 높을수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것을 뜻함).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은 중위소득 가구가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100% 구입 가능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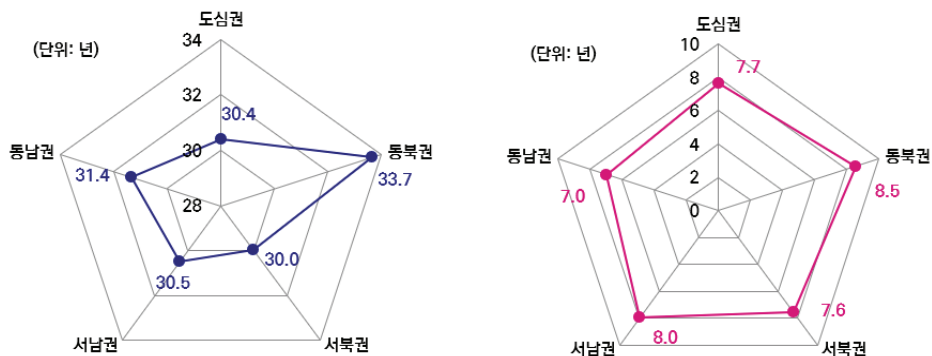
• 평균 거주기간

2022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총 서울 거주기간은 평균 31.6년,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7.9년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33.7년), 동남권(31.4년), 서남권(30.5년), 도심권(30.4년), 서북권(30.0년) 순으로 총 서울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현재 주택 거주기간은 동북권(8.5년), 서남권(8.0년), 도심권(7.7년), 서북권(7.6년), 동남권(7.0년) 순으로 길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74〉 평균 거주기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75〉 총 서울 거주기간(좌) 및 현재 주택 거주기간(우)

2. 스마트도시 역량

1) 요약 및 정책 제안

서울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서울시는 약자동행의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과 다양한 물리적 기반 시설 확장을 통한 네트워크 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스마트도시에서의 서울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서울시의 시민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의 스마트주차장 면수는 2023년 9월 기준 42,778면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공공(공영)주차장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비전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ICT기반의 사회적약자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전 및 정서 취약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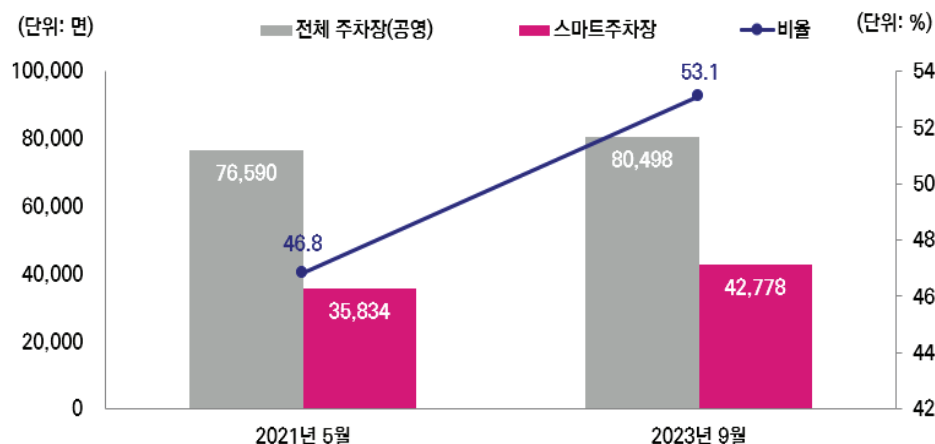
2) 지표 설명

•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을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대외로 확산하기 위해 지표 기반의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인프라' 3개 분야에 대해 총 63개 세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평가받는다.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서비스 기술 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여러 세부지표 중 '실시간 도로 위험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주차면 비율,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4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서울의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https://topis.seoul.go.kr>).

또한 서울의 ‘스마트주차장 면수’는 2021년 5월 기준 35,834면, 2023년 9월 기준 42,778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공공주차장(공영) 대비 스마트주차장 비율은 2021년에 46.8%에서 2023년 53.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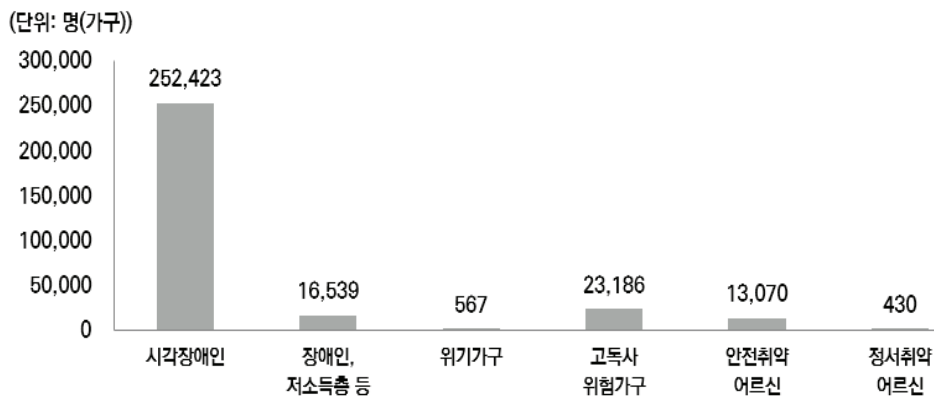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그림 3-76〉 스마트주차장 비율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예산사업을 직접 발굴·제안·심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스템(<https://yesan.seoul.go.kr>)을 2013년 8월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런’ 멘토서비스(slearn.seoul.go.kr/front/mainView.do), ‘서울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엠보팅’ 전자투표(mvoting.seoul.go.kr), 시민 기자 뉴스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상상대로 서울’ 시민제안(idea.seoul.go.kr)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시민 참여 시스템을 통해 2021년~2022년 동안 서울시민이 참여한 인원은 총 652,464명, 참여한 정책 건수는 총 10,407건에 달한다. 2023년(9월 기준)에 누적 참여 인원은 총 1,318,5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누적 정책 참여 건수는 총 5,822,889건으로 조사되었다.

‘ICT기반 사회적약자 서비스 수혜자(가구) 수’는 2023년 9월 기준 전체(누적) 306,215명(가구)으로 조사되었다. ICT기반 사회적약자 서비스는 주로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안전 및 정서 취약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

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디지털라이프 코디네이터’와 ‘소비재 정보 음성변화시스템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 양성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신청 현황’, ‘스마트플러그’,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와 고독사 위험가구를 살피고 있다. 그리고 안전 및 정서 취약 어르신 대상으로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보급’과 ‘스마트기술 활용 집중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2023년 9월 기준(누적)

출처)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그림 3-77〉 ICT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 스마트도시 제도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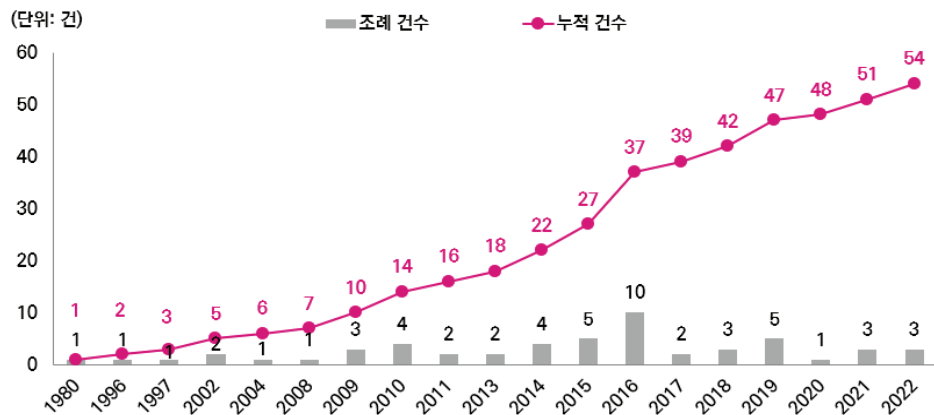
다음으로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제도기반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인증에 필요한 여러 세부지표 중 ‘거버넌스·제도’ 분야에 속해 있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스마트도시 조례 여부,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3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건수는 2016년 이후 총 10건이 수립되었다. 2016년 1월에 최초로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2016~2020)’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 8월에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2018~2020)’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다.

〈표 3-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연도	계획명	수립일
2016년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2016~2020)	2016.1.
2018년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기본계획 (2018~2022)	2018.7.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2018~2022)	2018.8.
2019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0~2022)	2019.8.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0~2022)	2019.10.
2021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2021~2025)	2021.12
2022년	제4차(2023~20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
2023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본계획 (2023~202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24년~26년)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3~2025)	-

주: 1) 스마트도시나 관련 계획이 아니라 지자체 발전방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
 2) 관련 계획: 디지털, 정보통신, 데이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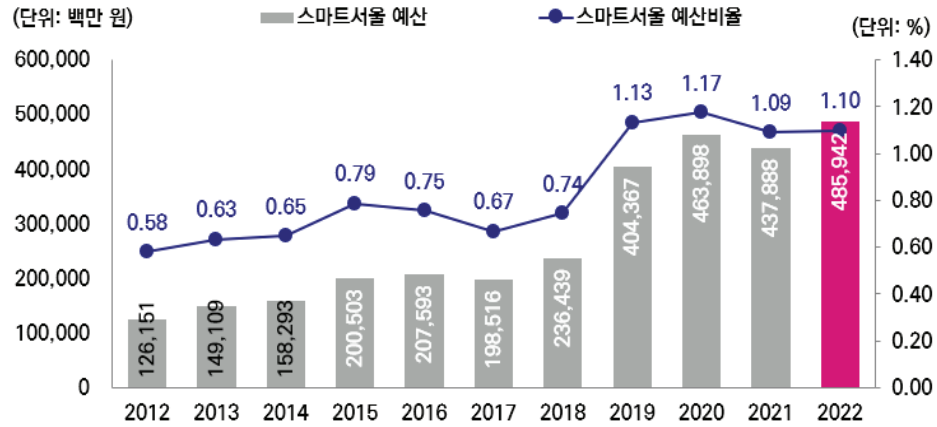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그림 3-78〉 스마트도시 조례 건수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2023년 9월 기준 누적 건수 총 54건으로 조사되었다. 조례 내용이 스마트도시와 관련되거나 조례명에 스마트도시라는 명칭이 들어간 조례를 대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10건)에 가장 많이 제정되었다. 스마트도시와 직접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2019년 3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은 2022년 기준 4,859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서울시 예산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은 전

년 대비 48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0.01%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그림 3-79〉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3. 스마트도시 격차

1) 요약 및 정책 제언

지속적 스마트 약자 지원 결과 접근성과 활용성에서 격차 완화 나타나

서울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94.7%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6.2%p 증가하였다. 디지털 접근성 하위 항목으로 고령층의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는 100.1%,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는 88.2%로 조사되었는데, 두 항목 모두 2018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각각 15.6%p, 1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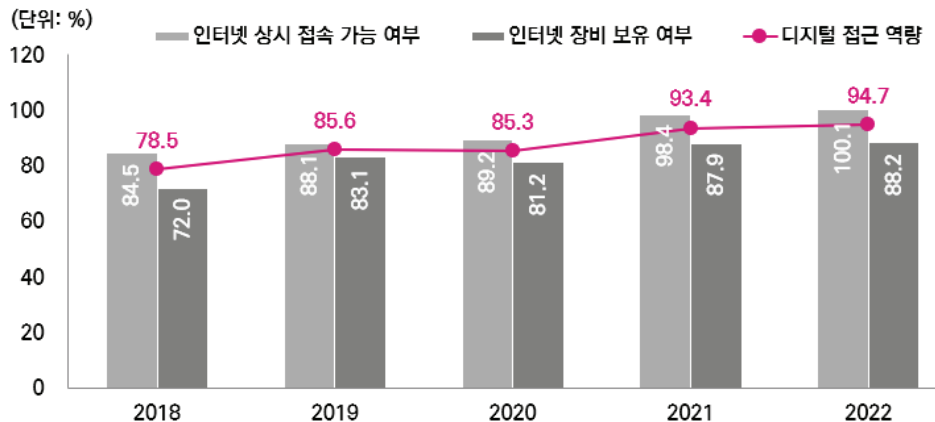
한편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활용성 격차는 접근성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22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86.8%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4.5%p 증가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하위 항목으로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2.0%,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85.0%,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는 76.7%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1.5%p)은 감소하였지만, '인터넷 이용률'(4.0%p)과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6.6%p)는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대비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가 가장 많이 증가(22.4%p)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4.3%p,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수준은 11.9%p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스마트 포용도시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 격차와 활용성 격차가 점차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성과는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또 다른 격차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로 들어온 AI 기술 등 디지털 전환 과정은 새로운 정보약자를 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층위의 디지털 약자들을 잘 분별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지표 설명

• 접근성 격차

서울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94.7%로 조사되었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6.2%p 증가하였다.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로 평가된다. 2022년에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는 100.1%,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는 88.2%로 조사되었는데, 두 항목 모두 2018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각각 15.6%p, 16.2%p).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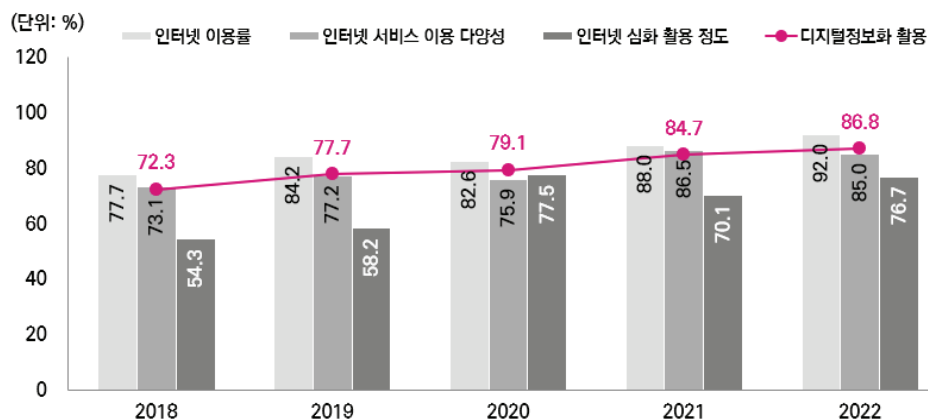
〈그림 3-80〉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역량

- **디지털 접근 수준:**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서울 시민 대비 정보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의미
- 조사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 활용성 격차

서울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86.8%로 조사되었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4.5%p 증가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

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로 평가된다. 2022년에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2.0%,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85.0%,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는 76.7%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1.5%p)은 감소하였지만, '인터넷 이용률'(4.0%p)과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6.6%p)는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대비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가 가장 많이 증가(22.4%p)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4.3%p,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수준은 11.9%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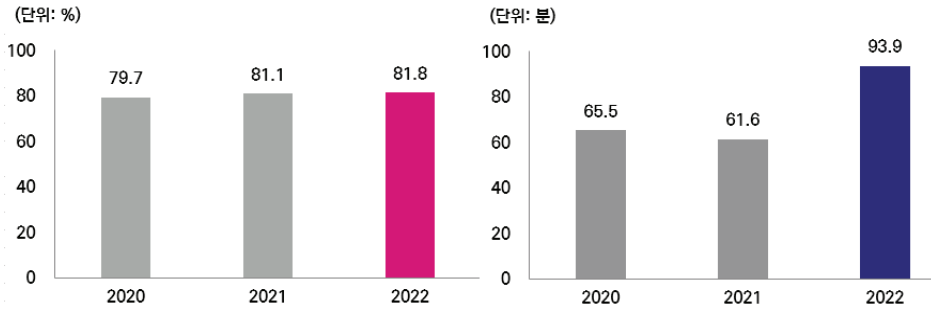
〈그림 3-81〉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서울 시민 대비 각 정보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의미
-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SNS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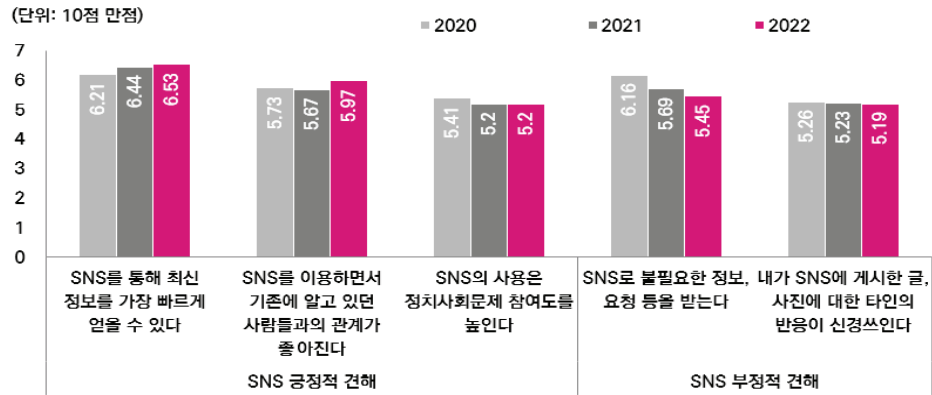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SNS 이용률은 2022년에 81.8%,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SNS 이용률은 소폭 증가(0.7%p)하였으며,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SNS가 최신 정보 수집과 대인관계 활동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SNS를 통한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견해는 감소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도 매해 감소하고 있어, SNS와 스마트폰 이용 행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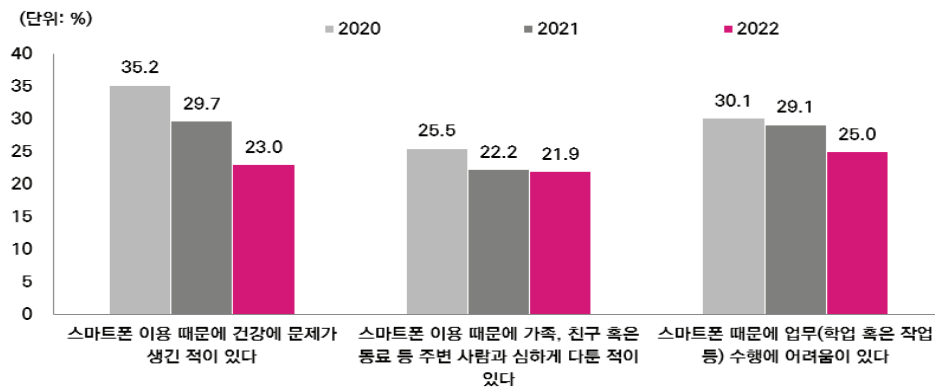
〈그림 3-82〉 SNS 이용률



주)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83〉 SNS 사용에 대한 견해



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84〉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 경험

제4절 건강과 보건

1. 건강한 삶

1) 요약 및 정책 제언

우울감 경험률 소폭 증가, 자살률 감소, 전 시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장 필요

2022년 기준 전국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감소하였으며, 남성(79.9년)과 여성(85.6년) 모두 감소하였다(각각 0.7년, 1.0년). 또한 2021년 기준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83.2년으로 남성(81.0년)보다 여성(85.5년)이 4.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시점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0.4년 낮다. 서울시의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2021년 기준)는 2.7년으로, 2020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ealth Plan 2030)」에서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별 상위 20% 건강수명과 하위 20% 건강수명의 격차를 2.9년 이하로 낮추는 것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20년 이후 2.7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이 수준을 유지 혹은 점진적으로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주관적 건강수준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과 삶의 질을 반영한다. 2022년 서울시민 중 주관적 건강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지한 비율은 54.5%로 전년에 비해 소폭(1.6%p)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은평구(65.7%)와 가장 낮은 서대문구(45.1%)와의 차이는 20.6%p로, 자치구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기준 7.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대문구와 금천구의 경우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동시에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용산구와 은평구의 경우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높으면서, 우울감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22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체 21.4명(남자 28.9명, 여자 14.4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당 1.2명 감소하였고,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신체적 질환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해짐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자가 정신질환자만이 아닌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증의 우울·불안 관리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장 및 재편이 필요하다.

비만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먹거리 미보장 인구 증가하는 양극화 심화

서울시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0.2%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자치구 간 비만율 격차는 약 10.4%p로 전년도 자치구 간 격차(11.7%p)에 비해서는 그 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등의 비만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중구, 강남구, 서초구의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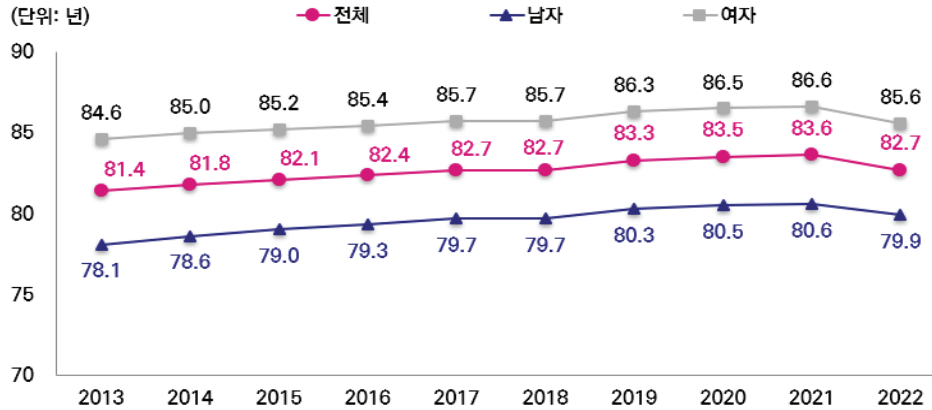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지난 3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때에 충분한 먹거리가 확보된 가구의 비율이 2020년 기준 94.4%에서 2022년 89.5%로 2년 사이에 5%p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바꿔 말하면 서울시민 중 10.5%가 먹거리 미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먹거리 미보장 비율은 고령인구, 저소득층, 1인가구, 무직 집단에서 높고, 양적 미보장 이유로는 ‘식품 구매 비용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영양 과잉 상태를 반영하는 비만율의 증가와 영양 부족 상태를 반영하는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의 감소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과 남성 청년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는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스마트헬스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 증진 및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인구, 저소득층, 1인가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먹거리 미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발굴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표 설명

•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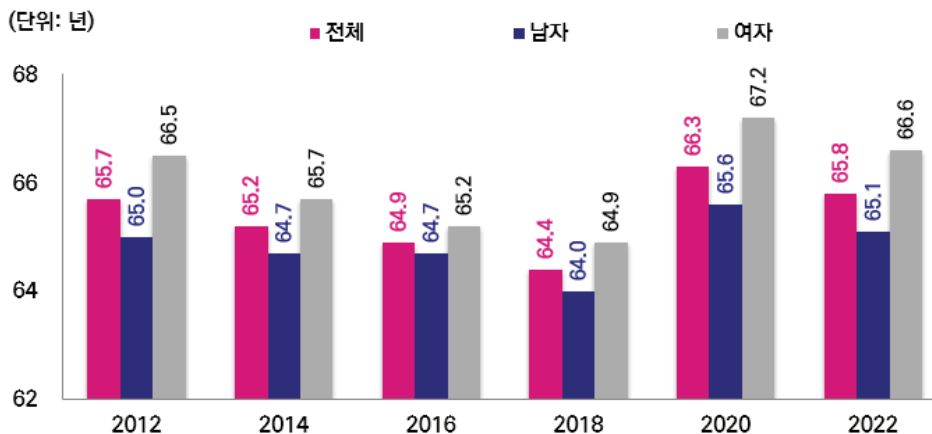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의 기대여명(0세 기준)은 82.7년(남자 79.9년, 여자 85.6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보다 0.9년 감소하였다.



출처) 통계청, 생명표_간이생명표

〈그림 3-85〉 전국의 기대여명(0세 기준)

아울러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출생아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프지 않은 기간은 65.8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66.6년, 남성은 65.1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에 반등하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2년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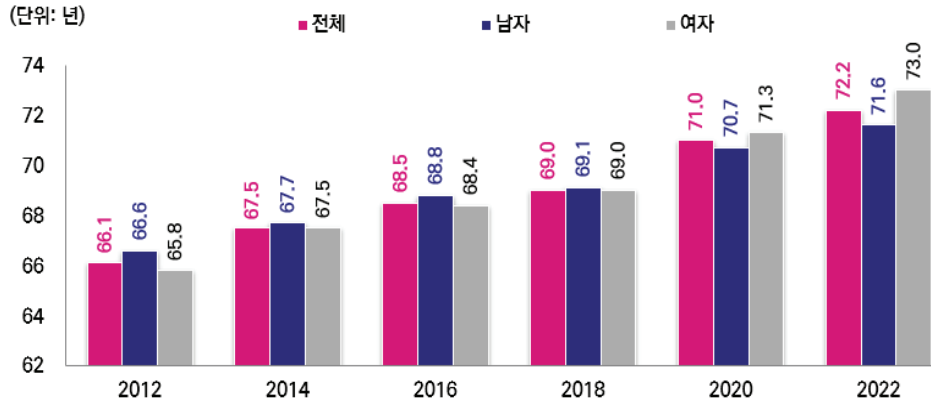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그림 3-86〉 전국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0세 기준)

또한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은 2022년에 72.2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73.0년, 남성은 71.6년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여명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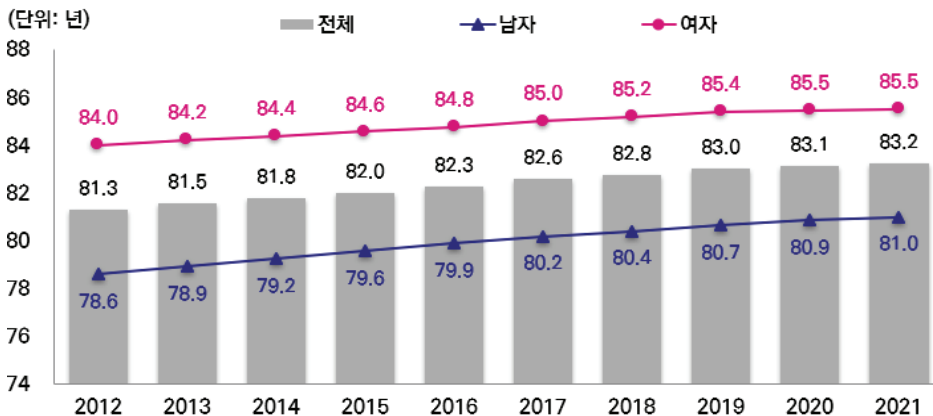
관적 건강평가 인식은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012년에 비해 평균 6.1년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그림 3-87〉 전국의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여명(0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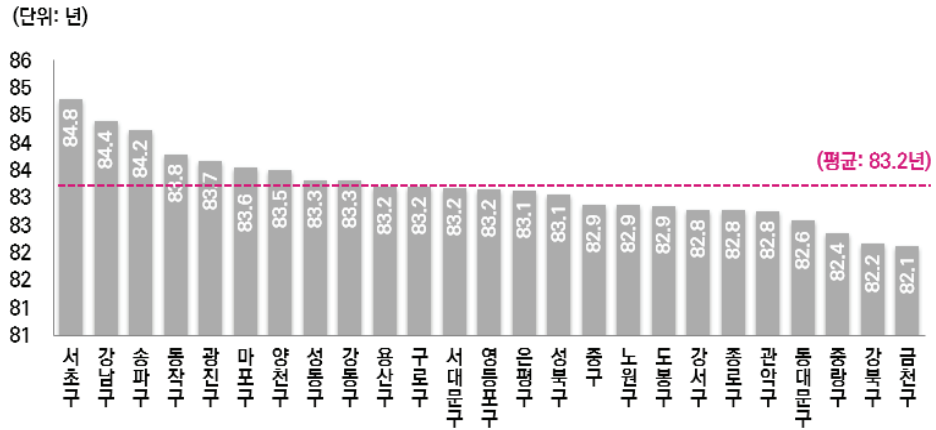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의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전체 83.2년(남자 81.0년, 여자 85.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12년에 비해 전체 평균 1.9년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기대수명(2.4년)이 여자(1.5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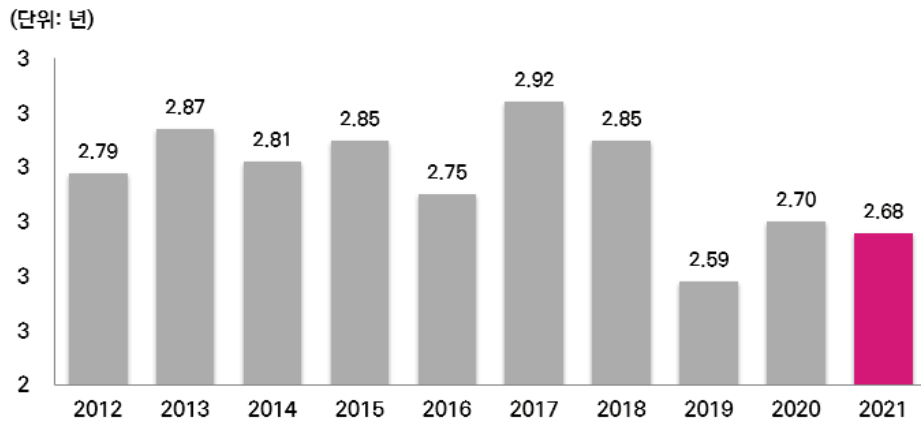
〈그림 3-88〉 서울의 기대수명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서초구의 기대수명이 84.8년으로 가장 높고, 금천구가 82.1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돼,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는 2.7년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2021

〈그림 3-89〉 서울의 기대수명(구별)



주) 기대수명 격차: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자치구 -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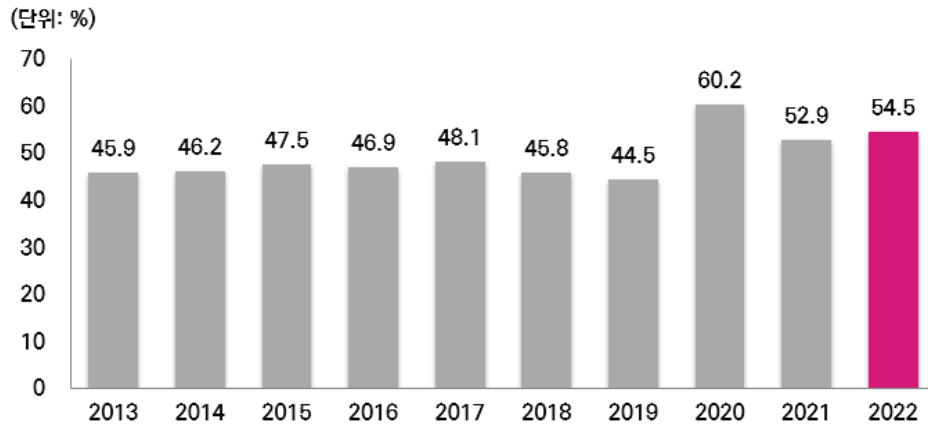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그림 3-90〉 서울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

-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통계청은 시도별 생명표는 2007년(2005년 기준)에 처음 작성하였으며, 3년 주기로 자료를 생성하고 있음
- **기대여명**: 특정 연령 x세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연령별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출생아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연령별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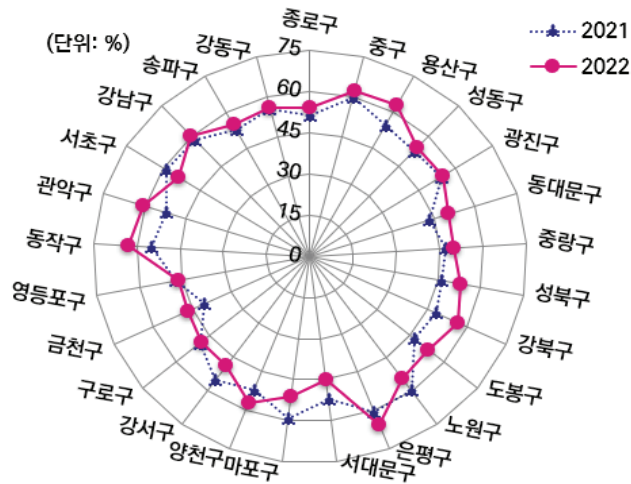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수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본인의 건강수준을 양호(“매우 좋음” 또는 “좋음”)하다고 인지하는 비율(표준화율)은 2022년에 54.5%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2020년에 60.2%까지 크게 증가하였지만, 2021년에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91〉 주관적 건강수준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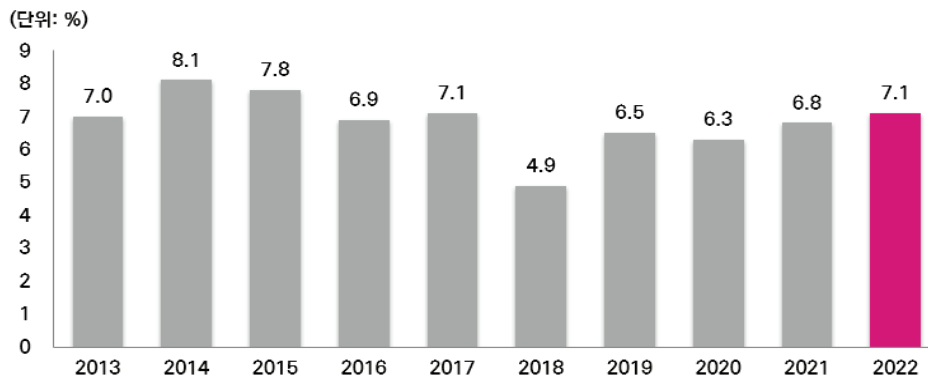
〈그림 3-92〉 주관적 건강수준(구별)

자치구별로는 은평구(65.7%), 동작구(63.0%), 용산구(62.7%), 중구(62.1%)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대문구(45.1%)와 영등포구(46.2%), 금천구(46.7%)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7개 자치구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 하락하였는데, 마포구(8.2%p), 서대문구(6.9%p), 강서구(6.5%p), 노원구·서초구(5.2%p)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강북구(8.6%p), 관악구·동작구(8.2%p), 용산구(8.1%p)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 조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 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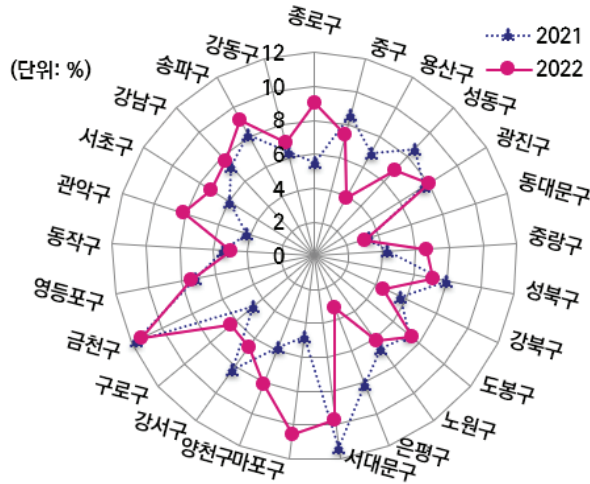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7.1%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18년에 4.9%까지 하락하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말미암아 202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93〉 우울감 경험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11.3%), 마포구(10.6%), 서대문구(9.7%) 등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대문구(3.1%), 은평구(3.3%), 용산구(3.9%)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마포구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많이 증가(5.8%p)하였으며, 관악구(4.0%p)와 종로구(3.5%p)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은평구(4.8%p)와 용산구(3.0%p)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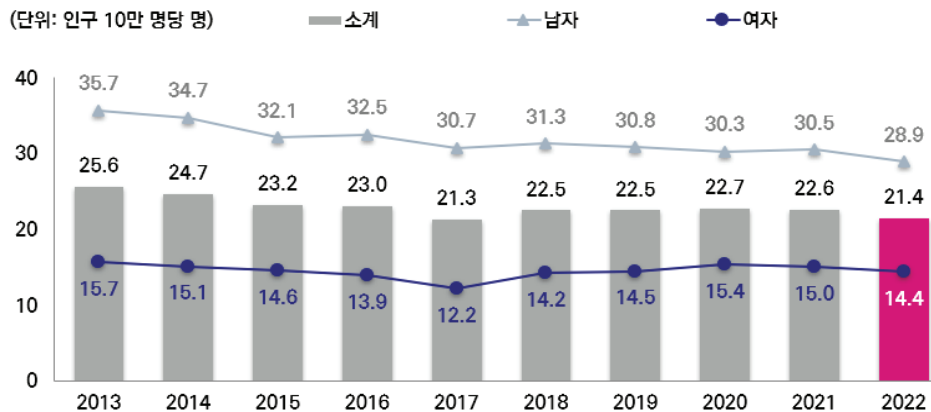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94〉 우울감 경험률(구별)

•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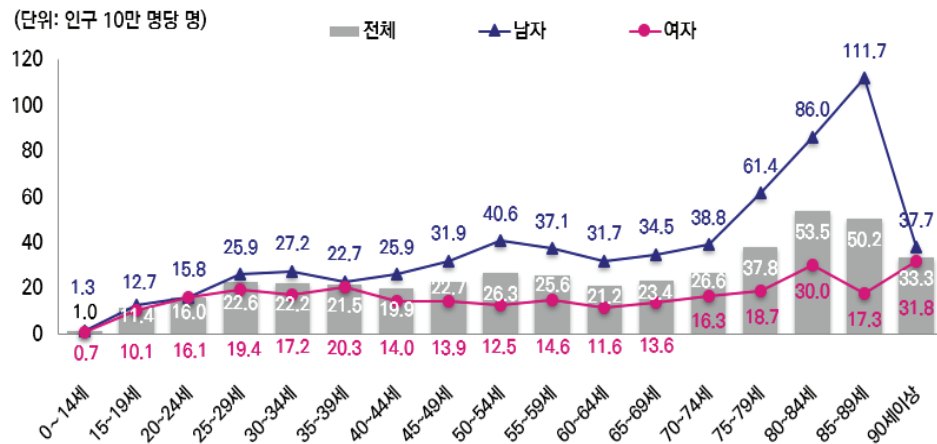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22년 서울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09명(남자 1,313명, 여자 696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체 21.4명(남자 28.9명, 여자 14.4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서울시민의 자살률은 1.2명 감소하였는데, 남성 자살률은 1.6명, 여성 자살률은 0.6명 감소하였다.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평균 21~26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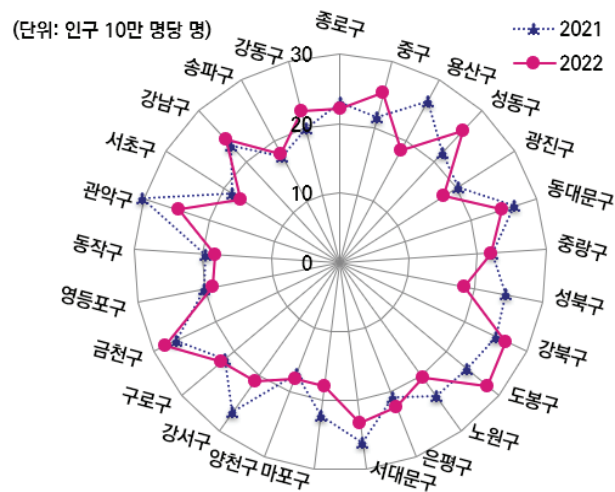
〈그림 3-95〉 자살률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20대~60대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명대 수준인 반면, 70대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8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0~54명의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8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86~110명대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고령층 남성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그림 3-96〉 자살률(연령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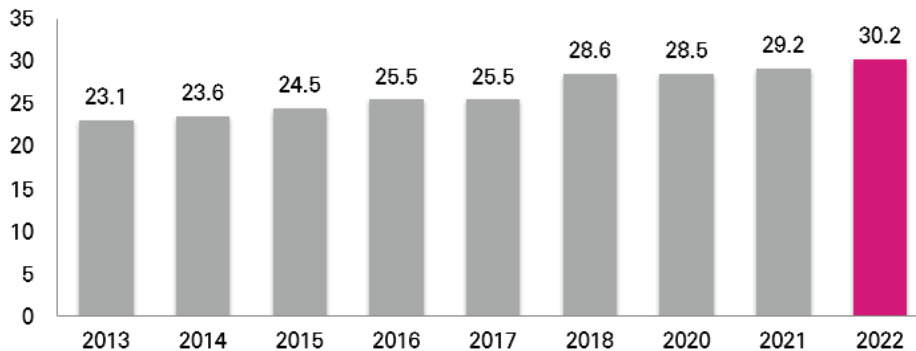
〈그림 3-97〉 자살률(구별)

자치구별로는 금천구(28.0명), 도봉구(27.9명), 강북구(26.6명), 성동구(26.0명)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았으며, 서초구(17.1명), 송파구(17.8명), 광진구·마포구·양천구(17.9명)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용산구(8.1명)와 성북구(6.2명) 등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감소한 반면, 성동구(4.3명)와 도봉구(4.0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 비만율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비만율(표준화율)은 2022년에 30.2%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3년 대비 7.1%p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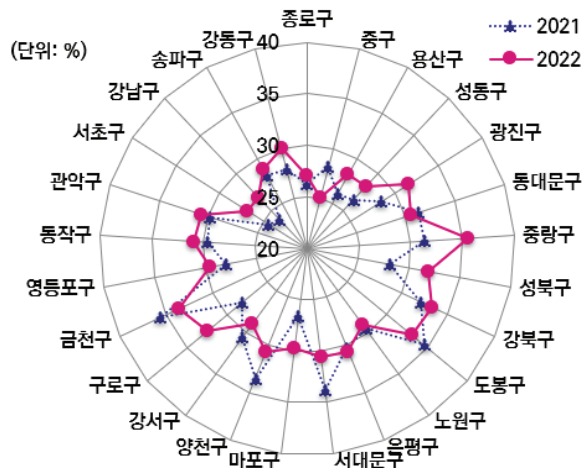
주: 1) 2018년 연도비교 및 해석 시 주의

- 2018년: 자가보고 키/몸무게 설문 시 신체계측을 병행하여 실시
- 2008~2017년, 2020년: 자가보고 키/몸무게만 설문

2) 2019년 조사시 자가보고 키/몸무게를 설문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98〉 비만율

자치구별로는 중랑구(35.5%), 금천구(33.6%), 강북구(33.3%), 도봉구(33.1%)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25.1%), 강남구(26.8%), 서초구(26.8%)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구로구(4.3%p), 중랑구(4.2%p), 성북구(3.8%p)에서 비만율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서대문구(3.2%p), 중구(3.1%p), 양천구(2.8%p)에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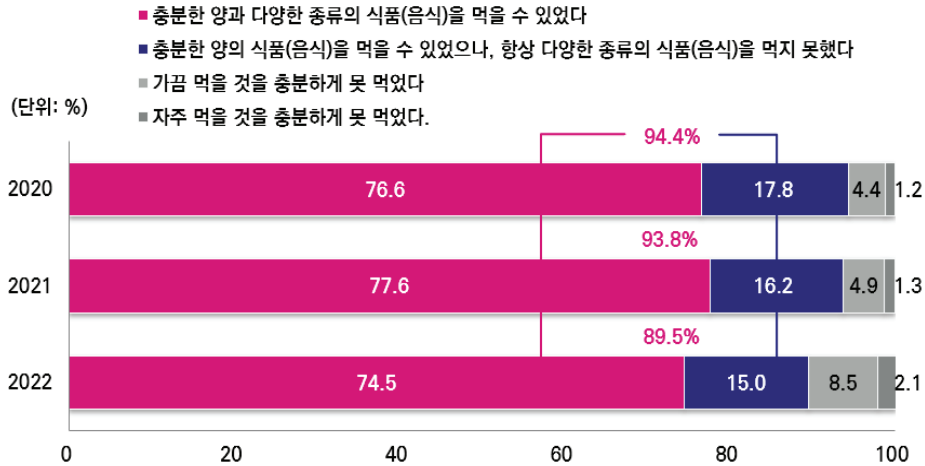
〈그림 3-99〉 비만율(구별)

•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서울시민의 식생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2022년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89.5%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4.3%p 감소하였다.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74.5%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15.0%),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8.5%),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양적, 질적 모두 보장 상태’는 74.5%, ‘양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미보장 상태’가 15.0%, ‘양적, 질적 모두 미보장인 상태’는 10.6%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양적, 질적 모두 충분’은 3.1%p 감소하였으며, ‘양적 충분, 질적 부족’은 1.2%p 감소하였다. 반년에 ‘양적 질적 모두 부족’은 전년 대비 4.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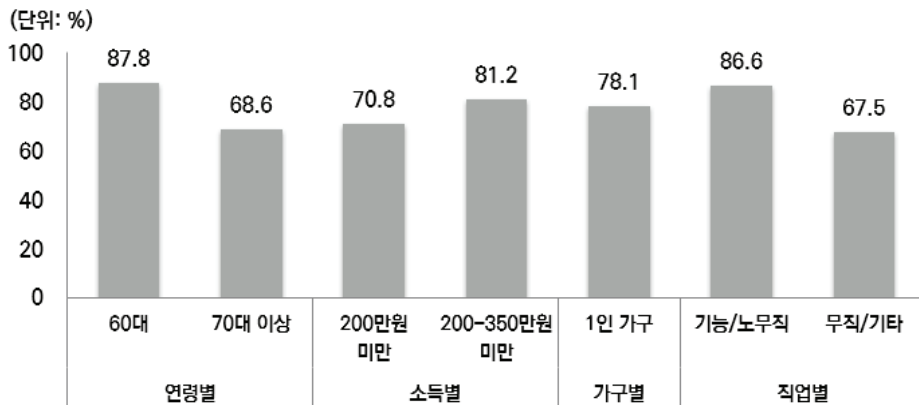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혼자 살고, 가구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을수록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는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이 92~94%로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68.6%, 60대는 87.8%로 낮았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78.1%인데 반해, 부부 가구 또는 2세대 이상 가구는 92% 수준으로 높았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이 낮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

가 70.8%로 가장 낮고, 700만 원 이상 가구가 96.8%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94.3%)에서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이 가장 높고, 무직/기타가 67.5%로 가장 낮았다.



주)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을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그림 3-100〉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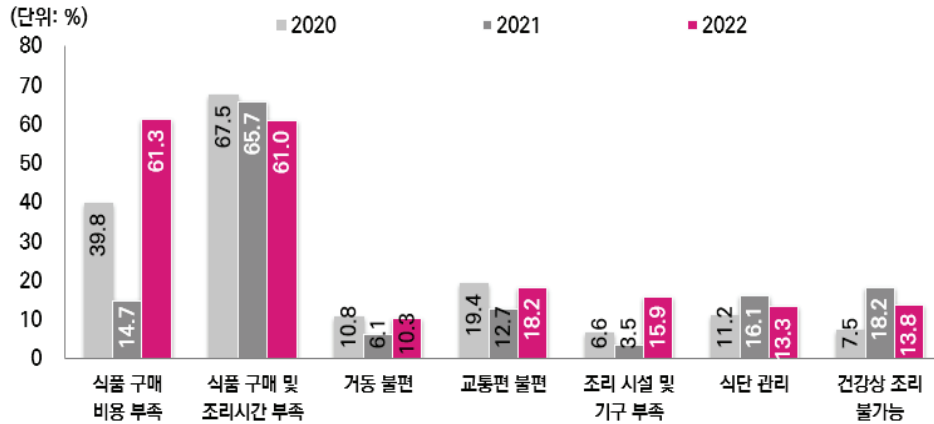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그림 3-101〉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취약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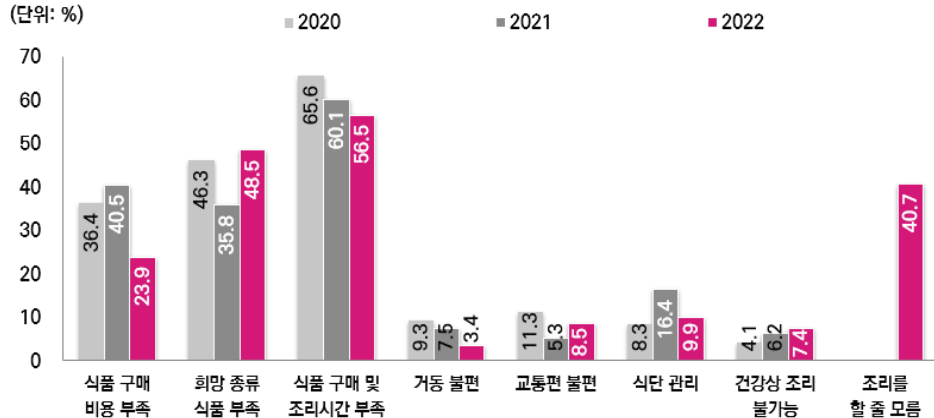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중복응답)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61.3%) 또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61.0%)가 높게 조사 되었다. 그리고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중복응답)로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가 56.5%로 가장 높고,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48.5%), '조리를 할 줄 몰라서'(40.7%),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2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그림 3-102〉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중복응답)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그림 3-103〉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중복응답)

• 식품안전성 확보구분율

-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2. 지역보건

1) 요약 및 정책 제안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 짧아져,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야

2020년 새롭게 변경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에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되었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1급 감염병 발생 신고 수와 사망자 수는 없으며, 2급 감염병의 경우는 545만 2,530건(사망 4,604명), 제3급감염병은 1,691건(사망 9명)으로 신고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전체 감염병 발생건수는 24.4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반면에 발생 신고 수와 사망자 수만으로 계산한 치명률은 0.08%로 확인되는데, 서울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통해 치명률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코로나19는 팬데믹(전 세계적 확산)에서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전환되었지만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는 암담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마련, 응급 감염병 병상 확보 전략 마련으로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충족의료 경험률 감소, 병상 수 증가, 스마트헬스 사업의 양적·질적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 등으로 의료 약자와 자치구 간 격차 완화 필요

2022년 서울시민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3.8%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자치구 간 격차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는데,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 간 격차가 2021년 7.7%p차에서 8.5%p차로 증가하였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수준의 국가에 속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원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는 957.6개로 전

년 대비 15.1개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는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종로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2,441개로 나타난 반면 마포구는 275개로 나타나, 자치구 간 병상 수 격차는 8.9배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보건기관 이용률은 2022년 기준 37.1%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크게(17.3%p)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22.4%p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 2019년 26.3% → 2022년 48.7%), 서울시 보건기관 이용률의 증가폭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수가 많아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의 건강 격차 감소와 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서울시민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민 중에서도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 약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 약자의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스마트헬스 사업(대표적으로 손목다터 9988)을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 필요

2022년 서울시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56%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6.78%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였다. 서울의 치매유병률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병률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2%인데, 2025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치매 특화 의료 인프라(치매안심병원)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과 함께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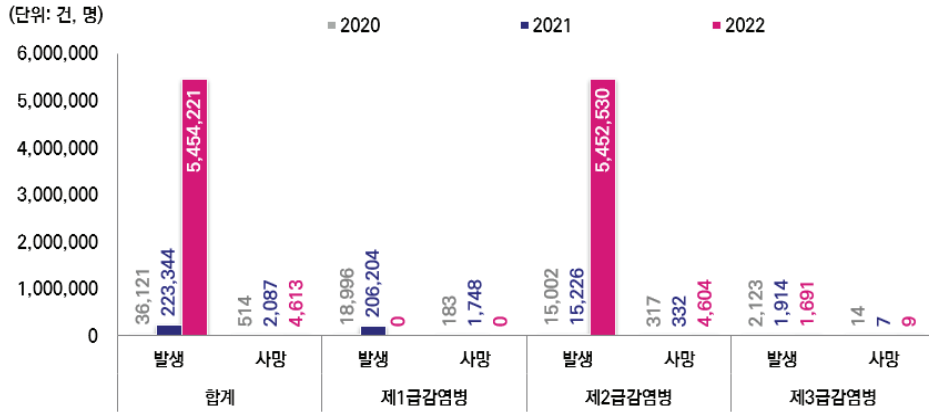
아가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광역 및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지원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조기진단-치료 및 재활-단계별 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있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치매안심도시를 구축하게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인프라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연계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환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감염병 환자 수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총 545만 4,221건, 사망자 수는 4,613명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전체 사망자는 총 55,296명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2020-2021년에 제1급감염병에 속했던 ‘신종감염병 증후군(COVID-19)’이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에 따라 제2급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되면서 2022년에 제1급감염병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없으며, 제2급감염병은 5,452,530건(사망 4,604명), 제3급감염병은 1,691건(사망 9명)으로 신고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감염병 발생건수는 24.4배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생신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20년 1.42%, 2021년 0.93%, 2022년 0.08%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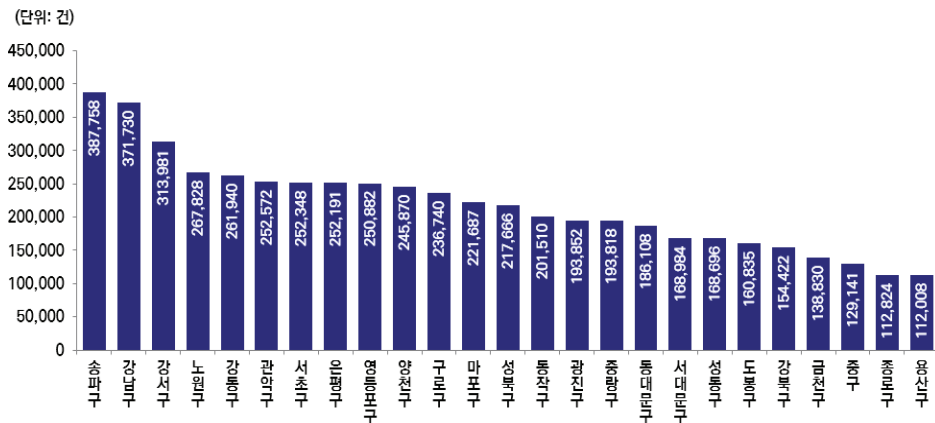
자치구별로 2022년 감염병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송파구(387,758건), 강남구(371,730건), 강서구(313,981건)에서 감염병 발생건수가 많았으며, 용산구(112,008건), 종로구(112,824건), 중구(129,141건), 금천구(138,830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중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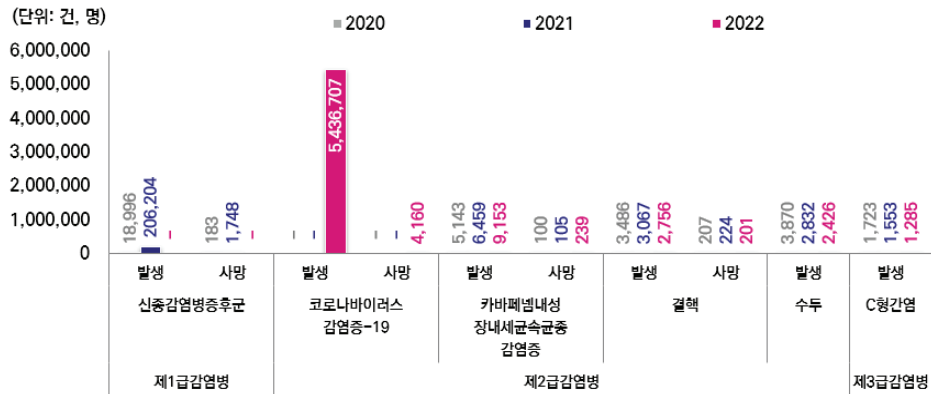
〈그림 3-104〉 감염병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2022

〈그림 3-105〉 감염병 발생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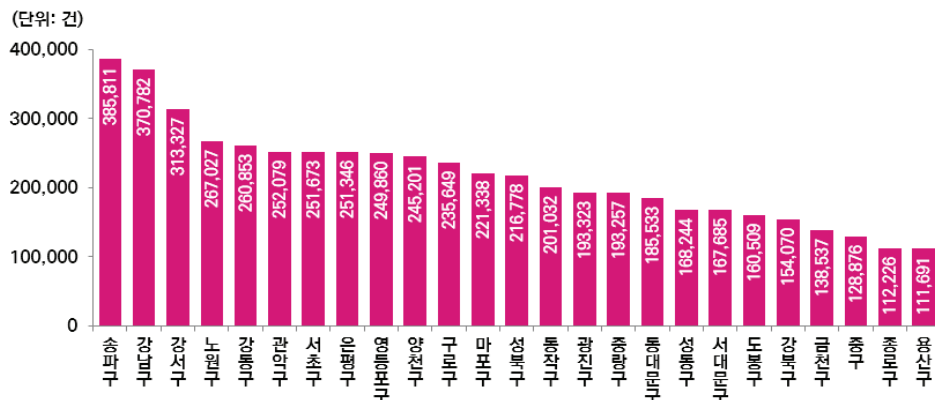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건 수는 543만 6,707건(사망 4,160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9,153건 (사망 239명), 결핵 2,756건(사망 201명), 수두 2,426건, C형간염 1,285건이 신고 되었다. 2022년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망 자가 90.2%로 가장 많았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5.2%,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4.4%로 조사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2022

〈그림 3-106〉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자치구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송파구(385,811건), 강남구(370,782건), 강서구(313,327건)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용산구(111,691건), 종로구(112,226건), 중구(128,876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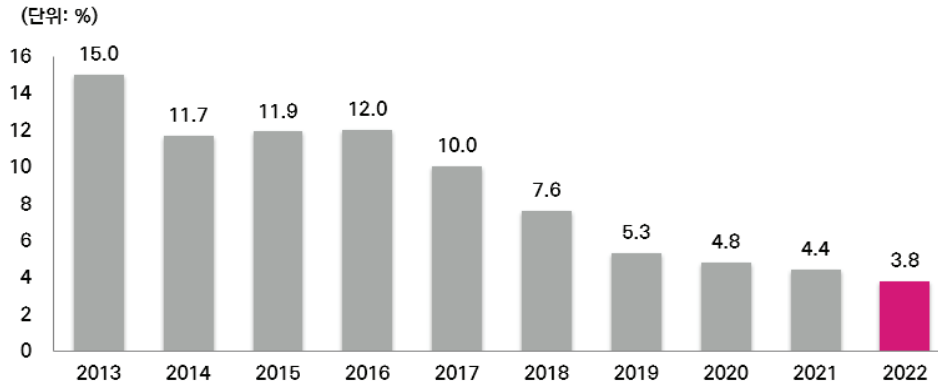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2022

〈그림 3-10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건수(구별)

• 미충족의료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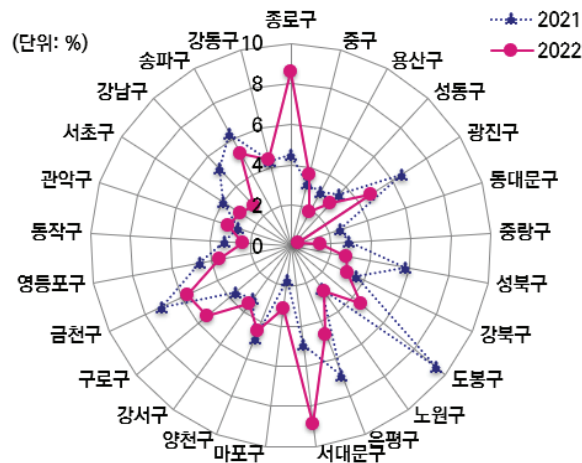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3.8%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11.2%p 감소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08〉 미충족의료 경험률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에서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8.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동대문구는 0.4%로 가장 낮았으며, 중랑구(1.5%)와 용산구(1.9%)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종로구(4.1%p)와 서대문구(4.0%p)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봉구(4.9%p)와 성북구(3.0%p)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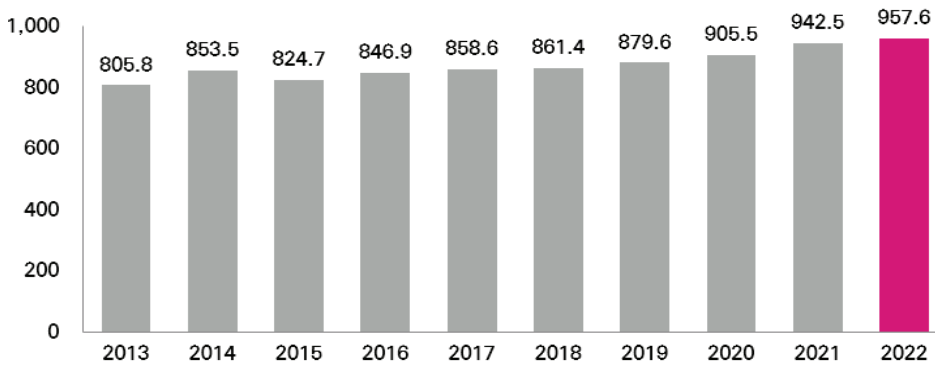
〈그림 3-109〉 미충족 의료경험률(구별)

-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 미충족 의료 이유: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 이유, 교통 불편,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진료 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입원실 병상 수는 957.6개로 전년 대비 15.1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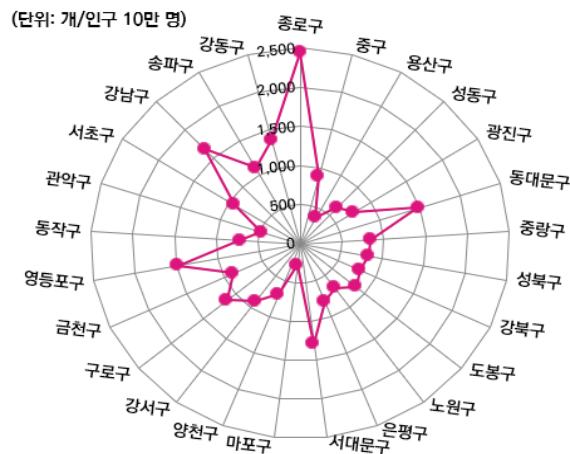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만 명)



주) 매년 4/4분기 기준, 출처 변경 등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데이터 비교 시 주의 필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외국인 인구 포함)

〈그림 3-110〉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022

2)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외국인 인구 포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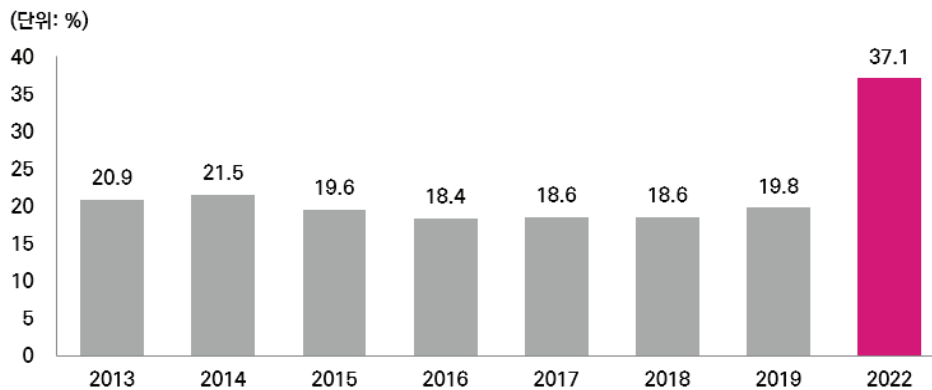
〈그림 3-111〉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구별)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2,441개로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1,658개), 영등포구(1,486개), 동대문구(1,48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마포구

(275개), 용산구(384개), 관악구(485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인구 10만 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의 자치구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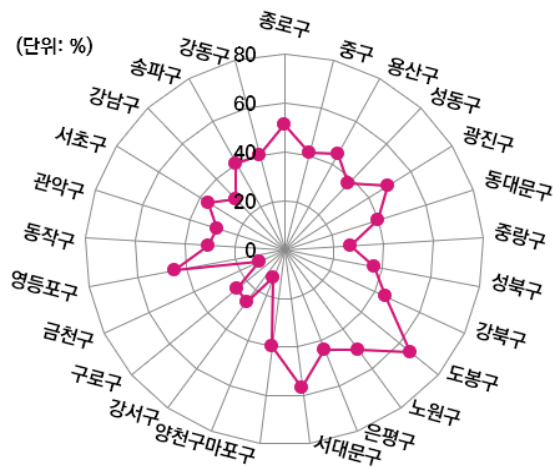
• 보건기관 이용률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2022년에 37.1%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기관 이용률이 급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7.3%p 증가하였다.



주) 2009년 신규 도입 후 2019년까지 매년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2021년 일시 중단 후 2022년 조사 재개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12〉 보건기관 이용률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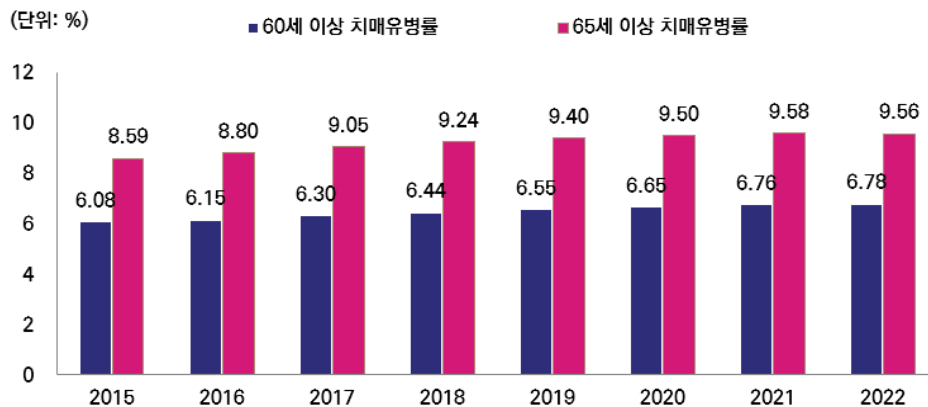
〈그림 3-113〉 보건기관 이용률(구별)

자치구별로는 도봉구(65.4%), 서대문구(56.7%), 종로구(51.2%), 노원구(50.5%)에서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천구(11.0%), 양천구(11.9%), 구로구(24.9%)에서 낮게 나타났다.

- **보건기관 이용률:** 지난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
- 조사집단: 시군구 보건소별 만 19세 이상 성인/주민등록인구

• 치매유병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9.56%(154,989명),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6.78%(159,334명)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0.02%p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0.0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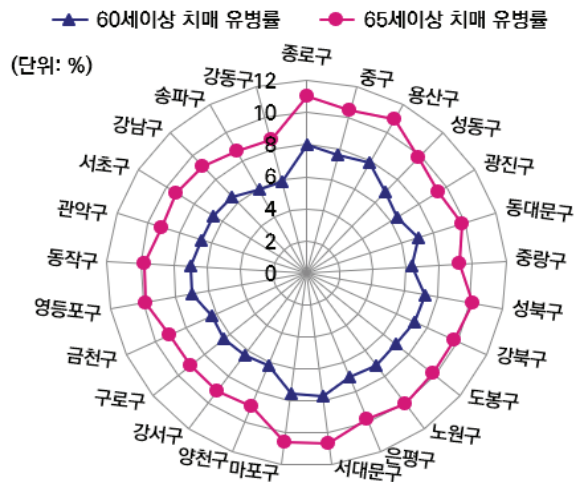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정보

〈그림 3-114〉 치매유병률

자치구별로는 2021년 기준 종로구(11.04%), 용산구(10.98%), 서대문구(10.69%), 마포구(10.60%), 중구(10.49%), 성북구(10.13%), 노원구(10.06%) 등에서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높았으며, 강동구(8.58%), 송파구(8.68%), 양천구(8.96%)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주) 2022년 자치구별 현황 자료 미공개(2023년 12월 기준)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정보, 2021

〈그림 3-115〉 치매유병률(구별)

• 치매유병률 = (추정 치매환자 수/노인인구 수)X100

제5절 안전과 재난

1. 자연재난

1) 요약 및 정책 제언

도시형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취약지 중심의 풍수해 대책 수립과 비상 대응이 필요

서울의 풍수해는 여름철에 10년 주기로 2회가량 발생하는데 일부 국지적 돌발성 집중 강우 형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국지적 돌발성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1980년대 한강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천이 월류하는 외수 침수가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불투수층이 많은 시가지 지역에서 강우가 침수되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수관거의 배수용량 한계로 인한 내수 침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은 과밀한 도시화로 인하여 기존의 배수특성이 변화하여 수해에 취약한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2010년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의 침수가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주거지 인근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는 큰 피해를 일으켰다. 2018년에도 사망 및 실종자가 4명 발생하였고, 2022년 8월에는 1시간 강우량이 141.5mm에 달해 서울시 최고치로 나타나면서 사망 및 실종자가 10명 발생하는 등 10년 주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풍수해 피해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관거 개량, 저류시설 신설, 펌프장 등 폭우 대비 방재시설의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침수 취약지역 3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에 201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강수일수를 기록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불규칙적으로 강수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지적 돌발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향후 집중호우 기상재난의 취약성이 심화될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강화, 도로시설물 침수방지 시설 확충, 재해취약 반지하 주택 안전대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침수 등의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침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구급 방안을 수립하여 비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안전 약자를 재정의하고 피해에 대처할 필요

기후변화는 기온의 급격한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2100년에 4℃까지 상승할 수 있고 평균 폭염일수도 5.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¹⁾ 서울에서는 2022년도에 온열질환자가 110명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 대비 7.0%였다. 특히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519명,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 346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상고온에 대한 준비가 덜 된 7월 초에 온열질환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비 온열질환자 비율과 전국 대비 서울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폭염피해가 낮다고 판단되어 서울의 폭염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노인, 택배 종사자, 공사장의 실외작업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폭염대책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전파, 상황관리, 취약계층 특별 보호, 실외근무자 안전관리 강화 등의 기존 대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 기간이 늘어나고 온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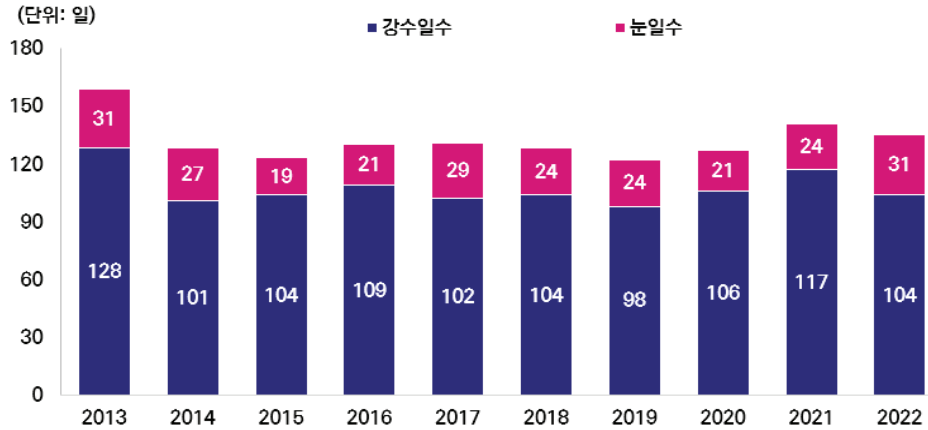
한편 한파는 극지방 제트기류 약화로 일시적으로 한랭기류가 남하해서 발생한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서울의 한랭질환자는 24명으로 전국 대비 8.0% 발생하였다. 기상이변 대책에서 한파가 중요시되지 않는 이유는 폭염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고 대책의 대상이 주로 노숙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파 대책 역시 대상자의 폭을 넓혀 노숙자 이외에 실외작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과 보호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풍수해·폭설 피해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지난해 강수일수(1mm 이상) 및 눈일수를 합한 기간은 총 135일(강수일수 104일, 눈일수 31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2013년(159일)과 2021년(141일) 이후 세 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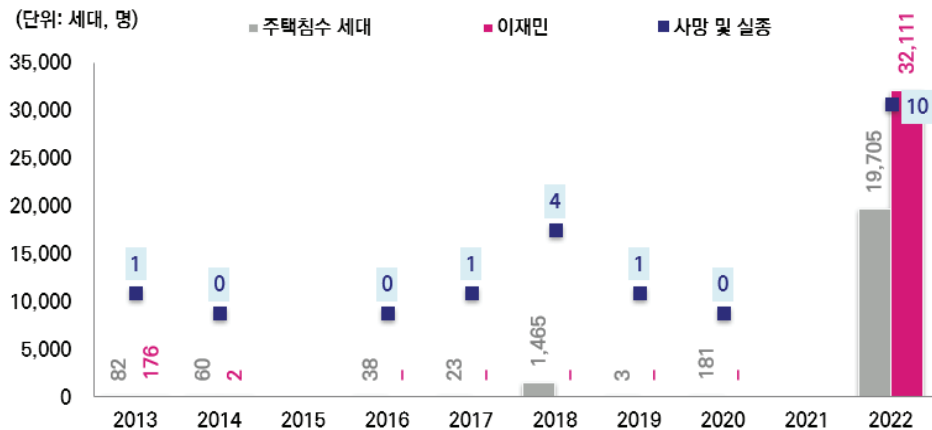
1)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그림 3-116〉 강수일수 및 눈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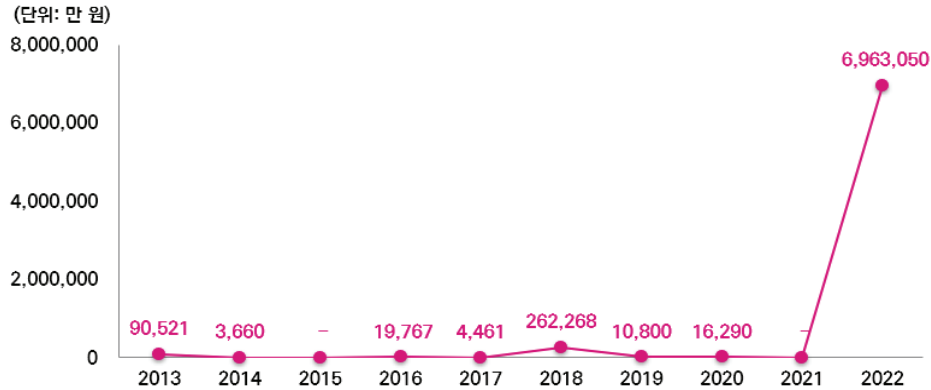
서울시 하천관리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서울시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주택침수로 인한 피해 세대가 19,705세대였으며, 이재민이 32,111명 발생하였으며, 사망 및 실종자도 10명 발생하였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696억 3,050만 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주) 2015년,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음

출처)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그림 3-117〉 자연재난 발생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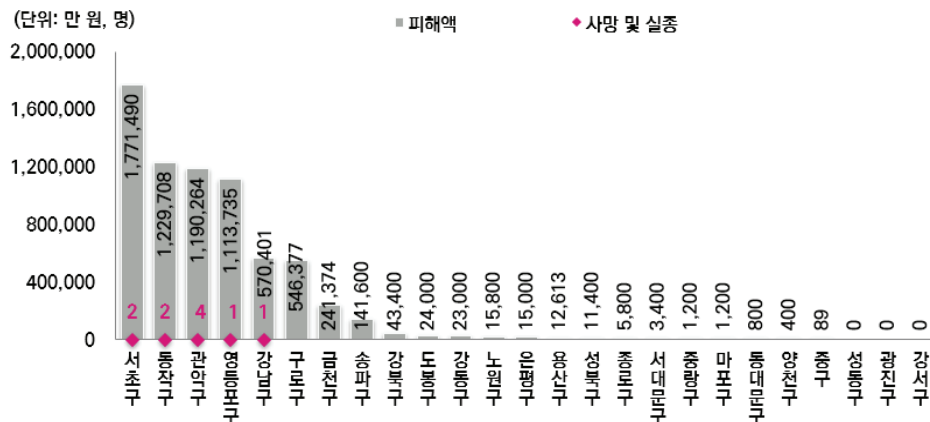


주) 2015년,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음

출처)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그림 3-118〉 자연재난 발생 피해액 현황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풍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반면,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서초구(177억 1,490만 원), 동작구(122억 9,708만 원), 관악구(119억 264만 원), 영등포구(111억 3,735만 원)에서 가장 컸으며, 사망 및 실종자는 관악구(4명), 동작구-서초구(2명), 강남구-영등포구(1명)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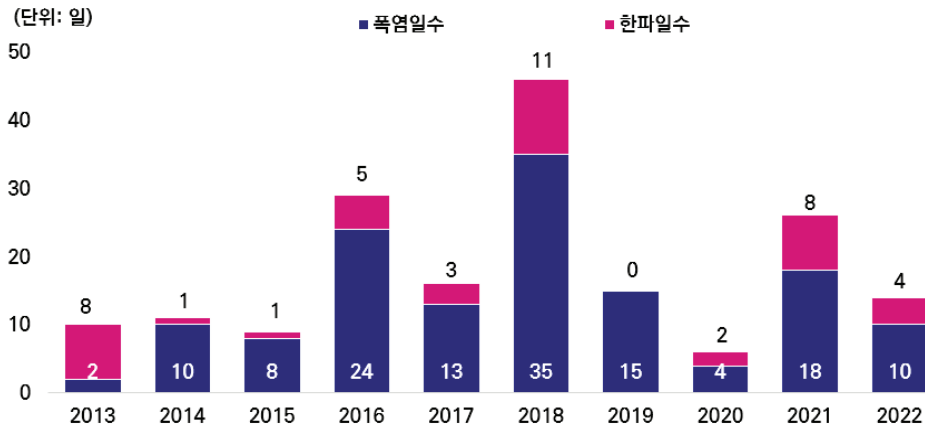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2022

〈그림 3-119〉 자연재난 발생 피해액 현황(구별)

-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폭염·한파 피해

기상청의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2022년 폭염일수는 10일, 한파일수는 4일로 기록되었으며, 2021년보다 폭염은 8일 한파는 4일 감소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여름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지속적 영향으로 6월 하순~7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1위로 집계되었으며, 여름철(6월~8월) 전국 평균기온은 24.5℃로 평년(과거 30년) 23.7℃보다 0.8℃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12.9일(평년 대비 6.5일 증가)로 역대 4위(1위 1994년 16.8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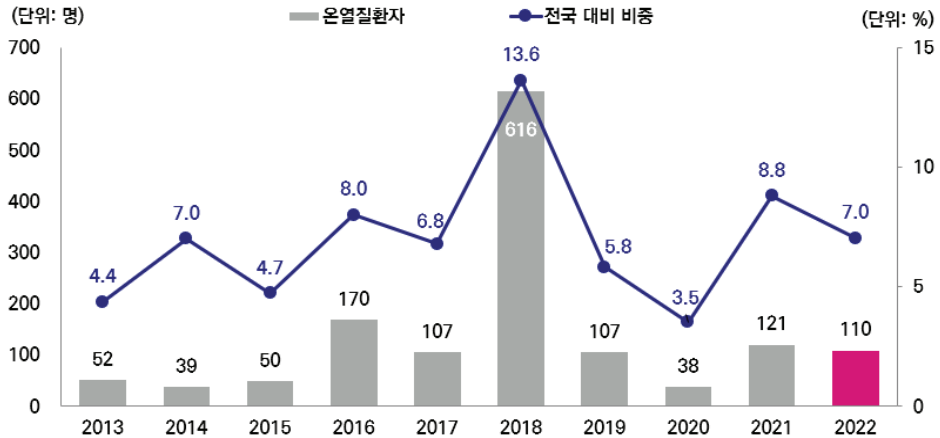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그림 3-120〉 폭염 및 한파일수

- **폭염일수:**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 **한파일수:** 아침(03:00~09:00)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
- 본 자료는 전국 62개 지점의 평균 기온을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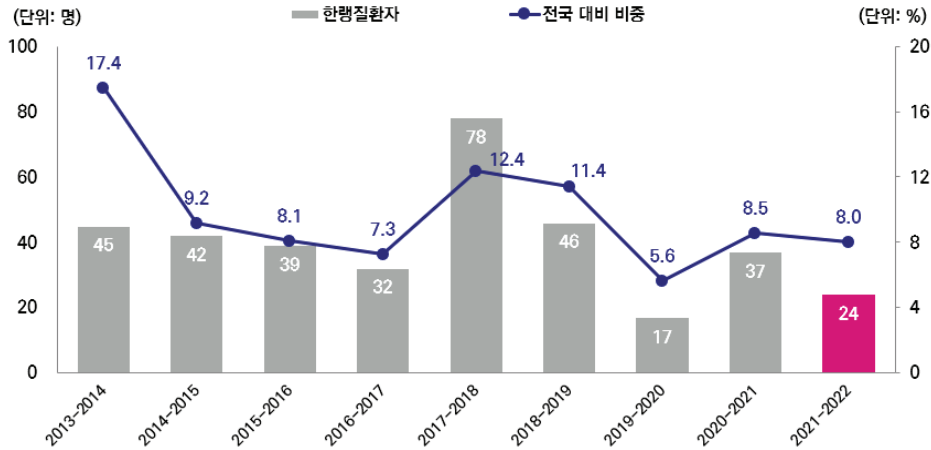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의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2년 (2022.5.20.~9.30.) 서울의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110명(사망자 0명)으로 전국 (1,564명) 대비 7.0%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규모는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째 주 사이 (519명), 그리고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346명)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2013년 이후 전국에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는 2018년(4,526명)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616명(전국 대비 13.6%)이 신고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그림 3-121〉 폭염 피해

-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등
-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2.5.20.~2022.9.30. 기간 중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자료로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참여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 본 자료의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0℃ 이상인 날의 일수로, 전국 62개 지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일수임(기상자료기반포털)

한편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1-2022절기(2021.12.~2022.2.) 서울의 한랭질환자 수는 모두 24명(사망자 1명)으로 전국(300명) 대비 8.0%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37명) 대비 35.1%(13명)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규모는 12월 셋째 주에서 다섯째 주에 가장 컸으며(107명), 2022년 2월까지 피해가 지속되었다. 2021-2022절기(2021.12.~2022.2.)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3℃로 평년(-0.2℃)과 비슷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상~중순에는 이동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으나, 12월 하순에는 강한 대륙고기압의 발달로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가장 추운 시기로 기록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그림 3-122〉 한파 피해

• **한랭질환:** 저체온증, 동상, 비동결, 기타 등

-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1.12.1.~2022.2.28. 기간 중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 본 연보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 개)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 자료로 한랭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참여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랭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함
- 본 연보의 '한랭질환자'는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시·도'는 '증상발생장소' 기준임

2. 사회재난

1) 요약 및 정책 제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교통약자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안전 대책 추진 필요

서울시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에 힘입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에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대책, 교통안전기반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부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피해 사고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14명, 2022년에 6명을 기록하여 2020년 이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 사망자 대책에 대한 한계가 보이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개정 법령이 2020년 3월에 시행된 이후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상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도 강서구, 강남구, 양천구 등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발생 건수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자치구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감소는 서울시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통사고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주정차 규제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는 교통사고의 취약 부문인 교통약자, 보행안전 시설물,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지역 차원의 세부적인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맞춤형 교통사고 개선대책을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교통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 취약성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필요

화재사고도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로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서의 인명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의 화재안
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취약계층과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를 강
화해야 한다.

일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시민 대상 안전수칙 준수 개발 등 다채널 홍보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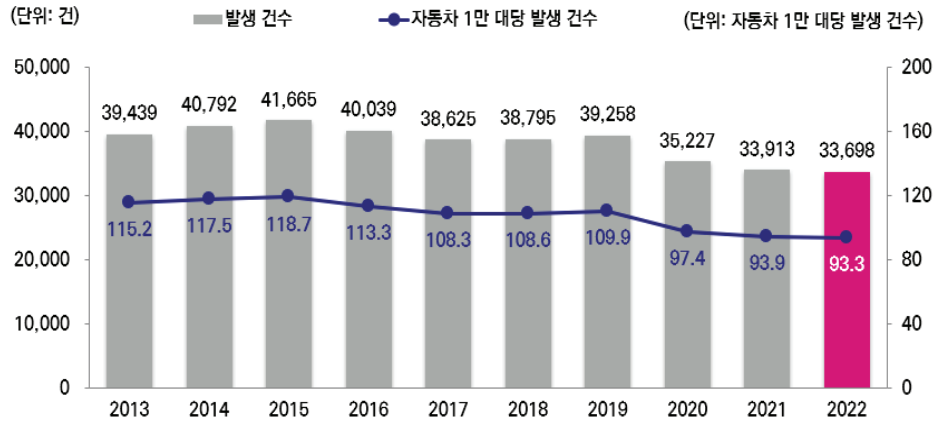
주요 사고인 교통사고, 화재, 붕괴 이외의 안전사고(일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대비 발생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국의 전체 사고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중은 2020년 9.9%에서 2021년에 7.2%로 감
소하였다. 서울시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에 서울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대비 4.0%
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755건 감소하였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감소하였다. 코
로나19로 인해 실외활동과 대면접촉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에서 실시한 사회적 격리에 의해 일반 안전사고 완화 경향이 더욱 뚜렷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 격리가 해제된 이후 일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하철 안전사고는 물론 일반 놀이시설 사고까지 안전사고의 관리 영역이 광범위함
에 따라, 일반 안전사고는 관리주체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범위한 개별 안전
대책을 서울시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통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안
전대책 공통 요소로는 안전 수칙 홍보가 있다. 이를 잘 시행하기 위한 사례로, 서울시
에서는 공통 이용자 안전 수칙을 개발하고 서울시 안전 앱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수칙 인식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2) 지표 설명

•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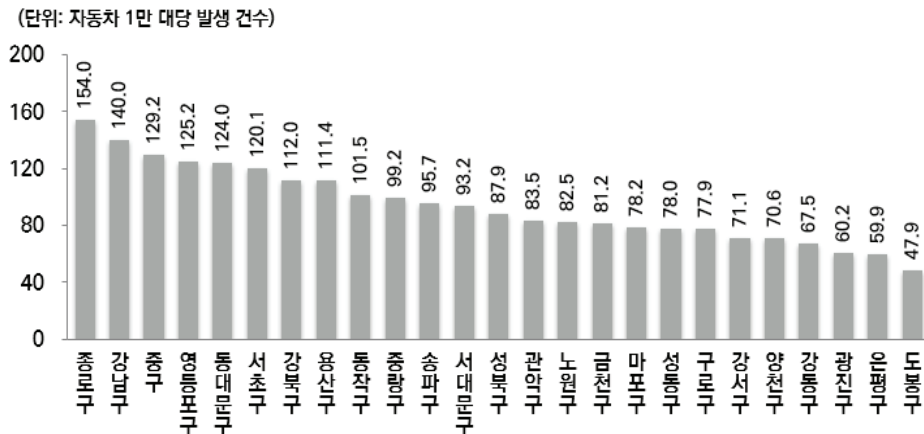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698건으로 전년 대비 215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0.6건 감소하였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23〉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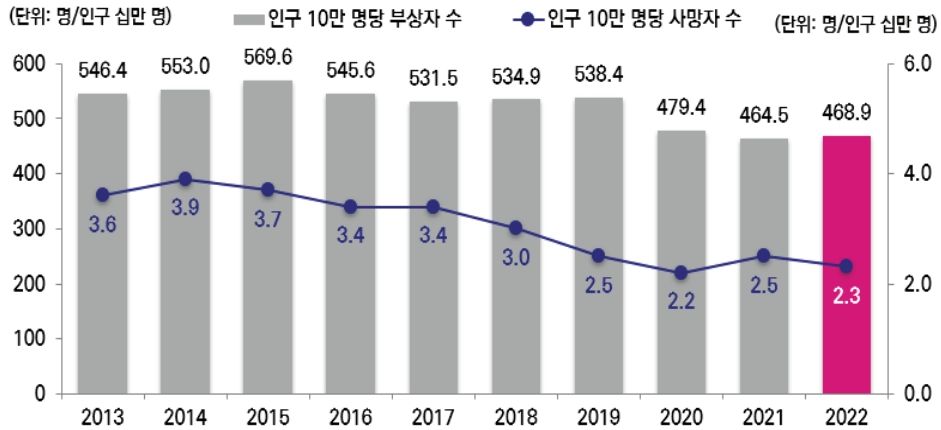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종로구(154건), 강남구(140건), 중구(129.2건) 등에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47.9건), 은평구(59.9건), 광진구(60.2건)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2022

〈그림 3-124〉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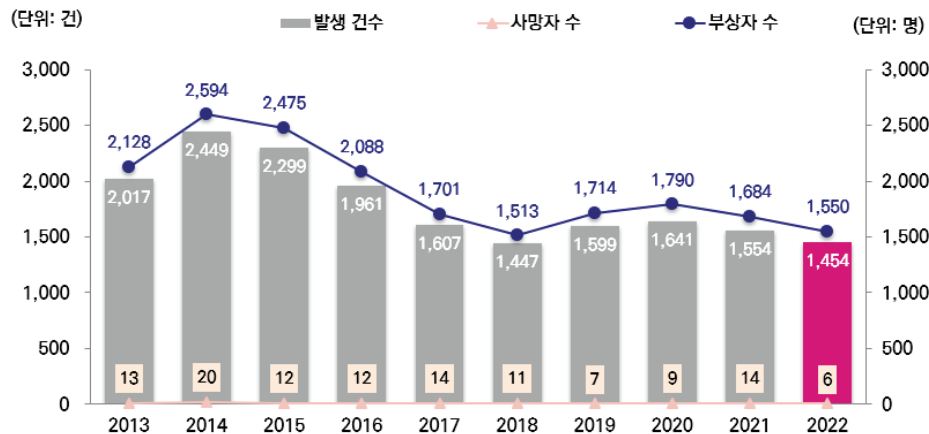
2022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468.9명, 사망자 2.3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는 4.4명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0.2명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25〉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한편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의하면, 2022년 서울의 자전거 피해 사고 발생 건수는 1,454건, 피해자 수는 1,556명(부상자 수 1,550명, 사망자 6명)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0건 감소하였으며, 피해자 수 역시 142명 감소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에 2,449건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반등을 계속하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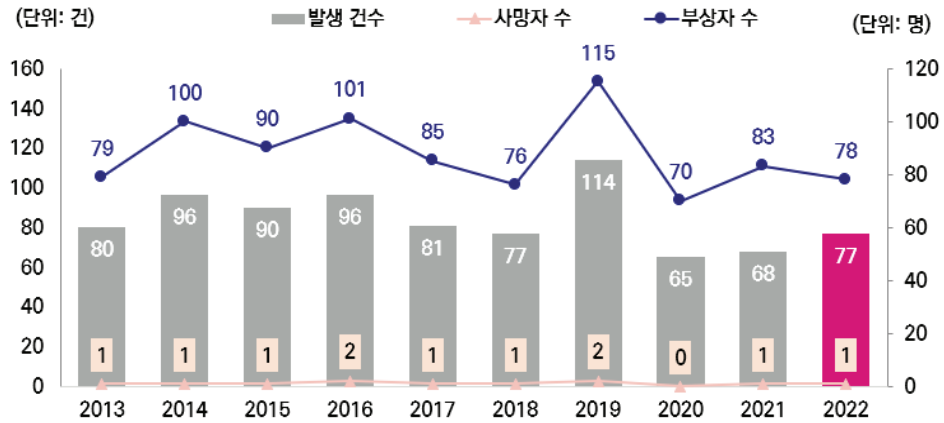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26〉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의하면,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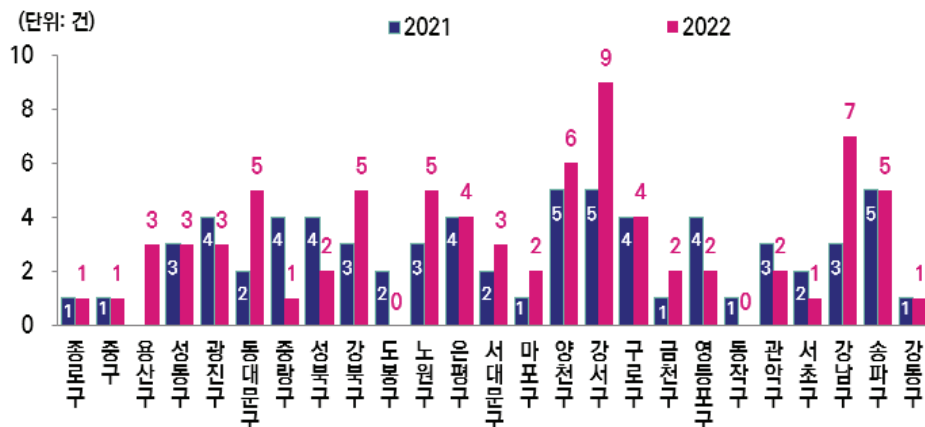
사고 발생 건수는 77건으로 전년 대비 9건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는 총 79명(부상자 78명, 사망자 1명)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하였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27〉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자치구별로는 강서구(9건), 강남구(7건), 양천구(6건)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전사고가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봉구와 동작구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강남구·강서구(4건), 동대문구·용산구(3건)에서 사전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중랑구(3건), 도봉구·성북구·영등포구(2건)에서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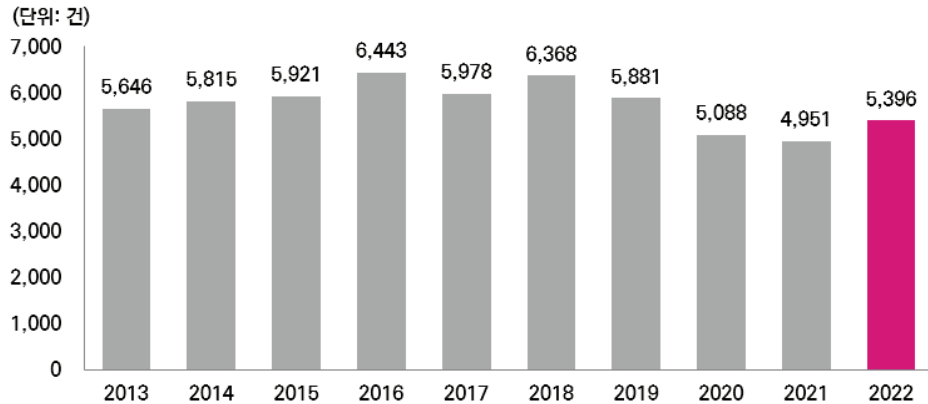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28〉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구별)

•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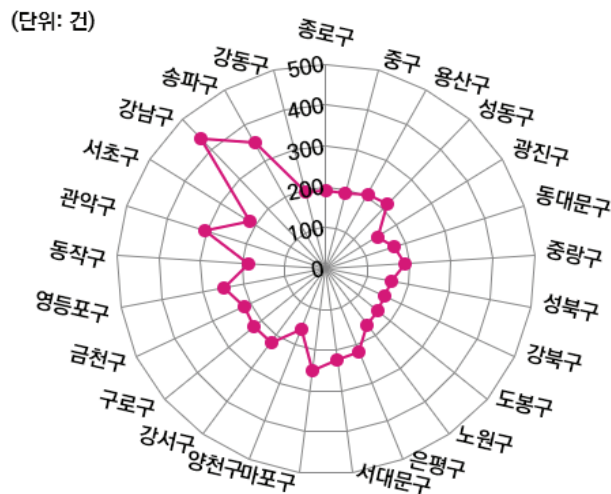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화재 발생 건수는 5,396건(실화 4,756건, 방화 109건, 기타 531건)으로 전년 대비 445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그림 3-129〉 화재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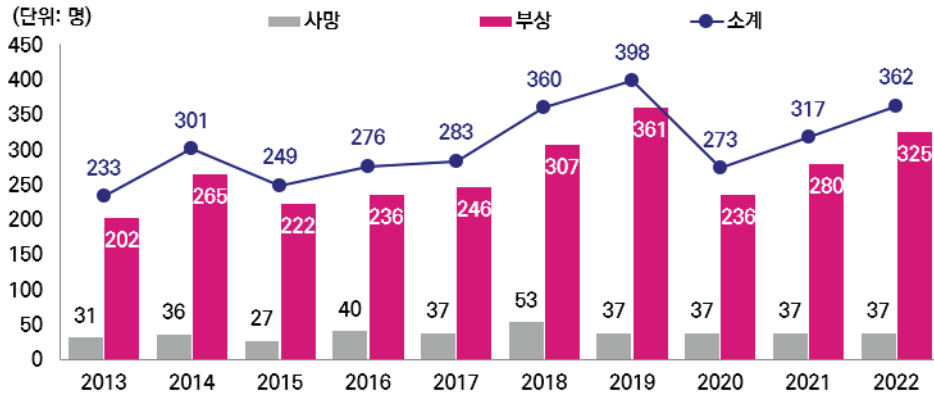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37건), 송파구(350건), 관악구(305건), 마포구(250건) 등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광진구(145건), 강북구(155건), 성북구(158건)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2022

〈그림 3-130〉 화재 발생 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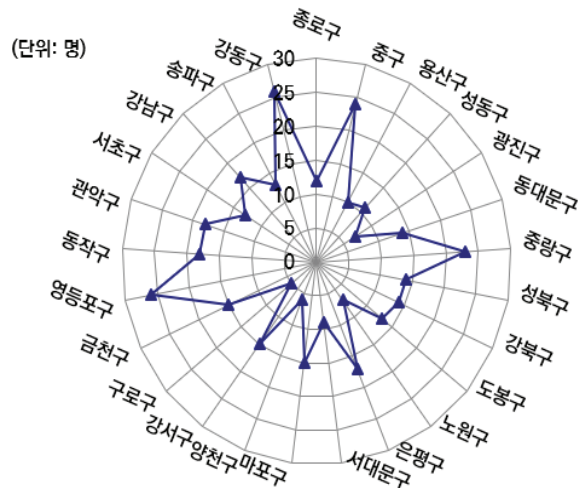
2022년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362명(사망 37명, 부상 325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증가하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과 동일하며, 부상자 수가 45명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그림 3-131〉 화재 사상자 수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영등포구(26명), 중구(24명), 중랑구(23명) 등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구로구(5명), 양천구(6명) 등에서 사상자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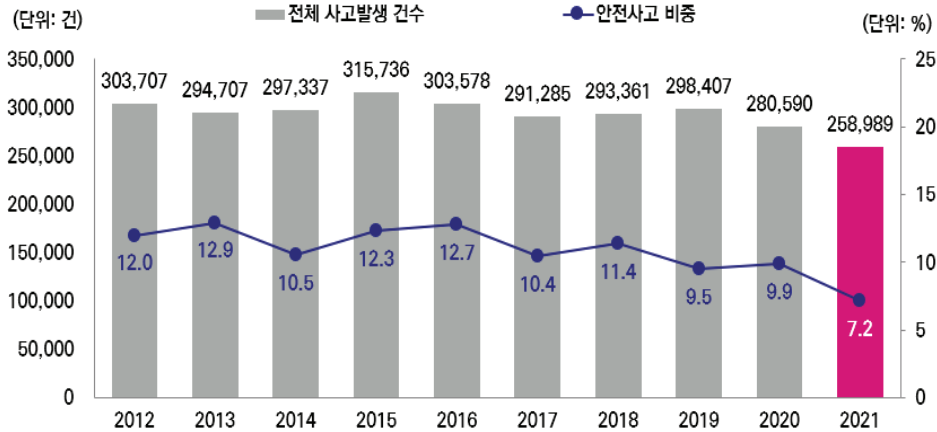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2022

〈그림 3-132〉 화재 사상자 수(구별)

•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행정안전부의 사고발생현황 통계 중 전국의 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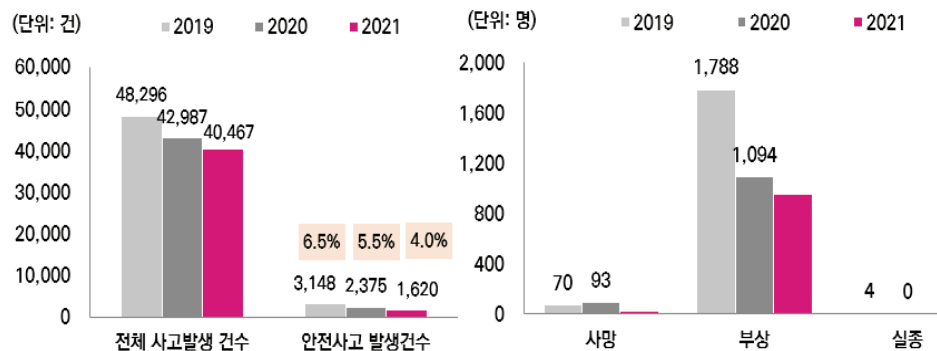
각종 안전사고(지하철, 열차, 산불, 해양, 폭발, 전기(감전), 승강기, 수난, 등산, 추락,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사고 등) 발생 건수는 2021년에 18,530건으로 전체 사고발생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9,190건(33.2%) 감소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그림 3-133〉 안전사고 발생 건수(전국)

서울의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에 1,62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수 26명, 부상자 수 951명, 실종 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755건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67명, 143명 감소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그림 3-134〉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서울)

3. 사회안전

1) 요약 및 정책 제언

강력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최근 2년 소폭 증가

서울의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에 폭력이 23.7%, 절도가 20.6%, 강간강제추행이 24.1%, 살인 및 강도가 9.6%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나고 비대면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유형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감소 비율이 20%를 상회했는데 이는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이 살인보다 우발적 대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격리가 완화된 이후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은 2021년의 54.9건에서 2022년에 64.7건으로 전년 대비 9.8건 증가하였다. 2022년에 전년도 대비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 모두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도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다른 자치구에 대비 높은 5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차원의 범죄 안전대책이 보완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폭력 중 가정폭력 비중이 높고 최근 몇 년간 아동과 노인학대 건수 낮아졌으나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의 전체 건수는 여전히 높은 편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율도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실외 이동 안전 중심의 여성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2년에 616건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676건)과 2021년(736건)에 급등하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6.3%(120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 내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가족 간의 갈등,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돌봄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종식되면서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10년 전인 2013년(428건)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로 경기도(23.0%, 1,56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의 2022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총 2,899건으로, 전년 대비 716명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2,084명(3.6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판단 건수가 최근 10년간 증가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22년에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61명으로, 전년도 대비 인구 천 명당 0.5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3년 대비 5배 이상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시 안전약자에 대한 예방적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서울시에서는 여성, 노인, 아동에 대해 안전약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여성안심특별시를 선언하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4시 스마트 안심망,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심 경보기 보급 등의 사업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교보안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방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여성안전 대책에 비해 노인과 아동에 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성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도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 상담, 지원, 보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방지 행동요령을 다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2022년 5,438억 원 이상으로, 국민의 고통이 크고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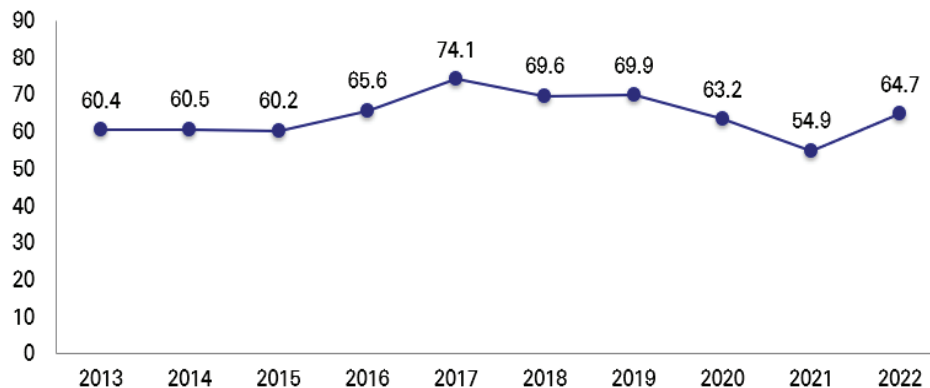
죄예방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2만 1,832건으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범정부 통합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되었다. 경찰, 금융, 인터넷 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신속한 대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링크와 더불어 관련 피해 방지 행동요령을 제공하도록 하여 시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야 한다.

2) 지표 설명

• 강력범죄 발생률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64.7건으로 전년 대비 9.8건(17.9%)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4.3건(7.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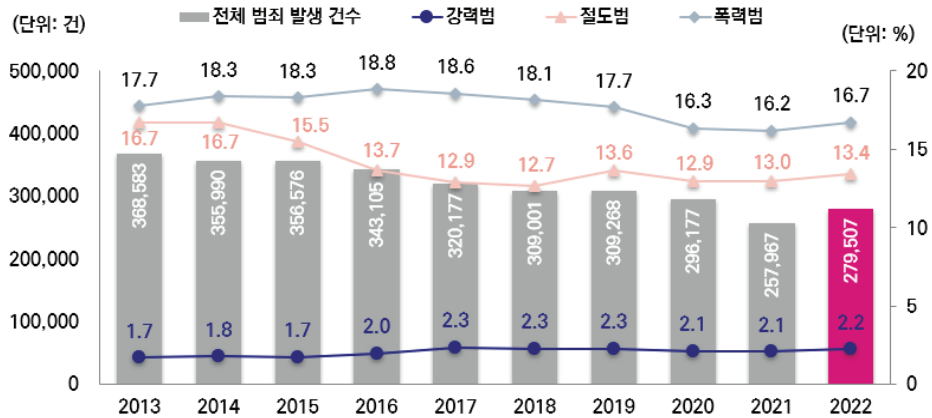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35〉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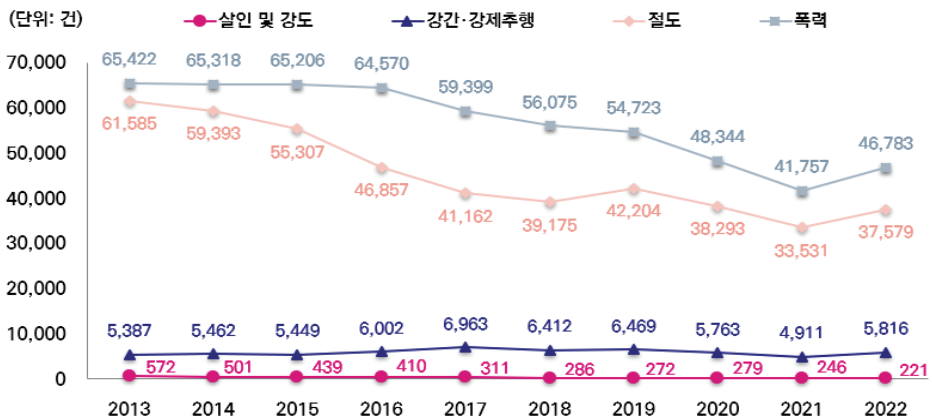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서울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202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21,540건) 상승하였다. 전체 범죄발생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전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그림 3-136〉 범죄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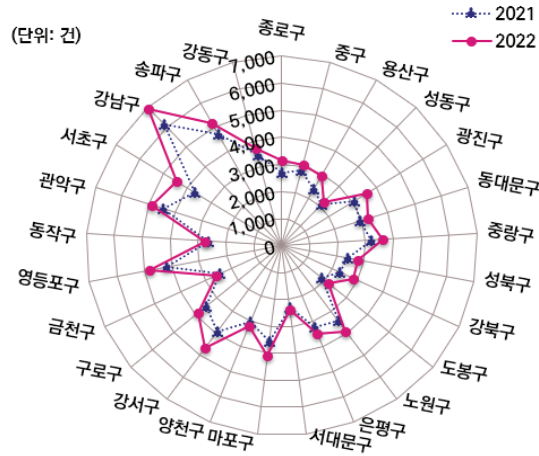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 5대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폭력 범죄가 46,78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절도 37,579건, 강간·강제추행 5,816건, 강도 117건, 살인 104건 발생하였다. 전년 대비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증가한 반면, 살인과 강도 범죄는 감소하였다(각각 20건, 5건).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그림 3-137〉 5대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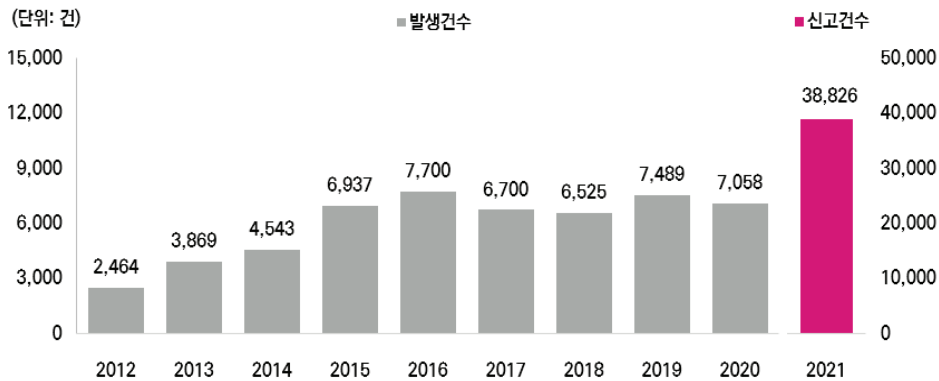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5대범죄는 강남구(6,947건), 송파구(5,167건), 관악구(4,879건), 영등포구(4,819건)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도봉구(2,141건), 성동구(2,194건), 서대문구(2,374건), 금천구(2,577건) 등에서 적게 발생하였다. 모든 자치구에서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그림 3-138〉 5대범죄 발생 건수(구별)

•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가정폭력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38,826건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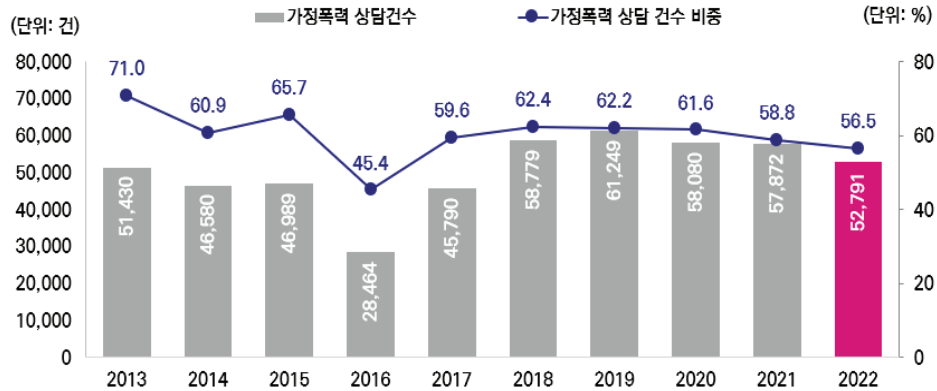


주) 2012~2020년: 발생건수, 2021년: 신고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발생현황

〈그림 3-139〉 가정폭력 발생 현황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의 여성폭력상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2년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상담 건수는 총 93,40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정폭력에 따른 여성 상담 건수는 56.5%(52,791건)를 차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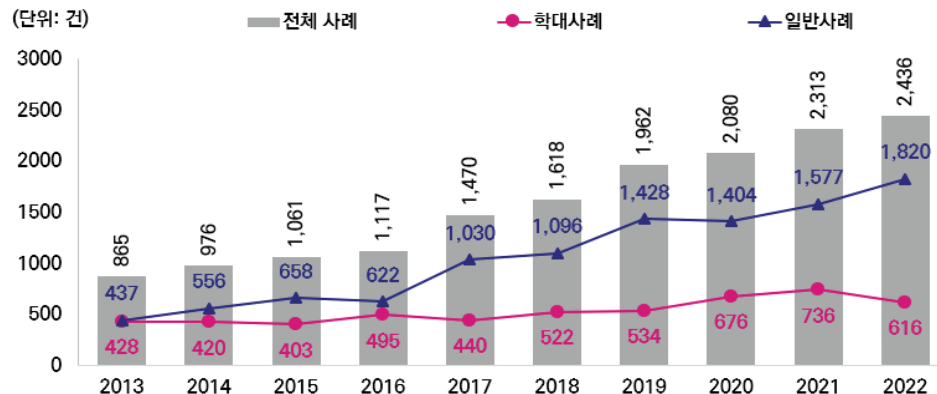
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에 6만 건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출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그림 3-140〉 가정폭력 상담건수

한편 노인학대 신고접수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에 신고된 전체 신고 건수는 2,436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 사례로 신고된 접수 건수는 616건으로 전년 대비 16.3%(120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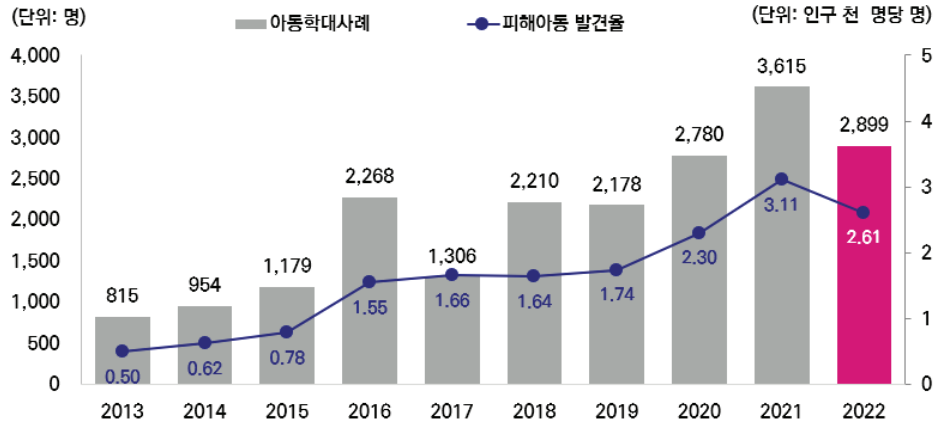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그림 3-141〉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2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총 2,899건,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61명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716명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3.6배(2,084명) 증가하였다. 인구 천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년 대비 0.5명 감소하였으나, 2013년(0.50명)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높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그림 3-142〉 아동학대 피해 건수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본 자료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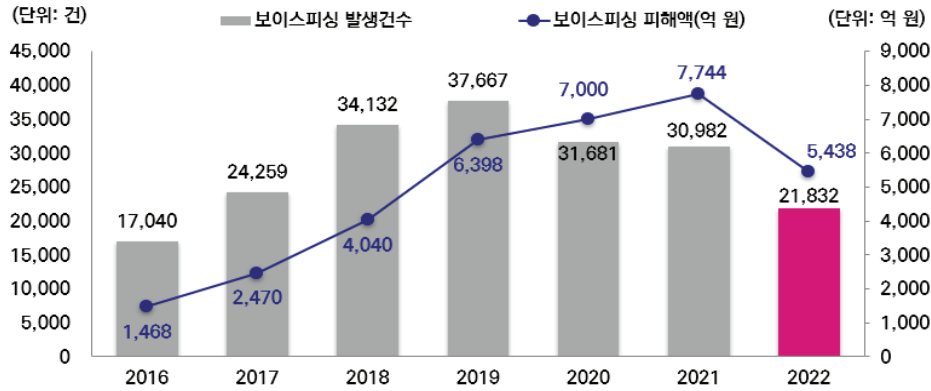
•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 최초 발생 이후 2019년에 3만 7,667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전국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1,832건, 피해 금액은 5,43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²⁾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³⁾으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대출사기형 피해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기관사칭형 피해율이 40.9%로 급등하여 전년 대비 18.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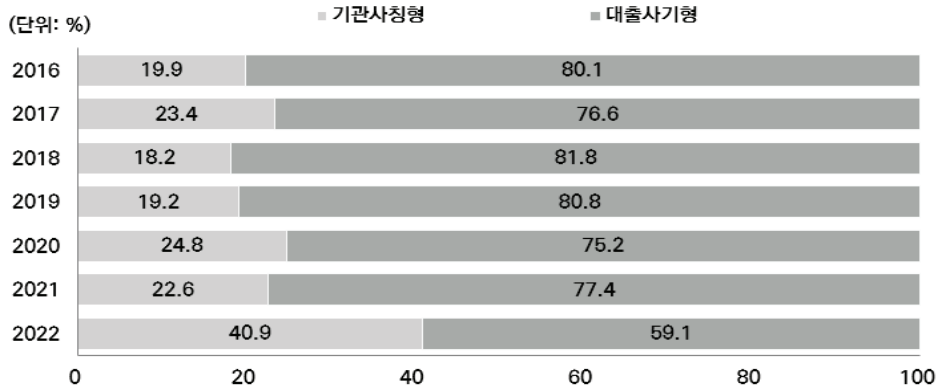
2) 대출사기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유도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3) 기관사칭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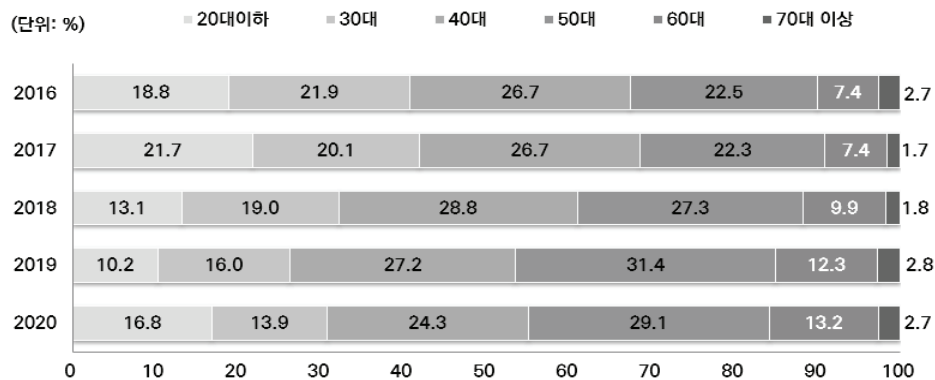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그림 3-143〉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전국)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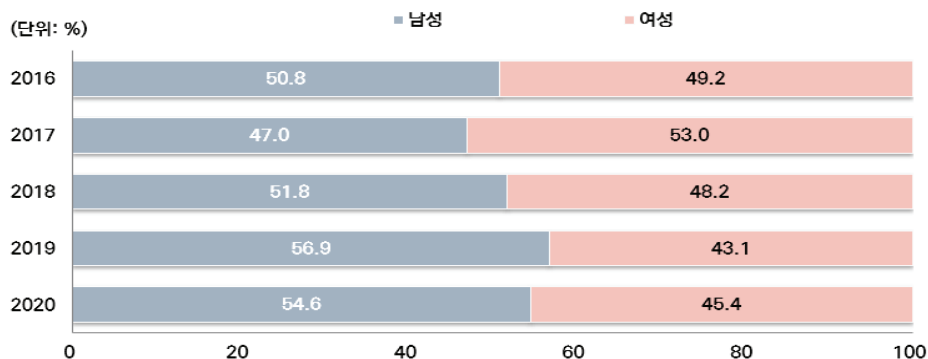
〈그림 3-144〉 유형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전국)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그림 3-145〉 연령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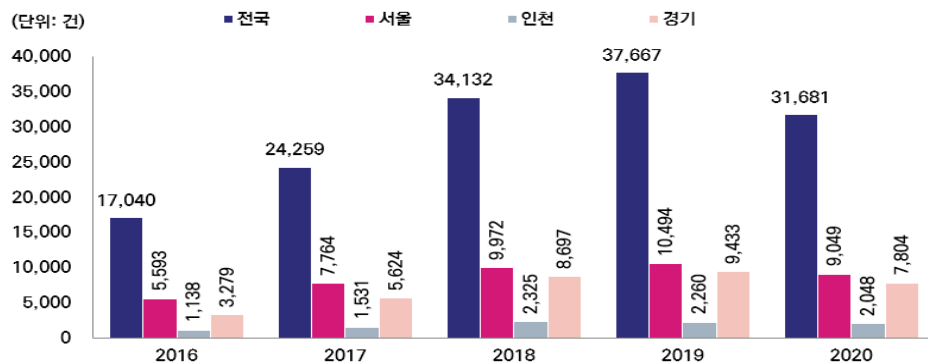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40~50대와 남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통념과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피해 경험에 있으며, 50대와 40대 순으로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50대의 피해율이 29.1%로 가장 높았고, 40대(24.3%), 20대 이하(16.8%), 30대(13.9%), 60대(13.2%), 70대 이상(2.7%)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0년 기준 남성의 피해율은 54.6%, 여성의 피해율은 45.4%로 조사되었다.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그림 3-146〉 성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전국)

한편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수도권(59.7%)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2020년 기준 서울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전국에서 28.6%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24.6%, 인천 6.5%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규모는 총 42,872건으로 2019년에 10,49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 9,049건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 피해 현황

〈그림 3-147〉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제6절 환경

1. 대기와 녹지

1) 요약 및 정책 제안

코로나19 리바운드 영향 최소화하고 대기질 개선 경향 지속을 위해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의 원활한 추진 중요

코로나1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최근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과거 보다 개선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그간 위축되었던 국내외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최근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원인을 코로나19 영향과 국내외 정책 수단 추진 영향으로 구분해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친환경공사장 운영 및 관리 강화 등 서울시의 대기정책 수단이 유의미하게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리바운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 경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2022년 9월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의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에 주목하고, 연평균농도 권고 기준은 $10\mu\text{g}/\text{m}^3$ 에서 $5\mu\text{g}/\text{m}^3$ 로, 일평균농도 권고 기준은 $25\mu\text{g}/\text{m}^3$ 에서 $15\mu\text{g}/\text{m}^3$ 로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과 대기질 수준은 WHO의 권고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시민 건강 보호를 고려한 국내 대기질 개선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감소 추세와 달리 상승세를 보이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발굴 및 추진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대기오염물질들은 배출, 반응, 생성, 제거 등의 과정에서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별 대기오염물질 관리보다는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야 할 것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소음 관리의 중요성도 커져

녹지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에 속한다. 국

가통계 사회조사에서도 녹지환경 만족도를 2년 주기로 조사하는데,⁴⁾ 2022년에는 59.1%로 2020년 58.7%에서 0.4%p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도시 지역의 평균 녹지환경 만족도는 57.1%이고, 서울 지역의 만족도는 55.9%로 도시 지역 평균보다는 낮다. 서울시민 대상의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녹지환경 만족도가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녹지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녹지환경 만족도가 서울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자치구와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녹지 면적 및 접근성,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등을 비교해 녹지환경의 질적, 양적 개선점을 찾고, 지역별 녹지환경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도,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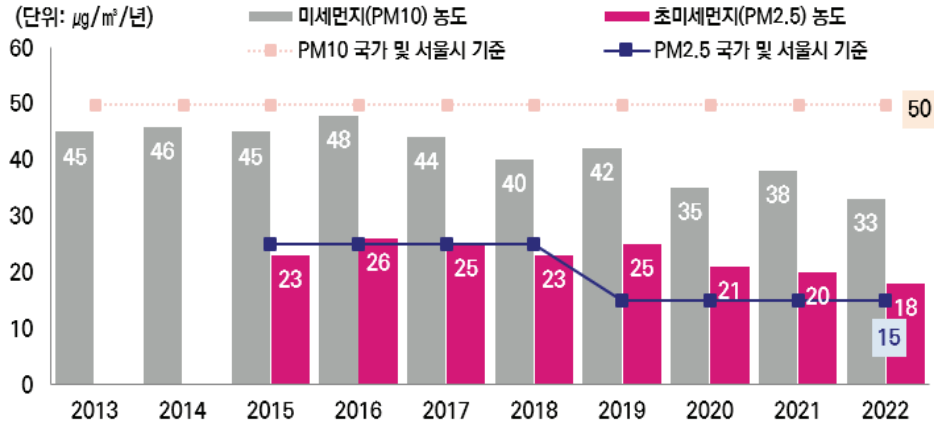
서울처럼 도로와 인접해 주거지역이 형성된 대도시에서 주요 소음원 중 하나는 차량 등 교통이다. 서울의 도로변지역 소음도는 일반지역 소음도보다 꾸준히 10dB(A) 이상 높게 조사되고 있고, 2021년과 2022년 도로변지역과 일반지역의 소음도가 과거보다 2~4dB(A) 정도 높다.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시 지역의 주요 소음원인 교통, 공사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음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국가통계 사회조사의 2022년 소음 만족도는 36.6%로 2020년에 비해 0.9%p 증가하였다. 도시 지역 평균 소음 만족도가 33.6%인 것에 비해 서울 지역의 소음 만족도는 32.2%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 지표 설명

• (초)미세먼지 농도

국가 및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50\mu\text{g}/\text{m}^3$ 이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2015년 $25\mu\text{g}/\text{m}^3$ 에서 2018년 $15\mu\text{g}/\text{m}^3$ 로 강화되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정보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mu\text{g}/\text{m}^3$ 으로, 2011년 이후 환경기준치인 $50\mu\text{g}/\text{m}^3$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연간 $18\sim 26\mu\text{g}/\text{m}^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8년 이후 환경기준치인 $15\mu\text{g}/\text{m}^3$ 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2022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환경기준은 여전히 초과하였다.

4) 국가지표로서 녹지환경 만족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산, 공원 등)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표시된다(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질 지표, 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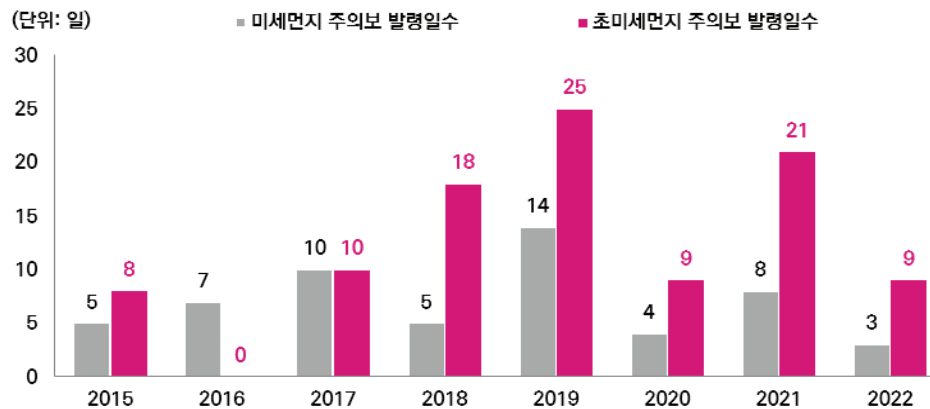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그림 3-148〉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부의 대기정보 예보/경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역에 2022년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3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9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각각 5일, 12일 감소하였다.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 예보/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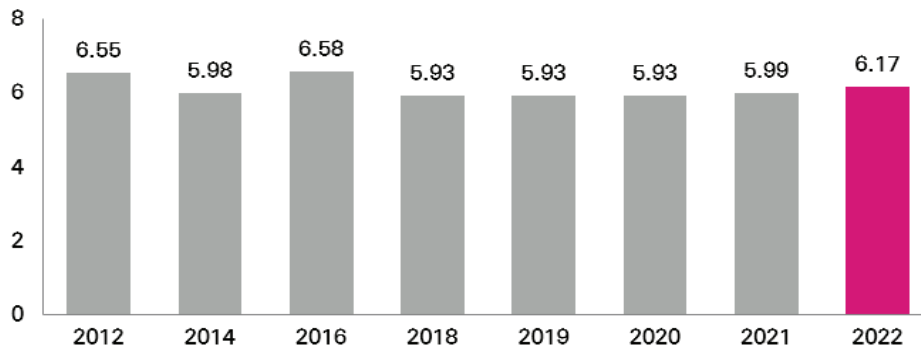
〈그림 3-149〉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행 현황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녹지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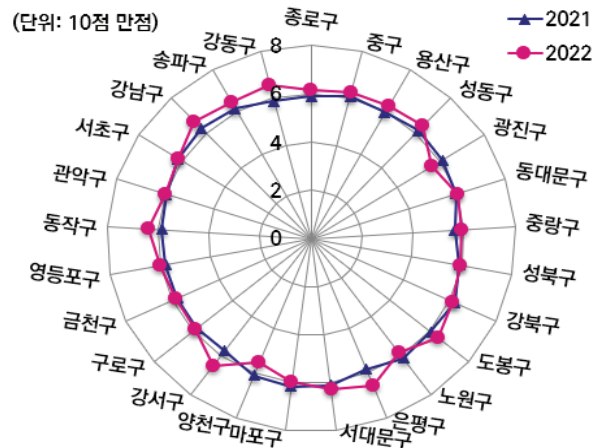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22년에 6.17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0.18점) 상승하였다. 서울시민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최근 10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5.9점~6.6점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단위: 10점 만점)



주) 2013~2017년 격년 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50〉 녹지환경 만족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51〉 녹지환경 만족도(구별)

자치구별로는 강남구(6.67점), 강동구(6.58점), 은평구(6.53점), 강서구(6.52점) 등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5.51점), 광진구(5.58점), 노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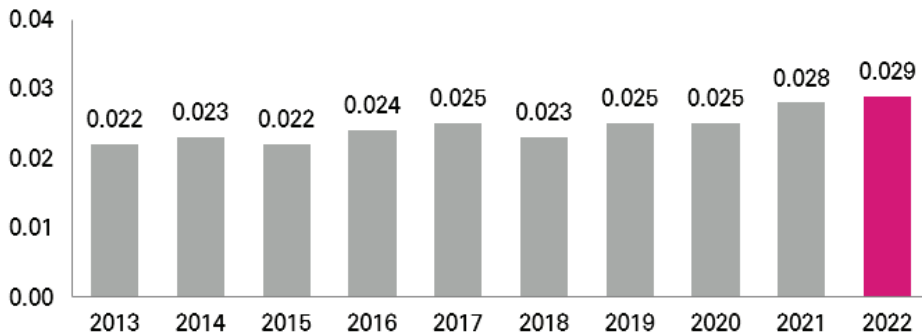
(5.85점), 금천구(5.88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개 자치구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5개 자치구에서는 감소하였다. 강서구(0.8점)와 강동구(0.7점)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양천구(0.6점), 광진구(0.5점), 노원구(0.3점), 마포구(0.2점), 강북구(0.1점)에서는 녹지환경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 오존 농도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29ppm/8시간으로, 2013년(0.022ppm/8시간) 대비 0.007ppm/8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대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오존 주의보 발령 일수는 총 11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42회로 전년 대비 10회 증가하였다.

(단위: ppm/8시간)

※ 국가 및 서울시기준: 0.06(ppm/8시간)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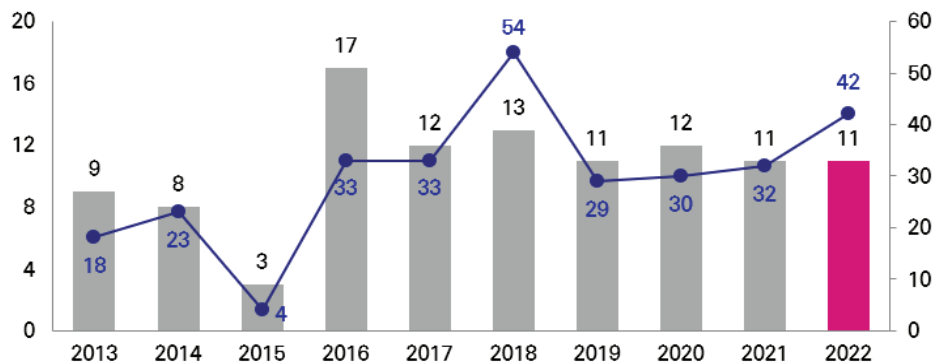
〈그림 3-152〉 오존 농도

(단위: 일)

■ 발령 일수

● 발령 횟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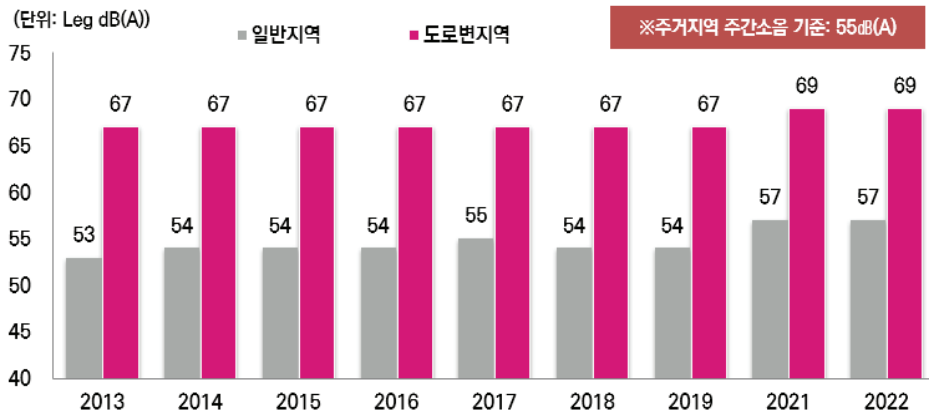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그림 3-153〉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 환경소음도

서울시 생활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일반지역(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낮(6:00~22:00) 동안 연평균 환경소음도는 57dB(A), 도로변지역(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환경소음도는 69dB(A)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인 55dB(A)을 초과하였다.



주) 2020년 비조사
출처)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그림 3-154〉 주간 환경소음도

2. 물 순환과 자원순환

1) 요약 및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선제적 정책 이행과 평가지표 마련, 유역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극한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침수 대책의 종합적 개선 필요

서울시계 한강 본류와 지천의 수질 측정 결과, 깨끗한 물 달성률은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탄천, 목감천, 중랑천 일부 구간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계획의 선제적 이행을 통해 도시 물순환 개선과 함께 악화된 물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순환 계획 및 정책의 이행과 적극적인 예산 활용 유도를 위해 서울시의 물순환 현황과 물순환 회복 계획에 따른 물순환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가능한 물순환 건전성 지표 개발과 이행평가 체계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022년 8월 서울시는 홍수 방어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의 발생으로 인해 큰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기회로 극한 호우에 대비한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하수도 법령 및 계획간 연계, 도시 계획과의 연계 등 기후변화, 극한홍수 영향을 고려한 서울시 도시침수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유역 물순환 왜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근거로 한강유역 타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주요 기관,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유역 차원의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 자체 처리 용량 확대부터 장기적으로 순환경제 전환, 폐기물 원천감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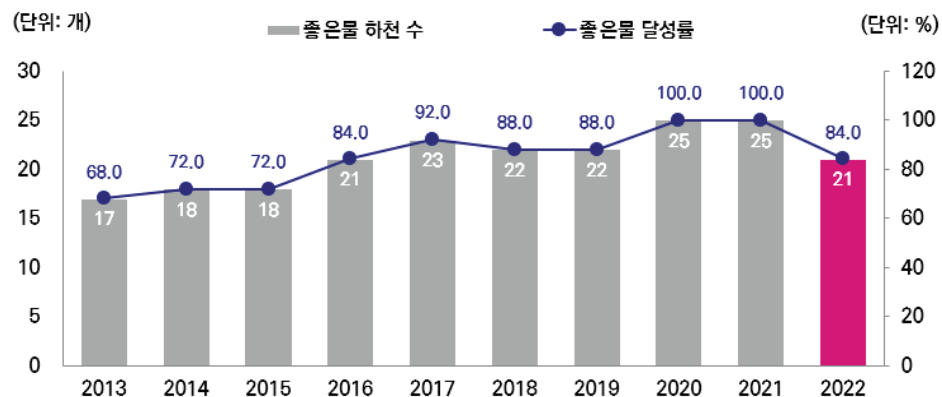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하는 재활용비율 집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재활용 전 단계 처리를 기타로 구분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순수 재활용 비율은 56.1%, 기타 처리 비율까지 포함하면 65.4%로 2020년 66.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소각 처리가 줄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인 직매립 비율이 증가하였다. 2021년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추가되지 않았고, 시설 화재와 시설 연한 노후화로 인한 대정비 기간 증가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종량제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나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되었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2년 초부터 수도권매립

지 건설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엄격하게 지켜지면서 2021년에 비해 2022년 직매립 비율은 감소가 예상된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매일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안으로서 자원회수시설은 직매립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한 차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회수, 전처리를 통한 재활용 자원화 활성화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소각과 에너지 회수라는 차선의 대안으로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고, 2023년 9월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원천감량과 자원화,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온전한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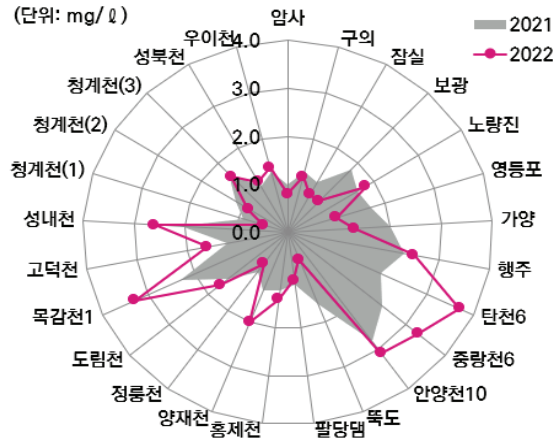
•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의 수질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하천 중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mg/ℓ 이하인 ‘깨끗한 물’에 해당하는 하천의 비율은 2022년에 84.0%(21개)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측정지점 중 청계천(1), 뚝도, 정릉천, 암사, 청계천(2), 보광, 잠실 지점이 1.0mg/ℓ 미만으로 수질이 가장 좋으며, 탄천(3.7mg/ℓ), 중랑천(3.3mg/ℓ), 목감천(3.3mg/ℓ), 안양천(3.1mg/ℓ)의 수질이 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BOD가 3mg/ℓ를 초과하는 하천이 4개 증가하였는데, 2021년에 비해 탄천6, 목감천1, 중랑천6 지점의 수질이 가장 많이 악화되었으며, 보광, 영등포, 가양 지점의 수질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출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현황

〈그림 3-15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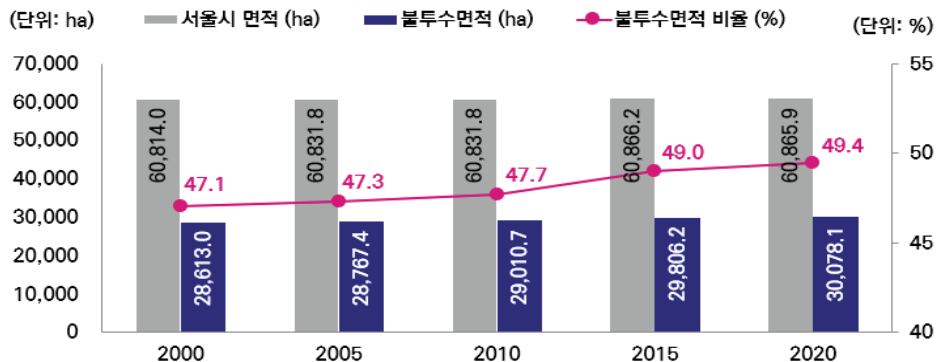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현황

〈그림 3-156〉 서울시계 한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불투수면적 비율

불투수면적이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으로, 불투수면적이 넓어질수록 도시침수나 열섬현상이 심화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49.4%로, 2015년(49.0%)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20년 전에 비해 2.3%p 증가하였다. 불투수면적 규모 역시 2020년에 30,078.1ha로 2000년(28,613ha)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수질오염 심화와 생물 종다양성 감소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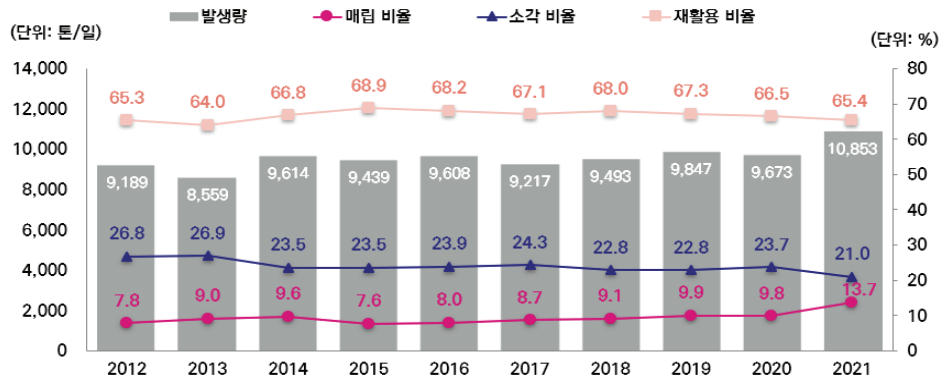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시설계획과, 불투수 포장면적(등급별)

〈그림 3-157〉 불투수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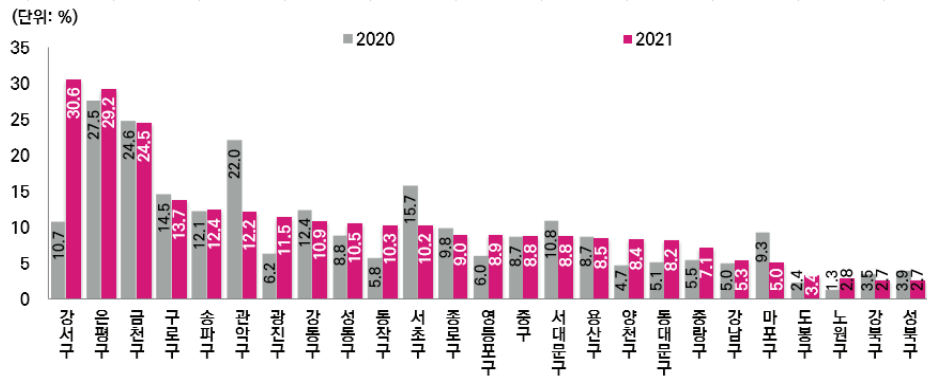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매립률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기준 1일 평균 10,853톤으로 전년 대비 1,18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매립 비율은 13.7%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65.4%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으며,⁵⁾ 소각 비율은 21.0%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림 3-158〉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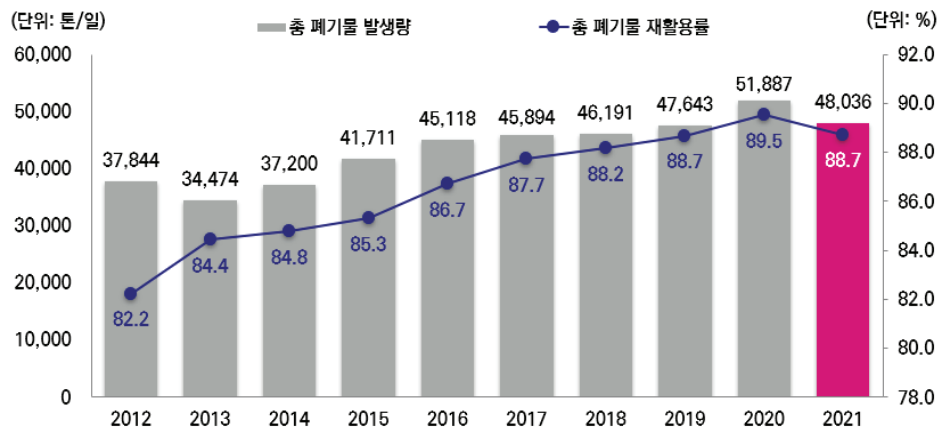
〈그림 3-159〉 생활폐기물 매립률(구별)

5) 재활용 비율: 2019년부터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로 분리되었으나, '기타' 항목을 '재활용'에 포함하여 계산함
 (※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리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29.2%), 금천구(24.5%), 구로구(13.7%)의 매립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강북구·성북구(2.7%), 노원구(2.8%), 도봉구(3.4%), 마포구(5.0%), 강남구(5.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년 대비 강서구(19.9%p), 광진구(5.2%p)와 동작구(4.5%p) 등에서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관악구(9.7%p), 서초구(5.5%p), 마포구(4.2%p) 등에서 매립률이 감소하였다.

• 총 폐기물 재활용률

서울의 총 폐기물(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2021년 기준 서울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48,036톤으로 전년 대비 3,851톤 감소하였으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88.7%가 재활용되었다. 총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2년 이후 증가추세였으나, 2020년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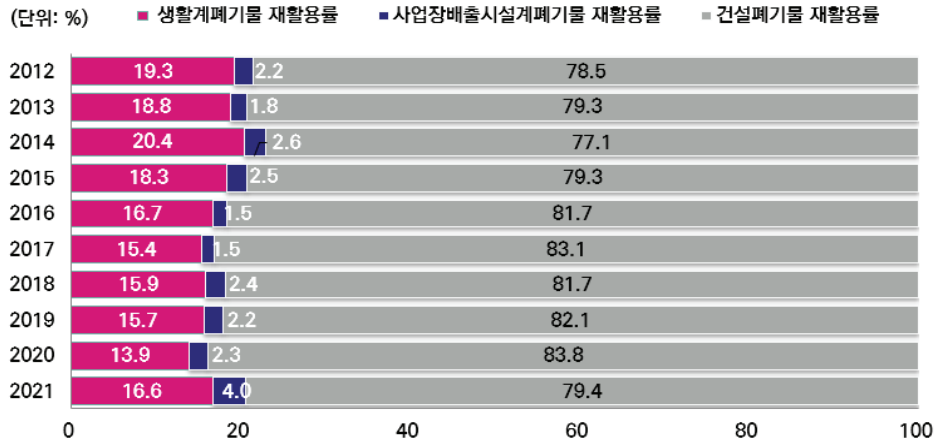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그림 3-160〉 총 폐기물 재활용률

서울의 총 폐기물 재활용률 중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79.4%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⁶⁾이 16.6%,

6) 재활용 비율: 2019년부터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로 분리되었으나, '기타' 항목을 '재활용'에 포함하여 계산함
(※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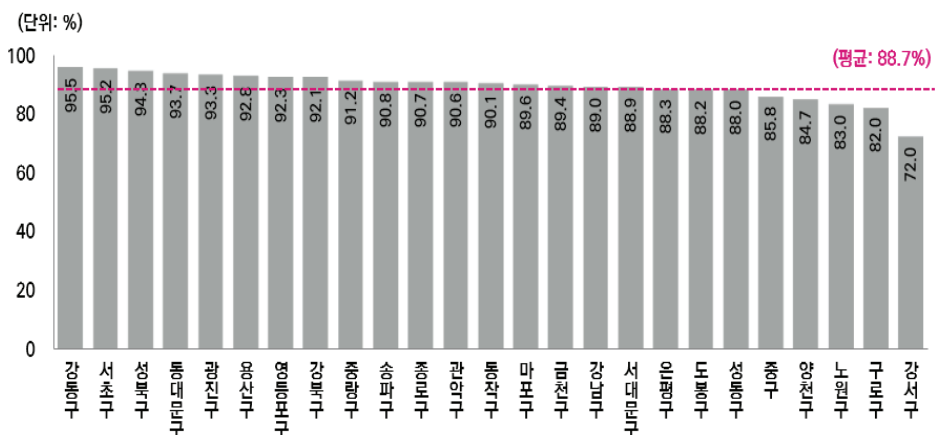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률이 4.0%로 집계되었다. 총 폐기물 재활용률에서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1년에 상승하였다(2.8%p).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그림 3-161〉 총 폐기물 재활용 대비 항목별 재활용 비율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에서 총 폐기물 재활용률이 95.5%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95.2%), 성북구(94.3%), 동대문구(93.7%), 광진구(93.3%) 등에서 재활용률이 높았다. 반면에 강서구에서는 72.0%로 총 폐기물 재활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구로구(82.0%), 노원구(83.0%), 양천구(84.7%) 등에서도 재활용률이 평균 이하로 낮았다.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그림 3-162〉 총 폐기물 재활용률(구별)

3. 에너지

1) 요약 및 정책 제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서 반등,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감소

서울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25,719toe이며,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폐기물 에너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21년에는 23.5%로 줄어들었다.⁷⁾ 연료전지와 바이오 에너지가 각각 28.7%, 25.1%로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2,894천 톤 CO₂eq.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이 90%로 가장 크며, 폐기물(6.9%),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3.2%) 순이다.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8년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4.33톤 CO₂eq./인을 기록하였다.

2050 탄소배출 중립과 시민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물과 교통부문 에너지 전환 및 수요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시는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2021년 1월 탄소배출 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1월에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2026)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0% 감축하고, 이를 위해 총 1천만 톤 CO₂eq.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노후건물 100만 호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10% 보급목표 등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확대를 위해 2021년 공공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규모 민간건물 100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확산을 위해 2023년부터 10만m² 이상 비주거 건물, 1,000세대 이상 비주거 건물에 대해 제로에

⁷⁾ 폐기물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19.10.1)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은 제외됨.

너지건물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행거리가 긴 택시 등 상용 차량의 전환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후예산제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년 4월)에 따라 서울시 역시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을 새롭게 수립 중이다. 팬데믹 경기침체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지만, 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서울시 건물과 교통 부문에 대한 보다 과감한 예산투자와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민의 50~60%가 이상기온과 폭우/폭설로 인한 기후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체감, 기후 위기 취약 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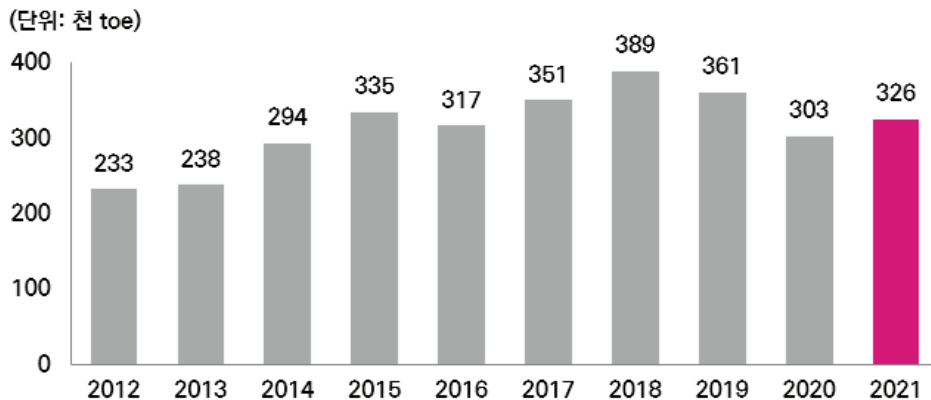
2022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기후 위기 체감도는 10점 만점에 6.1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상기온(폭염/한파 등)’과 ‘폭우와 폭설’에 대한 심각성은 각각 6.53점과 6.15점으로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 강서구,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에서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기후 위기가 7점대로 높았으며, 영등포구, 용산구, 노원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에서는 5점대로 낮았다. 또한 폭우 및 폭설에 대한 체감도는 도봉구, 중구, 마포구, 강서구, 강북구에서 6.84~7.08점대로 높고, 영등포구, 노원구, 용산구, 중랑구, 금천구, 양천구, 은평구에서 4~5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2018년 폭염과 2022년 폭우처럼 서울시의 극한 기후 위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이상기온과 폭우에 대한 시민의 기후 위기 체감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을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후 적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에 대한 서울시 방재능력을 강화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하기 힘든 기후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 위기 취약계층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신재생에너지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25,719toe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7.5%(22,645toe)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40.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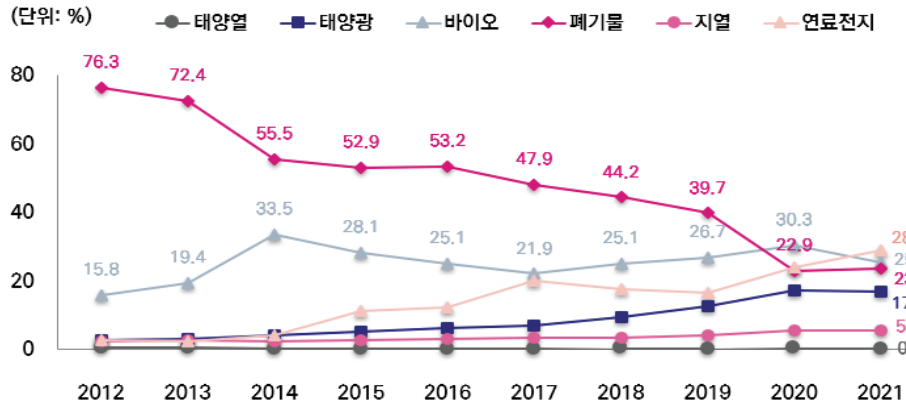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2) 2018~2019년도 데이터는 새로운 집계방식을 소급 적용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그림 3-16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생산량 비율을 살펴보면, 연료전지 에너지가 28.7%(93,510toe)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이오 에너지 25.1%(81,856toe), 폐기물 에너지 23.5%(76,416toe), 태양광 에너지 17.0%(55,298toe), 지열 5.5%(17,900toe) 순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면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 76.3%를 차지하던 것에서 그 비중이 1/3 이하로 축소되었다. 반면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소비율은 2021년에 2.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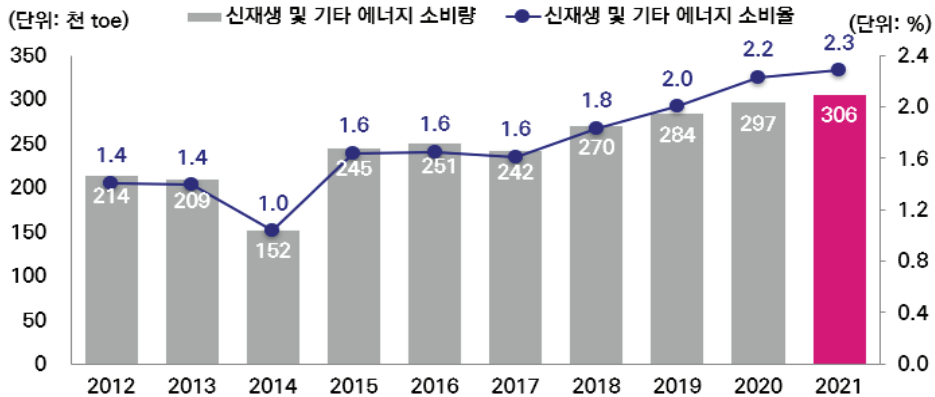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2) 2018-2019년도 데이터는 새로운 집계방식을 소급 적용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그림 3-164〉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종류별)



출처)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그림 3-165〉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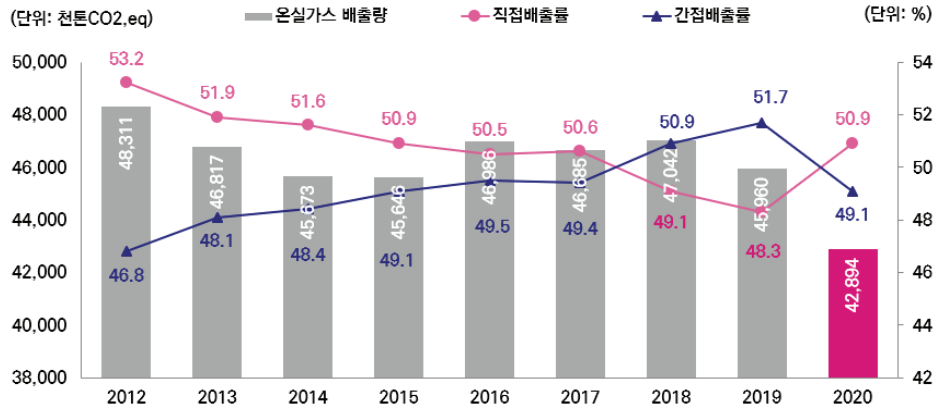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연간 총 42,894천 톤 CO₂eq.으로, 2019년 대비 6.7%(3,066천 톤 CO₂eq.) 감소하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9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이다.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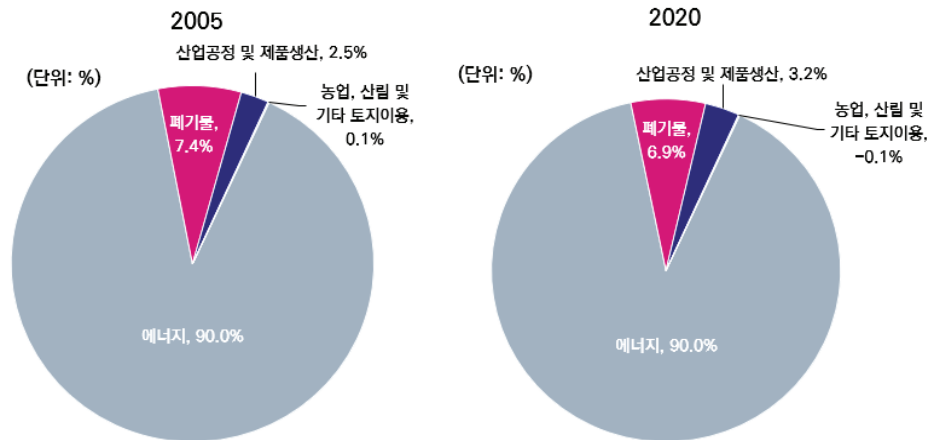
〈그림 3-166〉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 이후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8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직접배출보다는 간접배출 비중을 증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전체적인 배출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2015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소비의 증가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일수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9년에는 2018년도 배출량 대비 1,082천 톤 CO₂eq.(2.3%)이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066천 톤 CO₂eq.(약 6.7%)이 감소하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COVID-19로 인해 에너지 생산, 제조, 산업, 농업 등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0%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6.9%)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3.2%)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020년 에너지 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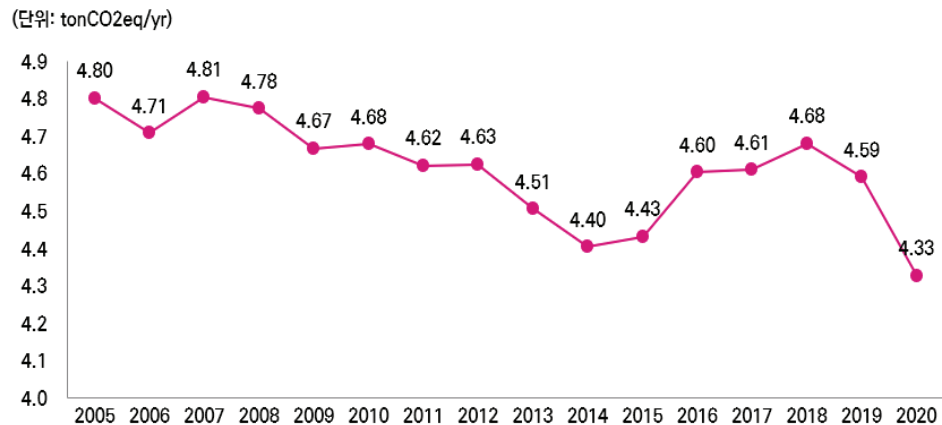
배출량은 5,879천 톤 CO₂,eq(13.2%) 감소하였고, 폐기물 부문은 700천 톤 CO₂,eq(19.1%)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문의 배출량은 156천 톤 CO₂,eq(12.7%) 증가하였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은 2005년 대비 130천 톤 CO₂,eq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림 3-167〉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아울러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이후 연간 4.6톤 CO₂eq.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4.33톤 CO₂eq.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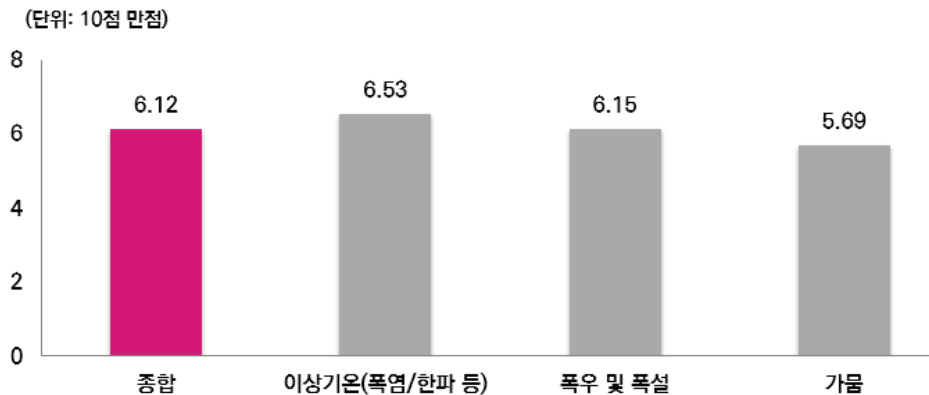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68〉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22년에 10점 만점에 6.12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이상기온(폭염/한파 등)’에 대한 심각성이 6.53점으로 가장 높았고, ‘폭우와 폭설’에 대한 심각성도 6.15점으로 높았다. 반면에 ‘가뭄’에 대한 심각성은 5.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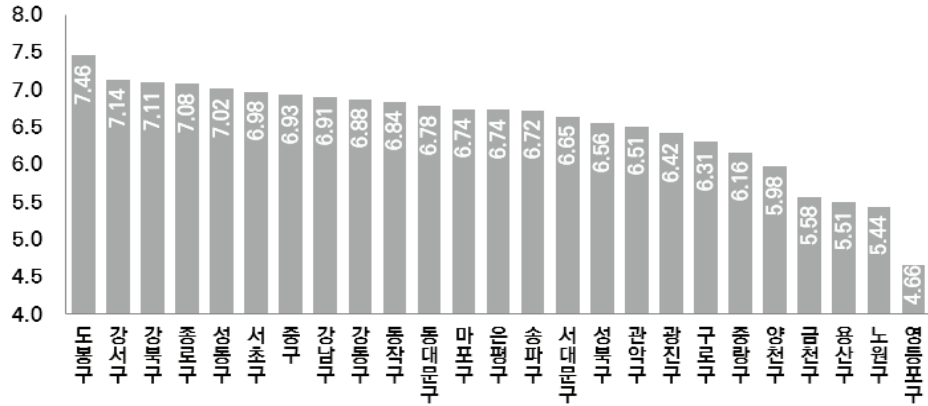
〈그림 3-169〉 기후 위기 체감 정도

자치구별로는 도봉구(7.46점), 강서구(7.14점), 강북구(7.11점), 종로구(7.08점), 성동구(7.02점)에서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였으며, 영등포구(4.66점), 노원구(5.44점), 용산구(5.51점), 금천구(5.58점), 양천구(5.98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 체감도가 낮았다.

폭우 및 폭설에 대한 체감도는 도봉구(7.08점), 중구(6.99점), 마포구(6.94점), 강서구(6.89점), 강북구(6.84점)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4.50점), 노원구(4.81점), 용산구(5.05점), 중랑구(5.48점)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상기온과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심각성은 도봉구, 강서구,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에서 7점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 노원구, 용산구, 금천구, 양천구에서 5점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봉구가 이상기온과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심각성이 가장 높았고(각각 7.49점, 7.08점), 영등포구(각각 4.66점, 4.50점)와 노원구(각각 5.44점, 4.81점)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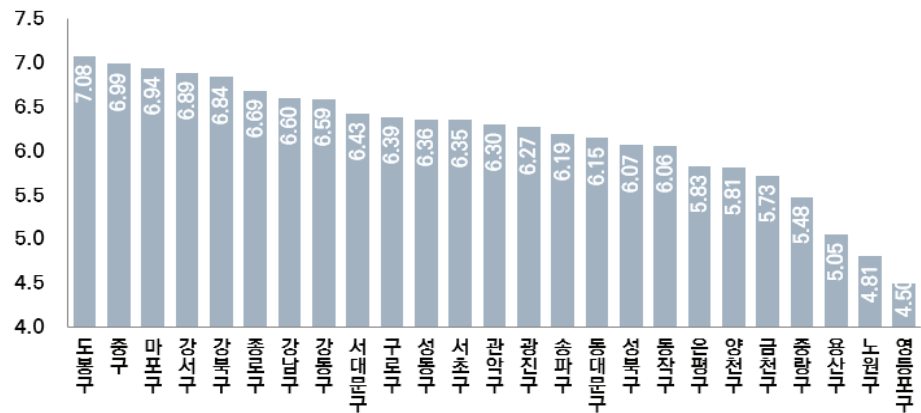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170〉 지역별 이상기온(폭염/한파 등) 체감 정도

(단위: 10점 만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171〉 지역별 폭우 및 폭설 체감 정도

제7절 교통

1. 교통인프라

1) 요약 및 정책 제언

교통인프라의 친환경화로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 중

서울시는 2014년 이후 모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보급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친환경버스는 662대이며, 누적대수는 7,363대로 나타났다. 2017년까지는 모든 친환경버스가 천연가스(CNG)버스로 운영되었지만, 2018년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며 천연가스(CNG)버스의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전기(수소)버스 30대(0.4%)로 시작하여 2022년에는 누적대수가 936(12.7%)대로 최근 5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버스뿐만 아니라 대체연료차량의 보급률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 대체연료차량의 증가의 주 요인은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량의 증가이다. 하이브리드차량은 2013년 20,778대에서 2022년 169,759대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량은 2013년 475대에서 2022년에 59,327대까지 증가하였다. 수소차량 또한 2015년 1대에서 2022년에 2,914대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충전소도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2013년 10개에 불과하였던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에 총 5,707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957개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의 교통인프라 친환경화는 2013년 무렵을 시작으로 서서히 이루어져 2022년을 기준으로 대체연료차량 보급률은 1.1%에서 7.5%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기(수소)버스의 보급률 또한 2018년 0.4%에서 2022년에 12.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증가추세는 서울시 교통인프라의 친환경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한 저상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제공

저상버스 운행은 도시철도의 자동이동수단 설치와 함께 누구에게나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는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상버스 누적 운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013년 33.8%에서 2022년

70.5%로 증가하였다.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저상버스 대수가 해당년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도시철도 및 버스의 인프라 개선은 정체 상태

2022년 서울시 도시철도 총연장은 357.4km로 전년 대비 2.5km 감소하였다. 도시철도 총연장은 2013년 327.1km에 비하면 30.3km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 353.0km를 달성한 이후로 총연장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역시 2022년 버스전용차로 총연장은 214.5km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도시철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증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장거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도시철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연장 증가는 정체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꾸준한 도시철도 및 버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중장거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증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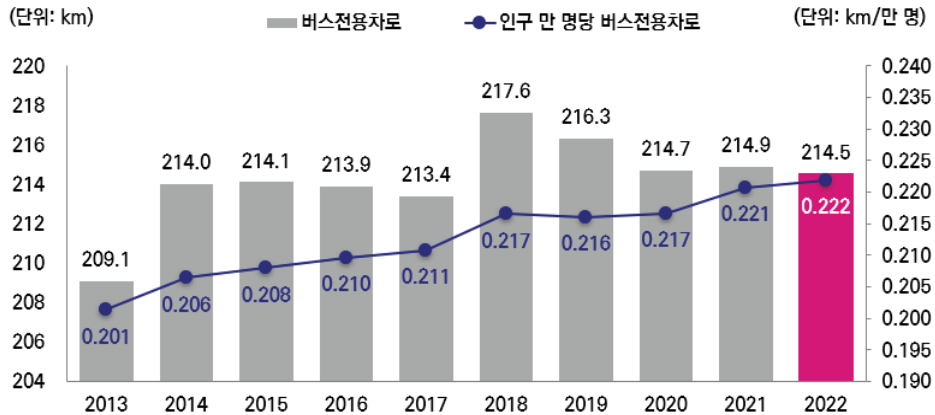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 수와 운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통행 공간 확보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22년에 자전거 도로율은 15.8%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2022년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보행자점용도로가 871.7km로 가장 길며, 자전거우선도로(190.6km), 자전거전용도로(179.8km), 자전거전용차로(73.9km)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한 자전거 통행 환경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가 중요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013년 78.1km에서 2022년 179.8km, 자전거 전용차로는 52.9km에서 73.9km까지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버스전용차로 연장

서울시 교통운영과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버스전용차로 총연장은 214.5km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시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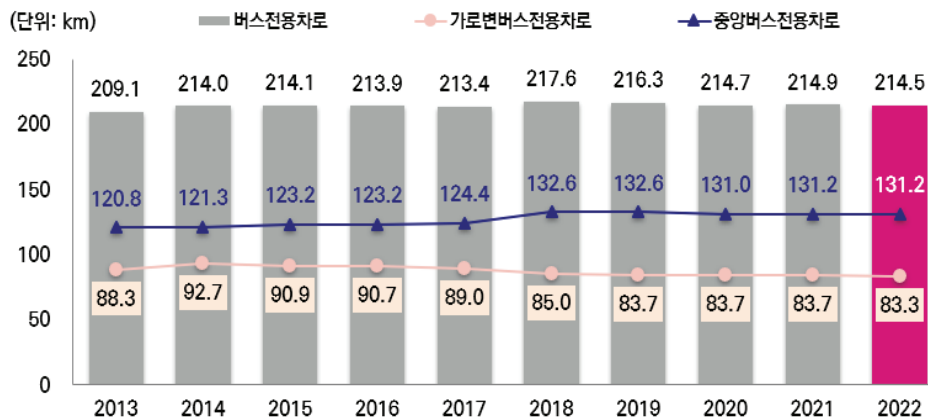
차로 연장은 2013년(0.201km/만 명)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0.222km/만 명을 기록하였다.



출처)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72〉 버스전용차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인 반면,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2014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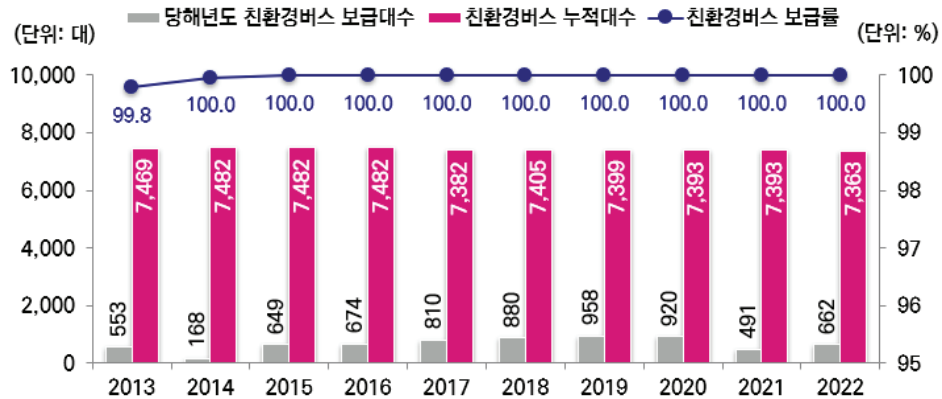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그림 3-173〉 버스전용차로 연장(유형별)

•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서울시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100%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친환경버스 도입대수는 662대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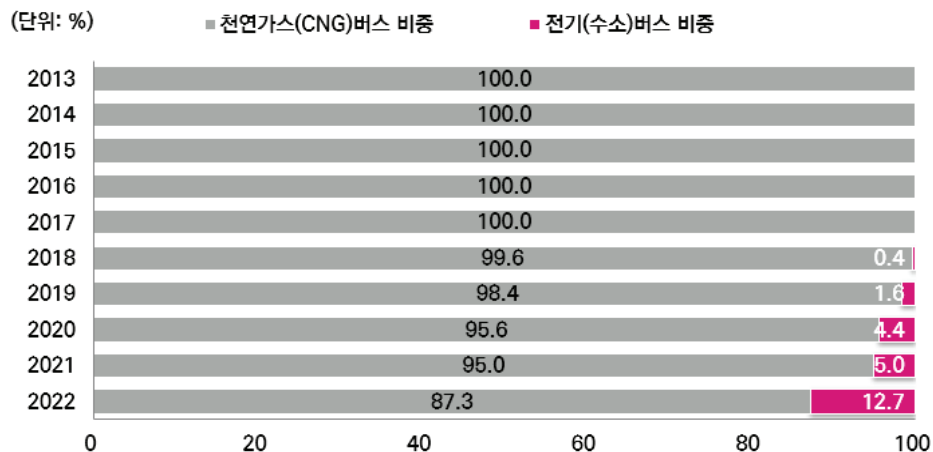
누적대수는 7,363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는 171대 증가하였지만, 누적대수는 30대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그림 3-174〉 친환경버스 도입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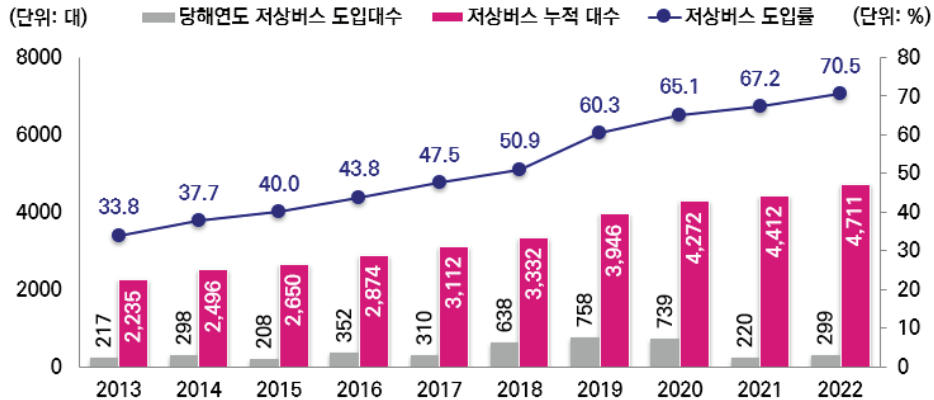
친환경버스 중 천연가스(CNG)버스는 2022년 누적대수가 6,427대로 전체 버스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수소)버스는 936대로 전체 버스의 12.7%로 조사되었다. 2017년까지 서울의 버스는 100% 천연가스(CNG)버스로 운행되었으나, 2018년에 전기(수소)버스가 도입되면서 그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기(수소)버스는 2018년에 30대(0.4%)가 최초 도입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누적대수가 936대로 최근 5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그림 3-175〉 친환경버스 누적대수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022년에 299대가 도입되었으며, 총 누적 대수는 4,711대로 집계되었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33.8%에서 2022년에 70.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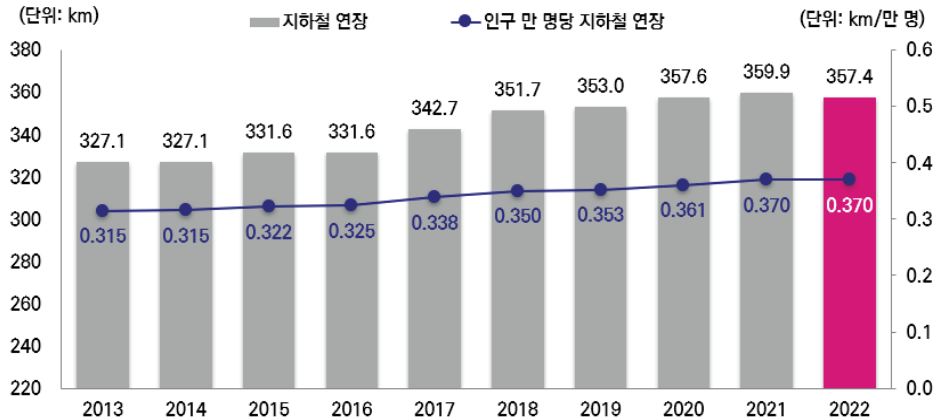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의 경우 일부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또는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변경되는 경우로 인해 누적대수와 연도별 도입대수의 계산 합에서 차이가 존재함
 2) 저상버스 도입률: 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등록대수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그림 3-176〉 저상버스 도입대수

• 도시철도 연장

서울시 도시철도과의 지하철운행현황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서울의 도시철도 총연장은 357.4km로 전년 대비 2.5km 감소하였다. 서울시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은 0.370km/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동일하였다. 서울시 도시철도 총연장은 2013년(327.1km)에 비해 30.3km 증가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은 2013년(0.315km/만 명)에 비해 0.055km/만 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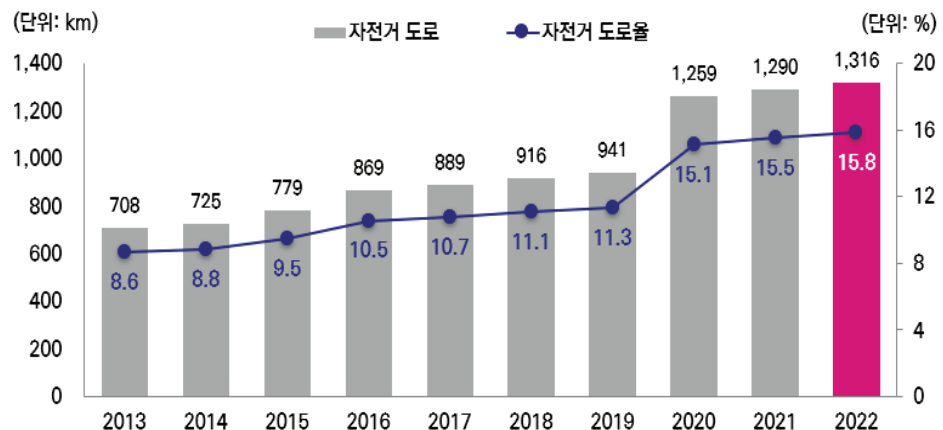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77〉 도시철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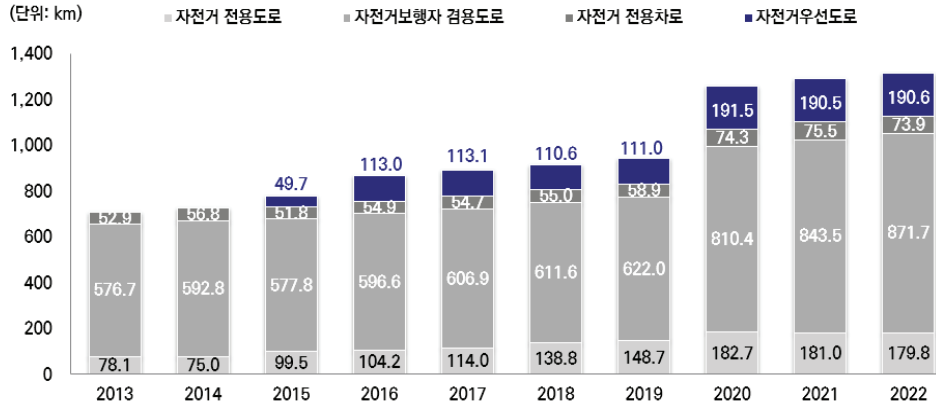
• 자전거 도로율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한다. 서울시 자전거운영과와 도로계획과의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와 도로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자전거도로는 1,316km 길이로, 서울시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 도로율은 1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전거 도로율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며,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2022년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871.7km로 가장 길며, 자전거우선도로(190.6km), 자전거전용도로(179.8km), 자전거전용차로(73.9km)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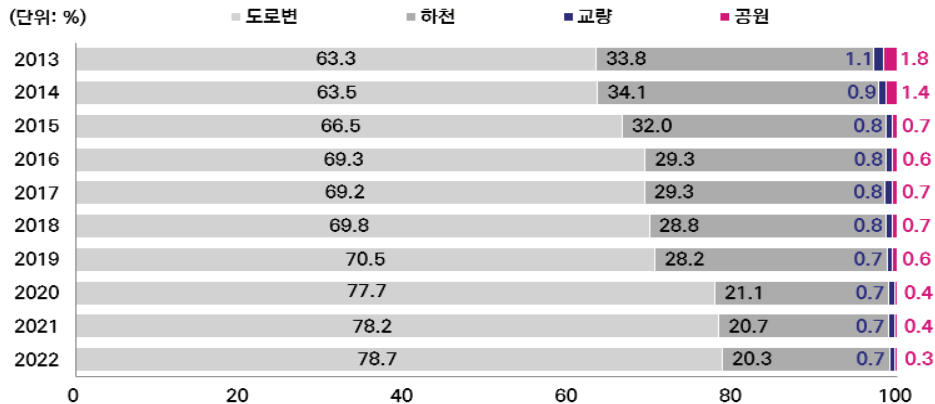
〈그림 3-178〉 자전거 도로율



출처)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그림 3-179〉 자전거도로 현황

장소별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가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78.7%(1,035.1km)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20.3%(267.4km), 교량 0.7%(8.9km), 공원 0.3%(4.6km) 순으로 조성돼 있었다. 2013년 이후 하천과 교량, 그리고 공원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도로변 자전거도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대비 도로변 자전거도로 비율은 15.4%p 증가하였으며, 하천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비율은 13.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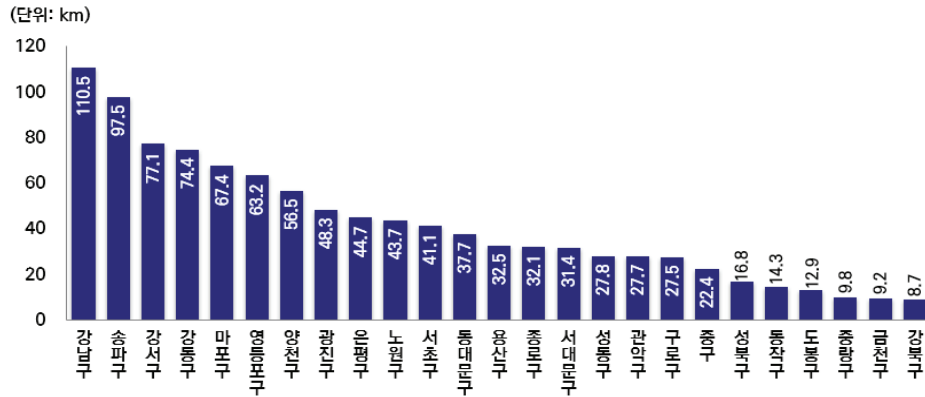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그림 3-180〉 자전거도로 현황(장소별)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10.5km)와 송파구(97.5km)의 자전거도로 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강서구(77.1km), 강동구(74.4km), 마포구(67.4km), 영등포구(63.2km)에서도 자전거도로가 길었다. 반면에 강북구(8.7km), 금천구(9.2km), 중랑구(9.8km), 도

봉구(12.9km), 동작구(14.3km), 성북구(16.8km)의 경우 자전거도로 길이가 20km 미만으로, 자치구 간 자전거도로 격차가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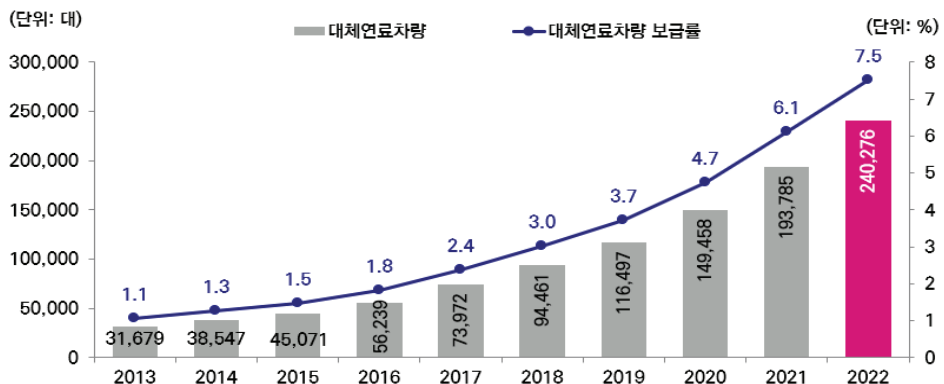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그림 3-181〉 자전거도로 현황(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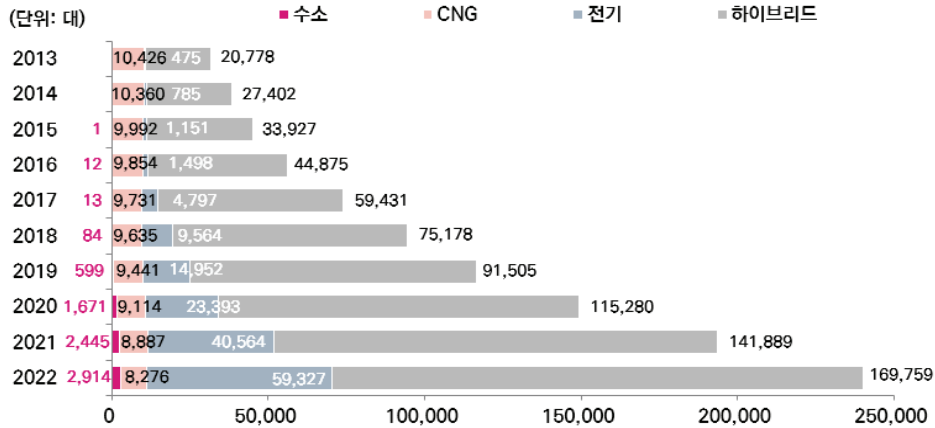
•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서울의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내 대체연료차량은 240,276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연료 차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하이브리드차량은 2013년 20,778대에서 2022년에 169,759대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량은 2013년 475대에서 2022년에 59,327대까지 증가하였다. 수소차량의 경우에도 2015년 1대에서 2022년에 2,914대까지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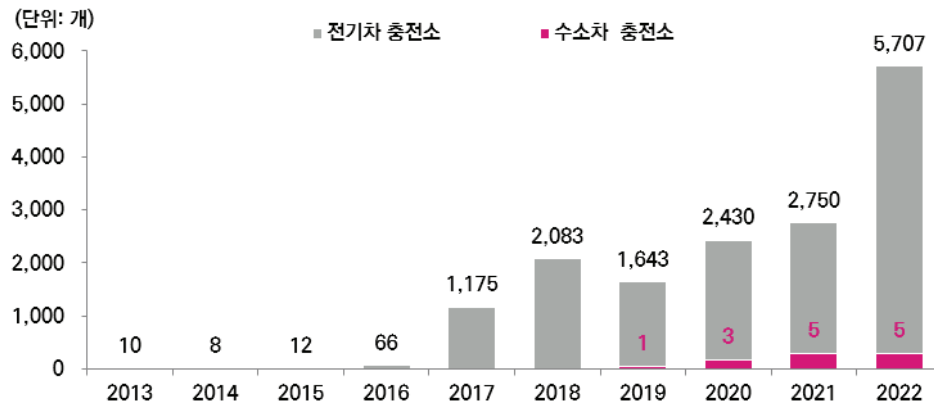
〈그림 3-182〉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그림 3-183〉 대체연료차량 보급대수(연료별)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에 총 5,707개(급속충전기 126개, 완속충전기 1,362개, 콘센트형 4,219개)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2,957개 증가하였다. 서울의 전기차 충전소는 2013년에 10개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 대폭 설치되어 증가추세에 있다. 수소차 충전소 또한 2019년 1개에서 2022년에 5개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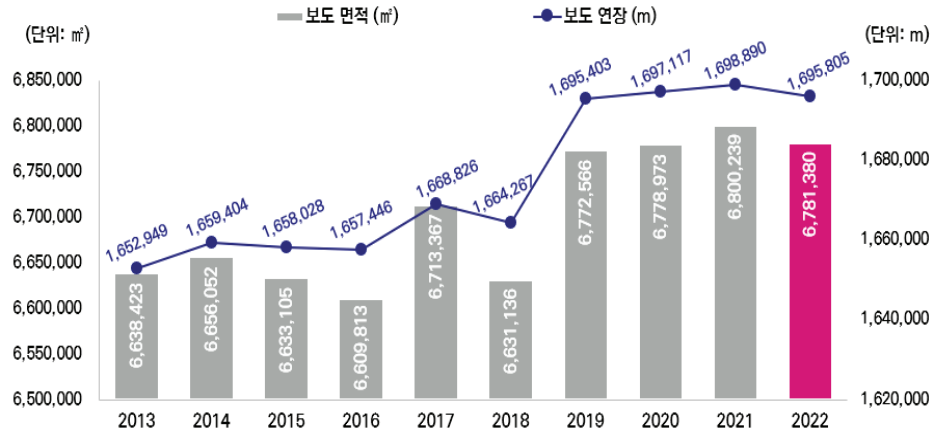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그림 3-184〉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 보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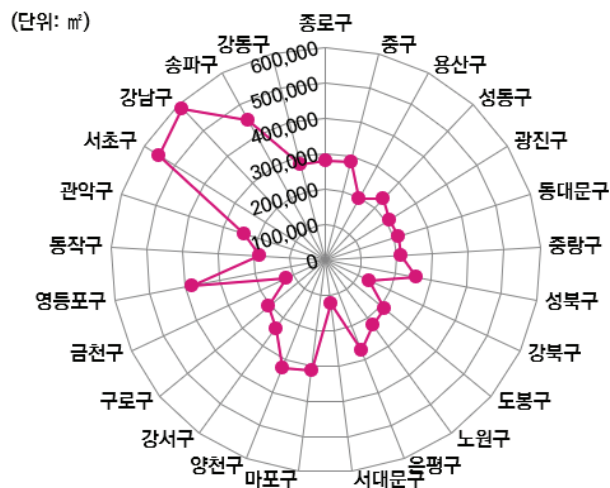
2022년 서울의 보도 면적(특별시도상)은 6,781,380㎡로 전년 대비 18,859㎡ 감소하였으며, 10년 전 대비 142,9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그림 3-185〉 보도 면적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85,323㎡)와 서초구(551,867㎡), 송파구(447,584㎡)의 보도 면적이 넓은 반면, 금천구(119,374㎡), 서대문구(122,295㎡), 강북구(134,678㎡)의 보도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강서구(2,775㎡)와 송파구(1,890㎡)의 보도 면적이 증가한 데 비해, 강북구(9,257㎡)와 강남구(6,650㎡), 그리고 구로구(4,470㎡)와 도봉구(1,879㎡)에서는 보도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2022

〈그림 3-186〉 보도 면적(구별)

2. 교통서비스

1) 요약 및 정책 제언

코로나19 종식으로 대중교통의 수요는 회복 중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던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객 수가 서서히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1,045만 명/일에 달했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2020년 777만 명/일까지 감소했지만, 이듬해 2021년 778만 명/일로 소폭 증가하더니 2022년은 856만 명/일로 증가하였다.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2022년 지하철 이용객 수는 429만 명(50.1%), 버스 이용객 수는 428만 명(49.9%)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년 대비 지하철 이용자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버스 이용자 수는 감소하였다.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그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이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PM(Personal Mobility)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의 증가, 수요대응형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등장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버스와 지하철 만족도는 증가했지만, 택시의 만족도는 하락

2022년 서울시민의 교통이용수단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21점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지하철(7.41점), 버스(7.27점), 시외버스/고속버스(5.89점), 택시(5.7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전년 대비 0.03점 상승한 반면, 시외버스/고속버스와 택시 이용 만족도는 하락하였다. 택시 이용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는 택시 요금이 인상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기존 대비 26.3% 인상되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 대비 서울시민의 교통이용수단 종합 만족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릉이 이용량 향상으로 녹색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연간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이용 추이와는 반대로 코로나19를 거치며 그 이용량이 급증하였다. 서울시민의 공공자전거 이용량은 2019년

1,907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 4,095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3,205만 건 대비 27.8%, 최초 시범운영 20만 건(2011년 기준) 대비 204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정기권 이용 비율을 보면 2020년 74.8%(1,744만 건), 2021년 77.9%(2,498만 건), 2022년 80.4%(3,291만 건)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정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자전거 파릉이가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파릉이 이용률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등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민 통근·통학 시간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서울시민들의 통근·통학 지역을 살펴보면 ‘다른 구’(39.3%)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35.0%), ‘현재 살고 있는 동 내’(20.3%), ‘다른 시도’(5.4%)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3.2분으로 조사되었는데 30분~1시간 미만 소요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 소요가 40.4%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1시간~1시간 30분 미만 소요가 13.1%, 1시간 30분~2시간 미만 소요가 1.1%, 2시간 이상 소요가 0.2%로 조사되었다. 2022년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전년 대비 4.3분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OECD 평균(28분)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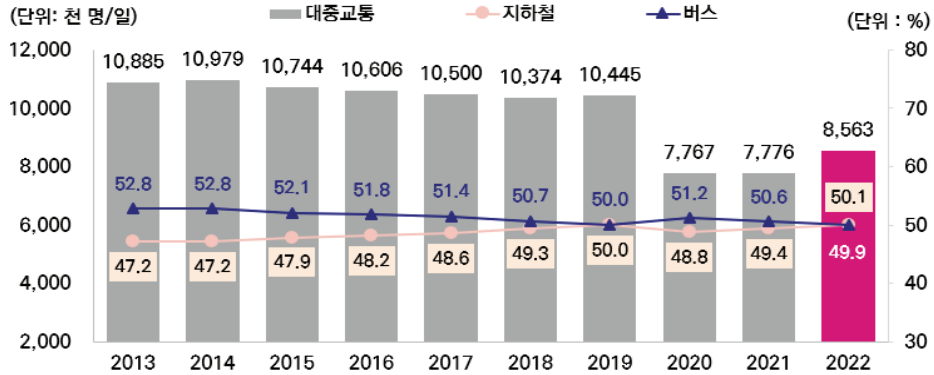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수단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근·통학하는 청년인구가 많이 거주하며 거리 대비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긴 지역에 대해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배차간격을 조절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통근·통학 시간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지표 설명

• 대중교통 이용객 수

서울시 도시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2년에 856만 3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일 평균 79만 명 증가하였으며, 2013년(1,089만 명) 대비 232만여 명이 감소하였

다.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2022년 지하철 이용객 수는 429만 명(50.1%), 버스 이용객 수는 428만 명(49.9%)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년 대비 지하철 이용자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버스 이용자 수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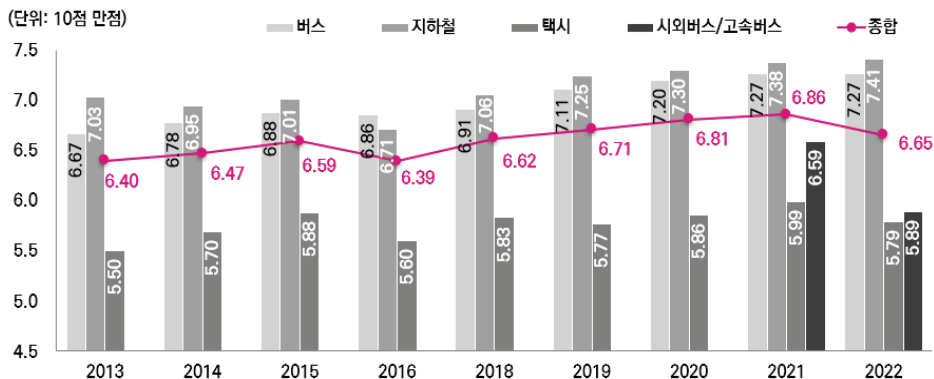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그림 3-187〉 대중교통 이용객 수

•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교통이용수단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21점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지하철(7.41점), 버스(7.27점), 시외버스/고속버스(5.89점), 택시(5.7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전년 대비 0.03점 상승한 반면, 시외버스/고속버스와 택시 이용 만족도는 하락하였다(각각 0.70점, 0.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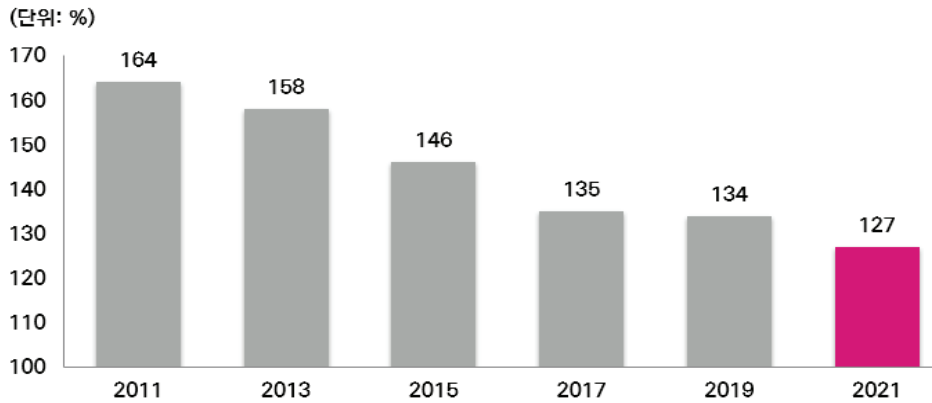
주) 2017년 비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88〉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 지하철 최고혼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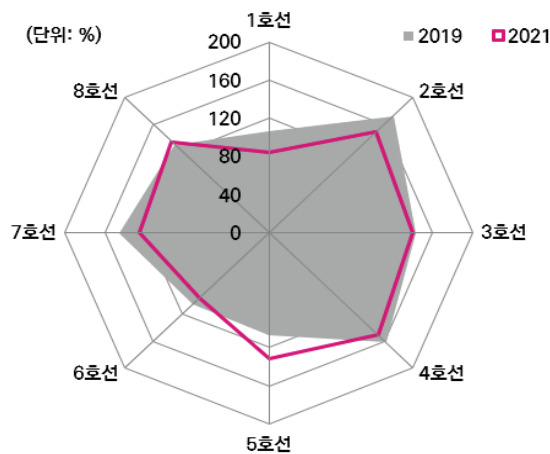
서울시 지하철 최고혼잡도는 최고 혼잡구간의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인원을 산출한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지하철 최고혼잡도(1호선~8호선)는 127%로 2019년 대비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2005년부터 2년 주기 조사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1~8호선)

〈그림 3-189〉 지하철 최고혼잡도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1~8호선)

〈그림 3-190〉 지하철 최고혼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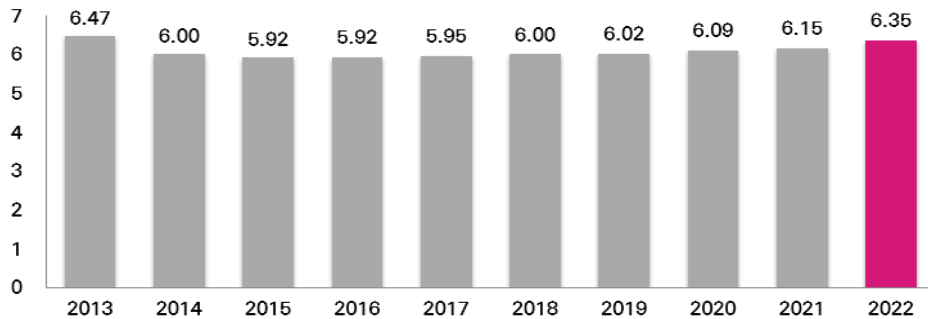
지하철 호선별 혼잡도는 4호선이 151%로 가장 혼잡하였으며, 그다음으로 2호선(149%), 3호선(141%), 8호선(134%), 5호선(132%) 순이었다. 9호선 급행열차의 경우 급행열차(135%)와 일반열차(75%)의 최고혼잡도는 60%p 차이를 보였다. 우이 신

설도시철도는 최고혼잡도가 131%로 2019년 대비 크게 감소(30%p)하였으나, 여전히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그 외 2호선과 1호선의 최고혼잡도도 크게 감소(각각 24%p, 22%p)하였다. 그러나 5호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잡도가 25%p 증가하였으며, 8호선 역시 3%p 증가함으로써 지하철 호선별로 차이를 보였다.

• 보행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2년 서울의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20점 증가하였다.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가 6.79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도심 보행환경 만족도는 6.48점, 야간보행 만족도는 5.78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0.32점),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는 0.18점, 야간보행 만족도는 0.10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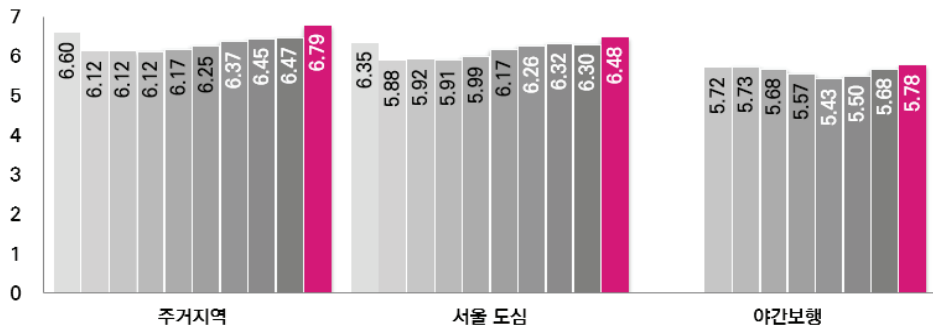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1〉 보행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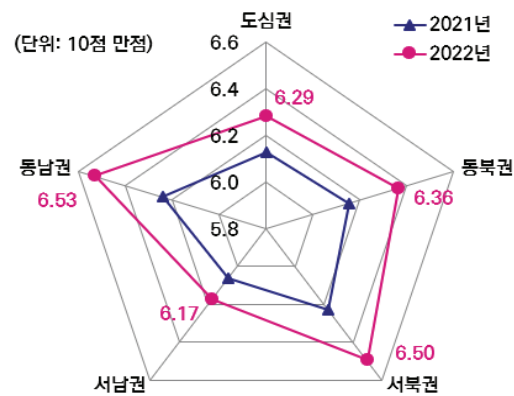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2〉 항목별 보행환경 만족도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가 6.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6.50점), 동북권(6.36점), 도심권(6.29점), 서남권(6.1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도에 비해 모든 권역에서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동남권(0.29점), 서북권(0.27점)과 동북권(0.21점) 순으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3〉 보행환경 만족도(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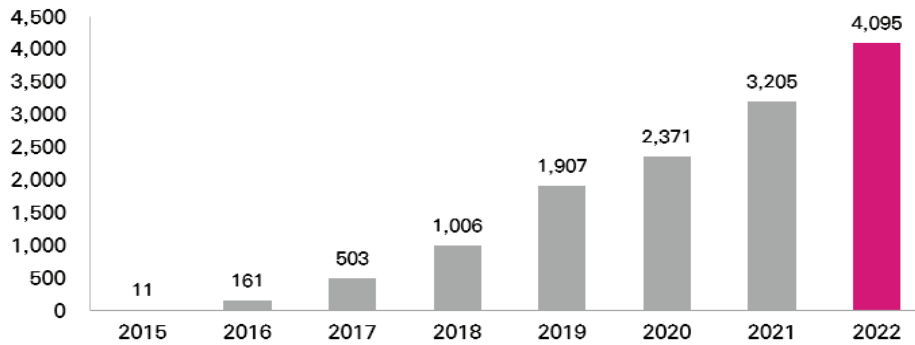
•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 말 ‘서울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상암지구에서 대여소 44개소 자전거 440대로 최초 시범운영 시행 후 2015년 ‘따릉이’ 이름으로 5대 거점(4대문 안,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동)에 대여소 150개소, 자전거 2,000대로 확대·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지속 발전 중인 대표적인 공유정책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간 이용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하여 2022년에 4,095만 건으로 2021년 3,205만 건 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최초 시범운영 20만 건(2011년 기준) 대비 204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정기권 이용 비율을 보면 2020년 74.8%(1,774만 건), 2021년 77.9%(2,498만 건), 2022년 80.4%(3,291만 건)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정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따릉이) 수는 2016년 5,600대에서 2022년 43,50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 역시 2016년 450개소에서 2022년 2,749개소로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공공자전거 수는 7.4%(3,000대) 증가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는 5.7%(149개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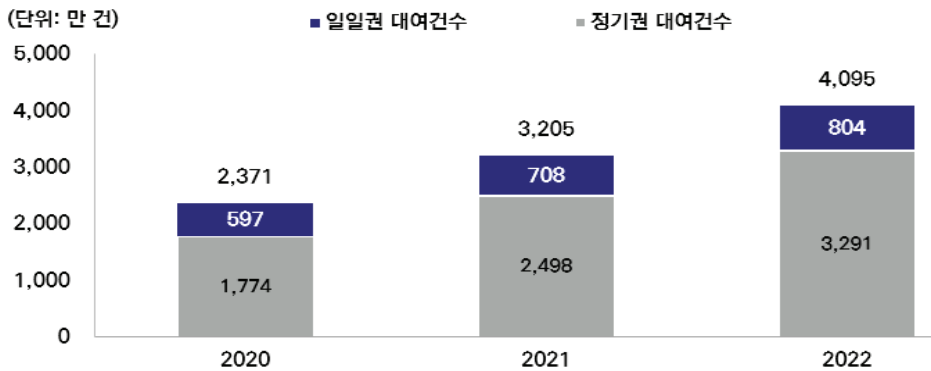
(단위: 만 건)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그림 3-194〉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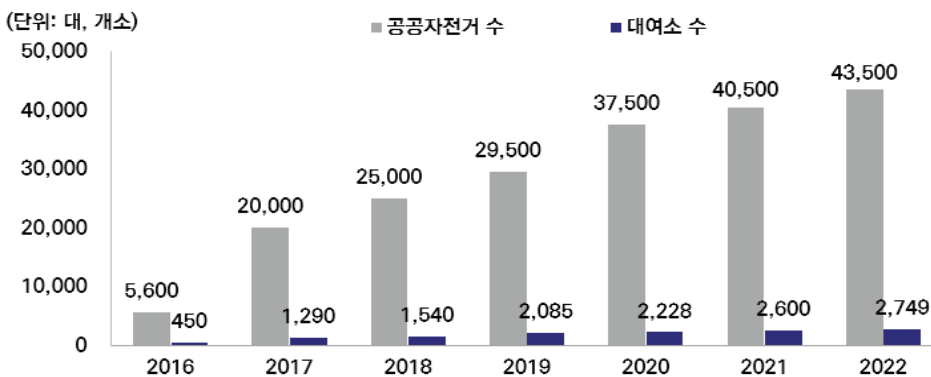
(단위: 만 건)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그림 3-195〉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단위: 대,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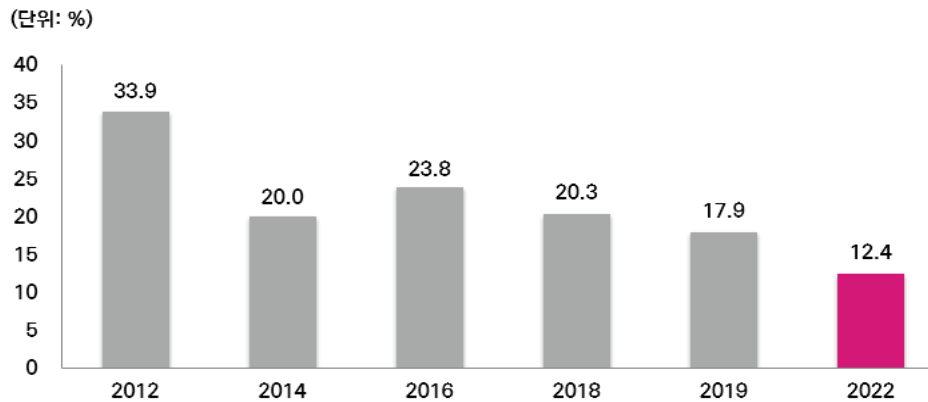
주) 공공자전거 수: 2016년~2019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

〈그림 3-196〉 공공자전거 및 대여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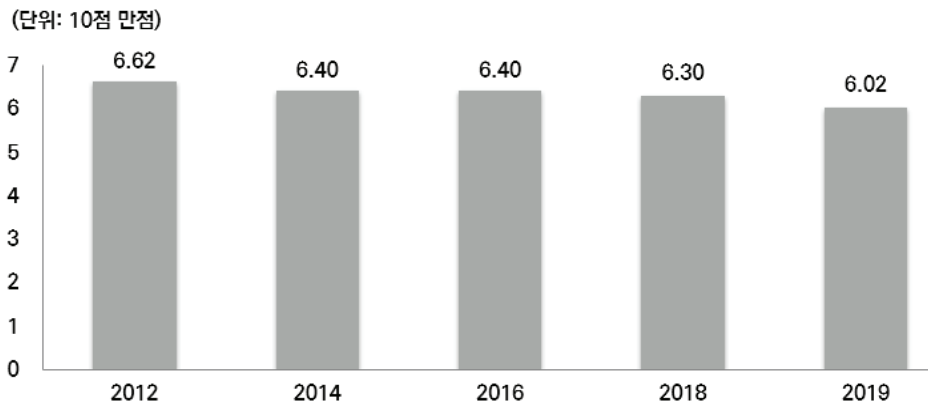
•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이나 레저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개인 소유 자전거, 공공 자전거 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은 12.4%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대비 5.5%p, 2012년 대비 21.5%p 감소하였다.



주) 2012~2018년 격년 조사, 2020~2021년: 비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7〉 자전거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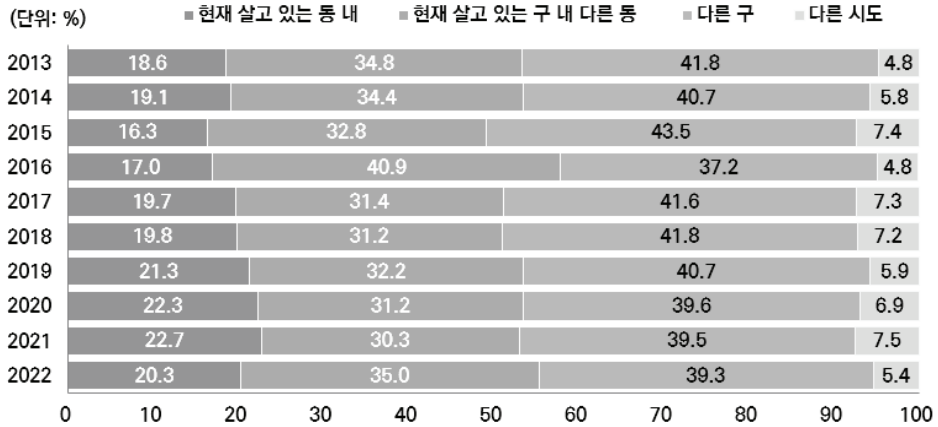


주) 2012~2018년 격년 조사, 2020~2022년: 비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8〉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 통근/통학 소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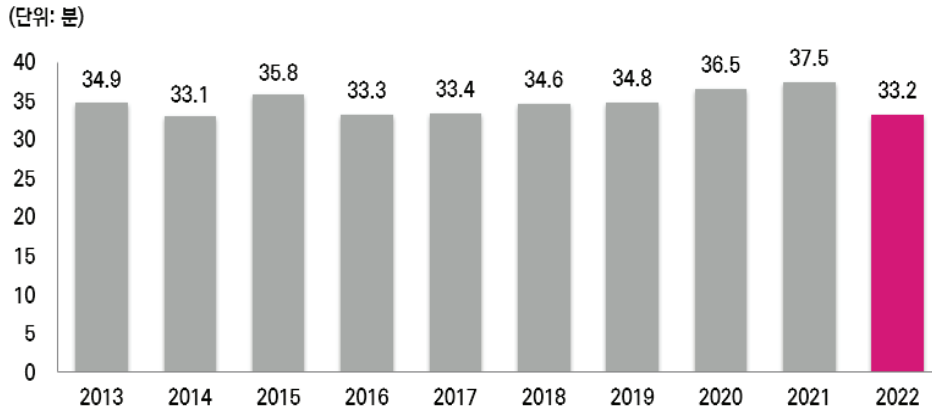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2년에 서울시민의 76%가 통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었으며, 통근/통학 지역은 ‘다른 구’(39.3%),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35.0%), ‘현재 살고 있는 동 내’(20.3%), ‘다른 시도’(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9〉 통근/통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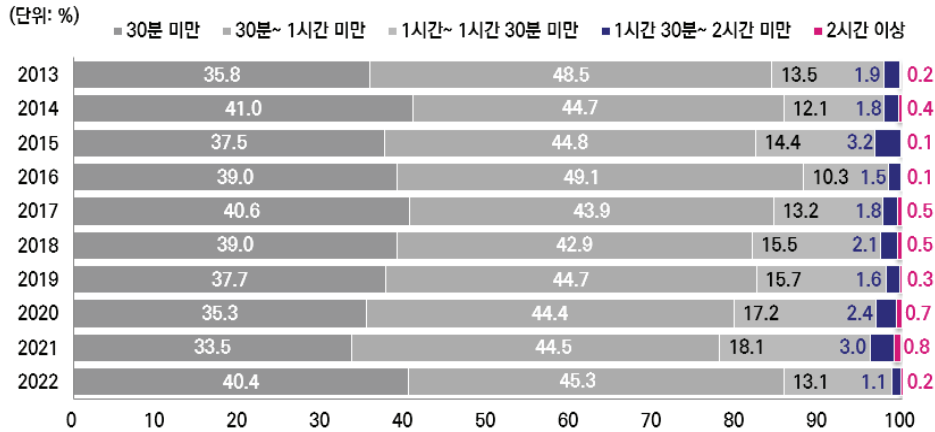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0〉 통근/통학 평균 소요 시간

2022년 서울시민의 통근/통학 평균 소요 시간은 33.2분으로 조사되었다. 30분~1시간 미만 소요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 소요가 40.4%로 그 뒤를 이었

다. 그 외 1시간~1시간 30분 미만 소요가 13.1%, 1시간 30분~2시간 미만 소요가 1.1%, 2시간 이상 소요가 0.2%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의 통근/통학 평균 소요 시간은 전년 대비 4.3분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1시간~1시간 30분 소요 응답자 비율이 5.0%p 감소하고, 30분 미만 소요 응답자 비율이 6.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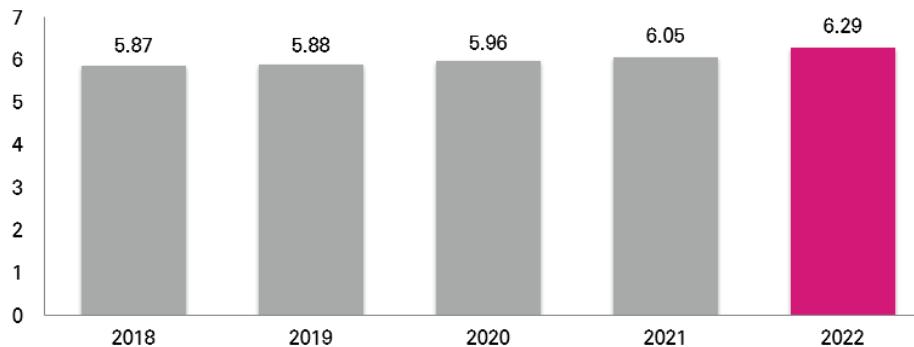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1〉 통근/통학 소요 시간

한편 서울시민의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는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는 2018년 5.87점에서 2022년에 6.29점으로 최근 5년간 0.42점 증가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2〉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제8절 문화와 여가

1. 문화활동과 향유

1) 요약 및 정책 제언

엔데믹과 함께 서울시민의 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경향

2022년은 서울시민의 문화활동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해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 2년 이상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에 전면 해제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축제와 공연 및 전시 등의 현장 관람이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 관람률은 2019년 75.0%에서 2020년 66.3%, 2021년 55.7%로 크게 감소하던 것이 2022년에는 63.8%로 반등하였다.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문화관람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전년도에 온라인 관람 횟수가 다른 장르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영화와 운동경기의 관람이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들의 현장 방문 관람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민들의 현장 관람 욕구를 방증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오프라인 문화 활동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활동의 회복 경향과 함께 서울시민의 문화활동 지출액 역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지출액이 124,375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4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연극공연과 대중공연 관람 및 운동경기 관람 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운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음악 및 무용 발표회의 연간 현장 관람횟수가 1.89회(전체 응답자 중 0.04회)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은 서울시민의 일반적인 문화활동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운동경기와 대중공연 관람의 경우 전년 대비 회복된 수준이라고는 하나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이들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OTT 서비스이용의 지속 증가 등 영상매체 중심으로의 시민문화활동에서의 변화 나타나

서울시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료 이용률이 2021년 39.4%에서 2022년 47.8%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시청 빈도와

이용 시간이 매해 증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전자도서 및 오디오북을 포함한 종합독서율은 2019년 79.5%에서 2021년 54.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문화활동이 영상매체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화활동과 문화수요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엔데믹을 계기로 문화활동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팬데믹 발생 이전 시기와 동일한 수준과 유형의 문화활동으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활동의 경험, 융복합 예술 및 다양한 문화소비 콘텐츠의 발달 등이 시민의 문화활동 욕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예술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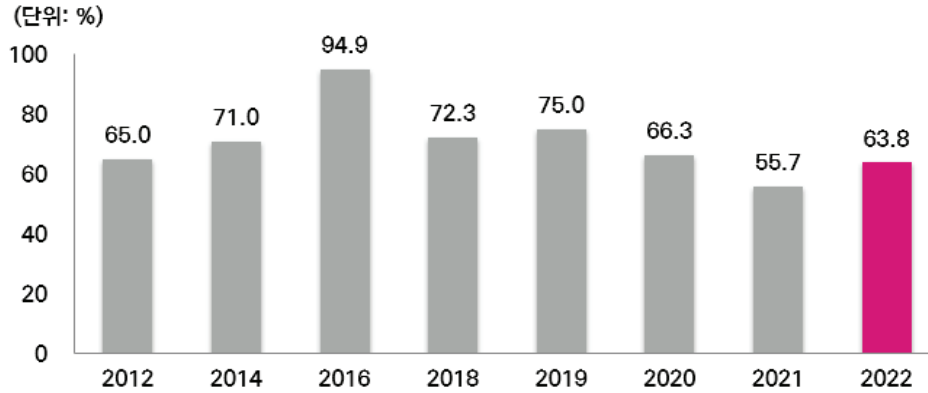
서울의 문화환경 만족도 개선이 필요하며, 자치구 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민의 문화활동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서울시의 문화환경 만족도 역시 5.73점으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문화환경 만족도는 2013년 6.41점 이래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화정책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문화시설 만족도가 6.32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 온 문화인프라 확충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비용 만족도는 4.92점으로 10점 만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서울시민이 문화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환경 만족도의 자치구 간 편차를 볼 수 있으며,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만족도(5.42점)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지표 설명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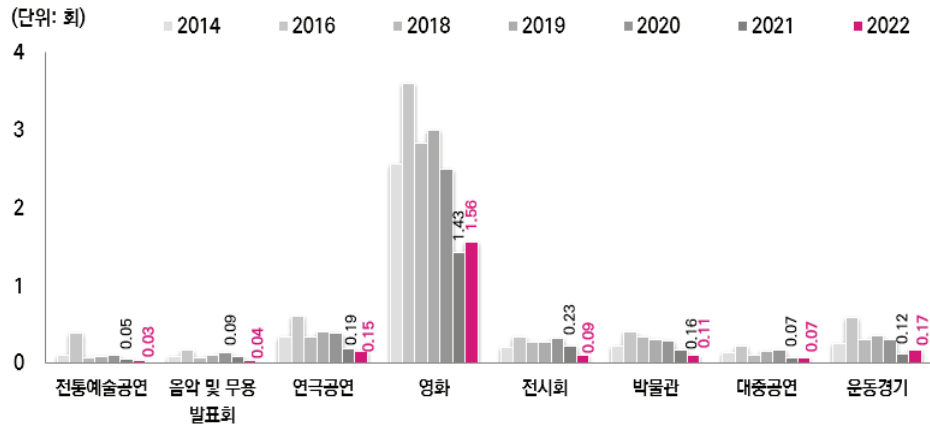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3.8%가 연간 1회 이상 관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전년 대비 8.1%p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크게 줄어든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 1) 2012~2017년 격년 조사
 2) 2020년 이전: 현장 관람률,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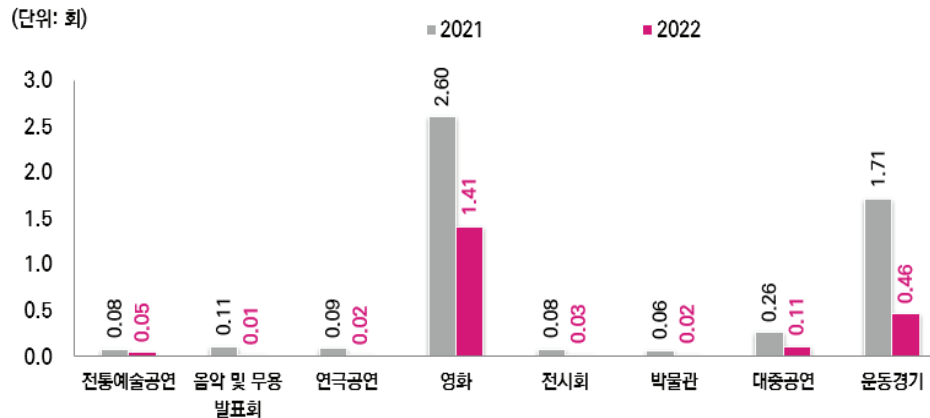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의 현장 관람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영화관람이 평균 1.56회로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경기 관람(0.17회), 연극공연 관람(0.15회), 박물관(0.11회), 전시회(0.09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영화관람(0.13회)과 운동경기 관람(0.05회) 횟수가 증가하고 나머지 현장 관람 횟수는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시회를 찾는 횟수가 가장 많이 감소(0.14회)하였다.



주: 1) 전체 응답자 대상 (관람 경험 없는 사람 포함)
 2)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3) 2021년 이후 온라인 관람 여부 추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4〉 현장 방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일상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는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서울시민들의 온라인을 통한 문화 활동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온라인 영화 관람이 평균 1.41회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경기 0.46회, 대중 공연 0.11회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전년 대비 각각 1.19회, 1.25회, 0.15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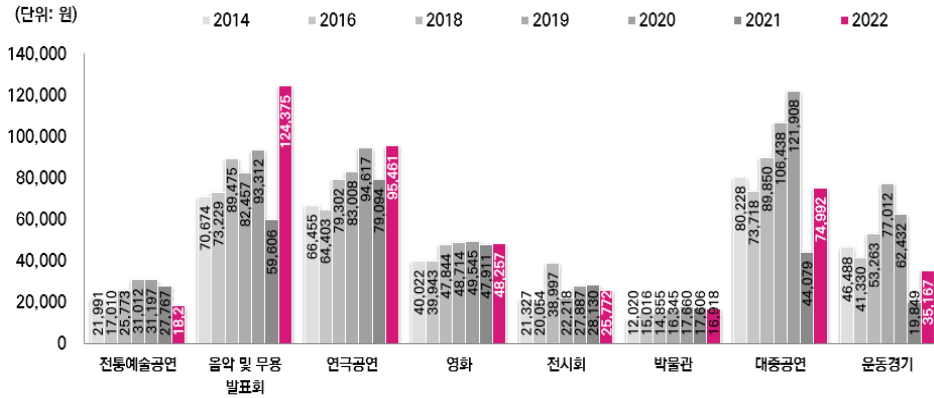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대상 (관람 경험 없는 사람 포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5〉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음악 및 무용발표회(124,375원)에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연극공연(95,461원), 대중공연(74,992원), 영화(48,257원), 운동경기(35,167원), 전시회(25,772원), 전통예술공연(18,292원), 박물관 관람(16,918원) 순으로 지출하였다. 전년 대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였는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운동경기 관람 1.8배, 대중공연 관람 1.7배, 연극공연 관람 1.2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통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관람 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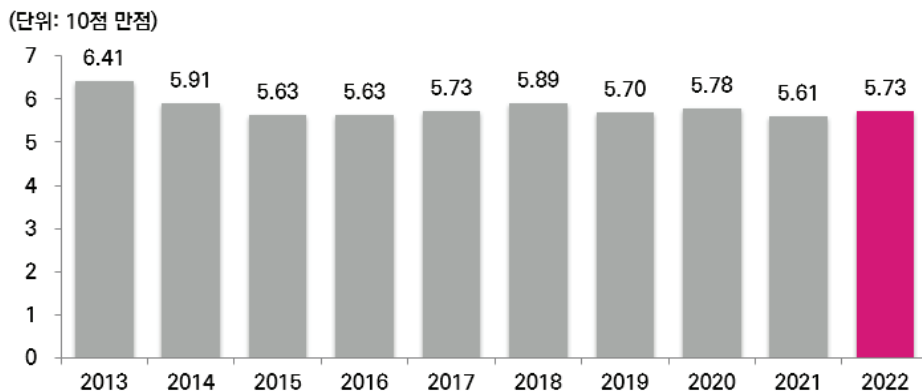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활동 경험 가구원 대상
 2)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3) 2020년 이전: 현장 관람 비용,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 비용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6〉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 문화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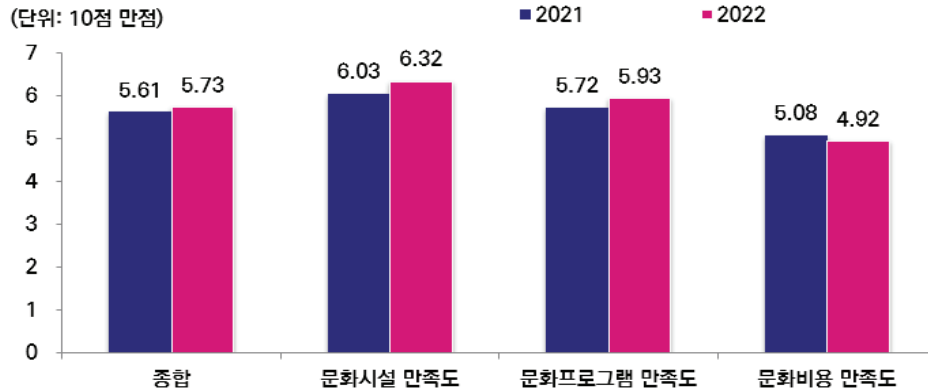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주관적 만족도는 5.73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12점 증가하였다.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2013년 6.41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잠시 반등하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5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주: 1) 2020년 이전: '전반적인 문화환경 만족도' 1개 문항의 값
 2) 2021년 이후: '문화시설 만족도, 문화프로그램 만족도, 문화비용 만족도' 3개 문항의 평균값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7〉 문화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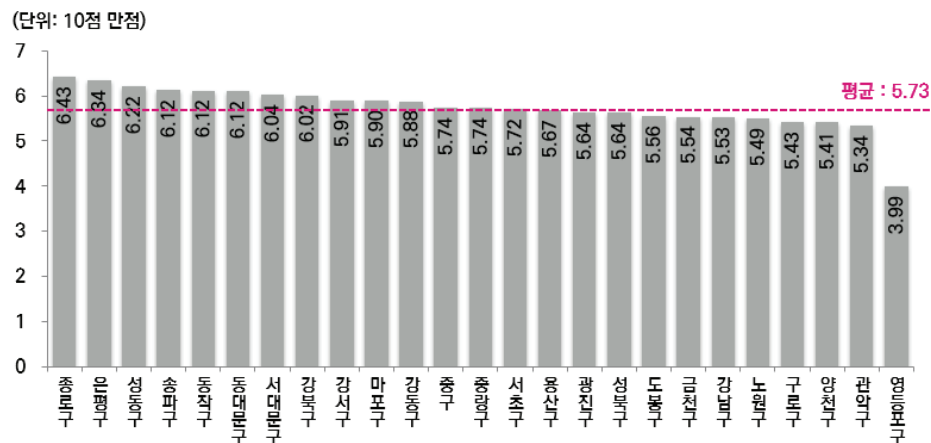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6.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4.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문화시설 만족도와 문화프로그램 만족도는 상승하였지만(각각 0.29점, 0.21점), 문화비용 만족도는 하락하였다(0.16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08〉 영역별 문화환경 만족도

자치구별로는 종로구(6.43점), 은평구(6.34점), 성동구(6.22점), 송파구·동작구·동대문구(6.12점)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3.99점)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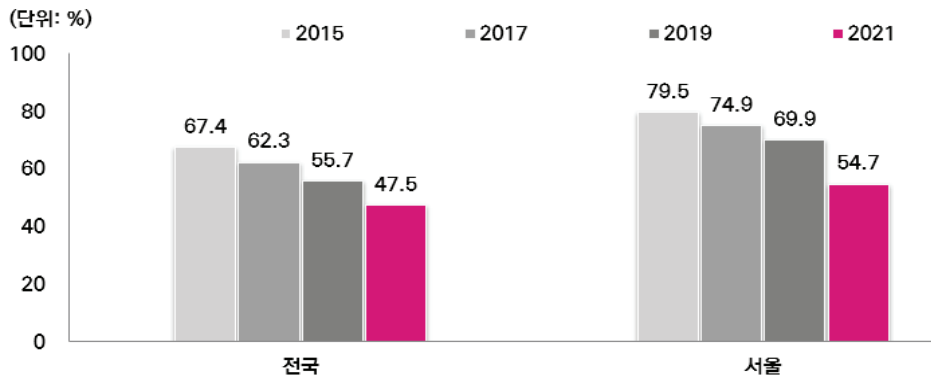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09〉 문화환경 만족도(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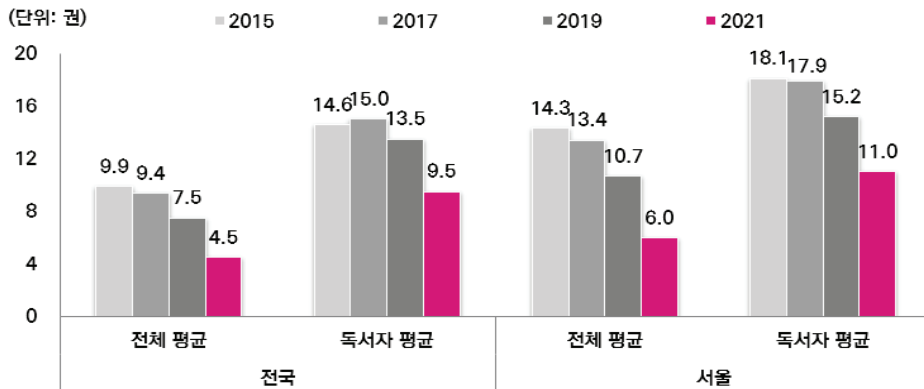
• 종합 독서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종합 독서율은 2021년에 54.7%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79.5%)에 비해 24.8%p 감소하였다. 또한 서울시민의 종합 독서량(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은 2021년에 전체 평균 6.0권, 독서자 평균 11.0권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 격년 조사, 2019년부터 종합 독서율에 '오디오북' 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3-210〉 종합 독서율(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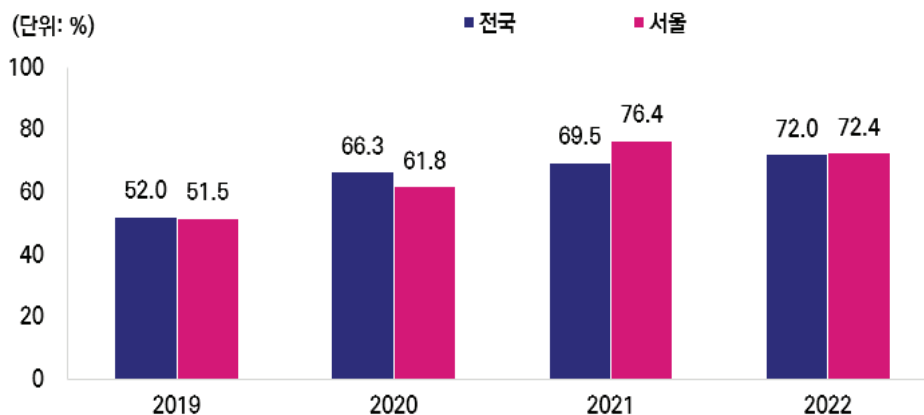
주) 격년 조사, 2019년부터 종합 독서율에 '오디오북' 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3-211〉 종합 독서량(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민의 OTT 서

비스 이용률은 72.4%로 조사되었다. 전국 OTT 서비스 이용률(72.0%)보다는 높은 편이나, 전년 대비 서울시민의 OTT 서비스 이용률은 소폭 감소하였다(4.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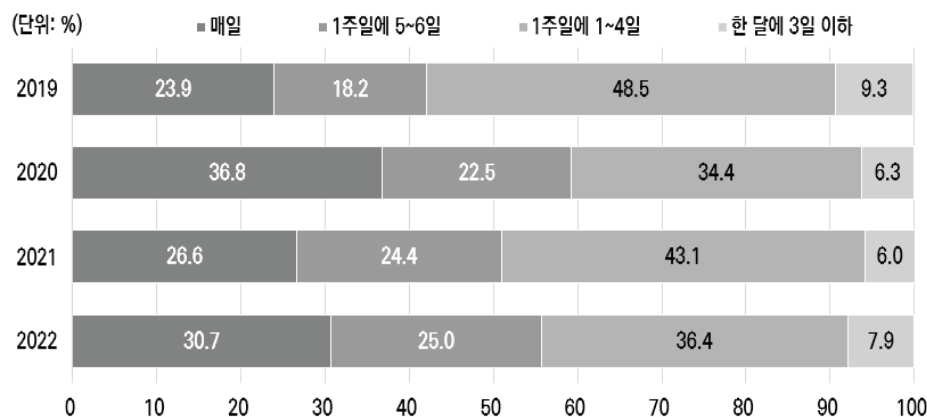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2〉 OTT 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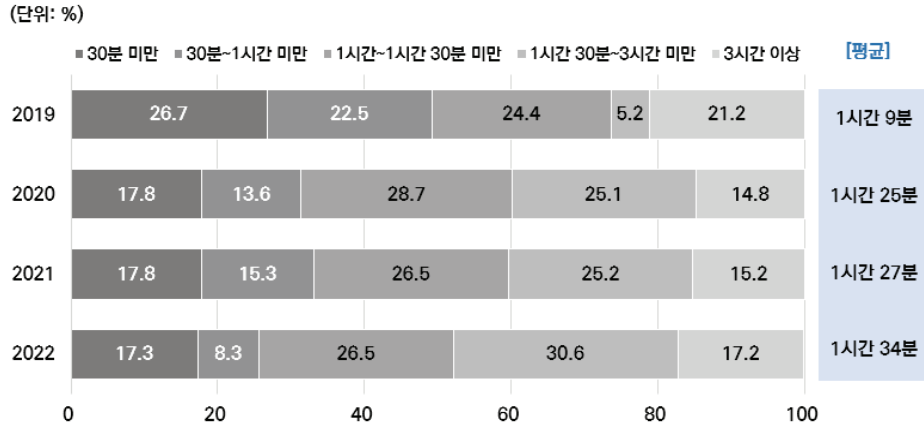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일 주 1회 이상 시청 빈도는 92.1%로 전년(94.1%)보다 2.0%p 감소하였지만, 주 5일 이상 시청 빈도는 55.7%로 전년(51.0%)보다 4.7%p 증가하였다. 또한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1시간 34분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OTT 서비스 시청 빈도와 이용 시간이 매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3〉 OTT 서비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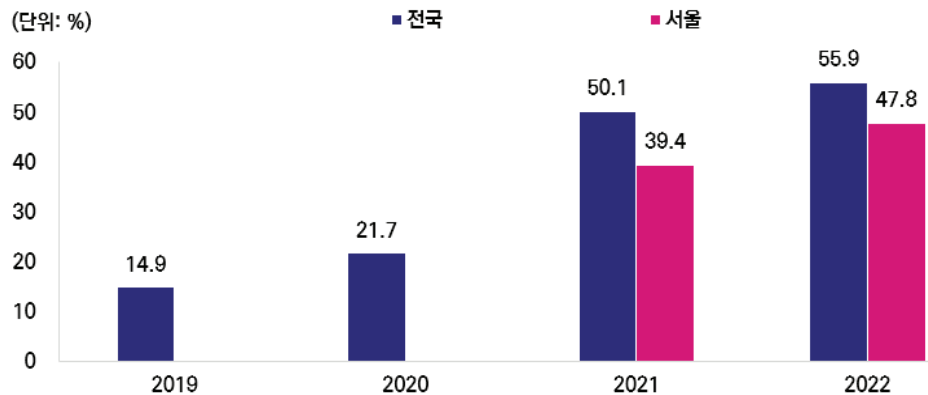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4〉 주말 하루 평균 OTT 서비스 이용 시간

한편 OTT 이용자들의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은 최근 4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은 2019년 14.9%, 2020년 21.7%, 2021년 50.1%, 2022년 55.9%로 증가하였다. 서울 역시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이 2021년 39.4%에서 2022년 47.8%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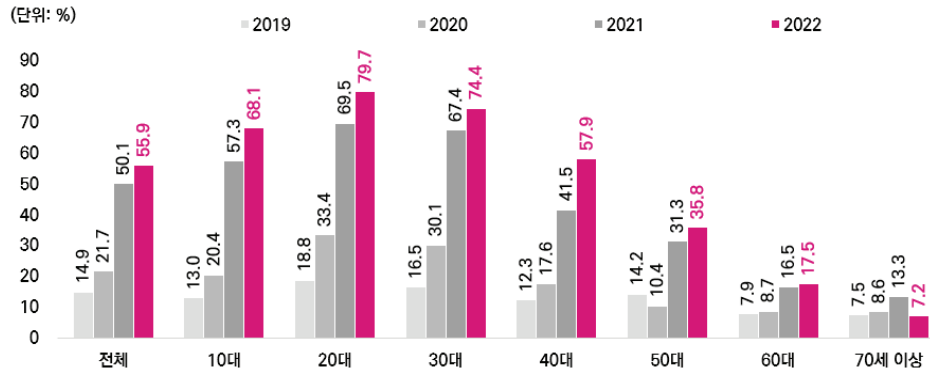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5〉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전국의 연령별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79.7%)~30대(74.4%)에서 유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68.1%), 40대(57.9%), 50대(35.8%), 60대(17.5%), 70세 이상(7.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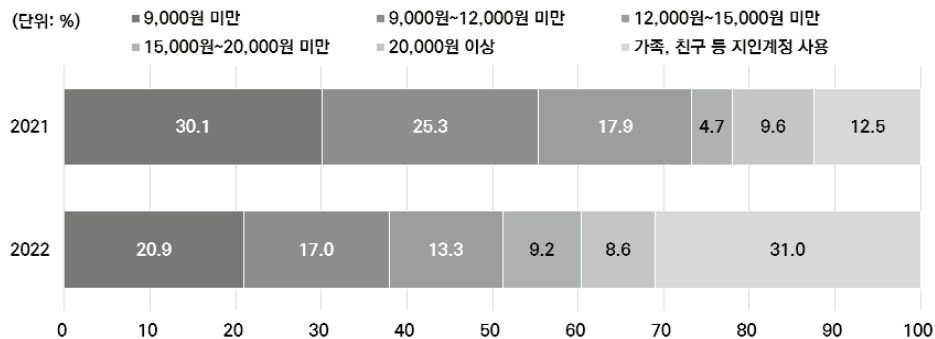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6〉 연령별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전국)

서울의 OTT 서비스 유료 이용자들의 월 이용요금은 9,000원 미만(20.9%)과 9,000원~12,000원 미만(17.0%)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계정 사용률은 31.0%로 조사되었다. 2021년에 비해 15,000원 미만 요금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15,000원~20,000원 요금 이용률은 4.5%p 증가하였으며, 지인계정 이용률은 18.5%p 증가하였다.



주) OTT 서비스 유료 이용자 대상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

〈그림 3-217〉 OTT 서비스 유료 이용 요금

•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

-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아닌 지상파 TV 방송사, 케이블TV 사업자,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방송이나 VOD(다시보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PC나 각종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TV 수상기를 통해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다운로드 받은 영상 파일을 앱이나 프로그램에서 재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음

2. 문화기반

1) 요약 및 정책 제안

예술시장은 회복되고 있으나 스타중심 대형 공연에만 관객이 집중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예술시장은 2021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더욱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규제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됨과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문화예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연 및 전시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아프·프리즈가 5년간 공동개최를 합의하고 동시 오픈함으로써 서울이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크게 받았으며, 새로운 미술시장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젊은 미술 애호가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미술계에 큰 활력이 되었다. 공연시장의 경우도 2022년 해외 공연시장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한국의 공연시장의 공급과 수요 모두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공연을 올린 장르는 클래식이고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한 것은 뮤지컬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 장르에서 나타난 ‘스타’ 중심의 마니아 관객 증가 및 대중적 콘텐츠 기반 공연을 통한 새로운 관객 유입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스타 중심의 대형 공연으로 관객 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공연수요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또한 상존한다. 미술시장 역시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예술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세분화된 관람객을 다각도로 고려한 기획과 마케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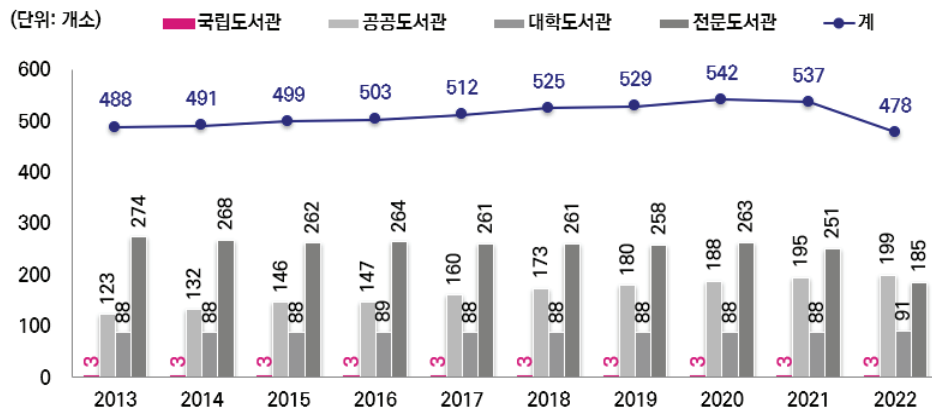
지역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반 문화시설로는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서관이 있다. 많은 문화기반시설들이 확충된 가운데, 특히 공공도서관과 구민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시설의 분포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의 지역 간 편차 완화 문제는 서울시 문화시정이 안고 있는 오래된 숙제이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편차 해소는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의 문화예술시설과 프로그램이 크게 성장하고 시민의 문화활동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이들 지역문화시설들이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신규 시설 건립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들의 기능 전환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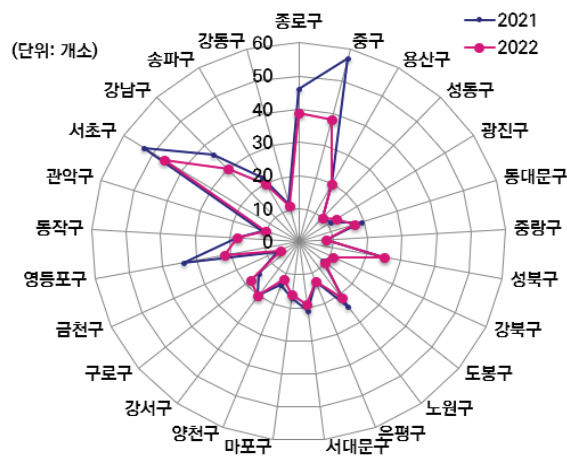
• 도서관 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도서관통계조사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서울시 도서관 수는 2022년에 478개소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도서관 수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전년 대비 전체 도서관 수는 59개 감소하였는데,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각각 7개소 증가한데 반해, 전문도서관이 66개소 감소하였다.



주: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그림 3-218〉 도서관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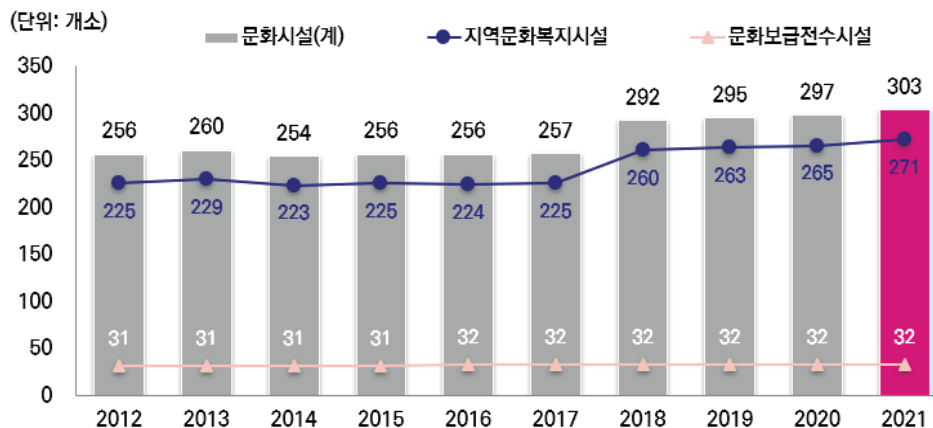
〈그림 3-219〉 도서관 수(구별)

자치구별로는 서초구(46개소), 종로구(39개소), 중구(38개소), 강남구(30개소)에 도서관 수가 많았으며, 금천구(6개소), 중랑구(8개소), 관악구·도봉구·성동구(10개소)에서는 10개 이하로 적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전년 도에 비해 구로구(3개소)와 광진구(2개소)에서 도서관 수가 증가한 반면, 중구(19개소), 영등포구(12개소), 종로구·서초구(7개소) 등에서는 도서관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 **공공도서관**: 공공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4항)
-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수치임
-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
- **전문도서관**: 해당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지역문화시설 수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지역문화시설 수는 전체 303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271개소(89.4%),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은 32개소(10.6%)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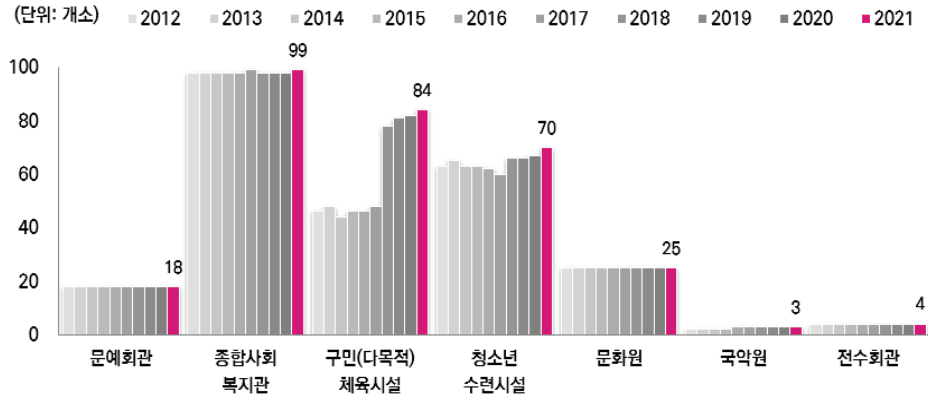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그림 3-220〉 지역문화시설 수

서울의 지역문화시설은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4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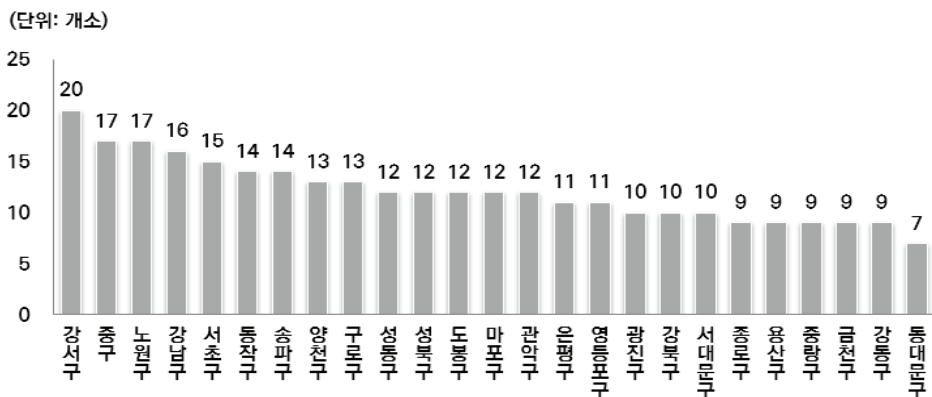
(18.4%) 증가하였다. 문예회관, 문화원, 전수회관 시설 수는 2012년과 동일하지만, 구민(다목적) 체육시설(38개소, 82.6%)과 청소년 수련시설(7개소, 11.1%)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국악원이 각각 1개소씩 증가하였다.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진흥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그림 3-221〉 지역문화시설 수(유형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 지역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20개소)로 집계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중구·노원구(17개소), 강남구(16개소), 서초구(15개소), 동작구·송파구(14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동대문구(7개소)와 강동구·금천구·중랑구·용산구·종로구(9개소)에서는 지역문화시설 수가 10개 미만으로 낮았다.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진흥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021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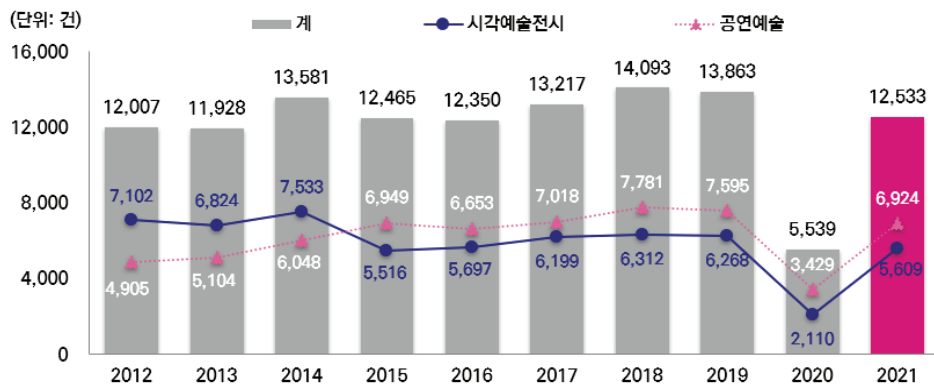
〈그림 3-222〉 지역문화시설 수(구별)

• 지역문화시설(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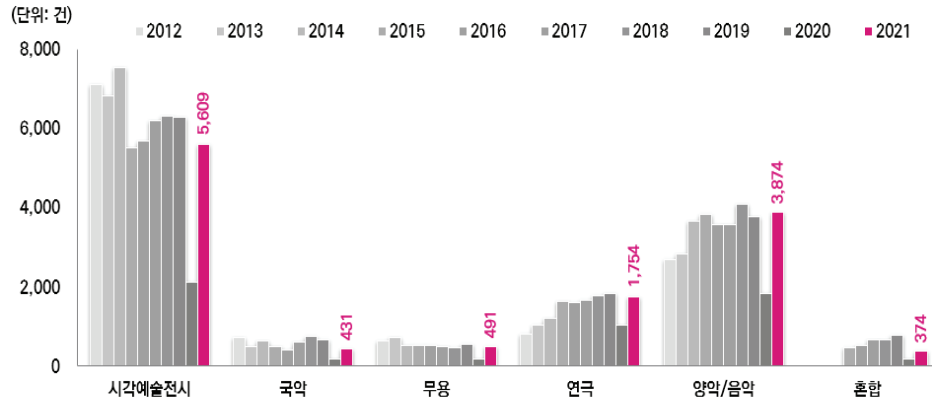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전시 건수는 총 12,533건(공연예술 6,924건, 시각예술전시 5,609건)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는 2.3배(6,994건) 증가하였는데, 공연예술 행사 건수는 2.0배(3,495건), 시각예술전시 횟수가 2.7배(3,499건) 증가하면서 공연 및 전시 상황이 다소 회복되었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그림 3-223〉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시각예술전시 횟수가 5,609건(44.8%)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 양악 3,874건(30.9%), 연극 1,754건(14.0%), 무용 491건(3.9%), 국악 431건(3.4%) 순으로 개최되었다. 전년 대비 무용 2.8배(318건), 시각예술전시 횟수 2.7배(3,499건), 국악 2.3배(247건), 양악 2.1배(2,032건), 연극 1.7배(712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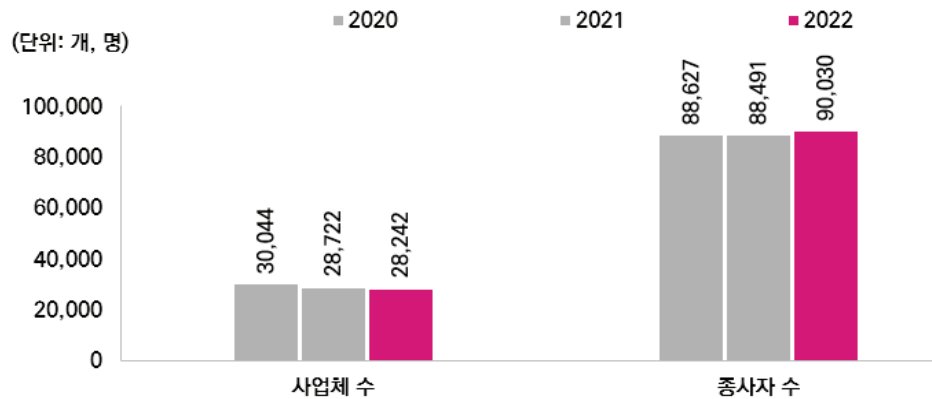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그림 3-224〉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유형별)

• 문화예술사업체 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문화예술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8,242개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는 90,03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480개(1.6%)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539명(1.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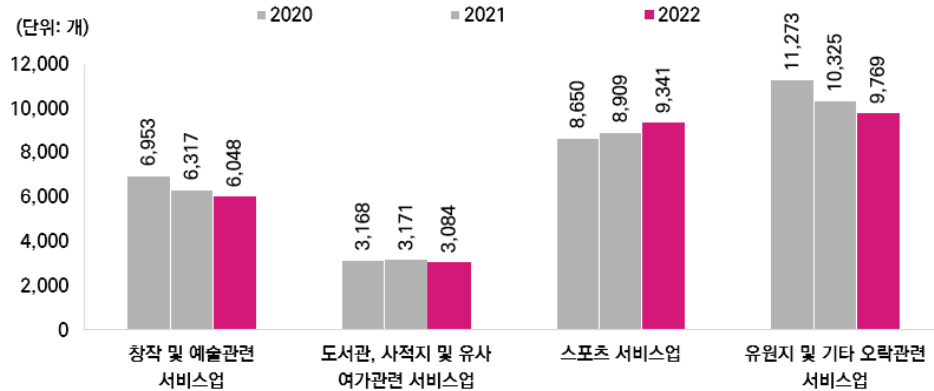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25〉 문화예술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769개, 스포츠 서비스업 관련 사업체는 9,341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6,048개,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사업체는 3,084개로 조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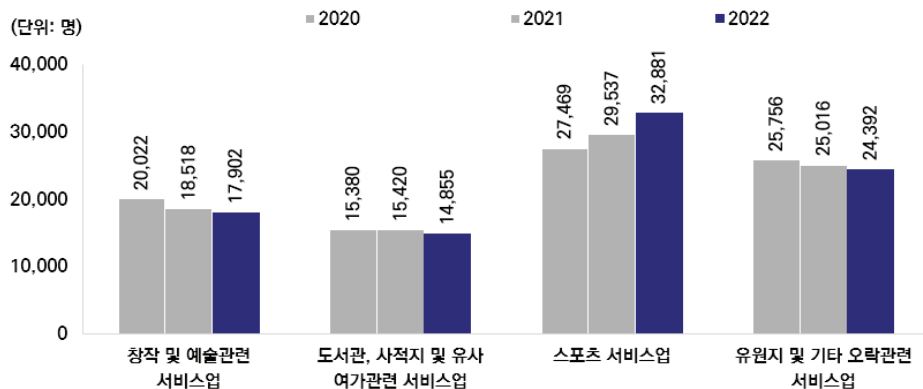
었다. 전년 대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사업체가 감소(각각 5.4%, 4.3%, 2.7%)한 반면, 스포츠 서비스업 사업체는 증가(4.8%)하였다.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26〉 문화예술사업체 수

한편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의 36.5%가 스포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에는 27.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는 19.9%,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는 16.5%가 종사하고 있었다. 사업체 수의 증감과 더불어 전년 대비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3.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종사자(3.3%),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사자(2.5%)가 감소한 반면,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는 11.3%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27〉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3. 여가활동과 향유

1) 요약 및 정책 제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서울시민의 계층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여가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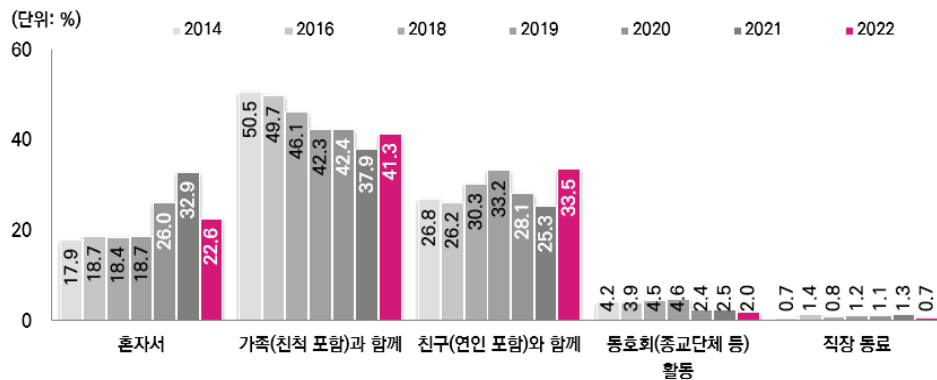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서울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과 수면 등 필수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여가활동이 시민의 신체·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 유지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의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가운데 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일과 삶의 균형지수(Work-Life Balance)’가 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의 여가 시간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추적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여가행태 등과 관련한 지속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이나 여행 건수는 2023년 서울서베이의 신규 지표로,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민은 전반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2년 5.69점(10점 만점)으로 만족도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역 가운데 서남권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여가활동의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엔데믹 시대에 이르러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개인화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 고연령층,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가활동의 개인화는 자칫 사회적 연결망 상실과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전반에 대한 주의 깊은 탐구가 요구된다. 계층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여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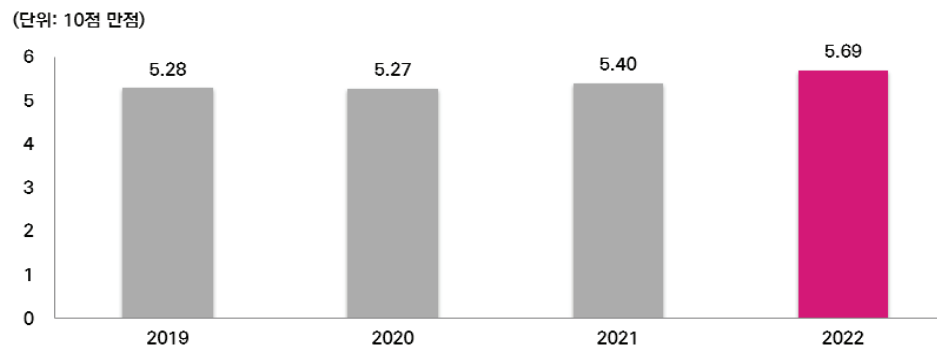
• 여가생활 만족도

2022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41.3%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33.5%가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22.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는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26~33%까지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가 종결되면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시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8.2%p 증가하였으며,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3.4%p 증가하였다. 반면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0.3%p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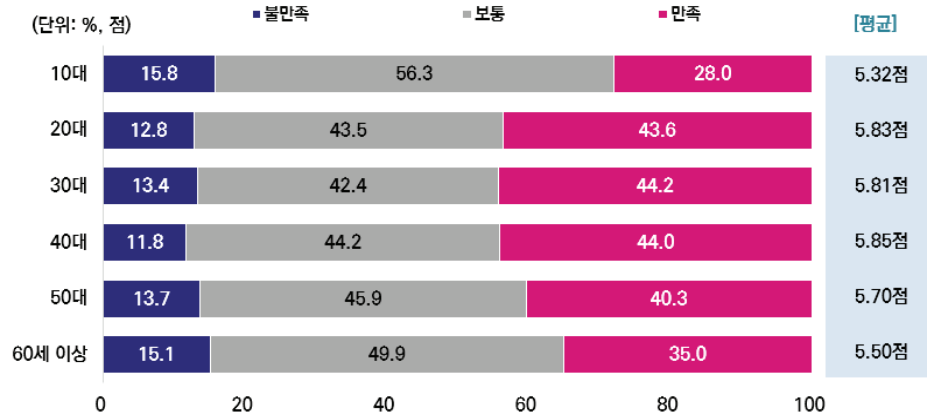
〈그림 3-228〉 여가활동 동반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9〉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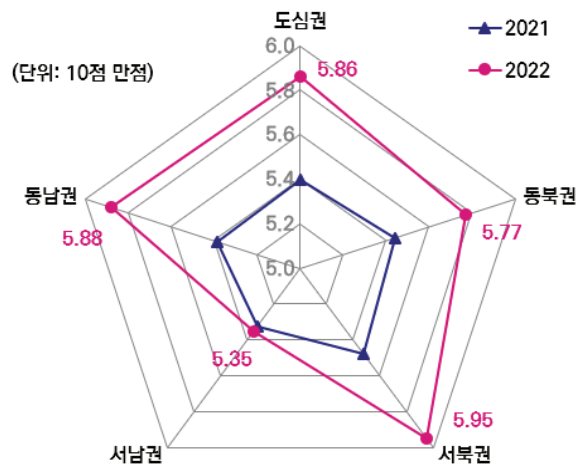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2년에 5.69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29점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5.8점대로 높았으며, 10대가 5.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30〉 여가생활 만족도(연령별)

권역별로는 서북권(5.95점) 지역에서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남권(5.3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권역에서 전년 대비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지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에서 여가생활 만족도가 0.5점가량 증가한 반면, 서남권에서는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0.03점 증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1〉 여가생활 만족도(권역별)

제9절 교육과 돌봄

1. 교육 및 보육환경

1) 요약 및 정책 제안

교육만족도의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

2021년 11월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되었지만 2022년 1월, 코로나19 제5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 등교지침 변경 등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코로나 19 대응체계 안정화로 학교 교육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의 교육만족도는 2022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영역의 일상회복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한 거주지역 교육만족도는 2020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면 수업을 재개한 2021년 5.74점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전면 대면수업이 진행된 2022년에는 6.20점으로 크게 상승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지역별로 교육만족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1년 전체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의 만족도는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서남권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지역 간 만족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동남권의 만족도 점수는 2021년 5.86점에서 2022년 6.70점으로 증가했지만, 서남권의 교육만족도는 5.76점에서 5.75점으로 큰 변화가 없어, 두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0.10점에서 2022년 0.95점으로 증가하였다. 교육환경 등 지역별 교육만족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3년여간 감염병 시기에 확대된 비대면 교육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⁸⁾ 서울권을 기반으로 온라인콘텐츠와

8)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를 훨씬 증가하여 초·중·고교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은 3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4만 원(13.4%), 중학생은 4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4.6만 원(11.8%), 고등학생은 46만 원으로 전년대비 4.1만 원(9.7%) 증가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고,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천으로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가 88.1%로 가장 높고, 300만 원 미만 가구가 57.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인터넷·통신 등을 통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17.7%)하여 학원 수강(13.3%) 및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면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교육만족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사업 확충해 평생학습권 보장해야

서울시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1970년 62.7세였던 기대수명은 2021년 83.2세로 늘었다. 길어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생애 초기에 집중된 교육을 전 생애로 확장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생애,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중·고·대학 등 형식교육 이외의 비형식 교육과 청년, 중장년, 노년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의 교육, 기술 역량과 일자리의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자치구당 1개소로 확대해 개설하고, 50+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⁹⁾

서울과 광역시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42.7%까지 높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29.5%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무적인 점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1.2%로 전년 대비 9.6%p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참여율이, 2022년에는 참여 감소 경향이 1.7%p로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21년 0.7%에서 2022년 0.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온라인비대면 교육의 안정화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평생교육 인프라가 풍부하고, 비대면 온라인 인프라 확충도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작한 서울런을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4050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비대면 교육사업인 서울런 4050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에서 평생학습권은 매우 중

(통계청 보도자료, 2023.3.7.,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act=view&list_no=424071).

9)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교육기관으로 청년구직자에게 디지털 실무교, 멘토링,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을 도입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취업 가능성이 줄어든 인문사회계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 자치구에 확대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 발췌, <http://ssac.seoul.kr/>).

요한 정책 전략이 될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할 기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의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일과 돌봄, 여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면, 이제는 배움도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 감소와 다양한 양육 여건을 고려한 영유아 돌봄정책 추진 필요

서울은 전국 광역시도 중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지만,¹⁰⁾ 2022년 합계 출산률은 0.593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돌봄정책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정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데 집중해 왔다. 서울시의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3년 6,742개에서 2022년 4,712개로 30.1% 감소하였지만, 공공보육 시설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4.2%에서 2022년에 45.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 보육시설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는 데는 역부족인 부분도 존재한다. 서울시민의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은 2022년 75.2%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58.8%)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 중심 보육정책만으로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낮추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영유아 돌봄 정책의 목표를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의 돌봄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상정하고,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¹¹⁾ 이는 양육자의 욕구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확장된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성에 맞는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0) 2022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19~34세 청년인구 비율은 전국이 19.9%, 서울시는 23.7%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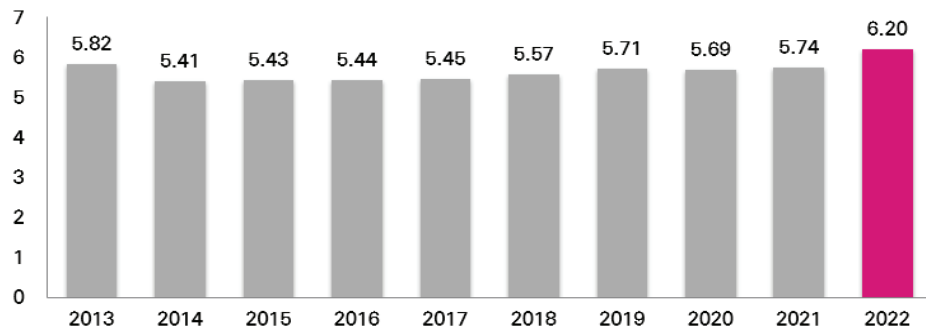
11) 2023년 기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市)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정책으로는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있다(<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380>).

2) 지표 설명

•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결과,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에 6.20점으로 전년 대비 0.46점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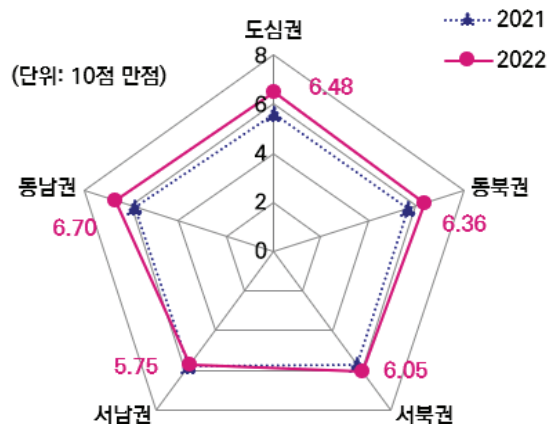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232〉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권역별로는 동남권(6.70점), 도심권(6.48점), 동북권(6.36점), 서북권(6.05점), 서남권(5.7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도심권(0.89점), 동남권(0.84점), 동북권(0.70점), 서북권(0.34점)에서 교육환경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서남권(0.01점 감소)에서는 교육환경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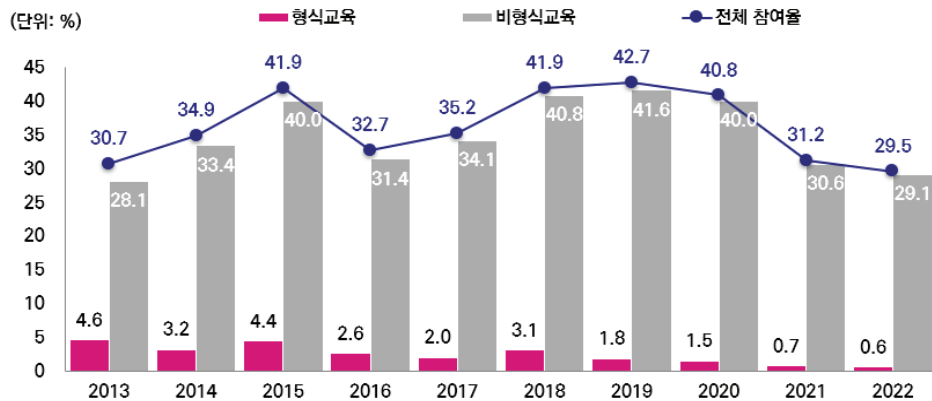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233〉 거주지역 교육만족도(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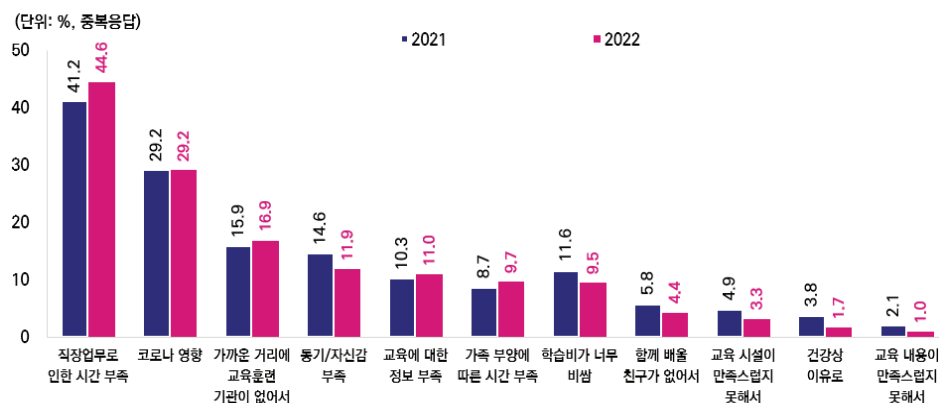
• 평생교육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 참여율(형식교육+비형식교육)은 2022년에 29.5%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는데, 초·중·고·대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형식교육은 0.1%p 감소하였으며,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은 1.5%p 감소하였다.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최근 10년간 30~43%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그림 3-234〉 평생교육 참여율(서울 및 광역시)



주)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만 25~79세) 대상(중복응답)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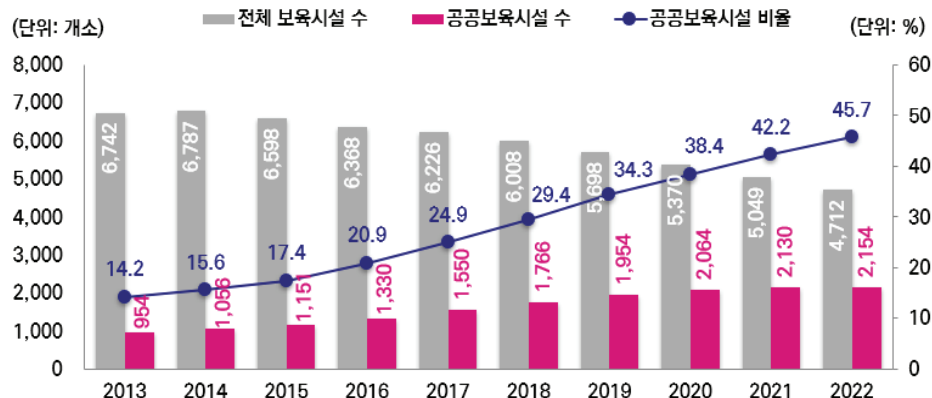
〈그림 3-235〉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 요인(서울 및 광역시)

서울 및 광역시 성인의 10명 중 2명 정도(16.6%)가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중복응답)으로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44.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29.2%),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16.9%), ‘동기, 자신감 부족’(11.9%),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1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평생학습**: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된다.
- **형식교육**: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클럽, 개인과의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한다.

• 공공보육시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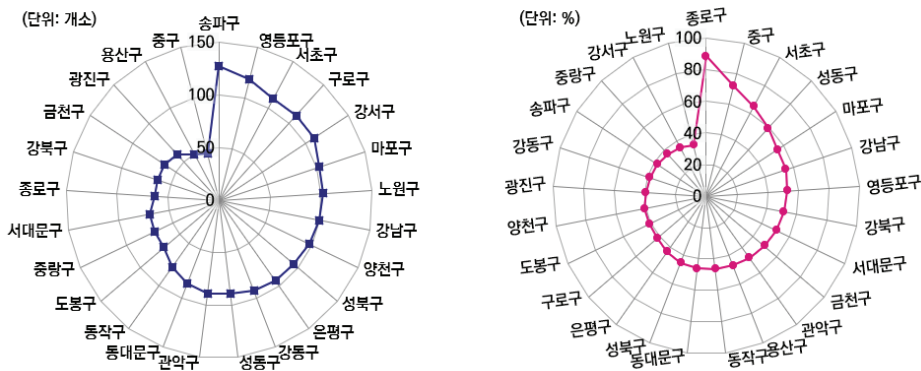
서울시 보육시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은 2,154개소로 전체 보육시설(4,712개소)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공보육시설 비율은 전년 대비 3.5%p(24개소) 증가하였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18개소, 직장 보육시설은 8개소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2개소 감소하였다. 서울의 전체 보육시설 수는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공공보육시설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31.5%p(1,200개소)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시설(구별)

〈그림 3-236〉 공공보육시설 비율

자치구별 공공보육시설 수는 송파구가 1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119개소), 강서구·구로구·서초구(110개소)에서도 공공보육시설 수가 많았다. 반면 중구가 46개소로 공공보육시설 수가 가장 적었으며, 용산구(50개소), 광진구(60개소)에서도 시설 수가 적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 대비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을 살펴보면, 종로구가 88.7%로 가장 높았고, 중구(71.9%), 서초구(64.7%), 성동구(58.9%)에서 공공보육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노원구(33.3%), 강서구(35.3%), 중랑구(36.6%)에서는 공공보육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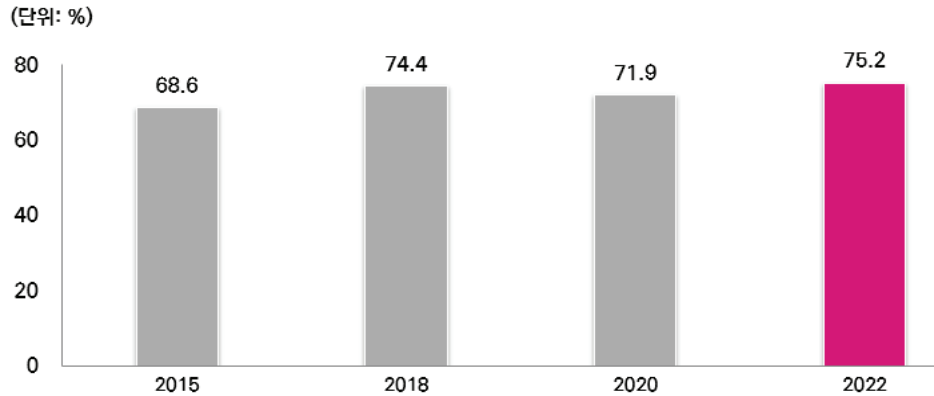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시설(구별), 2022

〈그림 3-237〉 공공보육시설 수(좌), 공공보육시설 비율(우)

-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 **사회복지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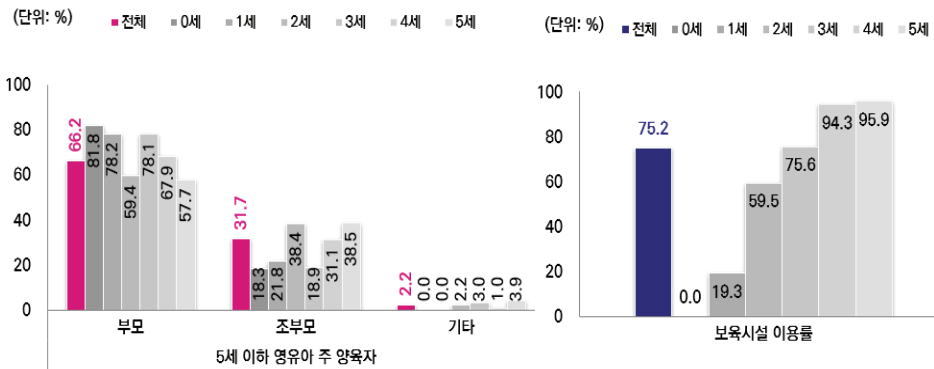
•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0세~5세 자녀가 있는 영유아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6%로 조사되었다. 이들 영유아가구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률은 75.2%로 2020년 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비해서는 6.6%p 증가하였다. 5세 이하 영유아를 낮시간 또는 등하원 시 주로 돌보는 주양육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가 97.9%를 차지하였다(부모 돌봄 66.2%, 조부모 돌봄 31.7%).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1세부터 5세로 성장할수록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격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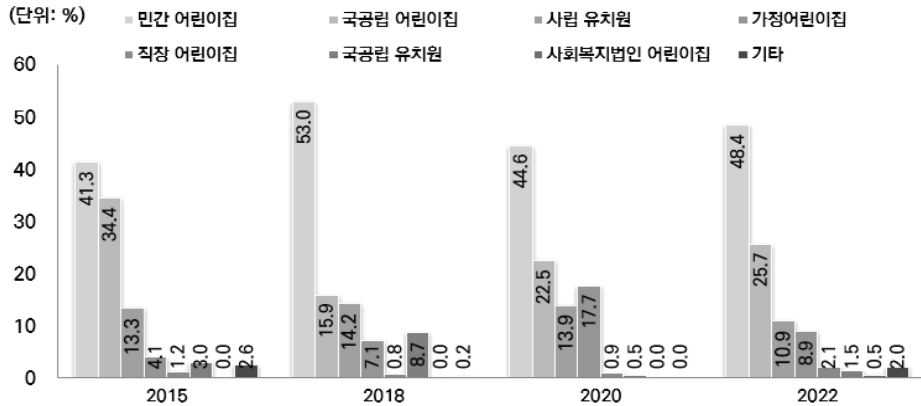
〈그림 3-238〉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2022

〈그림 3-239〉 5세 이하 영유아 주양육자 및 보육시설 이용률(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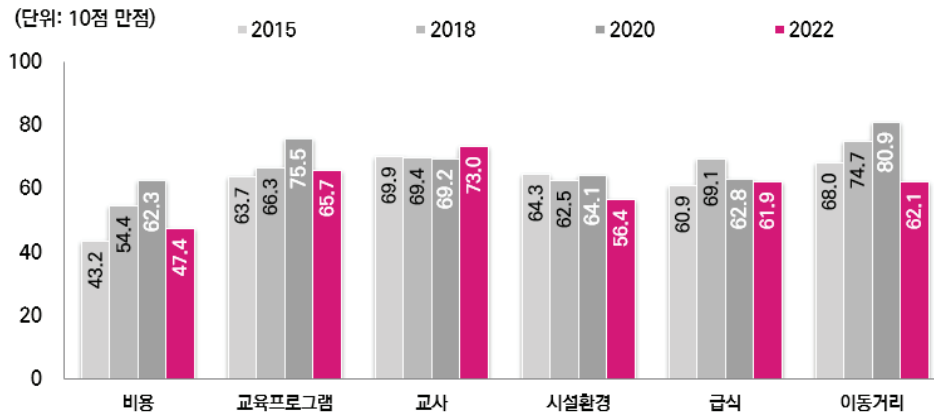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조금씩 증가 추세이나, 보육시설별 이용률에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 영유아가구의 48.4%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25.7%, 사립유치원 10.9%, 가정어린이집 8.9%, 직장어린이집 2.1%, 국공립유치원 1.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5% 순으로 이용하였다. 2020년 대비 민간어린이집(3.8%p), 국공립 어린이집(3.2%p), 직장 어린이집(1.2%p) 이용률은 증가한 반면, 가정어린이집(8.8%p)과 사립유치원(3.0%p)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격년 조사)

〈그림 3-240〉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현황(유형별)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2022년에 76.4%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교사(73.0%)와 교육프로그램(65.7%)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거리(62.1%)와 급식(61.9%)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47.4%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비해 교사에 대한 만족도(3.8%p)는 증가하였지만, 이동거리(18.8%p), 비용(14.9%p), 교육프로그램(9.8%p), 시설환경(7.7%p)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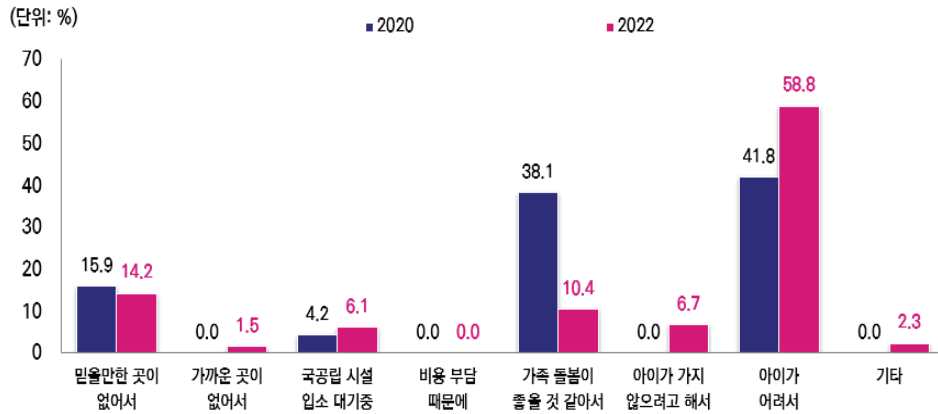
주)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격년 조사)

〈그림 3-241〉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5세 이하 영유아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비용 부담’보다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58.8%),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14.2%), ‘가족 돌봄이 더 좋아

서’(10.4%)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 비해 ‘가족 돌봄이 좋을 것 같아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감소(27.7%p)하였지만, ‘아이가 어려서’(17.0%p) 또는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6.7%p)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격년 조사)

〈그림 3-242〉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2. 사회적 약자 보호

1) 요약 및 정책 제언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 복지정책 재정 운용 자율성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 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기초보장, 보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에 달하면서, 기초보장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복지사업 예산 증가는 서울시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¹²⁾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3년 6조 285억 원이었던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2,287억 원으로 9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어르신, 저소득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크며, 2022년에는 5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보건 영역 예산 비중도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확대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위험과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복합적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외에 서울시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사회적고립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같은 새로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센터를 통해 발굴한 대상자에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문혜진, 2021, “10년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변화”, 「복지이슈투데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소득하락 위험 계층 다양화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조정 필요

경제성장과 복지지출 증대로 전국의 빈곤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22년 41만 3,055명으로 서울시민의 4.3%가 기초보장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3년 20만 2,991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 감소 경향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기초보장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로의 전환, 부양의무기준 완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 위험이 높은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시민은 약 21.6만 명으로 추정되는데,¹³⁾ 이는 기초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비생산인구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근로연령층의 소득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¹⁴⁾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안심소득 제도를 통해 소득보장 사각지대와 서울시민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민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소득지원 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서비스를 포괄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약자동행 가치 실현 위해 전통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 확대할 필요

2022년 서울의 장애인 수는 39만 1,859명이었다. 이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는 0.407%로, 2021년(0.412%)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는 2021년 기준 2,392명이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공공의 정책지원이 시급한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아동이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 시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25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상향 조정하였다. 서울

13) 문혜진, 2022, 「서울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14) 변금선·이원진·이혜림, 2021, 「서울시민 소득 안정성 제고 위한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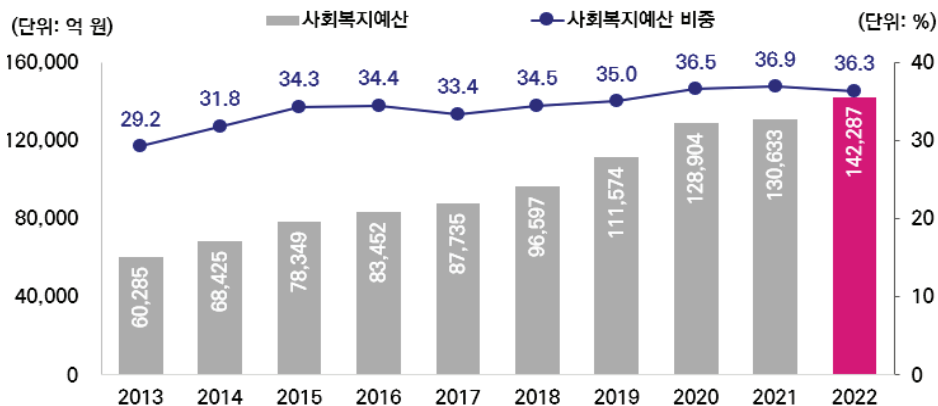
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던 자립준비지원금(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으로 높인 데 이어 2023년에는 2천만으로 증액하였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 주거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보호시설 아동은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이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복지지원 대상으로 상정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들의 자립과 기초보장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지 욕구에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정책에서 더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사회복지예산 비중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14조 2,2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6%p(1조 1,654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저소득(24.4%)과 어르신(24.1%) 예산이 가장 많고, 여성보육 예산 20.5%, 주거 예산 13.2%, 장애인 예산 9.2%, 보건 예산 4.9%, 교육 예산 3.6%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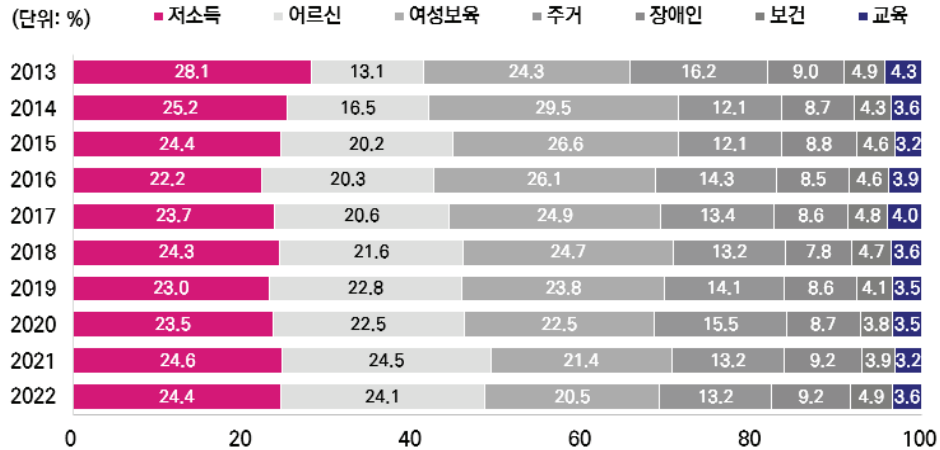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그림 3-243〉 사회복지예산 비중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7.1%p(8조 2,002억 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부 영역별 예산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

를 보이는데, 2013년 대비 저소득·여성보육·주거·교육 예산은 감소한 반면, 어르신 예산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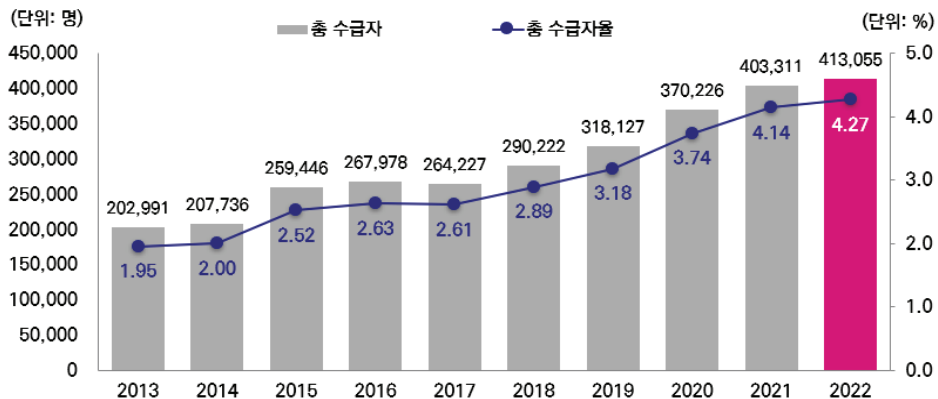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그림 3-244〉 사회복지예산 비중(영역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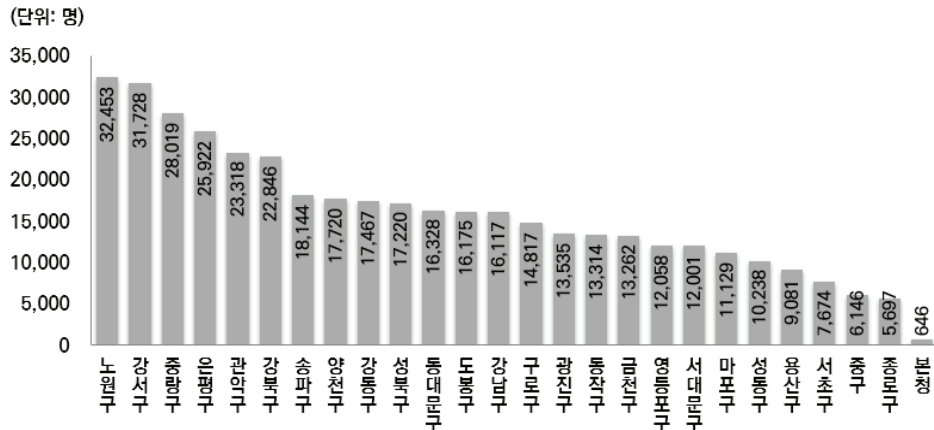
서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2년에 총 413,05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210,064명(수급자율 2.32%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통계청·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그림 3-2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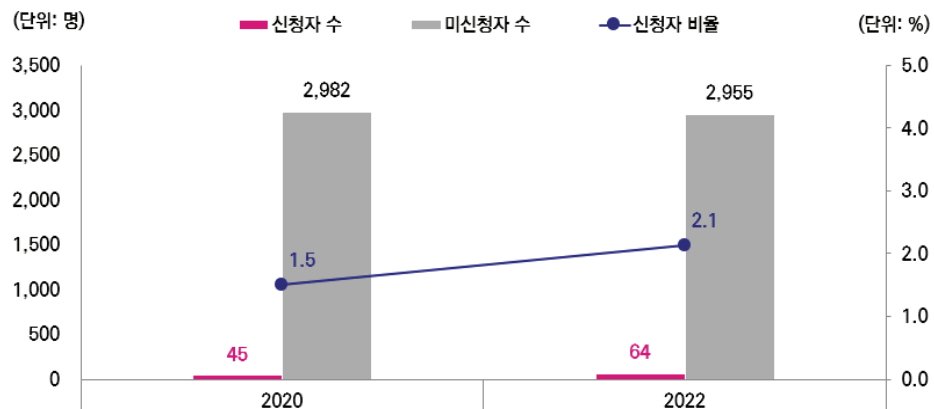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노원구(32,453명, 7.9%), 강서구(31,728명, 7.7%), 중랑구(28,019명, 6.8%), 은평구(25,922명, 6.3%)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로구(5,697명, 1.4%), 중구(6,146명, 1.5%), 서초구(7,674명, 1.9%)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2

〈그림 3-2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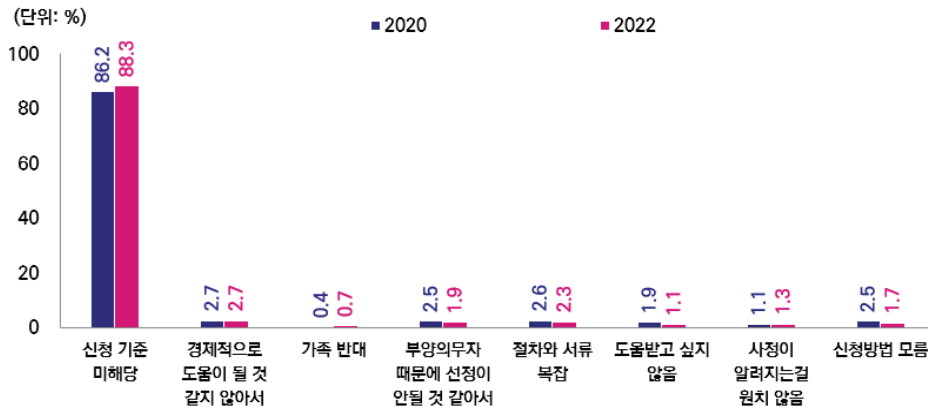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대표사업인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기준 지난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서울시민은 64명으로, 전체 응답자(3,019명)의 2.1%로 확인되었다.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그림 3-247〉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자 수

조사 대상자의 97.9%가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신청 기준 미해당’ 이유가 88.3%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7%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3%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 1.9%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될 것 같아서’, 1.7%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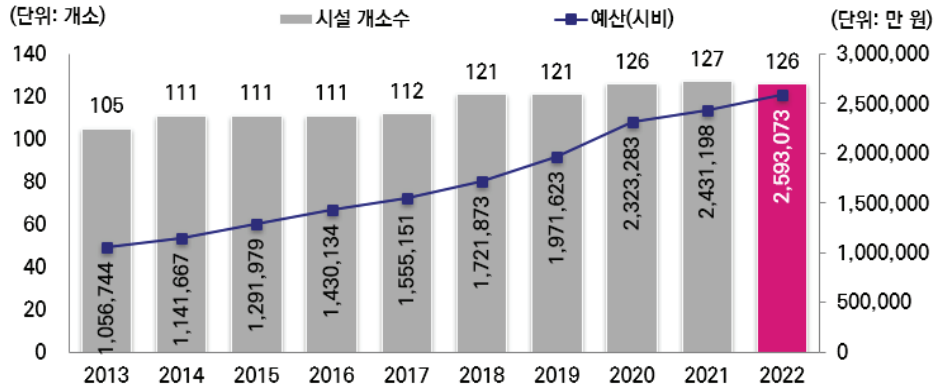
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가구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그림 3-248〉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이유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기능 회복에 도움을 제공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적응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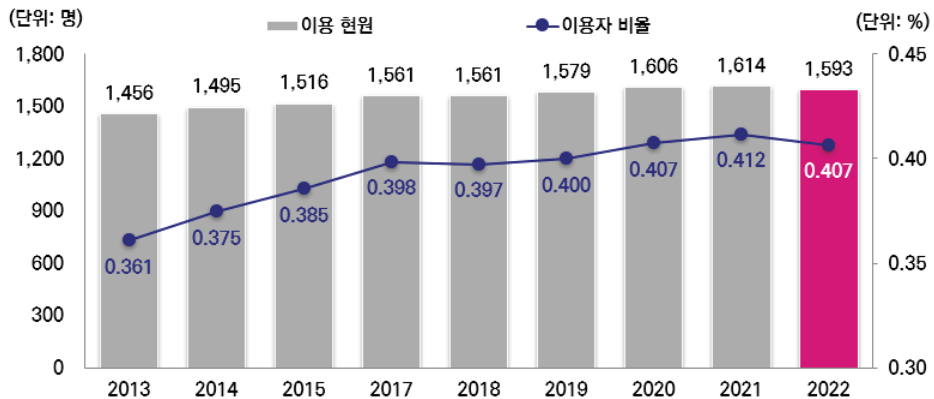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수는 2022년에 126개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전 대비 21개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비는 2013년 105억 6,744만 원에서 2022년 259억 3,073만 원으로 2.5배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현황; 내부자료 등

〈그림 3-24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와 사업비

2022년 서울의 전체 장애인 수는 391,85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는 1,593명(0.41%)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종류 및 장애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며, 2013년 대비 137명(0.0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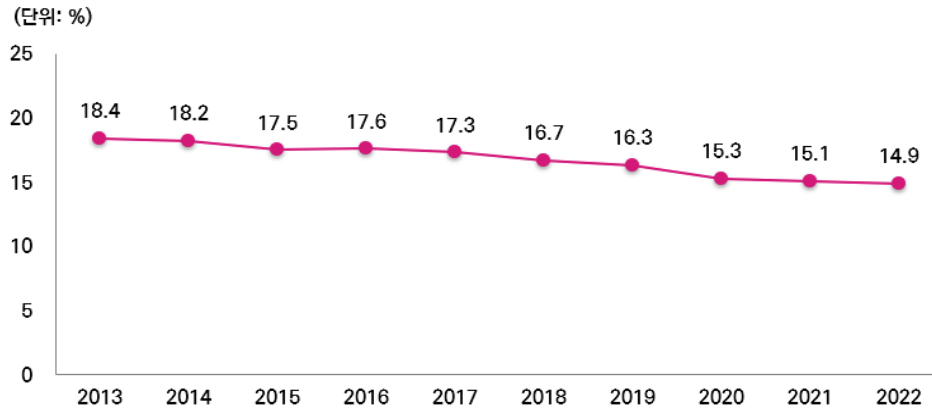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현황; 내부자료 등

〈그림 3-25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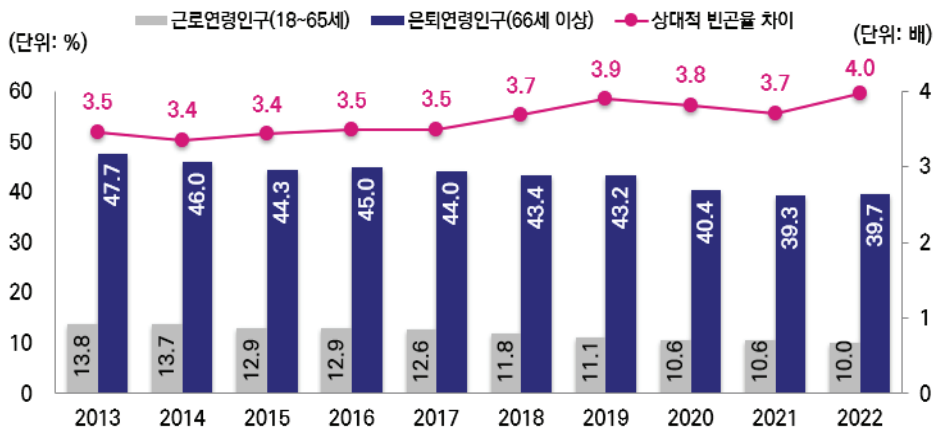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상

대적 빈곤가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기준 14.9%로 나타났으며, 10년 전 대비 3.5%p 감소하였다.



주: 1)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251〉 상대적 빈곤율(전국)



주: 1)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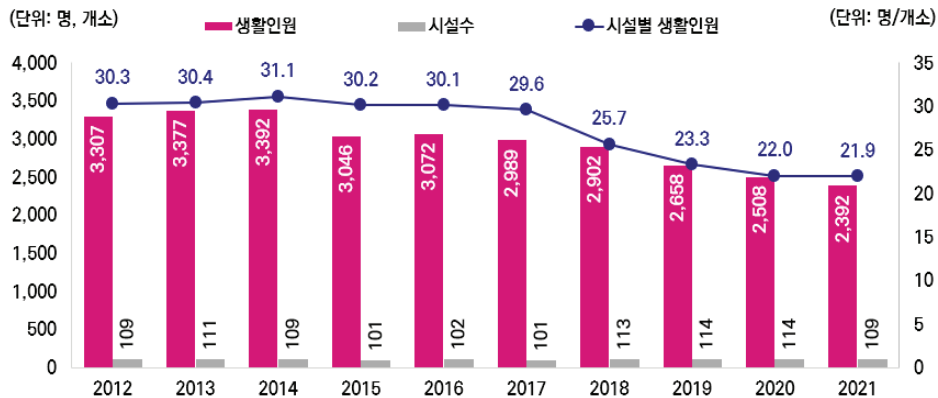
〈그림 3-252〉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전국)

전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10.0%로 나타난 반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 전에 비해 근로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각각 3.8%p, 8.0%p), 전년도에 비해서는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0.6%p)한 반면,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0.4%p)하였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10년에 걸쳐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은퇴 이후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4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근로연령인구와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는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4.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서울시의 아동복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수는 전체 109개소 조사되었으며, 생활인원 수는 총 2,392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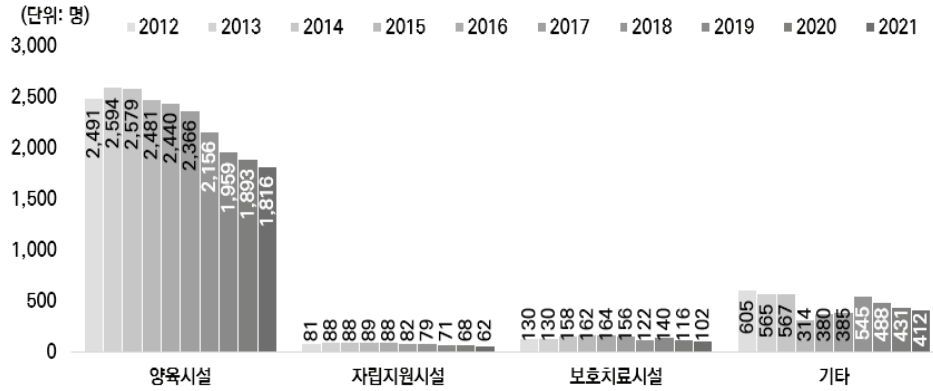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그림 3-253〉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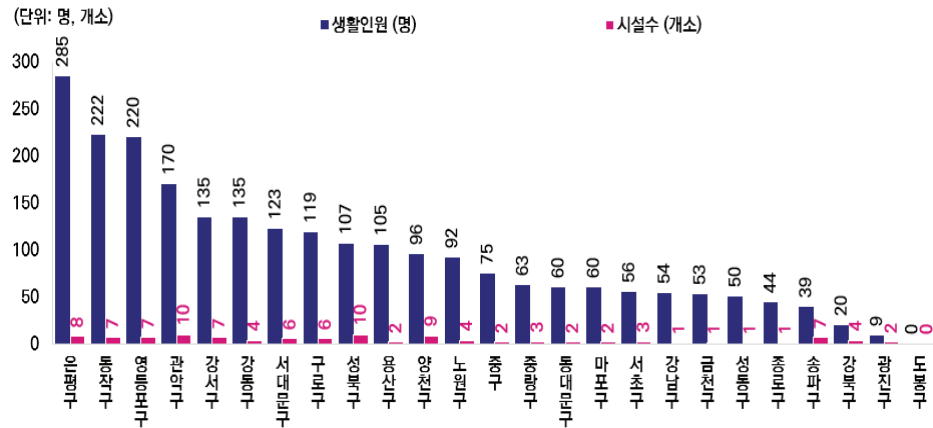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 생활인원 수가 1,816명(35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치료시설 생활인원 수가 102명(3개소), 자립지원시설 생활인원 수가 62명(3개소)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는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915명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가 285명(8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222명, 7개소), 영등포구(220명, 7개소), 관악구(170명, 10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도봉구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생활인원이 없고, 광진구 9명(2개소), 강북구 20명(4개소), 송파구 39명(7개소)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그림 3-254〉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시설별)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2021

〈그림 3-255〉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구별)

3. 성평등성

1) 요약 및 정책 제안

서울의 성평등지수는 향상하였으나, 성별 임금격차 등 경제활동 영역과 가족, 안전 분야 지수는 낮은 수준

서울의 성평등지수 종합평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위권에 속하지만, 전국의 성평등 순위와 서울시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2021년 서울의 분야별 성평등 순위는 보건과 교육·직업훈련 분야가 전국에서 1위, 경제활동 분야가 2위, 의사결정 분야가 4위를 차지한 반면,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13위)을 차지하였으며, 안전 분야는 최하위권(17위)을 기록하였다. 각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보건(98.4점)과 교육·직업훈련(97.3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활동(78.0점), 안전(70.3점), 가족(64.9점), 의사결정(45.7점) 분야에서는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의 성평등지수 종합등급은 상위권이지만, 경제활동, 가족, 안전 분야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전국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근로자 임금의 67.9%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남성 소득=100), 2021년(67.3%)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서베이 가구주 조사 결과, '아내가 주도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2년에 79.6%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19.2%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해, 여성과 남성의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2020년부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 분야의 성평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범죄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해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았다.¹⁵⁾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통적 성

역할 분담에서 비롯되는 자녀양육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서베이 가구주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아내가 주되게 가사노동을 한다는 비율이 감소하고, 남편과 아내가 공정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아내가 주되게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86.8%에서 2022년 79.6%로 감소하였다. 한편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0.3%에서 2021년 4.1%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결혼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수준은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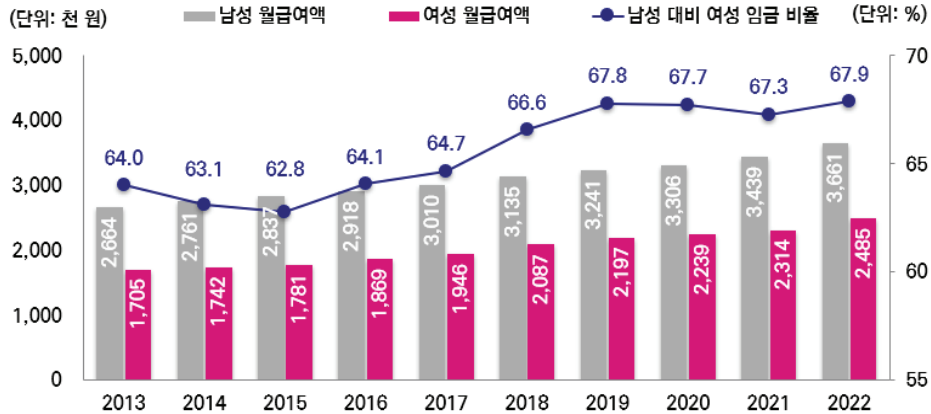
남성의 가사부담과 육아휴직 참여 등을 통한 가정에서의 성평등 증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 가중, 성장동력 약화를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의 가사분담과 양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육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전망과 근로자 처우, 성평등제도, 복지제도 및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시 청년인턴 대체 근무 지원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을 더 많은 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성평등, 양육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컨설팅과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성별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근로자 임금의 67.9%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남성 소득=100), 전년도보다 0.6%p 증가하였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15년에 62.8%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 '청년 삶 실태조사'는 19~34세 청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8월 시행한 조사이다. 미혼 청년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3%였는데, 여성이 현저하게 더 낮았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70.5%)이 여성(55.3%)보다 높았다.



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남성 소득=100) = (여성 월 급여액 / 남성 월 급여액) × 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전국)

〈그림 3-256〉 성별 임금 격차(전국)

• 성평등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성평등지수 종합평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의 부문별 성평등지수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와 보건 분야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활동 분야가 2위, 복지 분야와 문화 및 정보 분야가 각각 3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가족 분야는 13위로 낮았으며, 안전 분야가 17위로 가장 낮았다. 즉,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문화·정보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가족 분야는 중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안전 분야는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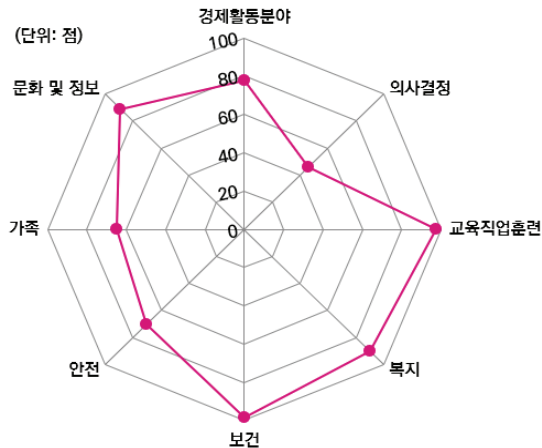
〈표 3-2〉 분야별 서울의 성평등 순위

(단위: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한 의식·문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2016년	3위	2위	1위	4위	1위	16위	13위	7위
2017년	6위	1위	1위	5위	2위	16위	11위	7위
2018년	5위	4위	1위	3위	2위	16위	8위	7위
2019년	5위	3위	1위	4위	7위	17위	12위	4위
2020년	2위	4위	1위	3위	5위	17위	11위	2위
2021년	2위	4위	1위	3위	1위	17위	13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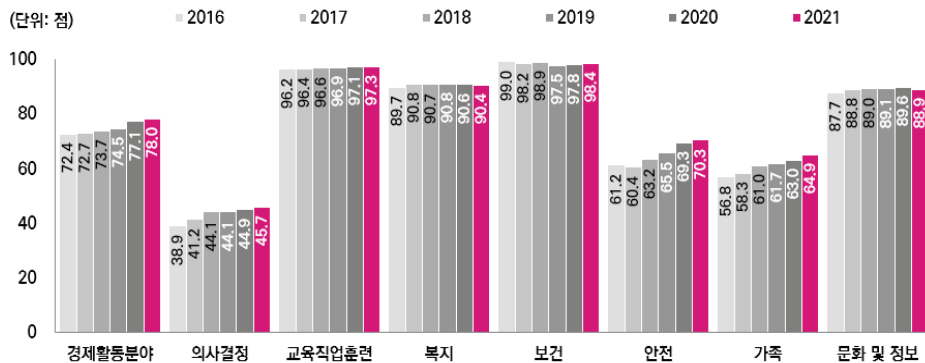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21년 서울의 분야별 성평등지수는 보건(98.4점), 교육직업훈련(97.3점), 복지(90.4점), 문화 및 정보(88.9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78.0점), 안전(70.3점), 가족(64.9점), 의사결정(45.7점) 분야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21

〈그림 3-257〉 성평등지수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그림 3-258〉 성평등지수(분야별)

2016년 대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안전(9.1점)과 가족(8.1점) 분야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의사결정(6.8점)과 경제활동(5.6점) 분야에서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 대비 성평등지수가 오히려 0.6점 하락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전국의 성평등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안전 분야의 경우 2016년 이후 성평등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위권(16위~17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성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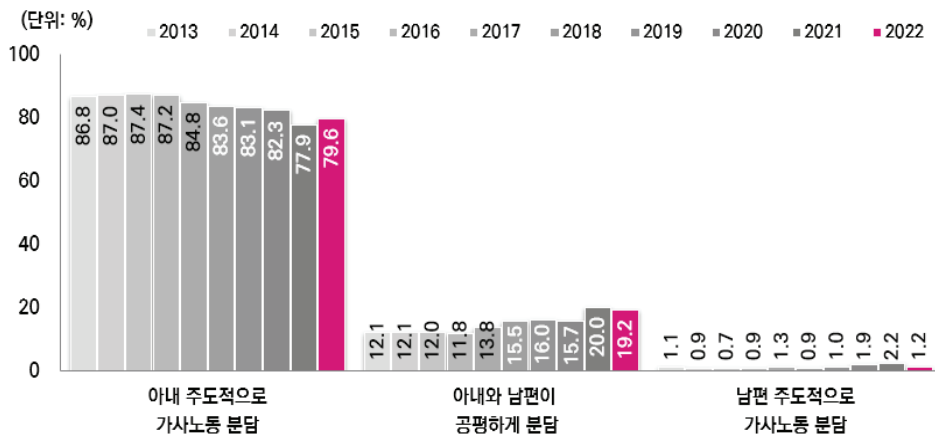
등지수가 감소(0.6점)하였지만, 2021년에 성평등 순위는 1위를 기록하였다. 종합하면 서울의 성평등지수 종합등급은 상위권이지만, 최하위로 평가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성평등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 (완전 불평등 0.0점, 완전 평등 100.0점)
-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지수값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시도별로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보여주어, 분야별 성평등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짐

• 가사노동 분담 정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결과 여성 주도의 가사노동 분담은 최근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2022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아내가 주도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2년에 79.6%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19.2%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1.2%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해, 여성과 남성의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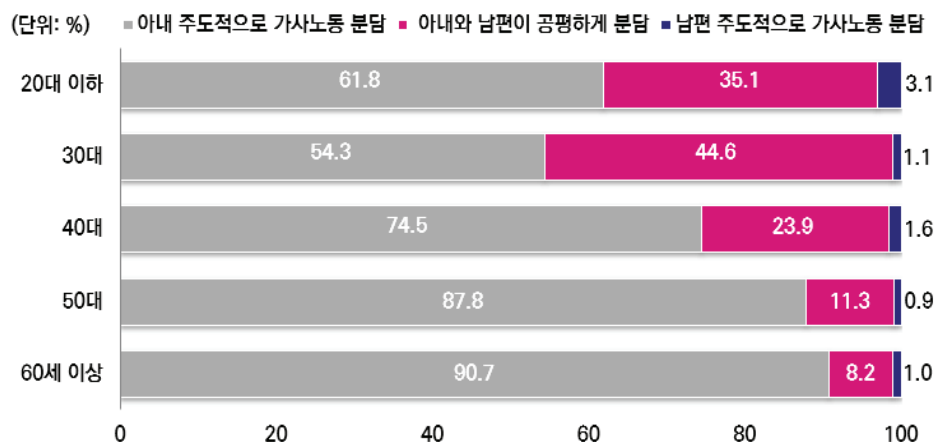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259〉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구주 연령별로 가사노동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가구주에서 ‘아내와 남

편이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0대 가구주의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하는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가구주는 35.1% 수준을 보였다. 반면, 50대 가구주와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사노동 공동 분담률은 각각 11.3%와 8.2%에 그쳤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 가구주와 30대 가구주의 아내와 남편 가사노동 공동 분담률은 증가(각각 12.3%p, 6.7%p)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40대 2.4%p, 50대 2.6%p, 60세 이상 1.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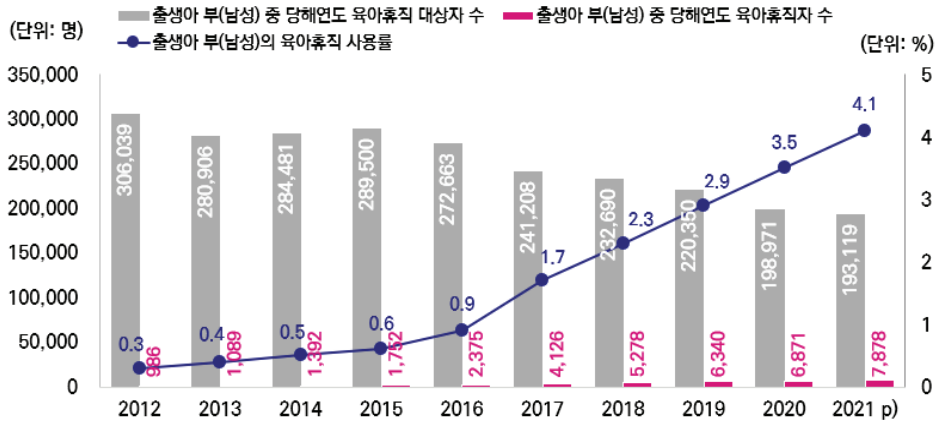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2022

〈그림 3-260〉 가사노동 분담 정도(연령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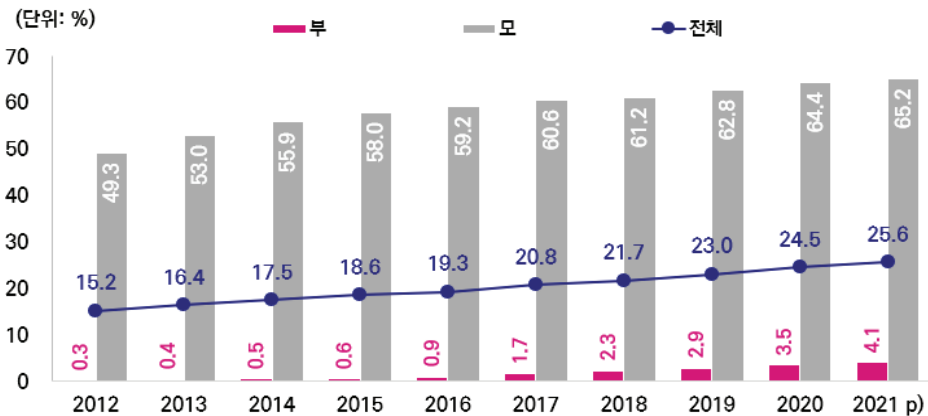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전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잠정치 기준) 출생아 부모 중 남성(부) 육아휴직 대상자는 193,11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부) 육아휴직자 수는 7,878명(4.1%)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0.3%보다 3.8%p 증가해 점진적으로 성비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성(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모)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1년(잠정치 기준) 전국의 여성(모) 육아휴직 사용률은 65.2%로 2012년 대비 15.9%p 증가하였으며, 남성과 격차는 2012년 49.0%p에서 2021년(잠정치 기준) 61.1%p로 더욱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그림 3-261〉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전국)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그림 3-262〉 남성(부)과 여성(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전국)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 × 100

제10절 가치와 의식

1. 시민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높아졌으나 시민참여 활동은 감소해, 사회자본 구축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해야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참여율은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8.7%가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의 16.0%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이다. ‘민원제안 및 제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로, 전년의 16.2%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지역사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30대이며, 10대의 참여가 가장 낮았다. 낮아진 지역사회 참여율은 2021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많은 지역사회 이슈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 수요가 충족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7.1%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한 수치이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20.3%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이후 2020년에 11.5%로 감소하였다. 2022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 수준은 코로나19의 유행의 영향을 받았던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한번 끊겼던 참여가 다시 시작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자녀교육’(평균 3.6회)과 ‘환경보전과 보호’(평균 3.1회) 분야의 참여 경험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10점 만점)은 2022년 기준으로 평균 7.05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서울시민 자부심을 조사한 2015년 조사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에 하락추세가 반전한 것이다.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게 느끼는(7점 이상) 사람의 비율은 2021년에 68.7%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8.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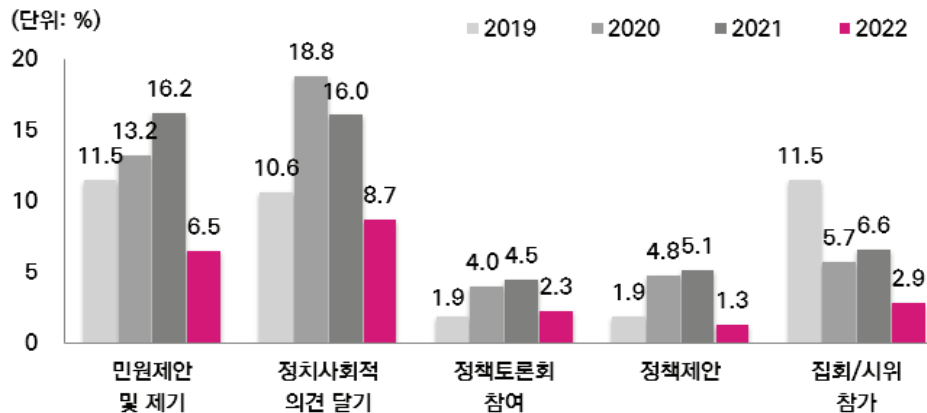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 사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보인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지역사회로의 참여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긍심을 지역사회 참여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자녀교육 이슈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표 설명

• 지역사회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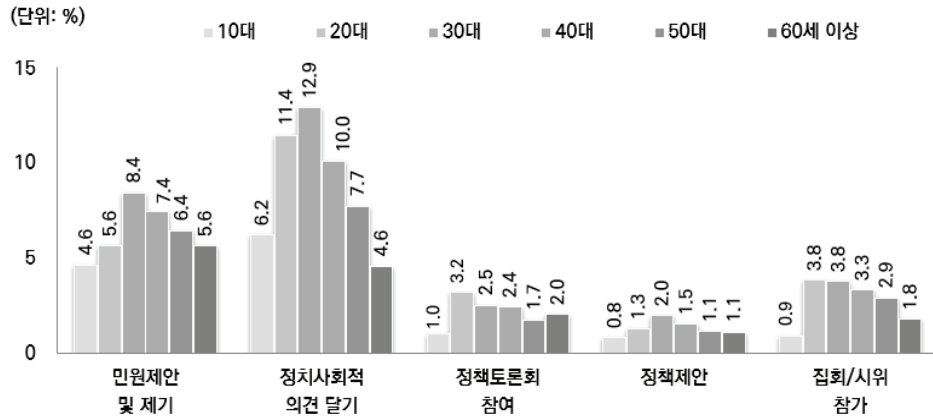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서울시민의 8.7%가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시장 페이스북, 트윗에 댓글 달기 등) 경험이 있으며, 6.5%가 ‘민원제안 및 제기’(정보공개 청구 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집회/시위 참가’ 경험은 2.9%, ‘정책토론회 참여’ 경험은 2.3%, ‘정책제안’ 경험은 1.3%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2022년); 시민조사(2019~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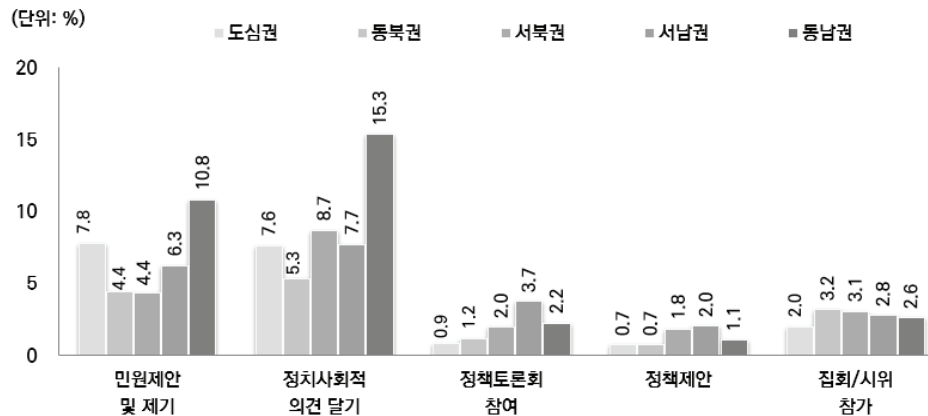
〈그림 3-263〉 지역사회 참여율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사회 참여율을 보였으며, 10대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사회 참여율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15.3%)와 ‘민원제안 및 제기’(10.8%)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에서는 ‘정책토론회 참여’(3.7%)와 ‘정책제안’(2.0%)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64〉 지역사회 참여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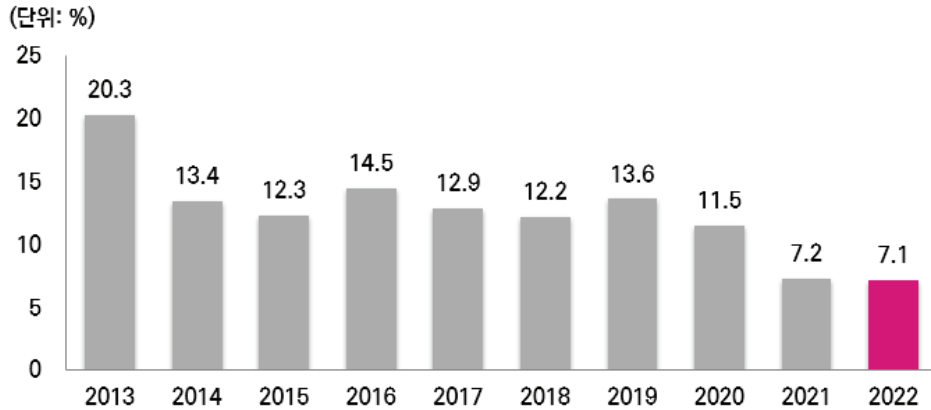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65〉 지역사회 참여율(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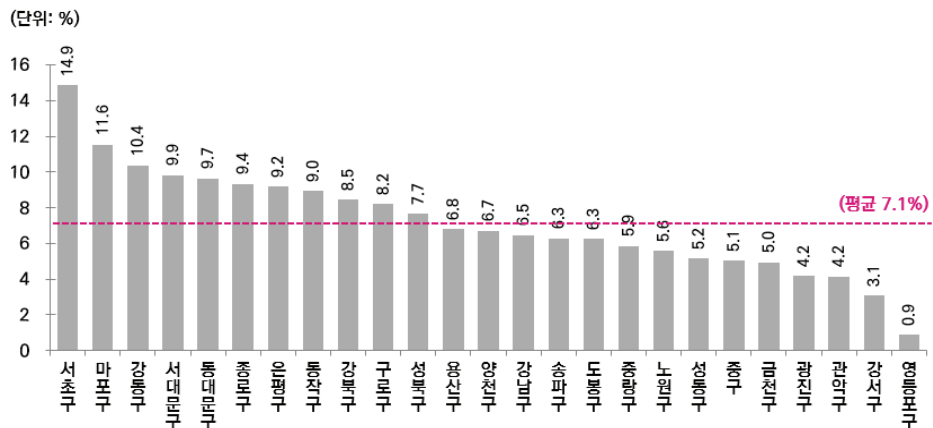
• 자원봉사 참여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1년에 7.1%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근 10년간 감소추세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14.9%), 마포구(11.6%), 강동구(10.4%) 등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0.9%), 강서구(3.1%), 관악구·광진구(4.2%)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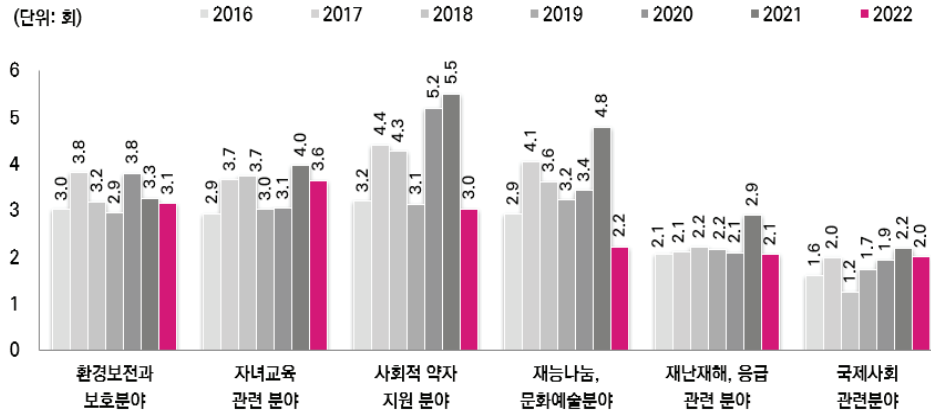
〈그림 3-266〉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67〉 자원봉사 참여율(구별)

2022년 한 해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자원봉사 유형은 ‘자녀교육 관련 분야’로 평균 3.6회 참가하였다. 그다음으로 ‘환경보전과 보호 분야’ 3.1회,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3.0회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원봉사 참여 횟수는 전 영역에서 감소하였는데(기타 제외), 그중에서도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와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자원봉사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각각 2.6회, 2.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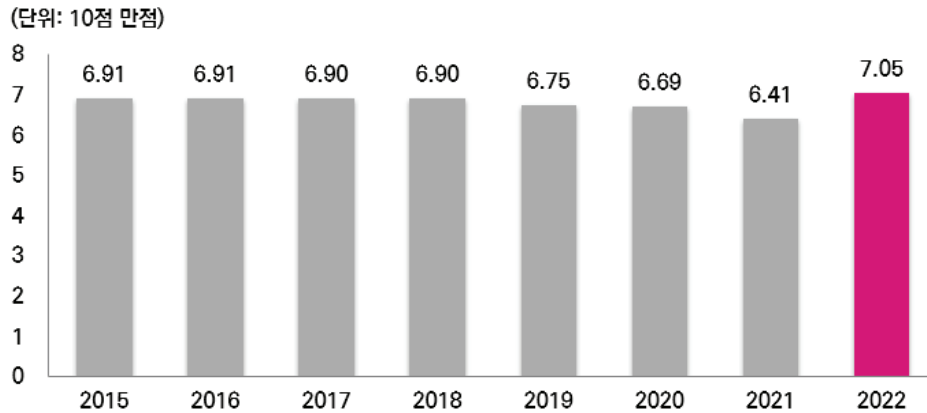


주) 자원봉사 참여 경험 있는 응답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68〉 자원봉사 참여 횟수

• 시민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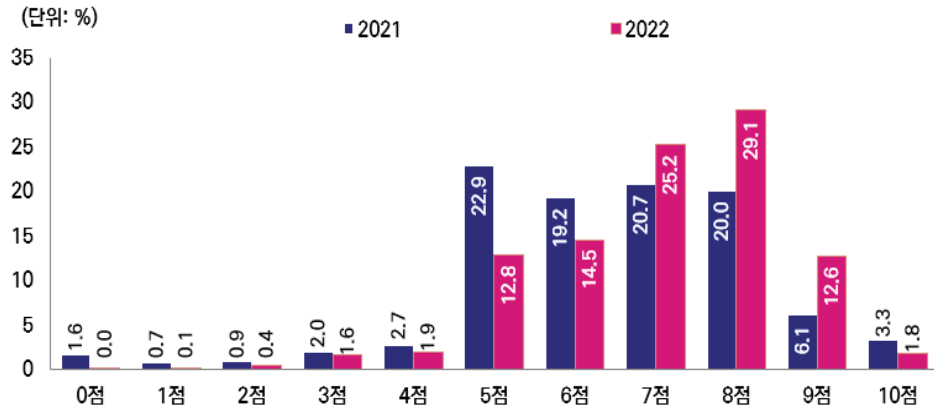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10점 만점)은 2022년에 평균 7.05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64점 증가하였다. 서울시민 자부심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2015~2018년, 2022년); 시민조사(2019~2021년)

〈그림 3-269〉 시민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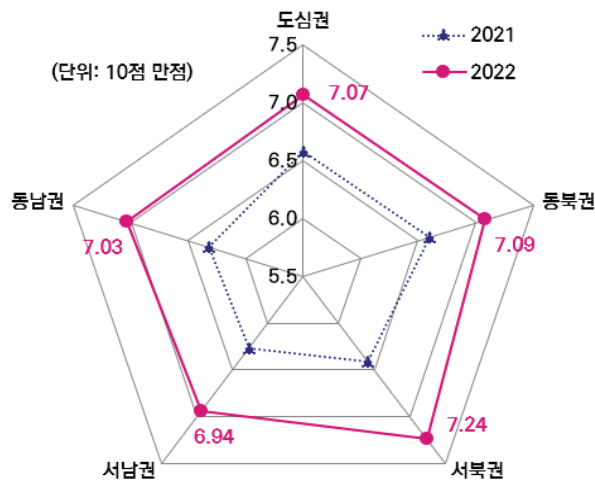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게 느끼는(7점 이상) 사람의 비율은 2022년에 68.7%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8.6%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2022년); 시민조사(2021년)

〈그림 3-270〉 시민자부심(점수별)

권역별로는 서북권 거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7.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권(7.09점), 도심권(7.07점), 동남권(7.03점), 서남권(6.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 권역에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증가하였으며, 서북권(0.82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2022년); 시민조사(2021년)

〈그림 3-271〉 시민자부심(권역별)

2. 포용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등)에 대한 시민 포용성 제고 노력 필요

한국뿐 아니라 서울시 역시 저출생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민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서구 사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 내 사회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시정 목표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가 높고,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포용성 정도는 2022년에 평균 5.51점(10점 만점)으로 2021년(5.67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민의 포용성 수준은 5.5점에서 5.7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하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포용’ 항목이 5.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제도 개선’ 5.70점, ‘아동 기본권 보호’ 5.56점, ‘가난의 사회적 책임’ 5.24점, ‘노인사회복지 확대’ 5.22점 순으로 파악되었다. 금년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포용성 지표가 하락한 반면, 노인에 대한 포용성이 상승하였다.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 점수는 6.00점(1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20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는 가족 신뢰가 8.59점으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 신뢰 4.90점, 이웃 신뢰 4.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족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여타 공적 관계를 가지는 다른 집단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저신뢰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다. 공공기관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수용도 영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직장 동료’나 ‘친구’로의 수용 의사는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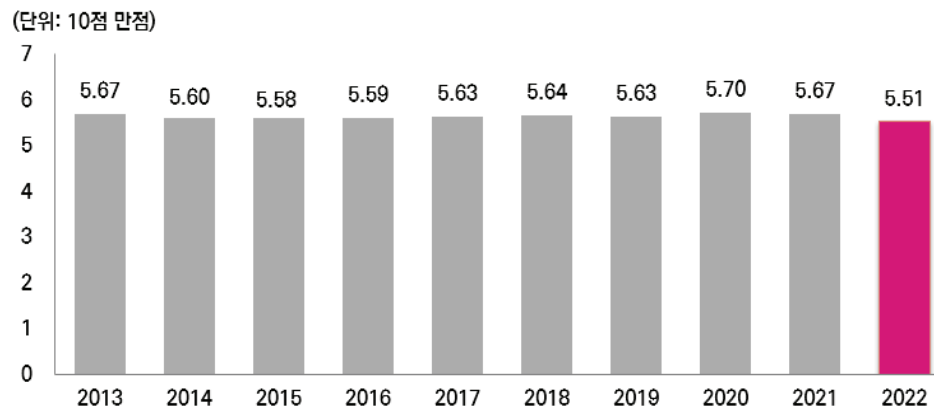
로 60~70% 수준의 수용 의사가 측정되나,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향은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가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낮은 다양성 수용도는 차후 사회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은 종합 평균 5.34점(10점 만점)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로는 교육(6.43점), 취업(5.52점), 복지(5.51점) 등이 평균치 이상으로 높았고, 정치활동(4.75점), 법 집행(4.96점), 분배구조(5.07점) 등의 항목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연령집단별로는 공정성 인식이 다소 갈렸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복지, 병역, 성별 대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0대 집단에서는 복지, 병역, 취업 등의 항목에서 불공정을 느낀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 지표 설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2022년에 평균 5.5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16점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최근 10년간 5.5점에서 5.7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포용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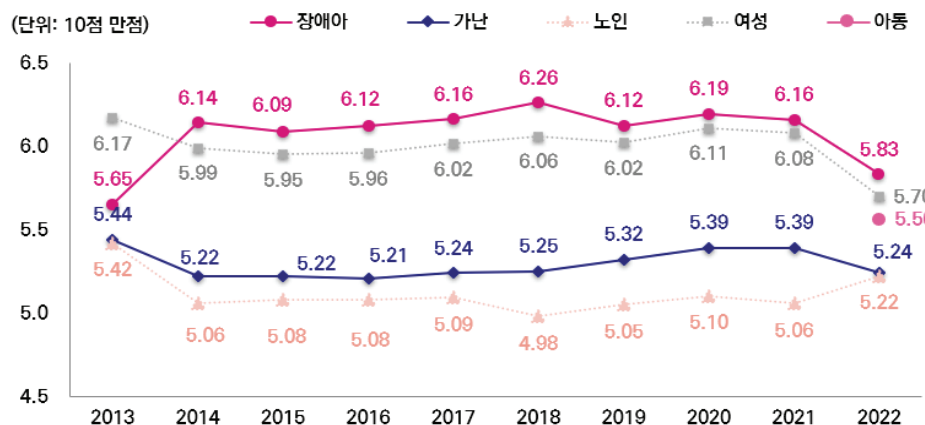
주) 2022년: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항 추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7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포용'(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이 5.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제도 개선’(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70점, ‘아동 기본권 보호’(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5.56점, ‘가난의 사회적 책임’(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5.24점, ‘노인사회복지 확대’(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5.2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노인에 대한 포용성은 증가(0.16점)하였지만, 여성(0.38점), 장애인(0.33점), 빈곤층(0.15점)에 대한 포용성은 감소하였다.



주) 아동(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2022년 신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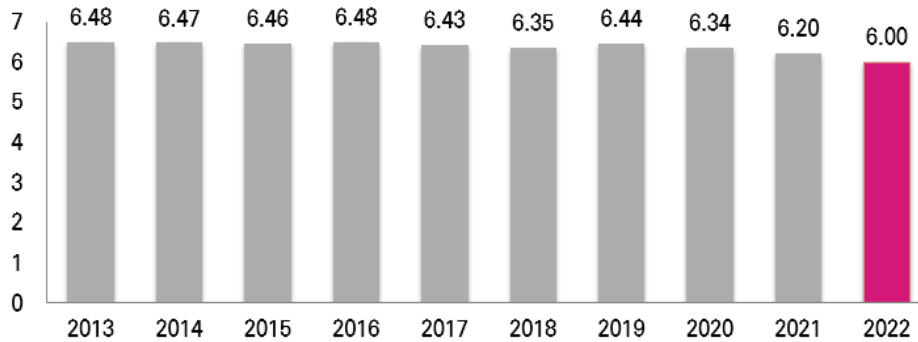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7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항목별)

• 사회적 신뢰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가족, 이웃,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2022년에 평균 6.0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20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가족 신뢰가 8.59점으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 신뢰 4.90점, 이웃 신뢰 4.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족에 대한 신뢰는 0.10점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 신뢰는 0.40점, 이웃 신뢰는 0.33점 하락하였다. 사회적 신뢰는 최근 10년간 감소추세로 2013년 대비 0.48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는 10년 전에 비해 이웃 신뢰가 가장 많이 감소(0.86점)하였으며, 공공기관 신뢰는 0.42점, 가족 신뢰는 0.18점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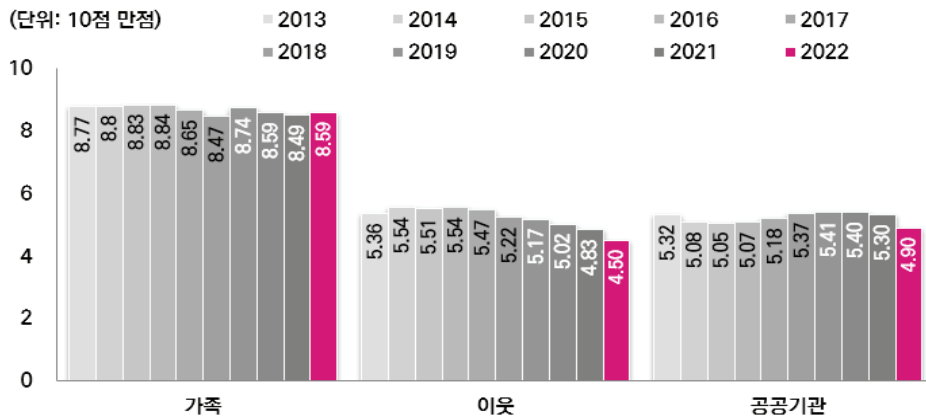


주) 사회적 신뢰: 가족, 이웃,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74〉 사회적 신뢰(종합)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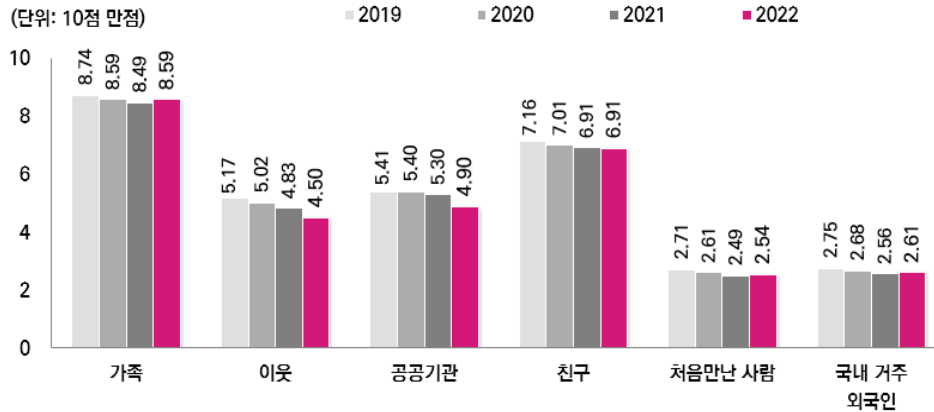


주) 사회적 신뢰: 가족, 이웃,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75〉 사회적 신뢰(가족, 이웃, 공공기관)

그 외 친구 신뢰는 2022년에 6.9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2.61점)과 처음 만난 사람(2.54점)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서울시민은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처음 만난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 가까운 사람을 제외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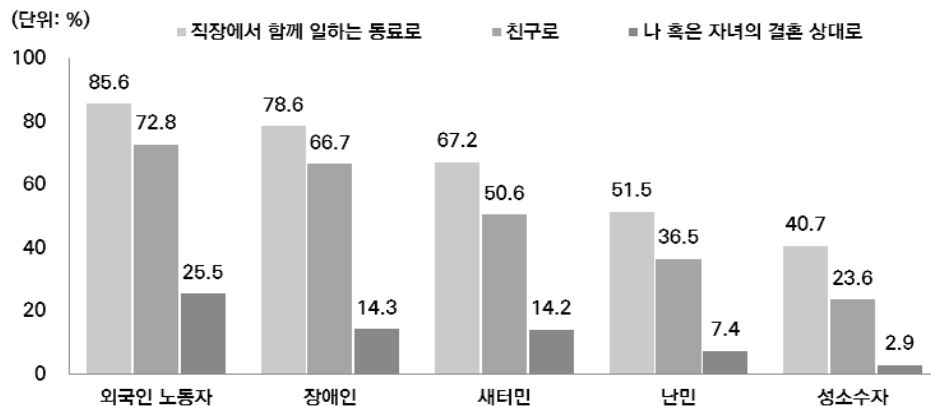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76〉 사회적 신뢰(세부 항목별)

• 다양성 수용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반면,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한 수용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동료 또는 친구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 상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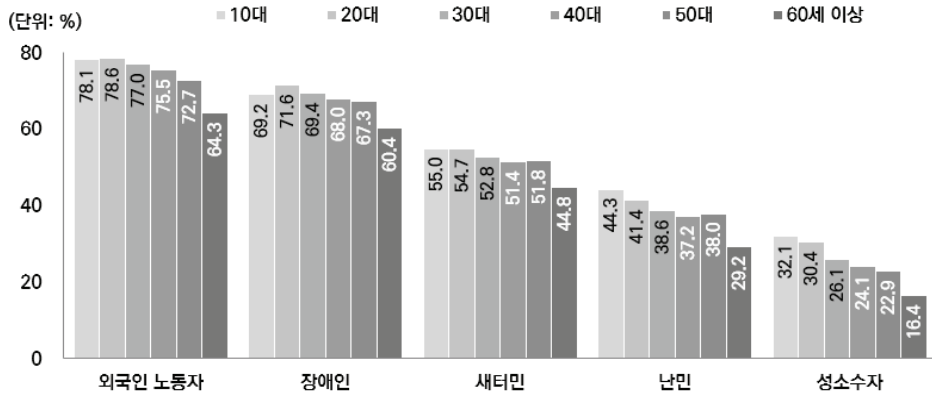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77〉 다양성 수용도

2022년 가구원조사 결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85.6%, 장애인 78.6%, 새터민 67.2%, 난민 51.5%, 성소수자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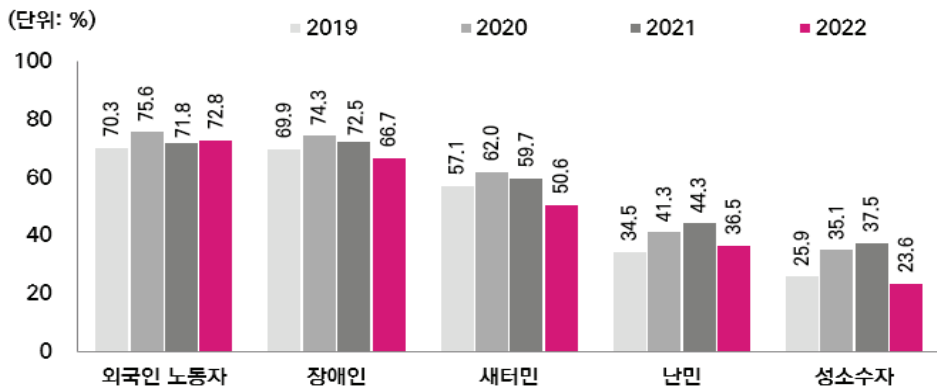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친구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72.8%, 장애인 66.7%, 새터민 50.6%, 난민 36.5%, 성소수자 2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 혹은 자녀의 결혼상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25.5%, 장애인 14.3%, 새터민 14.2%, 난민 7.4%, 성소수자 2.9%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78〉 연령별 친구 수용도

연령별로 이들 집단에 대해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에서 다양성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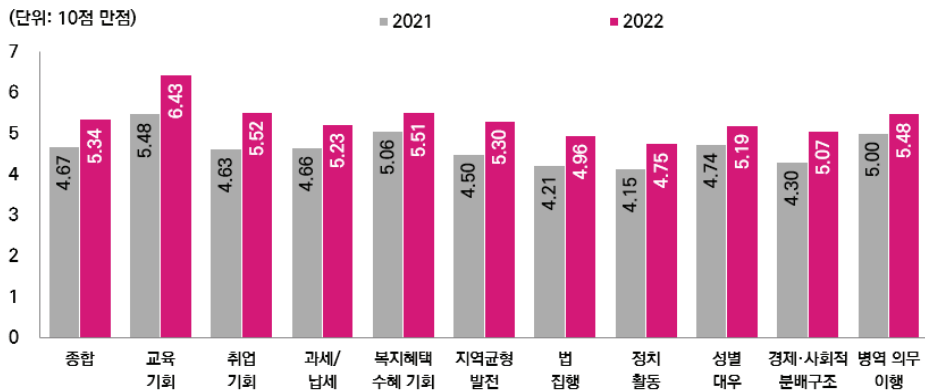
〈그림 3-279〉 항목별 친구 수용도

전년 대비 다양성 수용도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그리고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증가(각각 5.9%p, 1.0%p)하

였으며, 장애인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증가(1.1%p)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감소(5.8%p)하였으며, 새터민/난민/성소수자들을 ‘직장 동료’ 또는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크게 감소(각각 9.3%p, 13.9%p)하였다. 그리고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도 전년 대비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 공정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종합)은 평균 5.34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교육기회 공정성(6.43점), 취업 기회 공정성(5.52점), 복지혜택 수혜 기회 공정성(5.51점),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5.48점)이 평균 이상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치활동(4.75점), 법 집행(4.96점), 분배구조(5.07점), 성별 대우(5.19점), 지역균형발전(5.30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평균 이하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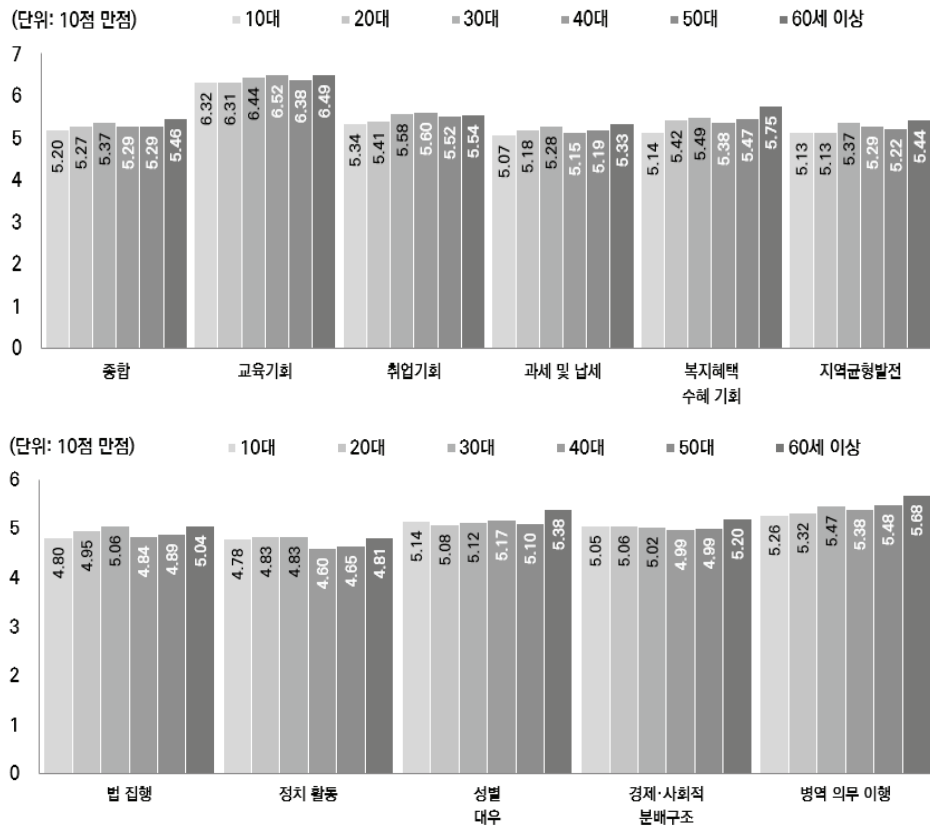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2022년); 시민조사(2021년)

〈그림 3-280〉 공정성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공정성 인식(종합)이 평균 5.46점(10점 만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대(5.37점), 40~50대(5.29점), 20대(5.27점), 10대(5.2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은 대체로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기회(6.49점), 복지혜택 수혜 기회(5.75점), 병역 의무 이행(5.68점)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리사회를 불공정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법 집행(4.80점), 과세 및 납세(5.07점), 지역

균형발전(5.13점), 복지혜택 수혜 기회(5.14점), 병역 의무 이행(5.26점), 취업기회(5.34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집단 내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60세 이상은 전체 평균에 비해 복지혜택 수혜 기회(0.24점), 병역 의무 이행(0.20점), 성별 대우(0.19점)가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10대는 복지혜택 수혜 기회(0.37점), 병역 의무 이행(0.22점), 취업 기회(0.18점)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1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 간에 대립된 의견을 보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82〉 공정성(연령별)

3. 통합성

1) 요약 및 정책 제안

사회적 도움 연결망 정도는 큰 폭으로 개선, 다만 공동체 단위의 소속감은 여전히 낮아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서울시민 비율은 12.1%로, 전년 조사 대비 14.6%p 감소하였다.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응답이 24.2%,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3.2%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낙심,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7.6%,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2.8%로 낮았다. 사회적 고립 정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조사에 서는 전년에 비해 급전적 고립(5.1%p)과 정서적 고립(2.2%p)이 증가하였다.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10점 만점)은 3.9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사회 내의 소속감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 5.07점으로 가장 높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가 4.1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전년 대비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 항목이 0.55점 상승한 반면, ‘어려운 일을 서로 잘 도움’ 항목은 0.40점 감소,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항목은 0.32점 감소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낮아졌던 시민 행복도가 회복, 평년 수준의 행복 수준 보여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2022년 6.72점으로 최근 2년 사이의 감소폭을 모두 회복한 수준을 보인다. 최근 2년 사이의 낮은 행복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 행복도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7.21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생활’(6.89점),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6.78점), ‘사회생활’(6.60점), ‘재정상태’(6.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항목의 행복지수가 증가하였는데,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 증가폭이 0.5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행복도 항목에서는 가정생활(0.44점), 재정상태(0.42점), 사회생활과 친지 및 친구 관계(각각 0.40점) 순으로 증가하였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27.9%(10점 만점에 5.07점)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41.1%(10점 만점에 5.59점)가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계층이동 가능성 항목에서도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사라진 2022년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층이동 가능성은 저연령, 고소득, 고학력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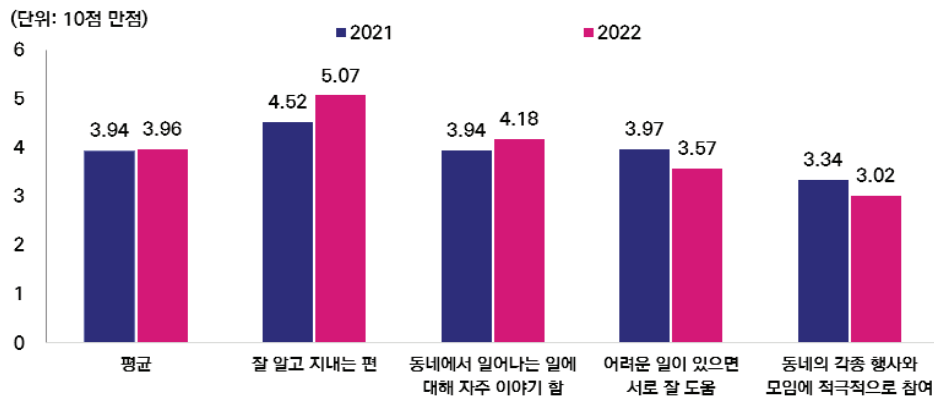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도시위험도는 2022년 5.83점으로 전년보다 0.12점 증가하였다. 시민의 37.4%가 5년 후에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1.6%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 위험인식이 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인구 집단에서 5.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행복도와 계층이동 가능성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보다 개선된 결과값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도시위험도에 대한 인식은 다소 증가하였는데, 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 시 다중위기(poly-crisis)에 직면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지역사회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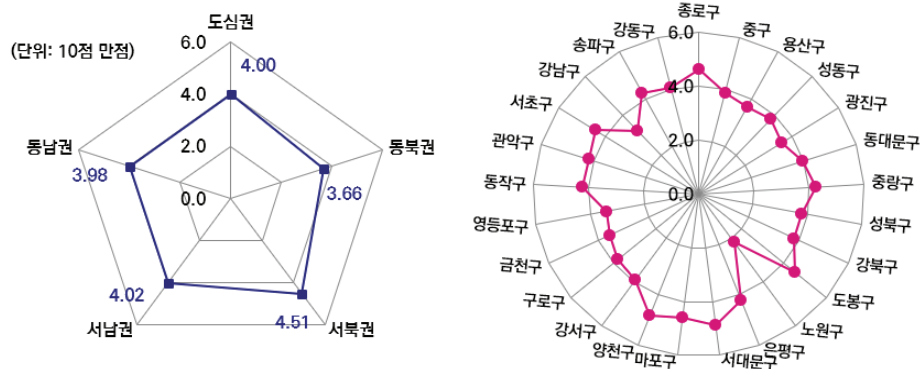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10점 만점)은 3.96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라는 응답이 5.07점으로 가장 높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4.18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는 응답이 3.57점, 그리고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3.02점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며(0.55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0.24점)는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어려운 일을 서로 돕거나’(0.40점),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0.32점)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83〉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별로는 서북권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4.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이 3.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4.87점), 양천구(4.82점), 종로구(4.62점), 마포구(4.60점)에서 지역소속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2.19점), 강남구(3.24점), 영등포구(3.39점), 금천구(3.56점), 광진구(3.5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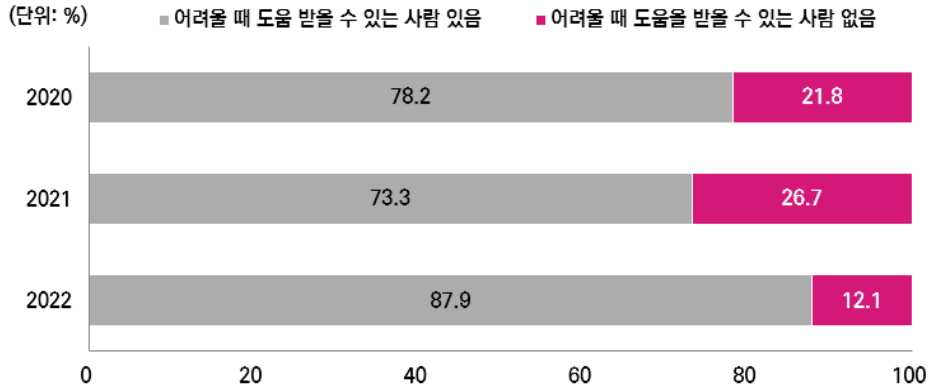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84〉 지역사회 소속감(권역별, 구별)

•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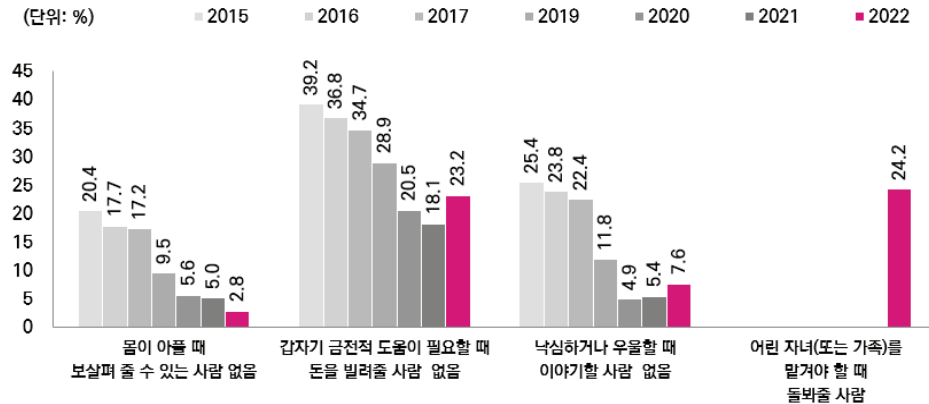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도는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없다’는 응답 비율로 측정된다. 2022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12.1%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고립도는 2021년(26.7%) 대비 14.6%p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85〉 사회적 고립도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된 항목별 고립도를 살펴보면,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24.2%)과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23.2%) 응답률이 가장 많았고, ‘낙심,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6%,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항목별 사회적 고립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2022년에 전년 대비 금전적 고립(5.1%p)과 정서적 고립(2.2%p)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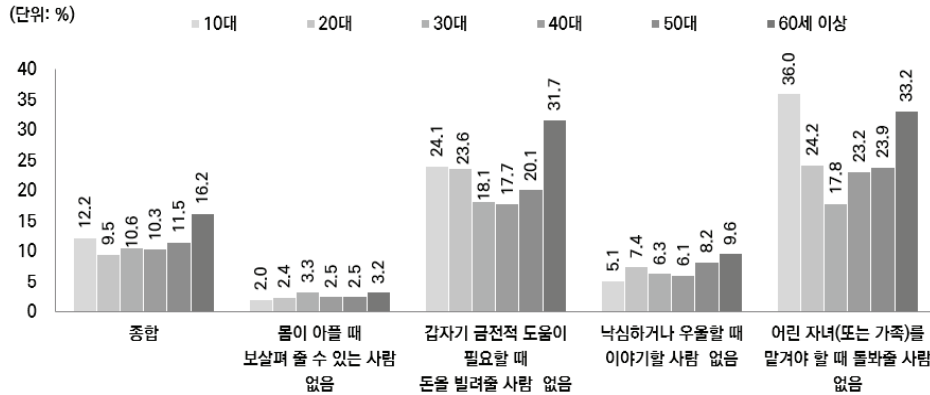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86〉 사회적 고립도(항목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종합 사회적 고립도는 60세 이상과 1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16.2%, 12.2%),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9.5%). 30~40대는 신체적 고립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금전적 고립도는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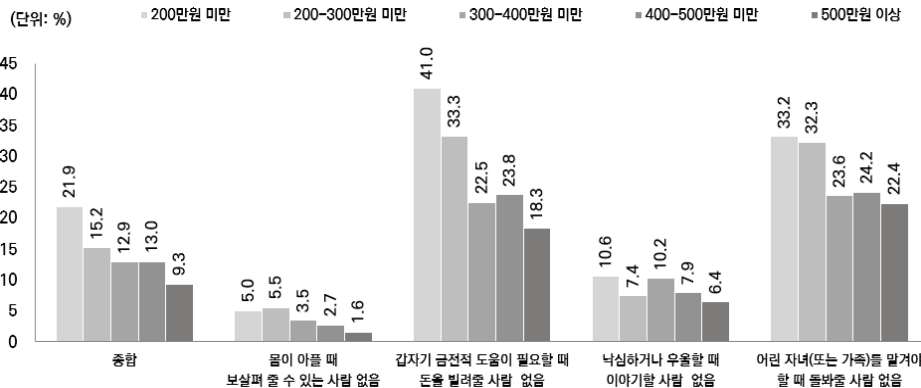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 고립도와 금전적 고립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87〉 사회적 고립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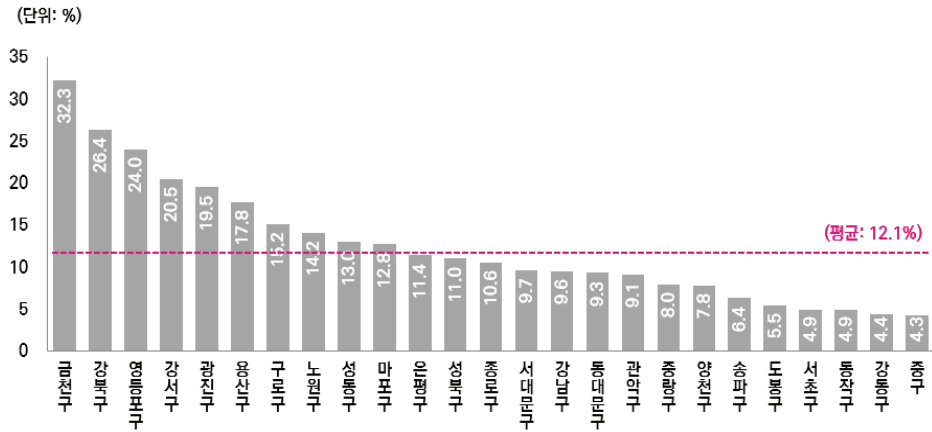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고립도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금전적 고립도가 41.0%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돌봄에 대한 고립도도 32~33%로 매우 높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88〉 사회적 고립도(소득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32.3%), 강북구(26.4%), 영등포구(24.0%), 강서구(20.5%) 등에서 종합 사회적 고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3%), 강동구(4.4%), 동작구·서초구(4.9%)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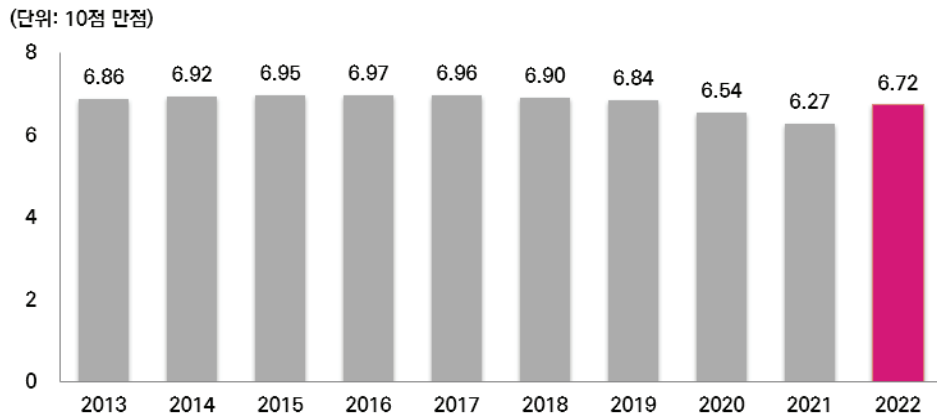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그림 3-289〉 사회적 고립도(구별)

• 행복지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2년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7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45점 증가하였다. 2013년 이후 증가하던 행복지수는 2016년(6.97점)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6.27점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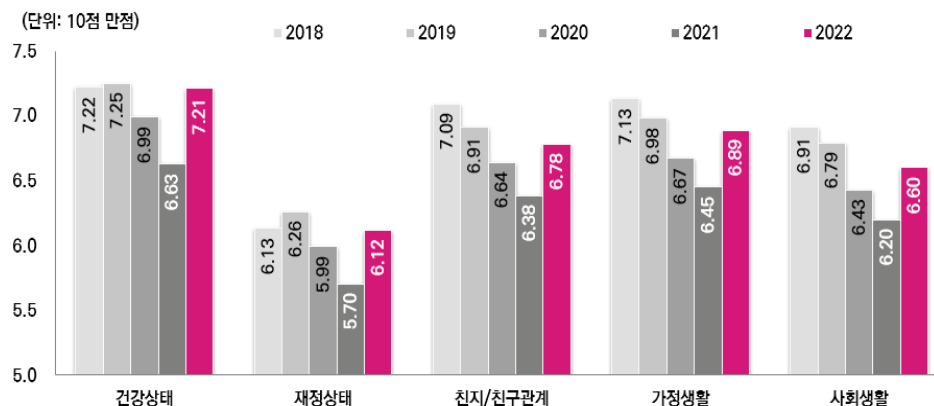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0〉 종합 행복지수

항목별로는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7.21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생활’(6.89점),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6.78점), ‘사회생활’(6.60점), ‘재정상태’(6.12점)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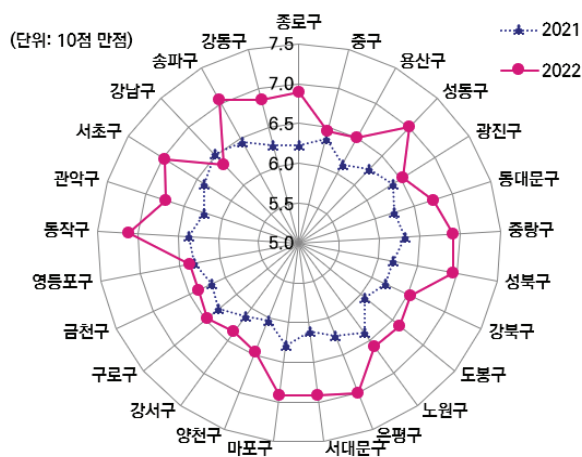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항목의 행복지수가 증가하였는데,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0.58점)하였으며, 가정생활(0.44점), 재정상태(0.42점), 사회생활과 친지 및 친구 관계(0.40점) 순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1〉 행복지수(항목별)

자치구별로는 동작구(7.11점), 송파구(7.06점), 은평구(7.01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6.35점), 강서구(6.37점), 금천구(6.37점), 영등포구(6.38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강남구(0.18점)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행복지수가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서대문구(0.81점), 은평구(0.77점), 동작구(0.75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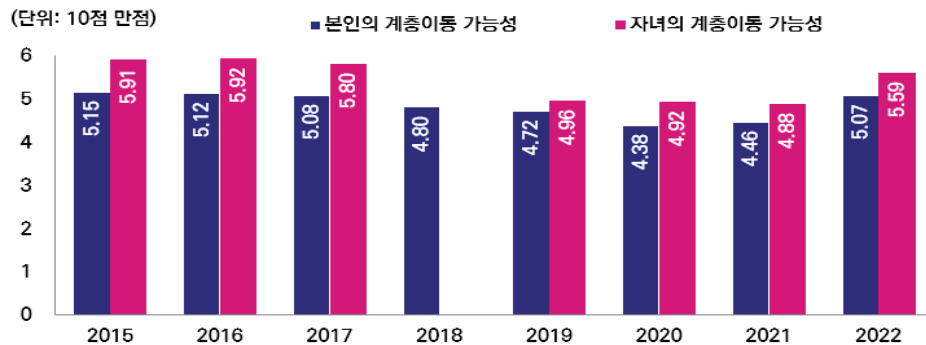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2〉 종합 행복지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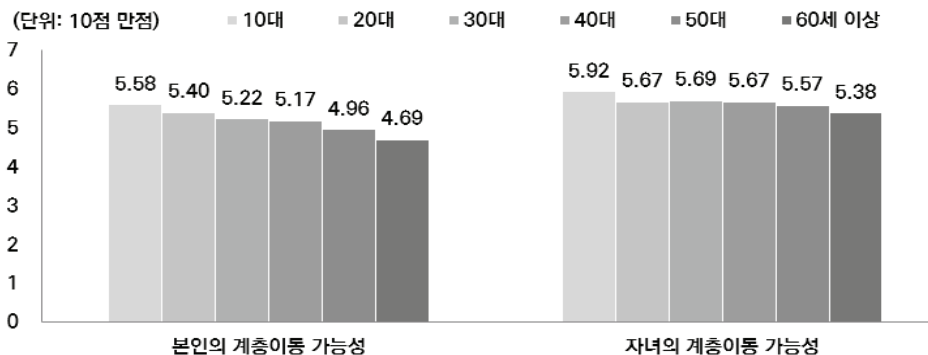
• 계층이동 가능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27.9%는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10점 만점에 5.07점)하고 있었으며, 41.1%는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10점 만점에 5.59점)하고 있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을 살펴보면,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4.4~5.2점대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4.9~5.9점대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2019~202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울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은 4점대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 5점대로 회복하였다.



주) 2018년: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비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3〉 계층이동 가능성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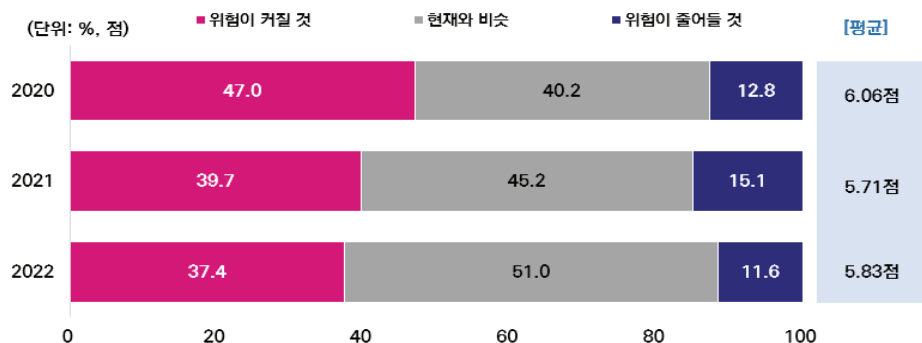
〈그림 3-294〉 계층이동 가능성(연령별)

계층이동 가능성은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4.69점,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5.38점으로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10대는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5.58점,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5.92점으로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격차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60세 이상(0.69점)이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격차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20대(0.27점)의 인식 격차가 가장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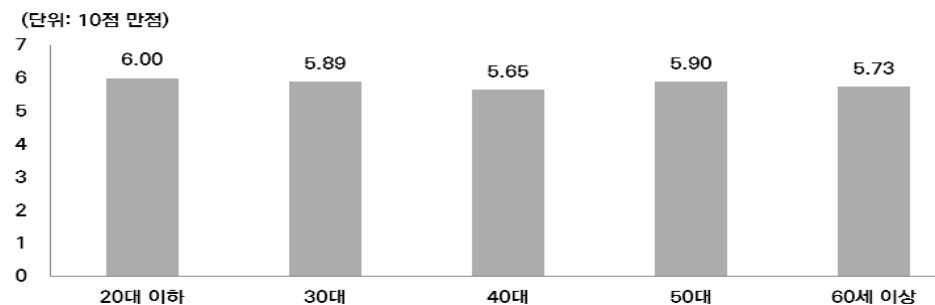
• 미래 불안 요인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도시위험도는 2022년에 5.83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12점 증가하였다. 서울시민의 37.4%가 5년 후에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11.6%가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령별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20대 이하(6.00점)에서 5년 후 위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비교적 소득과 생활이 안정적인 40대(5.6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는 50대(5.90점)와 60세 이상(5.73점)에서도 5년 후 위험 인식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295〉 5년 후 위험 정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2022

〈그림 3-296〉 5년 후 위험 정도(연령별)

[부록1]

2023 도시정책지표 정의서

1. 인구와 가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A. 인구와 가구 (10)	서울 인구 (4)	A1	총인구	•서울거주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거주 인구의 총합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2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3	고령화지수	•한 사회의 생산가능역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x100	•행정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4	순이동률	•서울시민과 청년의 순이동 인구 비율 파악	•(이동자 수/연앙인구)x100(=전입률-전출률) •(연령별 순이동자 수/연령별 연앙인구)x100(=연령별 전입률-연령별 전출률)	•행정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서울 가구 (3)	A5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6	가족다양성 분포	•다양한 가족형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부부, 부부와 미혼 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가족 분포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A11	가족 친밀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식사, 대화, 여가생활 등)에 대한 빈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서울 거주 외국인 (3)	A7	외국인 총인구	•서울거주 외국인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총합	•행정자료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서울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행정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 파악(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 경제와 노동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B. 경제와 노동 (15)	경제 활력 (6)	B1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거시경제 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 (G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1인당 GRDP,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률(신생률)= 신생기업 수/활동 기업 수×100 폐업률(소멸률)= 소멸기업 수/활동 기업 수×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B3	외국인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투자 현황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상대적 규모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금액/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사업위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사업체 (194개 대표업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의 월간 상품판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B15	서비스업 생산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13개 산업(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수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연도(2020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소득과 고용 (9)	B6	가구 소득 증가율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소득 동향 파악	•{(당해년도 근로자 가구 소득/전년도 근로자가구 소득) - 1} × 100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B8	고용률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9	실업률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10	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고용계약 형태, 근무형태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B11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보장 관련 통계	•전체 근로자(특수형태 제외)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비율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B12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연도별 변화량을 측정	•행정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시도)
		B13	구직단념자	•경기 변화와 고용시장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은 등)로 지난 4주 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행정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B16	청년 니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로, 만 15세~29세 서울시 청년의 비경제활동 특성을 조사 •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통학자'를 제외한 청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NEET): 실업자+비경제활동(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쉬었음+기타) •청년 니트 비율: $(NEET / \text{만 15~29세 청년 인구})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3.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C. 도시 생활과 주거 (15)	주거 (10)	C3	주택구입부담 지수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 가격 주택구입 시 대출상환부담 을 나타내는 지 수로, 우리나라 중간소득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연속적으로 파악 하여 주택 및 주 택금융 정책수립 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대출상환가능소 득/중간가구 소득 (월))×100	•행정자료 -한국주택금융 공사, 주택금 융통계시스템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주거비부담을 파 악할 수 있는 지표 (RIR: Rent to Income Ratio,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월 소득 대비 월 임 대료(RIR)=(월 임대 료/월 소득)×100 •월 소득 대비 월 주거 비(HCIR)=(월 임 대료+월 주거관리 비)/월 소득×100	•행정자료 -서울시, 주거 실태조사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 택 공급 현황을 알 아보기 위한 지표 로, 서울시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파 악하기 위한 지표	•(공공임대주택 수/ 전체 주택 수) ×100	•행정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C18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 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 련 정책수립의 기 초 자료로 활용	•(주택 수/인구 수) ×1,000	•행정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노후주 택 비중이 커질 수록 주택개량, 정비사업 등의 정책수요가 늘어 날 수 있음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행정자료 -통계청, 주택 총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C12	1인당 주거면적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 있음	•1인당 주거면적(㎡)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C1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평균주택가격/연평균소득	•행정자료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C16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위소득가구 구입가능 주택물량/전체주택물량) x100	•행정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C17	평균 거주기간	•해당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 거주기간 •현재 주택 거주기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스마트 도시 역량 (2)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스마트도시 수준 파악 및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실시간 도로위험 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 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스마트도시 조례 여부,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스마트 도시 격차 (3)	C9	접근성 격차	•스마트도시에서 의 디지털 포용 을 나타내는 정 보화 접근성 격 차 지표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수준(100점)- 정보취약계층의 디 지탈 접근 수준	•행정자료 -서울시 빅데 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C10	활용성 격차	•스마트도시에서 의 디지털 포용 을 나타내는 정 보화 활용 격차 지표	•서울 시민의 디지털 활용수준(100점)-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	•행정자료 -서울시 빅데 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C19	SNS 이용 현황	•서울시민의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긍 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에 대 한 인식, 스마트 폰 과의존 정도 를 파악	•SNS 이용 시간 (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와 스마 트폰 과의존 현황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4. 건강과 보건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D. 건강과 보건 (12)	건강한 삶 (7)	D1	기대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의 기대여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유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생명표(전국)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D2	주관적 건강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확인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D3	우울감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확인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D11	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률=(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명 •연령별 자살률=(특정연령의 자살자 수/특정연령의 연앙인구) × 10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D5	비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비만율을 확인하는 지표 •비만율(BMI)은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질량지수(kg/m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내 체육시설 인지 여부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지역보건 (5)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서울시 및 자치구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추정하여, 보건 및 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D6	감염병 환자 수	•지역건강과 관련 되는 지표	•서울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 감염병) 발생 신고 수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건강격차를 확인 하는 지표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총 병상 수/ 주민등록인구) × 100,000명	•행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D9	보건기관 이용률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D10	치매유병률	•지역연계모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추정치매유병률 = (추정치매환자 수/ 노인인구 수) × 100	•행정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유병현황

5. 안전과 재난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E. 안전과 재난 (10)	자연 재난 (2)	E1	풍수해·폭설 피해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강수일수 및 눈일수	•행정자료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E2	폭염·한파 피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한랭질환자 및 사망자 수 •폭염 및 한파일수	•행정자료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사회 재난 (5)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교통정책 입안 시 참고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사고 건수/(자동차 수 +이륜차수)} ×10,000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행정자료 -경찰청,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 +인명피해 수	•행정자료 -경찰청,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실화, 방화, 기타에 의한 화재 발생 총 건수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 사고를 제외한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 건수	•행정자료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E11	야간보행 안전도	•야간보행 안전도 조사	•가구원의 야간보행 안전도 및 야간보행 불안 이유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사회 안전 (3)	E8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현황 파악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행정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서울시주 민등록인구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발생원인 파악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 (신고) 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폭력 상담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피해 건수(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망사례)	•행정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발생현황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폭력 상담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E12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로, 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행정자료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전국)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 별 피해 현황

6. 환경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자동차 배출, 난방 등 연소기기 배출, 도로 비산먼지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PM10과 PM2.5의 연평균 환경기준 및 서울시 연평균 농도	•행정자료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예보/경보
		F2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F3	오존 농도	•여름철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오염물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오존 농도 및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행정자료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서울시 기후대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F4	환경소음도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환경소음도는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 정책에 활용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소음도 측정 수치	•행정자료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물 순환과 자원 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에 활용	•서울시 하천수질 측정망 25개소 중 BOD 기준 3mg/l 이하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관측소 개수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현황
		F6	불투수면적 비율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가장 지양해야 할 처리방법인 매립률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처리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 (음식품 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매립률=(매립 처리량/생활폐기물 발생량)×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처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총 폐기물 재활용률=(총 재활용량/총 발생량)×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에너지 (3)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및 열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비율을 파악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저감 정책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신재생에너지 소비량/최종에너지 소비량)×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F10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말하며, 국가감축대상으로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총배출량/서울시주민등록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F11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체감에 대한 심각도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 -가원조사

7. 교통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G. 교통 (13)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인구 만 명당 버스 전용차로 연장(중앙 버스전용차로+가로 변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 총 연장/주민등록인구)×10,000명	•행정자료 -서울시 교통운행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와 관련된 지표	•연도별 친환경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적도입대수	•행정자료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현황
		G3	도시철도 연장	•도시 간 비교지표이며, 도시의 인구 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 수준 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 공급 수준 파악	•인구 만 명당 서울시 지하철 연장=(지하철 총 연장/주민등록인구)×10,000명	•행정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G8	자전거 도로율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율 파악	•(자전거 도로/전체 도로)×100	•행정자료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현황 통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등 대체연료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등록대수)×100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행정자료 -서울시,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G11	보도 면적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보도 연장 및 면적	•행정자료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 보도현황(특별시도상)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교통 서비스 (7)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객 수	•행정자료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이용 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의 혼잡 정도	•혼잡도=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 인원	•행정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가구원 대상 주거지와 서울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공공자전거 활성화 파악	•공공자전거 도입 및 누적 대수, 이용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G12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탄소저감 등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 및 이용환경 만족도 조사	•가구원의 자전거 이용 및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주요 교통지표로, 서울시민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파악	•가구원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8. 문화와 여가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H. 문화와 여가 (12)	문화 활동과 향유 (5)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에 대한 지표	•가구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3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가구원 대상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4	종합 독서량	•대표적인 문화활동의 하나로, 시민들의 독서 실태 파악	•서울시민이 1년간 읽거나 들은 종합 독서량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행정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H11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비대면 문화활동 수요 및 여가활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OTT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이용 비율 •OTT 서비스 유료 이용 요금	•행정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문화 기반 (4)	H5	도서관 수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개소 수	•행정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H12	지역문화시설 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현황 파악	•지역문화복지시설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수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수	•행정자료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공연 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 문화 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미술 전시 횟수, 공연예술(국악, 양악, 무용, 연극, 혼합) 행사 건수	•행정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H10	문화예술 사업체 수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창작 및 예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업체,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사업체 수의 총합	•행정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여가 활동과 향유 (3)	H13	여가생활 만족도	•개인이 느끼는 여가시간 충분성과 주관적 여가생활 만족도 파악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성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서울시민들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 파악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15	여행 건수	•서울시민들의 국내외 여행 실태 조사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9. 교육과 돌봄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I. 교육과 돌봄 (13)	교육 및 보육 환경 (4)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초·중·고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 환경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I2	평생교육 참여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지난 1년간 만 25세부터 만 79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 (서울 및 광역시) •평생학습 참여율 = $\frac{[(\text{형식교육자} + \text{비형식교육자} - \text{동시참여자})]}{\text{한국의 성인 인구}} \times 100$	•행정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발원, 인실태조사(서울 및 광역시)
		I3	공공보육시설 비율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현황 파악	•공공보육시설 수 (국공립+직장+법인 보육시설 수)/전체보육시설 수 $\times 100$	•행정자료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시설(구별)
		I1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0~5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5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서울시, 복지실 태조사(2년 주기)
	사회적 약자 보호 (5)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전체 예산) $\times 100$	•행정자료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최근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 가구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복지실 태조사(2년 주기)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11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장애를 낮 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수/ 전체 장애인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현황; 내부자료 등
		112	빈곤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전국)
		1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성평등성 (4)	17	성별 임금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월 급여액/남성 월 급여액)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전국)
		19	성평등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평등지수: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110	가사노동 분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분담 정도를 통해 성차별적 역할 정도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가사노동 분담 해당자)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 정도 조사 (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18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으로 인한 이직 방지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10. 가치와 의식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J. 가치와 의식 (13)	시민성 (4)	J11	지역사회 참여율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성 정도를 파악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활동 경험에 있는 응답자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J2	자원봉사 참여율	•주인 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서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데 일조	•가구원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J3	시민자부심	•서울시민의 자부심 파악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인식 정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J13	시민 준법 의식	•서울 시민들의 준법 의식 인식을 파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가구원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J5	사회적 신뢰	•일반사람, 이웃,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수준 파악	•가구원에게 가족, 이웃, 공공기관,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J6	다양성 수용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는 있는 집단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가구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를 직장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그렇다' 응답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J12	공정성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교육, 취업, 과세, 복지, 지역균형, 법치, 정치활동, 성별, 분배, 병역 등에 대한 공정성 정도 인식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통합성 (5)	J7	지역사회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정도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8	사회적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지표로 물리적 고립감(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주관적 지표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돌봄 가족을 맡겨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주관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J10	행복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 상태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14	계층이동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정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에게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15	미래 불안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에게 현재 대비 5년 후 위험 정도 및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시민조사 가구원조사

[부록2]

2023 도시정책지표 통계표

제1장 인구와 가구

제1절 서울인구

1. 총인구

개념	서울거주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서울거주 인구의 총합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1970년	30,882,386	-	5,433,198	-	-	-	3,296,950	-
1975년	34,706,620	12.38	6,889,502	26.80	-	-	4,039,132	22.51
1980년	37,436,315	7.87	8,364,379	21.41	-	-	4,933,862	22.15
1985년	40,448,486	8.05	9,639,110	15.24	1,386,911	-	4,794,135	-2.83
1990년	43,410,899	7.32	10,612,577	10.10	1,817,919	31.08	6,155,632	28.40
1995년	44,608,726	2.76	10,231,217	-3.59	2,308,188	26.97	7,649,741	24.27
2000년	46,136,101	3.42	9,895,217	-3.28	2,475,139	7.23	8,984,134	17.44
2005년	47,278,951	2.48	9,820,171	-0.76	2,531,280	2.27	10,415,399	15.93
2010년	48,580,293	2.75	9,794,304	-0.26	2,662,509	5.18	11,379,459	9.26
2015년	51,069,375	5.12	9,904,312	1.12	2,890,451	8.56	12,479,061	9.66
2016년	51,269,554	0.39	9,805,506	-1.00	2,913,024	0.78	12,671,956	1.55
2017년	51,422,507	0.30	9,741,871	-0.65	2,925,967	0.44	12,851,601	1.42
2018년	51,629,512	0.40	9,673,936	-0.70	2,936,117	0.35	13,103,188	1.96
2019년	50,000,285	-3.16	9,249,364	-4.39	2,852,063	-2.86	12,706,105	-3.03
2020년	51,829,136	3.66	9,586,195	3.64	2,945,454	3.27	13,511,676	6.34
2021년	51,738,071	-0.18	9,472,127	-1.19	2,957,044	0.39	13,652,529	1.04
2022년	51,692,272	-0.09	9,417,469	-0.58	2,989,125	1.08	13,717,827	0.48

주: 1) 2015년 이전 5년 주기 조사, 2015년 이후 매년 조사

2) 외국인 인구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1970년	32,240,827	-	5,685,932	-	803,730	-	2,636,096	-
1975년	35,280,725	1.70	7,005,007	3.97	981,336	3.83	3,124,725	3.29
1980년	38,123,775	1.57	8,516,450	3.79	1,253,487	4.92	3,774,067	3.76
1985년	40,805,744	0.99	9,725,447	1.74	1,541,084	4.53	4,696,641	4.83
1988년	42,031,247	0.98	10,147,107	2.17	1,709,667	3.83	5,499,098	3.93
1990년	42,869,283	0.99	10,473,252	0.90	1,896,801	6.28	5,972,092	4.94
1995년	45,092,991	1.01	10,342,224	-0.41	2,333,769	4.06	7,737,864	5.19
2000년	47,008,111	0.84	10,078,434	0.42	2,522,462	1.12	9,146,445	2.81
2005년	48,184,561	0.21	10,028,631	-0.23	2,581,406	0.39	10,625,127	1.99
2010년	49,554,112	0.50	10,088,611	-0.50	2,722,990	0.86	11,618,962	1.79
2013년	50,428,893	0.46	9,990,010	-0.46	2,829,608	1.28	12,126,274	1.26
2015년	51,014,947	0.53	9,941,162	-0.34	2,882,868	0.72	12,423,017	1.14
2020년	51,836,239	0.14	9,617,795	-0.41	2,951,065	-0.04	13,452,422	1.58
2025년	51,447,504	-0.10	9,209,988	-0.66	2,959,375	0.01	14,002,605	0.72
2029년	51,250,905	-0.10	8,995,198	-0.55	2,963,661	0.04	14,348,338	0.55
2030년	51,199,019	-0.10	8,947,637	-0.53	2,964,832	0.04	14,421,123	0.51
2035년	50,868,691	-0.16	8,745,343	-0.41	2,966,631	-0.01	14,701,431	0.30
2040년	50,193,281	-0.35	8,539,824	-0.54	2,947,288	-0.22	14,790,812	0.00
2045년	49,029,906	-0.55	8,264,297	-0.74	2,896,848	-0.43	14,671,953	-0.26
2050년	47,358,532	-0.80	7,918,861	-0.92	2,813,782	-0.69	14,353,146	-0.57

주: 1)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3)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4) 1970~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5)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 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6) 인구성장률= $\ln(Pt/Po)/T \times 100$ (Po 기준연도 인구, Pt 비교연도 인구, T는 비교기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합계출산율

개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산출방법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2013년	436,455	1.187	84,066	0.968	25,560	1.195	112,129	1.226
2014년	435,435	1.205	83,711	0.983	25,786	1.212	112,169	1.241
2015년	438,420	1.239	83,005	1.001	25,491	1.216	113,495	1.272
2016년	406,243	1.172	75,536	0.940	23,609	1.144	105,643	1.194
2017년	357,771	1.052	65,389	0.836	20,445	1.007	94,088	1.069
2018년	326,822	0.977	58,074	0.761	20,087	1.006	88,175	1.002
2019년	302,676	0.918	53,673	0.717	18,522	0.940	83,198	0.943
2020년	272,337	0.837	47,445	0.642	16,040	0.829	77,737	0.878
2021년	260,562	0.808	45,531	0.626	14,947	0.778	76,139	0.853
2022년	249,186	0.778	42,602	0.593	14,464	0.747	75,323	0.839

3. 고령화지수

개념	한 사회의 생산가능역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013년	16.3	81.5	14.3	86.0	12.7	63.6	12.8	58.6
2014년	16.9	87.0	15.1	93.6	13.3	68.5	13.3	62.7
2015년	17.5	93.0	16.0	101.7	14.0	73.9	13.9	67.6
2016년	18.0	98.4	16.6	108.3	14.4	78.4	14.3	71.9
2017년	18.8	105.1	17.5	117.2	15.2	84.5	14.9	76.8
2018년	19.6	111.7	18.4	126.8	16.0	90.6	15.5	81.8
2019년	20.4	119.2	19.3	137.0	16.8	98.0	16.2	87.6
2020년	21.8	129.3	20.6	149.4	18.2	108.0	17.3	95.5
2021년	23.1	139.5	22.0	163.4	19.6	118.3	18.4	103.2
2022년	24.6	152.0	23.4	179.5	20.9	129.5	19.6	113.1

주: 1)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3)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4) 1970~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5)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과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6) 노년부양비: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100, 고령화지수: (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

4. 순이동률

개념	서울시민과 청년의 순이동 인구 비율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전입률-전출률) • (연령별 이동자 수/연령별 연앙인구)×100 (=연령별 전입률-연령별 전출률)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단위: %)

연도	서울			인천			경기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2013년	15.2	16.2	-1.0	16.3	15.5	0.8	15.7	15.1	0.6
2014년	15.8	16.7	-0.9	15.8	15.5	0.3	15.5	15.0	0.5
2015년	16.0	17.4	-1.4	16.4	16.1	0.3	16.2	15.4	0.8
2016년	15.4	16.9	-1.4	15.2	15.0	0.2	15.7	14.6	1.1
2017년	15.1	16.2	-1.0	14.0	14.1	-0.1	14.9	14.0	0.9
2018년	14.9	16.1	-1.1	14.8	14.8	0.0	15.9	14.6	1.3
2019년	14.9	15.4	-0.5	14.3	14.4	-0.1	14.9	13.8	1.0
2020년	16.6	17.2	-0.7	15.2	15.8	-0.5	16.3	15.0	1.3
2021년	15.0	16.1	-1.1	14.8	14.4	0.4	15.2	14.1	1.1
2022년	12.8	13.2	-0.4	13.4	12.5	1.0	12.2	11.9	0.3

주: 1) 이동률: 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2) 전입률: 전입자 수/연앙인구×100, 전출률: 전출자 수/연앙인구×100

3) 순이동률: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전입률-전출률)

4)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서울시 연령별]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	-0.9	-1.4	-1.4	-1.0	-1.1	-0.5	-0.7	-1.1	-0.4
0-4세	-3.5	-3.3	-4.0	-4.4	-3.8	-4.7	-3.2	-3.2	-3.6	-3.0
5-9세	-1.3	-1.2	-1.7	-2.0	-1.5	-2.0	-0.9	-1.2	-1.6	-0.9
10-14세	-0.4	-0.3	-0.6	-0.8	-0.5	-0.8	-0.2	-0.4	-0.8	-0.2
15-19세	0.0	0.4	0.1	0.1	0.5	0.6	1.1	0.8	0.5	2.0
20-24세	2.3	2.7	2.1	2.5	3.1	3.6	4.4	4.4	4.1	6.0
25-29세	0.7	1.1	0.4	0.7	1.4	2.0	2.4	2.1	1.2	2.3
30-34세	-2.6	-2.4	-2.9	-2.9	-2.1	-2.3	-1.5	-1.5	-2.8	-1.7
35-39세	-2.2	-2.1	-2.9	-3.0	-2.5	-3.2	-2.2	-2.4	-3.0	-2.2
40-44세	-1.2	-1.2	-1.6	-1.8	-1.5	-2.0	-1.3	-1.6	-2.0	-1.3
45-49세	-1.0	-0.9	-1.3	-1.5	-1.2	-1.4	-1.0	-1.2	-1.5	-1.0
50-54세	-1.1	-1.0	-1.5	-1.6	-1.4	-1.5	-1.2	-1.3	-1.6	-1.1
55-59세	-1.4	-1.3	-1.8	-1.9	-1.6	-1.7	-1.3	-1.4	-1.7	-1.3
60-64세	-1.5	-1.4	-2.1	-2.1	-1.8	-1.8	-1.2	-1.4	-1.7	-1.2
65-69세	-1.4	-1.4	-1.9	-2.0	-1.7	-1.7	-1.2	-1.4	-1.5	-1.1
70-74세	-1.2	-1.3	-1.8	-1.7	-1.5	-1.5	-1.0	-1.2	-1.3	-0.9
75-79세	-1.2	-1.1	-1.5	-1.5	-1.3	-1.4	-0.9	-1.2	-1.2	-0.8
80세 이상	-0.8	-0.9	-1.2	-1.3	-1.2	-1.5	-1.0	-1.1	-1.5	-1.1

[서울시 자치구별]

(단위: %)

구분		총이동률		시·도내 이동률			시·도간 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시군구내 이동률	시군구간 이동률	시도간 전입률	시도간 전출률	
		전입률	전출률						
2013년		15.2	16.2	-1.0	4.7	5.8	5.8	4.7	5.7
2014년		15.8	16.7	-0.9	5.0	6.0	6.0	4.8	5.7
2015년		16.0	17.4	-1.4	5.3	6.1	6.1	4.6	6.0
2016년		15.4	16.9	-1.4	5.0	5.9	5.9	4.6	6.1
2017년		15.1	16.2	-1.0	4.7	5.8	5.8	4.7	5.7
2018년		14.9	16.1	-1.1	4.5	5.7	5.7	4.8	5.9
2019년		14.9	15.4	-0.5	4.2	5.7	5.7	5.0	5.5
2020년		16.6	17.2	-0.7	4.7	6.5	6.5	5.3	6.0
2021년		15.0	16.1	-1.1	4.1	6.0	6.0	4.9	6.0
2022년		12.8	13.2	-0.4	3.2	5.0	5.0	4.6	5.0
구 별	종로구	13.6	14.6	-1.0	1.7	6.5	8.0	5.3	4.9
	중구	14.0	14.7	-0.6	2.0	6.9	7.9	5.2	4.8
	용산구	14.4	15.0	-0.6	2.7	6.6	7.1	5.0	5.2
	성동구	12.2	13.6	-1.4	2.3	5.5	6.8	4.4	4.4
	광진구	13.7	14.1	-0.4	3.4	5.3	5.7	5.0	4.9
	동대문구	13.3	13.0	0.3	2.8	5.6	5.5	5.0	4.7
	종랑구	11.8	11.8	0.0	3.8	4.6	3.7	3.3	4.3
	성북구	12.4	11.9	0.5	3.0	5.2	4.9	4.2	4.0
	강북구	10.6	11.7	-1.1	3.1	4.5	4.8	3.0	3.8
	도봉구	9.2	10.4	-1.1	2.7	3.8	3.8	2.7	3.9
	노원구	9.6	10.6	-1.0	2.7	3.4	3.6	3.5	4.3
	은평구	12.0	12.8	-0.8	4.2	4.1	3.5	3.6	5.1
	서대문구	14.4	13.2	1.2	2.7	6.5	5.8	5.2	4.8
	마포구	13.7	14.4	-0.7	2.9	5.7	6.3	5.1	5.1
	양천구	10.1	11.2	-1.1	2.7	4.3	4.2	3.1	4.2
	강서구	12.4	13.0	-0.6	3.6	4.3	3.8	4.5	5.6
	구로구	11.4	11.5	-0.1	2.5	4.3	3.7	4.5	5.3
	금천구	13.2	13.3	-0.1	3.1	4.4	3.9	5.7	6.3
	영등포구	14.4	14.5	-0.1	2.7	6.1	6.2	5.6	5.6
	동작구	14.1	14.9	-0.9	2.8	5.7	6.5	5.6	5.6
	관악구	18.1	17.4	0.7	4.3	5.4	6.2	8.3	6.9
	서초구	12.7	14.2	-1.5	3.1	5.4	6.2	4.1	4.8
	강남구	14.4	14.7	-0.3	3.7	5.7	5.8	5.1	5.2
	송파구	13.5	13.2	0.3	4.0	4.8	4.1	4.7	5.1
	강동구	12.1	12.4	-0.3	4.1	4.2	3.4	3.8	4.9

제2절 서울가구

1. 1인가구 비율

개념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국]

(단위: 가구, %, 순위)

2022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순위
전국	21,773,507	7,502,350	34.5	-
서울	4,098,818	1,564,187	38.2	2
부산	1,447,825	511,745	35.3	10
대구	1,010,834	341,667	33.8	11
인천	1,212,731	376,392	31.0	15
광주	623,252	221,464	35.5	9
대전	646,474	249,006	38.5	1
울산	453,998	137,096	30.2	17
세종	154,019	50,561	32.8	14
경기	5,406,963	1,634,147	30.2	16
강원	684,895	254,441	37.2	3
충북	704,864	260,948	37.0	4
충남	931,370	340,741	36.6	7
전북	777,680	284,613	36.6	6
전남	784,645	283,429	36.1	8
경북	1,166,306	430,969	37.0	5
경남	1,392,608	468,772	33.7	12
제주	276,225	92,172	33.4	13

[수도권별]

(단위: 가구,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2015년	5,203,440	27.2	1,115,744	29.5	243,678	23.3	1,026,471	23.4
2016년	5,397,615	27.9	1,138,860	30.1	254,076	23.9	1,067,916	23.8
2017년	5,618,677	28.6	1,180,540	31.0	266,434	24.7	1,124,541	24.4
2018년	5,848,594	29.3	1,229,421	32.0	275,898	25.2	1,197,586	25.2
2019년	6,147,516	30.2	1,299,787	33.4	297,865	26.6	1,290,893	26.3
2020년	6,643,354	31.7	1,390,701	34.9	324,841	28.3	1,406,010	27.6
2021년	7,165,788	33.4	1,489,893	36.8	355,657	30.0	1,543,100	29.2
2022년	7,502,350	34.5	1,564,187	38.2	376,392	31.0	1,634,147	30.2

[서울시 연령별]

(단위: %)

연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15년	29.5	75.6	36.9	20.7	17.9	20.9	30.7
2016년	30.1	77.5	37.5	20.8	18.0	21.7	31.0
2017년	31.0	77.7	38.7	21.5	18.6	22.6	31.1
2018년	32.0	78.3	40.3	22.2	18.9	23.3	31.4
2019년	33.4	79.2	42.6	23.0	19.5	24.0	32.1
2020년	34.9	79.9	45.1	24.0	20.2	25.2	32.9
2021년	36.8	81.3	48.5	25.4	21.4	26.7	34.1
2022년	38.2	82.8	51.3	26.5	22.0	27.4	34.7

[서울시 자치구별]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2015년		3,784,490	1,115,744	29.5
2016년		3,784,705	1,138,860	30.1
2017년		3,813,260	1,180,540	31.0
2018년		3,839,766	1,229,421	32.0
2019년		3,896,389	1,299,787	33.4
2020년		3,982,290	1,390,701	34.9
2021년		4,046,799	1,489,893	36.8
2022년		4,098,818	1,564,187	38.2
구 별	종로구	64,422	28,424	44.1
	중구	56,260	25,247	44.9
	용산구	98,483	41,437	42.1
	성동구	122,873	46,548	37.9
	광진구	156,463	69,391	44.3
	동대문구	155,912	68,169	43.7
	종량구	170,544	64,334	37.7
	성북구	183,972	67,222	36.5
	강북구	131,275	51,134	39.0
	도봉구	128,975	39,744	30.8
	노원구	205,078	63,022	30.7
	은평구	196,206	65,769	33.5
	서대문구	136,043	54,288	39.9
	마포구	165,603	70,030	42.3
	양천구	169,344	45,502	26.9
	강서구	254,540	100,695	39.6
	구로구	169,228	58,977	34.9
	금천구	110,689	50,528	45.6
	영등포구	172,104	73,962	43.0
	동작구	172,696	71,782	41.6
	관악구	260,075	145,433	55.9
	서초구	154,471	46,745	30.3
	강남구	212,499	73,579	34.6
	송파구	263,448	82,473	31.3
	강동구	187,615	59,752	31.8

2. 가족다양성 분포

개념	다양한 가족형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가족 분포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구총조사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세대구성별 가구]

(단위: 가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가구		3,784,705	3,813,260	3,839,766	3,896,389	3,982,290	4,046,799	4,098,818
1세대 가구	계	15.8	16.1	16.3	16.6	16.7	16.8	16.8
	부부	13.4	13.7	13.9	14.1	14.3	14.4	14.4
	부부+미혼형제자매	0.1	0.1	0.1	0.1	0.1	0.1	0.1
	부부+기타 친인척	0.0	0.0	0.0	0.0	0.0	0.0	0.0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6	1.6	1.6	1.7	1.7	1.7	1.7
	가구주+기타 친인척	0.1	0.1	0.1	0.1	0.1	0.1	0.1
	기타	0.5	0.5	0.5	0.5	0.5	0.5	0.5
2세대 가구	계	47.7	46.6	45.3	43.9	42.5	40.6	39.3
	부부+미혼자녀	31.9	31.1	30.1	29.1	28.3	27.0	26.0
	부+미혼자녀	2.4	2.3	2.3	2.2	2.1	2.0	2.0
	모+미혼자녀	8.0	7.9	7.8	7.6	7.4	7.2	7.0
	부부+양친	0.1	0.1	0.1	0.1	0.1	0.1	0.1
	부부+한부모	0.4	0.4	0.4	0.4	0.4	0.4	0.4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0.4	0.4	0.4	0.4	0.3	0.3	0.3
	조부모+미혼손자녀	0.2	0.2	0.2	0.2	0.2	0.2	0.2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0.3	0.3	0.3	0.3	0.3	0.3	0.3
	기타	3.9	3.8	3.8	3.7	3.3	3.2	3.1
3세대 가구	계	4.8	4.6	4.3	4.0	3.6	3.3	3.1
	부부+미혼자녀+양친	0.6	0.5	0.5	0.5	0.4	0.4	0.3
	부부+미혼자녀+부친	0.4	0.4	0.3	0.3	0.3	0.3	0.3
	부부+미혼자녀+모친	1.8	1.7	1.6	1.5	1.3	1.2	1.1
	기타	2.0	2.0	1.8	1.7	1.6	1.4	1.4
4세대 이상 가구		0.04	0.03	0.03	0.03	0.02	0.02	0.0
1인가구		30.1	31.0	32.0	33.4	34.9	36.8	38.2
비친족가구		1.6	1.8	2.0	2.2	2.3	2.5	2.6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단위: %)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년	16.3	17.0	21.7	32.1	12.9
2001년	17.5	17.6	21.7	31.1	12.0
2002년	18.5	18.2	21.7	30.3	11.3
2003년	19.4	18.7	21.7	29.5	10.6
2004년	20.3	19.2	21.7	28.8	10.0
2005년	20.5	20.1	22.1	27.8	9.5
2006년	21.3	20.4	22.2	27.0	9.1
2007년	22.1	20.8	22.3	26.1	8.7
2008년	22.9	21.2	22.3	25.2	8.3
2009년	23.7	21.6	22.4	24.3	8.0
2010년	24.7	22.0	22.4	23.1	7.7
2011년	25.3	22.4	22.5	22.4	7.4
2012년	26.0	22.8	22.5	21.5	7.1
2013년	26.6	23.2	22.6	20.8	6.8
2014년	27.3	23.6	22.7	20.0	6.5
2015년	29.5	24.5	21.6	18.6	5.8
2016년	30.1	24.5	21.6	18.2	5.6
2017년	30.9	25.0	21.4	17.5	5.2
2018년	31.7	25.4	21.2	16.7	4.9
2019년	32.4	25.9	21.1	16.0	4.6
2020년	34.4	25.9	20.1	15.3	4.2
2021년	36.1	26.1	19.4	14.5	3.8
2022년	36.7	26.5	19.3	13.9	3.7
2023년	37.1	26.9	19.1	13.4	3.5
2024년	37.5	27.3	19.0	12.8	3.3
2025년	37.9	27.7	18.8	12.3	3.2
2026년	38.2	28.2	18.7	11.9	3.1
2027년	38.4	28.6	18.6	11.4	2.9
2028년	38.7	29.0	18.5	11.0	2.8
2029년	38.8	29.3	18.5	10.7	2.7
2030년	39.0	29.7	18.4	10.3	2.6
2031년	39.1	30.1	18.3	9.9	2.5
2032년	39.3	30.5	18.3	9.6	2.4
2033년	39.4	30.8	18.2	9.3	2.3
2034년	39.5	31.1	18.1	9.0	2.3
2035년	39.7	31.4	18.0	8.7	2.2
2036년	39.8	31.7	17.9	8.5	2.1
2037년	40.0	32.0	17.8	8.2	2.1
2038년	40.1	32.3	17.7	8.0	2.0
2039년	40.2	32.6	17.5	7.7	1.9
2040년	40.4	32.8	17.4	7.5	1.9
2041년	40.5	33.1	17.3	7.3	1.8
2042년	40.6	33.4	17.2	7.1	1.7
2043년	40.6	33.7	17.1	6.9	1.7
2044년	40.6	34.0	17.0	6.7	1.6
2045년	40.7	34.3	17.0	6.5	1.6
2046년	40.7	34.6	16.9	6.3	1.5
2047년	40.7	34.8	16.9	6.1	1.5
2048년	40.7	35.1	16.8	6.0	1.4
2049년	40.7	35.3	16.8	5.8	1.4
2050년	40.8	35.5	16.7	5.7	1.3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 가족 친밀성

개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식사, 대화, 여가생활 등)에 대한 빈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가족과 식사	자녀-부모와 대화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와 대화	부부/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가족과 여가생활
2019년		5.53	6.79	5.91	5.13	5.17	4.91
2020년		5.53	6.70	5.86	5.16	5.12	4.95
2021년		5.56	6.56	5.92	5.22	5.16	5.03
2022년		5.67	6.97	5.94	5.11	5.28	5.06
연령 별	10대	6.02	7.24	6.14	3.33	5.48	5.17
	20대	5.62	6.50	5.99	5.40	5.22	4.86
	30대	5.91	7.07	6.10	5.62	5.53	5.41
	40대	5.98	7.34	6.27	5.42	5.56	5.41
	50대	5.74	7.09	5.93	5.30	5.32	5.24
	60대	5.61	7.17	5.78	5.07	5.27	5.00
	70대 이상	4.80	6.35	5.33	4.07	4.43	4.09
가구 별	1인 가구	4.65	5.34	5.20	4.16	4.58	4.12
	2인 가구	5.68	7.26	5.81	5.00	5.24	5.05
	3인 가구	6.06	7.43	6.29	5.43	5.58	5.37
	4인 이상 가구	5.98	7.21	6.23	5.38	5.48	5.38
소득 별	200만원 미만	4.12	5.51	4.58	3.63	4.05	3.29
	200~300만원 미만	5.12	6.23	5.55	4.69	4.74	4.51
	300~400만원 미만	5.66	6.91	5.90	5.10	5.37	5.13
	400~500만원 미만	5.79	7.17	5.96	5.25	5.38	5.19
	500만원 이상	6.02	7.30	6.25	5.44	5.54	5.40
직업 별	관리전문직	5.36	6.31	5.56	5.21	5.13	4.85
	화이트칼라	5.86	7.12	6.08	5.43	5.44	5.33
	블루칼라	5.54	6.93	5.83	5.06	5.15	4.93
	학생	5.96	6.99	6.19	6.16	5.53	5.12
	무직	4.91	6.29	5.43	4.16	4.53	4.10
기타		5.78	7.32	6.09	5.04	5.36	5.17
권역 별	도심권	5.62	6.99	5.86	5.22	5.24	4.90
	동북권	6.07	7.33	6.39	5.51	5.67	5.41
	서북권	5.64	7.26	5.90	5.10	5.02	5.05
	서남권	5.39	6.56	5.67	4.74	5.03	4.85
	동남권	5.54	6.87	5.73	5.04	5.22	4.90

주) 평균값 환산 기준: 항상 한다 10점, 거의 안 한다 0점

제3절 서울 거주 외국인

1. 외국인 총인구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총합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단위: 명, %)

구분	계	한국인	등록외국인	등록외국인 비중
2013년	10,388,055	10,143,645	244,410	2.4
2014년	10,369,593	10,103,233	266,360	2.6
2015년	10,297,138	10,022,181	274,957	2.7
2016년	10,204,057	9,930,616	273,441	2.7
2017년	10,124,579	9,857,426	267,153	2.6
2018년	10,049,607	9,765,623	283,984	2.8
2019년	10,010,983	9,729,107	281,876	2.8
2020년	9,911,088	9,668,465	242,623	2.4
2021년	9,736,027	9,509,458	226,569	2.3
2022년	9,667,669	9,428,372	239,297	2.5
구 별	종로구	152,211	141,379	7.1
	중구	130,785	120,437	7.9
	용산구	233,284	218,650	6.3
	성동구	288,234	281,000	2.5
	광진구	351,252	337,416	3.9
	동대문구	353,601	336,644	4.8
	중랑구	390,140	385,318	1.2
	성북구	441,984	430,397	2.6
	강북구	297,702	293,660	1.4
	도봉구	313,989	311,694	0.7
	노원구	508,014	503,734	0.8
	은평구	470,602	466,746	0.8
	서대문구	319,554	306,337	4.1
	마포구	375,585	364,638	2.9
	양천구	444,010	440,881	0.7
	강서구	574,638	569,166	1.0
	구로구	418,418	395,315	5.5
	금천구	242,818	229,642	5.4
	영등포구	398,085	375,675	5.6
	동작구	390,432	380,596	2.5
	관악구	501,226	486,752	2.9
	서초구	408,451	404,325	1.0
	강남구	534,103	529,102	0.9
	송파구	664,514	658,801	0.9
	강동구	464,037	460,067	0.9

출처)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전국 대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중]

(단위: 명, %)

연도	등록외국인		
	전국	서울	전국 대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중
2013년	985,923	244,410	24.8
2014년	1,091,531	266,360	24.4
2015년	1,143,087	274,957	24.1
2016년	1,161,677	273,441	23.5
2017년	1,171,762	267,153	22.8
2018년	1,246,626	283,984	22.8
2019년	1,271,807	281,876	22.2
2020년	1,145,540	242,623	21.2
2021년	1,093,891	226,569	20.7
2022년	1,189,585	239,297	20.1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성별]

(단위: 명, %)

연도	합계	남자		여자	
		계	%	계	%
2013년	244,410	118,482	48.5	125,928	51.5
2014년	266,360	129,245	48.5	137,115	51.5
2015년	274,957	132,607	48.2	142,350	51.8
2016년	273,441	130,590	47.8	142,851	52.2
2017년	267,153	127,651	47.8	139,502	52.2
2018년	283,984	136,950	48.2	147,034	51.8
2019년	281,876	133,666	47.4	148,210	52.6
2020년	242,623	114,799	47.3	127,824	52.7
2021년	226,569	103,937	45.9	122,632	54.1
2022년	239,297	105,512	44.1	133,785	55.9

출처)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연령]

(단위: 명, %)

연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
2013년	16,443	6.7	62,130	25.4	48,760	20.0	53,038	21.7	50,660	20.7	13,379	5.5
2014년	19,544	7.3	63,173	23.7	51,204	19.2	55,653	20.9	62,550	23.5	14,236	5.3
2015년	22,726	8.3	65,090	23.7	52,054	18.9	52,877	19.2	66,433	24.2	15,777	5.7
2016년	26,662	9.8	67,048	24.5	51,441	18.8	48,446	17.7	62,644	22.9	17,200	6.3
2017년	27,604	10.3	68,427	25.6	52,443	19.6	45,324	17.0	57,510	21.5	15,845	5.9
2018년	28,381	10.0	74,390	26.2	53,890	19.0	46,028	16.2	63,701	22.4	17,594	6.2
2019년	29,219	10.4	77,151	27.4	52,619	18.7	43,166	15.3	60,152	21.3	19,569	6.9
2020년	23,540	9.7	64,458	26.6	48,103	19.8	36,365	15.0	50,520	20.8	19,637	8.1
2021년	22,027	9.7	63,519	28.0	44,919	19.8	32,053	14.1	45,774	20.2	18,277	8.1
2022년	23,228	9.7	76,783	32.1	45,281	18.9	31,668	13.2	41,523	17.4	20,814	8.7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2.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외국인 출신 국적]

(단위: 명, %)

2022년	전체		남자	여자
	계	비율		
총합계	239,297	100.0	105,512	133,785
한국계중국인	71,158	29.7	38,377	32,781
중국	56,258	23.5	19,574	36,684
베트남	21,684	9.1	7,983	13,701
미국	11,079	4.6	5,461	5,618
일본	9,822	4.1	2,320	7,502
몽골	7,834	3.3	3,010	4,824
타이완	7,588	3.2	3,328	4,260
필리핀	3,446	1.4	919	2,527
프랑스	3,159	1.3	1,478	1,681
우즈베키스탄	3,031	1.3	1,958	1,073
러시아(연방)	2,768	1.2	774	1,994
인도	2,672	1.1	1,577	1,095
타이	2,220	0.9	570	1,650
독일	2,060	0.9	876	1,184
영국	2,005	0.8	1,106	899
네팔	1,768	0.7	1,136	632
인도네시아	1,735	0.7	635	1,100
캐나다	1,649	0.7	972	677
말레이시아	1,599	0.7	789	810
기타	25,762	10.8	12,669	13,093

[중국국적 외국인]

(단위: 명, %)

연도	합계	비율	한국계 중국인		중국	
			계	비율	계	비율
2017년	180,716	67.6	114,687	42.9	66,029	24.7
2018년	190,060	66.9	124,250	43.8	65,810	23.2
2019년	181,690	64.5	115,637	41.0	66,053	23.4
2020년	149,620	61.7	94,744	39.0	54,876	22.6
2021년	129,120	57.0	79,337	35.0	49,783	22.0
2022년	127,416	53.2	71,158	29.7	56,258	23.5

[외국인 체류자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44,410	266,360	274,957	273,441	267,153	283,984	281,876	242,623	226,569	239,297
방문취업	84,616	97,308	96,194	83,172	71,327	80,127	70,387	45,436	36,308	29,506
영주	40,644	43,916	45,751	46,439	46,657	46,466	47,606	47,720	47,550	47,555
유학	21,128	22,448	25,531	30,056	35,041	40,746	45,477	37,840	39,590	50,855
결혼이민	23,203	22,605	21,785	21,188	20,904	20,830	21,180	21,130	20,707	20,986
방문동거	15,330	15,535	17,605	20,540	20,831	21,284	20,554	16,912	14,114	13,296
일반연수	8,914	10,490	13,302	16,376	16,002	16,515	16,604	13,437	13,616	16,865
거주	12,263	12,433	12,429	12,421	12,294	12,153	12,717	12,609	12,609	11,866
동반	7,839	7,757	7,952	7,996	7,853	7,465	7,358	6,443	6,437	6,824
특정활동	7,392	7,494	7,898	7,965	7,225	7,106	6,740	5,722	5,981	6,359
회화강사	4,690	4,338	3,960	3,845	3,550	3,294	3,458	3,270	3,533	3,873
비전문취업	4,938	4,964	4,457	3,365	3,553	3,400	3,442	3,183	2,684	2,716
기업투자	3,274	3,234	3,217	3,164	3,071	2,995	2,957	2,630	2,661	2,831
구직	1,664	2,078	2,395	2,536	2,871	2,848	2,368	3,040	2,854	3,660
관광취업	1,256	1,386	1,306	1,478	1,758	2,164	2,294	648	192	1,580
교수	919	927	878	840	806	766	697	636	613	589
연구	576	597	616	663	690	688	683	665	805	926
주재	812	754	755	746	730	693	682	550	535	582
예술흥행	467	504	497	522	561	557	648	725	1,012	1,471
전문직업	591	573	525	532	522	511	515	307	217	214
종교	565	603	565	624	637	511	456	341	350	362
무역경영	964	852	603	525	400	430	385	322	359	345
취재	83	85	87	86	76	91	86	103	121	134
기술지도	54	53	64	57	52	57	70	69	49	56
기술연수	59	55	55	45	45	44	43	40	40	38
문화예술	34	38	39	34	40	35	31	19	29	19
선원취업	7	4	6	2	4	3	2	2	4	2
기타	2,128	5,329	6,485	8,224	9,653	12,205	14,436	18,824	14,595	15,787

3.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서울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 파악(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기타
2013년		6.86	7.32	6.55	-	6.81	-	-	-
2014년		6.97	7.60	6.58	-	7.12	-	-	-
2015년		7.23	7.62	6.63	7.61	7.15	7.00	7.40	-
2016년		6.52	6.83	6.55	6.36	6.29	6.07	6.76	-
2017년		6.86	7.13	7.01	6.68	6.57	6.61	7.15	4.65
2018년		6.89	7.26	6.82	6.82	6.61	6.64	7.21	4.40
2019년		6.90	6.55	7.19	6.96	6.75	6.88	7.06	-
2020년		6.96	6.90	7.10	6.91	6.65	6.91	7.26	-
2021년		7.00	7.14	6.80	6.86	6.62	7.05	7.51	-
2022년		6.91	6.72	6.82	7.06	6.59	6.96	7.30	-
국 적 별	한국계 중국인	6.61	6.46	6.59	6.77	5.98	6.56	7.31	-
	중국	6.85	6.95	6.54	6.67	6.61	6.88	7.46	-
	일본	6.63	6.21	6.22	7.07	6.45	6.75	7.06	-
	타이완	7.22	7.09	6.86	7.08	7.31	7.52	7.49	-
	베트남	6.90	6.59	6.77	6.87	7.05	7.22	6.91	-
	아시아 기타	7.24	7.25	7.29	7.15	7.01	7.30	7.42	-
	미국	7.15	6.93	7.40	7.63	6.42	7.03	7.52	-
	영미권 기타	7.02	6.16	7.18	8.09	7.01	6.85	6.84	-
	유럽권	7.00	6.77	6.70	7.17	6.61	7.24	7.49	-
	기타	6.97	6.97	7.02	6.84	6.40	7.06	7.55	-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2) 2018년 이전 조사: 세부 문항 차이로 연도별 비교 시 주의 필요

제2장 경제와 노동

제1절 경제활력

1. 지역내총생산

개념	서울의 거시경제 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GRDP)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인당 GRDP,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명목 지역내총생산]

(단위: 억 원, %)

연도	전국	서울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서울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12년	14,453,911	3,343,250	23.1	1.40
2013년	15,052,386	3,407,116	22.6	1.91
2014년	15,660,884	3,502,584	22.4	2.80
2015년	16,608,443	3,701,679	22.3	5.68
2016년	17,435,747	3,873,644	22.2	4.65
2017년	18,403,489	4,040,796	22.0	4.32
2018년	19,025,279	4,237,421	22.3	4.87
2019년	19,274,212	4,359,272	22.6	2.88
2020년	19,446,444	4,445,449	22.9	1.98
2021년	20,837,950	4,720,402	22.7	6.19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 천 원)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2년	28,793	33,312	23,770	26,007
2013년	29,849	34,105	24,526	27,492
2014년	30,861	35,113	26,068	28,638
2015년	32,556	37,236	27,798	30,748
2016년	34,042	39,356	29,120	32,336
2017년	35,831	41,374	30,284	35,307
2018년	36,866	43,664	30,194	36,821
2019년	37,274	45,118	30,584	36,064
2020년	37,515	46,221	30,367	36,521
2021년	40,271	49,680	33,551	38,879

2. 사업체 창업·폐업률

개념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률(신생률)=신생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폐업률(소멸률)=소멸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단위: 개, %)

연도	전체	신생		소멸	
	활동기업 수	신생기업 수	사업체 창업률	소멸기업 수	사업체 폐업률
2012년	1,257,698	169,478	13.5	162,260	12.9
2013년	1,258,913	168,444	13.4	150,831	12.0
2014년	1,285,993	181,546	14.1	187,370	14.6
2015년	1,251,857	170,506	13.6	138,672	11.1
2016년	1,289,498	185,710	14.4	133,722	10.4
2017년	1,341,909	194,913	14.5	151,262	11.3
2018년	1,372,239	194,668	14.2	146,353	10.7
2019년	1,416,327	204,014	14.4	157,448	11.1
2020년	1,461,453	217,009	14.8	167,851	11.5
2021년	1,477,255	200,029	13.5	76,666	5.2

주) 통계청 자료 갱신일(2022년 11월 29일) 기준으로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술기반업종 창업률]

(단위: 개, %)

연도	총 창업기업 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기술기반업종 창업률
2016년	240,617	48,158	20.0
2017년	249,581	49,332	19.8
2018년	289,280	51,615	17.8
2019년	262,970	53,568	20.4
2020년	309,896	55,049	17.8
2021년	276,758	56,809	20.5
2022년	249,175	53,265	21.4

주: 1)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2)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3)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제조업+자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3. 외국인 투자유치

개념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액 현황
출처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투자건수	투자액
2013년	1,192	6,144
2014년	1,055	5,487
2015년	1,311	8,529
2016년	1,493	9,558
2017년	1,231	6,834
2018년	1,325	8,952
2019년	1,291	10,083
2020년	1,135	10,192
2021년	1,416	18,003
2022년	1,566	10,725

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개념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상대적 규모 파악
산출방법	(서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금액/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1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단위: 억 원,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금액 (억 원)	금액 (억 원)	비중 (%)	금액 (억 원)	비중 (%)	금액 (억 원)	비중 (%)
2012년	554,501	99,167	17.9	21,319	3.8	251,818	45.4
2013년	593,009	107,027	18.0	21,328	3.6	273,095	46.1
2014년	637,341	96,356	15.1	22,829	3.6	310,330	48.7
2015년	659,594	100,306	15.2	24,996	3.8	318,390	48.3
2016년	694,055	104,839	15.1	23,895	3.4	330,506	47.6
2017년	787,892	131,697	16.7	25,482	3.2	384,625	48.8
2018년	857,287	134,754	15.7	27,613	3.2	436,153	50.9
2019년	890,471	134,449	15.1	28,459	3.2	459,348	51.6
2020년	930,717	144,320	15.5	29,366	3.2	470,451	50.5
2021년	1,021,352	162,043	15.9	32,270	3.2	519,571	50.9

5. 대형소매점 판매액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사업체 (194개 대표업종) 대상
산출방법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월간 상품판매액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단위: 억 원)

연도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백화점		대형마트	
		경상금액	비율(%)	경상금액	비율(%)
2020년	186,410	119,694	64.2	66,716	35.8
2021년	215,250	149,326	69.4	65,923	30.6
2022년	231,995	165,776	71.5	66,219	28.5

[수도권]

(단위: 억 원)

연도	인천	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백화점		대형마트	
			경상금액	비율(%)	경상금액	비율(%)
2020년	23,523	158,426	53,519	33.8	104,908	66.2
2021년	25,353	174,631	65,741	37.6	108,890	62.4
2022년	25,906	183,983	73,541	40.0	110,442	60.0

주) 인천광역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 데이터 미제공

6.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념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산출방법	기준 연도(2020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단위: 2020=100)

연도	경상지수			불변지수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2013년	78.3	86.0	78.1	84.8	95.2	86.4
2014년	80.6	89.4	81.4	86.5	97.1	88.5
2015년	82.9	92.3	84.3	88.5	100.2	91.5
2016년	86.4	96.8	88.3	91.3	104.1	94.5
2017년	90.3	101.1	92.2	93.8	106.5	96.8
2018년	94.8	105.8	96.3	97.1	109.3	99.3
2019년	97.4	107.9	99.5	98.8	110.6	101.0
202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1년	108.7	105.6	108.2	105.2	102.2	104.6
2022년	121.3	119.7	120.9	112.5	110.9	112.2

- 주: 1)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
- 2) 서비스업생산지수 시도별지수: 시도별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을 추가하고 시도 업종별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한 지수
- 3) 경상지수: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4) 불변지수: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구분	경상지수			불변지수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총지수	121.3	119.7	120.9	112.5	110.9	11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4.0	225.0	214.6	223.8	215.7	201.5
운수 및 창고업	174.0	130.1	117.4	151.9	120.5	113.5
숙박 및 음식점업	139.7	125.3	133.2	126.7	114.3	121.6
도매 및 소매업	119.8	115.8	119.8	105.7	103.8	106.5
금융 및 보험업	118.8	113.9	119.4	113.7	109.2	11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5.8	120.5	122.9	111.2	115.4	117.6
부동산업	114.6	130.5	136.4	103.5	114.2	12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4.6	113.2	112.5	109.0	106.8	105.9
정보통신업	114.4	117.0	118.8	110.0	113.4	114.2
교육 서비스업	113.8	107.6	108.5	107.7	100.8	10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2.2	108.8	116.5	105.3	101.3	108.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1.7	98.7	105.1	104.4	91.9	97.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9.8	112.9	106.1	105.2	108.5	101.7

제2절 소득과 고용

1. 가구 소득 증가율

개념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소득 동향 파악
산출방법	$\{(\text{당해년도 근로자가구 소득}/\text{전년도 근로자가구 소득})-1\} \times 1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단위: 원, %)

구분	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득증가율
2013년	4,235,226	3,414,505	2.9
2014년	4,344,764	3,491,013	2.6
2015년	4,368,108	3,509,591	0.5
2016년	4,422,420	3,550,440	1.2
2017년 4/4	4,350,796	3,462,335	-1.6
2018년 4/4	4,621,690	3,611,099	6.2
2019년 4/4	4,890,950	3,875,284	5.8
2020년 4/4	4,980,155	3,948,264	1.8
2021년 4/4	5,319,760	4,225,853	6.8
2022년 4/4	5,482,561	4,327,947	3.1

- 주: 1) 연도별 전국 집계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
 2) 2011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 가계동향조사(2019년 이후):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 전체 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 제공
 - 1인 이상 결과표는 20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
 3)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이전, 소득부문 2017~2019년): 가구원 수 1인 이상 비농림어가
 4) 도시근로자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하며, 1963년부터 이에 대한 통계 시계열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5)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 소득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6) 분기별 소득 자료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동분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

2. 분위별 소득 분포(소득 5분위배율)

개념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 소득 분포 • 소득 5분위배율=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단위: 원, 배)

구분	전체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5분위배율
2013년	4,235,226	1,430,960	2,770,295	3,807,673	5,127,744	8,036,269	5.62
2014년	4,344,764	1,488,609	2,811,430	3,927,901	5,223,409	8,262,445	5.55
2015년	4,368,108	1,465,467	2,826,397	3,953,294	5,229,384	8,360,541	5.71
2016년	4,422,420	1,458,305	2,829,323	3,968,661	5,310,358	8,531,024	5.85
2017년 4/4	4,350,796	1,428,536	2,691,846	3,836,796	5,218,994	8,554,637	5.99
2018년 4/4	4,621,690	1,382,833	2,718,909	4,022,105	5,578,013	9,399,742	6.80
2019년 4/4	4,890,950	1,655,297	3,011,013	4,273,678	5,916,948	9,585,409	5.79
2020년 4/4	4,980,155	1,775,622	3,079,645	4,332,115	5,996,725	9,712,654	5.47
2021년 4/4	5,319,760	1,839,052	3,186,197	4,492,502	6,242,999	10,831,710	5.89
2022년 4/4	5,482,561	1,932,886	3,269,704	4,635,813	6,505,001	11,062,644	5.72

주: 1) 연도별 전국 집계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 가계동향조사(2019년 이후):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 전체 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 제공

- 1인 이상 결과표는 '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

3)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소득부문 2017~2019년): 가구원 수 1인 이상 비농림어가

4) 5(또는 10)분위별 소득이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또는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금액임. 따라서 구간별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0(또는 10)%임

- 여기서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또는 10)분위임

5) 분기별 소득 자료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동분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

3. 고용률

개념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산출방법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2013년	42,304	25,299	59.8	8,591	5,146	59.9	2,363	1,448	61.3	9,986	6,017	60.2
2014년	42,795	25,897	60.5	8,612	5,209	60.5	2,403	1,472	61.3	10,179	6,272	61.6
2015년	43,239	26,178	60.5	8,611	5,165	60.0	2,433	1,488	61.1	10,365	6,393	61.7
2016년	43,606	26,409	60.6	8,583	5,146	60.0	2,461	1,520	61.8	10,548	6,504	61.7
2017년	43,931	26,725	60.8	8,557	5,152	60.2	2,485	1,533	61.7	10,760	6,685	62.1
2018년	44,182	26,822	60.7	8,521	5,080	59.6	2,503	1,575	62.9	10,959	6,790	62.0
2019년	44,504	27,123	60.9	8,478	5,086	60.0	2,529	1,581	62.5	11,234	6,952	61.9
2020년	44,785	26,904	60.1	8,516	5,051	59.3	2,544	1,560	61.3	11,456	6,909	60.3
2021년	45,080	27,273	60.5	8,533	5,055	59.2	2,548	1,563	61.3	11,695	7,150	61.1
2022년	45,260	28,089	62.1	8,465	5,113	60.4	2,575	1,614	62.7	11,883	7,597	63.9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연령별 고용률]

(단위: %)

연도	서울시 연령별 고용률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3년	59.9	6.8	57.7	75.7	78.0	70.9	34.5
2014년	60.5	8.5	57.0	76.0	77.5	73.6	35.9
2015년	60.0	8.2	57.9	75.6	76.4	73.4	35.4
2016년	60.0	8.5	58.4	75.6	77.9	72.6	35.5
2017년	60.2	9.6	58.1	77.7	76.4	73.3	36.4
2018년	59.6	6.8	59.2	77.2	77.3	72.0	35.2
2019년	60.0	7.6	60.0	78.0	76.3	72.5	36.9
2020년	59.3	6.6	58.1	76.8	76.9	72.3	36.9
2021년	59.2	9.5	61.6	77.3	76.0	72.1	35.1
2022년	60.4	8.7	63.0	80.0	77.4	74.1	35.7

4. 실업률

개념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2013년	26,108	808	3.1	5,355	210	3.9	1,511	63	4.1	6,200	183	3.0
2014년	26,836	939	3.5	5,449	240	4.4	1,544	72	4.7	6,488	216	3.3
2015년	27,153	976	3.6	5,391	226	4.2	1,567	79	5.0	6,653	261	3.9
2016년	27,418	1,009	3.7	5,372	226	4.2	1,598	78	4.9	6,767	264	3.9
2017년	27,748	1,023	3.7	5,396	244	4.5	1,607	75	4.6	6,953	269	3.9
2018년	27,895	1,073	3.8	5,335	254	4.8	1,645	70	4.3	7,058	268	3.8
2019년	28,186	1,063	3.8	5,319	233	4.4	1,653	72	4.4	7,226	274	3.8
2020년	28,012	1,108	4.0	5,293	241	4.6	1,634	74	4.6	7,193	285	4.0
2021년	28,310	1,037	3.7	5,312	257	4.8	1,629	66	4.0	7,422	272	3.7
2022년	28,922	833	2.9	5,295	181	3.4	1,670	56	3.3	7,809	211	2.7

주: 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2)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2013년	3.1	8.0	2.3	1.8	3.9	8.7	3.0	2.5
2014년	3.5	9.0	2.5	2.3	4.4	10.4	3.2	2.8
2015년	3.6	9.1	2.6	2.5	4.2	9.3	3.1	3.2
2016년	3.7	9.8	2.5	2.7	4.2	10.3	2.9	2.8
2017년	3.7	9.8	2.5	2.9	4.5	10.1	3.3	3.6
2018년	3.8	9.5	2.8	3.1	4.8	10.1	3.5	4.0
2019년	3.8	8.9	2.7	3.4	4.4	8.8	3.2	4.3
2020년	4.0	9.0	3.0	3.6	4.6	9.1	3.3	4.7
2021년	3.7	7.8	2.7	3.8	4.8	9.0	3.6	5.1
2022년	2.9	6.4	2.1	2.8	3.4	6.8	2.4	3.6

5. 고용형태

개념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고용계약 형태, 근무형태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고용형태]

(단위: %)

연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고용 종사자
2013년	68.1	19.4	4.8	6.8	0.9	-
2014년	62.8	14.3	4.8	16.4	1.7	-
2015년	67.9	16.4	4.6	10.4	0.7	-
2016년	72.3	12.7	5.1	9.5	0.5	-
2017년	70.4	12.5	5.0	10.9	1.2	-
2018년	72.9	11.0	5.3	9.8	0.9	-
2019년	69.9	12.8	5.1	10.4	1.1	0.7
2020년	66.7	15.5	4.0	9.7	1.1	3.0
2021년	68.3	14.6	4.3	8.9	0.9	3.0
2022년	67.9	14.1	5.7	10.4	1.0	0.8

- 주: 1)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워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음
 2)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나 일용근로가 아닌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일급, 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체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5)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고용계약 형태]

(단위: %)

연도	정년이 있는 정규직	무기 계약직	계약직	유급인턴	기타	계
2020년	62.5	21.6	15.1	0.6	0.3	100.0
2021년	61.6	22.5	15.1	0.7	-	100.0
2022년	63.1	25.4	11.3	0.1	0.1	100.0

[근무형태]

(단위: %)

연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4~8시간 근무	하루 4시간 미만 근무	요일을 정해 근무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근무	계
2020년	84.3	11.4	1.3	1.4	1.6	100.0
2021년	83.3	11.9	1.5	1.4	1.9	100.0
2022년	91.4	6.9	0.8	0.5	0.4	100.0

6. 사회보험 가입률

개념	사회보험/보장 관련 통계
산출방법	전체 근로자(특수형태 제외)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비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단위: %)

연도	전체근로자 (특수형태제외)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제외)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2013년	88.6	87.6	87.6	97.5	95.6	97.4	97.2	97.8	60.9	50.6	47.0	96.4
2014년	88.5	87.5	87.6	97.5	95.4	97.8	97.6	97.7	63.0	51.2	48.2	96.5
2015년	89.3	88.4	88.7	97.6	95.4	97.9	97.8	98.0	66.7	55.5	52.7	96.4
2016년	90.7	89.7	90.1	98.1	95.7	98.3	98.2	98.3	72.1	59.4	56.7	97.4
2017년	89.1	88.9	89.1	97.6	94.7	98.0	97.8	97.8	68.7	58.1	54.9	96.8
2018년	89.6	89.4	89.7	97.4	94.6	98.1	97.9	97.5	70.8	59.5	56.5	96.7
2019년	90.3	90.9	91.1	97.7	94.4	98.2	98.0	97.8	74.0	64.2	61.0	97.3
2020년	90.3	91.1	91.3	97.8	94.4	98.5	98.3	97.9	74.4	64.9	61.7	97.5
2021년	90.5	91.5	91.7	97.8	94.2	98.5	98.3	97.8	76.1	66.4	63.0	97.6
2022년	91.8	92.5	93.0	98.2	94.6	98.6	98.5	98.1	80.7	70.3	67.5	98.4

- 주: 1)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2)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3)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4)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 어업 제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고객을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에 있음

7. 소비자물가지수

개념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산출방법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연도별 변화량을 측정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시도)

(단위: 2020=100)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3년	93.0	91.9	92.5	92.9
2014년	94.2	93.3	93.8	94.0
2015년	94.9	94.5	94.8	94.7
2016년	95.8	95.6	95.6	95.6
2017년	97.6	97.5	97.4	97.5
2018년	99.1	98.8	99.0	99.0
2019년	99.5	99.4	99.2	99.4
2020년	100.0	100.0	100.0	100.0
2021년	102.5	102.1	102.6	102.6
2022년	107.7	106.7	108.0	107.7

8. 구직단념자

개념	경기 변화와 고용시장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은 등)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경기 악화 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비경제활동 인구	구직단념자 수	구직단념자 비율	비경제활동 인구	구직단념자 수	구직단념자 비율
2015년	15,998,317	370,608	2.3	3,255,043	75,923	2.3
2016년	16,038,172	422,073	2.6	3,170,305	71,142	2.2
2017년	16,094,726	411,851	2.6	3,163,247	76,757	2.4
2018년	16,199,406	441,635	2.7	3,227,057	74,796	2.3
2019년	16,227,781	429,805	2.6	3,140,501	65,373	2.1
2020년	16,735,898	577,022	3.4	3,239,254	100,089	3.1
2021년	16,619,992	448,090	2.7	3,226,870	72,105	2.2
2022년	16,192,043	367,247	2.3	3,179,667	52,599	1.7

[성별 구직단념자]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2015년	204,826	3.7	165,782	1.6	41,320	3.7	34,603	1.6
2016년	246,116	4.5	175,957	1.7	42,197	3.8	28,945	1.4
2017년	230,790	4.1	181,061	1.7	43,705	3.9	33,052	1.6
2018년	243,256	4.3	198,378	1.9	45,417	3.8	29,380	1.4
2019년	239,229	4.1	190,576	1.8	35,092	3.0	30,281	1.5
2020년	305,995	5.1	271,027	2.5	51,671	4.4	48,418	2.4
2021년	253,115	4.2	194,976	1.8	39,393	3.3	32,712	1.6
2022년	205,619	3.5	161,628	1.6	29,469	2.5	23,130	1.1

[연령별 구직단념자]

(단위: 명, %)

연도	서울							
	15세-30세 미만		30세-50세 미만		50세-55세 미만		55세 이상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2015년	36,121	3.6	22,629	3.3	4,707	2.5	12,465	0.9
2016년	31,649	3.3	22,628	3.3	3,988	2.2	12,878	0.9
2017년	32,054	3.4	27,023	4.3	3,487	2.0	14,194	1.0
2018년	27,033	3.0	24,242	3.9	4,977	2.8	18,544	1.2
2019년	26,594	3.0	23,178	3.8	3,851	2.3	11,750	0.8
2020년	38,299	4.4	32,231	5.1	6,097	3.4	23,462	1.5
2021년	23,824	3.0	26,934	4.5	4,409	2.4	16,938	1.0
2022년	18,050	2.3	19,088	3.5	3,229	1.8	12,231	0.7

9. 청년 니트 비율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로, 만 15세~29세 서울시 청년의 비경제활동 특성을 조사 • 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통학자'를 제외한 청년 비율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NEET): 실업자+비경제활동(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쉬었음+기타) • 청년 니트 비율: (NEET/만 15~29세 청년 인구)×1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단위: 명, %)

연도	서울 (15~29세 청년)								
	15세~29세 청년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NEET	
	규모 (명)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2015년	1,914,661	829,121	43.3	68,575	3.6	1,016,965	53.1	257,578	13.5
2016년	1,898,497	857,841	45.2	90,937	4.8	949,719	50.0	259,092	13.6
2017년	1,872,858	849,977	45.4	85,433	4.6	937,448	50.1	247,312	13.2
2018년	1,840,721	840,175	45.6	89,018	4.8	911,528	49.5	250,431	13.6
2019년	1,826,684	889,734	48.7	62,285	3.4	874,665	47.9	225,551	12.3
2020년	1,811,294	856,031	47.3	87,702	4.8	867,561	47.9	279,084	15.4
2021년	1,773,609	895,475	50.5	70,866	4.0	807,268	45.5	244,158	13.8
2022년	1,725,997	867,063	50.2	63,214	3.7	795,720	46.1	214,356	12.4

[인구특성별 청년 니트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국 (15-29세 청년)		서울 (15-29세 청년)	
		니트 규모 (명)	니트 비율 (%)	니트 규모 (명)	니트 비율 (%)
2015년		1,330,765	14.2	257,578	13.5
2016년		1,313,815	14.1	259,092	13.6
2017년		1,324,315	14.3	247,312	13.2
2018년		1,330,958	14.6	250,431	13.6
2019년		1,332,282	14.8	225,551	12.3
2020년		1,493,113	16.9	279,084	15.4
2021년		1,293,783	14.9	244,158	13.8
2022년		1,146,862	13.5	214,356	12.4
성 별	남성	571,838	13.5	103,578	13.4
	여성	575,024	13.5	110,778	11.6
연 령 별	15-19세	81,053	3.6	15,583	4.3
	20-24세	390,332	14.5	63,933	12.1
	25-29세	675,477	18.9	134,840	16.2
학 력 별	중졸 이하	41,091	2.3	6,981	2.5
	고졸	558,765	14.8	92,899	12.6
	전문대졸 이상	547,007	18.6	114,476	16.0
혼 인 별	미혼	1,006,904	12.6	199,108	12.0
	유배우	136,033	29.0	15,017	22.6
	사별	443	59.5	-	-
	이혼	3,483	34.2	230	17.7

제3장 도시생활과 주거

제1절 주거

1. 주택구입부담지수

개념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구입 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우리나라 중간소득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주택 및 주택금융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 소득(월)) × 100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3년 4분기	53.8	90.1	51.6	61.7
2014년 4분기	54.3	91.9	53.7	63.1
2015년 4분기	56.4	93.7	58.2	64.9
2016년 4분기	58.9	102.4	61.3	68.9
2017년 4분기	61.3	116.7	65.1	71.5
2018년 4분기	56.6	133.3	61.3	67.8
2019년 4분기	50.5	126.6	55.4	61.8
2020년 4분기	57.4	153.4	58.9	76.4
2021년 4분기	83.5	199.2	91.4	113.7
2022년 4분기	81.4	198.6	88.5	107.5

주: 1)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

-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 (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 × 100
= (원리금 상환액/DTI) / 중간가구소득(월) × 100

- 원리금상환액은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균등 상환대출의 매월 상환액

-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

-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됨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02.24)의 가계소득 시계열 수치 변경에 따라 과거 시계열 전체 변경 (2011.3월)

-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월급여액 수치 변경으로 2011.2/4분기 말 K-HAI 수치 조정 (2011.12월)

-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주택구입능력지수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로 명칭 변경 (2012.1월)

- 주택가격동향조사가 KB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지수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도 '13.1/4분기 시점 이후 지수에 대해서는 KB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으로 변경 적용 ('14.3월)

3) K-HAI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신규 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중간주택가격은 '12년 12월까지의 국민은행의 'KB0파트 시세와 '13년 1월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를, 중간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5·6분위 소득에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급여 총액의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였음

4) 지수 수치의 의미: 서울 K-HAI 90.1은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지역의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의 90.1%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

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개념	주거비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RIR: Rent to Income Ratio,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월 임대료/월 소득)×100 •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월 소득}×100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단위: 만 가구, %)

구분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가구		RIR 45% 또는 HCIR 50% 초과 가구	
		가구 수(만 가구)	비율(%)	가구 수(만 가구)	비율(%)
2019년		36.6	17.6	11.8	5.7
2020년		30.0	14.1	11.0	5.2
2021년		31.7	14.7	9.0	8.0
권역별	도심권	1.8	5.7	0.5	5.6
	동북권	9.4	29.7	2.4	27.0
	서북권	5.2	16.4	1.6	18.0
	서남권	9.3	29.3	3.1	34.8
	동남권	6.0	18.9	1.3	14.6

3.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개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서울시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공공임대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단위: 호, %)

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주택 수 (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합계	LH공사	SH공사	기타		
2012년	187,657	36,208	79,324	72,125	3,509,800	5.3
2013년	212,644	39,394	91,529	81,721	3,546,400	6.0
2014년	219,919	40,596	92,678	86,645	3,607,600	6.1
2015년	235,451	42,643	98,621	94,187	3,633,000	6.5
2016년	251,912	75,234	114,997	61,681	3,644,100	6.9
2017년	265,292	80,983	120,508	63,801	3,671,500	7.2
2018년	284,257	91,253	128,152	64,852	3,682,400	7.7
2019년	307,606	101,728	139,602	66,276	3,738,600	8.2
2020년	334,036	107,836	226,200	-	3,778,400	8.8
2021년	350,186	113,964	236,222	-	3,811,900	9.2

주: 1) 기타: 50년 임대, 사원임대, 전세임대
 2) 주택 수: 등록센서스 기준
 3) 출처 변경에 따라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및 분석 시 유의

4.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개념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주택 수/인구 수)×1,000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단위: 천 호, 호)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00년	11,472.4	248.7	1,973.2	199.4	632.1	255.4	2,125.9	236.6
2005년	15,622.5	330.4	3,102.2	315.9	815.3	322.1	3,247.5	311.8
2010년	17,672.1	363.8	3,399.8	347.1	936.7	351.7	3,836.7	337.2
2015년	19,559.1	383.0	3,633.0	366.8	1,055.4	365.1	4,328.5	346.9
2016년	19,877.1	387.7	3,644.1	371.6	1,072.9	368.3	4,444.4	350.7
2017년	20,313.4	395.0	3,671.5	376.9	1,084.2	370.5	4,579.8	356.4
2018년	20,818.0	403.2	3,682.4	380.7	1,107.8	377.3	4,798.0	366.2
2019년	21,310.1	411.6	3,738.6	387.8	1,123.3	380.5	4,979.0	374.3
2020년	21,673.5	418.2	3,778.4	394.2	1,134.8	385.3	5,113.9	378.5
2021년	21,917.2	423.6	3,811.9	402.4	1,154.3	390.3	5,217.8	382.2

주) 2018년 이후: 등록센서스 기준

5.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개념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노후주택 비중이 커질수록 주택개량, 정비사업 등의 정책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산출방법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단위: 호, %)

연도	전국			서울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2015년	16,367,006	2,669,226	16.3	2,793,244	373,416	13.4
2016년	16,692,230	2,804,707	16.8	2,830,857	416,145	14.7
2017년	17,122,573	2,889,416	16.9	2,866,845	428,331	14.9
2018년	17,633,327	3,084,267	17.5	2,894,078	508,928	17.6
2019년	18,126,954	3,291,159	18.2	2,953,964	551,001	18.7
2020년	18,525,844	3,596,661	19.4	3,015,371	588,320	19.5
2021년	18,811,627	3,974,580	21.1	3,068,494	650,005	21.2
2022년	19,155,585	4,492,064	23.5	3,111,323	732,831	23.6

(단위: 호, %)

구분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구분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구분	전체 주택 수
구 분	종로구	46,810	13,873	29.6		
	중구	42,401	7,815	18.4		
	용산구	77,116	23,894	31.0		
	성동구	90,740	16,687	18.4		
	광진구	93,555	20,229	21.6		
	동대문구	106,441	21,136	19.9		
	종랑구	118,357	20,469	17.3		
	성북구	142,602	23,288	16.3		
	강북구	99,477	28,767	28.9		
	도봉구	109,190	41,571	38.1		
	노원구	192,022	90,226	47.0		
	은평구	160,630	26,866	16.7		
	서대문구	105,047	22,231	21.2		
	마포구	127,057	24,043	18.9		
	양천구	146,886	49,089	33.4		
	강서구	201,611	19,811	9.8		
	구로구	137,403	27,992	20.4		
	금천구	72,044	17,531	24.3		
	영등포구	112,068	32,623	29.1		
	동작구	120,374	22,796	18.9		
	관악구	129,778	27,116	20.9		
	서초구	132,706	27,544	20.8		
	강남구	178,493	50,161	28.1		
	송파구	220,192	52,263	23.7		
	강동구	148,323	24,810	16.7		

6. 1인당 주거면적

개념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늘어나갈 필요 있음
산출방법	1인당 주거면적(㎡)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단위: ㎡)

연도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5년	68.4	62.0	65.8	70.4	26.9	24.8	24.7	26.1
2016년	69.0	62.2	66.2	70.9	27.3	25.0	25.1	26.4
2017년	69.4	62.3	66.6	71.2	27.9	25.4	25.6	26.9
2018년	70.0	62.0	67.6	72.0	28.5	25.8	26.3	27.6
2019년	70.4	61.9	67.7	72.2	29.2	26.3	26.9	28.2
2020년	70.1	61.5	67.6	72.0	29.7	26.6	27.5	28.7
2021년	69.9	61.1	67.4	71.6	30.3	27.2	28.2	29.1
2022년	69.9	60.8	67.6	71.4	30.9	27.6	28.7	29.7

[자치구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구 별	종로구	28.0	28.6	29.2	29.4	30.3	30.8	31.5	32.0
	중구	26.4	26.4	27.3	27.4	27.7	28.2	28.7	29.2
	용산구	30.5	30.5	31.2	31.8	32.4	32.6	33.1	33.3
	성동구	24.3	24.5	25.3	25.1	26.4	26.8	27.3	27.6
	광진구	23.8	24.2	24.5	24.7	25.3	25.6	26.0	26.5
	동대문구	24.0	24.3	24.8	25.2	25.8	26.1	26.4	26.7
	종각구	22.3	22.6	23.0	23.4	23.8	24.4	24.9	25.3
	성북구	24.7	24.9	25.5	25.8	26.3	26.7	27.1	27.5
	강북구	22.7	22.9	23.3	23.9	24.5	25.0	25.5	26.2
	도봉구	23.5	23.7	24.2	24.6	25.1	25.7	26.3	26.8
	노원구	21.9	22.3	22.7	23.0	23.6	24.2	24.7	25.3
	은평구	23.8	23.8	24.0	24.4	24.9	25.1	26.0	26.5
	서대문구	25.3	25.5	25.9	26.2	26.9	27.1	27.8	28.3
	마포구	25.1	25.5	25.8	26.1	26.5	26.8	27.4	27.6
	양천구	23.6	23.9	24.2	24.5	24.9	25.5	26.0	26.5
	강서구	23.0	23.0	23.4	23.7	24.1	24.6	25.1	25.5
	구로구	23.9	24.2	24.6	25.1	25.6	26.2	26.7	27.1
	금천구	22.8	23.2	23.9	24.5	24.8	25.3	25.8	26.2
	영등포구	26.8	27.3	28.0	28.1	28.6	28.8	29.2	29.6
	동작구	25.2	25.2	25.6	25.8	26.3	26.8	27.5	27.8
	관악구	22.5	22.9	23.4	23.6	23.9	24.3	24.6	24.8
	서초구	31.3	31.5	31.7	32.0	32.3	32.1	32.8	33.1
	강남구	30.0	30.4	30.9	31.4	31.8	31.9	32.5	32.8
	송파구	25.3	25.7	26.0	26.2	26.7	27.0	27.6	28.0
	강동구	23.2	23.6	23.9	24.1	24.6	25.1	25.4	25.7

7. 주거환경 만족도

개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3년		6.8	35.7	57.5	6.44
2014년		11.4	36.3	52.3	6.13
2015년		10.9	36.2	52.8	6.16
2016년		10.9	36.1	53.1	6.17
2017년		11.0	38.6	50.5	6.19
2018년		12.6	33.2	54.2	6.24
2019년		9.4	33.2	57.4	6.39
2020년		11.2	30.8	58.0	6.36
2021년		9.9	32.3	57.7	6.41
2022년		3.2	20.8	76.0	7.20
권역별	도심권	2.9	22.8	74.3	6.99
	동북권	2.9	22.4	74.6	7.33
	서북권	1.2	25.0	73.8	7.13
	서남권	5.2	20.1	74.7	6.99
	동남권	1.8	16.5	81.7	7.40

주: 1) 가구주의 상하수도, 주택, 전기, 녹지 등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8. 소득 대비 주택 가격(PIR)

개념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방법	평균주택가격/연평균소득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단위: 만 원, 배)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2013년	4,280	36,300	8.4	3,360	20,500	6.1	3,600	23,250	6.4
2014년	4,710	38,000	8.0	3,811	23,750	6.2	3,914	25,500	6.5
2015년	5,159	44,000	8.5	3,753	27,000	7.1	4,150	29,500	7.1
2016년	4,960	46,500	9.3	3,653	25,425	6.9	3,970	29,000	7.3
2017년	5,095	48,000	9.4	3,348	25,100	7.4	3,858	28,500	7.3
2018년	4,962	49,000	9.8	3,360	26,500	7.8	3,800	30,155	7.9
2019년	5,713	65,000	11.3	3,000	20,850	6.9	3,490	24,000	6.8
2020년	5,589	71,500	12.7	3,772	32,500	8.6	4,314	39,700	9.2
2021년	6,002	80,625	13.4	4,207	43,000	10.2	4,680	53,450	11.4
2022년	4,289	57,500	13.4	3,717	37,500	10.0	3,893	42,750	10.9

주) 연도별 4분기 기준

9.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개념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방법	(중위소득가구 구입가능주택물량/전체주택물량)×100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3년	63.3	27.4	72.7	58.2
2014년	62.5	26.4	69.4	56.4
2015년	61.7	23.8	62.3	54.4
2016년	60.4	20.2	57.8	51.8
2017년	58.7	16.5	52.9	51.3
2018년	62.4	12.8	59.8	56.0
2019년	65.6	13.6	65.2	60.1
2020년	56.9	6.2	60.4	46.2
2021년	44.6	2.7	32.5	26.2
2022년	47.0	3.0	39.7	33.5

주: 1)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

-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 / 전체 주택물량) × 100
-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가구 구입가능 주택 비율로 지역별 주택구입가능물량을 나타내는 지수
- K-HOI는 중위소득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0~100)로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은 중위소득 가구가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100% 구입 가능함을 의미
- 2)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주택구입기회지수에서 주택구입가능물량지수로 명칭 변경(2014.3월)
 - 소득기준은 『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소득산출기준 변경(2014.3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순자산 중위값에 순자산 평균값 대비 거주 주택자산 평균 금액 비율(전국 평균)을 자기자본으로 반영 추가(2014.3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 11월 공표) 및 한국은행의 신규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기준시점에서부터 2개월 후 공표)의 공표시점으로 인해 주택구입가능물량지수는 매년 3월 공표
 -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자료 변경에 따라 2020년 이후 '세종'지역 신규 추가(21.3월)
- 3) K-HOI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신규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중간주택가격은 '12년 12월까지의 국민은행의 'KB0파트 시세를, '13년 1월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를, 중간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5·6분위 소득에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급여 총액의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였음
- 4) 지수 수치의 의미: 서울 K-HOI의 27.4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27.4%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반대로 코이가 높을수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것을 뜻함)

10. 평균 거주기간

개념	해당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거주기간 현재 주택 거주기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서울 총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2013년		5.7	16.6	25.7	26.2	16.8	9.1	29.8
2014년		5.3	15.6	25.5	25.2	17.7	10.6	30.7
2015년		5.1	18.1	28.6	26.5	14.9	6.9	29.0
2016년		12.0	17.5	27.9	24.0	12.3	6.2	26.3
2017년		6.9	15.4	24.8	24.4	16.7	11.7	30.4
2018년		6.7	14.3	23.8	24.2	18.2	12.8	31.3
2019년		7.0	14.6	22.8	22.7	18.2	14.7	31.5
2020년		10.7	15.1	20.0	20.5	17.5	16.2	30.7
2021년		11.3	15.8	20.2	19.3	17.6	15.9	30.4
2022년		8.1	14.9	22.5	20.4	17.8	16.4	31.6
권역별	도심권	11.8	14.0	21.4	19.9	16.6	16.3	30.4
	동북권	5.9	13.2	22.2	20.5	18.2	20.0	33.7
	서북권	7.8	17.1	24.4	19.7	16.6	14.3	30.0
	서남권	10.2	15.0	22.2	21.0	17.1	14.5	30.5
	동남권	7.5	16.3	22.4	19.8	19.0	15.0	31.4

[현재 주택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2013년		70.8	22.7	5.0	1.1	0.4	0.1	7.4
2014년		67.8	24.0	6.1	1.6	0.4	0.1	7.8
2015년		71.7	22.3	4.5	1.1	0.3	0.1	7.2
2016년		74.0	20.8	3.8	0.9	0.4	0.1	6.7
2017년		65.5	24.6	7.3	1.9	0.6	0.2	8.1
2018년		64.1	26.6	6.9	1.7	0.5	0.2	8.3
2019년		64.1	25.9	7.0	2.2	0.7	0.2	8.4
2020년		66.4	23.9	7.0	1.9	0.6	0.2	8.0
2021년		63.0	25.2	8.4	2.5	0.7	0.3	8.7
2022년		67.7	23.6	6.7	1.7	0.3	0.1	7.9
권역별	도심권	66.7	25.2	6.4	1.3	0.2	0.3	7.7
	동북권	64.6	25.4	7.2	2.4	0.3	0.1	8.5
	서북권	68.7	24.2	4.5	1.8	0.5	0.2	7.6
	서남권	66.7	23.0	8.1	1.6	0.4	0.1	8.0
	동남권	73.3	21.0	5.0	0.6	0.0	0.0	7.0

제2절 스마트도시 역량

1.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개념	스마트도시 수준 파악 및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산출방법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구분	도입 여부	서비스 내용	제공시스템	유관 기관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	사고, 공사, 통제 등	- 교통종합정보 (topis.seoul.go.kr) 모바일앱, VMS -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경찰청

주) 교통사고, 공사, 통제 등 도로위험상황 발생 시 안내 및 우회도로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도입

원자료: 1) 교통종합정보: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https://topis.seoul.go.kr/>)

2)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실시간 돌발 정보(2016.8.17. 공개)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3315/A/1/datasetView.do>)

[스마트 공공주차장 주차면 비율]

(단위: 면, %)

구분	전체 주차장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장 비율
	계	공영	민간		
2021년 5월	76,590	76,590	-	35,834	46.8
2023년 9월	80,498	80,498	-	42,778	53.1

원자료)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http://parking.seoul.go.kr/>)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현황

[시민 참여 시스템]

(단위: 건, 명)

연도	명칭	내용	사이트	참여수(건, 명)
2013년	'13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460 (건, 명)
2014년	'14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533 (건, 명)
2015년	'15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593 (건, 명)
2016년	'16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979 (건, 명)
2017년	'17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432 (건, 명)
2018년	'18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288 (건, 명)
2019년	'19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511 (건, 명)
2020년	'20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2,923 (건, 명)
2021년	'21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996 (건)
2022년	서울런	멘토서비스	slearn.seoul.go.kr/front/mainView.do	17,640 (명)
2021년~ 2022년	서울시 여론조사	여론조사	research.seoul.go.kr	108 (건)
	엠보팅	전자투표	mvoting.seoul.go.kr	634,824 (명)
	내 손안에 서울	시민 기자 뉴스	mediahub.seoul.go.kr	4,340 (건)
	상상대로 서울	시민 제안	idea.seoul.go.kr	3,963 (건)
2023년	시 대표 SNS	시민정책참여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official/)	451,424 (명)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kr)	394,768 (명)
			엑스(구 트위터) (twitter.com/seoulmania)	276,230 (명)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seoul)	196,110 (명)
	응답소 민원 수	민원접수 및 처리	eungdapso.seoul.go.kr	4,590 (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 발굴	yesan.seoul.go.kr/intro/index.do	626 (건)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 활용 참여	data.seoul.go.kr/dataVisual/gallery/galleryList.do	924 (건)
	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 신고	smartreport.seoul.go.kr	5,816,749 (건)

주) 시민이 서울시 예산사업을 직접 발굴·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스템 운영
 원자료)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명(가구))

구분	서비스명	주요대상	수혜자 수 (수혜가구 수)
1	시각장애인 디지털라이프 코디네이터	시각장애인	217
2	시각장애인 소비자 정보 음성변환시스템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252,206
3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960
4	장애인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 양성사업	장애인	160
5	사랑의 PC 보급	장애인, 저소득층 등	15,419
6	위기가구 발굴 신청 현황	위기가구	567
7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위험가구	3,945
8	AI 안부확인 서비스	고독사 위험가구	19,241
9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보급	안전취약 어르신	13,070
10	스마트기술 활용 집중돌봄 사업	정서취약 어르신	430
계(누적)			306,215

주) 2023년 9월 기준

원자료: 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결과보고(2021, 2022)
 2) 시각장애인 디지털라이프 코디네이터 세부내역
 3) 장애인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 양성사업 실적보고서
 4) 22.12월 기준 소비자정보마당 실적자료
 5) 위기가구 발굴 신청 현황
 6) 스마트플러그 관리현황
 7) AI안부확인서비스 관리현황
 8~9) 어르신복지과 제출자료
 1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업무바인더 발체(사랑의PC)

2.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개념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
산출방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스마트도시 조례 여부,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연도	계획명	수립일
2016년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2016~2020)	2016.1.
2018년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기본계획 (2018~2022)	2018.7.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2018~2022)	2018.8.
2019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0~2022)	2019.8.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0~2022)	2019.10.
2021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2021~2025)	2021.12
2022년	제4차(2023~20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
2023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본계획(2023~202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4년~26년)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2025)	-

주: 1) 스마트도시 또는 관련 계획이 아닌 지자체 발전방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
 2) 관련 계획: 디지털, 정보통신, 데이터 등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단위: 백만 원, %)

연도	서울시 총예산	스마트서울 예산 (본청·사업소)	스마트서울 예산 비율
2012	21,782,900	126,151	0.58
2013	23,506,900	149,109	0.63
2014	24,413,332	158,293	0.65
2015	25,518,445	200,503	0.79
2016	27,503,758	207,593	0.75
2017	29,801,117	198,516	0.67
2018	31,814,065	236,439	0.74
2019	35,741,608	404,367	1.13
2020	39,535,900	463,898	1.17
2021	40,156,200	437,888	1.09
2022	44,219,049	485,942	1.10

원자료)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2022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스마트도시 조례]

연도	조례명	담당부서	제정일
1980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건축기획과	1980.7.25.
1996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기후환경정책과	1996.5.20.
1997년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보행정책과	1997.1.15.
2002년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경제정책과	2002.1.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담당관	2002.11.5.
2004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2004.9.24.
2008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	2008.9.30.
2009년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2009.11.1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협치담당관	2009.3.18.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뉴미디어담당관	2009.5.28.
2010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정책과	2010.1.7.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	2010.1.7.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녹색에너지과	2010.3.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2010.9.30.
2011년	서울특별시 미국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략산업기반과	2011.7.28.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환경정책과	2011.7.28.
2013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보행정책과	2013.10.4.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략산업기반과	2013.3.28.
2014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건축기획과	2014.1.9.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창의행정담당관	2014.10.2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협력과	2014.5.14.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장대응단	2014.7.17.
2015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교통정책과	2015.1.12.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뷰티패션산업과	2015.10.8.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15.10.8.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2015.4.2.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사회혁신담당관	2015.5.14.

연도	조례명	담당부서	제정일
2016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관광정책과	2016.1.7.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생활환경과	2016.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디지털정책담당관	2016.1.7.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빅데이터담당관	2016.3.24.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뉴미디어담당관	2016.3.24.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정보시스템담당관	2016.5.19.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2016.7.14.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2016.7.1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친환경차량과	2016.7.14.
2017년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디지털정책담당관	2016.9.2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평가담당관	2017.1.5.
2018년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2017.7.1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지역돌봄복지과	2018.1.4.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경제정책과	2018.1.4.
2019년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18.1.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기정책과	2019.1.3.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2019.12.3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디지털정책담당관	2019.3.28.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략산업기반과	2019.7.18.
2020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녹색에너지과	2019.7.18.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12.31.
2021년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환경정책과	2021.1.7.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보행자전거과	2021.12.30.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상황관리과	2021.3.25.
2022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담당관	2022.10.17.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택시정책과	2022.12.30.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환경정책과	2022.7.11.

주) 2023년 9월 기준

제3절 스마트도시 격차

1. 접근성 격차

개념	스마트도시에서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접근성 격차 지표
산출방법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수준(100점)-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서울 시민]

(단위: 점, %)

연도	디지털 접근 역량		1)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2)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90.1	100.0	93.5	100.0	86.8	100.0
2019년	92.4	100.0	94.1	100.0	90.6	100.0
2020년	92.0	100.0	95.2	100.0	88.8	100.0
2021년	93.3	100.0	99.2	100.0	87.3	100.0
2022년	90.8	100.0	99.5	100.0	82.1	100.0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 접근 역량 조사 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정보취약계층: 고령층]

(단위: 점, %)

연도	디지털 접근 역량		1)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2)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70.7	78.5	79.0	84.5	62.5	72.0
2019년	79.1	85.6	82.9	88.1	75.3	83.1
2020년	78.5	85.3	84.9	89.2	72.1	81.2
2021년	87.1	93.4	97.6	98.4	76.7	87.9
2022년	86.0	94.7	99.6	100.1	72.4	88.2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 접근 역량 조사 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2. 활용성 격차

개념	스마트도시에서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활용 격차 지표
산출방법	서울 시민의 디지털 활용수준(100점)-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
출처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내부자료

[서울 시민]

(단위: 점, %)

연도	디지털정보화 활용 역량		1) 인터넷 이용률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3)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82.8	100.0	91.3	100.0	85.2	100.0	61.0	100.0
2019년	84.6	100.0	93.5	100.0	88.3	100.0	59.4	100.0
2020년	81.9	100.0	92.1	100.0	82.9	100.0	59.6	100.0
2021년	85.4	100.0	93.4	100.0	88.2	100.0	63.5	100.0
2022년	87.4	100.0	95.1	100.0	91.3	100.0	64.4	100.0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활동

[정보취약계층: 고령층]

(단위: 점, %)

연도	디지털정보화 활용 역량		1) 인터넷 이용률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3)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59.9	72.3	70.9	77.7	62.3	73.1	33.1	54.3
2019년	65.7	77.7	78.7	84.2	68.2	77.2	34.6	58.2
2020년	64.8	79.1	76.1	82.6	62.9	75.9	46.2	77.5
2021년	72.3	84.7	82.2	88.0	76.3	86.5	44.5	70.1
2022년	75.9	86.8	87.5	92.0	77.6	85.0	49.4	76.7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활동

3. SNS 이용 현황

개념	서울시민의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SNS 이용 시간(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와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SNS 하루 평균 이용 빈도]

(단위: %, 회)

구분		SNS 이용률	하루 이용 빈도							하루 평균 (회)
			1회 미만	1~2회 미만	2~3회 미만	3~5회 미만	5~10회 미만	10~20 회 미만	20회 이상	
2020년		79.7	21.8	7.8	11.1	16.9	17.4	18.5	6.5	5.4회
2021년		81.1	20.4	10.7	10.6	15.8	18.7	17.0	6.8	6.2회
2022년		81.8	22.6	7.6	11.8	15.0	14.8	16.8	11.5	7.1회
연 령 별	20대 이하	95.1	13.6	7.2	9.2	15.5	16.1	20.1	18.3	9.7회
	30대	93.3	20.2	7.6	10.5	15.8	14.6	19.7	11.5	7.6회
	40대	88.3	27.0	6.5	13.4	13.0	14.3	15.7	10.1	6.5회
	50대	78.9	28.4	6.2	11.6	14.6	15.2	15.7	8.2	5.8회
	60세 이상	62.1	27.1	10.4	14.7	15.5	13.4	11.8	7.2	5.1회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49.2	29.1	18.3	12.9	11.1	18.7	8.5	1.4	3.2회
	고등학교	75.0	26.2	6.6	12.8	15.7	13.1	17.7	7.8	5.9회
	전문대/대학교	91.2	20.0	7.5	10.9	14.9	15.4	16.9	14.5	8.1회
	대학원 이상	78.1	9.1	8.2	33.9	7.4	25.2	6.4	9.8	8.0회
혼 인 상태	기혼	79.7	27.0	7.9	12.6	15.6	14.6	13.3	8.9	6.0회
	미혼	92.8	16.5	6.7	10.6	15.4	15.0	20.1	15.8	8.9회
	이혼/사별/기타	59.0	20.7	10.2	11.4	7.9	15.3	25.5	9.1	6.5회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분)

구분		하루 이용 시간					하루 평균 (분)	
		5분 미만	5-15분 미만	15-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020년		17.9	14.5	15.5	23.1	15.4	13.6	65.5분
2021년		18.5	18.8	18.2	19.3	13.8	11.4	61.6분
2022년		19.4	17.6	17.3	18.7	14.3	12.6	93.9분
연령별	20대 이하	9.7	11.9	18.9	23.3	18.7	17.3	116.6분
	30대	14.1	17.0	17.7	20.3	16.0	14.9	107.8분
	40대	24.5	16.1	15.7	17.1	14.1	12.5	93.3분
	50대	23.2	22.6	13.8	17.7	11.6	10.9	90.1분
	60세 이상	28.3	22.4	19.3	14.0	9.8	6.3	57.0분
학력별	중학교 이하	26.3	32.7	17.0	9.1	5.4	9.5	31.7분
	고등학교	24.7	19.8	17.4	16.3	10.9	11.0	80.1분
	전문대/대학교	15.8	15.2	17.2	20.8	17.1	13.8	106.0분
	대학원 이상	2.5	20.4	26.3	29.3	1.3	20.1	177.9분
혼인 상태	기혼	24.0	19.0	17.0	18.5	11.1	10.5	90.1분
	미혼	11.9	15.3	17.6	20.8	19.0	15.4	105.5분
	이혼/사별/기타	23.2	19.4	18.1	10.7	14.5	14.1	64.1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

(단위: 10점 만점)

구분		SNS 긍정적 견해			SNS 부정적 견해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	SNS를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SNS의 사용은 정치사회문제 참여도를 높인다	SNS로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을 받는다	내가 SNS에 게시한 글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신경 쓰인다
2020년		6.21	5.73	5.41	6.16	5.26
2021년		6.44	5.67	5.20	5.69	5.23
2022년		6.53	5.97	5.20	5.45	5.19
연령 별	20대 이하	7.38	6.85	5.65	6.03	5.99
	30대	7.15	6.53	5.73	6.01	5.78
	40대	6.76	6.19	5.43	5.60	5.30
	50대	6.33	5.74	5.18	5.37	4.97
	60세 이상	5.44	4.91	4.37	4.58	4.26
학력 별	중학교 이하	5.22	4.62	4.08	4.31	4.13
	고등학교	6.11	5.51	4.87	5.02	4.82
	전문대/대학교	6.99	6.46	5.57	5.90	5.60
	대학원 이상	7.36	7.14	5.92	5.74	5.08
혼인 별	기혼	6.28	5.79	5.14	5.29	5.00
	미혼	7.31	6.65	5.58	5.97	5.81
	이혼/사별/기타	5.38	4.73	4.29	4.65	4.28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작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평균(점)	그렇다(%)	평균(점)	그렇다(%)	평균(점)
2020년		35.2	3.88	25.5	3.31	30.1	3.62
2021년		29.7	3.64	22.2	3.00	29.1	3.39
2022년		23.0	3.05	21.9	2.72	25.0	2.85
연령 별	20대 이하	29.9	3.70	29.2	3.41	30.2	3.44
	30대	25.9	3.36	21.6	2.87	25.4	3.01
	40대	21.7	3.02	20.4	2.62	23.8	2.86
	50대	21.8	2.93	21.0	2.58	23.9	2.69
	60세 이상	17.4	2.43	17.6	2.21	22.1	2.36
학력 별	중학교 이하	12.5	1.92	13.4	1.88	18.0	2.00
	고등학교	21.7	2.87	21.2	2.57	24.3	2.70
	전문대/대학교	25.5	3.34	23.6	2.94	26.5	3.07
	대학원 이상	13.3	1.67	10.3	1.38	15.8	1.65
혼인 별	기혼	22.5	3.00	21.7	2.65	25.5	2.84
	미혼	27.2	3.47	25.0	3.09	26.5	3.13
	이혼/사별/기타	12.6	1.97	13.0	1.86	17.7	1.99

주: 1) 그렇다: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제4장 건강과 보건

제1절 건강한 삶

1. 기대수명

개념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의 기대여명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유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생명표(전국) •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전국의 기대여명(0세 기준)]

(단위: 년)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13년	81.4	78.1	84.6
2014년	81.8	78.6	85.0
2015년	82.1	79.0	85.2
2016년	82.4	79.3	85.4
2017년	82.7	79.7	85.7
2018년	82.7	79.7	85.7
2019년	83.3	80.3	86.3
2020년	83.5	80.5	86.5
2021년	83.6	80.6	86.6
2022년	82.7	79.9	85.6

주: 1) 기대여명(전체):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2) 2016.12.2일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출처) 통계청, 생명표_간이생명표

[전국의 건강한 기대여명(0세 기준)]

(단위: 년)

연도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0세 기준)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여명(0세 기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년	65.7	65.0	66.5	66.1	66.6	65.8
2014년	65.2	64.7	65.7	67.5	67.7	67.5
2016년	64.9	64.7	65.2	68.5	68.8	68.4
2018년	64.4	64.0	64.9	69.0	69.1	69.0
2020년	66.3	65.6	67.2	71.0	70.7	71.3
2022년	65.8	65.1	66.6	72.2	71.6	73.0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서울시 기대수명]

(단위: 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2년		81.3	78.6	84.0
2013년		81.5	78.9	84.2
2014년		81.8	79.2	84.4
2015년		82.0	79.6	84.6
2016년		82.3	79.9	84.8
2017년		82.6	80.2	85.0
2018년		82.8	80.4	85.2
2019년		83.0	80.7	85.4
2020년		83.1	80.9	85.5
2021년		83.2	81.0	85.5
구 별	종로구	82.8	80.2	85.5
	중구	82.9	80.0	86.1
	용산구	83.2	80.7	85.8
	성동구	83.3	81.0	85.7
	광진구	83.7	81.4	86.0
	동대문구	82.6	80.0	85.3
	중랑구	82.4	79.9	84.9
	성북구	83.1	80.6	85.4
	강북구	82.2	79.5	84.9
	도봉구	82.9	80.7	85.1
	노원구	82.9	80.5	85.2
	은평구	83.1	80.8	85.4
	서대문구	83.2	81.0	85.3
	마포구	83.6	81.3	85.7
	양천구	83.5	81.7	85.4
	강서구	82.8	80.5	85.1
	구로구	83.2	81.0	85.5
	금천구	82.1	79.7	84.8
	영등포구	83.2	80.7	85.8
	동작구	83.8	81.5	86.0
	관악구	82.8	80.3	85.4
	서초구	84.8	83.1	86.5
	강남구	84.4	83.0	85.8
	송파구	84.2	82.4	86.2
	강동구	83.3	81.2	85.6

주: 1)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

2) 출생 시 기대여명은 3년 이동합계 평균값임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

(단위: 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대수명 격차	2.8	2.9	2.8	2.9	2.8	2.9	2.8	2.6	2.7	2.7

주) 기대수명 격차: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자치구 -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자치구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2. 주관적 건강수준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45.9	46.2	47.5	46.9	48.1	45.8	44.5	60.2	52.9	54.5
구별										
종로구	44.5	43.3	51.6	48.7	49.3	46.4	38.0	69.7	51.4	54.4
중구	41.0	44.9	44.0	47.3	50.9	42.4	52.8	69.2	59.7	62.1
용산구	51.6	53.5	56.8	55.1	55.5	55.1	59.9	71.6	54.6	62.7
성동구	50.7	45.7	48.7	42.9	50.1	40.2	39.9	65.3	52.6	54.4
광진구	46.2	64.2	48.2	42.6	49.5	46.0	45.3	60.4	54.1	54.4
동대문구	45.0	45.7	47.4	45.8	41.9	35.8	39.4	59.7	43.6	50.3
중랑구	43.8	44.9	43.7	41.0	42.5	45.7	40.2	54.6	47.2	49.8
성북구	47.5	46.8	48.6	45.0	44.0	41.1	38.3	54.9	46.3	53.2
강북구	37.1	41.0	48.0	43.0	38.6	40.4	42.1	59.6	48.1	56.7
도봉구	44.5	41.9	45.3	38.9	40.5	34.1	40.5	55.2	46.7	53.1
노원구	42.8	42.6	48.8	46.5	43.7	41.0	41.7	65.3	59.9	54.7
은평구	54.0	48.6	48.8	43.7	45.7	38.6	38.9	54.5	60.6	65.7
서대문구	47.9	45.3	49.7	54.3	52.7	52.5	46.9	65.3	52.0	45.1
마포구	39.6	41.9	47.0	49.9	42.2	59.7	40.1	67.7	59.2	51.0
양천구	47.8	46.7	51.1	48.6	47.9	47.2	47.2	63.2	52.0	57.0
강서구	45.9	43.4	43.1	46.5	40.8	34.1	43.9	57.2	55.5	49.0
구로구	44.5	44.1	43.6	41.1	42.4	44.9	38.9	55.5	49.4	48.6
금천구	41.9	42.4	38.7	42.5	42.3	46.2	41.9	53.6	40.3	46.7
영등포구	40.8	46.1	50.6	52.1	54.0	50.8	44.6	49.4	47.2	46.2
동작구	41.5	43.3	41.6	48.8	45.7	32.0	49.7	61.6	54.8	63.0
관악구	41.7	43.2	45.1	41.8	55.8	48.6	40.3	60.7	52.3	60.5
서초구	50.3	49.0	51.4	50.3	52.4	54.6	61.7	69.0	58.8	53.6
강남구	50.5	50.5	48.7	54.3	56.3	42.8	48.0	61.1	58.3	60.2
송파구	50.6	47.9	50.6	53.4	59.6	63.2	47.3	61.3	52.5	54.7
강동구	47.3	44.8	48.5	44.8	52.0	55.6	51.8	56.4	55.4	56.0

주: 1) 양호함(%) : 좋음 + 매우 좋음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3. 우울감 경험률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7.0	8.1	7.8	6.9	7.1	4.9	6.5	6.3	6.8	7.1
구 별	종로구	7.1	8.5	10.0	6.8	5.4	5.6	3.4	4.9	5.5	9.0
	중구	6.0	8.3	11.1	7.2	5.0	3.2	2.1	3.1	8.6	7.4
	용산구	6.9	9.4	4.5	5.6	5.6	1.9	2.3	2.7	6.9	3.9
	성동구	6.0	9.3	4.5	7.4	5.1	6.1	7.9	4.8	8.6	6.9
	광진구	7.5	7.6	10.9	9.4	9.9	6.2	6.8	7.6	7.7	8.0
	동대문구	5.2	9.2	7.6	7.5	8.1	2.2	8.7	4.5	3.4	3.1
	종량구	8.7	10.6	10.1	8.2	9.9	6.1	8.1	8.1	4.3	6.6
	성북구	4.9	7.5	6.1	6.9	7.9	7.3	7.3	8.0	7.9	7.1
	강북구	6.4	9.4	7.1	7.4	8.6	5.5	6.3	6.9	5.6	4.5
	도봉구	5.6	6.4	9.0	8.6	6.4	6.0	4.5	5.8	7.3	7.5
	노원구	5.3	5.3	3.6	5.3	5.0	6.3	6.5	4.8	6.7	6.2
	은평구	5.6	9.0	6.9	7.9	7.5	7.0	8.2	7.7	8.1	3.3
	서대문구	6.8	9.7	8.7	5.3	4.6	2.5	6.5	3.9	11.4	9.7
	마포구	7.6	8.3	11.5	5.2	6.7	2.6	7.7	6.2	4.8	10.6
	양천구	5.2	5.6	6.5	6.6	6.1	3.4	6.5	5.7	5.8	8.1
	강서구	6.5	7.1	5.9	4.5	7.0	3.6	5.4	6.8	8.3	6.6
	구로구	6.4	6.6	7.8	5.2	5.9	5.0	5.3	5.5	4.7	6.4
	금천구	10.0	7.3	6.4	4.2	4.9	5.1	7.3	8.2	11.7	11.3
	영등포구	7.8	8.6	6.5	6.7	5.1	3.0	8.2	5.6	7.2	7.4
	동작구	8.1	6.3	9.7	10.3	7.7	10.6	4.3	5.9	5.4	5.0
	관악구	8.7	8.4	8.5	6.2	7.3	3.9	7.1	4.3	4.2	8.2
	서초구	7.8	9.8	9.0	8.3	7.9	5.0	6.7	6.9	6.0	7.3
	강남구	8.3	7.2	8.5	4.4	7.6	5.4	6.6	9.7	7.2	7.7
	송파구	8.7	9.3	8.6	9.3	7.2	2.5	6.1	7.5	8.2	9.1
	강동구	7.4	10.5	9.1	8.2	10.7	6.2	6.6	5.7	6.3	6.9

주)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4. 자살률

개념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률=(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명 연령별 자살률=(특정연령의 자살 사망자 수/특정연령의 연앙인구)×100,000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자살 사망자 수(명)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년		2,560	1,764	796	25.6	35.7	15.7
2014년		2,467	1,705	762	24.7	34.7	15.1
2015년		2,301	1,566	735	23.2	32.1	14.6
2016년		2,261	1,567	694	23.0	32.5	13.9
2017년		2,067	1,462	605	21.3	30.7	12.2
2018년		2,172	1,475	697	22.5	31.3	14.2
2019년		2,151	1,438	713	22.5	30.8	14.5
2020년		2,161	1,409	752	22.7	30.3	15.4
2021년		2,133	1,402	731	22.6	30.5	15.0
2022년		2,009	1,313	696	21.4	28.9	14.4
연령별	0~14세	9	6	3	1.0	1.3	0.7
	15~19세	44	25	19	11.4	12.7	10.1
	20~24세	94	44	50	16.0	15.8	16.1
	25~29세	183	102	81	22.6	25.9	19.4
	30~34세	165	101	64	22.2	27.2	17.2
	35~39세	146	77	69	21.5	22.7	20.3
	40~44세	144	93	51	19.9	25.9	14.0
	45~49세	165	114	51	22.7	31.9	13.9
	50~54세	208	158	50	26.3	40.6	12.5
	55~59세	176	125	51	25.6	37.1	14.6
	60~64세	150	107	43	21.2	31.7	11.6
	65~69세	132	91	41	23.4	34.5	13.6
	70~74세	106	71	35	26.6	38.8	16.3
	75~79세	113	82	31	37.8	61.4	18.7
	80~84세	111	75	36	53.5	86.0	30.0
	85~89세	49	38	11	50.2	111.7	17.3
	90세 이상	14	4	10	33.3	37.7	31.8

[자치구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자살 사망자수 (명)			자살률 (10만 명당 명)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022년		2,009	1,313	696	21.4	28.9	14.4
구 별	종로구	31	18	13	22.1	26.5	17.9
	중구	30	23	7	25.2	39.7	11.4
	용산구	40	27	13	18.5	26.0	11.6
	성동구	73	49	24	26.0	35.9	16.7
	광진구	60	45	15	17.9	27.8	8.6
	동대문구	83	60	23	24.8	36.5	13.6
	종량구	84	53	31	21.9	28.1	15.9
	성북구	78	59	19	18.3	28.7	8.6
	강북구	78	56	22	26.6	39.3	14.6
	도봉구	87	55	32	27.9	36.3	19.9
	노원구	103	62	41	20.4	25.6	15.7
	은평구	104	60	44	22.3	27.0	18.1
	서대문구	70	47	23	23.2	32.6	14.5
	마포구	65	37	28	17.9	21.7	14.6
	양천구	79	53	26	17.9	24.6	11.5
	강서구	119	85	34	21.0	31.2	11.5
	구로구	88	55	33	22.4	28.4	16.5
	금천구	64	44	20	28.0	38.2	17.7
	영등포구	70	48	22	18.8	26.2	11.6
	동작구	69	43	26	18.2	23.4	13.3
	관악구	119	85	34	24.7	35.1	14.2
	서초구	69	42	27	17.1	21.8	12.8
	강남구	127	75	52	24.3	30.0	19.1
	송파구	116	68	48	17.8	21.6	14.2
	강동구	103	64	39	22.5	28.6	16.7

5. 비만율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비만율을 확인하는 지표 비만율(BMI)은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
산출방법	체질량지수(kg/m 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23.1	23.6	24.5	25.5	25.5	28.6	28.5	29.2	30.2
구별									
종로구	23.3	23.9	24.2	25.9	25.3	32.5	28.9	26.3	27.1
중구	23.4	25.7	23.4	25.1	24.0	26.1	25.4	28.2	25.1
용산구	22.1	24.5	24.6	23.1	25.7	24.0	24.6	26.0	28.2
성동구	23.7	23.9	24.0	26.2	26.4	29.3	28.7	26.5	28.3
광진구	20.9	21.0	24.7	26.6	25.2	30.4	24.5	28.5	31.6
동대문구	25.6	26.1	24.8	27.0	26.8	29.4	30.5	31.2	30.5
중랑구	24.0	27.8	25.1	27.9	30.7	34.1	31.8	31.3	35.5
성북구	25.1	24.4	24.5	27.7	22.9	32.2	27.0	28.1	31.9
강북구	23.8	23.4	29.5	28.9	29.1	29.3	31.2	32.1	33.3
도봉구	27.9	23.5	25.6	27.9	27.9	27.5	36.0	34.6	33.1
노원구	23.5	25.3	23.9	26.5	27.1	30.4	31.7	29.6	29.1
은평구	22.8	22.8	24.1	27.3	27.5	33.6	27.7	30.4	30.7
서대문구	26.5	24.2	23.5	23.0	26.1	28.3	27.2	33.8	30.6
마포구	22.7	23.0	25.0	22.9	22.4	25.6	27.7	26.6	29.7
양천구	24.3	21.6	22.8	25.7	25.3	29.1	28.9	33.6	30.8
강서구	20.3	23.7	24.5	25.7	25.3	30.7	31.2	30.6	29.0
구로구	26.9	26.4	25.1	28.9	27.7	30.3	28.7	28.2	32.5
금천구	25.8	25.4	29.9	26.8	28.7	28.2	29.6	35.6	33.6
영등포구	19.0	21.4	26.5	24.4	26.5	29.2	28.0	27.9	29.6
동작구	23.2	20.7	25.6	21.5	25.0	27.4	28.9	29.6	31.0
관악구	24.5	27.0	24.1	26.0	25.0	26.1	25.5	29.8	30.7
서초구	20.5	22.3	23.0	21.6	24.3	24.1	24.7	24.4	26.8
강남구	20.7	17.7	22.8	20.9	23.1	24.1	26.3	23.9	26.8
송파구	20.4	22.5	23.5	21.2	21.6	25.1	26.7	28.1	28.8
강동구	22.2	24.9	23.4	31.3	24.6	29.6	32.0	27.9	30.0

주: 1) 2018년 연도비교 및 해석 시 주의

- 2018년: 자가보고 키/몸무게 설문 시 신체계측을 병행하여 실시

- 2008-2017년, 2020년: 자가보고 키/몸무게만 설문

2) 2019년 조사시 자가보고 키/몸무게를 설문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

3) 표준화를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6.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개념	서울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내 체육시설 인지 여부 •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7.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추정하여, 보건 및 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식품 보장 수준]

(단위: %)

구분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식품 보장 수준			
			양적, 질적 모두 보장 상태	양적 보장, 질적 미보장 상태	양적, 질적 모두 미보장 상태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
2020년		94.4	76.6	17.8	4.4	1.2
2021년		93.8	77.6	16.2	4.9	1.3
2022년		89.5	74.5	15.0	8.5	2.1
연령 별	18~29세	89.0	75.5	13.5	9.8	1.2
	30대	94.3	80.1	14.2	5.5	0.1
	40대	93.3	79.9	13.4	6.3	0.4
	50대	91.9	75.9	16.0	7.6	0.5
	60대	87.8	72.5	15.3	9.7	2.5
	70대 이상	68.6	47.4	21.2	15.6	15.8
가 구 별	1인 가구	78.1	62.3	15.8	16.3	5.6
	부부 가구	92.0	75.5	16.5	6.1	1.9
	2세대 이상 가구	92.3	78.7	13.6	6.7	1.0
소득 별	200만원 미만	70.8	51.1	19.7	17.8	11.4
	200~350만원 미만	81.2	63.5	17.7	16.9	2.0
	350~500만원 미만	93.4	77.2	16.2	5.8	0.8
	500~700만원 미만	96.0	84.9	11.1	3.6	0.4
	700만원 이상	96.8	83.5	13.3	2.8	0.3
직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94.3	81.4	12.9	5.5	0.2
	서비스/판매직	88.6	75.0	13.6	10.9	0.5
	기능/노무직	86.6	68.4	18.2	7.9	5.5
	학생	90.9	78.4	12.5	7.9	1.2
	주부	87.6	69.8	17.8	6.9	5.5
	무직/기타	67.5	42.8	24.7	25.9	6.6

[식품의 질적 미보장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 하지 않아서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식품을 구매하 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식료품점 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 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 (식단관 리)이 필요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조리를 할 줄 몰라서	기타
2020년		36.4	46.3	65.6	9.3	11.3	8.3	4.1	-	3.8
2021년		40.5	35.8	60.1	7.5	5.3	16.4	6.2	-	6.5
2022년		23.9	48.5	56.5	3.4	8.5	9.9	7.4	40.7	-
연령 별	18~29세	28.5	55.0	50.0	2.7	-	10.3	6.7	46.8	-
	30대	17.5	46.1	74.7	1.6	5.4	2.5	3.4	47.3	-
	40대	20.5	54.4	69.7	0.8	6.5	4.6	1.7	41.7	-
	50대	23.5	47.5	60.1	2.5	11.3	11.4	5.6	34.0	-
	60대	28.1	52.9	49.3	3.7	8.1	7.1	12.0	38.3	-
	70대 이상	23.2	25.2	26.6	12.7	26.9	32.3	17.2	35.9	-
가구 별	1인 가구	31.9	28.5	68.6	1.0	6.3	8.6	12.5	42.6	-
	부부 가구	23.3	44.9	48.0	7.7	15.1	12.7	6.3	41.8	-
	2세대 이상 가구	21.5	55.7	58.8	2.5	6.7	9.6	6.3	36.7	-
소득 별	200만원 미만	37.1	37.9	43.5	4.7	14.8	12.2	6.0	43.8	-
	200~350만원 미만	39.5	35.3	56.5	2.3	8.6	6.9	7.7	43.3	-
	350~500만원 미만	15.5	57.3	57.1	3.0	4.8	14.1	9.7	37.1	-
	500~700만원 미만	13.4	59.6	60.4	1.2	9.2	6.9	8.0	40.1	-
	700만원 이상	11.1	50.0	64.8	9.6	7.0	10.6	1.9	40.1	-
직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14.9	51.9	67.1	3.3	5.2	3.3	3.5	50.2	-
	서비스/판매직	25.2	54.3	56.2	1.3	10.1	11.0	10.0	30.2	-
	기능/노무직	45.8	33.6	54.7	2.7	3.9	7.6	2.8	46.1	-
	학생	31.7	67.9	50.7	-	-	10.7	-	39.0	-
	주부	20.9	46.9	55.7	3.8	13.7	14.0	15.5	28.4	-
	무직/기타	14.8	33.8	26.1	13.5	20.9	27.1	11.5	52.2	-

주) 2021년부터 다이어트 및 기타(편식, 채식주의자 등) 원인으로 인한 자발적인 먹거리 미보장의 경우 먹거리 미보장에서 제외하였음

[식품의 양적 미보장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 하지 않아서	식품을 구매하 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식료품점 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 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조리에 필요한 시설/기 구가 없어서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 (식단관 리)이 필요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기타	다이 에트 중이 라서
2020년		39.8	67.5	10.8	19.4	6.6	11.2	7.5	1.5	28.7
2021년		14.7	65.7	6.1	12.7	3.5	16.1	18.2	-	-
2022년		61.3	61.0	10.3	18.2	15.9	13.3	13.8	-	-
연령 별	18~29세	66.2	89.5	1.4	3.2	37.6	0.4	-	-	-
	30대	51.6	84.0	1.1	41.3	9.5	0.5	11.4	-	-
	40대	59.4	75.0	9.9	19.9	18.8	2.4	0.6	-	-
	50대	39.0	67.0	20.4	19.7	26.8	10.3	13.3	-	-
	60대	66.9	49.9	11.4	23.9	6.6	23.1	12.7	-	-
	70대 이상	70.0	25.8	15.2	14.2	-	27.5	36.2	-	-
가 구 별	1인 가구	58.9	60.6	14.5	19.4	26.2	9.6	4.6	-	-
	부부 가구	42.5	53.2	16.3	26.7	10.2	32.3	17.8	-	-
	2세대 이상 가구	70.5	66.0	4.1	13.9	8.7	9.3	18.8	-	-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85.3	39.9	10.5	14.9	0.8	19.0	17.6	-	-
	200~350만원 미만	49.0	67.4	10.0	15.5	23.6	12.9	17.1	-	-
	350~500만원 미만	43.4	76.7	12.2	24.4	26.4	6.4	9.2	-	-
	500~700만원 미만	67.4	73.3	8.8	19.6	17.6	6.2	2.8	-	-
	700만원 이상	33.5	75.8	8.8	44.3	18.7	18.8	-	-	-
직 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41.4	95.1	1.0	26.3	28.0	5.6	1.5	-	-
	서비스/판매직	55.9	70.7	9.6	16.6	26.3	4.9	4.5	-	-
	기능/노무직	74.2	51.2	12.1	13.2	6.4	14.4	28.3	-	-
	학생	96.1	78.5	3.9	3.9	12.3	-	-	-	-
	주부	62.4	39.2	18.9	26.6	8.1	17.9	11.9	-	-
	무직/기타	66.4	26.2	14.6	12.3	1.8	38.2	40.3	-	-

주) 2021년부터 다이어트 및 기타(편식, 채식주의자 등) 원인으로 인한 자발적인 먹거리 미보장의 경우 먹거리 미보장에서 제외하였음

제2절 지역보전

1. 감염병 환자 수

개념	지역건강과 관련되는 지표
산출방법	서울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감염병) 발생 신고 수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통계시스템

(단위: 건, 명)

연도	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2020년	36,121	514	18,996	183	15,002	317	2,123	14
2021년	223,344	2,087	206,204	1,748	15,226	332	1,914	7
2022년	5,454,221	4,613	-	-	5,452,530	4,604	1,691	9

- 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 2) 엡폭스: 2022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
- 3)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사항(2020년 1월 1일 시행)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4) 재·개정 이유: 질환의 특성별로 분류한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제로 개편
- 5) 감염병 분류 체계: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1급: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3급: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종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자파바이러스 감염증)
- 6)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하며, 2020년 환자 발생이 신고된 감염병만 제시함
- 2020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로 신고지 기준이며 잠정통계로 추후 변동 가능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022년		5,454,221	4,613	-	-	5,452,530	4,604	1,691	9
구 별	종로구	112,824	13	-	-	112,792	13	32	-
	중구	129,141	3	-	-	129,104	3	37	-
	용산구	112,008	8	-	-	111,936	8	72	-
	성동구	168,696	12	-	-	168,636	11	60	1
	광진구	193,852	23	-	-	193,797	23	55	-
	동대문구	186,108	13	-	-	186,043	12	65	1
	종량구	193,818	12	-	-	193,746	12	72	-
	성북구	217,666	18	-	-	217,601	17	65	1
	강북구	154,422	13	-	-	154,342	12	80	1
	도봉구	160,835	11	-	-	160,792	11	43	-
	노원구	267,828	18	-	-	267,763	17	65	1
	은평구	252,191	31	-	-	252,123	30	68	1
	서대문구	168,984	80	-	-	168,948	80	36	-
	마포구	221,687	7	-	-	221,633	7	54	-
	양천구	245,870	5	-	-	245,814	5	56	-
	강서구	313,981	19	-	-	313,890	19	91	-
	구로구	236,740	31	-	-	236,633	31	107	-
	금천구	138,830	10	-	-	138,767	9	63	1
	영등포구	250,882	17	-	-	250,774	16	108	1
	동작구	201,510	12	-	-	201,439	11	71	1
	관악구	252,572	7	-	-	252,464	7	108	-
	서초구	252,348	34	-	-	252,293	34	55	-
	강남구	371,730	27	-	-	371,645	27	85	-
	송파구	387,758	13	-	-	387,673	13	85	-
	강동구	261,940	16	-	-	261,882	16	58	-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 (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단위: 건, 명)

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¹⁾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결핵		수두	C형간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발생
2020년		18,996	183	5,143	100	3,486	207	3,870	1,723
2021년		206,204	1,748	6,459	105	3,067	224	2,832	1,553
2022년		5,436,707	4,160	9,153	239	2,756	201	2,426	1,285
구 별	종로구	112,226	...	448	12	49	1	35	27
	중구	128,876	...	124	-	53	3	32	32
	용산구	111,691	...	73	-	85	8	47	52
	성동구	168,244	...	216	2	73	9	56	52
	광진구	193,323	...	248	14	112	9	87	40
	동대문구	185,533	...	239	1	128	10	79	56
	종량구	193,257	...	185	1	126	11	109	60
	성북구	216,778	...	523	5	123	12	110	54
	강북구	154,070	...	47	-	98	12	79	59
	도봉구	160,509	...	72	-	77	10	80	31
	노원구	267,027	...	388	6	155	11	113	43
	은평구	251,346	...	453	19	127	11	125	47
	서대문구	167,685	...	1,023	71	77	9	107	26
	마포구	221,338	...	5	-	96	7	101	46
	양천구	245,201	...	318	-	119	4	114	43
	강서구	313,327	...	180	7	167	12	128	64
	구로구	235,649	...	639	24	166	7	112	96
	금천구	138,537	...	48	-	105	9	48	51
	영등포구	249,860	...	614	4	168	12	83	93
	동작구	201,032	...	173	6	99	5	78	52
	관악구	252,079	...	87	2	152	5	79	71
	서초구	251,673	...	417	28	62	6	88	29
	강남구	370,782	...	545	21	71	6	149	62
	송파구	385,811	...	1,441	7	142	6	199	63
	강동구	260,853	...	647	9	126	6	188	36

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중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2) ...: 미상자료

2. 미충족의료 경험률

개념	건강격차를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15.0	11.7	11.9	12.0	10.0	7.6	5.3	4.8	4.4	3.8
구별										
종로구	20.2	13.6	11.9	8.0	7.3	9.6	3.7	6.9	4.5	8.6
중구	10.6	12.3	12.8	12.8	5.7	7.9	2.7	3.0	3.2	3.6
용산구	9.1	9.6	6.4	10.5	8.0	3.7	0.9	1.7	3.0	1.9
성동구	17.0	17.9	14.0	17.0	15.7	13.8	6.1	5.2	3.5	2.9
광진구	13.6	7.2	16.5	11.1	8.5	9.3	6.2	4.9	6.5	4.7
동대문구	13.0	7.8	5.5	7.9	10.3	3.3	6.6	1.9	2.6	0.4
중랑구	14.1	8.7	14.6	11.8	12.5	8.0	7.9	7.7	2.9	1.5
성북구	13.4	14.9	14.0	14.1	12.6	13.0	5.0	5.8	5.8	2.8
강북구	19.5	11.8	14.7	8.6	12.4	7.9	5.2	3.3	3.6	3.1
도봉구	14.0	11.7	10.8	9.3	11.2	9.8	7.6	4.2	9.4	4.5
노원구	18.5	10.7	6.9	4.4	7.3	4.6	3.9	3.5	2.6	2.8
은평구	13.5	9.1	10.8	12.6	11.4	8.0	6.0	6.7	6.9	4.7
서대문구	15.9	12.4	12.3	12.7	11.0	4.9	3.0	2.6	4.9	8.9
마포구	19.2	10.6	10.9	11.1	9.8	4.6	3.9	5.6	1.7	3.1
양천구	14.2	10.6	9.9	13.8	9.6	6.2	6.1	3.2	4.9	4.5
강서구	18.5	16.9	15.7	16.5	11.1	7.0	6.4	5.4	3.2	3.5
구로구	13.0	13.0	13.9	10.7	12.4	7.1	5.4	2.3	3.6	5.4
금천구	16.6	13.7	17.4	16.0	16.0	16.7	13.0	8.3	7.1	5.7
영등포구	15.6	9.0	10.5	9.4	9.0	3.5	4.6	12.9	4.6	3.6
동작구	14.9	12.3	11.5	19.5	8.7	14.6	4.7	4.2	3.3	2.4
관악구	12.1	9.4	9.8	11.5	7.1	6.8	6.3	3.4	2.8	3.3
서초구	12.7	11.1	8.4	9.8	9.5	6.7	2.6	4.5	4.0	3.0
강남구	14.4	12.2	12.7	11.4	9.7	8.6	3.3	6.7	5.2	2.7
송파구	15.5	12.9	12.4	12.7	5.2	3.9	6.3	3.0	6.3	5.2
강동구	14.1	12.1	12.2	14.9	10.6	7.2	5.9	4.4	4.3	4.4

주: 1) 미충족의료 이유: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 이유, 교통 불편,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진료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3.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개념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총 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단위: 개, 명, 개/인구 10만 명)

구분		병상 수	주민등록인구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13년		83,711	10,388,055	805.8
2014년		88,509	10,369,593	853.5
2015년		84,919	10,297,138	824.7
2016년		86,420	10,204,057	846.9
2017년		86,925	10,124,579	858.6
2018년		86,566	10,049,607	861.4
2019년		88,059	10,010,983	879.6
2020년		89,744	9,911,088	905.5
2021년		91,765	9,736,027	942.5
2022년		92,577	9,667,669	957.6
구 별	종로구	3,716	152,211	2441.3
	중구	1,166	130,785	891.5
	용산구	896	233,284	384.1
	성동구	1,835	288,234	636.6
	광진구	2,650	351,252	754.4
	동대문구	5,233	353,601	1479.9
	중랑구	3,273	390,140	838.9
	성북구	3,687	441,984	834.2
	강북구	2,334	297,702	784.0
	도봉구	2,708	313,989	862.5
	노원구	3,557	508,014	700.2
	은평구	3,740	470,602	794.7
	서대문구	4,126	319,554	1291.2
	마포구	1,032	375,585	274.8
	양천구	3,092	444,010	696.4
	강서구	5,205	574,638	905.8
	구로구	4,744	418,418	1133.8
	금천구	2,136	242,818	879.7
	영등포구	5,914	398,085	1485.6
	동작구	2,792	390,432	715.1
	관악구	2,430	501,226	484.8
	서초구	3,783	408,451	926.2
	강남구	8,856	534,103	1658.1
	송파구	7,345	664,514	1105.3
	강동구	6,327	464,037	1363.5

주: 1) 매년 4/4분기 기준, 출처 변경 등으로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시 주의 필요
 2)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포함

4. 보건기관 이용률

개념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서울시	20.9	21.5	19.6	18.4	18.6	18.6	19.8	37.1
구별								
종로구	23.3	23.9	15.3	20.1	19.2	18.8	26.3	51.2
중구	23.7	18.9	17.7	21.7	21.3	18.6	21.1	41.0
용산구	25.1	20.7	22.6	16.8	19.6	17.9	22.6	44.9
성동구	20.1	19.8	23.9	16.3	19.2	17.1	18.1	37.6
광진구	24.7	20.5	15.2	16.8	16.9	19.0	17.6	49.5
동대문구	19.4	15.9	18.9	18.3	19.5	21.0	21.3	39.3
중랑구	21.2	23.4	19.4	20.8	20.0	19.7	20.8	26.5
성북구	25.8	26.5	22.7	22.0	20.3	20.3	21.1	36.8
강북구	24.3	27.9	23.4	24.9	21.2	20.9	21.7	44.7
도봉구	17.8	21.9	25.1	24.4	21.8	21.3	26.0	65.4
노원구	21.9	22.6	15.8	15.5	18.8	19.6	20.3	50.5
은평구	23.5	22.7	21.3	18.8	21.9	17.4	21.4	44.1
서대문구	20.2	27.1	20.8	19.2	20.0	22.0	19.1	56.7
마포구	15.7	20.9	17.9	15.9	16.8	17.1	16.6	39.8
양천구	19.9	23.0	16.6	20.5	20.4	20.6	21.3	11.9
강서구	21.6	21.3	21.7	19.4	16.8	21.3	15.6	26.1
구로구	17.7	20.5	24.2	16.9	20.6	15.3	16.1	24.9
금천구	20.9	20.0	21.2	20.1	20.5	20.4	23.6	11.0
영등포구	16.3	18.5	17.8	17.9	17.9	14.3	20.2	44.9
동작구	20.3	19.7	15.7	16.9	19.0	18.6	20.7	30.6
관악구	19.9	20.4	21.7	16.7	16.0	18.3	21.4	28.5
서초구	18.6	18.7	17.3	16.8	17.5	15.1	16.6	36.1
강남구	17.1	17.1	15.9	13.9	13.9	14.2	13.3	28.3
송파구	22.4	24.2	19.9	17.7	20.3	19.5	21.9	40.4
강동구	23.3	20.6	19.9	19.3	15.4	18.2	21.7	40.1

주: 1) 2009년 신규 도입 후 2019년까지 매년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2021년 일시 중단 후 2022년 조사 재개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5. 치매유병률

개념	지역연계모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추정치매유병률=(추정치매환자 수/노인인구 수)×100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유병현황

(단위: 명, %)

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2015년	106,475	6.08	103,186	8.59
2016년	112,456	6.15	108,940	8.80
2017년	119,817	6.30	116,132	9.05
2018년	127,519	6.44	123,699	9.24
2019년	135,181	6.55	131,204	9.40
2020년	143,574	6.65	139,480	9.50
2021년	151,772	6.76	147,595	9.58
2022년	159,334	6.78	154,989	9.56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자치구별]

(단위: 명, %)

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2021년		151,772	6.76	147,595	9.58
구 별	종로구	2,975	7.97	2,907	11.04
	중구	2,459	7.56	2,399	10.49
	용산구	4,066	7.83	3,970	10.98
	성동구	4,529	6.88	4,398	9.87
	광진구	4,823	6.49	4,676	9.4
	동대문구	6,105	7.09	5,948	9.86
	종랑구	6,556	6.36	6,351	9.17
	성북구	7,500	7.26	7,316	10.13
	강북구	6,281	7.13	6,129	9.8
	도봉구	6,286	6.93	6,117	9.84
	노원구	8,848	7.1	8,620	10.06
	은평구	8,448	7.01	8,233	9.82
	서대문구	5,705	7.71	5,575	10.69
	마포구	5,683	7.58	5,549	10.6
	양천구	6,111	6.17	5,913	8.96
	강서구	8,404	6.33	8,149	9.14
	구로구	6,458	6.41	6,271	9.04
	금천구	3,662	6.26	3,542	9.06
	영등포구	5,990	6.99	5,829	9.85
	동작구	6,425	7.01	6,265	9.78
	관악구	7,314	6.65	7,122	9.2
	서초구	5,574	6.63	5,424	9.3
	강남구	6,909	6.52	6,722	9.08
	송파구	8,387	5.94	8,108	8.68
	강동구	6,275	5.87	6,061	8.58

주) 2022년 자치구별 현황 자료 미공개(2023년 12월 기준)

제5장 안전과 재난

제1절 자연재난

1. 풍수해·폭설 피해

개념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 강수일수 및 눈일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강수일수 및 눈일수]

(단위: 일)

연도	강수일수	눈일수	합계
2013년	128	31	159
2014년	101	27	128
2015년	104	19	123
2016년	109	21	130
2017년	102	29	131
2018년	104	24	128
2019년	98	24	122
2020년	106	21	127
2021년	117	24	141
2022년	104	31	135

[풍수해 및 폭설 피해]

(단위: 명, 세대, 천 원)

연도	사망 및 실종자 수	이재민	주택침수 세대	풍수해 피해액				
				계	건물	공공시설	농경지	사유시설
2013년	1	176	82	905,208	64,200	840,150	858	-
2014년	-	2	60	36,600	36,600	-	-	-
2015년	-	-	-	-	-	-	-	-
2016년	-	-	38	197,668	-	197,668	-	-
2017년	1	-	23	44,613	13,800	30,813	-	-
2018년	4	-	1,465	2,622,682	1,318,500	1,304,182	-	-
2019년	1	-	3	108,000	-	-	-	-
2020년	-	-	181	162,900	162,900	-	-	-
2021년	-	-	-	-	-	-	-	-
2022년	10	32,111	19,705	69,630,498	39,644,000	29,773,001	195,336	18,161

주: 1)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상황 총괄표 기준

2) 2015년, 2021년 :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었음

3) 자연 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4)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 지원액이며, 소상공 피해집계 제외됨

출처)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자치구별]

(단위: 명, 세대, 천 원)

연도	사망 및 실종자 수	이재민	주택침수 세대	풍수해 피해액					
				계	건물	공공시설	농경지	사유시설	
2022년	10	32,111	19,705	69,630,498	39,644,000	29,773,001	195,336	18,161	
구 별	종로구	-	9	3	58,000	58,000	-	-	-
	중구	-	-	-	886	-	886	-	-
	용산구	-	17	11	126,125	22,000	104,125	-	-
	성동구	-	-	-	-	-	-	-	-
	광진구	-	-	-	-	-	-	-	-
	동대문구	-	7	4	8,000	8,000	-	-	-
	종랑구	-	7	6	12,000	12,000	-	-	-
	성북구	-	52	31	114,000	114,000	-	-	-
	강북구	-	327	191	434,000	434,000	-	-	-
	도봉구	-	177	120	240,000	240,000	-	-	-
	노원구	-	119	79	158,000	158,000	-	-	-
	은평구	-	139	75	150,000	150,000	-	-	-
	서대문구	-	25	17	34,000	34,000	-	-	-
	마포구	-	6	6	12,000	12,000	-	-	-
	양천구	-	4	2	4,000	4,000	-	-	-
	강서구	-	-	-	-	-	-	-	-
	구로구	-	2,723	2,007	5,463,774	4,040,000	1,423,774	-	-
	금천구	-	2,056	1,187	2,413,744	2,374,000	39,744	-	-
	영등포구	1	7,470	4,145	11,137,351	8,290,000	2,847,351	-	-
	동작구	2	6,544	3,939	12,297,075	7,878,000	4,419,075	-	-
	관악구	4	7,049	4,813	11,902,639	9,678,000	2,224,639	-	-
	서초구	2	1,982	1,113	17,714,898	2,226,000	15,275,401	195,336	18,161
	강남구	1	1,971	1,133	5,704,006	2,266,000	3,438,006	-	-
	송파구	-	1,229	708	1,416,000	1,416,000	-	-	-
	강동구	-	198	115	230,000	230,000	-	-	-

주: 1)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상황 총괄표 기준

2) 자연 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3)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 지원액이며, 소상공 피해집계 제외됨

출처) 서울시 하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2. 폭염·한파 피해

개념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한랭질환자 및 사망자 수 • 폭염 및 한파일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청,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폭염 및 한파일수]

(단위: 일)

연도	폭염일수	한파일수
2013년	2	8
2014년	10	1
2015년	8	1
2016년	24	5
2017년	13	3
2018년	35	11
2019년	15	0
2020년	4	2
2021년	18	8
2022년	10	4

주: 1) 폭염일수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2) 한파일수는 아침(03:00~09:00)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입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폭염 피해]

(단위: 명, 일, %)

연도	전국			서울	
	온열질환자	사망자	폭염일수	온열질환자	전국 대비 온열질환자 비중
2013년	1,189	14	16.6	52	4.4
2014년	556	1	6.6	39	7.0
2015년	1,056	11	9.6	50	4.7
2016년	2,125	17	22	170	8.0
2017년	1,574	11	13.5	107	6.8
2018년	4,526	48	31	616	13.6
2019년	1,841	11	12.9	107	5.8
2020년	1,078	9	7.7	38	3.5
2021년	1,376	20	11.8	121	8.8
2022년	1,564	9	10.6	110	7.0

- 주: 1)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2.5.20.~2022.9.30. 기간 중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본 자료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자료로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참여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 3) 본 자료의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지역 구분은 2018년까지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2019년부터 '증상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함. 또한 '날짜'는 '증상발생일', '주(Week)'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임
- 4)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 33.0℃ 이상인 날의 일수로, 전국 62개 지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일수(기상자료기법포털)
- 출처)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연도별 발생주별 온열질환자 신고현황]

(단위: 명)

구분		전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189	556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1,376	1,564
1주	2022.5.20.-5.21.	-	-	45	14	22	11	43	2	3	5
2주	2022.5.22.-5.28.	40	31	16	23	11	32	23	6	3	24
3주	2022.5.29.-6.4.	21	14	12	28	21	36	37	29	13	24
4주	2022.6.5.-6.11.	37	25	10	26	44	9	17	103	50	17
5주	2022.6.12.-6.18.	26	17	18	32	35	35	29	34	15	27
6주	2022.6.19.-6.25.	26	36	15	16	69	45	38	70	24	86
7주	2022.6.26.-7.2.	103	61	73	157	187	52	67	18	44	208
8주	2022.7.3.-7.9.	71	41	44	77	318	266	21	39	32	311
9주	2022.7.10.-7.16.	87	123	43	125	166	654	43	40	267	98
10주	2022.7.17.-7.23.	80	104	314	268	357	1017	176	13	239	59
11주	2022.7.24.-7.30.	328	66	315	337	205	1106	400	53	303	189
12주	2022.7.31.-8.6.	246	15	113	552	39	624	533	54	238	222
13주	2022.8.7.-8.13.	92	9	22	326	81	488	309	176	60	124
14주	2022.8.14.-8.20.	28	8	9	121	15	91	56	242	25	64
15주	2022.8.21.-8.27.	4	6	7	6	4	49	12	143	27	41
16주	2022.8.28.-9.3.	-	-	-	14	-	9	16	47	14	8
17주	2022.9.4.-9.10.	-	-	-	2	-	2	10	8	8	13
18주	2022.9.11.-9.17.	-	-	-	1	-	-	11	1	4	27
19주	2022.9.18.-9.24.	-	-	-	-	-	-	-	-	4	14
20주	2022.9.25.-9.30.	-	-	-	-	-	-	-	-	3	3

출처)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한파 피해]

(단위: 명, °C, %)

절기	전국			서울	
	한랭질환자	사망자	평균 최저 기온(°C)	한랭질환자	전국 대비 한랭질환자 비중
2013-2014	258	13	-3.2	45	17.4
2014-2015	458	12	-3.6	42	9.2
2015-2016	483	26	-2.7	39	8.1
2016-2017	441	4	-3.2	32	7.3
2017-2018	631	11	-5.5	78	12.4
2018-2019	404	10	-3.4	46	11.4
2019-2020	303	2	-1.4	17	5.6
2020-2021	433	7	-3.9	37	8.5
2021-2022	300	9	-4.8	24	8.0

- 주: 1)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1.12.1.~2022.2.28. 기간 중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계사·인용된 일일 통계 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 2) 본 연보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개)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 자료로 한랭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참여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랭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함
- 3) 본 연보의 '한랭질환자'는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시·도'는 '증상발생장소' 기준임
- 4) '날짜'는 '증상발생일', '주(Week)'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임

출처) 질병관리청,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연도별 절기별 온열질환자 신고현황]

(단위: 명)

구분		전국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전체		258	458	483	441	631	404	303	433	300
1주	2021.12.1-12.4.	17	46	25	10	10	3	35	20	13
2주	2021.12.5-12.11.	36	49	21	34	26	30	32	23	9
3주	2021.12.12-12.18.	29	69	41	30	71	47	22	48	23
4주	2021.12.19-12.25.	16	57	25	28	44	23	24	21	32
5주	2021.12.26-2022.1.1.	27	53	27	29	35	49	30	39	37
6주	2022.1.2-1.8.	29	38	20	24	41	43	25	127	38
7주	2022.1.9-1.15.	33	29	24	38	67	36	25	40	29
8주	2022.1.16-1.22.	19	21	105	66	31	24	16	27	19
9주	2022.1.23-1.29.	12	21	77	58	112	28	14	27	13
10주	2022.1.30-2.5.	21	14	45	30	62	28	28	21	31
11주	2022.2.6-2.12.	10	33	19	29	63	27	19	17	19
12주	2022.2.13-2.19.	7	13	27	26	41	30	25	16	23
13주	2022.2.20-2.26.	2	15	17	30	23	26	8	7	13
14주	2022.2.27-2.28.	-	-	10	9	5	10	-	-	1

출처) 질병관리청,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제2절 사회재난

1.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교통정책 입안 시 참고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사고 건수/(자동차 수+이륜차 수))×10,000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발생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
2013년		39,439	115.2	378	3.6	56,761	546.4
2014년		40,792	117.5	400	3.9	57,345	553.0
2015년		41,665	118.7	376	3.7	58,656	569.6
2016년		40,039	113.3	348	3.4	55,669	545.6
2017년		38,625	108.3	343	3.4	53,810	531.5
2018년		38,795	108.6	304	3.0	53,751	534.9
2019년		39,258	109.9	250	2.5	53,904	538.4
2020년		35,227	97.4	219	2.2	47,513	479.4
2021년		33,913	93.9	243	2.5	45,223	464.5
2022년		33,698	93.3	221	2.3	45,329	468.9
구 별	종로구	974	154.0	3	2.0	1,351	887.6
	중구	943	129.2	2	1.5	1,212	926.7
	용산구	1,014	111.4	11	4.7	1,330	570.1
	성동구	948	78.0	8	2.8	1,222	424.0
	광진구	708	60.2	9	2.6	966	275.0
	동대문구	1,534	124.0	12	3.4	1,843	521.2
	중랑구	1,401	99.2	10	2.6	1,890	484.4
	성북구	1,288	87.9	8	1.8	1,626	367.9
	강북구	1,044	112.0	6	2.0	1,266	425.3
	도봉구	522	47.9	2	0.6	705	224.5
	노원구	1,384	82.5	6	1.2	1,913	376.6
	은평구	918	59.9	9	1.9	1,256	266.9
	서대문구	974	93.2	5	1.6	1,303	407.8
	마포구	1,065	78.2	10	2.7	1,483	394.9
	양천구	1,165	70.6	8	1.8	1,529	344.4
	강서구	1,606	71.1	15	2.6	2,108	366.8
	구로구	1,274	77.9	12	2.9	1,691	404.1
	금천구	844	81.2	9	3.7	1,152	474.4
	영등포구	1,998	125.2	20	5.0	2,707	680.0
	동작구	1,217	101.5	7	1.8	1,651	422.9
	관악구	1,172	83.5	9	1.8	1,535	306.2
	서초구	2,264	120.1	8	2.0	3,391	830.2
	강남구	3,709	140.0	16	3.0	5,052	945.9
	송파구	2,581	95.7	9	1.4	3,594	540.8
	강동구	1,151	67.5	7	1.5	1,553	334.7

주: 1)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2)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미포함)

[자전거 교통사고]

(단위: 건, 명)

구분		자전거 가해자사고			자전거 피해자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3년		1,582	14	1,708	2,017	13	2,128
2014년		2,065	19	2,250	2,449	20	2,594
2015년		2,230	15	2,435	2,299	12	2,475
2016년		1,884	15	2,051	1,961	12	2,088
2017년		1,656	16	1,776	1,607	14	1,701
2018년		1,471	18	1,573	1,447	11	1,513
2019년		1,766	11	1,950	1,599	7	1,714
2020년		1,802	14	2,018	1,641	9	1,790
2021년		1,779	13	1,969	1,554	14	1,684
2022년		1,674	8	1,861	1,454	6	1,550
구 별	종로구	30	-	35	16	1	15
	중구	24	-	25	20	-	23
	용산구	30	-	33	37	-	39
	성동구	85	1	91	59	-	62
	광진구	41	-	45	28	-	28
	동대문구	114	-	121	83	1	85
	종량구	88	-	101	85	1	89
	성북구	39	-	39	39	-	39
	강북구	41	-	42	45	-	45
	도봉구	41	-	43	21	-	22
	노원구	85	-	89	71	-	73
	은평구	50	-	56	54	-	55
	서대문구	34	-	36	35	-	36
	마포구	49	-	59	56	1	60
	양천구	47	1	49	64	-	66
	강서구	112	1	128	110	-	118
	구로구	80	1	90	55	-	62
	금천구	30	-	34	22	-	23
	영등포구	173	1	203	137	1	161
	동작구	54	-	62	39	-	42
	관악구	36	-	39	21	1	21
	서초구	48	1	54	38	-	41
	강남구	88	1	98	71	-	80
	송파구	202	1	230	162	-	178
	강동구	53	-	59	86	-	87

주) 자전거 가해운전자 사고: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고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산출방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 + 인명피해 수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3년		80	1	79
2014년		96	1	100
2015년		90	1	90
2016년		96	2	101
2017년		81	1	85
2018년		77	1	76
2019년		114	2	115
2020년		65	-	70
2021년		68	1	83
2022년		77	1	78
구 별	종로구	1	-	1
	중구	1	-	1
	용산구	3	-	3
	성동구	3	-	3
	광진구	3	-	3
	동대문구	5	-	6
	중랑구	1	-	1
	성북구	2	-	2
	강북구	5	-	5
	도봉구	-	-	-
	노원구	5	-	5
	은평구	4	-	4
	서대문구	3	-	3
	마포구	2	-	2
	양천구	6	-	6
	강서구	9	-	10
	구로구	4	-	4
	금천구	2	-	2
	영등포구	2	-	2
	동작구	-	-	-
	관악구	2	-	2
	서초구	1	-	1
	강남구	7	1	6
	송파구	5	-	5
	강동구	1	-	1

3.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화, 방화, 기타에 의한 화재 발생 총 건수 •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자 수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화재 발생 건수				화재 사상자 수		
		계	실화	방화	기타	계	사망	부상
2013년		5,646	4,982	262	402	233	31	202
2014년		5,815	5,131	227	457	301	36	265
2015년		5,921	5,191	195	535	249	27	222
2016년		6,443	5,715	160	568	276	40	236
2017년		5,978	5,346	123	509	283	37	246
2018년		6,368	5,662	167	539	360	53	307
2019년		5,881	5,251	136	494	398	37	361
2020년		5,088	4,523	98	467	273	37	236
2021년		4,951	4,399	87	465	317	37	280
2022년		5,396	4,756	109	531	362	37	325
구 별	종로구	191	159	2	30	12	2	10
	중구	190	155	9	26	24	2	22
	용산구	207	173	9	25	10	2	8
	성동구	215	186	5	24	11	1	10
	광진구	145	131	2	12	7	-	7
	동대문구	173	150	2	21	14	2	12
	중랑구	188	162	9	17	23	3	20
	성북구	158	135	6	17	14	1	13
	강북구	155	130	7	18	14	1	13
	도봉구	159	138	4	17	13	2	11
	노원구	169	147	7	15	7	3	4
	은평구	217	195	3	19	17	1	16
	서대문구	223	196	6	21	9	2	7
	마포구	250	237	-	13	15	1	14
	양천구	159	144	1	14	6	-	6
	강서구	223	181	1	41	15	4	11
	구로구	222	194	6	22	5	-	5
	금천구	214	193	1	20	15	1	14
	영등포구	249	212	6	31	26	5	21
	동작구	187	176	2	9	18	1	17
	관악구	305	275	3	27	18	1	17
	서초구	216	195	3	18	13	-	13
	강남구	437	402	9	26	17	-	17
	송파구	350	328	4	18	13	1	12
	강동구	194	162	2	30	26	1	25

주)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 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삶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4.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 건수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전국]

(단위: 건, %)

연도	전체 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건수	안전사고 비율
2012년	303,707	36,400	12.0
2013년	294,707	38,020	12.9
2014년	297,337	31,254	10.5
2015년	315,736	38,835	12.3
2016년	303,578	38,691	12.7
2017년	291,285	30,422	10.4
2018년	293,361	33,392	11.4
2019년	298,407	28,263	9.5
2020년	280,590	27,720	9.9
2021년	258,989	18,530	7.2

주: 1) 전체 사고발생현황: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열차), 철도(지하철),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내수면), 유·도선(해수면),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물놀이), 수난(익사 등),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사고발생 건수의 합계
 2) 안전사고 건수: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 화재, 붕괴’ 사고발생 건수를 제외한 사고발생 건수의 합계

[서울]

(단위: 건, %, 명)

연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인명 피해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비율	소계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실종
2019년	48,296	3,148	6.5	1,862	70	1,788	4
2020년	42,987	2,375	5.5	1,187	93	1,094	0
2021년	40,467	1,620	4.0	977	26	951	0

5. 야간보행 안전도

개념	야간보행 안전도 조사
산출방법	가구의 야간보행 안전도 및 야간보행 불안 이유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제3절 사회안전

1. 강력범죄 발생률

개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현황 파악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

연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							
	소계	강력범죄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2013년	3,548	60.4	592.8	629.8	736.8	15.0	198.0	1,315.3
2014년	3,433	60.5	572.7	629.9	697.3	18.1	225.4	1,229.1
2015년	3,463	60.2	537.1	633.2	711.8	16.2	240.5	1,263.7
2016년	3,362	65.6	459.2	632.8	709.9	17.9	246.2	1,230.8
2017년	3,162	74.1	406.4	586.7	698.9	14.7	226.8	1,154.7
2018년	3,075	69.6	389.8	558.0	754.5	11.2	237.9	1,053.8
2019년	3,089	69.9	421.6	546.6	806.2	13.5	235.7	995.8
2020년	2,988	63.2	386.4	487.8	867.4	15.4	233.8	934.4
2021년	2,650	54.9	344.4	428.9	701.7	13.7	219.6	886.5
2022년	2,891	64.7	388.7	483.9	812.7	9.7	270.6	860.8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건, %)

연도	범죄발생 현황 (건)	범죄 유형별 발생 비중 (%)						
		강력범죄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2013년	368,583	1.7	16.7	17.7	20.8	0.4	5.6	37.1
2014년	355,990	1.8	16.7	18.3	20.3	0.5	6.6	35.8
2015년	356,576	1.7	15.5	18.3	20.6	0.5	6.9	36.5
2016년	343,105	2.0	13.7	18.8	21.1	0.5	7.3	36.6
2017년	320,177	2.3	12.9	18.6	22.1	0.5	7.2	36.5
2018년	309,001	2.3	12.7	18.1	24.5	0.4	7.7	34.3
2019년	309,268	2.3	13.6	17.7	26.1	0.4	7.6	32.2
2020년	296,177	2.1	12.9	16.3	29.0	0.5	7.8	31.3
2021년	257,967	2.1	13.0	16.2	26.5	0.5	8.3	33.5
2022년	279,507	2.2	13.4	16.7	28.1	0.3	9.4	29.8

[5대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5대범죄 발생 건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13년		132,966	152	420	5,387	61,585	65,422
2014년		130,674	158	343	5,462	59,393	65,318
2015년		126,401	163	276	5,449	55,307	65,206
2016년		117,839	148	262	6,002	46,857	64,570
2017년		107,835	142	169	6,963	41,162	59,399
2018년		101,948	143	143	6,412	39,175	56,075
2019년		103,668	136	136	6,469	42,204	54,723
2020년		92,679	141	138	5,763	38,293	48,344
2021년		80,445	124	122	4,911	33,531	41,757
2022년		90,399	104	117	5,816	37,579	46,783
구별	종로구	3,138	2	8	228	1,313	1,587
	중구	3,071	1	5	194	1,365	1,506
	용산구	2,967	5	7	280	978	1,697
	성동구	2,194	2	2	125	979	1,086
	광진구	3,619	6	-	230	1,670	1,713
	동대문구	3,253	4	2	125	1,556	1,566
	중랑구	3,599	2	2	150	1,508	1,937
	성북구	2,749	3	1	158	1,143	1,444
	강북구	2,832	5	5	177	872	1,773
	도봉구	2,141	3	-	70	969	1,099
	노원구	3,896	3	3	180	1,504	2,206
	은평구	3,487	4	5	176	1,497	1,805
	서대문구	2,374	5	6	157	1,114	1,092
	마포구	4,096	2	2	436	1,451	2,205
	양천구	3,169	2	3	114	1,474	1,576
	강서구	4,663	3	7	261	1,991	2,401
	구로구	3,857	11	8	217	1,565	2,056
	금천구	2,577	2	3	127	1,118	1,327
	영등포구	4,819	5	10	327	2,062	2,415
	동작구	2,735	2	5	212	1,195	1,321
	관악구	4,879	10	9	327	1,966	2,567
	서초구	4,459	3	3	431	1,921	2,101
	강남구	6,947	12	11	667	2,495	3,762
	송파구	5,167	2	5	290	2,201	2,669
	강동구	3,711	5	5	157	1,672	1,872

2.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발생원인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신고) 건수 가정폭력발생 건수, 가정폭력 상담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피해 건수(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망사례)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발생현황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가정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발생(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등)
2012년	2,464	2,464	2,660	17	2,555	88
2013년	3,869	3,869	4,250	63	4,187	-
2014년	4,543	4,543	4,892	49	4,843	-
2015년	6,937	6,914	8,106	77	8,029	-
2016년	7,700	7,745	9,142	74	9,068	-
2017년	6,700	6,721	7,952	62	7,890	-
2018년	6,525	6,978	7,364	47	7,317	-
2019년	7,489	8,145	9,693	85	2,780	6,828
2020년	7,058	7,460	8,771	49	2,214	6,508
2021년*	38,826	7,898	9,469	63	2,834	6,572

주) 2012~2020년: 발생건수, 2021년: 신고건수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상담 건수]

(단위: 건)

연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					
	전체	가정폭력 상담건수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피해
2013년	72,469	51,430	13,682	-	-	7,357
2014년	76,530	46,580	21,627	-	-	8,323
2015년	71,503	46,989	15,938	-	-	8,576
2016년	62,642	28,464	23,578	-	-	10,600
2017년	76,847	45,790	21,631	-	-	9,426
2018년	94,265	58,779	23,865	-	-	11,621
2019년	98,522	61,249	24,506	954	358	11,455
2020년	94,353	58,080	21,073	742	208	14,250
2021년	98,378	57,872	24,989	262	131	15,124
2022년	93,402	52,791	27,078	483	279	12,771

출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단위: 건, 명, 건/인구 천 명당)

연도	전체 신고접수			65세 이상 인구 수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사례 신고접수율
	전체	학대사례	일반사례		
2013년	865	428	437	1,161,708	0.4
2014년	976	420	556	1,216,529	0.3
2015년	1,061	403	658	1,262,436	0.3
2016년	1,117	495	622	1,295,899	0.4
2017년	1,470	440	1,030	1,359,901	0.3
2018년	1,618	522	1,096	1,410,297	0.4
2019년	1,962	534	1,428	1,478,664	0.4
2020년	2,080	676	1,404	1,561,139	0.4
2021년	2,313	736	1,577	1,597,447	0.5
2022년	2,436	616	1,820	1,658,207	0.4

주)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 피해]

(단위: 명, 건, 명/인구 천 명당)

연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당)	사망아동 인원
2013년	1,616,440	815	0.50	-
2014년	1,543,394	954	0.62	-
2015년	1,502,968	1,179	0.78	-
2016년	1,467,622	2,268	1.55	-
2017년	1,391,088	1,306	1.66	-
2018년	1,343,716	2,210	1.64	5
2019년	1,250,682	2,178	1.74	6
2020년	1,199,002	2,780	2.30	7
2021년	1,161,581	3,615	3.11	2
2022년	1,109,318	2,899	2.61	5

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3. 보이스피싱 피해

개념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로, 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전국)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단위: 건, %, 억 원)

연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보이스피싱 피해액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건수	%	건수	%			
2016년	17,040	3,384	19.9	13,656	80.1	1,468	541	927
2017년	24,259	5,685	23.4	18,574	76.6	2,470	967	1,503
2018년	34,132	6,221	18.2	27,911	81.8	4,040	1,430	2,610
2019년	37,667	7,219	19.2	30,448	80.8	6,398	2,506	3,892
2020년	31,681	7,844	24.8	23,837	75.2	7,000	2,144	4,856
2021년	30,982	7,017	22.6	23,965	77.4	7,744	1,741	6,003
2022년	21,832	8,930	40.9	12,902	59.1	5,438	2,077	3,361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전국: 보이스피싱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연령별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여성
2016년	17,040	3,209	3,735	4,542	3,834	1,261	459	8,660	8,380
2017년	24,259	5,273	4,887	6,473	5,412	1,807	407	11,391	12,868
2018년	34,132	4,480	6,483	9,842	9,313	3,389	625	17,673	16,459
2019년	37,667	3,855	6,041	10,264	11,825	4,617	1,065	21,424	16,243
2020년	31,681	5,323	4,406	7,704	9,217	4,188	843	17,293	14,388

출처: 1)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
2)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성별 현황

[서울: 보이스피싱 시도경찰청 피해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2016년	17,040	5,593	32.8	1,138	6.7	3,279	19.2
2017년	24,259	7,764	32.0	1,531	6.3	5,624	23.2
2018년	34,132	9,972	29.2	2,325	6.8	8,697	25.5
2019년	37,667	10,494	27.9	2,260	6.0	9,433	25.0
2020년	31,681	9,049	28.6	2,048	6.5	7,804	24.6

출처)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제6장 환경

제1절 대기과 녹지

1. (초)미세먼지 농도

개념	자동차 배출, 난방 등 연소기기 배출, 도로 비산먼지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산출방법	PM10과 PM2.5의 연평균 환경기준 및 서울시 연평균 농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 예보/경보

[오염 농도]

(단위: $\mu\text{g}/\text{m}^3/\text{년}$)

연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국가 및 서울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국가 및 서울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2013년	50	45	-	-
2014년	50	46	-	-
2015년	50	45	25	23
2016년	50	48	25	26
2017년	50	44	25	25
2018년	50	40	25	23
2019년	50	42	15	25
2020년	50	35	15	21
2021년	50	38	15	20
2022년	50	33	15	18

- 주: 1)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2) PM2.5 연간 농도는 2015년도부터 발표하였으며, PM 2.5 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15\mu\text{g}/\text{m}^3$ (2018년 이후)
 3)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4)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주의보 발행 현황]

(단위: 회, 일)

연도	미세먼지 주의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2015년	3	5	6	8
2016년	6	7	0	0
2017년	6	10	5	10
2018년	5	5	8	18
2019년	8	14	15	25
2020년	4	4	5	9
2021년	8	8	11	21
2022년	5	3	3	9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2. 녹지환경 만족도

개념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산출방법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 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녹지환경 만족도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2년		9.0	28.6	62.4	6.55
2014년		7.4	48.8	43.8	5.98
2016년		9.2	27.5	63.3	6.58
2018년		13.3	39.7	47.0	5.93
2019년		9.3	50.4	40.3	5.93
2020년		15.2	40.0	44.8	5.93
2021년		15.3	38.6	46.1	5.99
2022년		6.3	48.0	45.8	6.17
구 별	종로구	5.5	45.1	49.4	6.18
	중구	8.1	42.0	49.9	6.24
	용산구	6.5	41.3	52.2	6.31
	성동구	4.6	40.4	55.0	6.41
	광진구	2.9	72.4	24.7	5.58
	동대문구	10.1	52.3	37.6	6.02
	종량구	12.8	47.5	39.7	5.91
	성북구	6.2	56.4	37.4	5.93
	강북구	12.1	38.4	49.5	6.13
	도봉구	2.9	44.3	52.8	6.48
	노원구	5.4	57.7	36.9	5.85
	은평구	3.3	43.8	52.9	6.53
	서대문구	9.9	33.0	57.1	6.29
	마포구	14.4	34.7	50.9	6.00
	양천구	0.7	78.3	21.0	5.51
	강서구	5.8	40.5	53.7	6.52
	구로구	11.7	47.6	40.8	5.90
	금천구	9.2	50.6	40.2	5.88
	영등포구	2.5	62.7	34.9	6.03
	동작구	6.4	40.4	53.3	6.36
	관악구	4.8	55.8	39.4	6.01
	서초구	7.3	46.0	46.8	6.18
	강남구	3.6	35.8	60.6	6.67
	송파구	4.0	44.9	51.1	6.43
	강동구	3.8	37.2	59.0	6.58

주: 1) 2013~2017년 격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3. 오존 농도

개념	여름철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오염물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오존 농도 및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오존 농도]

(단위: ppm/8시간)

연도	국가 및 서울시 기준 (ppm/8시간)	오존 농도 (ppm/8시간)
2013년	0.060	0.022
2014년	0.060	0.023
2015년	0.060	0.022
2016년	0.060	0.024
2017년	0.060	0.025
2018년	0.060	0.023
2019년	0.060	0.025
2020년	0.060	0.025
2021년	0.060	0.028
2022년	0.060	0.029

주) 오존(O₃):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오존 주의보 발령 현황]

(단위: 일, 회)

연도	발령 일수	발령 횟수
2013년	9	18
2014년	8	23
2015년	3	4
2016년	17	33
2017년	12	33
2018년	13	54
2019년	11	29
2020년	12	30
2021년	11	32
2022년	11	42

출처)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4. 환경소음도

개념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환경소음도는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
산출방법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소음도 측정 수치
출처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단위: Leq dB(A))

연도	시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다”지역
2013년	낮	52	53	63	67	70
2014년	낮	52	54	61	67	70
2015년	낮	54	54	61	67	71
2016년	낮	54	54	62	67	70
2017년	낮	54	55	61	67	70
2018년	낮	54	54	60	67	70
2019년	낮	53	54	61	67	70
2021년	낮	56	57	62	69	70
2022년	낮	57	57	63	69	70

주: 1) 서울시 소음측정망 설치 현황: 녹지, 주거, 상업지역 등 30개 지역 150개 측정망

- “가”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
- “나”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다”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낮: 06:00~22:00, 밤: 22:00~06:00

3) 2020년 비조사

제2절 물 순환과 자원순환

1.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개념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에 활용
산출방법	서울시 하천수질측정망 25개소 중 BOD 기준 3mg/ℓ 이하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관측소 개수 비율
출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수질현황

[깨끗한 물 달성률]

(단위: 개, %)

연도	깨끗한 물 하천 수	깨끗한 물 달성률
2013년	17	68.0
2014년	18	72.0
2015년	18	72.0
2016년	21	84.0
2017년	23	92.0
2018년	22	88.0
2019년	22	88.0
2020년	25	100.0
2021년	25	100.0
2022년	21	84.0

[하천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단위: mg/ℓ)

수질지역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암사	1.2	1.0	1.5	1.3	1.1	0.9	0.8	0.9	1.0	0.8
구익	1.4	1.7	2.1	2.0	1.5	1.5	1.4	1.3	1.3	1.2
잠실	1.3	1.0	1.3	1.6	1.2	1.1	1.0	1.1	1.2	0.9
보광	2.1	1.9	2.9	2.3	1.5	1.7	1.5	1.4	1.8	0.9
노량진	2.0	2.4	3.0	2.7	2.0	2.0	2.1	1.7	1.6	1.8
영등포	2.1	2.0	2.5	2.3	1.7	1.5	1.7	1.2	1.7	1.0
가양	2.2	2.4	3.2	3.0	1.9	1.8	1.9	1.5	2.0	1.3
행주	3.2	4.4	4.9	3.9	2.6	2.6	2.7	2.4	2.3	2.5
탄천6	6.9	4.7	3.5	2.4	3.1	4.4	3.4	2.0	2.0	3.7
중랑천6	14.1	7.5	7.0	6.7	5.9	5.6	4.2	1.8	2.4	3.3
안양천10	5.0	5.3	4.3	3.9	2.7	4.3	3.5	1.7	2.8	3.1
뚝도	1.6	1.4	2.0	1.8	1.3	1.2	1.4	1.4	1.6	0.6
팔당댐	1.1	1.2	1.3	1.3	1.1	1.2	1.2	1.1	1.1	1.0
홍제천	3.6	4.1	3.4	2.5	2.1	2.1	2.3	1.1	1.2	1.4
양재천	1.8	1.4	1.4	1.1	1.4	1.9	1.1	0.8	1.3	2.0
정릉천	1.8	1.5	1.1	0.8	1.0	0.9	0.8	0.7	1.0	0.8
도림천	2.6	2.0	1.5	1.6	1.2	1.6	1.7	1.0	1.5	1.7
목감천1	5.6	4.2	2.5	2.4	2.9	2.5	2.4	1.9	2.3	3.3
고덕천	3.1	3.1	3.9	3.0	2.2	1.6	1.7	1.1	1.2	1.6
성내천	4.1	2.5	2.9	3.3	2.5	2.4	2.3	1.6	2.1	2.6
청계천(1)	0.8	0.6	0.4	0.5	0.6	0.7	0.4	0.7	0.9	0.5
청계천(2)	0.9	0.8	0.7	0.8	0.8	0.9	0.5	0.7	1.2	0.9
청계천(3)	1.3	1.0	1.7	1.4	1.4	1.6	0.9	0.9	1.7	1.6
성북천	1.2	1.3	1.9	1.2	1.6	1.5	0.6	0.7	1.1	1.2
우이천	1.9	1.5	1.5	1.2	1.8	1.7	1.2	1.0	1.3	1.4

2. 불투수면적 비율

개념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 비율
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주) 5년 주기 조사

(단위: ha, %)

연도	서울시 면적 (ha)	불투수면적 (ha)	불투수면적 비율 (%)
2000년	60,814.0	28,613.0	47.1
2005년	60,831.8	28,767.4	47.3
2010년	60,831.8	29,010.7	47.7
2015년	60,866.2	29,806.2	49.0
2020년	60,865.9	30,078.1	49.4

주) 불투수면적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뜻하며, 불투수면적이 늘어질수록 도시침수나 열섬현상이 심화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3. 생활폐기물 매립률

개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가장 지양해야 할 처리방법인 매립률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처리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음식품 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매립률=(매립 처리량/생활폐기물 발생량)×100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톤/일, %)

연도	발생량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매립		소각		재활용	
		매립량	비율	소각량	비율	재활용량	비율
2012년	9,189	719	7.8	2,465	26.8	6,005	65.3
2013년	8,559	774	9.0	2,304	26.9	5,481	64.0
2014년	9,614	927	9.6	2,263	23.5	6,424	66.8
2015년	9,439	719	7.6	2,218	23.5	6,501	68.9
2016년	9,608	766	8.0	2,292	23.9	6,550	68.2
2017년	9,217	799	8.7	2,238	24.3	6,180	67.1
2018년	9,493	869	9.1	2,168	22.8	6,457	68.0
2019년	9,847	979	9.9	2,246	22.8	6,623	67.3
2020년	9,673	949	9.8	2,289	23.7	6,436	66.5
2021년	10,853	1,485	13.7	2,275	21.0	7,094	65.4

주: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 사업장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질

2)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

3) 폐기물 처리방법별

- 매립: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매립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소각: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소각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량

4)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자치구별]

(단위: 톤/일, %)

구분		발생량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매립		소각		재활용	
		매립량	비율	소각량	비율	재활용량	비율	
2021년		10,853	1,485	13.7	2,275	21.0	7,094	65.4
구 별	종로구	230	21	9.0	83	36.3	126	54.7
	중구	298	26	8.8	134	44.9	138	46.3
	용산구	294	25	8.5	81	27.5	188	64.0
	성동구	272	29	10.5	56	20.6	187	68.9
	광진구	251	29	11.5	50	20.0	172	68.6
	동대문구	320	26	8.2	87	27.1	207	64.7
	중랑구	288	21	7.1	92	31.8	176	61.0
	성북구	373	10	2.7	85	22.9	277	74.4
	강북구	259	7	2.7	70	27.0	182	70.3
	도봉구	252	9	3.4	97	38.3	147	58.3
	노원구	372	11	2.8	100	26.8	262	70.4
	은평구	379	111	29.2	39	10.3	229	60.4
	서대문구	265	23	8.8	83	31.4	159	59.8
	마포구	545	28	5.0	113	20.8	404	74.2
	양천구	353	30	8.4	82	23.3	241	68.3
	강서구	2,060	630	30.6	107	5.2	1,323	64.2
	구로구	373	51	13.7	111	29.7	211	56.6
	금천구	270	66	24.5	32	11.9	172	63.6
	영등포구	442	39	8.9	89	20.2	313	70.9
	동작구	297	31	10.3	69	23.1	198	66.6
	관악구	400	49	12.2	111	27.6	241	60.1
	서초구	485	50	10.2	135	27.9	300	61.9
	강남구	680	36	5.3	200	29.4	443	65.2
	송파구	694	86	12.4	112	16.2	495	71.4
	강동구	402	44	10.9	57	14.2	301	75.0

주)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4. 총 폐기물 재활용률

개념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처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총 폐기물 재활용률=(총 재활용량/총 발생량)×100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단위: 톤/일, %)

연도	총 폐기물 처리현황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2012년	37,844	31,119	82.2	6,005	65.3	685	35.6	24,430	91.4
2013년	34,474	29,110	84.4	5,481	64.0	532	46.1	23,097	93.3
2014년	37,200	31,532	84.8	6,424	66.8	805	39.1	24,303	95.2
2015년	41,711	35,576	85.3	6,501	68.9	880	39.3	28,194	93.9
2016년	45,118	39,120	86.7	6,550	68.2	604	29.5	31,967	95.5
2017년	45,894	40,258	87.7	6,180	67.1	605	33.0	33,473	96.1
2018년	46,191	40,725	88.2	6,457	68.0	981	52.9	33,286	95.5
2019년	47,643	42,249	88.7	6,623	67.3	933	40.5	34,693	97.7
2020년	51,887	46,451	89.5	6,436	66.5	1,077	46.6	38,938	97.6
2021년	48,036	42,624	88.7	7,094	65.4	1,686	59.3	33,845	98.6

주: 1)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기타

2)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3)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항목별 재활용 비율]

(단위: 톤/일, %)

연도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2012년	31,119	100.0	6,005	19.3	685	2.2	24,430	78.5
2013년	29,110	100.0	5,481	18.8	532	1.8	23,097	79.3
2014년	31,532	100.0	6,424	20.4	805	2.6	24,303	77.1
2015년	35,576	100.0	6,501	18.3	880	2.5	28,194	79.3
2016년	39,120	100.0	6,550	16.7	604	1.5	31,967	81.7
2017년	40,258	100.0	6,180	15.4	605	1.5	33,473	83.1
2018년	40,725	100.0	6,457	15.9	981	2.4	33,286	81.7
2019년	42,249	100.0	6,623	15.7	933	2.2	34,693	82.1
2020년	46,451	100.0	6,436	13.9	1,077	2.3	38,938	83.8
2021년	42,624	100.0	7,094	16.6	1,686	4.0	33,845	79.4

[자치구별]

(단위: 톤/일, %)

연도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2021년		48,036	42,624	88.7	7,094	65.4	1,686	59.3	33,845	98.6
구 별	종로구	1,149	1,042	90.7	126	54.7	1	75.0	915	99.7
	중구	1,154	990	85.8	138	46.2	2	89.5	850	99.6
	용산구	1,557	1,446	92.8	188	64.0	557	99.6	701	99.5
	성동구	3,642	3,206	88.0	187	68.9	228	68.0	2,791	91.9
	광진구	1,209	1,128	93.3	172	68.6	6	95.5	950	99.8
	동대문구	1,829	1,713	93.7	207	64.7	23	100.0	1,484	99.8
	종량구	1,350	1,232	91.2	176	61.0	11	66.5	1,044	99.9
	성북구	1,682	1,585	94.3	277	74.4	10	99.0	1,298	99.9
	강북구	989	911	92.1	182	70.3	0	0.0	729	100.0
	도봉구	908	801	88.2	147	58.3	1	87.5	653	99.7
	노원구	1,076	894	83.0	262	70.4	3	4.1	628	99.7
	은평구	1,299	1,147	88.3	229	60.4	0	100.0	918	99.8
	서대문구	981	873	88.9	159	59.8	3	68.4	711	99.8
	마포구	1,394	1,249	89.6	404	74.2	68	95.8	776	99.8
	양천구	1,087	920	84.7	241	68.3	2	4.0	677	99.0
	강서구	4,948	3,561	72.0	1,323	64.2	135	17.4	2,103	99.5
	구로구	1,215	997	82.0	211	56.6	2	88.9	783	93.2
	금천구	1,347	1,205	89.4	172	63.6	0	33.3	1,033	96.0
	영등포구	1,911	1,765	92.3	313	70.9	44	96.9	1,408	98.8
	동작구	1,014	913	90.1	198	66.6	4	95.2	711	99.8
	관악구	1,729	1,567	90.6	241	60.1	34	99.7	1,292	99.8
	서초구	4,383	4,173	95.2	300	61.9	3	11.0	3,870	99.9
	강남구	4,194	3,731	89.0	443	65.2	197	47.9	3,091	99.6
	송파구	3,008	2,730	90.8	495	71.4	96	93.5	2,139	96.7
	강동구	2,980	2,848	95.5	301	75.0	257	90.1	2,289	99.8

- 주: 1)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기타
 2)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량
 3)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4)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제3절 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비율

개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및 열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비율을 파악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저감 정책 방향 설정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신재생에너지 소비량/최종 에너지 소비량)×1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단위: toe)

연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수력
2012년	232,626	1,109	5,804	36,658	41	177,549	5,132	6,333	-
2013년	238,239	1,076	7,011	46,236	41	172,422	6,191	5,263	-
2014년	293,656	1,043	11,813	98,477	41	162,844	7,250	11,949	240
2015년	335,139	976	16,676	94,097	43	177,290	8,790	36,965	301
2016년	316,806	920	19,355	79,517	43	168,614	9,906	38,137	315
2017년	350,881	836	23,664	77,003	46	168,115	11,270	69,689	258
2018년	388,944	775	36,471	97,562	48	172,088	13,334	68,432	236
2019년	361,289	705	45,283	96,475	44	143,488	15,002	59,919	373
2020년	303,074	630	51,484	91,892	46	69,519	16,451	72,814	237
2021년	325,719	561	55,298	81,856	45	76,416	17,900	93,510	132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해 자가소비 후 상계된 잉여전력 생산량을 추가함
 2) 2018~2019년도 데이터는 새로운 집계방식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단위: 천 toe, toe/명, %)

연도	최종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명)	종류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석탄 소비량	석유 소비량	도시가스 소비량	전력 소비량	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소비량	비율	소비량	비율
2012년	15,203	1.51	125	5,912	4,670	4,062	219	1.4	214	1.4
2013년	15,014	1.50	131	5,977	4,477	4,004	217	1.4	209	1.4
2014년	14,680	1.47	112	6,301	4,036	3,872	208	1.4	152	1.0
2015년	14,944	1.50	101	6,496	3,978	3,903	222	1.5	245	1.6
2016년	15,214	1.55	87	6,502	4,089	3,998	288	1.9	251	1.6
2017년	15,015	1.54	84	6,185	4,205	3,981	318	2.1	242	1.6
2018년	14,734	1.52	68	5,594	4,353	4,112	338	2.3	270	1.8
2019년	14,180	1.47	50	5,390	4,101	4,056	299	2.1	284	2.0
2020년	13,316	1.39	42	4,561	3,993	3,938	485	3.6	297	2.2
2021년	13,405	1.41	33	4,538	3,975	4,075	478	3.6	306	2.3

출처)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2. 온실가스 배출량

개념	온실가스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말하며, 국가감축대상으로 명문화
산출방법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총 배출량/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출처	•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단위: 천 톤 CO₂eq., %, 톤 CO₂eq.)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톤 CO ₂ eq.)
	총 배출량 (천 톤 CO ₂ eq.)	직접배출		간접배출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2005년	49,445	29,697	60.1	19,748	39.9	4.80
2006년	48,776	28,513	58.5	20,263	41.5	4.71
2007년	50,083	28,641	57.2	21,442	42.8	4.81
2008년	49,929	27,705	55.5	22,224	44.5	4.78
2009년	48,841	26,004	53.2	22,837	46.8	4.67
2010년	49,496	25,848	52.2	23,648	47.8	4.68
2011년	48,672	25,714	52.8	22,958	47.2	4.62
2012년	48,311	25,698	53.2	22,613	46.8	4.63
2013년	46,817	24,287	51.9	22,530	48.1	4.51
2014년	45,673	23,579	51.6	22,094	48.4	4.40
2015년	45,646	23,222	50.9	22,424	49.1	4.43
2016년	46,986	23,742	50.5	23,244	49.5	4.60
2017년	46,685	23,631	50.6	23,054	49.4	4.61
2018년	47,042	23,132	49.1	23,941	50.9	4.68
2019년	45,960	22,229	48.3	23,731	51.7	4.59
2020년	42,894	21,849	50.9	21,044	49.1	4.33

주: 1)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종류에 따라 대기 잔류 기간 동안 방열(radiative activity)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배출량의 수준 파악 및 상호 비교를 위해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사용하여 계산한 CO₂ 환산량(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으로 국가 총배출량을 산정함
2) 2021~2022년 데이터는 2023년, 2024년 12월에 게시 예정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천 톤 CO₂eq., %)

연도	총 배출량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2005년	49,445	44,483	90.0	3,661	7.4	1,229	2.5	73	0.1
2017년	46,685	42,417	90.9	2,793	6.0	1,537	3.3	-62	-0.1
2018년	47,073	42,682	90.7	2,891	6.1	1,553	3.3	-53	-0.1
2019년	45,960	41,591	90.5	2,960	6.4	1,475	3.2	-67	-0.1
2020년	42,894	38,604	90.0	2,961	6.9	1,385	3.2	-57	-0.1

3.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개념	서울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
산출방법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체감에 대한 심각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2022년)	기후 위기 체감도			평균(점)
	심각하지 않음	보통	심각함	
이상기온 (폭염/한파 등)	10.8	28.5	60.7	6.53
폭우 및 폭설	15.3	33.7	51.1	6.15
가뭄	20.6	38.6	40.8	5.69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심각함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0점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이상기온 (폭염/한파 등)	폭우 및 폭설	가뭄
2022년		6.12	6.53	6.15	5.69
구 별	종로구	6.49	7.08	6.69	5.70
	중구	6.78	6.93	6.99	6.40
	용산구	5.16	5.51	5.05	4.91
	성동구	6.59	7.02	6.36	6.40
	광진구	6.19	6.42	6.27	5.87
	동대문구	6.30	6.78	6.15	5.95
	종량구	5.69	6.16	5.48	5.44
	성북구	6.02	6.56	6.07	5.43
	강북구	6.59	7.11	6.84	5.82
	도봉구	7.10	7.46	7.08	6.75
	노원구	4.80	5.44	4.81	4.16
	은평구	6.06	6.74	5.83	5.61
	서대문구	6.19	6.65	6.43	5.51
	마포구	6.78	6.74	6.94	6.65
	양천구	5.51	5.98	5.81	4.75
	강서구	6.77	7.14	6.89	6.26
	구로구	6.07	6.31	6.39	5.53
	금천구	5.58	5.58	5.73	5.44
	영등포구	4.57	4.66	4.50	4.54
	동작구	6.09	6.84	6.06	5.37
	관악구	6.20	6.51	6.30	5.79
	서초구	6.11	6.98	6.35	5.00
	강남구	6.89	6.91	6.60	7.15
	송파구	6.13	6.72	6.19	5.49
	강동구	6.71	6.88	6.59	6.64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심각함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0점

제7장 교통

제1절 교통인프라

1. 버스전용차로 연장

개념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산출방법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중앙버스전용차로+가로변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총 연장/주민등록인구)×10,000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단위: km, 명, km/만 명)

연도	버스전용차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계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2013년	209.1	88.3	120.8	10,388,055	0.201
2014년	214.0	92.7	121.3	10,369,593	0.206
2015년	214.1	90.9	123.2	10,297,138	0.208
2016년	213.9	90.7	123.2	10,204,057	0.210
2017년	213.4	89.0	124.4	10,124,579	0.211
2018년	217.6	85.0	132.6	10,049,607	0.217
2019년	216.3	83.7	132.6	10,010,983	0.216
2020년	214.7	83.7	131.0	9,911,088	0.217
2021년	214.9	83.7	131.2	9,736,027	0.221
2022년	214.5	83.3	131.2	9,667,669	0.222

주: 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도로명 기준)

2) 중앙 버스전용차로: 세부도로명 기준인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를 도로축 개념으로 재산정

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개념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와 관련된 지표
산출방법	연도별 친환경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적도입대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친환경버스 도입대수]

(단위: 대, %)

연도	총 버스대수	친환경버스 누적대수				당해연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
		계	친환경버스 보급률(%)	천연가스(CNG) 버스대수	전기(수소) 버스	
2013년	7,485	7,469	99.8	7,469	-	553
2014년	7,485	7,482	100.0	7,482	-	168
2015년	7,482	7,482	100.0	7,482	-	649
2016년	7,482	7,482	100.0	7,482	-	674
2017년	7,382	7,382	100.0	7,382	-	810
2018년	7,405	7,405	100.0	7,375	30	880
2019년	7,399	7,399	100.0	7,278	121	958
2020년	7,393	7,393	100.0	7,071	322	920
2021년	7,393	7,393	100.0	7,020	373	491
2022년	7,363	7,363	100.0	6,427	936	662

주) 총 버스대수는 폐차대수 제외된 수치임

출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저상버스 도입대수]

(단위: 대, %)

연도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 누적대수	저상버스 도입률(%)
2013년	217	2,235	33.8
2014년	298	2,496	37.7
2015년	208	2,650	40.0
2016년	352	2,874	43.8
2017년	310	3,112	47.5
2018년	638	3,332	50.9
2019년	758	3,946	60.3
2020년	739	4,272	65.1
2021년	220	4,412	67.2
2022년	299	4,711	70.5

주: 1)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의 경우 일부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또는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변경되는 경우로 인해 누적대수와 연도별 도입대수의 계산 합에서 차이가 존재함

2) 저상버스 도입률: 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등록대수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3. 도시철도 연장

개념	도시 간 비교지표이며, 도시의 인구 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 수준 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공급수준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만 명당 서울시 지하철 연장 $\text{=(지하철 총 연장/주민등록인구)} \times 10,000 \text{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영현황 서울시, 서울시주민등록인구

(단위: km, 명, km/만 명)

연도	지하철 연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
2013년	327.1	10,388,055	0.315
2014년	327.1	10,369,593	0.315
2015년	331.6	10,297,138	0.322
2016년	331.6	10,204,057	0.325
2017년	342.7	10,124,579	0.338
2018년	351.7	10,049,607	0.350
2019년	353.0	10,010,983	0.353
2020년	357.6	9,911,088	0.361
2021년	359.9	9,736,027	0.370
2022년	357.4	9,667,669	0.370

[서울시 호선별 지하철 연장]

(단위: km)

연도	합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우이 신설 도시 철도	신림선 도시 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013년	327.1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27.0	-	-
2014년	327.1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27.0	-	-
2015년	331.6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	-
2016년	331.6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	-
2017년	342.7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11.1	-
2018년	351.7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40.6	11.0	-
2019년	353.0	7.8	60.2	38.2	31.7	52.3	36.4	57.1	17.7	40.6	11.0	-
2020년	357.6	8.0	60.2	38.2	31.7	56.9	36.4	57.1	17.7	40.6	11.0	-
2021년	359.9	7.8	60.2	38.2	31.1	59.8	36.4	57.1	17.7	40.6	11.0	-
2022년	357.4	8.0	60.2	38.2	31.1	59.8	36.3	46.9	17.7	40.6	11.0	7.8

4. 자전거 도로율

개념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 파악
산출방법	(자전거 도로/전체 도로)×1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자전거운영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단위: km, %)

연도	서울시 전체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율
2013년	8,198	707.6	8.6
2014년	8,214	724.6	8.8
2015년	8,215	778.8	9.5
2016년	8,241	868.7	10.5
2017년	8,271	888.7	10.7
2018년	8,273	916.0	11.1
2019년	8,310	940.6	11.3
2020년	8,324	1,258.8	15.1
2021년	8,328	1,290.4	15.5
2022년	8,328	1,316.0	15.8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km)

연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2013년	707.6	78.1	576.7	52.9	-
2014년	724.6	75.0	592.8	56.8	-
2015년	778.8	99.5	577.8	51.8	49.7
2016년	868.7	104.2	596.6	54.9	113.0
2017년	888.7	114.0	606.9	54.7	113.1
2018년	916.0	138.8	611.6	55.0	110.6
2019년	940.6	148.7	622.0	58.9	111.0
2020년	1,258.8	182.7	810.4	74.3	191.5
2021년	1,290.4	181.0	843.5	75.5	190.5
2022년	1,316.0	179.8	871.7	73.9	190.6

- 주: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3)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4)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파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14.1.28. 신설)

[장소별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km, %)

연도	계	도로변		하천		교량		공원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2013년	707.6	448.2	63.3	239.0	33.8	8.0	1.1	12.4	1.8
2014년	724.6	460.2	63.5	247.4	34.1	6.7	0.9	10.4	1.4
2015년	778.8	517.8	66.5	249.4	32.0	6.3	0.8	5.3	0.7
2016년	868.7	601.7	69.3	254.4	29.3	7.3	0.8	5.3	0.6
2017년	888.7	614.6	69.2	260.8	29.3	7.3	0.8	6.0	0.7
2018년	916.0	639.0	69.8	263.7	28.8	7.3	0.8	6.0	0.7
2019년	940.6	662.7	70.5	265.3	28.2	6.6	0.7	6.0	0.6
2020년	1,258.8	978.5	77.7	266.2	21.1	8.9	0.7	5.2	0.4
2021년	1,290.4	1,009.4	78.2	266.9	20.7	8.9	0.7	5.2	0.4
2022년	1,316.0	1,035.1	78.7	267.4	20.3	8.9	0.7	4.6	0.3

주) 도로변 자치구별 구간 및 길이는 중복된 연장 및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km)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2022년		1,316.0	179.8	871.7	73.9	190.6
도 로 변	소계	1,035.1	149.6	621.0	73.9	190.6
	종로구	32.1	4.2	10.9	6.9	10.1
	중구	22.4	4.2	7.5	-	10.7
	용산구	32.5	1.9	10.2	-	20.4
	성동구	27.8	1.7	15.9	2.0	8.2
	광진구	48.3	0.2	43.2	0.3	4.6
	동대문구	37.7	2.8	7.5	-	27.4
	중랑구	9.8	3.7	6.0	-	-
	성북구	16.8	6.6	7.0	2.9	0.4
	강북구	8.7	-	3.2	5.5	-
	도봉구	12.9	1.4	11.5	-	-
	노원구	43.7	2.3	28.2	13.2	-
	은평구	44.7	0.4	39.6	4.6	-
	서대문구	31.4	-	7.7	1.8	21.9
	마포구	67.4	6.2	14.2	7.4	39.6
	양천구	56.5	20.6	30.1	-	5.8
	강서구	77.1	32.2	40.3	-	4.6
	구로구	27.5	1.8	24.7	-	1.0
	금천구	9.2	2.6	6.6	-	-
	영등포구	63.2	4.2	7.3	19.9	31.8
	동작구	14.3	-	13.6	-	0.8
	관악구	27.7	4.7	19.6	-	3.4
	서초구	41.1	2.1	34.9	4.1	-
	강남구	110.5	8.8	98.7	3.0	-
	송파구	97.5	19.5	76.2	1.8	-
	강동구	74.4	17.5	56.4	0.6	-
기 타	소계	280.8	30.2	250.7	-	-
	하천	267.4	28.1	239.3	-	-
	교량	8.9	1.1	7.8	-	-
	공원	4.6	1.0	3.6	-	-

주) 도로변 자치구별 구간 및 길이는 중복된 연장 및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개념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등 대체연료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등록대수)×100 •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단위: 대, %)

구분		전체 차량 합계	대체연료차량				대체연료 차량 보급률	
			계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2013년		2,973,877	31,679	475	10,426	20,778	-	1.1
2014년		3,013,541	38,547	785	10,360	27,402	-	1.3
2015년		3,056,588	45,071	1,151	9,992	33,927	1	1.5
2016년		3,083,007	56,239	1,498	9,854	44,875	12	1.8
2017년		3,116,256	73,972	4,797	9,731	59,431	13	2.4
2018년		3,124,651	94,461	9,564	9,635	75,178	84	3.0
2019년		3,124,157	116,497	14,952	9,441	91,505	599	3.7
2020년		3,157,361	149,458	23,393	9,114	115,280	1,671	4.7
2021년		3,176,743	193,785	40,564	8,887	141,889	2,445	6.1
2022년		3,193,351	240,276	59,327	8,276	169,759	2,914	7.5
차 종 별	승용차	2,763,730	223,668	50,768	314	169,702	2,884	8.1
	승합차	96,085	8,834	1,119	7,637	48	30	9.2
	화물차	322,706	7,743	7,409	325	9	-	2.4
	특수차	10,830	31	31	-	-	-	0.3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친환경차량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	충전기 유형별 설치 현황 (누계)				수소차 충전소
	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2013년	10	8	2	-	-
2014년	8	8	0	-	-
2015년	12	4	8	-	-
2016년	66	36	30	-	-
2017년	1,175	188	987	-	-
2018년	2,083	233	1,850	-	-
2019년	1,643	186	1,457	-	1
2020년	2,430	261	2,169	-	3
2021년	2,750	148	2,602	-	5
2022년	5,707	126	1,362	4,219	5

출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6. 보도 면적

개념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보도 연장 및 면적
출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단위: m, m², %)

구분		보도 연장 (m)	보도 면적 (㎡)	보도 연장 비율 (%)	보도 면적 비율 (%)
2013년		1,652,949	6,638,423	100.0	100.0
2014년		1,659,404	6,656,052	100.0	100.0
2015년		1,658,028	6,633,105	100.0	100.0
2016년		1,657,446	6,609,813	100.0	100.0
2017년		1,668,826	6,713,367	100.0	100.0
2018년		1,664,267	6,631,136	100.0	100.0
2019년		1,695,403	6,772,566	100.0	100.0
2020년		1,697,117	6,778,973	100.0	100.0
2021년		1,698,890	6,800,239	100.0	100.0
2022년		1,695,805	6,781,380	100.0	100.0
구 별	종로구	65,875	280,238	3.9	4.1
	중구	63,825	285,280	3.8	4.2
	용산구	55,396	196,992	3.3	2.9
	성동구	73,382	235,705	4.3	3.5
	광진구	51,072	212,890	3.0	3.1
	동대문구	63,915	215,561	3.8	3.2
	중랑구	67,277	211,820	4.0	3.1
	성북구	68,370	256,814	4.0	3.8
	강북구	43,605	134,678	2.6	2.0
	도봉구	59,058	214,150	3.5	3.2
	노원구	73,968	224,461	4.4	3.3
	은평구	62,140	272,875	3.7	4.0
	서대문구	44,044	122,295	2.6	1.8
	마포구	80,728	314,173	4.8	4.6
	양천구	84,014	328,188	5.0	4.8
	강서구	69,167	237,076	4.1	3.5
	구로구	62,082	204,869	3.7	3.0
	금천구	35,969	119,374	2.1	1.8
	영등포구	94,050	377,784	5.5	5.6
	동작구	44,220	185,497	2.6	2.7
	관악구	67,170	239,160	4.0	3.5
	서초구	95,029	551,867	5.6	8.1
	강남구	114,401	585,323	6.7	8.6
	송파구	75,699	447,584	4.5	6.6
	강동구	66,487	278,963	3.9	4.1
	시설관리공단		14,862	47,763	0.9

제2절 교통서비스

1. 대중교통 이용객 수

개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
산출방법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객 수
출처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 명/일, %)

연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지하철							버스			
		계	비율 (%)	1~4 호선	5~8 호선	9 호선	우이 신설선	신림 선	계	비율 (%)	시내 버스	마을 버스
2013년	10,885	5,137	(47.2)	3,050	1,834	242	-	-	5,748	(52.8)	4,548	1,200
2014년	10,979	5,183	(47.2)	3,093	1,865	253	-	-	5,796	(52.8)	4,574	1,222
2015년	10,744	5,144	(47.9)	3,020	1,851	278	-	-	5,600	(52.1)	4,404	1,196
2016년	10,606	5,114	(48.2)	3,004	1,843	294	-	-	5,492	(51.8)	4,280	1,212
2017년	10,500	5,102	(48.6)	2,939	1,827	298	38	-	5,398	(51.4)	4,200	1,198
2018년	10,374	5,119	(49.3)	2,929	1,842	306	42	-	5,255	(50.7)	4,079	1,176
2019년	10,445	5,222	(50.0)	2,952	1,867	359	44	-	5,223	(50.0)	4,053	1,170
2020년	7,767	3,791	(48.8)	2,063	1,419	275	34	-	3,976	(51.2)	3,125	851
2021년	7,776	3,842	(49.4)	2,045	1,470	291	36	-	3,934	(50.6)	3,121	813
2022년	8,563	4,288	(50.1)	2,319	1,561	333	41	34	4,275	(49.9)	3,439	836

주: 1) 2011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부터 신분당선 이용객을 포함함(신분당선 개통일: '11.10.28.)
 2) 2015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은 9호선 2단계 이용객을 포함함(9호선 2단계 개통일: '15.3.28.)
 3) 2018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은 9호선 3단계 이용객을 포함함(9호선 3단계 개통일: '18.12.1.)
 4) 순 승차 기준 이용객

2.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개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이용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버스	지하철	택시	시외버스/고속버스
2013년		6.40	6.67	7.03	5.50	-
2014년		6.47	6.78	6.95	5.70	-
2015년		6.59	6.88	7.01	5.88	-
2016년		6.39	6.86	6.71	5.60	-
2018년		6.62	6.91	7.06	5.83	-
2019년		6.71	7.11	7.25	5.77	-
2020년		6.81	7.20	7.30	5.86	-
2021년		6.86	7.27	7.38	5.99	6.59
2022년		6.65	7.27	7.41	5.79	5.89
구 별	종로구	6.97	7.79	7.56	6.28	6.12
	중구	6.75	7.31	7.54	5.71	6.21
	용산구	7.00	7.12	7.59	6.23	6.73
	성동구	7.03	7.30	7.64	6.53	6.59
	광진구	6.35	6.90	6.94	5.59	5.98
	동대문구	6.89	7.47	7.46	6.01	6.47
	종랑구	6.39	7.21	7.19	5.54	5.63
	성북구	7.01	7.75	7.81	5.93	5.71
	강북구	7.07	7.53	7.83	6.32	6.39
	도봉구	7.43	7.70	8.00	6.77	6.82
	노원구	6.75	7.45	7.73	5.65	5.73
	은평구	6.63	7.10	7.27	6.14	5.92
	서대문구	6.50	6.94	7.03	6.00	5.89
	마포구	6.31	7.45	7.33	4.98	5.36
	양천구	5.93	7.22	6.98	4.81	4.52
	강서구	6.94	7.71	7.55	6.22	6.20
	구로구	6.70	7.54	8.09	5.38	5.59
	금천구	6.74	7.43	7.15	6.09	5.87
	영등포구	5.54	5.81	6.00	4.61	4.00
	동작구	6.65	7.40	7.71	5.55	6.18
	관악구	6.66	7.15	7.27	5.85	5.70
	서초구	6.75	7.89	7.85	5.35	5.68
	강남구	5.96	6.29	6.75	5.06	5.80
	송파구	7.01	7.36	7.82	6.46	6.31
	강동구	6.85	7.23	7.33	6.33	6.57

주: 1) 2017년 비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3. 지하철 최고혼잡도

개념	서울지역에서 운행중인(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의 혼잡 정도
산출방법	혼잡도=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 인원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

[서울교통공사]

(단위: %)

연도	혼잡도 평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011년	164	144	196	149	180	170	143	182	147
2013년	158	144	202	147	169	154	130	172	139
2015년	146	106	192	134	176	149	121	165	123
2017년	135	105	170	140	160	110	111	156	130
2019년	134	106	173	144	162	107	106	146	131
2021년	127	84	149	141	151	132	96	127	134

주: 1) 2005년부터 2년 주기 조사

2) 혼잡도는 열차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 인원으로, 승차인과 좌석수가 일치할 경우를 혼잡도 34%로 산정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단위: %)

연도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9호선 (금행열차)	1단계	2단계	3단계	
2011년	-	-	-	-	-
2013년	115 (196)	-	-	-	-
2015년	114 (205)	-	-	-	-
2017년	91 (175)	-	-	-	-
2019년	-	87 (145)	20.7 (58.3)	7.5 (14.5)	161
2021년	-	75 (135)	-	-	131

주: 1) 2005년부터 2년 주기 조사

2) 9호선 혼잡도는 가장 혼잡한 상위 5개역의 목적기준으로 07:00~08:45 평균값이며, 전체 노선의 평균 혼잡도 산출 시 제외. ()는 금행열차의 혼잡도임

3) 우이신설선은 혼잡 4개역(솔샘역~성신여대입구역) 기준, 07:00~09:00 평균값임

4. 보행환경 만족도

개념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주거지와 서울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주거지역 보행환경	서울도심 보행환경	야간보행
2013년		6.47	6.60	6.35	-
2014년		6.00	6.12	5.88	-
2015년		5.92	6.12	5.92	5.72
2016년		5.92	6.12	5.91	5.73
2017년		5.95	6.17	5.99	5.68
2018년		6.00	6.25	6.17	5.57
2019년		6.02	6.37	6.26	5.43
2020년		6.09	6.45	6.32	5.50
2021년		6.15	6.47	6.30	5.68
2022년		6.35	6.79	6.48	5.78
권 역 별	도심권	6.29	6.57	6.44	5.85
	동북권	6.36	6.65	6.43	6.01
	서북권	6.50	7.13	6.50	5.85
	서남권	6.17	6.76	6.38	5.37
	동남권	6.53	6.91	6.71	5.97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5.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개념	공공자전거 활성화 파악
산출방법	공공자전거 도입 및 누적대수, 이용자 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단위: 건, %)

연도	공공자전거 이용 횟수	전년 대비 증감
2015년	113,708	-
2016년	1,611,637	1,317.3
2017년	5,031,039	212.2
2018년	10,061,684	100.0
2019년	19,074,794	89.6
2020년	23,705,176	24.3
2021년	32,054,693	35.2
2022년	40,950,000	27.8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자전거 대여 권종별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단위: 건)

구 분	정기권 대여 건수	일일권 대여 건수	전체 대여 건수
2020년	17,736,156	5,969,020	23,705,176
2021년	24,976,560	7,076,807	32,053,367
2022년	32,906,389	8,042,511	40,948,900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단위: 대, 개소)

연도	공공자전거 수	대여소 수
2016년	5,600	450
2017년	20,000	1,290
2018년	25,000	1,540
2019년	29,500	2,085
2020년	37,500	2,228
2021년	40,500	2,600
2022년	43,500	2,749

주) 공공자전거 수: 2016년~2019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6.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개념	탄소저감 등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 및 이용환경 만족도 조사
산출방법	가구의 자전거 이용 및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전거 이용 여부 및 이용환경 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연도	이용률	자전거 이용 이유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10점 만점)
		이동 수단				운동 수단 (레저용 등)	
		소계	통학/통근	대중교통 환승	근거리 교통수단		
2012년	33.9	-	-	-	-	-	6.62
2014년	20.0	-	-	-	-	-	6.40
2016년	23.8	4.6	-	-	-	19.2	6.40
2018년	20.3	5.5	-	-	-	14.9	6.30
2019년	17.9	6.6	-	-	-	11.3	6.02
2022년	12.4	6.8	1.8	0.3	4.7	5.6	-

- 주: 1) 2012~2018년 격년 조사
 2) 2020~2021년 비조사
 3) 2022년: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비조사 (2023년에 조사 재개)

[이용하는 자전거 종류]

(단위: %)

연도	개인 소유 자전거	공공 자전거 (따릉이)	민간 대여 자전거 (카카오 바이크 등)
2022년	58.4	38.3	3.4

- 주: 1) 자전거 이용 응답자 대상
 2) '자전거 이용 여부 및 이유', '이용하는 자전거 종류': 2022년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

[자전거 이용 시간]

(단위: %, 분)

연도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60분	60분 초과	평균(분)
2022년	10.6	22.8	25.6	31	10.0	41.49

- 주: 1) 자전거 이용 응답자 대상
 2) '자전거 이용 시간': 2022년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

7. 통근/통학 소요 시간

개념	주요 교통지표로, 서울시민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통근/통학 소요 시간]

(단위: %, 분, 10점 만점)

연도	통근/통학 비율(%)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점)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 (분)	
2013년	73.9	35.8	48.5	13.5	1.9	0.2	34.9	-
2014년	74.5	41.0	44.7	12.1	1.8	0.4	33.1	-
2015년	75.4	37.5	44.8	14.4	3.2	0.1	35.8	-
2016년	73.4	39.0	49.1	10.3	1.5	0.1	33.3	-
2017년	71.8	40.6	43.9	13.2	1.8	0.5	33.4	-
2018년	72.9	39.0	42.9	15.5	2.1	0.5	34.6	5.87
2019년	73.7	37.7	44.7	15.7	1.6	0.3	34.8	5.88
2020년	70.2	35.3	44.4	17.2	2.4	0.7	36.5	5.96
2021년	67.2	33.5	44.5	18.1	3.0	0.8	37.5	6.05
2022년	76.0	40.4	45.3	13.1	1.1	0.2	33.2	6.29

주: 1) 통근/통학 비율: 가구원 전체 대상

2)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통근/통학 지역]

(단위: %)

연도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다른 구	다른 시도
2013년	18.6	34.8	41.8	4.8
2014년	19.1	34.4	40.7	5.8
2015년	16.3	32.8	43.5	7.4
2016년	17.0	40.9	37.2	4.8
2017년	19.7	31.4	41.6	7.3
2018년	19.8	31.2	41.8	7.2
2019년	21.3	32.2	40.7	5.9
2020년	22.3	31.2	39.6	6.9
2021년	22.7	30.3	39.5	7.5
2022년	20.3	35.0	39.3	5.4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제8장 문화와 여가

제1절 문화활동과 향유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개념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연도	관람 경험 있음	관람 경험 없음	비고
2012년	65.0	35.0	현장 관람 경험
2014년	71.0	29.0	
2016년	94.9	5.1	
2018년	72.3	27.7	
2019년	75.0	25.0	
2020년	66.3	33.7	
2021년	55.7	44.3	현장 및 온라인 관람 경험
2022년	63.8	36.2	

주: 1)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2) 2021년 이후 온라인 관람 여부 추가

[현장 방문 관람 횟수]

(단위: 회)

연도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2012년	0.30	0.10	0.30	2.40	0.10	0.20	0.10	0.30
2014년	0.10	0.09	0.33	2.56	0.20	0.22	0.14	0.25
2016년	0.39	0.16	0.60	3.60	0.33	0.41	0.22	0.58
2018년	0.07	0.07	0.34	2.83	0.27	0.33	0.11	0.31
2019년	0.09	0.10	0.39	2.99	0.26	0.30	0.16	0.35
2020년	0.10	0.13	0.38	2.50	0.32	0.29	0.16	0.30
2021년	0.05	0.09	0.19	1.43	0.23	0.16	0.07	0.12
2022년	0.03	0.04	0.15	1.56	0.09	0.11	0.07	0.17

주: 1) 전체 응답자 대상 (관람 경험 없는 사람 포함)
2)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3) 2021년 이후 온라인 관람 여부 추가

[온라인 관람 횟수]

(단위: 회)

연도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2021년	0.08	0.11	0.09	2.60	0.08	0.06	0.26	1.71
2022년	0.05	0.01	0.02	1.41	0.03	0.02	0.11	0.46

주) 전체 응답자 대상 (관람 경험 없는 사람 포함)

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개념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에 대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원)

연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2012년	11,327	69,121	59,106	38,890	16,582	10,852	61,829	38,351
2014년	21,991	70,674	66,455	40,022	21,327	12,020	80,228	46,488
2016년	17,010	73,229	64,403	39,943	20,054	15,016	73,718	41,330
2018년	25,773	89,475	79,302	47,844	38,997	14,855	89,850	53,263
2019년	31,012	82,457	83,008	48,714	22,218	16,345	106,438	77,012
2020년	31,197	93,312	94,617	49,545	27,887	17,660	121,908	62,432
2021년	27,767	59,606	79,094	47,911	28,130	17,606	44,079	19,849
2022년	18,292	124,375	95,461	48,257	25,772	16,918	74,992	35,167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 활동 경험 가구원 대상

2) 2012~2017년 격년 조사

3) 2020년 이전: 현장 관람 비용,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 비용

3. 문화환경 만족도

개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문화환경 만족도			종합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비용	
2021년		6.03	5.72	5.08	5.61
2022년		6.32	5.93	4.92	5.73
구 별	종로구	6.82	6.69	5.77	6.43
	중구	6.04	5.89	5.29	5.74
	용산구	6.26	5.71	5.05	5.67
	성동구	6.81	6.42	5.42	6.22
	광진구	5.96	5.68	5.28	5.64
	동대문구	6.50	6.32	5.53	6.12
	종량구	6.23	5.82	5.17	5.74
	성북구	6.19	5.75	4.98	5.64
	강북구	6.53	6.28	5.24	6.02
	도봉구	6.11	5.62	4.95	5.56
	노원구	5.91	5.62	4.95	5.49
	은평구	7.15	6.61	5.26	6.34
	서대문구	6.63	6.30	5.17	6.04
	마포구	6.76	6.10	4.84	5.90
	양천구	5.65	5.52	5.07	5.41
	강서구	6.33	6.09	5.31	5.91
	구로구	6.49	5.76	4.02	5.43
	금천구	6.20	5.72	4.69	5.54
	영등포구	4.85	4.28	2.84	3.99
	동작구	6.91	6.44	5.02	6.12
	관악구	6.31	5.68	4.04	5.34
	서초구	6.21	6.09	4.86	5.72
	강남구	6.19	5.91	4.48	5.53
	송파구	6.72	6.26	5.39	6.12
	강동구	6.35	6.05	5.25	5.88

주: 1) 2021년 이후: '문화시설 만족도, 문화프로그램 만족도, 문화비용 만족도'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문항 변경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4. 종합 독서량

개념	대표적인 문화활동의 하나로, 시민들의 독서 실태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민이 1년간 읽거나 들은 종합 독서량(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전국]

(단위: 권, %)

연도	종합 독서량(권)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종합 독서율(%)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전체 평균	독서자 평균	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2015년	9.9	14.6	67.4	65.3	10.2	-
2017년	9.4	15.0	62.3	59.9	14.1	-
2019년	7.5	13.5	55.7	52.1	16.5	3.5
2021년	4.5	9.5	47.5	40.7	19.0	4.5

주: 1) 격년 조사(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표 문항: 지난 1년 동안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웹툰)를 제외한 일반도서(웹소설 포함)를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2) 연간독서량: 지난 1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읽은 권수

3) 연간독서율: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서울]

(단위: 권, %)

연도	종합 독서량(권)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종합 독서율(%)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전체 평균	독서자 평균	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2015년	14.3	18.1	79.5	77.1	14.0	-
2017년	13.4	17.9	74.9	72.6	18.1	-
2019년	10.7	15.2	69.9	68.1	22.6	5.6
2021년	6.0	11.0	54.7	46.3	23.1	5.8

주: 1) 격년 조사(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표 문항: 지난 1년 동안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웹툰)를 제외한 일반도서(웹소설 포함)를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2) 연간독서량: 지난 1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읽은 권수

3) 연간독서율: 지난 1년 동안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5.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개념	비대면 문화활동 수요 및 여가활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T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이용 비율 • OTT 서비스 유료 이용 요금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주)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OTT 서비스 이용률과 이용 빈도]

(단위: %)

연도	OTT 서비스 이용률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					
		매일	일주일 5~6일	일주일 3~4일	일주일 1~2일	한달 1~3일	2~3달 1~2일 이하
2019년	51.5	23.9	18.2	25.0	23.5	7.8	1.5
2020년	61.8	36.8	22.5	17.4	17.0	5.4	0.9
2021년	76.4	26.6	24.4	22.5	20.6	4.4	1.6
2022년	72.4	30.7	25.0	16.4	20.0	6.6	1.3

주: 1) OTT 서비스 이용률: 전체 응답자 대상

2) OTT 서비스 이용 빈도: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주말 하루 평균 OTT 서비스 이용 시간]

(단위: %, 분)

연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균 (분)
2019년	26.7	22.5	24.4	5.2	21.2	69.3
2020년	17.8	13.6	28.7	25.1	14.8	84.6
2021년	17.8	15.3	26.5	25.2	15.2	86.8
2022년	17.3	8.3	26.5	30.6	17.2	94.1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단위: %)

연도	서울	전국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19년	-	14.9	13.0	18.8	16.5	12.3	14.2	7.9	7.5
2020년	-	21.7	20.4	33.4	30.1	17.6	10.4	8.7	8.6
2021년	39.4	50.1	57.3	69.5	67.4	41.5	31.3	16.5	13.3
2022년	47.8	55.9	68.1	79.7	74.4	57.9	35.8	17.5	7.2

주) OTT 서비스 이용자 대상

[OTT 서비스 유료 이용 요금]

(단위: %)

연도	5,000원 미만	5,000원~9,000원 미만	9,000원~12,000원 미만	12,000원~15,000원 미만	15,000원~20,000원 미만	20,000원 이상	가족, 친구 등 지인계정 사용
2021년	16.7	13.4	25.3	17.9	4.7	9.6	12.5
2022년	11.0	9.9	17.0	13.3	9.2	8.6	31.0

주) OTT 서비스 유료 이용자 대상

제2절 문화기반

1. 도서관 수

개념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산출방법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개소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단위: 개소)

구분	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2013년	488	3	123	88	274
2014년	491	3	132	88	268
2015년	499	3	146	88	262
2016년	503	3	147	89	264
2017년	512	3	160	88	261
2018년	525	3	173	88	261
2019년	529	3	180	88	258
2020년	542	3	188	88	263
2021년	537	3	195	88	251
2022년	478	3	199	91	185
구 별	종로구	39	-	7	25
	중구	38	-	9	27
	용산구	20	-	4	13
	성동구	10	-	7	1
	광진구	13	-	7	3
	동대문구	17	-	8	5
	중랑구	8	-	5	1
	성북구	25	-	13	4
	강북구	11	-	7	1
	도봉구	10	-	9	-
	노원구	21	-	9	5
	은평구	13	-	8	4
	서대문구	19	-	4	4
	마포구	16	-	6	8
	양천구	12	-	10	2
	강서구	20	-	9	7
	구로구	18	-	12	3
	금천구	6	-	4	1
	영등포구	22	1	5	14
	동작구	18	-	7	6
	관악구	10	-	5	2
	서초구	46	2	8	28
	강남구	30	-	15	12
	송파구	20	-	12	6
	강동구	11	-	9	1
	기타	5	-	3	2

주: 1)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2) 전문도서관 기타: 지역은 서울이나 주소는 다른 시도인 경우

2. 지역문화시설 수

개념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현황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수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수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문화예술과·복지정책과·체육진흥과·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단위: 개소)

연도	문화시설 (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개	문예 회관	종합 사회 복지관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소개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12년	256	225	18	98	46	63	31	25	2	4
2013년	260	229	18	98	48	65	31	25	2	4
2014년	254	223	18	98	44	63	31	25	2	4
2015년	256	225	18	98	46	63	31	25	2	4
2016년	256	224	18	98	46	62	32	25	3	4
2017년	257	225	18	99	48	60	32	25	3	4
2018년	292	260	18	98	78	66	32	25	3	4
2019년	295	263	18	98	81	66	32	25	3	4
2020년	297	265	18	98	82	67	32	25	3	4
2021년	303	271	18	99	84	70	32	25	3	4

주) 구민(다목적)체육시설: 2018년부터 구자체 운영시설 포함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자치구별]

(단위: 개소)

구분		문화시설 (개)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계	문예 회관	종합 사회 복지관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21년		303	271	18	99	84	70	32	25	3	4
구 별	종로구	9	5	1	1	3	-	4	1	1	2
	중구	17	15	1	3	7	4	2	1	1	-
	용산구	9	8	1	2	2	3	1	1	-	-
	성동구	12	11	2	3	4	2	1	1	-	-
	광진구	10	9	1	3	4	1	1	1	-	-
	동대문구	7	6	-	2	3	1	1	1	-	-
	종량구	9	8	-	4	2	2	1	1	-	-
	성북구	12	11	-	5	3	3	1	1	-	-
	강북구	10	9	1	4	2	2	1	1	-	-
	도봉구	12	11	-	3	2	6	1	1	-	-
	노원구	17	16	1	9	2	4	1	1	-	-
	은평구	11	10	1	3	2	4	1	1	-	-
	서대문구	10	9	1	3	3	2	1	1	-	-
	마포구	12	11	1	3	3	4	1	1	-	-
	양천구	13	12	1	5	4	2	1	1	-	-
	강서구	20	19	-	10	6	3	1	1	-	-
	구로구	13	12	1	3	5	3	1	1	-	-
	금천구	9	8	1	2	3	2	1	1	-	-
	영등포구	11	10	1	2	2	5	1	1	-	-
	동작구	14	13	-	6	4	3	1	1	-	-
	관악구	12	11	1	5	3	2	1	1	-	-
	서초구	15	13	1	4	6	2	2	1	1	-
	강남구	16	14	-	6	4	4	2	1	-	1
	송파구	14	12	-	6	1	5	2	1	-	1
	강동구	9	8	1	2	4	1	1	1	-	-

주) 구민(다목적)체육시설: 2018년부터 구자체 운영시설 포함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3.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개념	공연 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 문화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미술 전시 횟수, 공연예술(국악, 양악, 무용, 연극, 혼합) 행사 건수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단위: 건)

연도	계	시각예술 전시	공연예술					
			소계	국악	양악	음악	무용	연극
2012년	12,007	7,102	4,905	733	-	2,702	648	822
2013년	11,928	6,824	5,104	505	-	2,846	721	1,032
2014년	13,581	7,533	6,048	636	-	3,672	528	1,212
2015년	12,465	5,516	6,949	502	3,821	-	537	1,635
2016년	12,350	5,697	6,653	411	3,568	-	527	1,615
2017년	13,217	6,199	7,018	619	3,571	-	507	1,667
2018년	14,093	6,312	7,781	751	4,101	-	479	1,777
2019년	13,863	6,268	7,595	662	3,779	-	544	1,835
2020년	5,539	2,110	3,429	184	1,842	-	173	1,042
2021년	12,533	5,609	6,924	431	3,874	-	491	1,754

4. 문화예술사업체 수

개념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산출방법	창작 및 예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업체,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사업체 수의 총합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문화예술사업체 수]

(단위: 개)

연도	합계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사업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2020년	30,044	6,953	3,168	8,650	11,273
2021년	28,722	6,317	3,171	8,909	10,325
2022년	28,242	6,048	3,084	9,341	9,769

주: 1) 문화예술사업체 유형은 2019년 이전까지 행정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등록된 업체를 기반으로 산정함

2) 2020년 자료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세세분류는 이를 참고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사업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2020년	88,627	20,022	15,380	27,469	25,756
2021년	88,491	18,518	15,420	29,537	25,016
2022년	90,030	17,902	14,855	32,881	24,392

제3절 여가활동과 향유

1. 여가생활 만족도

개념	개인이 느끼는 여가시간 충분성과 주관적 여가생활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성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여가시간 충분성':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종합평가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9년		20.3	48.9	30.8	5.28
2020년		20.4	47.8	31.8	5.27
2021년		18.4	47.3	34.4	5.4
2022년		13.7	46.2	40.2	5.69
연령별	10대	15.8	56.3	28.0	5.32
	20대	12.8	43.5	43.6	5.83
	30대	13.4	42.4	44.2	5.81
	40대	11.8	44.2	44.0	5.85
	50대	13.7	45.9	40.3	5.70
	60세 이상	15.1	49.9	35.0	5.50
소득별	200만원 미만	20.6	49.4	29.9	5.21
	200~300만원 미만	13.2	47.0	39.8	5.71
	300~400만원 미만	12.1	45.0	42.8	5.80
	400~500만원 미만	12.8	44.2	43.0	5.78
	500만원 이상	13.4	46.3	40.3	5.71
권역별	도심권	13.1	41.5	45.5	5.86
	동북권	12.5	45.1	42.3	5.77
	서북권	11.0	43.0	46.0	5.95
	서남권	16.0	53.6	30.3	5.35
	동남권	13.6	39.8	46.6	5.88

[여가생활 동반자]

(단위: %)

연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척 포함)	친구와 함께 (연인 포함)	동호회 활동 (종교단체 등)	직장 동료	기타
2012년		19.9	46.4	28.4	3.9	1.4	0.1
2014년		17.9	50.5	26.8	4.2	0.7	-
2016년		18.7	49.7	26.2	3.9	1.4	0.1
2018년		18.4	46.1	30.3	4.5	0.8	-
2019년		18.7	42.3	33.2	4.6	1.2	-
2020년		26.0	42.4	28.1	2.4	1.1	-
2021년		32.9	37.9	25.3	2.5	1.3	-
2022년		22.6	41.3	33.5	2.0	0.7	-
연령 별	10대	16.6	18.1	64.2	0.2	0.9	-
	20대	18.3	18.0	61.3	0.7	1.7	-
	30대	16.3	48.4	32.9	0.9	1.5	-
	40대	19.2	58.3	20.5	0.6	1.4	-
	50대	21.9	51.2	23.1	1.1	2.6	-
	60세 이상	32.6	38.2	26.0	0.3	2.7	0.1
소득 별	200만원 미만	48.1	20.8	28.5	0.1	2.3	0.2
	200~300만원 미만	33.6	25.7	38.4	0.4	1.8	0.1
	300~400만원 미만	24.4	38.5	34.7	0.8	1.5	-
	400~500만원 미만	20.5	45.7	31.3	0.8	1.7	-
	500만원 이상	15.7	48.1	33.2	0.7	2.2	-
권역 별	도심권	21.4	41.1	36.5	0.3	0.7	-
	동북권	24.0	39.7	34.1	0.5	1.7	0.1
	서북권	18.7	39.4	40.2	0.9	0.8	-
	서남권	26.3	39.6	31.3	0.5	2.3	-
	동남권	17.5	47.3	31.0	1.1	3.1	-

주)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개념	서울시민들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 파악
산출방법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3. 여행 건수

개념	서울시민들의 국내외 여행 실태 조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제9장 교육과 돌봄

제1절 교육 및 보육환경

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개념	초·중·고교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교육환경 만족도
2013년		5.82
2014년		5.41
2015년		5.43
2016년		5.44
2017년		5.45
2018년		5.57
2019년		5.71
2020년		5.69
2021년		5.74
2022년		6.20
권역별	도심권	6.48
	동북권	6.36
	서북권	6.05
	서남권	5.75
	동남권	6.70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2. 평생교육 참여율

개념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만 25세부터 만 79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서울 및 광역시) • 평생학습 참여율 $= \{(\text{형식교육자} + \text{비형식교육자} - \text{동시참여자}) / \text{한국의 성인 인구}\} \times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서울 및 광역시)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및 광역시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2013년	30.2	3.8	28.0	30.7	4.6	28.1
2014년	36.8	3.1	35.2	34.9	3.2	33.4
2015년	40.6	3.5	39.1	41.9	4.4	40.0
2016년	35.7	2.8	34.2	32.7	2.6	31.4
2017년	34.4	1.9	33.4	35.2	2.0	34.1
2018년	41.2	2.3	40.4	41.9	3.1	40.8
2019년	41.7	1.5	40.9	42.7	1.8	41.6
2020년	40.0	1.4	39.3	40.8	1.5	40.0
2021년	30.7	0.8	30.2	31.2	0.7	30.6
2022년	28.5	0.6	28.0	29.5	0.6	29.1

- 주: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2016년 이전까지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017년 이후부터는 만 25~79세 성인 남녀를 조사
 3) (2022년 기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동시에 학습한 만 25~79세 성인은 0.2%임
 4) 평생학습: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
- 형식교육: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함
 -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함.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클럽, 개인교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함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

(단위: %, 중복응답)

서울 및 광역시		2021년	2022년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음		24.3	16.6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41.2	44.6
	코로나19 영향	29.2	29.2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	15.9	16.9
	동기, 자신감 부족	14.6	11.9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8.7	9.7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10.3	11.0
	학습비가 너무 비쌌	11.6	9.5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5.8	4.4
	교육 시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4.9	3.3
	건강상 이유로	3.8	1.7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2.1	1.0

- 주: 1)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었음: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 대상
 2)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요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
 (만 25~79세)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임

3. 공공보육시설 비율

개념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공공보육시설 현황 파악
산출방법	공공보육시설 수(국공립+직장+법인 보육시설 수)/전체보육시설 수×100
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 보육시설(구별)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공공보육시설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계	비율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직장				
2013년		6,742	954	(14.2)	750	39	165	167	2,337	3,258	26
2014년		6,787	1,056	(15.6)	844	36	176	154	2,273	3,277	27
2015년		6,598	1,151	(17.4)	922	35	194	141	2,174	3,105	27
2016년		6,368	1,330	(20.9)	1,071	33	226	131	2,054	2,824	29
2017년		6,226	1,550	(24.9)	1,274	32	244	116	1,939	2,592	29
2018년		6,008	1,766	(29.4)	1,481	27	258	106	1,734	2,369	33
2019년		5,698	1,954	(34.3)	1,661	28	265	101	1,512	2,098	33
2020년		5,370	2,064	(38.4)	1,749	27	288	92	1,326	1,857	31
2021년		5,049	2,130	(42.2)	1,811	23	296	92	1,162	1,637	28
2022년		4,712	2,154	(45.7)	1,829	21	304	84	1,043	1,405	26
구 별	종로구	71	63	(88.7)	32	2	29	1	5	2	-
	중구	64	46	(71.9)	23	-	23	6	3	9	-
	용산구	106	50	(47.2)	36	2	12	7	17	32	-
	성동구	151	89	(58.9)	81	-	8	3	17	42	-
	광진구	152	60	(39.5)	56	-	4	-	53	38	1
	동대문구	184	85	(46.2)	77	-	8	3	43	53	-
	중랑구	191	70	(36.6)	67	-	3	5	63	52	1
	성북구	210	95	(45.2)	87	2	6	11	42	60	2
	강북구	122	63	(51.6)	60	1	2	2	36	19	2
	도봉구	170	70	(41.2)	66	1	3	1	43	54	2
	노원구	306	102	(33.3)	93	2	7	-	38	166	-
	은평구	217	94	(43.3)	90	-	4	6	79	37	1
	서대문구	136	69	(50.7)	64	-	5	2	31	33	1
	마포구	187	103	(55.1)	85	-	18	5	27	48	4
	양천구	236	97	(41.1)	88	-	9	1	37	101	-
	강서구	312	110	(35.3)	92	1	17	5	76	118	3
	구로구	266	110	(41.4)	99	3	8	4	58	91	3
	금천구	128	63	(49.2)	55	1	7	9	35	21	-
	영등포구	224	119	(53.1)	82	1	36	2	41	62	-
	동작구	168	78	(46.4)	70	-	8	2	37	50	1
	관악구	185	89	(48.1)	82	2	5	4	45	47	-
	서초구	170	110	(64.7)	88	-	22	1	22	35	2
	강남구	183	100	(54.6)	63	-	37	-	45	37	1
	송파구	335	127	(37.9)	107	2	18	3	85	119	1
	강동구	238	92	(38.7)	86	1	5	1	65	79	1

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개념	0~5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산출방법	5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5세 이하 영유아가구 비율]

(단위: %)

연도	영유아가구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	한부모가구
2018년	7.1	40.4	38.8	17.1	30.9	0.8
2020년	5.7	40.1	34.5	19.1	33.3	0.4
2022년	5.6	51.3	34.2	21.1	36.8	0.3

- 주: 1) 영유아가구: 0~5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2) 청년가구: 19~39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3) 중장년가구: 50~64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4) 노인가구: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5) 한부모가구: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5세 이하 영유아 주양육자]

(단위: %)

구분	부모	조부모	기타 가족	민간 (베이비 시터/ 도우미)	사교육 기관	기타 (이웃, 육아 공동체 등)
2022년	66.2	31.7	0.7	0.8	0.3	0.4
연령별	0세	81.8	18.3	-	-	-
	1세	78.2	21.8	-	-	-
	2세	59.4	38.4	1.0	1.2	-
	3세	78.1	18.9	3.0	0.0	-
	4세	67.9	31.1	-	0.0	1.0
	5세	57.7	38.5	-	2.4	-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구분	보육시설 미이용률	보육시설 이용률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2015년	31.4	68.6	34.4	1.2	41.3	4.1	-	3.0	13.3	2.6
2018년	25.6	74.4	15.9	0.8	53.0	7.1	-	8.7	14.2	0.2
2020년	28.1	71.9	22.5	0.9	44.6	17.7	-	0.5	13.9	-
2022년	24.8	75.2	25.7	2.1	48.4	8.9	0.5	1.5	10.9	2.0
연령 별	0세	100.0	-	-	-	-	-	-	-	-
	1세	80.7	19.3	46.9	-	53.1	-	-	-	-
	2세	40.5	59.5	42.7	3.1	34.1	18.7	1.0	-	-
	3세	24.4	75.6	21.7	6.3	55.9	16.1	-	-	-
	4세	5.7	94.3	18.4	-	58.3	5.8	1.4	10.5	5.6
	5세	4.1	95.9	24.0	2.0	41.5	3.5	1.6	24.8	-

- 주: 1) 2018년 이후 2년 주기 조사
 2) 보육시설 이용률: 전체 응답자 대상
 3) 보육시설 이용 현황: 보육시설 이용자 대상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연도	전반적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비용	교육프로그램	교사	시설환경	급식	이동거리
2015년	-	43.2	63.7	69.9	64.3	60.9	68.0
2018년	-	54.4	66.3	69.4	62.5	69.1	74.7
2020년	-	62.3	75.5	69.2	64.1	62.8	80.9
2022년	76.4	47.4	65.7	73.0	56.4	61.9	62.1

- 주: 1) 2018년 이후 2년 주기 조사
 2) 보육시설 이용자 대상
 3) 만족: 매우 만족 + 약간 만족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단위: %)

연도	믿을만한 곳이 없어서	가까운 곳이 없어서	국공립 시설 인소 대기중	비용 부담 때문에	가족 돌봄이 줄을 것 같아서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2020년	15.9	-	4.2	-	38.1	-	41.8	-
2022년	14.2	1.5	6.1	-	10.4	6.7	58.8	2.3

- 주: 1) 2년 주기 조사
 2) 보육시설 미이용자 대상
 3) 2020년부터 하위문항 변경

제2절 사회적 약자 보호

1. 사회복지예산 비중

개념	전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산출방법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전체 예산)×100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단위: 억 원, %)

연도	예산 총액 (순계)	사회복지예산								
		계	비율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보건	여성 보육	주거	교육
2013년	206,287	60,285	29.2	16,916	7,927	5,407	2,958	14,661	9,795	2,621
2014년	215,498	68,425	31.8	17,271	11,318	5,942	2,956	20,182	8,265	2,492
2015년	228,427	78,349	34.3	19,155	15,838	6,926	3,594	20,878	9,479	2,479
2016년	242,350	83,452	34.4	18,514	16,975	7,134	3,874	21,752	11,936	3,267
2017년	263,017	87,735	33.4	20,779	18,087	7,541	4,179	21,831	11,768	3,550
2018년	280,179	96,597	34.5	23,489	20,883	7,505	4,546	23,892	12,777	3,505
2019년	318,811	111,574	35.0	25,717	25,411	9,586	4,618	26,565	15,759	3,919
2020년	352,808	128,904	36.5	30,253	29,043	11,262	4,850	28,971	19,980	4,545
2021년	354,485	130,633	36.9	32,182	32,005	11,986	5,071	27,944	17,209	4,236
2022년	392,061	142,287	36.3	34,700	34,339	13,144	7,001	29,192	18,851	5,061

[항목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연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보건	여성보육	주거	교육
2013년	28.1	13.1	9.0	4.9	24.3	16.2	4.3
2014년	25.2	16.5	8.7	4.3	29.5	12.1	3.6
2015년	24.4	20.2	8.8	4.6	26.6	12.1	3.2
2016년	22.2	20.3	8.5	4.6	26.1	14.3	3.9
2017년	23.7	20.6	8.6	4.8	24.9	13.4	4.0
2018년	24.3	21.6	7.8	4.7	24.7	13.2	3.6
2019년	23.0	22.8	8.6	4.1	23.8	14.1	3.5
2020년	23.5	22.5	8.7	3.8	22.5	15.5	3.5
2021년	24.6	24.5	9.2	3.9	21.4	13.2	3.2
2022년	24.4	24.1	9.2	4.9	20.5	13.2	3.6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념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최근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구 비율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청·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민등록 인구	총 수급자율 (%)
	합계	일반 수급자 인원	조건부 수급자 인원	특례 수급자 인원	시설 수급자 인원		
2013년	202,991	153,628	30,349	6,503	12,511	10,388,055	1.95
2014년	207,736	150,612	33,626	10,570	12,928	10,369,593	2.00
2015년	259,446	197,620	39,839	9,121	12,866	10,297,138	2.52
2016년	267,978	207,232	40,378	7,616	12,752	10,204,057	2.63
2017년	264,227	202,411	43,400	5,998	12,418	10,124,579	2.61
2018년	290,222	227,396	44,271	6,324	12,231	10,049,607	2.89
2019년	318,127	247,097	50,722	8,729	11,579	10,010,983	3.18
2020년	370,226	292,744	58,481	8,019	10,982	9,911,088	3.74
2021년	403,311	318,724	66,245	7,558	10,784	9,736,027	4.14
2022년	413,055	326,371	69,928	6,365	10,391	9,667,669	4.27

- 주: 1)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2)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3) 특례수급자: 일반적인 수급 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4) 시설수급자: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 지급을 위탁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수급자를 말함
 5) 총수급자율 = (총수급자 인원/주민등록인구)×100

- 출처: 1)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2) 통계청·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202,991	207,736	259,446	267,978	264,227	290,222	318,127	370,226	403,311	413,055
본청	1,033	1,049	1,019	955	880	880	858	708	679	646
종로구	3,786	3,759	4,297	4,249	4,296	4,450	4,790	5,232	5,559	5,697
중구	3,454	3,287	3,983	3,972	3,966	4,266	4,611	5,299	5,905	6,146
용산구	4,582	4,766	5,965	5,978	5,940	6,515	6,957	8,265	8,882	9,081
성동구	5,651	5,624	7,242	7,221	7,003	7,839	8,488	9,718	10,241	10,238
광진구	5,052	5,296	7,444	7,588	7,411	8,720	9,684	11,864	13,261	13,535
동대문구	8,805	8,988	11,448	11,585	11,300	12,453	13,226	15,043	16,190	16,328
종량구	9,569	9,932	14,836	15,194	15,228	17,070	19,885	24,833	27,154	28,019
성북구	9,818	10,348	12,564	12,888	12,434	12,909	13,719	15,634	16,740	17,220
강북구	11,087	11,431	13,838	15,325	14,953	16,175	17,723	19,846	21,917	22,846
도봉구	5,708	6,051	9,558	10,331	10,625	11,470	12,192	13,876	15,373	16,175
노원구	21,375	21,472	24,734	24,889	24,224	26,012	27,891	31,054	32,553	32,453
은평구	12,565	12,943	17,145	17,644	17,350	19,677	20,788	24,139	25,438	25,922
서대문구	5,538	5,779	7,148	7,563	7,719	8,820	9,224	10,614	11,834	12,001
마포구	6,331	6,412	7,694	7,717	7,444	8,206	8,891	10,160	10,969	11,129
양천구	6,906	6,881	10,299	10,660	10,419	12,118	13,811	16,060	17,463	17,720
강서구	17,561	18,042	19,891	21,071	20,765	22,252	24,152	27,797	31,000	31,728
구로구	6,032	6,191	8,384	8,660	8,463	8,906	10,334	12,329	13,861	14,817
금천구	7,875	7,715	9,451	9,545	9,454	9,820	10,524	11,637	12,625	13,262
영등포구	7,842	7,460	8,628	8,044	7,833	8,511	9,350	10,963	11,828	12,058
동작구	5,866	6,068	7,054	7,991	8,004	9,306	10,623	12,408	13,202	13,314
관악구	10,670	10,815	12,225	13,039	13,192	14,455	16,249	20,517	22,941	23,318
서초구	3,225	3,532	4,700	4,853	4,873	5,477	6,009	6,791	7,418	7,674
강남구	9,372	10,319	11,410	11,532	11,201	11,507	12,886	14,660	15,840	16,117
송파구	6,309	6,377	9,012	9,480	9,594	12,019	13,509	16,081	17,769	18,144
강동구	6,979	7,199	9,477	10,004	9,656	10,389	11,753	14,698	16,669	17,467

주)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신청		미신청	
			(명)	(%)	(명)	(%)
2020년		3,027	45	(1.5)	2,982	(98.5)
2022년		3,019	64	(2.1)	2,955	(97.9)
권역별	도심권	162	2	(1.0)	160	(99.0)
	동북권	927	19	(2.0)	908	(98.0)
	서북권	367	1	(0.3)	366	(99.7)
	서남권	957	41	(4.3)	916	(95.7)
	동남권	606	1	(0.2)	605	(99.8)
연령별	20대 이하	407	1	(0.3)	406	(99.7)
	30대	606	3	(0.5)	603	(99.5)
	40대	576	7	(1.2)	569	(98.8)
	50대	600	7	(1.1)	593	(98.9)
	60대	525	13	(2.5)	512	(97.5)
	70대 이상	305	33	(10.9)	272	(89.1)

주) 신청 여부: 전체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이유]

(단위: %)

연도	신청 기준 미해당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가족 반대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이 안될 것 같아서	절차와 서류 복잡	도움 받고 싶지 않음	사정이 알려지는걸 원치 않음	신청 방법 모름
2020년	86.2	2.7	0.4	2.5	2.6	1.9	1.1	2.5
2022년	88.3	2.7	0.7	1.9	2.3	1.1	1.3	1.7

주) 미신청 이유: 미신청 가구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향후 이용 의사]

(단위: %)

연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향후 이용 의사
		전체 경험	현재 이용		
2015년	16.5	2.8	0.0	37.7	44.0
2018년	13.7	4.0	0.0	20.3	45.3
2020년	35.0	3.4	1.1	29.2	33.3
2022년	34.4	14.0	2.8	53.5	63.6

주) 1) 전체 응답자 대상(해당 사항 없음 제외)

2) 인지율: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음' 합산 비율

3) 이용 경험(전체): '현재 이용하고 있음' + '이전에 이용한 경험이 있음' 합산 비율

4) 도움 정도 평가: 이용 경험이 있거나 만약 이용한다면 '약간 도움됨' + '매우 도움됨' 합산 비율

5) 향후 이용 의사: '약간 희망함' + '매우 희망함' 합산 비율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도움
산출방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전체 장애인 수)×100
출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현황; 내부자료 등

(단위: 개소, 만 원, 명, %)

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전체 장애인 수 (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비율 (%)
	시설 개소 수				사업비(시비) (만 원)	이용 인원 (명)		
	소계	구립	법인	개인				
2013년	105	-	-	-	1,056,744	1,456	403,435	0.36
2014년	111	-	-	-	1,141,667	1,495	398,908	0.37
2015년	111	10	101	-	1,291,979	1,516	393,380	0.39
2016년	111	10	101	-	1,430,134	-	391,027	-
2017년	112	11	101	-	1,555,151	1,561	391,753	0.40
2018년	121	11	107	3	1,721,873	1,561	392,920	0.40
2019년	121	11	107	3	1,971,623	1,579	394,843	0.40
2020년	126	13	110	3	2,323,283	1,606	394,190	0.41
2021년	127	13	111	3	2,431,198	1,614	392,123	0.41
2022년	126	13	110	3	2,593,073	1,593	391,859	0.41

주) 2016년 자료 비공개

출처: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자료

3) 전체 장애인 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현황

4. 빈곤율

개념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
산출방법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전국)

(단위: %)

연도	상대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근로연령인구 (18세~65세)	은퇴연령인구 (66세 이상)	노인인구 (65세 이상)
2013년	18.4	13.8	47.7	46.3
2014년	18.2	13.7	46.0	44.5
2015년	17.5	12.9	44.3	43.2
2016년	17.6	12.9	45.0	43.6
2017년	17.3	12.6	44.0	42.3
2018년	16.7	11.8	43.4	42.0
2019년	16.3	11.1	43.2	41.4
2020년	15.3	10.6	40.4	38.9
2021년	15.1	10.6	39.3	37.6
2022년*	14.9	10.0	39.7	38.1

- 주: 1)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3)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개념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
산출방법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인원 수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단위: 명, 개소)

구분	합계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2012년	109	3,307	34	2,491	3	81	2	130	70	605
2013년	111	3,377	35	2,594	3	88	2	130	71	565
2014년	109	3,392	34	2,579	3	88	3	158	69	567
2015년	101	3,046	32	2,481	3	89	3	162	63	314
2016년	102	3,072	32	2,440	3	88	3	164	64	380
2017년	101	2,989	34	2,366	3	82	3	156	61	385
2018년	113	2,902	35	2,156	3	79	3	122	72	545
2019년	114	2,658	35	1,959	3	71	3	140	73	488
2020년	114	2,508	34	1,893	3	68	3	116	74	431
2021년	109	2,392	35	1,816	3	62	3	102	68	412
구 별	종로구	1	44	1	44	-	-	-	-	-
	중구	2	75	2	75	-	-	-	-	-
	용산구	2	105	2	105	-	-	-	-	-
	성동구	1	50	1	50	-	-	-	-	-
	광진구	2	9	-	-	-	-	-	2	9
	동대문구	2	60	-	-	-	-	-	2	60
	종량구	3	63	1	52	-	-	-	2	11
	성북구	10	107	1	56	-	-	-	9	51
	강북구	4	20	-	-	-	-	-	4	20
	도봉구	-	-	-	-	-	-	-	-	-
	노원구	4	92	1	80	-	-	-	3	12
	은평구	8	285	5	252	-	-	-	3	33
	서대문구	6	123	2	104	-	-	-	4	19
	마포구	2	60	1	56	-	-	-	1	4
	양천구	9	96	1	51	-	-	-	8	45
	강서구	7	135	2	110	-	-	-	5	25
	구로구	6	119	2	99	-	-	-	4	20
	금천구	1	53	1	53	-	-	-	-	-
	영등포구	7	220	2	87	1	26	3	102	1
	동작구	7	222	4	194	1	20	-	-	2
	관악구	10	170	2	119	1	16	-	-	7
	서초구	3	56	1	50	-	-	-	-	2
	강남구	1	54	1	54	-	-	-	-	-
	송파구	7	39	-	-	-	-	-	-	7
	강동구	4	135	2	125	-	-	-	-	2

제3절 성평등성

1. 성별 임금 격차

개념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산출방법	(여성 월 급여액/남성 월 급여액)×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전국)

(단위: 천 원, %)

연도	전체	남성 월 급여액	여성 월 급여액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성 소득=100)
2013년	2,288	2,664	1,705	64.0
2014년	2,353	2,761	1,742	63.1
2015년	2,415	2,837	1,781	62.8
2016년	2,498	2,918	1,869	64.1
2017년	2,578	3,010	1,946	64.7
2018년	2,702	3,135	2,087	66.6
2019년	2,808	3,241	2,197	67.8
2020년	2,866	3,306	2,239	67.7
2021년	2,974	3,439	2,314	67.3
2022년	3,172	3,661	2,485	67.9

주) 월 급여액: 정액급여+초과급여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2. 성평등지수

개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는 지표
산출방법	지역성평등지수: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주)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임

[성평등 수준]

(단위: 점)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한 의식·문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2016년	72.4	38.9	96.2	89.7	99.0	61.2	56.8	87.7
2017년	72.7	41.2	96.4	90.8	98.2	60.4	58.3	88.8
2018년	73.7	44.1	96.6	90.7	98.9	63.2	61.0	89.0
2019년	74.5	44.1	96.9	90.8	97.5	65.5	61.7	89.1
2020년	77.1	44.9	97.1	90.6	97.8	69.3	63.0	89.6
2021년	78.0	45.7	97.3	90.4	98.4	70.3	64.9	88.9

- 주: 1) 성평등 지수: 완전 불평등 0.0점, 완전 평등 100.0점
 2) 지수값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3)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지표 구성에 있어 약간씩 변화해 왔으나, 2016년 이후 지표 구성이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어짐
 4)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부터 통계 지표가 모두 생산되어 2019년부터 측정에 포함되었으며, 통계의 갱신 등으로 일부 지역의 과거 성평등 수준이 소폭 변동이 있었음

[성평등 순위]

(단위: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한 의식·문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2016년	3위	2위	1위	4위	1위	16위	13위	7위
2017년	6위	1위	1위	5위	2위	16위	11위	7위
2018년	5위	4위	1위	3위	2위	16위	8위	7위
2019년	5위	3위	1위	4위	7위	17위	12위	4위
2020년	2위	4위	1위	3위	5위	17위	11위	2위
2021년	2위	4위	1위	3위	1위	17위	13위	3위

3.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개념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분담 정도를 통해 성차별적 역할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가구주(가사노동 분담 해당자)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

구분		아내 주도적으로 가사노동 분담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적으로 가사노동 분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책임, 남편이 돕는 정도		남편이 주책임, 아내가 돕는 정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3년		24.8	62.0	12.1	0.9	0.2
2014년		29.3	57.7	12.1	0.7	0.2
2015년		24.6	62.8	12.0	0.6	0.1
2016년		26.5	60.7	11.8	0.7	0.2
2017년		26.8	58.0	13.8	1.0	0.4
2018년		24.3	59.3	15.5	0.6	0.3
2019년		25.7	57.4	16.0	0.8	0.2
2020년		25.9	56.4	15.7	1.7	0.2
2021년		20.4	57.5	20.0	1.5	0.6
2022년		17.8	61.8	19.2	0.8	0.4
연령별	20대 이하	8.4	53.5	35.1	3.1	-
	30대	9.0	45.3	44.6	0.7	0.4
	40대	10.9	63.6	23.9	1.0	0.5
	50대	18.2	69.6	11.3	0.8	0.1
	60세 이상	27.2	63.5	8.2	0.5	0.6

주) 응답자 중 비해당 가구(1인가구, 미혼가구 등) 제외

4.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으로 인한 이직 방지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
산출방법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 × 100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단위: 명, %)

연도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2012년	438,938	306,039	132,899	66,505	986	65,519	15.2	0.3	49.3
2013년	404,481	280,906	123,575	66,529	1,089	65,440	16.4	0.4	53.0
2014년	411,167	284,481	126,686	72,157	1,392	70,765	17.5	0.5	55.9
2015년	421,604	289,500	132,104	78,395	1,752	76,643	18.6	0.6	58.0
2016년	398,966	272,663	126,303	77,089	2,375	74,714	19.3	0.9	59.2
2017년	356,402	241,208	115,194	73,962	4,126	69,836	20.8	1.7	60.6
2018년	346,914	232,690	114,224	75,227	5,278	69,949	21.7	2.3	61.2
2019년	331,409	220,350	111,059	76,136	6,340	69,796	23.0	2.9	62.8
2020년	303,693	198,971	104,722	74,275	6,871	67,404	24.5	3.5	64.4
2021년p)	298,329	193,119	105,210	76,463	7,878	68,585	25.6	4.1	65.2

주)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 × 100

제10장 가치와 의식

제1절 시민성

1. 지역사회 참여율

개념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성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시민조사)

주) 2022년: 가구원조사, 2019~2021년: 시민조사

(단위: %)

구분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정책토론회 참여	정책제안	집회/시위 참가
2019년*		11.5	10.6	1.9	1.9	11.5
2020년*		13.2	18.8	4.0	4.8	5.7
2021년*		16.2	16.0	4.5	5.1	6.6
2022년		6.5	8.7	2.3	1.3	2.9
연령 별	10대	4.6	6.2	1.0	0.8	0.9
	20대	5.6	11.4	3.2	1.3	3.8
	30대	8.4	12.9	2.5	2.0	3.8
	40대	7.4	10.0	2.4	1.5	3.3
	50대	6.4	7.7	1.7	1.1	2.9
	60세 이상	5.6	4.6	2.0	1.1	1.8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3.6	2.8	1.7	1.0	1.3
	고등학교	6.6	5.6	1.7	1.0	2.8
	전문대/대학교	6.8	11.1	2.6	1.5	3.1
	대학원 이상	14.0	14.1	5.1	1.9	3.8
권 역 별	도심권	7.8	7.6	0.9	0.7	2.0
	동북권	4.4	5.3	1.2	0.7	3.2
	서북권	4.4	8.7	2.0	1.8	3.1
	서남권	6.3	7.7	3.7	2.0	2.8
	동남권	10.8	15.3	2.2	1.1	2.6

주) 2022년은 가구원조사 결과이며, 2019~2021년은 시민조사 결과임

2. 자원봉사 참여율

개념	주인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서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데 일조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구분		자원봉사 참여 경험 있음
2013년		20.3
2014년		13.4
2015년		12.3
2016년		14.5
2017년		12.9
2018년		12.2
2019년		13.6
2020년		11.5
2021년		7.2
2022년		7.1
구 별	종로구	9.4
	중구	5.1
	용산구	6.8
	성동구	5.2
	광진구	4.2
	동대문구	9.7
	중랑구	5.9
	성북구	7.7
	강북구	8.5
	도봉구	6.3
	노원구	5.6
	은평구	9.2
	서대문구	9.9
	마포구	11.6
	양천구	6.7
	강서구	3.1
	구로구	8.2
	금천구	5.0
	영등포구	0.9
	동작구	9.0
	관악구	4.2
	서초구	14.9
	강남구	6.5
	송파구	6.3
	강동구	10.4

[자원봉사 참여 횟수]

(단위: 회)

연도	자원봉사 참여 횟수						
	환경보전과 보호 분야	자녀교육 관련 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재능나눔,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	국제사회 관련 분야	기타
2016년	3.0	2.9	3.2	2.9	2.1	1.6	1.0
2017년	3.8	3.7	4.4	4.1	2.1	2.0	32.4
2018년	3.2	3.7	4.3	3.6	2.2	1.2	9.7
2019년	2.9	3.0	3.1	3.2	2.2	1.7	6.7
2020년	3.8	3.1	5.2	3.4	2.1	1.9	9.1
2021년	3.3	4.0	5.5	4.8	2.9	2.2	9.8
2022년	3.1	3.6	3.0	2.2	2.1	2.0	14.7

주)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3. 시민자부심

개념	서울시민의 자부심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인식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시민조사)

주) 2015~2018년, 2022년: 가구원조사, 2019~2021년: 시민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점수별 분포도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015년		0.1	0.1	0.2	0.8	2.4	9.5	21.4	31.5	25.2	8.1	0.7	6.91
2016년		-	0.1	0.1	0.8	2.3	9.4	21.7	31.3	25.8	7.8	0.7	6.91
2017년		0.2	0.3	0.7	1.5	3.2	9.4	19.6	27.9	25.5	9.8	1.8	6.90
2018년		0.3	0.3	0.7	1.4	2.6	13.4	17.6	25.1	24.9	10.2	3.5	6.90
2019년*		-	0.2	0.5	2.2	3.7	16.0	15.2	27.7	24.8	7.8	1.9	6.75
2020년*		1.6	0.3	1.1	2.5	2.5	19.8	14.4	21.1	20.7	10.4	5.7	6.69
2021년*		1.6	0.7	0.9	2.0	2.7	22.9	19.2	20.7	20.0	6.1	3.3	6.41
2022년		-	0.1	0.4	1.6	1.9	12.8	14.5	25.2	29.1	12.6	1.8	7.05
권역별	도심권	-	0.6	0.5	2.1	1.8	9.3	13.9	28.9	29.7	10.6	2.6	7.07
	동북권	-	0.1	0.4	1.8	1.5	12.7	13.2	24.2	32.0	12.0	2.0	7.09
	서북권	-	0.3	0.4	0.7	1.6	7.6	14.9	25.1	33.3	15.6	0.4	7.24
	서남권	-	0.1	0.5	1.7	1.7	14.6	16.7	26.0	23.7	13.9	1.0	6.94
	동남권	-	-	0.2	1.4	2.8	14.3	13.1	24.6	30.2	10.3	3.1	7.03

주: 1) 매우 자부심을 느낌 10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0점
 2) 2015~2018년, 2022년: 가구원조사, 2019~2021년: 시민조사

4. 시민 준법의식

개념	서울 시민들의 준법의식 인식을 파악
산출방법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주)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제2절 포용성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개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산출방법	가구의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 (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장애아에 대한 인식	가난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인식	여성 제도 개선인식	노키즈존 어린이 기본권 침해 인식
2013년		5.67	5.65	5.44	5.42	6.17	-
2014년		5.60	6.14	5.22	5.06	5.99	-
2015년		5.58	6.09	5.22	5.08	5.95	-
2016년		5.59	6.12	5.21	5.08	5.96	-
2017년		5.63	6.16	5.24	5.09	6.02	-
2018년		5.64	6.26	5.25	4.98	6.06	-
2019년		5.63	6.12	5.32	5.05	6.02	-
2020년		5.70	6.19	5.39	5.10	6.11	-
2021년		5.67	6.16	5.39	5.06	6.08	-
2022년		5.51	5.83	5.24	5.22	5.70	5.56
구 별	종로구	5.79	6.33	6.07	5.43	5.59	5.51
	중구	5.13	5.71	4.63	4.76	5.11	5.46
	용산구	5.69	6.20	4.90	5.16	6.12	6.05
	성동구	5.70	5.51	5.51	5.36	5.99	6.14
	광진구	5.30	5.12	5.28	5.20	5.33	5.57
	동대문구	5.31	5.99	4.64	5.06	5.54	5.31
	중랑구	5.53	6.02	5.30	5.31	5.38	5.63
	성북구	5.78	6.20	5.17	5.47	5.99	6.04
	강북구	6.08	6.32	6.02	6.10	6.32	5.65
	도봉구	6.15	6.95	5.16	5.79	6.17	6.71
	노원구	5.56	5.16	5.57	5.79	5.76	5.51
	은평구	5.80	5.94	5.85	5.31	6.25	5.65
	서대문구	5.24	5.36	4.52	4.98	5.60	5.74
	마포구	5.69	6.31	5.26	5.54	6.25	5.09
	양천구	4.68	5.13	5.08	4.39	4.14	4.68
	강서구	5.57	5.41	5.48	5.44	5.61	5.91
	구로구	5.67	5.82	5.94	4.41	6.23	5.94
	금천구	5.56	6.60	5.03	4.78	5.82	5.58
	영등포구	5.23	6.12	5.73	5.35	4.81	4.16
	동작구	5.29	5.56	5.46	4.90	5.51	5.04
관악구	5.85	6.12	5.47	6.20	5.91	5.55	
서초구	5.41	5.44	5.32	5.35	5.62	5.31	
강남구	5.20	6.10	4.22	4.28	5.70	5.71	
송파구	5.41	5.73	4.95	5.35	5.69	5.33	
강동구	5.42	5.81	4.61	4.57	5.99	6.11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음 10점, 매우 낮음 0점

2. 사회적 신뢰

개념	일반사람, 이웃,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수준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에게 가족, 이웃, 공공기관,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연도	종합 평균	가족	이웃	공공 기관	친구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낯선 사람
2013년	5.23	8.77	5.36	5.32	-	3.66	3.02	-
2014년	5.11	8.8	5.54	5.08	-	3.16	2.97	-
2015년	5.53	8.83	5.51	5.05	-	-	-	2.73
2016년	6.49	8.84	5.54	5.07	-	-	-	-
2017년	6.43	8.65	5.47	5.18	-	-	-	-
2018년	6.54	8.47	5.22	5.37	7.08	-	-	-
2019년	5.33	8.74	5.17	5.41	7.16	2.71	2.75	-
2020년	5.22	8.59	5.02	5.40	7.01	2.61	2.68	-
2021년	5.10	8.49	4.83	5.30	6.91	2.49	2.56	-
2022년	5.01	8.59	4.50	4.90	6.91	2.54	2.61	-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가족, 이웃, 공공기관 신뢰도 평균]

(단위: 10점 만점)

연도	사회적 신뢰도			
	종합 평균	가족	이웃	공공기관
2013년	6.48	8.77	5.36	5.32
2014년	6.47	8.8	5.54	5.08
2015년	6.46	8.83	5.51	5.05
2016년	6.48	8.84	5.54	5.07
2017년	6.43	8.65	5.47	5.18
2018년	6.35	8.47	5.22	5.37
2019년	6.44	8.74	5.17	5.41
2020년	6.34	8.59	5.02	5.40
2021년	6.20	8.49	4.83	5.30
2022년	6.00	8.59	4.50	4.90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3. 다양성 수용도

개념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집단을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산출방법	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를 직장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그렇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인 노동자	83.5	79.7	85.6	75.6	71.8	72.8	33.4	32.2	25.5
장애인	79.8	77.5	78.6	74.3	72.5	66.7	17.9	18.7	14.3
새터민	71.1	69.1	67.2	62.0	59.7	50.6	21.9	22.7	14.2
난민	53.7	55.3	51.5	41.3	44.3	36.5	10.7	13.6	7.4
성소수자	48.4	50.0	40.7	35.1	37.5	23.6	6.1	8.6	2.9

[연령별 다양성 수용도: 친구로]

(단위: %)

구분 (2022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10대	78.1	69.2	55.0	44.3	32.1
20대	78.6	71.6	54.7	41.4	30.4
30대	77.0	69.4	52.8	38.6	26.1
40대	75.5	68.0	51.4	37.2	24.1
50대	72.7	67.3	51.8	38.0	22.9
60세 이상	64.3	60.4	44.8	29.2	16.4

4. 공정성

개념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산출방법	교육, 취업, 과세, 복지, 지역균형, 법치, 정치활동, 성별, 분배, 병역 등에 대한 공정성 정도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시민조사)

주) 2022년: 가구원조사, 2021년: 시민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수혜 기회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 대우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2021년	4.67	5.48	4.63	4.66	5.06	4.50	4.21	4.15	4.74	4.30	5.00
2022년	5.34	6.43	5.52	5.23	5.51	5.30	4.96	4.75	5.19	5.07	5.48
연령별	10대	5.20	6.32	5.34	5.07	5.14	5.13	4.80	4.78	5.14	5.26
	20대	5.27	6.31	5.41	5.18	5.42	5.13	4.95	4.83	5.08	5.32
	30대	5.37	6.44	5.58	5.28	5.49	5.37	5.06	4.83	5.12	5.47
	40대	5.29	6.52	5.60	5.15	5.38	5.29	4.84	4.60	5.17	5.38
	50대	5.29	6.38	5.52	5.19	5.47	5.22	4.89	4.65	5.10	5.48
	60세 이상	5.46	6.49	5.54	5.33	5.75	5.44	4.81	5.38	5.20	5.68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 매우 공정하다 10점

2) 2022년: 가구원조사, 2021년: 시민조사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단위: 점)

구분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2022년)										
		종합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수혜 기회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 대우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연령별 편차	10대	-0.14	-0.11	-0.18	-0.16	-0.37	-0.17	-0.16	0.03	-0.05	-0.02	-0.22
	20대	-0.07	-0.12	-0.11	-0.04	-0.09	-0.17	0.00	0.08	-0.11	-0.01	-0.16
	30대	0.02	0.01	0.06	0.05	-0.02	0.07	0.10	0.08	-0.07	-0.04	-0.01
	40대	-0.05	0.09	0.08	-0.08	-0.13	0.00	-0.11	-0.15	-0.02	-0.08	-0.10
	50대	-0.05	-0.05	0.00	-0.04	-0.04	-0.08	-0.07	-0.10	-0.08	-0.07	0.00
	60세 이상	0.12	0.06	0.02	0.10	0.24	0.14	0.08	0.06	0.19	0.13	0.20

주)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 각 항목별 전체 평균값 - 각 항목별·연령별 점수

제3절 통합성

1. 지역사회 소속감

개념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조사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잘 알고 지내는 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1년		3.94	4.52	3.94	3.97	3.34
2022년		3.96	5.07	4.18	3.57	3.02
구 별	종로구	4.62	5.81	4.70	4.07	3.91
	중구	3.87	4.50	3.94	3.71	3.34
	용산구	3.66	4.62	3.93	3.19	2.90
	성동구	3.82	4.96	3.95	3.41	2.97
	광진구	3.57	4.55	3.65	3.26	2.83
	동대문구	3.98	5.00	4.11	3.73	3.07
	중랑구	4.28	5.35	4.43	3.88	3.44
	성북구	3.81	5.14	4.03	3.33	2.74
	강북구	3.83	5.09	3.97	3.73	2.52
	도봉구	4.51	5.55	4.84	4.47	3.17
	노원구	2.19	3.98	2.05	1.62	1.13
	은평구	4.20	5.55	4.47	3.84	2.94
	서대문구	4.87	5.77	4.99	4.61	4.12
	마포구	4.60	5.20	4.76	4.53	3.90
	양천구	4.82	5.53	5.18	4.17	4.38
	강서구	3.90	5.40	4.24	3.37	2.61
	구로구	3.80	4.71	4.07	3.46	2.95
	금천구	3.56	4.31	3.85	3.18	2.89
	영등포구	3.39	4.87	4.02	2.76	1.91
	동작구	4.21	5.55	4.39	3.75	3.16
	관악구	4.19	5.30	4.69	3.71	3.05
	서초구	4.41	5.28	4.45	3.95	3.96
	강남구	3.24	4.14	3.39	3.05	2.37
	송파구	4.26	5.34	4.61	3.80	3.27
	강동구	4.07	4.93	4.07	3.76	3.51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아니다 0점

2. 사회적 고립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지표로 물리적 고립감(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주관적 지표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돌봄 가족을 맡겨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주관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주: 1) '사회적 고립도': 가구원조사
2) '1인가구의 고립감':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사회적 고립도]

(단위: %)

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없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사람 없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없음
2015년		-	20.4	39.2	25.4	-
2016년		-	17.7	36.8	23.8	-
2017년		-	17.2	34.7	22.4	-
2019년		-	9.5	28.9	11.8	-
2020년		21.8	5.6	20.5	4.9	-
2021년		26.7	5.0	18.1	5.4	-
2022년		12.1	2.8	23.2	7.6	24.2
연령별	10대	12.2	2.0	24.1	5.1	36.0
	20대	9.5	2.4	23.6	7.4	24.2
	30대	10.6	3.3	18.1	6.3	17.8
	40대	10.3	2.5	17.7	6.1	23.2
	50대	11.5	2.5	20.1	8.2	23.9
	60세 이상	16.2	3.2	31.7	9.6	33.2
학력별	중학교 이하	17.8	3.5	43.9	11.2	37.9
	고등학교	13.5	2.9	25.7	8.5	28.3
	전문대학/대학교	10.5	2.6	18.7	6.6	21.9
	대학원 이상	8.6	2.9	19.6	7.7	18.8
소득별	200만원 미만	21.9	5.0	41.0	10.6	33.2
	200~300만원 미만	15.2	5.5	33.3	7.4	32.3
	300~400만원 미만	12.9	3.5	22.5	10.2	23.6
	400~500만원 미만	13.0	2.7	23.8	7.9	24.2
	500만원 이상	9.3	1.6	18.3	6.4	22.4

주: 1) 2018년 비조사
2)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비해당 제외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치구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없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사람 없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없음
구 별	종로구	10.6	2.4	12.1	11.0	39.0
	중구	4.3	2.8	29.0	8.2	7.6
	용산구	17.8	4.2	35.3	20.2	36.5
	성동구	13.0	.9	18.9	5.4	16.7
	광진구	19.5	2.0	14.7	7.8	23.3
	동대문구	9.3	2.4	16.2	5.6	10.7
	중랑구	8.0	2.1	28.5	6.5	15.2
	성북구	11.0	1.9	33.7	4.8	10.1
	강북구	26.4	4.1	29.4	8.5	20.8
	도봉구	5.5	1.3	24.8	8.9	20.4
	노원구	14.2	2.9	25.5	4.2	39.5
	은평구	11.4	.2	17.9	6.2	13.0
	서대문구	9.7	2.3	21.2	8.3	18.4
	마포구	12.8	.4	14.9	6.4	17.8
	양천구	7.8	2.1	26.4	5.5	27.9
	강서구	20.5	11.2	36.0	6.4	53.6
	구로구	15.2	1.5	22.3	4.4	31.0
	금천구	32.3	7.8	19.5	12.8	33.4
	영등포구	24.0	1.2	14.3	.4	3.1
	동작구	4.9	5.1	19.9	11.9	39.7
	관악구	9.1	1.3	15.4	2.3	16.6
	서초구	4.9	.6	15.0	8.4	9.3
	강남구	9.6	1.8	18.9	7.1	25.4
	송파구	6.4	4.7	27.6	7.0	28.6
	강동구	4.4	1.9	32.3	21.9	44.8

주)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비해당 제외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3. 행복지수

개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파악
산출방법	가구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 상태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13년		6.86	7.15	6.23	6.95	7.03	6.94
2014년		6.92	7.16	6.21	7.08	7.14	7.01
2015년		6.95	7.18	6.28	7.09	7.16	7.04
2016년		6.97	7.20	6.29	7.11	7.18	7.05
2017년		6.96	7.19	6.29	7.10	7.19	7.05
2018년		6.90	7.22	6.13	7.09	7.13	6.91
2019년		6.84	7.25	6.26	6.91	6.98	6.79
2020년		6.54	6.99	5.99	6.64	6.67	6.43
2021년		6.27	6.63	5.70	6.38	6.45	6.20
2022년		6.72	7.21	6.12	6.78	6.89	6.60
구 별	종로구	6.90	7.19	6.53	6.99	7.00	6.78
	중구	6.44	6.79	6.01	6.52	6.50	6.39
	용산구	6.50	7.13	6.28	6.46	6.39	6.27
	성동구	6.99	7.59	6.43	7.00	7.03	6.93
	광진구	6.53	7.09	6.24	6.45	6.55	6.34
	동대문구	6.76	7.48	6.01	6.98	6.68	6.66
	종량구	6.92	7.44	6.12	6.94	7.06	7.03
	성북구	6.95	7.25	6.35	7.07	7.21	6.88
	강북구	6.52	7.15	5.61	6.72	6.90	6.24
	도봉구	6.62	6.96	6.04	6.70	6.87	6.51
	노원구	6.59	7.72	5.12	6.58	7.21	6.33
	은평구	7.01	7.50	6.66	7.00	7.31	6.57
	서대문구	6.91	7.30	6.43	7.02	7.02	6.79
	마포구	6.91	7.29	6.78	6.97	6.95	6.56
	양천구	6.46	6.66	6.54	6.43	6.39	6.29
	강서구	6.37	6.66	5.95	6.39	6.45	6.40
	구로구	6.48	7.11	5.69	6.60	6.55	6.44
	금천구	6.37	6.90	5.67	6.47	6.43	6.38
	영등포구	6.38	7.18	5.82	6.27	6.38	6.22
	동작구	7.11	7.52	6.44	7.13	7.33	7.13
	관악구	6.73	7.34	6.19	6.75	6.70	6.68
	서초구	6.96	7.79	6.12	6.95	7.32	6.64
	강남구	6.35	6.18	5.51	6.70	6.94	6.42
	송파구	7.06	7.63	6.49	7.10	7.13	6.95
	강동구	6.86	7.07	6.14	7.08	7.13	6.86

주)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4. 계층이동 가능성

개념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정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에게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점)

구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격차 (점)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2015년		25.7	41.9	32.4	5.15	17.7	35.6	46.6	5.91	(0.76)
2016년		25.7	42.3	32.0	5.12	17.4	35.7	46.9	5.92	(0.80)
2017년		25.3	45.0	29.7	5.08	17.5	38.4	44.1	5.80	(0.72)
2018년		27.7	48.4	24.0	4.80	-	-	-	-	-
2019년		32.0	45.1	22.9	4.72	28.7	41.6	29.7	4.96	(0.24)
2020년		36.9	45.9	17.2	4.38	26.2	47.8	26.0	4.92	(0.54)
2021년		32.9	49.8	17.3	4.46	24.2	52.6	23.3	4.88	(0.42)
2022년		25.3	46.8	27.9	5.07	20.8	38.1	41.1	5.59	(0.52)
연령 별	10대	18.5	40.9	40.6	5.58	15.5	36.1	48.4	5.92	(0.34)
	20대	20.6	45.8	33.6	5.40	19.3	39.0	41.7	5.67	(0.27)
	30대	23.6	44.7	31.7	5.22	20.9	34.3	44.8	5.69	(0.47)
	40대	22.7	49.2	28.1	5.17	20.3	36.8	42.9	5.67	(0.49)
	50대	26.2	48.8	25.0	4.96	20.1	39.6	40.3	5.57	(0.61)
	60세 이상	31.3	47.0	21.7	4.69	23.3	40.0	36.8	5.38	(0.69)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31.7	43.9	24.5	4.71	22.6	37.0	40.4	5.48	(0.77)
	고등학교	28.3	46.3	25.5	4.91	21.6	38.9	39.4	5.52	(0.60)
	전문대학/대학교	22.7	47.8	29.4	5.19	20.0	38.2	41.8	5.64	(0.44)
	대학원 이상	19.1	38.6	42.3	5.80	20.2	23.4	56.3	6.04	(0.24)
소득 별	200만원 미만	36.1	45.3	18.6	4.42	28.7	39.9	31.5	5.05	(0.63)
	200~300만원 미만	28.1	43.0	29.0	4.99	21.4	38.0	40.6	5.54	(0.55)
	300~400만원 미만	24.0	46.2	29.8	5.15	21.3	39.8	38.9	5.53	(0.37)
	400~500만원 미만	24.0	45.7	30.3	5.21	20.5	36.6	42.9	5.66	(0.45)
	500만원 이상	23.6	48.5	27.9	5.13	19.3	37.7	43.0	5.69	(0.56)
권 역 별	도심권	24.8	46.4	28.8	5.10	21.6	41.9	36.5	5.40	(0.30)
	동북권	23.0	41.1	35.9	5.39	19.1	32.6	48.3	5.92	(0.53)
	서북권	27.8	37.1	35.1	5.13	24.7	36.4	38.8	5.38	(0.24)
	서남권	29.5	52.7	17.7	4.63	23.6	41.9	34.5	5.27	(0.64)
	동남권	21.0	52.4	26.6	5.18	16.7	40.7	42.6	5.73	(0.55)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다 10점, 매우 낮다 0점

2) 2018년: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비조사

5. 미래 불안 요인

개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해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에게 현재 대비 5년 후 위험 정도 및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가구원조사

주: 1) '현재 대비 5년 후 위험 정도': 시민조사
2) '미래 불안 요인':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4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현재 대비 5년 후 위험 정도]

(단위: %, 10점 만점)

구분		현재 대비 5년 후 위험 정도			평균(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위험이 줄어 들 것이다	
2020년		47.0	40.2	12.8	6.06
2021년		39.7	45.2	15.1	5.71
2022년		37.4	51.0	11.6	5.83
연령별	20대 이하	42.1	47.9	10.0	6.00
	30대	37.7	50.9	11.4	5.89
	40대	34.1	51.4	14.5	5.65
	50대	37.0	53.0	10.0	5.90
	60세 이상	35.7	52.1	12.2	5.73
권역별	도심권	30.7	50.3	19.0	5.54
	동북권	42.4	46.1	11.5	6.00
	서북권	37.7	51.0	11.3	5.74
	서남권	34.0	51.8	14.2	5.65
	동남권	36.4	57.4	6.3	5.97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커질 것이다 10점, 많이 줄어든 것이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부록3]

2022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가구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만 15세 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 내 삶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2007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은 빠짐없이 설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6188-6011
------	---------------	------	-------------------------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번호	
조 사 일 시	202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부터 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기타(오피스텔, 주택 이외 거처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기집 ② 전세(월세임용)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시골세 ⑥ 무상(관사, 사택 등)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국적 (보기4참조)	등록 장애인 여부 (보기5참조)	다문화 가정 여부 (보기6참조)	면접여부 (보기7참조)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년							
02			①남 ②여	년							
03			①남 ②여	년							
04			①남 ②여	년							
05			①남 ②여	년							
06			①남 ②여	년							
07			①남 ②여	년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07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국적	(보기6) 다문화가정 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 (정인, 정모, 사후)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_____)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천도교 ⑦ 대순진리회 ⑧ 대종교 ⑨ 기타(_____) ⑩ 없음	① 대한민국 ② 대한민국 외 (보기5) 등록장애인 여부 ① 장애인 ② 장애인 아님	① 다문화가정 ② 다문화가정 아님 (보기7) 면접 여부 ① 조사원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장기 출장/부재 ④ 타 지역거주 ⑤ 기타

문1. 귀하는 다음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문2. 현재 귀택의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용, 교육수준,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9
1) 공교육 환경					
2) 사교육 환경					

문3. 귀택에는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② 없다 = (문4로)

문3-1. (문3의 ① 응답자만) 귀택의 미취학 아동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택에서 하고 있는 주된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된 보육방법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 구분	출생년도	성별	3-1-1. 주된 보육방법 (보기1)	3-1-2. 하루 평균 돌봄시간 (보기2)	3-1-3.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3-1-4.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 남 ② 여		시간		
2	년	① 남 ② 여		시간		
3	년	① 남 ② 여		시간		
4	년	① 남 ② 여		시간		

문3-1-1. (보기1) 주된 보육방법

-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 아동 보육방법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3-1-3. (보기2) 시설 유형	문3-1-4.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재민 ④ 가정어린이집 ⑤ 직장 ⑥ 풀타임 육아 (풀타임공동체, 공동육아방 등) ⑦ 시간제돌봄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시간제 서비스, 키즈카페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3-2. (문3의 ① 응답자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돌봄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문4. 귀택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1로) ② 없다 = (문5로)

문4-1. (문4의 ① 응답자만) 귀택의 반려동물은 주로 어떤 경로로 취득하셨습니까?

- ① 동물판매업소(애견판매업소, 동물병원 등)
②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
③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
④ 인터넷을 통해 구입
⑤ 유기동물 입양
⑥ 원래 기르던 동물이 낳은 새끼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4-2. (문4의 ① 응답자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별 마리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개 ()마리
② 고양이 ()마리
③ 기타 ()마리

문5. 귀택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 ① 아내가 전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 해당(1인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문6. 귀택에는 부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6-1로)
② 없다 = (문7로)

문6-1. (문6의 ① 응답자만) 귀택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주주택 마련 ②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③ 전(월)세 보증금 마련 ④ 증권투자금 마련
⑤ 부채상환 ⑥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마련
⑦ 결혼자금 마련 ⑧ 의료비 마련
⑨ 교육비 마련 ⑩ 생활비 마련
⑪ 기타(구체적으로:)

문7. (1인 가구인 경우 응답) 귀하는 혼자 산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개월)

문8. (1인 가구인 경우 응답) 귀하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식사해결
- ② 가사 및 집안 일 처리
- ③ 아플 때, 응급상황 대처
- ④ 이사, 집(병) 구하기 등 주거활동
- ⑤ 문화·여가활동
- ⑥ 공공업무(관공서, 은행 업무 등) 처리
-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⑧ 불편한 점이 없음

문9. 귀책에서는 현재 자전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보유하신 자전거의 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일반 자전거	()대
② 전기 자전거	()대
③ 기타()	()대
④ 보유하지 않음	

전기 자전거 :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가.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사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응답가구특성 문항 ※

AQ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21.9.1.~2022.8.31.)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구성원의 모든 수입(임대료, 이자수입, 연금 등)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50만원 미만
- ② 5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250만원 미만
- ⑥ 250~300만원 미만
- ⑦ 300~350만원 미만
- ⑧ 350~400만원 미만
- ⑨ 400~450만원 미만
- ⑩ 450~500만원 미만
- ⑪ 500~550만원 미만
- ⑫ 550~600만원 미만
- ⑬ 600~650만원 미만
- ⑭ 650~700만원 미만
- ⑮ 700~750만원 미만
- ⑯ 750~800만원 미만
- ⑰ 800~850만원 미만
- ⑱ 850~900만원 미만
- ⑲ 900~950만원 미만
- ⑳ 950~1,000만원 미만
- ㉑ 1,000만원 이상()만원



승인번호
제 201011 호

202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 - 가구원용)



서울특별시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가구원 코드	출생년도	성 명
	□□□□□	□□□-□□□	□□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터리서치 02-6188-6011	

■ 환경

문1. 귀하는 아래의 사항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음	실천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실천	항상 실천
1	2	3	4	5

1) 승용차 대신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	
2) 재활용, 새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노력	
3)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4) 텀블러 휴대하기	

문2. 환경보전을 위해 다음 과제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불필요	조금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1	2	3	4	5

1) 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건설	
2) 미세먼지 저감	
3) 방음벽/방음시설 확충	
4)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5) 화석연료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문3. 아래 현상들에 귀하가 체감한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1) 이상기온(폭염/한파 등)	
2) 폭우 및 폭설	
3) 가뭄	

문4. 귀하는 귀하가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걸어서 15분 거리)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주거와 생활

문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서로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	

문6. 지난 1년간 귀하는 상품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셨습니다?
방문구매 하셨다면, 물품 종류별로 주로 구매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온라인 구매 : 인터넷, TV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이 포함

	구매 유형	방문장소 유형 [보기 1]
1) 생활용품 및 식료품	① 구매인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의류 및 집화	① 구매인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내구재(가구, 가전 등)	① 구매인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기 1]

① 전통시장	② 동네슈퍼
③ 기업형슈퍼마켓	④ 대형할인매장/아웃렛
⑤ 백화점	⑥ 전문점
⑦ 편의점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안전

문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1)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				
2) 감염병(코로나, 사스,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등)				
3) 안전사고(화재, 폭발사고, 붕괴사고, 땅꺼짐(빙크출) 등)				
4) 폭력 범죄(성폭력, 학교폭력, 강도, 유괴, 폭행 및 살해 등)				
5)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유출 문제				
6) 인터넷상의 괴롭힘(모욕, 따돌림, 헐뜯, 명예훼손 등)				
7) 경제위기(금융위기 등)				
8) 실업				
9) 사회 갈등(빈부격차, 불평등, 세대갈등 등)				
10) 부정부패				
11)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및 학대				

■ 교통

문8.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이용하지 않음
1	2	3	4	5	9
1)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4) 시외버스/고속버스					

문8-1. 서울의 교통수단이 교통약자(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9.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3) 밤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보행 만족 정도				

문10.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 ① 통학을 한다 ➡ (문10-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10-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11로)

문10-1. (문10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구)
④ 다른 시도 ➡ (시도)

문10-2. (문10의 ①, ②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⑬ 기타(구체적으로:)

문10-3. (문10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출근/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편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출근/등교시간 : 시간 분

문10-4. (문10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11. 귀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십니까? 이용하고 계신다면,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학/통근
② 대중교통 환승
③ 근거리 교통수단
④ 레저용
⑤ 기타(구체적으로:)
⑥ 이용하지 않음 ➡ (문12로)

문11-1. (문11의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 일까요?

- ① 개인 소유 자전거 ② 공공 자전거(따릉이)
③ 민간 대여 자전거(카카오 바이크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문11-2. (문11의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빈도와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용 빈도는 편하신 단위를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하루
② 1주일
③ 한 달
④ 6개월
⑤ 1년
- (평균 _____회, 1회 평균 _____분)

■ 문화와 여가

문12. 귀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문화시설				
2) 문화프로그램				
3) 문화비용				

문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항목별 연간 관람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본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없으면 0회 표시)
(비용은 음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하며, 무료로 관람(입장)한 경우 관람횟수에는 포함되며 비용은 제외됨.)

항목	연간 관람횟수		연간 총 비용
	온라인	오프라인	
1) 전통예술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회	회	원
2)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클래식, 오페라, 발레 등)	회	회	원
3)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회	회	원
4) 영화 관람	회	회	원
5) 전시회 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회	회	원
6) 박물관 관람	회	회	원
7) 대중공연 관람 (쇼, 콘서트, 마술 쇼 등)	회	회	원
8) 운동 경기 관람 (e스포츠 관람 포함)	회	회	원

문14. 귀하는 어떤 여가활동을 하십니까? 평일과 주말/휴일을 구분하여 주로 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여가	1순위	2순위
1) 평일		
2) 주말/휴일		

희망 여가	1순위	2순위
1) 평일		
2) 주말/휴일		

- ① TV/IPTV 또는 PC, 모바일 대체를 통한 영상 시청
② 문화예술공연(연극, 영화, 연주회 등)
③ 문화예술참여활동(미술, 악기연주, 연극 등)
④ 운동 경기 관람
⑤ 운동(축구, 테니스, 조깅 등)
⑥ 여행, 야외 놀이
⑦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⑧ 사회활동(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⑨ 종교활동
⑩ 독서
⑪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 타 보기 중복응답 불가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5. 귀하는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서
②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④ 직장 동료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 활동을 통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6.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 건강

문17.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② 느끼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느낀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느꼈다
- ➡ (문18로)
➡ (문17-1로)

문17-1. (문17의 ③, ④, ⑤번 응답자만)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요인: _____), (둘째 요인: _____)

- ① 건강상태(본인 혹은 가족)
② 재정상태
③ 가족, 친구와의 관계
④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⑤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⑥ 실업
⑦ 가족 질병, 가사노동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8.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 사회참여

문19.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19-1로) ② 아니오 ➡ (문20으로)

문19-1. (문19의 ①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으
시다면, 다음 각 분야별로 연간 참여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 환경보전과 보호분야(마을정소, 쓰레기 줍기 등)	회
2)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회
3) 재능나눔,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	회
4)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재해지역 자원봉사 등)	회
5) 자녀교육 관련 분야 (일일교사, 교동지도, 급식보조 등)	회
6) 국제사회 관련 분야(해외자원봉사 등)	회
7) 기타(구체적으로:)	회

문20. 귀하는 지난 1년간 행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②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방송사, 신문사 등)
③ 모금 단체(기관)를 통한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④ 물품 후원 단체를 통한 후원(푸드뱅크, 아름다운 가게 등)
⑤ 종교 단체를 통한 후원(복합 헌금, 구제 헌금 등)
⑥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⑦ 기타(구체적으로:)
⑧ 기부한 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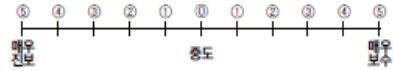
문2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보기의 항목 중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있다	없다
1) 민원제안 및 제기(정보공개 청구 등)	①	②
2)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시장 페이스북, 트윗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①	②
3) 서울시 정책토론회 참여 (시민대토론회, 정책토론회, 타운홀미팅 등)	①	②
4) 정책제안	①	②
5) 집회/시위 참가	①	②

문2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친목회/친목계 ② 동창회/동창모임
③ 지역모임/창후회/중친회 ④ 온라인 커뮤니티
⑤ 동호회 ⑥ 자원봉사단체
⑦ 시민단체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⑨ 정당 ⑩ 종교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문23.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후생활

문24.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준비하고 있다 ➡ (문24-1로)
② 준비하고 있지 않다 ➡ (문25로)

문24-1. (문24의 ① 응답자만)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②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⑤ 부동산투자
⑥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 활용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25. 귀하는 은퇴 후의 월 생활비는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가구 기준으로 응답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만원 이상

■ 사회통합

문26.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 ① 있다()명 ➡ (문26-1로)
② 없다 ➡ (문27로)

문26-1. (문26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1) 몸이 아플 때 보살피 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2)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4) 어린 자녀(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 해당

문27. 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함	별로 신뢰 안함	보통	다소 신뢰	매우 신뢰
1	2	3	4	5
1) 가족				
2) 친구				
3) 이웃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5) 국내 거주 외국인				
6) 공공 기관(서울시, 구청 등)				

문28.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문29.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30.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31.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3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	약간 공정한 편이다	매우 공정하다
1	2	3	4	5
1) 교육기회				
2) 취업기회				
3)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0) 병역 의무 이행				

문33.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3)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4)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5)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6) 우리 사회는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문34.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35. 귀하는 다음 각 사람들을 다음의 각 상황에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외국인 노동자	①	②	①	②	①	②
2) 장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3)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①	②	①	②
4) 난민	①	②	①	②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①	②	①	②

문36.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노키즈존: 식당 등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문37. 귀하의 가족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시오.

가 의 안 한 다	가 끔 한 다	자 주 한 다	항 상 한 다	해 당 사 항 없 음
1	2	3	4	5
1) 가족과의 식사				
2) 자녀 또는 부모님과의 대화				
3)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대화				
4) 부부, 형제, 남매, 자매간 가정 문제 상의				
5) 가족과의 여가 생활				

문38.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가 장 불 행 한 상 태	0	1	2	3	4	5	6	7	8	9	10	가 장 행 복 한 상 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1) 자신의 건강상태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게모임 등)												점

문39. 귀하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2	3	4	5
1)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2)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 응답자 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2, 3년제)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⑦ 대학원

출입 상태

① 출 입

② 재 학

③ 수 로

④ 휴 학

⑤ 중 퇴

DQ2. 귀하는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 년 ____ 개월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 : 약 ____ 년 ____ 개월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차기계 조직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학생
- ⑪ 주부
- ⑫ 무직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⑪, ⑬ 응답인 경우 설문 종료)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음)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나 임금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임금, 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 (④, ⑤, ⑥, ⑦ 응답인 경우 DQ3-2로 이동)

DQ3-1-1. (임금근로자만) 현재 다니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근무형태와 고용계약 형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보기
1) 근무형태	①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② 하루 4~8시간 미만 근무 ③ 하루 4시간 미만 근무 ④ 요일을 정해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근무 ⑥ 기타()
2) 고용계약 형태	① 정년이 있는 정규직 ②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③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④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유급 인턴 ⑤ 기타()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는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몇 시간씩 일하십니까?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 : _____ 시간 _____ 분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는 현재 업무(업종)를 얼마 동안 하고 있습니까?

평균 총사 기간 : 약 _____ 년 _____ 개월

DQ3-4.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DQ3-5. (직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2021.9.1.~2022.8.31.) 세금납부(공제)전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금융소득은 제외)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750만원 미만 ⑯ 750~800만원 미만
 ⑰ 800~850만원 미만 ⑱ 850~900만원 미만
 ⑲ 900~950만원 미만 ⑳ 950~1,000만원 미만
 ㉑ 1,000만원 이상()만원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표-시민조사)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만 15세 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안녕하십니까?

귀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조사결과를 내 삶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 15세 이상(2007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중 대표 가구원 한 분이 조사 대상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6188-6011
------	---------------	------	-------------------------

응답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번호		면접원 성명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년도	_____년	혼인상태
				① 기혼 ④ 별거 ② 미혼 ⑤ 사별 ③ 이혼 ⑥ 동거
조 사 일 시	202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부터 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기타(오피스텔, 주택)의 거처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기집 ② 전세(월세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관사, 사택 등)			

■ 주거와 환경

문1. 귀하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 ② 자신(혹은 자기 가족)과 타인을 구분해주는 공간
-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 ④ 근로 및 학습활동 공간
- ⑤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⑥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
- ⑧ 자녀를 양육하는 공간

■ 안전

문2. 귀하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이 매우 커졌다 ② 위험이 약간 커졌다
- ③ 5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줄었다
- ⑤ 위험이 많이 줄었다

문3. 현재와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경험할 위험의 정도가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다 ② 위험이 다소 커질 것이다
-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위험이 약간 줄어든 것이다 ⑤ 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 정보와 활용

문4. 귀하께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디지털기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PC(데스크탑, 노트북) ➡ (문5로)
- ② 휴대전화 ➡ (문5로)
- ③ 스마트 피드(태블릿 PC, 아이패드, 갤럭시 탭, G패드 등) ➡ (문5로)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5로)
- ⑤ 이용하지 않음 ➡ (문4-1로)

문4-1. (문4의 ⑤ 응답자만) 디지털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한 번도 이용해본 적 없음
- ② 지난 1년 이상
- ③ 지난 3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④ 지난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⑤ 지난 1개월 미만

문4-2. (문4의 ⑤ 응답자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용방법을 몰라서
- ② 관심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③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서
- ④ 이용할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없어서
- 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서)
- ⑥ 신체적 제약(노안, 거동불편, 신체장애 등) 때문에 이용이 어려워서
- ⑦ 이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 ⑧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 ⑨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구)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아서
- ⑩ 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우려
-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문6으로)

문5. (문4의 ①, ②, ③, ④ 응답자만)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디지털기기(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이용 빈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한다
1	2	3	4
1) 생활정보 서비스(날씨, 뉴스, 버스 및 지하철 도착 정보, 정류장 및 역 정보, 길찾기 등)			
2) 전자상거래 서비스(온라인 쇼핑, 예약, 예매 등)			
3) 금융거래 서비스(인터넷 뱅킹, 계좌 확인, 이체 및 송금, 증권거래 등)			
4) 공공 서비스(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세금/공과금 조회 및 납부 등 교통·안전·직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메일, SNS, 메신저 등)			
6) 여가 서비스(영화,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책 등)			
7) 교육학습 서비스(온라인 교육, 각종 강좌 강의 수강 등)			
8) 모바일 결제(각종 페이, 앱 카드 등)			

문6.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평균 이용 빈도와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횟수와 이용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 경우 0회, 0분 입력)

※ SNS는 특정관심사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카카오톡, 라인, 포털, 문자는 제외)

- ① 하루
- ② 1주일
- ③ 한 달 (평균 _____ 회, 1회 평균 _____ 분)
- ④ 6개월
- ⑤ 1년

문7. SNS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				
2) SNS를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3) SNS의 사용은 정치사회문제 참여도를 높인다				
4) SNS로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을 받는다				
5) 내가 SNS에 게시한 글,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신경쓰인다				

문8. 일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2)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3)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가치와 의식

문9. 다음은 결혼에 관한 다양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동거를 결혼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4)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 지역균형발전

문15. 아래 보기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여러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보기 중 어떤 방향과 가장 가까운지요?

- ① 대규모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형성하여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
- ② 쇠퇴한 산(상)업, 역사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재생하는 방향
- ③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주거지를 재생하는 방향
- ④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향

문16. 귀하께서는 귀하가 사는 집 주변의 하천을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방문하시나요?

- ① 방문하지 않음 → (문17로)
- ② 5회 이하
- ③ 6회 ~ 10회
- ④ 11회 ~ 15회 → (문16-1로)
- ⑤ 16회 ~ 20회
- ⑥ 거의 매일 방문

문16-1. (문16의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는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하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2) 하천 접근성				

문16-2. (문16의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천을 방문하십니까?

- ① 산책, 운동, 문화 활동, 자동차 극장 등 하천 공간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
- ② 주변 지역의 카페, 음식점 등 이용 후 자연스럽게 방문
- ③ 인근 버스정거장, 지하철역, 타 지역 등으로의 이동이나 귀가를 위해 경유
- ④ 특별한 이용목적이나 동기 없이 그냥 방문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6-3. (문16의 ②,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께서 하천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걷기, 산책
- ② 친목, 취식(커피 등)
- ③ 관찰, 체험, 캠페인
- ④ 자전거 타기
- ⑤ 달리기, 체조 등 맨손 운동
- ⑥ 공연, 문화행사 관람
- ⑦ 축구, 농구, 테니스 등 스포츠
- ⑧ 물놀이, 발담그기
- ⑨ 반려동물 산책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7. 귀하께서는 도시 수자원으로서 하수 재처리수, 유출 지하수, 빗물 등의 물 재생 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②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
- ③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④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 중장년 1인가구

문18.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개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주거 복지 지원
- ② 일자리 관련 지원
- ③ 건강 관련 지원
- ④ 생활비 지원
- ⑤ 문화예술 관련 지원
- ⑥ 사회적 고립 관련 지원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돌봄 수당

문19. 서울시는 '엄마야바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돌봄수당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0세부터 3세까지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년간 매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돌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 ①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지지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지지한다

※ 응답자 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2, 3년제)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⑦ 대학원

출입 상태

- ① 출 입
- ② 재 학
- ③ 수 료
- ④ 휴 학
- ⑤ 중 퇴

DQ2. 귀하는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시요.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_ 년 _____ 개월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 : 약 _____ 년 _____ 개월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학생
- ⑪ 주부
- ⑫ 무직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⑪, ⑫ 응답인 경우 DQ4로)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 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서베이-외국인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조사원코드
	□□□□	□□□-□□□	□□□

안녕하십니까?

귀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서베이(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조사 결과는 내 삶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외국인조사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 6188-6011
1. 귀하의 국적은? (국가명 기재)		2. 현재 한국 체류 자격은?	
① 한국계중국인 ② 중국 ③ 일본 ④ 타이완 ⑤ 베트남 ⑥ 아시아 기타 ⑦ 미국 ⑧ 영미권 기타 ⑨ 유럽권 ⑩ 기타(위 보기 제외 지역)		① 방문취업(H2) ② 전문인력(E1-E7) ③ 유학(D2, D4) ④ 방문동거/거주/동반(F1-F3) ⑤ 재외동포(F4) ⑥ 영주자(F5) ⑦ 결혼이민자(F6) ⑧ 기타	
3. 출생년도: _____년		4. 한국 체류기간: _____년 _____개월	
② 2003년 이전 출생만 조사 진행 ③ 91일 이상만 조사 진행			
5. 귀하의 주택형태는?		7. 성별 : ① 남 ② 여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오피스텔 ⑥ 일터, 고시원, 쉼터 ⑦ 기타(주택 이외 거주 등)			
6. 귀하의 주거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보증금 () 만원 월세 () 만원			
응답자 성명	연락처	조사 장소	① 자택 ② 직장 : _____구 면접일시 월 일

■ 서울에서의 삶

문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매우 잘함은 5점, 매우 미숙은 1점으로 하여 한국어 실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미숙	미숙	보통	잘함	매우 잘함
1-----2-----3-----4-----5				
1) 말하기				
2) 읽기				
3) 쓰기				
4) 듣기				

문2. 한국에 입국 전 귀하는 서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② 잘 모르고 있었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문2-1. [문 2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서울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습니까?

- ① 인터넷(SNS, 동영상 등)
 ② 한국을 다녀온 가족, 친척, 친구
 ③ 모국에서의 대학 혹은 중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④ 안내책자, 안내행사 등을 통해
 ⑤ 모국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 무역관 등을 통해
 ⑥ 기타(구체적으로 :)

문3. 귀하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하여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3-----4-----5				
1)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3)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4)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5)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6)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문4.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 중 단기 혹은 장기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하는 서울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 ①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②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추천하고 싶다 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문5. 서울에 거주하면서 귀하는 다음 사항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9

1) 언어문제	
2) 자녀 양육 및 교육	
3)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4) 음식	
5)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6) 경제 활동 기회 획득	
7)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8)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9)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10) 의료 기관 이용	
11) 주택 등 주거 공간	
12)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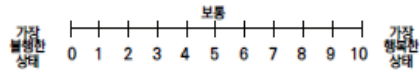
문6.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도시이다	
2) 서울은 다문화에 대한 포용 도시이다	
3) 서울은 트렌디한 문화를 추구하는 도시이다	
4) 서울은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5) 서울은 국제도시이다	
6) 서울은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이 있다	
7) 서울은 미래지향적 도시이다	

■ 행복지수

문7. 서울에 살면서 귀하는 다음의 영역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생활 등)	

■ 서울의 물가 수준

문8. 귀하 출신국가의 물가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 문화시설 이용

문9.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이용하신 문화시설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미술전시회, 미술관 ② 박물관
- ③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④ 대중음악 콘서트장
- ⑤ 영화관 ⑥ 운동 경기 관람
- ⑦ 전통공연(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마당놀이, 고전 무용 등)
- ⑧ 서울에 위치한 전통 문화 공간
(고궁, 북촌마을, 한옥마을, 인사동, 선사유적지 등)

■ 건강 관련

문10. 서울에 거주하면서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11. 귀하가 아플 때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병원/의원(한의원) ②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 ③ 보건소 ④ 병원/의원 처방 없이 약국 이용
- ⑤ 그냥 참는다 ➡ (문12로)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11-1. 그 곳을 이용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의사소통이 어렵다 ②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 ③ 비용이 많이 든다 ④ 거리가 멀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12. 귀하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장가입 건강보험 ② 지역가입 건강보험
- ③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 ④ 개인 의료보험
- ⑤ 아무것도 없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코로나19

문13.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상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후 변화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보기
① 임금근로자	① 임금 증가 ② 임금감소 ③ 휴직 ④ 해고 ⑤ 변화없음
② 비임금근로자	① 매출 증가 ② 영업시간 단축/휴업 및 매출감소 ③ 폐업 ④ 변화없음
③ 해당 없음	

■ 지역사회 소속감

문14. 최근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 관련하여 내국인(국민)과 비교할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3-----4-----5				
1) 서로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				

문16. 다음은 소속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1-----2-----3-----4-----5				
1) 거주하는 국가 (한국)				
2) 거주하는 지역 (서울시)				
3) 거주하는 동네				
4) 출신국 (태어난 국가)				

■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문17. 귀하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은 다음 중 어떤 것
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결혼이민자 모임 ② 한국다문화센터 모임
③ 외국인노동자 모임 ④ 유학생 네트워크
⑤ 종교 모임 ⑥ 취미관련 동호회
⑦ 학습 관련 모임 ⑧ 봉사활동
⑨ 모국인 친구 모임 ⑩ 모국인 사회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⑫ 참여하는 모임 없음

문18. 귀하가 서울에 살면서 다음의 문제에 처했을 때 귀하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상이 아닌
실제 경험에 비춰 답해주시십시오.

1) 감정적, 심리적 문제	
2) 건강 문제	
3) 금전적 문제	
4) 취업/창업 문제	

- 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② 모국인 친구 또는 친척
③ 한국인 친구 또는 친척 ④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⑤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⑥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⑦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⑧ 서울시 외국인지원기관(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⑨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
⑩ 해당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문19.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선택지, 이용 경험 있는 경우만 응답)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3-----4-----5				
기관명	이용경험	만족도		
1) 서남권글로벌센터	① 있다 ② 없다			
2)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있다 ② 없다			
3) 글로벌 빌리지센터	① 있다 ② 없다			
4) 외국인노동자센터	① 있다 ② 없다			
5) 서울 글로벌센터	① 있다 ② 없다			
6)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7) 이주노동자 센터	① 있다 ② 없다			
8)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① 있다 ② 없다			
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0) 다누리콜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1)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2)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① 동토 등 모국인들이 많은 곳 ② 교통이 편리한 곳
③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 ④ 직장과 가까운 곳
⑤ 자녀교육환경이 좋은 곳 ⑥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
⑦ 기타 (구체적으로 :)

※ 응답자 특성 문항 ※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학생(DQ4로) |
| ⑪ 주부(DQ4로) | ⑫ 무직(DQ4로) |
| ⑬ 기타(구체적으로 :) | |

DQ2.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음)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나 일용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일급, 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DQ3. 귀하의 월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융소득은 제외)

- | | |
|-------------------|------------------|
| ① 50만원 미만 | ② 50~100만원 미만 |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 ⑤ 200~250만원 미만 | ⑥ 250~300만원 미만 |
| ⑦ 300~350만원 미만 | ⑧ 350~400만원 미만 |
| ⑨ 400~450만원 미만 | ⑩ 450~500만원 미만 |
| ⑪ 500~550만원 미만 | ⑫ 550~600만원 미만 |
| ⑬ 600~650만원 미만 | ⑭ 650~700만원 미만 |
| ⑮ 700~750만원 미만 | ⑯ 750~800만원 미만 |
| ⑰ 800~850만원 미만 | ⑱ 850~900만원 미만 |
| ⑲ 900~950만원 미만 | ⑳ 950~1,000만원 미만 |
| ㉑ 1,000만원 이상()만원 | |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출입 상태
 ① 출 입
 ② 재 학
 ③ 수 료
 ④ 휴 학
 ⑤ 중 퇴 </div> |
| ② 초등학교 | |
| ③ 중학교 | |
| ④ 고등학교 | |
| ⑤ 대학교(2,3년제) | |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
| ⑦ 대학원 석사 과정 | |
| ⑧ 대학원 박사 과정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2년 기준)

발행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02-2133-4365)	
제작	디지털정책관	박진영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통계조사팀장	조수정
	통계조사팀	최성용
	통계조사팀	전연욱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16-10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